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672-01
연구보고	2015-52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설동훈·한건수·이승미·심경섭

2015. 12



본 보고서는 한국이민학회(연구책임자: 설동훈)에서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이 과제는 여성가족부의 용역과제임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672-01
연구보고	2015-52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2015.12

연구수행기관: **한국이민학회, 한국리서치**

연구책임자: **설 동 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한 건 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 승 미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심 경 섭 (한국리서치 차장)

연구조원: **고재훈** (전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현수 (우석대 전임연구원)

권성욱 (한국리서치 대리)

심지연 (한국리서치 대리)

이희영 (한국리서치 팀장)

조병록 (한국리서치 차장)

김준영 (전북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이규태 (한국리서치 과장)

김남연 (한국리서치 연구원)

장희숙 (한국리서치 수석팀장)

김수진 (한국리서치 사원)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Government Publications Registration Number	11-1383000-000672-01
Research Report	2015-52

Survey of Customers and Victims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in Korea 2015

Principal Investigator: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vestigators: Geon-Soo H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ung-Mi Lee (Woosuk University)

Kyoungsub Shim (Hankook Research)

December 23, 2015



209 Sejong-daero, Jongno-gu, Seoul, 03171, Republic of Korea

제출문

여성가족부의 2015년도 연구용역사업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12·23

연구수행기관: **한국이민학회, 한국리서치**

연구책임자: **설 동 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한 건 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 승 미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심 경 섭 (한국리서치 차장)

연 구 조 원: **고재훈** (전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현수 (우석대 전임연구원)

권성욱 (한국리서치 대리)

심지연 (한국리서치 대리)

이희영 (한국리서치 팀장)

조병록 (한국리서치 차장)

김준영 (전북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이규태 (한국리서치 과장)

김남연 (한국리서치 연구원)

장희숙 (한국리서치 수석팀장)

김수진 (한국리서치 사원)

감사의 글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질문지를 개발하고, 조사를 진행하며, 연구보고서 초고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해주신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송혜림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성미애 교수,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태석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신규 전임연구원,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순영 박사, 국제결혼피해센터 김형하 조사국장, 안재성 대표께 감사드린다. 국제결혼피해센터에서는 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다.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익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익산 서형순 팀장, 남원 송춘 팀장, 전주 김동준 팀장, 김제 김은경 팀장께 깊이 감사드린다. 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차유미 선생, 우석대학교 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양소목 선생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응해주신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자, 미성혼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2015·12·23

설 동 훈

요약문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설동훈·한건수·이승미·심경섭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실태를 파악하며,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피해 여부, 서비스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당사자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개업체와 중개업체를 통한 성혼자 중 현재 혼인지속자가 응답자의 다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도 표본 수가 적었다. 중요한 정책 대상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가 미흡한 상황인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중 미성혼자와 혼인중단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내용과 범위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의 조사대상 집단은 ① 한국인 남성 이용자, ② 이민자 여성 이용자, ③ 미성혼자(한국인 남성), ④ 피해자이며,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연구와 심층면접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용자(한국인 남성 + 이민자 여성)와 미성혼자 조사는 표본조사연구와 심층면접을 모두 시행하였고, 피해자 조사는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이용자 조사’는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개업체 서비스 내용 및 부실여부, 혼인 중단 원인, 계약 유지(또는 해지)사유,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 조사는 각각 질문지를 개

발하였다.

구체적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한국인 남성과 이민자 여성 조사는 혼인신고 시기,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갈등, 결혼과정, 업체와의 계약과정, 예비배우자 정보 제공, 업체이용 비용, 맞선으로 방문한 국가, 집단맞선, 부당행위 경험, 사후 서비스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체 만족 및 불만족 사항,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 결혼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 등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혼인중단자 조사의 경우, 혼인중단 사유에 중개업체 요인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요인, 배우자 요인, 기타 가족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용 질문지는 한국어로 된 것뿐 아니라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타갈로그)로 번역한 것을 조사에 사용하였다.

미성혼자 조사는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였으나, 성혼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국제결혼 진행 중단 단계, 중단 사유, 그 후 결혼 여부, 향후 국제결혼 추진 계획 등 신상정보와 더불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외국 현지 맞선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등이다.

표본조사연구와 심층면접의 질문 항목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선택지에서 고르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후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는 형태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해자 조사’는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인 남성 이용자, 이민자 여성 이용자, 미성혼자 중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주요 항목은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회비징수, 부부간 갈등, 결혼중개 개선방향 등이다.

3. 연구방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의 조사대상집단은 ①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을 통해 혼인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혼인이 중단된 한국인 남성(이하 ‘혼인중단 남성’), ②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혼인이 중단된 이민 여성(이하 ‘혼인중단 이민여성’), ③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였음에도 성혼되지 못한 한국인 남성(이하 ‘미성혼 남성’)이다. 이용자 조사는 이 세 집단을 모두 포괄하고, 피해자 조사는 그 중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세 조사에서 모두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를 허용하였다. 또한, 미성혼 남성과 혼인중단 남성 조사 시에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인중단 이민여성의 경우는 명부를 입수가 어려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약속을 잡아 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응답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설문지를 유치해 조사를 진행하고, 설문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유치조사도 병행하였다.

2014년 국제결혼 중개 실태조사의 이용자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이용자 설문 참여자 중 혼인중단자인 97명을 1차 목표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59명의 응답을 받았다. 혼인중단 남성 설문 응답자는 51명, 미성혼 남성 설문 응답자는 8명이었다. 2014년 조사 응답자 중 미성혼 남성 설문에 응답한 경우는 현지에서 결혼까지 하였으나,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함께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조사 당시 혼인 유지자 712명을 대상으로 혼인상태 변동을 조사하였다. 그 중 혼인이 중단되어 2015년 조사에 응한 사람 수는 17명이다. 혼인상태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다수 있었고, 혼인상태 질문에 응답을 거부한 사람도 몇몇 있었다.

심층면접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보되었다. 첫째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연구에 응답한 사람들 중 심층면접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거주지 별로 연구자들이 연락하여 만났다. 둘째,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심층면접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소개 받았다. 셋째, 심층면접 과정에서 피면접자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을 포함했다. 넷째 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으나 혼인이 중단된 사례를 추천받았다. 심층면접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남성 이용자, 여성 이용자, 미성혼자) 중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사람은, 이용자 조사와 아울러 피해자 조사 관련 항목도 조사하였다.

II. 혼인중단 남성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기본 특성

혼인중단 남성의 혼인상태는 이혼 56.1%, 별거 20.7%, 가출 23.1%이고, 연령

구성은 39세 이하 19.0%, 40-49세 57.8%, 50세 이상 23.1%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10.4%, 고등학교 53.7%, 대학교 이상 35.9%,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 62.7%, 비임금근로자 28.7%, 미취업자 8.7%,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 이하 18.1%, 200-299만원 35.7%, 300-399만원 20.5%, 400만원 이상 14.2, 미취업자와 무응답자 11.6%이다. 배우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61.4%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10.8%, 필리핀 8.2%, 캄보디아 4.8%, 우즈베키스탄 6.5%, 기타 나라 8.2%이다.

2.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 여부는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73.0%로 가장 높으며, ‘나만 이용했다’(23.1%),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3.4%), ‘배우자만 이용했다’(0.5%) 순이다. 배우자와의 갈등의 경우 ‘무단 가출·외출제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가장 높으며, ‘의사소통문제’(47.0%),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45.1%), ‘부부간 성 생활 문제’(34.9%),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32.8%) 등의 순이다. 혼인이 중단된 가장 중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배우자의 외도’라는 응답 비율이 25.5%로 가장 높고,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25.3%), ‘문화 차이’(24.3%) 순이다. 혼인중단 남성의 혼인 지속기간은 평균 21.3개월이며, ‘1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50.6%로 가장 높다.

3.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은 ‘2011-2013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49.4%로 가장 높고 ‘2010년 이전’(33.5%), ‘2014-2015년’(16.9%) 순이다.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된 통로는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46.5%로 가장 높으며, ‘인터넷 홈페이지’(29.2%),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13.0%) 순으로 높다. 반면 ‘종교기관’이라는 응답 비율은 0.5%로 가장 낮으며, ‘신문·잡지 광고’(4.3%),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 등’(4.6%)의 순으로 낮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로는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이 40.2%로 가장 높고,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이 39.5%로 높다.

계약 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65.8%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46.3%), 해약·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46.0%),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38.8%)의 순이다.

2010년 5월 17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1호)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신상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그것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결과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중 나이(70.6%), 가족관계(61.9%), 혼인경력(58.%), 학력(54.0%), 건강상태(50.6%) 등을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16.9%), 재산(17.1%), 범죄경력(24.8%)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낮다.

제공받은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불일치하는지 여부는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45.8%로 높지만 ‘있었다는’ 응답 비율 역시 40.0%로 높다. 달랐던 정보로는 ‘혼인 경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학력(25.3%), 가족관계(24.7%) 순이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중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순으로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던 것과 비교했을 때, 나이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제공받은 통역인의 실력은 ‘우수(우수+매우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35.7%로 ‘미흡(매우미흡+미흡)’(25.1%)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또 제공된 통역·번역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는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되었다+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61.4%로 높다.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은 ‘중개료 총액’은 평균 13,768,000원이고, 이 중 ‘행사비용’은 평균 11,255,000원, ‘중개수수료’는 평균 2,718,000원이다. 행사비용 및 수수료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두 항목의 합이 총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4. 국제결혼 부부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계

혼인중단 남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66.5%로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2배가량 높다. 맞선을 위해 방문한 나라는 베트남이라는 응답 비율이 61.4%로 가장 높으며, 방문 회수는 평균 1.7회, 방문 시 체류기간은 평균 15.8일로 나타났다. 결혼 후 1년 간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아니오’라는 응답 비율이 77.1%로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5명 중 약 1명으로 사후관리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를 받은 방법으로는 ‘전화상담’이라는 응답 비율이 7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가정 직접방문’(44.2%) 순이다.

부당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라는 응답 비율이 62.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과장 광고를 했다'(40.7%),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38.8%),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32.0%),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28.7%),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28.4%) 등의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은 응답자의 73.5%는 '만족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7.7%로 가장 높고, '맞선이후의 서비스'(4.6%),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3.1%), '숙소제공'(2.9%) 순이다. 불만족했던 사항으로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29.4%로 가장 높고,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17.8%), '환불·손해배상'(9.4%), '약관·계약사항 설명'(5.3%) 순이다. '불만사항 없음'은 20.2%이다.

지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는 '추천할 의향이 없다(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89.9%로 10명 중 9명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1점, 적극 추천할 것이다 4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도 1.3점으로 매우 낮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1+2순위)으로는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62.9%로 가장 높고 '시간절약'(61.0%), '통역·번역 서비스'(19.0%),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18.6%), '원하는 이성선택'(14.9%) 순이다. '장점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4.1%였다.

5.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집단맞선 금지', '휴업·폐업 신고', '미성년자 소개 금지',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결혼 전 현지 사전 교육'의 총 7가지 국제결혼 피해예방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그 중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98.3%로 가장 높고 통역·번역 서비스(95.9%),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94.7%),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94.0%), 미성년자 소개 금지(93.7%), 휴업·폐업 신고(92.8%) 등의 순이다. 결혼 전 현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63.1%로 가장 낮고 집단맞선 금지(76.9%) 순으로 낮다.

정부의 국제결혼 규제 강화 또는 완화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규제 강화 찬성(강화 매우 찬성+강화 대체로 찬성)'라는 응답 비율이 68.0%로 '규

제 완화 찬성(완화 대체로 찬성+완화 매우 찬성)'(20.7%)보다 약 3배 이상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37.6%)과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36.6%)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2.5%),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3.9%), '단기 속성의 결혼문화 개선'(21.0%) 등의 순으로 높다.

Ⅲ. 혼인중단 이민여성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기본 특성

혼인중단 이민여성의 혼인상태는 이혼 73.6%, 별거·가출 26.4%이고, 연령 구성은 34세 이하 36.1%, 35세 이상 63.9%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56.9%, 고등학교 이상 43.1%이고,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 76.4%, 미취업자 23.6%이고, 월평균 임금 수준은 100만원 미만 26.4%, 100-400만원 45.8%, 미취업자와 무응답자 27.8%이다. 응답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47.2%, 기타 나라 52.8%로 조사되었다.

2.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혼인중단 여성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65.3%로 가장 높으며,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19.4%), '나만 이용했다'(13.9%), '배우자만 이용했다'(1.4%) 순이다. 혼인중단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나만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고,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였다.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52.8%로 가장 높고, '2005년 이전'(31.9%), '2011-2015년'(15.3%) 순이다.

당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는지 13가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 문제'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73.6%로 가장 높고,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70.8%), '자녀양육·교육 문제'(52.8%), '음주 문제'(48.6%), '나와 배우자 가족의 불화'(47.2%), '나의 취업 문제'(47.2%),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45.8%), '부부간 성 생활 문제'(44.4%) 순이다. 반면, '외도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15.3%로 가장 낮으며, '의처증 또는 의부증'(30.6%), '나의 가족 관련 사안' 및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각각 34.7%) 순으로 낮다. 혼인중단 여성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위해 맞선을 주선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없다'는 응답 비율이 81.9%로 높다.

3.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에 대한 정보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48.6%로 가장 높고, '2005년 이전'(36.1%), '2011-2015년'(15.3%) 순이다.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된 통로는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61.1%로 가장 높으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25.0%), '종교기관'(6.9%), '신문·잡지 광고'(2.8%) 순이다.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총 12개 항목의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각각의 여부에 대해 '나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81.9%로 가장 높으며, '직업'(70.8%), '가족관계'(66.7%), '혼인경력'(50.0%), '학력'(50.0%) 순으로 높다. 반면 '정신적 장애 유무' 관련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22.2%로 가장 낮으며, '범죄경력'(27.8%), '신체적 장애 유무'(30.6%), '재산'(31.9%), '소득'(33.3%), '건강상태'(38.9%), '질병 유무'(37.5%) 순으로 낮다.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불일치했었는지 여부는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61.1%로 높다. 달랐던 정보는 '직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56.8%로 가장 높고, '재산'(47.7%), '소득'(43.2%), '정신적 장애 유무'(34.1%), '가족관계'(29.5%), '건강상태'(27.3%) 순이다.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81.9%로 상당히 높다.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은 '우수(우수+매우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22.2%로 '미흡(매우미흡+미흡)'(20.8%)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다소 높으며, 제공된 통역·번역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높다.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응답한 경우 결혼 및 절차에 필요한 행사비용은 평균 1,933,000원, 성혼 시 중개 수수료는 평균 1,288,000원으로 중개료 총액은 평균 3,169,000원으로 나타났다.

4. 국제결혼 부부와 출신국 현지 중개인의 관계

현지 중개인과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63.9%로 높다.

혼인중단 여성이 출신국 현지 중개인을 대하면서 겪은 피해 경험에 대해 3가지 유형,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응답 비율이 63.9%로 가장 높고,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61.1%),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52.8%),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52.8%) 순이다. 또한 '결혼 후 가출을 부추겼다'와 '이혼을 부추겼다'는 응답 비율은 동일하게 6.9%

로 가장 낮으며, ‘약속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12.5%), ‘결혼은 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득했다’(19.4%) 순으로 낮다.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으로는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38.9%로 가장 높다. 그 외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15.3%), ‘한국어·한국문화 교육’(13.9%), ‘맞선 이후의 서비스’(9.7%),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6.9%), ‘숙소제공’(5.6%),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4.2%) 순이다.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27.8%로 가장 높고 ‘불만사항 없음’의 응답 비율은 16.7%였다. 불만사항 중 ‘숙소 제공’과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수치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1+2순위)으로는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시간 절약’(41.7%), ‘통역·번역 서비스’(34.7%),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25.0%), ‘원하는 이성 선택’(15.3%) 순이다.

5.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집단맞선 금지’, ‘휴업·폐업 신고’, ‘미성년자 소개 금지’,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결혼 전 현지 사전 교육’의 총 7가지 국제결혼 피해예방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그 중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97.2%로 가장 높고, ‘맞선 전 신상 정보 제공’(93.1%),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90.3%), ‘미성년자 소개 금지’(90.3%) 순으로 높다. 반면, ‘휴업폐업 신고’와 ‘집단맞선 금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동일하게 69.4%로 상대적으로 낮다.

결혼 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7.2%로 매우 높고, 평균 점수는 4.8점이다. 결혼 이민 예정자의 교육비용 부담 주체는 ‘한국인 배우자’라는 응답 비율이 56.9%로 가장 높고, ‘둘 다’(38.9%) 순이며, ‘결혼이민 예정자’라는 응답 비율은 4.2%로 낮다.

결혼이민자 미입국, 또는 입국 후 행방불명으로 인해 한국인 배우자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 원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 비율이 52.8%로 가장 높고, ‘단기 속성의 결혼진행’(47.2%), ‘배우자 상대방의 출신국 문화의 이해’(33.3%),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지나친 영리추구’(25.0%),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결혼을 하기 때문’(23.6%), ‘여성들의 단순 변심’(6.9%)의 순이다.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이라는 응답 비율이 61.1%로 가장 높으며,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단속철저’(40.3%),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 강

화’(38.9%) 순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 반면, ‘결혼비자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8.3%로 가장 낮으며, ‘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강화’(12.5%), ‘위장결혼 예방 및 적발’(13.9%), ‘단기 속성의 결혼관행 개선’(20.8%) 순으로 낮다.

IV. 미성혼 남성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기본 특성

미성혼 남성의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는 맞선 또는 그 이전이 34.1%, 결혼식 또는 그 이후 65.9%로 나타났다.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성혼이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은 39세 이하 18.9%, 40-49세 59.8%, 50세 이상 21.2%이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이하 56.1%, 대학교 이상 43.9%이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 57.6%, 비임금근로자 34.1%, 미취업자 8.3%이고,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 이하 12.9%, 200-299만원 31.1%, 300-399만원 22.0%, 400만원 이상 24.2%, 미취업자와 무응답자 9.8%이다.

2.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및 중단 과정

미성혼 남성 응답자들에게 어느 나라 사람과 결혼하려 시도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베트남’이라는 응답 비율이 48.5%로 가장 높고, ‘필리핀’(19.7%), ‘중국’(14.4%), ‘우즈베키스탄’(3.8%), ‘캄보디아’(1.5%)의 순이다. 계약 시기는 ‘2013-2014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47.7%로 가장 높고, ‘2012년 이전’(31.8%), ‘2015년’(20.5%) 순이다. 당시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초혼이었는지, 재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68.2%로 ‘재혼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 31.8%보다 높다.

결혼추진 중 중단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한국 미입국 또는 입국 후 잠적’(18.9%)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개업체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16.7%), ‘현지 맞선 여행에서 마음에 들었던 여성이 결혼을 거부했기 때문에’(10.6%), ‘배우자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10.6%),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서’(9.8%), ‘생활비, 한국어 교육비 등 돈을 요구해서’(5.3%), ‘마음에 드는 외국인 여성이 없어서’(3.8%) 순이다.

국제결혼 진행 중단 이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는지, 결혼했다면 배우자 국적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76.5%로 ‘결혼했다’(한국인 여성+결혼이민 여성) 보다 높다. 결혼했다는 응답자 중 20.5%가 ‘결혼이민 여성’과 결혼했다고 응답했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는 응답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으나 혼인이 중단된 응답자들에게 국제결혼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5%가 국제결혼을 재추진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해, '없다'는 응답 비율 78.6%보다 낮다.

3.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미성혼 남성 응답자들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인지한 통로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이 47.7%로 가장 높고,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30.3%), '신문·잡지 광고'(9.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5.3%), '벽보·플래카드·스티커·전단 등'(3.8%), '종교기관'(0.8%)의 순이다.

해당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로는 응답자의 37.1%가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고 응답했고, '지인이 소개해줘서'(27.3%), '신분감으로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11.4%), '특정국가 전문성'(8.3%), '가입비·등록비가 더 저렴해서'(5.3%), '소개횟수가 더 많아서'(1.5%) 순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총 4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65.9%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40.9%), 해약·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39.4%),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31.8%) 순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주민등록등본'(85.6%)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호적등본'(79.5%), '건강진단서'(76.5%), '직업증명서'(68.2%), '범죄경력증명서'(65.2%), '소득관련증명서'(65.2%) 등의 순으로 높다.

예비 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나이'(55.8%), '가족관계'(43.4%), '혼인경력'(38.1%), '학력'(37.2%) 등 예비 배우자의 일반적인 신상정보는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적 장애 유무' 및 '신체적 장애 유무'(각각 13.3%, 16.8%), '질병 유무'(17.7%) 등 혼인에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질환 및 장애 관련 정보는 제공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소득'(12.4%)이나 '재산'(15.0%)과 같은 경제적 상황과 '범죄경력'(15.9%) 관련 신상정보의 제공 비율도 낮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일한 통역인의 실력은 우수했다('매우 우수'+ '우수')는 응답 비율은 23.9%로 나타났고, '보통'은 37.2%, 미흡했다('매우 미흡'+ '미흡')는 38.9%로 나타났다. 1점부터 5점까지로 계산한 평균점수는 2.8점이었다. 제공된 통역·번역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와 '약간 도움이 되었다'를 합하여 48.7%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 50.4%로 나타났다. 1점부터 4점까지로 계산한 평균점수는 2.4점이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료 총액’은 평균 12,317,000원이고, 이 중 ‘행사비용’은 평균 10,647,000원, ‘중개수수료’는 평균 1,705,000원이다.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는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39.4%로 6가지 항목 중 가장 높으며, ‘있다’는 응답자가 지출한 금액은 평균 2,062,000원이었다. 다음으로 ‘입국 전 생활비’(32.6%, 2,001,000원),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24.2%, 1,290,000원) 등의 순이다.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라는 응답 비율은 8.3%로 가장 낮으며, 평균 금액은 1,400,000원이었다.

4. 외국 현지 맞선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8%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들은 적이 ‘없다’는 72.7%로 나타났다.

맞선여행을 위하여 방문한 나라로는 응답자의 51.2%가 ‘베트남’이라고 응답했고, ‘필리핀’이 19.0%, ‘중국’이 12.4% 등의 순이며, 방문횟수는 평균 1.7회이고, 체류일수는 평균 11.3일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인한 피해 경험으로는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라는 응답 비율이 70.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64.4%), ‘상대방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52.3%), ‘상대방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등의 순으로 높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으로는 ‘숙소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4.5%였으며, 다음으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3.8%),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및 ‘맞선이후의 서비스’, ‘이동을 위한 차량제공’(각각 0.8%)의 순이다.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은 87.1%로 대다수가 만족한 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불만이었던 사항으로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37.9%로 가장 높고, ‘환불·손해배상’(21.2%), ‘약관·계약사항 설명’(9.1%), ‘맞선 이후의 서비스’(7.6%), ‘추가비용 요구’(6.8%),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5.3%) 순이다. ‘불만사항 없음’이라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지인에게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추천할 것이다’와 ‘추천할 것 같다’를 합하여 4.5%로 매우 낮고, 추천 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와 ‘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를 합해 90.2%로 10명 중 9명이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5.3%로 나타났다. 1점부터 4점까지로 계산한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매우 낮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신뢰하는지에 대해 '신뢰'와 '약간 신뢰'를 합하여 2.3%로 매우 낮고, '보통'은 3.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불신'과 '약간 불신'을 합해 93.9%로 매우 높다. 1점부터 4점까지로 계산한 평균 점수도 1.2점으로 매우 낮다.

5.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집단맞선 금지', '휴업·폐업 신고', '미성년자 소개 금지',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결혼 전 현지 사전 교육'의 총 7가지 국제결혼 피해예방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98.5%로 가장 높고,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성'(96.2%),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성'(95.5%),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성' 및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각각 93.2%),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필요성'(92.4%) 등의 순이다. 7가지 사항 중 '집단맞선 금지 필요성'의 응답 비율만 75.0%로 나타났고, 다른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성혼 남성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제결혼 규제 강화·완화 여부에 대해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62.1%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 29.5%보다 높다.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4.7%,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5.5%로 갑과 을의 의견에 대한 응답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39.4%)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 및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각각 34.1%),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3.3%) 등의 순이다.

V. 혼인중단 남성 및 이민여성, 미성혼 남성 비교 분석

1.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73.0%, 65.3%로 가장 높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나만 이용했다'가 23.1%로 높으나, 여성은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

가 19.4%로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배우자를 만난 방법은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모두 ‘직접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6.3%, 60.0%로 가장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이 결혼 당시 소개자에게 현금 또는 선물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주었다’는 응답 비율이 100.0%로 나타났으며, 지급한 현금 또는 물품 금액은 남성이 여성의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의 초혼, 재혼 여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71.6%, 88.9%로 가장 높다. 또한 ‘재혼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남성이 28.2%, 여성이 9.7%로 남성이 약 2.9배 높다.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이 결혼 유지 기간 동안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는지 여부는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이 높다. 그 중에서 혼인중단 여성이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의사소통 문제’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73.6%로 가장 높으며,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으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70.8%로 높다.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0.6%로 가장 높으며, ‘의사소통 문제’와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7.0%, 45.1%로 높다.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혼인중단 남성은 ‘나는 혼자 속으로 삭혔다’와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81.4%, 81.2%로 높다. 혼인중단 여성은 ‘나는 혼자 속으로 삭혔다’와 ‘배우자가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 질렀다’는 응답 비율이 83.3%로 가장 높으며, ‘배우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라는 응답이 70.8% 순으로 높다.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모두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4.5%, 31.9%로 가장 높으며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순으로 높다.

혼인이 중단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라는 응답 비율이 25.5%로 가장 높으며,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 25.3%, ‘문화차이’ 24.3% 순이다. 반면, 혼인중단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33.3%로 가장 높으며, ‘학대와 폭력’ 30.6%,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29.2% 순이다.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으로 인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응답이 60.5%로 가장 높으며, ‘결

혼생활로 인한 상처 극복'이 57.8% 순이다. 혼인중단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으며, '자녀 양육·교육 문제'가 36.14% 순이다.

혼인중단 후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는 혼인 기간이 짧았던 남성의 경우 '미성년 자녀 없다'는 응답 비율이 70.1%로 가장 높으며, 본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20.5% 순이다. 여성의 경우 본인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응답 비율이 65.3%로 가장 높으며, '배우자'라는 응답이 15.3% 순이다.

양육비를 지원하는지 또는 지원받는지 여부는 혼인중단 남성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72.5%로 가장 높으며, 이와 동일하게 혼인중단 여성은 '전혀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0.0%로 가장 높다.

본인 또는 당시 배우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국제결혼 맞선을 주선했던 경험이 있는지는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모두 '나와 배우자 둘 다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89.4%, 81.9%로 가장 높다. 맞선을 주선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실제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은 남성의 65.9%, 여성의 53.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소개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여 맞선을 본 후 결혼식을 올리기가 얼마나 걸렸는지는 혼인중단 남성은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4.0%로 가장 높고 '2-3일' 25.5%, '8일 이상' 21.2% 순이다. 또한 혼인중단 여성은 '2-3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0.6%로 가장 높고 '0-1'일 29.2%, '8일 이상' 26.4%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의 인지 통로는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은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46.5%, 61.1%로 가장 높으며, 남성은 '인터넷 홈페이지' 29.2%, 여성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 25.0% 순이다. 미성혼 남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이 47.7%로 가장 높으며,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30.3% 순이다. 또 본인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한 이유로는 혼인중단 남성은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이 40.2%로 가장 높고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39.5%) 순이다. 미성혼 남성의 경우는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이 37.1%로 가장 높고, '지인이 소개해줘서'(27.3%), '신분감으로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 맘에 들어서'(11.4%) 순이다.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에게 본인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타를 제외하고 혼인중단 남성이 미성혼 남성보다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93.3%로 가장 높으며, '건강진단서'(88.9%), '호적등본'(88.4%) 순으로 높다. 미성혼 남성 역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85.6%로 가장 높으며, '호적등본'(79.5%), '건강진단서'(76.5%) 순이다.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미성혼 남성 모두 배우자의 '나이'와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제공된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45.8%로 높고, 혼인중단 여성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61.1%로 높다. 제공된 배우자의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어떤 항목인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은 '혼인경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학력'(25.3%), '가족관계'(24.7%), '나이'(23.5%) 순이며, 혼인중단 여성은 '직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56.8%로 가장 높고, '재산'(47.7%), '소득'(43.2%), '정신적 장애 유무'(34.1%)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배우자의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그로 인해 당시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의 50.6%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으나, 혼인중단 여성의 65.9%는 갈등이 발생했었다고 응답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는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72.8%, 81.9%로 높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된 통역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모두 '미흡(매우 미흡+미흡)'이라는 응답 비율 보다는 '우수(우수+매우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혼인중단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우수+매우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또 제공된 통역·번역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은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되었다+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61.4%로 높으나, 혼인중단 여성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옵션사항을 제외하고 납부하기로 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중개료 총액은 혼인중단 남성이 가장 많았고 미성혼 남성, 혼인중단 여성 순이다.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은 평균 1,451,000원 차이이며, 혼인중단 여성에 비하면 각각 약 4.3배와 3.9배이다. 추가로 지출한 비용으로는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그 중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항목을 추가로 지출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예단비' 항목은 추가로 지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추가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각 항목별 얼마를 지출했는지 조사한 결

과, 모든 항목에서 혼인중단 남성에 비해 미성혼 남성의 지출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미성혼 남성은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항목에서 추가 지출액 평균이 2,91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혼인중단 남성은 ‘예단비’ 항목이 804,00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였다.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불만 사항으로는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는 응답 비율이 71.8%로 가장 높으며,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62.9%),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다’(62.4%) 순이다. 미성혼 남성은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와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출신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72.2%로 가장 높으며,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70.8%),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69.4%) 순이다.

3. 국제결혼 부부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계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6.5%, 72.7%로 높다.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베트남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1.4%, 51.2%로 가장 높고, 혼인중단 남성은 기타 나라를 제외하고 중국(10.1%), 필리핀(8.2%) 순이며, 미성혼 남성은 필리핀(19.0%), 중국(12.4%) 순이다. 방문 횟수는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평균 1.7회이며, 체류기간은 혼인중단 남성이 평균 15.8일로 미성혼 남성(11.3일)보다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은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이 62.4%로 가장 높고, 혼인중단 여성은 ‘과장 광고를 했다’(63.9%),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61.1%),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52.8%),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52.8%) 등이 높다. 또한 미성혼 남성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이 70.5%로 가장 높으며, ‘과장 광고를 했다’(64.4%),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52.3%),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50.8%)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으로는 혼인중단 여성과 미성혼 남성은 ‘만족사항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8.9%, 87.1% 가장

높다. 만족사항이 있는 경우,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은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7.7%, 15.3%로 가장 높고, 미성혼 남성은 ‘숙소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4.5%로 가장 높다. 또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으로는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및 미성혼 남성 모두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29.4%, 27.8%, 37.9%로 가장 높다. 그 외에 혼인중단 남성은 ‘불만사항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20.2%로 높고, 혼인중단 여성은 ‘추가비용 요구’(19.4%), 미성혼 남성은 ‘환불·손해배상’(21.2%) 항목에 불만이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불신+약간불신)’는 응답 비율이 각각 80.0%, 93.9%로 압도적으로 높다. 또 지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추천하지 않는다(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89.9%, 93.9%로 압도적으로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의 장점으로는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은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시간 절약’ 순이며, 미성혼 남성은 ‘시간 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결혼절차 간소화’ 순이다.

4.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현재 한국의 법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맞선전에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앞장의 결과에서 보듯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며 부당한 경험도 많고, 불만과 불신도 높다.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불만이 많았던 배우자의 신상 정보 제공에 대한 피해 예방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혼인중단 여성의 경우 현지 사전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국제결혼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국제결혼 규제 강화(강화 매우 찬성+강화 대체로 찬성)’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68.0%, 62.1% 높으며, 혼인중단 남성이 다소 높다. 또 현행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에 대해 혼인중단 남성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강화 매우 찬성, 강화 대체로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49.2%로 높으며, 미성혼 남성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완화(완화 대체

로 찬성+완화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45.5%로 더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혼인중단 남성은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교육 강화)'이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고, '중개업체 불법 행위 지도점검 강화'(36.6%), '중개업체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2.5%) 순이다. 미성혼 남성은 '중개업체 불법 행위 지도점검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39.4%로 가장 높고,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교육 강화)'(34.1%),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34.1%), '중개업체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3.3%) 순이다.

VI. 정책 제언: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 개선 과제

본 연구는 2014년의 조사연구를 보완하는 의미로,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그들의 특성과 태도를 파악하였다. 2014년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이번에 수행한 특별조사 결과는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 모두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 현지 중개인)에 대한 불만과 피해가 큼을 보여준다. 결혼에 성공하였지만 이혼·별거·가출 등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체된 사람이나,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그의 결혼을 중개한 업체(또는 중개인)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시도하였거나 성혼한 자 중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 현지 중개인)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혼인중단에 이르게 된 사유에는 본인, 배우자, 쌍방의 가족 등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혼인중단자·미성혼자·피해자 특별조사의 발견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의 국제결혼 정책 개선 전략을 체계화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게 필수적이다. 현행 제도의 몇몇 요소는 국제결혼피해자협회를 비롯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피해자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여성 결혼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와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1.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관제탑(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결성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표방하는 협회들이 여럿 있으나,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할 뿐, 공공의 복리를

추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한 점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담당해야 할 기능은 업체 피해 회원을 위한 보상 규정마련과 위반 시 제재조치 시행 등이다. 아울러, 정부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들이 단순 소개의 차원을 넘어서서 결혼중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2. 부정확한 신상정보 제공, 단기 속성 국제결혼 문제 개선

신상정보 부실 또는 허위 제공은 부부간 갈등으로, 더 나아가 혼인파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또한 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통역해주지 않거나 본인이 궁금한 사항 역시 충분히 통역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통역·번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신상정보 전체를 번역하여 결혼중개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문맹인 경우 서면 교부 후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규정, 즉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결혼이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현실에 부합하는 결혼중개업정책 마련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과 관련하여 현지에서의 불법 중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지법령준수’와 관련된 부분은 수용국과 송출국간 법제도적 협력 없이는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고,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법적 강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의 불법중개를 최대한 방지하고, 국내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적 규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책적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당초의 정책 의도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제결혼 중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정책 개발

국제결혼 중개 피해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둘 다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련 정책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이 개발되고 확대되어 왔

다. 그러나 한국인 남성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즉 상담을 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은 전혀 없다. 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기존 기관에서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부당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에 실패한 남성의 경우 5년 내에 재 결혼이 금지되는 규정을, 결혼이민자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확실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5.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결혼당사자 대상 교육·홍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내실화하는 한편,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 한국인 국제결혼 희망자를 위한 사전교육에서 국제결혼의 결혼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민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배우자를 동반자로 존중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결혼에 대한 준비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 사전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취지는 옳으나, 현지에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국제결혼 자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누구인가, 어느 나라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6. '2017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방향 설정

조사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 명부 확보와 응답률 제고: 조사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그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그 이용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기획하고 수행하였지만, 명부가 부실할 뿐 아니라, 업체와 이용자의 응답 거부가 잇따라 결국에는 표본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후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가 조사대상 업체와 이용자 명부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결혼중개업법에 의거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17개 시·도에 '등록'하고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중개업법규를 개정하여, 표준화된

등록과 운영상황 보고 서식을 만들어 각 시·도에 제공하는 한편, 그 서식에 의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 시스템이 완성되면,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기본적 정보는 실시간으로(월간, 연간) 집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각 시·도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실태조사의 명부가 한층 더 정확해질 것이다.

둘째,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는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 그리고 국제결혼중개 피해자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결혼중개 업체를 이용하여 최근 3년 사이에 결혼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 그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혼·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이 중단된 사람들을 찾아내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확률표본을 구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수다. (가칭)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자 지원 기구’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명부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게 필수다.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업체와 이용자의 명부를 확보하고, (가칭)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자 지원 기구’의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명부를 확보하여, 조사대상 모집단(population)을 엄밀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집단, 즉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사람’을 구성하는 부분집단들(혼인 지속자, 혼인 중단자, 미성혼자)을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2017년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또는 표집률 30% 이상 표본조사)를 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집단에서 그 세부집단 특성을 파악한 후,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응답률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조사내용의 체계화: 2014년 전수조사와 2015년 특별조사에 사용된 문항을 평가하여, 시계열적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용이한 형태로 수정하여야 한다. 문항을 개선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존 실태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문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는 것도 필수다. 학술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기존 조사 결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항과의 관계 설정도 필수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는 조사 시행 목적이 뚜렷이 구분되지만, 조사 대상이 일부 중첩된다. 그러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는 이상,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규모로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조사대상이 결혼이

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공통 문항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공통 문항은 ‘다문화가족 전체’와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내어 문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출문	iii
감사의 글	v
제1부 서론	1
제1장 서론	3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 내용과 범위	4
3. 연구방법	5
4. 보고서의 구성	13
제2부 혼인중단 남성 조사 결과	5
제2장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17
제3장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73
제4장 국제결혼 부부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계	125
제5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161
제3부 혼인중단 이민여성 조사 결과	10
제6장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181
제7장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에 대한 정보	221
제8장 국제결혼 부부와 출신국 현지 중개인의 관계	251
제9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269
제4부 미성혼 남성 조사 결과	28
제10장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및 중단 과정	285
제11장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295
제12장 외국 현지 맞선	315
제13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335
제5부 혼인중단 남성 및 이민여성, 미성혼 남성 비교 분석	38
제14장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351
제15장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365

제16장 국제결혼 부부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계	377
제17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383
제6부 정책 제언	387
제18장 국제결혼 중개업 정책 개선 과제	389
1.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390
2. 부정확한 신상정보 제공, 단기 속성 국제결혼 문제 개선	391
3. 현실에 부합하는 결혼중개업정책 마련	392
4. 국제결혼 중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정책 개발	393
5.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결혼당사자 대상 교육·홍보	394
6. ‘2017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방향 설정	396
참고문헌	399
부록	403
부록 1: 혼인중단 남성용 질문지	405
부록 2: 혼인중단 이민여성용 질문지	423
부록 3: 미성혼 남성용 질문지	457
부록 4: 혼인중단 남성용 심층면접조사표	471
부록 5: 혼인중단 이민여성용 심층면접조사표	481
부록 6: 미성혼 남성용 심층면접조사표	489
English Abstract	495
저자 약력	497

표 차례

<표 1-1>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7
<표 1-2> 혼인중단 남성 조사의 응답자 기본 특성	8
<표 1-3> 혼인중단 이혼여성 조사의 응답자 기본 특성	9
<표 1-4> 미성혼 남성 조사의 응답자 기본 특성	10
<표 1-5> 혼인중단 남성 심층면접의 응답자 기본 특성	11
<표 1-6> 혼인중단 이혼여성 심층면접의 응답자 기본 특성	12
<표 1-7> 미성혼 남성 심층면접의 응답자 기본 특성	12
<표 2-1>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여부	18
<표 2-2> 혼인신고 시기, 2014-2015년	19
<표 2-3> 혼인신고 시기	20
<표 2-4> 초혼, 재혼 여부	21
<표 2-5> 배우자와의 갈등, 2014-2015년	24
<표 2-6> 부부갈등: 의사소통 문제	26
<표 2-7> 부부갈등: 부부간 성 생활 문제	29
<표 2-8> 부부갈등: 외도 문제	30
<표 2-9> 부부갈등: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	33
<표 2-10> 부부갈등: 자녀양육·교육 문제	34
<표 2-11> 부부갈등: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	36
<표 2-12> 부부갈등: 음주 문제	39
<표 2-13> 부부갈등: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	40
<표 2-14> 부부갈등: 배우자와 내 가족의 불화	42
<표 2-15> 부부갈등: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43
<표 2-16> 부부갈등: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45
<표 2-17> 부부갈등: 의처증 또는 의부증	46
<표 2-18> 부부갈등: 배우자의 취업 문제	47
<표 2-19> 갈등 시 행동 방법	49
<표 2-20>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와 당시 배우자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50
<표 2-21>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51

<표 2-22>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53
<표 2-23>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54
<표 2-24>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55
<표 2-25>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56
<표 2-26>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57
<표 2-27> 배우자와 갈등 시 도움 요청	58
<표 2-28>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의 기간	60
<표 2-29>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 이유(복수응답)	62
<표 2-30> 자녀양육자(복수응답)	64
<표 2-31> 양육비 지원여부	66
<표 2-32>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67
<표 2-33>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2014-2015년	69
<표 2-34> 맞선 성사 후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 2014-2015년	70
<표 2-35>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71
<표 3-1>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2014-2015년	73
<표 3-2>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74
<표 3-3>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75
<표 3-4> 이용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2014-2015년	76
<표 3-5>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 통로	77
<표 3-6>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2014-2015년	79
<표 3-7> 해당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80
<표 3-8> 계약 내용 설명 청취, 2014-2015년	81
<표 3-9> 계약 체결 전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 들었는지 여부: “들었다” 응답 기준	82
<표 3-10>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84
<표 3-11>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 여부: “제공 받았다”는 응답 기준	86
<표 3-12>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2014-2015년	87
<표 3-13>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89

<표 3-14>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2014-2015년	90
<표 3-15>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91
<표 3-16> 신상정보 불일치 시 취한 조치사항	95
<표 3-17>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2014-2015년 ..	96
<표 3-18>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96
<표 3-19>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2014-2015년	97
<표 3-20> 국제결혼 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99
<표 3-21>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2014-2015년	99
<표 3-22>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100
<표 3-23>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2014-2015년	101
<표 3-24> 국제결혼 중개업체 통역인 실력	102
<표 3-25>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2014-2015년	103
<표 3-26>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104
<표 3-27> 출신국 현지 중개인 또는 현지 중개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평균금액, 2014-2015년	105
<표 3-28>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106
<표 3-29> 추가 비용 지출 여부, 2014-2015년	107
<표 3-30> 추가 비용 지출 여부: 예단비	108
<표 3-31>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	109
<표 3-32>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110
<표 3-33>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	111
<표 3-34> 추가 비용 지출 여부: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112
<표 3-35> 추가 비용 지출 여부: 기타	113
<표 3-36>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114
<표 3-37>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 소개	115
<표 3-38>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 소개	116
<표 3-39> 한국에 와서 친정에 송금하는 것만 원하는 여성 소개	117
<표 3-40>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119
<표 3-41>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120
<표 3-42>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출신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지 않음	121
<표 3-43>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평가로 인한 배우자 입국 지연가능	

정보 제공 여부	122
<표 4-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2014-2015년 ...	125
<표 4-2>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126
<표 4-3>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2014-2015년	127
<표 4-4>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128
<표 4-5>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	129
<표 4-6>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받았는지 여부	130
<표 4-7>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방법(복수응답), 2014-2015년 ...	131
<표 4-8>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방법(복수응답)	132
<표 4-9>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중 경험한 사항, 2014-2015년	134
<표 4-10>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136
<표 4-11> 과장 광고를 했다	137
<표 4-12>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138
<표 4-13>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139
<표 4-14>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	140
<표 4-15>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141
<표 4-16>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142
<표 4-17> 계약을 어겼다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143
<표 4-18>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	144
<표 4-19>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	145
<표 4-20> 결혼 후 가출을 부추겼다	146
<표 4-21> 이혼을 부추겼다	147
<표 4-22>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148
<표 4-23>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149
<표 4-24>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	150
<표 4-25>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151
<표 4-26>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2014-2015년 ...	152
<표 4-27>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153
<표 4-28>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2014-2015년	154
<표 4-29>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155
<표 4-30>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정도, 2014-2015년	156
<표 4-31> 국제결혼 중개업체 신뢰정도	157

<표 4-32> 국제결혼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014-2015년	157
<표 4-33>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	159
<표 5-1>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 필요 정도	161
<표 5-2>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 필요 정도, 2014-2015년	162
<표 5-3>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 정도	163
<표 5-4>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 정도	164
<표 5-5>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 정도	165
<표 5-6> 집단맞선 금지 필요 정도	167
<표 5-7>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	168
<표 5-8>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 정도	169
<표 5-9>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필요성	170
<표 5-10>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 필요성	171
<표 5-11> 국제결혼 규제 강화·완화 여부	172
<표 5-12>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완화 여부	173
<표 5-13>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에서 개선 필요 사항(복수응답)	175
<표 5-14>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177
<표 6-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	181
<표 6-2> 혼인신고 시점	182
<표 6-3> 최초 한국 입국 시기	182
<표 6-4> 초혼, 재혼 여부	184
<표 6-5>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여부, 2014-2015년	185
<표 6-6> 부부갈등: 의사소통 문제	187
<표 6-7> 부부갈등: 부부간 성 생활 문제	188
<표 6-8> 부부갈등: 외도 문제	189
<표 6-9> 부부갈등: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	190
<표 6-10> 부부갈등: 자녀양육·교육 문제	191
<표 6-11> 부부갈등: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	192
<표 6-12> 부부갈등: 음주 문제	193
<표 6-13> 부부갈등: 나의 가족 관련 사안	195
<표 6-14> 부부갈등: 나와 배우자 가족의 불화	195
<표 6-15> 부부갈등: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197
<표 6-16> 부부갈등: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198

<표 6-17> 부부갈등: 의처증 또는 의부증	199
<표 6-18> 부부갈등: 나의 취업 문제	200
<표 6-19> 당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의 행동 방법	201
<표 6-20>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와 당시 배우자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201
<표 6-21>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202
<표 6-22>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203
<표 6-23>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204
<표 6-24>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205
<표 6-25>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206
<표 6-26>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207
<표 6-27>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의 도움 요청	208
<표 6-28>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 걸린 기간	211
<표 6-29> 혼인중단(가출, 별거, 이혼) 이유(복수응답)	212
<표 6-30> 자녀양육자(복수응답)	214
<표 6-31> 양육비 지원받는지 여부	214
<표 6-32> 혼인중단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216
<표 6-33>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했던 경험, 2014-2015년	217
<표 6-34> 주선했던 맞선이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 2014-2015년	217
<표 6-35>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218
<표 7-1>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221
<표 7-2>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222
<표 7-3>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알게 된 통로, 2014-2015년	223
<표 7-4>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224
<표 7-5>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2014-2015년	225
<표 7-6>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에게 제공 받은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 받았다는 응답 기준	228

<표 7-7> 결혼이민자가 예비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 2014-2015년	229
<표 7-8>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229
<표 7-9>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달랐던 정보(복수응답)	230
<표 7-10>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231
<표 7-11>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유무, 2014-2015년	233
<표 7-12>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한 갈등발생 여부	234
<표 7-13>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소개 받을 때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2014-2015년	235
<표 7-14>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236
<표 7-15> 국제결혼중개업체 통역인의 실력 평가, 2014-2015년	237
<표 7-16>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237
<표 7-17>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 도움 정도, 2014-2015년	238
<표 7-18>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239
<표 7-19>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약속 여부, 2014-2015년	240
<표 7-20> 성혼 시 출신국의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약속 여부	240
<표 7-21> 결혼이민자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평균), 2014-2015년	241
<표 7-22> 예단비를 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242
<표 7-23> 배우자로부터 예단비 받았는지 여부	243
<표 7-24>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한 서비스 불만사항	244
<표 7-25>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남성을 소개	245
<표 7-26> 아내가 가사노동 및 생활비까지 벌어들일 것을 기대하는 남성 소개	246
<표 7-27>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247
<표 7-28>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248
<표 7-29>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지 않음	249
<표 8-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현지 중개인과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2014-2015년	251
<표 8-2> 현지 중개인과 서면으로 된 계약서 작성 여부	252
<표 8-3>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 결혼이민자 조사, 2014-2015년	253
<표 8-4> 과장 광고를 했다	255
<표 8-5>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55
<표 8-6>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256
<표 8-7>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	257

<표 8-8>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257
<표 8-9> 당초 약속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258
<표 8-10> 약속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259
<표 8-11> 결혼 후 가출을 부추겼다	259
<표 8-12> 이혼을 부추겼다	260
<표 8-13> 결혼은 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득했다	261
<표 8-14>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261
<표 8-15>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과 접촉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263
<표 8-16>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264
<표 8-17>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과 접촉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264
<표 8-18>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014-2015년	266
<표 8-19>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67
<표 9-1>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	269
<표 9-2>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제공 및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 2014-2015년	269
<표 9-3>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	271
<표 9-4>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성	271
<표 9-5>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성	272
<표 9-6> 집단맞선 금지 필요성	273
<표 9-7>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	274
<표 9-8>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성	274
<표 9-9>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필요성	275
<표 9-10>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 필요성	276
<표 9-11> 결혼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 2014-2015년	276
<표 9-12>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결혼이민 예정자의 현지 사전교육 비용 부담자, 2014-2015년	277
<표 9-13> 결혼이민 예정자의 현지 사전교육 비용 부담자	278
<표 9-14> 결혼이민자 미입국 또는 입국 후 행방불명의 원인(복수응답)	279

<표 9-15>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280
<표 10-1> 결혼하려 시도했던 사람의 국적	285
<표 10-2> 국제결혼 중개업체 계약 시점	286
<표 10-3> 초혼, 재혼 여부	287
<표 10-4> 결혼추진 중 중단한 이유	289
<표 10-5> 국제결혼 진행 중단 이후 결혼 여부 및 배우자 국적	290
<표 10-6> 현 결혼생활 유지 여부	291
<표 10-7> 국제결혼을 재추진할 계획 유무	292
<표 11-1>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 통로	295
<표 11-2> 해당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297
<표 11-3> 계약 체결 전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 들었는지 여부: 종합	298
<표 11-4> 계약 체결 전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 청취 여부: 세부특성별	298
<표 11-5> 국제결혼 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300
<표 11-6> 예비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 여부	301
<표 11-7> 예비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 여부: 제공 받았다는 응답 기준	302
<표 11-8> 예비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303
<표 11-9>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통역인 실력	304
<표 11-10>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305
<표 11-11>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306
<표 11-12> 추가 비용 지출 여부: 종합	307
<표 11-13> 추가 비용 지출 여부: 예단비	308
<표 11-14>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	309
<표 11-15>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310
<표 11-16>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	311
<표 11-17> 추가 비용 지출 여부: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311
<표 11-18> 추가 비용 지출 여부: 기타	312
<표 12-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315
<표 12-2>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316
<표 12-3>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물 접촉 관련 피해 경험 여부: 종합	318
<표 12-4>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319
<표 12-5> 과장 광고를 했다	320

<표 12-6>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321
<표 12-7>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322
<표 12-8>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	323
<표 12-9>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324
<표 12-10>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325
<표 12-11> 계약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326
<표 12-12>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	327
<표 12-13>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	328
<표 12-14>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329
<표 12-15>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330
<표 12-16>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331
<표 12-17> 국제결혼 중개업체 신뢰정도	332
<표 12-18>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333
<표 13-1>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335
<표 13-2>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	336
<표 13-3>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성	337
<표 13-4>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성	337
<표 13-5> 집단맞선 금지 필요성	338
<표 13-6>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	339
<표 13-7>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성	340
<표 13-8> 계약서 등 5년간 보존 필요성	341
<표 13-9>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 필요성	341
<표 13-10> 국제결혼 규제 강화·완화 여부	342
<표 13-11>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완화 여부	343
<표 13-12>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복수응답)	345
<표 13-13>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347
<표 14-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	351
<표 14-2> 초혼, 재혼 여부	352
<표 14-3> 배우자와의 갈등	353
<표 14-4> 배우자와의 갈등 시 행동방법	355
<표 14-5> 배우자와 갈등 시 도움요청	357

<표 14-6>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의 기간	358
<표 14-7> 혼인증단 이유(복수응답)	359
<표 14-8>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	360
<표 14-9> 자녀 양육자	361
<표 14-10> 양육비 지원여부	361
<표 14-11>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362
<표 14-12> 맞선 주선 후 실제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	362
<표 15-1>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365
<표 15-2>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365
<표 15-3>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366
<표 15-4> 계약 내용 설명 청취	367
<표 15-5>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368
<표 15-6>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받았는지 여부	369
<표 15-7>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370
<표 15-8>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	371
<표 15-9>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371
<표 15-10>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372
<표 15-11>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372
<표 15-12>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373
<표 15-13> 출신국 현지 중개인 또는 현지 중개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평균금액 ...	373
<표 15-14> 추가 비용 지출 여부	375
<표 15-15> 국제결혼중개업체 서비스 불만 사항	376
<표 16-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377
<표 16-2>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377
<표 16-3> 결혼중개업체 이용 중 경험한 사항	378
<표 16-4>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379
<표 16-5>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379
<표 16-6>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정도	380
<표 16-7>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381
<표 16-8> 국제결혼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381
<표 17-1> 피해의무예방서비스	383

<표 17-2> 국제결혼중개 정책 제도 강화·완화 여부 384
<표 17-3>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개선사항(복수응답) 385
<표 17-4>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386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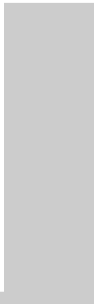

[그림 2-1]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여부	17
[그림 2-2] 혼인신고 시기, 2014-2015년	19
[그림 2-3] 초혼, 재혼 여부	21
[그림 2-4] 부부 갈등 문제	22
[그림 2-5] 배우자와의 갈등, 2014-2015년	25
[그림 2-6] 배우자와 갈등 시 도움 요청	59
[그림 2-7]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의 기간	61
[그림 2-8] 양육비 지원여부	65
[그림 2-9]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68
[그림 2-10]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2014-2015년	69
[그림 2-11] 맞선 성사 후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 2014-2015년	70
[그림 3-1]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2014-2015년	73
[그림 3-2]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76
[그림 3-3] 이용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2014-2015년	76
[그림 3-4]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 통로	78
[그림 3-5]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2014-2015년	79
[그림 3-6] 계약 내용 설명 청취, 2014-2015년	81
[그림 3-7]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85
[그림 3-8]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2014-2015년	88
[그림 3-9]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2015년	88
[그림 3-10]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2014-2015년	90
[그림 3-11]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92
[그림 3-12]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2014-2015년	95
[그림 3-13]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97
[그림 3-14]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2014-2015년	98
[그림 3-15]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2014-2015년	100
[그림 3-16]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2014-2015년	101
[그림 3-17]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2014-2015년	103
[그림 3-18] 출신국 현지 중개인 또는 현지 중개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평균금액, 2014-2015년	105
[그림 3-19] 추가 비용 지출 여부, 2014-2015년	106
[그림 4-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2014-2015년 ...	125
[그림 4-2]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126
[그림 4-3]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2014-2015년	127
[그림 4-4]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129
[그림 4-5]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129
[그림 4-6]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받았는지 여부	131
[그림 4-7]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방법(복수응답), 2014-2015년	131
[그림 4-8]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중 경험한 사항, 2014-2015년	135
[그림 4-9]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150
[그림 4-10]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2014-2015년	152
[그림 4-11]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2014-2015년	154
[그림 4-12]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정도, 2014-2015년	156
[그림 4-13] 국제결혼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014-2015년 ...	158
[그림 4-14]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	158
[그림 5-1]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177
[그림 6-1] 초혼, 재혼 여부	183
[그림 6-2]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여부, 2014-2015년	186
[그림 6-3]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의 도움 요청	209
[그림 6-4] 혼인중단(가출, 별거, 이혼) 이유(복수응답)	213
[그림 6-5] 양육비 지원받는지 여부	215
[그림 6-6] 혼인중단으로 인해 겪게 된	215
[그림 6-7]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했던 경험, 2014-2015년 ...	217
[그림 6-8] 주선했던 맞선이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 2014-2015년	217
[그림 7-1]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222
[그림 7-2]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알게 된 통로, 2014-2015년	223

[그림 7-3]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224
[그림 7-4]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2014-2015년	226
[그림 7-5] 결혼이민자가 예비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 2014-2015년	229
[그림 7-6]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230
[그림 7-7]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달랐던 정보(복수응답)	231
[그림 7-8]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232
[그림 7-9]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유무, 2014-2015년 ..	233
[그림 7-10]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한 갈등발생 여부	234
[그림 7-11]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소개 받을 때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2014-2015년	235
[그림 7-12] 국제결혼중개업체 통역인의 실력 평가, 2014-2015년	237
[그림 7-1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 도움 정도, 2014-2015년 ..	238
[그림 7-14]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약속 여부, 2014-2015년 ..	240
[그림 7-15] 성혼 시 출신국의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약속 여부	241
[그림 7-16] 결혼이민자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평균), 2014-2015년	242
[그림 7-17] 예단비를 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242
[그림 8-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현지 중개인과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2014-2015년	251
[그림 8-2] 현지 중개인과 서면으로 된 계약서 작성 여부	252
[그림 8-3]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 결혼이민자 조사, 2014-2015년	254
[그림 8-4]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262
[그림 8-5]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263
[그림 8-6]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265
[그림 8-7]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014-2015년	267
[그림 8-8]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68
[그림 9-1]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 2014-2015년	270
[그림 9-2]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 2014-2015년	270

[그림 9-3] 결혼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 2014-2015년 ...	277
[그림 9-4]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결혼이민 예정자의 현지 사전교육 비용 부담자, 2014-2015년	277
[그림 9-5] 결혼이민자 미입국, 입국 후 행방불명의 원인(복수응답)	278
[그림 9-6]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281
[그림 10-1] 결혼하려 시도했던 사람의 국적	286
[그림 10-2] 초혼, 재혼 여부	287
[그림 10-3] 결혼추진 중 중단한 이유	288
[그림 10-4] 국제결혼 진행 중단 이후 결혼 여부 및 배우자 국적	290
[그림 10-5] 국제결혼을 재추진할 계획 유무	292
[그림 11-1]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 통로	296
[그림 11-2] 해당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297
[그림 11-3]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307
[그림 12-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316
[그림 12-2]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317
[그림 12-3]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329
[그림 12-4]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330
[그림 12-5]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333
[그림 13-1]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복수응답)	346
[그림 13-2]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347
[그림 14-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	351
[그림 14-2] 초혼, 재혼 여부	352
[그림 14-3] 배우자와의 갈등	354
[그림 14-4] 배우자와의 갈등 시 행동방법	356
[그림 14-5] 배우자와 갈등 시 도움요청	357
[그림 14-6]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의 기간	358
[그림 14-7] 혼인중단 이유(복수응답)	359
[그림 14-8]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	360
[그림 14-9] 자녀 양육자	361

[그림 14-10] 양육비 지원여부	361
[그림 14-11]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362
[그림 14-12] 맞선 주선 후 실제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	363
[그림 15-1]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365
[그림 15-2]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366
[그림 15-3]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366
[그림 15-4] 계약 내용 설명 청취	367
[그림 15-5]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368
[그림 15-6]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370
[그림 15-7]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	371
[그림 15-8]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371
[그림 15-9]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372
[그림 15-10]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372
[그림 15-11]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373
[그림 15-12] 출신국 현지 중개인 또는 현지 중개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평균금액 ...	373
[그림 15-13] 추가 비용 지출 여부	375
[그림 16-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377
[그림 16-2]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378
[그림 16-3]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정도	380
[그림 16-4]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381
[그림 17-1] 국제결혼중개 정책 제도 강화·완화 여부	384
[그림 17-2]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개선사항(복수응답)	385
[그림 17-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386



제1부
서론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간 국제결혼부부의 혼인과 이혼이 4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연령 차이도 7세로 줄었다. 국제결혼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07년 12월 14일 제정하여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0년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에 의하여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후, 국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규제 수준을 높였고,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과 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 국제결혼희망자의 출국 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도 높였다. 정부가 국제결혼 대상자 상호 신상정보 교환을 의무화하였고, 상대국 법령에서 부부 간 연령 차이를 규제하는 경우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국제결혼부부 대상 가족 상담 등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이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013년 8월 13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결혼중개업법)을 일부 개정하여, 실태조사의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2014년 2월 14일 시행되었다.

결혼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가 신설되었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5.]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중개업법’에 근거하여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설동훈·한건수·김석호·박순영·심재용·박종선·심경섭·조은옥, 2014). 그 조사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여 결혼한 후 현재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국내결혼부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율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조사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혼인이 중단된 자’(이하 ‘혼인중단자’)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였음에도 성혼되지 못한 자’(이하 ‘미성혼자’)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시도하였거나 성혼한 자 중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는 그 수가 너무 적어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본 조사연구는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의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개업체와 중개업체를 통한 성혼자 중 현재 혼인지속자가 응답자의 다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도 표본 수가 적었다. 중요한 정책 대상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가 미흡한 상황인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중 미성혼자와 혼인중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피해자’ 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피해여부, 서비스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당사자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2. 연구 내용과 범위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의 조사대상 집단은 ① 한국인 남성 이용자, ② 이민자 여성 이용자, ③ 미성혼자(한국인 남성), ④ 피해자

이며,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연구와 심층면접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용자(한국인남성+이민자여성)와 미성혼자 조사는 표본조사연구와 심층면접을 모두 진행하였고, 피해자 조사는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이용자 조사’는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개업체 서비스 내용 및 부실여부, 혼인 중단 원인, 계약 유지(또는 해지)사유,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 조사는 각각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한국인 남성과 이민자 여성 조사는 혼인신고 시기,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갈등, 결혼과정, 업체와의 계약과정, 예비배우자 정보 제공, 업체이용 비용, 맞선으로 방문한 국가, 집단맞선, 부당행위 경험, 사후 서비스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체 만족 및 불만족 사항,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 결혼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 등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혼인중단자 조사의 경우, 혼인중단 사유에 중개업체 요인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요인, 배우자 요인, 기타 가족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용 질문지는 한국어로 된 것뿐 아니라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타갈로그)로 번역한 것을 조사에 사용하였다(부록 1, 부록 2, 부록 4, 부록 5 참조).

미성혼자 조사는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였으나, 성혼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국제결혼 진행 중단 단계, 중단 사유, 그 후 결혼 여부, 향후 국제결혼 추진 계획 등 신상정보와 더불어,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외국 현지 맞선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등이다(부록 3, 부록 6 참조).

표본조사연구와 심층면접의 질문 항목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선택지에서 고르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후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는 형태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해자 조사’는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인 남성 이용자, 이민자 여성 이용자, 미성혼자 중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주요 항목은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회비징수, 부부갈등, 결혼중개 개선방향 등이다(부록 4, 부록 5, 부록 6 참조).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집단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의 조사대상집단은 ①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을 통해 혼인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혼인이 중단된 한국인 남성(이하 ‘혼인중단 남성’), ②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혼인이 중단된 이민 여성(이하 ‘혼인중단 이민여성’), ③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였음에도 성혼되지 못한 한국인 남성(이하 ‘미성혼 남성’)이다. 이용자 조사는 이 세 집단을 모두 포괄하고, 피해자 조사는 그 중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 조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사대상집단의 모집단(population) 명부를 작성할 수도 없고, 당연히 연구자가 그것을 입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혼인중단자는 이혼,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발생한다.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해당 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혼인중단자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성혼자 역시 모집단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구진은 조사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 전국 각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접촉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았다. 연구진은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및 ‘혼인중단 이민여성’을 아울러 646명의 명부를 작성한 후, 그들과 직접 연락을 취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소개해준 기관은 국제결혼피해센터(537개 제공)였다. ‘혼인중단 이민여성’ 명부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주로 입수하였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설문 에 응답한 사람은 총 809명이었는데, 809명 중 2014년 조사 당시 이혼 또는 이혼 절차 중 별거에 응답한 혼인중단자 97명과, 1년 사이에 혼인 상태의 변동이 발생한 사람(혼인중단자, 미성혼자)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입수한 명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응답 거부자가 속출하였다. 연구진은 여성가족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응답자로부터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 받아 새로운 조사대상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조사대상자를 찾았고, 결과적으로 ‘혼인중단 남성’ 415명, ‘혼인중단 이민여성’ 72명, ‘미성혼 남성’ 132명, 도합 619명을 조사 하였다(표 1-1). 그러므로 모집단을 체계적으로 대표한다고 밝힐 수는 없다. 즉, 본 연구의 표본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2)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 조사연구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세 조사 모두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원하는 경

우 자기기입식 조사를 허용하였다. 또한, 미성혼 남성과 혼인중단 남성 조사 시에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인중단 이민여성의 경우는 명부를 입수가 어려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표 1-1>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N)	(단위: 명, %) 비율
혼인중단 남성 조사	(415)	100.0
서울	(47)	11.3
부산	(31)	7.5
대구	(13)	3.1
인천	(23)	5.5
광주	(8)	1.9
대전	(29)	7.0
울산	(9)	2.2
경기	(79)	19.0
강원	(16)	3.9
충북	(19)	4.6
충남(세종포함)	(32)	7.7
전북	(23)	5.5
전남	(27)	6.5
경북	(24)	5.8
경남	(28)	6.7
제주	(7)	1.7
혼인중단 이민여성 조사	(72)	100.0
서울	(3)	4.2
부산	(4)	5.6
대구	(3)	4.2
인천	(2)	2.8
광주	(9)	12.5
전북	(43)	59.7
전남	(2)	2.8
경북	(1)	1.4
제주	(5)	6.9
미성혼 남성 조사	(132)	100.0
서울	(18)	13.6
부산	(11)	8.3
대구	(3)	2.3
인천	(3)	2.3
광주	(6)	4.5
대전	(6)	4.5
울산	(2)	1.5
경기	(27)	20.5
강원	(7)	5.3
충북	(4)	3.0
충남(세종포함)	(13)	9.8
전북	(4)	3.0
전남	(3)	2.3
경북	(9)	6.8
경남	(12)	9.1
제주	(4)	3.0

경우에는 설문지를 맡겨둔 채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자가 다시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유치조사도 병행하였다.

2014년 국제결혼 중개 실태조사의 이용자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이용자 설문 참여자 중 혼인중단자인 97명을 1차 목표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59명의 응답을 받았다. 혼인중단 남성 설문 응답자는 51명, 미성혼 남성 설문 응답자는 8명이었다. 2014년 조사 응답자 중 미성혼 남성 설문에 응답한 경우는 현지에서 결혼까지 하였으나,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 2014년 조사 당시 혼인 유지자 712명을 대상으로 혼인상태 변동을 조사하였다. 그 중 혼인이 중단되어 2015년 조사에 응한 사람 수는 17명이다. 혼인상태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다수 있었고, 혼인상태 질문에 응답을 거부한 사람도 몇몇 있었다.

<표 1-2> 혼인중단 남성 조사의 응답자 기본 특성

	(N)	(단위: 명, %) 비율
전체	(415)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56.1
별거	(86)	20.7
가출	(96)	23.1
연령		
39세 이하	(79)	19.0
40-49세	(240)	57.8
50세 이상	(96)	23.1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0.4
고등학교	(223)	53.7
대학교 이상	(149)	35.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2.7
비임금근로자	(119)	28.7
미취업자	(36)	8.7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8.1
200-299만원	(148)	35.7
300-399만원	(85)	20.5
400만원 이상	(59)	14.2
미취업자 등	(48)	11.6
출신국		
베트남	(255)	61.4
중국	(45)	10.8
필리핀	(34)	8.2
캄보디아	(20)	4.8
우즈베키스탄	(27)	6.5
기타	(34)	8.2

<표 1-2>는 혼인중단 남성 조사의 응답자 415명의 기본 특성을 보여준다. 혼인 상태는 이혼 56.1%, 별거 20.7%, 가출 23.1%이고, 연령 구성은 39세 이하 19.0%, 40-49세 57.8%, 50세 이상 23.1%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10.4%, 고등학교 53.7%, 대학교 이상 35.9%,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 62.7%, 비임금근로자 28.7%, 미취업자 8.7%,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 이하 18.1%, 200-299만원 35.7%, 300-399만원 20.5%, 400만원 이상 14.2%, 미취업자와 무응답자 11.6%이다. 배우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61.4%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10.8%, 필리핀 8.2%, 캄보디아 4.8%, 우즈베키스탄 6.5%, 기타 나라 8.2%이다.

<표 1-3>은 혼인중단 이민여성 조사의 응답자 72명의 기본 특성을 보여준다. 혼인상태는 이혼 73.6%, 별거·가출 26.4%이고, 연령 구성은 34세 이하 36.1%, 35세 이상 63.9%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56.9%, 고등학교 이상 43.1%이고,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 76.4%, 미취업자 23.6%이고, 월평균 임금 수준은 100만원 미만 26.4%, 100-400만원 45.8%, 미취업자와 무응답자 27.8%이다. 응답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47.2%, 기타 나라 52.8%다.

<표 1-3> 혼인중단 이민여성 조사의 응답자 기본 특성

(단위: 명, %)		
	(N)	비율
전체	(72)	100.0
혼인상태		
이혼	(53)	73.6
별거·가출	(19)	26.4
연령		
34세 이하	(26)	36.1
35세 이상	(46)	63.9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56.9
고등학교 이상	(31)	43.1
종사상 지위		
취업자	(55)	76.4
미취업자	(17)	23.6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6.4
100-400만원	(33)	45.8
미취업자 등	(20)	27.8
출신국		
베트남	(34)	47.2
기타	(38)	52.8

<표 1-4> 미성혼 남성 조사의 응답자 기본 특성

	(N)	(단위: 명, %) 비율
전체	(132)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34.1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65.9
연령		
39세 이하	(25)	18.9
40-49세	(79)	59.8
50세 이상	(28)	21.2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56.1
대학교 이상	(58)	43.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57.6
비임금근로자	(45)	34.1
미취업자	(11)	8.3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12.9
200-299만원	(41)	31.1
300-399만원	(29)	22.0
400만원 이상	(32)	24.2
미취업자 등	(13)	9.8

<표 1-4>는 미성혼 남성 조사의 응답자 132명의 기본 특성을 보여준다. 국제결혼 진행 중단 단계는 맞선 또는 그 이전이 34.1%, 결혼식 또는 그 이후 65.9%로 나타났다.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성혼이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은 39세 이하 18.9%, 40-49세 59.8%, 50세 이상 21.2%이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이하 56.1%, 대학교 이상 43.9%이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 57.6%, 비임금근로자 34.1%, 미취업자 8.3%이고,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 이하 12.9%, 200-299만원 31.1%, 300-399만원 22.0%, 400만원 이상 24.2%, 미취업자와 무응답자 9.8%이다.

3)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심층면접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첫째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연구에 응답한 사람들 중 심층면접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연구진이 거주지 별로 그들과 연락하여 만났다. 둘째,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심층면접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소개 받았

다. 셋째, 심층면접 과정에서 피면접자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넷째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으나 혼인이 중단된 사례를 추천받았다. 심층면접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남성 이용자, 여성 이용자, 미성혼자) 중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사람은, ‘이용자 조사’와 ‘피해자 조사’ 항목을 아울러 조사하였다.

<표 1-5> 혼인중단 남성 심층면접의 응답자 기본 특성

ID	이름	성별	연령	결혼	이혼·중단	배우자	중단 유형	지역
A01	김○호	남자	49	2014	2015	중국(한족)	이혼	영암
A02	최○원	남자	48	2004	2014	필리핀	이혼	김제
A03	이○구	남자	49	2006	2014	베트남	이혼	김제
A04	국○규	남자	51	2007	2014	필리핀	이혼	김제
A05	김○열	남자	52	2003	2011	베트남	이혼	김제
A06	장○준	남자	43	2010	2013	베트남	이혼	김제
A07	전○섭	남자	55	2010	2010	중국	이혼	대전
A08	감○수	남자	45	2011	2012	베트남	이혼	정읍
A09	성○광	남자	38	2012	2013	네팔	이혼	정읍
A10	추○재	남자	45	2009	2014	베트남	이혼	남원
A11	길○우	남자	41	2010	2014	베트남	이혼	대전
A12	조○하	남자	57	2006	2010	베트남	이혼	대전
A13	이○우	남자	47	2011	2014	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
A14	함○석	남자	57	2006	2011	중국	이혼	대전
A15	천○섭	남자	54	2007	2013	캄보디아	이혼	울산
A16	이○극	남자	50	2005	2006	베트남	이혼	울산
A17	이○준	남자	41	2013	2013	베트남	이혼	울산
A18	이○용	남자	44	2013	2014	필리핀	이혼	울산
A19	박○재	남자	42	2014	2015	베트남	이혼	울산
A20	주○영	남자	40	2014	2014	베트남	이혼	울산
A21	고○원	남자	57	2006	2015	베트남	이혼	울산
A22	김○하	남자	45	2013	2013	네팔	이혼	울산
A23	한○근	남자	55	2013	2013	필리핀	가출	횡성
A24	노○현	남자	48	2012	2012	베트남	이혼	춘천
A25	강○수	남자	45	2013	2015	캄보디아	가출	춘천
A26	박○갑	남자	51	2004	2012	우즈베키스탄	이혼	화천
A27	정○호	남자	46	2010	2011	캄보디아	이혼	서울
A28	채○준	남자	48	2008	2008	베트남	이혼	서울
A29	탁○용	남자	51	2012	2012	베트남	이혼	인천
A30	마○성	남자	52	2005	2011	베트남	이혼	인천
A31	표○철	남자	49	2014	2015	베트남	이혼	고양

심층면접은 연구진이 면접에 응한 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을 방문해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구조화된 면접질문을 사용하였으나, 사례에 따라 추가질문이 더해졌다. 일대일 심층면접은 사적인 대화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진행했고, 면접 참여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면접 시간은 사례별로 다양했으나 대부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표 1-5>, <표 1-6>, <표 1-7>에는 심층면접에 응한 조사대상자의 기본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와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심층면접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심층면접 대상자의 실명을 감추고 가명을 사용했다.

<표 1-6> 혼인중단 이민여성 심층면접의 응답자 기본 특성

ID	이름	성별	연령	결혼	출신국	중단유형	지역
B01	찬크리스나	여자	26	2010	캄보디아	가출	전주
B02	폴마야	여자	32	2009	네팔	가출	전주
B03	깜	여자	24	2012	베트남	가출	전주
B04	차이	여자	30	2010	베트남	가출	전주
B05	꾹	여자	32	2011	베트남	별거	전주
B06	명명	여자	46	2012	중국(한족)	이혼	전주
B07	호아	여자	28	2007	베트남	소송 중	전주
B08	이○미	여자	50	1999	중국(조선족)	이혼	전주
B09	다이와타	여자	37	2007	필리핀	가출	전주
B10	바이투인	여자	52	2003	필리핀	이혼	전주
B11	시위안	여자	43	2009	중국	이혼	완주
B12	마이	여자	32	2005	베트남	이혼	익산
B13	푸옹	여자	27	2012	베트남	소송 중	익산
B14	티엡	여자	36	2005	베트남	소송 중	익산
B15	부파	여자	27	2007	캄보디아	소송 중	익산
B16	안찰리	여자	28	2007	캄보디아	소송 중	익산
B17	뜨룩	여자	32	2008	베트남	이혼	김제
B18	아카라	여자	32	2007	캄보디아	이혼	김제
B19	바투	여자	46	2005	몽골	이혼	김제

<표 1-7> 미성혼 남성 심층면접의 응답자 기본 특성

ID	이름	성별	연령	진행시 배우자 국적	중단유형	지역
C01	김○현	남자	43	키르기스스탄	미성혼	서울
C02	고○희	남자	42	베트남	미성혼	서울
C03	천○수	남자	54	베트남	미성혼	포천

4.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총 6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서론은 ‘제1장 서론’의 단일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 목적과 필요성, 연구 내용과 범위, 연구방법, 보고서의 구성으로 짜여 있다.

제2부에서는 ‘혼인중단 남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데, ‘제2장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제3장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제4장 국제결혼 부부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계’, ‘제5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의 네 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혼인중단 이민여성 조사 결과’를 수록하고 있는데, ‘제6장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제7장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에 대한 정보’, ‘제8장 국제결혼 부부와 출신국 현지 중개인의 관계’, ‘제9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의 네 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4부에서는 ‘미성혼 남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데, ‘제10장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및 중단 과정’, ‘제11장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제12장 외국 현지 맞선’, ‘제13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부 ‘혼인중단 남성·혼인중단 이민여성·미성혼 남성 비교 분석’에서는 제2부, 제3부, 제4부에서 각각 분석한 사항들 중 공통문항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제14장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제15장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제16장 국제결혼 부부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계’, ‘제17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부 ‘정책 제언’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8장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 개선 과제’에서는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제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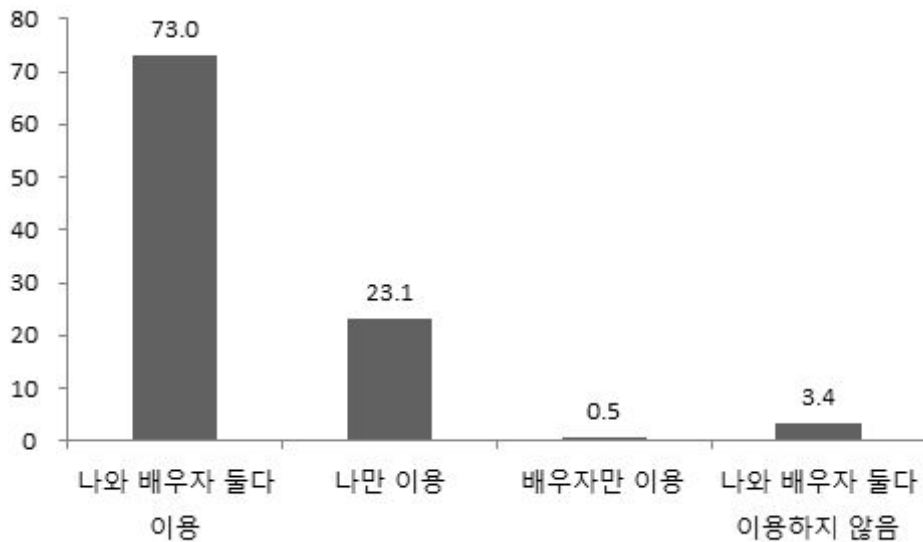
혼인중단 남성 조사 결과

제 2 장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혼인중단 남성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73.0%로 가장 높으며, ‘나만 이용했다’(23.1%),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3.4%), ‘배우자만 이용했다’(0.5%) 순이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나만 이용했다’ 순이다.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80.2%), 연령별로는 50세 이상(78.1%),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77.6%),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8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나만 이용했다’의 응답 비율은 연령 및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가출(27.1%), 출신국별로는 기타 출신국을 제외하고는 중국(26.7%)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 “나와 배우자 둘 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 중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쪽에서라도 누군가에게 국제결혼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사례’만 이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림 2-1]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여부

결혼한 지 시일이 지난 응답자 중 일부는 배우자가 중개업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제결혼중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배우자가 본국에서 어떻게 자신과 맞선을 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자신만 중개업체를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1>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여부

(단위: 명, %)

	(N)	나와 배우자 들 다 이용했다	나만 이용했다	배우자만 이용했다	나와 배우자 들 다 이용하지 않았다	계
■ 전체 ■	(415)	73.0	23.1	0.5	3.4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73.4	23.6	0.0	3.0	100.0
별거	(86)	80.2	17.4	1.2	1.2	100.0
가출	(96)	65.6	27.1	1.0	6.3	100.0
연령						
39세 이하	(79)	74.7	25.3	0.0	0.0	100.0
40-49세	(240)	70.4	24.6	0.4	4.6	100.0
50세 이상	(96)	78.1	17.7	1.0	3.1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69.8	25.6	2.3	2.3	100.0
고등학교	(223)	72.2	25.1	0.4	2.2	100.0
대학교 이상	(149)	75.2	19.5	0.0	5.4	100.0
중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72.3	22.7	0.8	4.2	100.0
비임금근로자	(119)	74.8	22.7	0.0	2.5	100.0
미취업자	(36)	72.2	27.8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74.7	22.7	0.0	2.7	100.0
200-299만원	(148)	68.9	25.0	1.4	4.7	100.0
300-399만원	(85)	77.6	20.0	0.0	2.4	100.0
400만원 이상	(59)	74.6	22.0	0.0	3.4	100.0
미취업자 등	(48)	72.9	25.0	0.0	2.1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72.9	22.7	0.8	3.5	100.0
중국	(45)	66.7	26.7	0.0	6.7	100.0
필리핀	(34)	85.3	14.7	0.0	0.0	100.0
캄보디아	(20)	80.0	20.0	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74.1	22.2	0.0	3.7	100.0
기타	(34)	64.7	32.4	0.0	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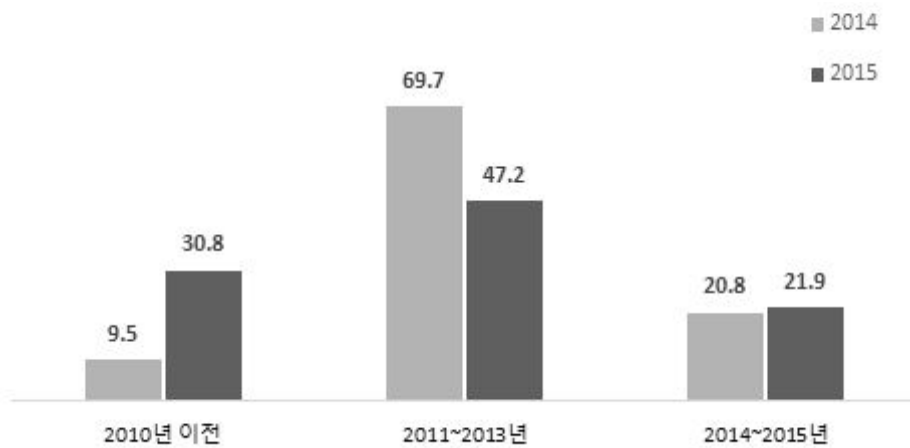
주: "나와 배우자들 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 중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쪽에서라도 누군가에게 국제결혼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사례'만 이 분석에 포함하였다.

혼인증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언제 하였는지 조사하였다. <표 2-2>와 <표 2-3>에 따르면, '2011-2013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4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2010년 이전'(30.8%), '2014-2015년'(21.9%) 순이다.

혼인 신고 시기를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1-2013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가장 높으나, 2014년 조사 결과는 '2011-2013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0년 이전'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3장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에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을 조사한 결과와 동일한 분포이다.

<표 2-2> 혼인신고 시기, 2014-2015년

(단위: 명, %)					
	(N)	2010년 이전	2011-2013년	2014-2015년	계
2015	(415)	30.8	47.2	21.9	100.0
2014	(800)	9.5	69.7	20.8	100.0



[그림 2-2] 혼인신고 시기, 2014-2015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과 별거의 경우 '2011-2013년'(각각 55.4%, 39.5%)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가출인 경우는 '2014-2015년'(41.7%)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와 40-49세의 경우 '2011-2013년'(각각 51.9%, 47.1%)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2010년 이전'(41.7%)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에서는 ‘2010년 이전’(46.5%)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상에서는 ‘2011-2013년’(각각 46.6%, 49.7%)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종사상 지위별, 배우자 출신국별로는 응답자 특성과 상관없이 ‘2011-2013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2011-2013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2-3> 혼인신고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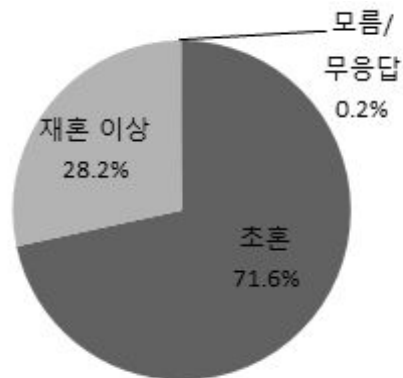
(단위: 명, %)

	(N)	2010년 이전	2011-2013년	2014-2015년	계
■ 전체 ■	(415)	30.8	47.2	21.9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4.8	55.4	9.9	100.0
별거	(86)	27.9	39.5	32.6	100.0
가출	(96)	24.0	34.4	41.7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7.7	51.9	30.4	100.0
40-49세	(240)	29.2	47.1	23.8	100.0
50세 이상	(96)	45.8	43.8	10.4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6.5	41.9	11.6	100.0
고등학교	(223)	33.2	46.6	20.2	100.0
대학교 이상	(149)	22.8	49.7	27.5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0.0	45.4	24.6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3.6	47.1	19.3	100.0
미취업자	(36)	27.8	61.1	11.1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6.7	37.3	16.0	100.0
200-299만원	(148)	27.0	47.3	25.7	100.0
300-399만원	(85)	18.8	52.9	28.2	100.0
400만원 이상	(59)	32.2	49.2	18.6	100.0
미취업자 등	(48)	37.5	50.0	12.5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6.9	40.0	23.1	100.0
중국	(45)	22.2	60.0	17.8	100.0
필리핀	(34)	17.6	61.8	20.6	100.0
캄보디아	(20)	25.0	45.0	3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9.6	44.4	25.9	100.0
기타	(34)	14.7	73.5	11.8	100.0

<표 2-4> 초혼, 재혼 여부

(단위: 명, %)

	(N)	초혼	재혼 이상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71.6	28.2	0.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68.2	31.8	0.0	100.0
별거	(86)	74.4	25.6	0.0	100.0
가출	(96)	77.1	21.9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87.3	11.4	1.3	100.0
40-49세	(240)	76.3	23.8	0.0	100.0
50세 이상	(96)	46.9	53.1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55.8	44.2	0.0	100.0
고등학교	(223)	71.3	28.3	0.4	100.0
대학교 이상	(149)	76.5	23.5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72.7	26.9	0.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73.1	26.9	0.0	100.0
미취업자	(36)	58.3	41.7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78.7	20.0	1.3	100.0
200-299만원	(148)	70.9	29.1	0.0	100.0
300-399만원	(85)	75.3	24.7	0.0	100.0
400만원 이상	(59)	69.5	30.5	0.0	100.0
미취업자 등	(48)	58.3	41.7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72.5	27.5	0.0	100.0
중국	(45)	62.2	37.8	0.0	100.0
필리핀	(34)	67.6	29.4	2.9	100.0
캄보디아	(20)	60.0	4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88.9	11.1	0.0	100.0
기타	(34)	73.5	26.5	0.0	100.0



[그림 2-3] 초혼, 재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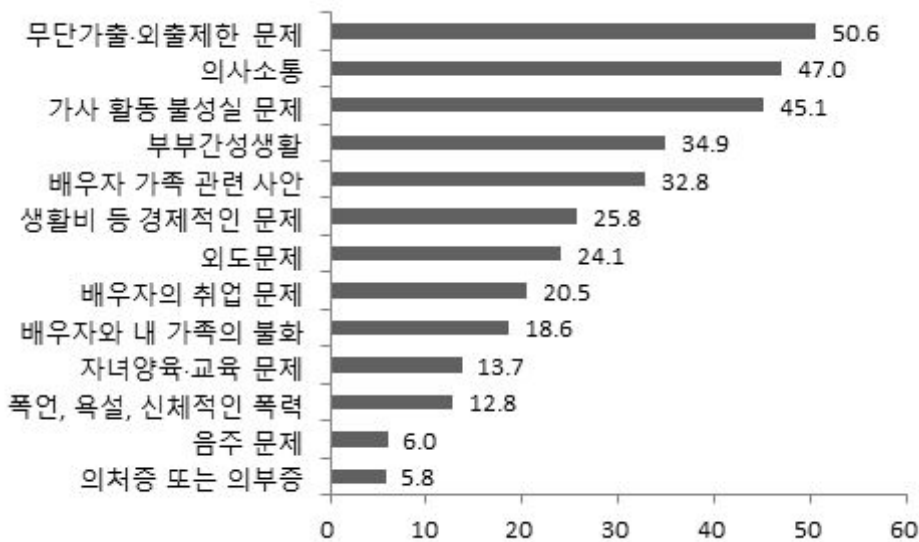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의 결혼이 본인에게 초혼 또는 재혼 이상인지 조사한 결과(표 2-4),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71.6%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가출(77.1%)인 경우 가장 높고, 별거(74.4%), 이혼(68.2%)의 순으로 높다.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중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 상태인 경우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에 나타났으며,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인 경우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78.7%로 가장 높고, 300-399만원(75.3%), 200-299만원(70.9%) 순이다.

배우자 출신국별로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은 기타 출신국을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88.9%)이 가장 높으며, 베트남(72.5%), 필리핀(67.6%) 순이다.



[그림 2-4] 부부 갈등 문제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는지를 13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표 2-5, 그림 2-4). 그 결과,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가장 높으며, ‘의사소통문제’(47.0%),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45.1%), ‘부부간 성 생활 문제’(34.9%),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32.8%) 등의 순이다.

반면, ‘의처증 또는 의부증’ 및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5.8%, 6.0%로 가장 낮으며, ‘폭언·욕설·신체적인 폭력’(12.8%), ‘자녀양육·교육 문

제’(13.7%), ‘배우자와 내 가족의 불화’(18.6%) 등의 순으로 낮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혼인중단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는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이번 조사에서 무단가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대상자가 혼인중단자에 국한되었기 때문이고, 무단가출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체가정의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무단가출이 가정 해체의 가장 큰 이유이며 또한 애초에 결혼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여성들이 입국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입국한지 1달 만에 무단가출한 다음 사례는 실제 부부간의 갈등이 형성될 겨를조차 없었던 경우이다.

아내가 1월 13일에 입국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준비도 있고 해서, 부모님 댁이 있는 ○○에 임시로 있었어요. 저는 제 직장이 있는 ○○로 출퇴근을 했고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집에 도착하면 10시 되니까 별로 같이 지낸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신혼이어서 주말에는 일을 안 했어요. 2월 초에 한국에서 식을 올리고 일주일 후에 집에 가니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계셨는데 잠깐 사이에 없어졌어요. 혼자 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 데리러 왔던 거 같아요. 길도 모르는 사람이 1달 만에 집을 나갔어요[사례 #A20, 남, 40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입국해서 한 20일은 재미있게 살았어요. 러시아 말도 같이 배우고 근데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해 버리네. 그래서 키르기스스탄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통역을 조금 부탁했어요. 뭐가 문제냐. 갑자기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돈을 보내 달라 그래요. 한 200만원 보냈는데 그것밖에 안 보내줬다고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패물이랑 노트북 사준 거랑 다 들고 나가버렸어요. 한 달 만에. 파출소에 가출 신고 하고 기다리다가 1년인가 1년 반 있다가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사례 #A13, 남, 47세, 2011년 결혼, 배우자 국적 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거주].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출하여 가정이 해체된 경우 가출의 원인은 크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이유와 다른 남성과의 외도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먼저, 경제활동의 경우 입국하자마자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생활에 익숙한 후에 일하러 나가라는 남편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인 남편들은 이들 여성들의 결혼 동기가 한국에 와서 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의심한다.

일부 여성들은 남성 배우자들이 일정기간 한국 생활에 정착한 후에는 나가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설명해도 일을 하기 위해 가출한 경우도 있다.

아는 언니는 회사 다녀. 한 달에 190만원 받는데. 그러면서 나도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아..... 아직은 안 된다. 아직까지 출고, 한참 추울 때 왔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돈 벌고 싶은데? 그러면 이유를 안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사례 #A20, 남, 40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표 2-5> 배우자와의 갈등, 2014-2015년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비해당	모름·무응답	계
의사소통 문제						
2015	(415)	47.0	52.5	0.0	0.5	100.0
2014	(800)	29.4	69.4	0.0	1.2	100.0
부부간 성 문제						
2015	(415)	34.9	63.6	0.0	1.4	100.0
2014	(800)	9.6	89.1	0.0	1.3	100.0
외도 문제						
2015	(415)	24.1	75.2	0.0	0.7	100.0
2014	(800)	3.4	95.2	0.0	1.3	100.0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						
2015	(415)	45.1	53.3	1.0	0.7	100.0
2014	(800)	12.5	86.2	0.0	1.3	100.0
자녀양육·교육문제						
2015	(415)	13.7	25.5	59.0	1.7	100.0
2014	(800)	9.1	54.3	0.0	1.6	100.0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						
2015	(415)	50.6	48.7	0.0	0.7	100.0
2014	(800)	8.1	90.6	0.0	1.3	100.0
음주 문제						
2015	(415)	6.0	92.5	0.0	1.4	100.0
2014	(800)	3.0	95.6	0.0	1.3	100.0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						
2015	(415)	32.8	66.3	0.0	1.0	100.0
2014	(800)	11.3	87.4	0.0	1.3	100.0
배우자와 자기가족의 불화						
2015	(415)	18.6	60.2	19.5	1.7	100.0
2014	(800)	10.2	82.3	0.0	1.6	100.0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2015	(415)	25.8	73.0	0.2	1.0	100.0
2014	(800)	11.4	87.4	0.0	1.2	100.0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2015	(415)	12.8	86.0	0.2	1.0	100.0
2014	(800)	4.0	94.6	0.0	1.3	100.0
의처증 또는 의부증						
2015	(415)	5.8	93.0	0.2	1.0	100.0
2014	(800)	4.2	94.5	0.0	1.2	100.0



[그림 2-5] 배우자와의 갈등, 2014-2015년

13가지 부부갈등 항목 중 의사소통 문제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배우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2.5%로 약간 높다.

혼인상태별, 연령별, 최종학력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으나,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상태인 경우 별거나 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도 낮을수록 높다. 종사상지위와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인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높으며,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63.0%)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2-6> 부부갈등: 의사소통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47.0	52.5	0.5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8.5	51.1	0.4	100.0
별거	(86)	46.5	53.5	0.0	100.0
가출	(96)	43.8	55.2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48.1	50.6	1.3	100.0
40-49세	(240)	47.5	52.1	0.4	100.0
50세 이상	(96)	44.8	55.2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8.8	51.2	0.0	100.0
고등학교	(223)	46.2	52.9	0.9	100.0
대학교 이상	(149)	47.7	52.3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6.2	53.1	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47.1	52.9	0.0	100.0
미취업자	(36)	52.8	47.2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2.7	56.0	1.3	100.0
200-299만원	(148)	46.6	52.7	0.7	100.0
300-399만원	(85)	45.9	54.1	0.0	100.0
400만원 이상	(59)	49.2	50.8	0.0	100.0
미취업자 등	(48)	54.2	45.8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8.2	51.8	0.0	100.0
중국	(45)	48.9	51.1	0.0	100.0
필리핀	(34)	38.2	55.9	5.9	100.0
캄보디아	(20)	45.0	5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63.0	37.0	0.0	100.0
기타	(34)	32.4	67.6	0.0	100.0

국제결혼 부부 간 의사소통의 문제, 즉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인 남성들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정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자신을 거부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힘들었다고 한다.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첫째, 중개업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역 서비스를 부탁하거나, 셋째, 아내와 같은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 결혼이민자와 상담한다.

<사례 #A30>의 경우는 의사소통으로 고생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배우자의 모국어 사전을 구입해서 초보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오자마자 밥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자기는 베트남에 가야겠다, 입국을 하자마자, 밥을 안 먹으면서, 그 이유는 뭐냐고,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때 상황에서 베트남 책을 많이 구입했어요. 구입을 해서 애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을 보여주면서, 베트남어 밑에 한국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역을 해본 결과, 자기는 부모가 보고 싶으니 가야 한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왜 갈 것이냐고 하니, 그냥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래서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사례 #A30, 남, 52세, 2005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인천 거주].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 보여주고 그것으로 상대방의 의중을 유추하는 식의 의사소통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로 도움을 준다.

첫 번째로 생긴 부분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도, 처음에 와 가지고 우울증이 걸린 사람처럼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야기해서 통역도 불러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사례 #A08, 45세, 2011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정읍 거주].

아니, 저하고 다뤄 가지고, 원룸이 있을 때, 원룸 얻어 가지고 나가서 있을 때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서 상담도 하고, 영암 삼호, 목포에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요. 목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서도 중국 선생하고 같이 해 가지고, 통역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도 안 돼요. 밖에 나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 사람이랑 차를 같이 탔는데 차 핸들을 꺾어가지고 혼났다니까요[사례 #A01, 남, 49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중국(한족), 이혼, 영암 거주].

당시 배우자와 부부간 성 생활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63.6%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나,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가출 상태인 경우 40.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이혼(33.9%), 별거(31.4%)의 순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간 성 생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 미만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또한 배우자 출신국별로 중국 출신인 경우 성 생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22.2%로 가장 낮다.

부부 간 성생활의 갈등은 한국에 입국한 후 부부관계를 거부한 사례들이 있었다. 물론 한국인 남성들의 설명을 당사자인 해당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확인할 수는 없어 일방적 설명일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임한 많은 면접자들이 설명한 내용을 일방적 주장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사례들의 유형이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사례 #A13>은 부인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쩌다 부부 관계를 하더라도 “억지로 해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 입국하는 날 공항에 나가서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봤어요. 그런데 저하고 딱 눈을 마주치는데 얼굴이 무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애한테 짐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차에다 실어야 되니까, 근데 확 낚아채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갖고 있던, 뭐죠, 바퀴 달린 것, 캐리어를 확 낚아채면서 자기가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할 사유도 없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았어요, 그 상태로 계속. 집에서도 똥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자기 손을 잡으려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느낌상 잘못했다는 것은 알았어요[사례 #A25, 남, 45세, 2013년 결혼, 배우자 국적 캄보디아, 이혼소송 중, 춘천거주].

입국 후 단기간에 가출한 여성들은 많은 경우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가 많다. <사례 #A09>는 입국한 아내가 가출하기 전 40일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고 한다. 입국한 후 언어 문제로 대화가 어려웠고, 실제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척을 하며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부 간의 성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 심층면접자들이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들은 자신들의 탓으로 문제를 인식하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부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내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혼하게 된 것도, 아- 내가 만족을 못 시켜줘 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 혼자 그런 생각인지 모르는데. 짐사람이 그걸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애하고 살아요. ○○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은 안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유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거지요[사례 #A14, 남, 57세, 2006년 결혼, 배우자 국적 중국(한족), 대전 거주].

<표 2-7> 부부갈등: 부부간 성 생활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34.9	63.6	1.4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3.9	64.4	1.7	100.0
별거	(86)	31.4	68.6	0.0	100.0
가출	(96)	40.6	57.3	2.1	100.0
연령					
39세 이하	(79)	40.5	57.0	2.5	100.0
40-49세	(240)	36.3	62.1	1.7	100.0
50세 이상	(96)	27.1	72.9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5.6	74.4	0.0	100.0
고등학교	(223)	35.9	62.3	1.8	100.0
대학교 이상	(149)	36.2	62.4	1.3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3.5	64.2	2.3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7.8	62.2	0.0	100.0
미취업자	(36)	36.1	63.9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8.7	58.7	2.7	100.0
200-299만원	(148)	35.1	63.5	1.4	100.0
300-399만원	(85)	36.5	63.5	0.0	100.0
400만원 이상	(59)	27.1	69.5	3.4	100.0
미취업자 등	(48)	35.4	64.6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5.7	63.1	1.2	100.0
중국	(45)	22.2	77.8	0.0	100.0
필리핀	(34)	35.3	55.9	8.8	100.0
캄보디아	(20)	45.0	5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4.4	55.6	0.0	100.0
기타	(34)	32.4	67.6	0.0	100.0

당시 배우자와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75.2%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가출(82.3%), 연령별로는 50세 이상(77.1%),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79.1%),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79.8%),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 이하(81.3%),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86.7%)이 가장 높다.

<표 2-8> 부부갈등: 외도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24.1	75.2	0.7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5.3	73.8	0.9	100.0
별거	(86)	29.1	70.9	0.0	100.0
가출	(96)	16.7	82.3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1.5	75.9	2.5	100.0
40-49세	(240)	25.4	74.2	0.4	100.0
50세 이상	(96)	22.9	77.1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0.9	79.1	0.0	100.0
고등학교	(223)	25.6	73.5	0.9	100.0
대학교 이상	(149)	22.8	76.5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5.8	73.1	1.2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0.2	79.8	0.0	100.0
미취업자	(36)	25.0	75.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7.3	81.3	1.3	100.0
200-299만원	(148)	25.0	73.6	1.4	100.0
300-399만원	(85)	28.2	71.8	0.0	100.0
400만원 이상	(59)	23.7	76.3	0.0	100.0
미취업자 등	(48)	25.0	75.0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6.3	73.3	0.4	100.0
중국	(45)	13.3	86.7	0.0	100.0
필리핀	(34)	26.5	67.6	5.9	100.0
캄보디아	(20)	20.0	8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0.7	59.3	0.0	100.0
기타	(34)	8.8	91.2	0.0	100.0

외도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은 최근 한국인 남성들이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하는 사례다.

가출을 했어요. 9월 17일 날 가출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 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들어온 것은 아니고, 와 가지고 가까이에 방을 하나 얻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있고 해서 가까이 살면 나중에 다시 들어 오겠거니 했어요. 주말에 그 집을 가보면 집사람 차가 다른 집 앞에 주차되어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이 사는 곳인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나 봐요[사례 #A15, 남, 54세, 배우자 국적 캄보디아, 이혼, 울산거주].

심층면접 응답자 중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본국 출신 외국인근로자들과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이 만나는 통로는 본국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기도 하지만, SNS를 통해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례 #A20>은 SNS를 통해 본국 출신 외국인근로자를 만나 가출한 경우이다.

[가출한 후, 부모님께 이상한 일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며칠 전부터 전화통화를 하는데 자꾸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오빠라 하면서, 그래서 아내랑 같은 나라에서 온 결혼이민자이고 그동안 친하게 지낸 집 남편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가출했다. 그러면서 형님, 이런 일이 생겼다, 형수한테 들은 거 있냐고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수가,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죠. 아내에게 한 번씩 전화 안 되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수가 아내가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던데 하면서, 사실은 사귀는 남자가 있었다. 같이 영화 보러 가는 남자가 있었다. 같이 영화 보러 갔다고 해요. 저는 그때 페이스북을 안 했거든요, [그 형수가 아내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 보여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라 온 아이디가 세 개가 되거든요, 페이스북 아이디요. 형수가 페이스북을 하니깐 페이스북을 세 개나 찾았어요, 한 개는 가장 최근에 만든 거고 두 개는 이전부터, 최근에 만든 것의 사진을 보니까 베트남 남자랑 원룸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남자 작업복을 보니까 ○○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때 마침 거기에 제가 아는 동생이 반장으로 있거든요. [전화해서] 야, 거기 베트남 노동자 이런 애가 있냐고 하니깐, 형, 그 사람 불법체류자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거기 지금 있냐고 그러니까, 아는 동생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요. 내가 무조건 그 사람 있으면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애 얼마 전에 여자 친구랑 있다가 일을 그만두고 여자 친구랑 다른 데 일자리 구한다고 하면서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수소문을 했죠. 그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베트남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자기들 국민이라고 자기들끼리 편을 들어요. 그래서 한 놈 순진한 애를 불러 가지고 돈 100만 원 주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면 내가 100만 원 더 줄 거라고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베트남 남자를 붙잡았어요.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그러니까, 애랑 안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해요. 한국 카카오톡처럼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잘로(Zalo)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친구추가를 하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대요.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났다고. [남자에게] 네가 꼬셨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꼬셨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대요[사례 #A20, 남, 40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실제 SNS를 통해 만난 남성을 찾아 가출하지 않았지만, 부부 간 이혼의 계기가 된 경우도 있다. <사례 #A10>은 부인이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고 다른 남성과 SNS를 이용한 대화에 몰두하거나 전화하는 사례를 언급한다.

제일 중요한 게,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어요. 저도 제일 후회하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낸 거예요. 결국 안 좋은 애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났더라고요. 걔들을 만나고서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애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얼마부터는 만나기 시작하더니 맨날 핸드폰만 하고. [알고 보니]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친구, 애인을 두는 것이 서로 간의 자존심[경쟁]이에요. 나는 있고 너는 없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가서 우두커니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왕따가 되잖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애인이 있고, 남자가 있다, 그러면서 [베트남 친구들] 페이스북을 보여주고, 저한테 [설명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베트남 남자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누구냐고 하니깐 고향친구인데 지금 ○○에 살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좋아해서 자기에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만 전해주고 그래라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저하고 가끔씩 싸우면, 어느 날부터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지켜보니 계속 그 남자하고 그걸[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핸드폰을 뺏어서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남자하고 하트 보내고, 이모티콘 보내고, 서로 하루 종일, 그게 안부 전화래. 근데 그게 안부 전화가 아니죠[사례 #A10, 남, 45세, 2009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남원거주].

이 남성은 SNS를 통해 본국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아내를 설득하다가 이혼을 언급하며 법원을 다녀왔다고 했다. 집을 먹은 아내는 다시는 본국 남성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두 차례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근데 나중에 또 했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풀어서 그것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서로 사진 보내고, 예쁘게 화장해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 서로 페이스북 아이디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까지 갔다 왔죠. [이혼할 생각은 없어서 겁만 주려고] 서류만 쓰고 말았죠.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한 20분 동안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그랬어요. 페이스북 메인사진에다 그 남자하고 하트를 만들어서 둘이, 그게 자랑이라니까요.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려고[사례 #A10, 남, 45세, 2009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남원거주].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3.3%로 다소 높다.

당시 배우자와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48.8%)인 경우 가장 높고,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근로자인 경우 가장 높고,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인 경우 가장 높다. 배우자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이 70.4%로 가장 높고, 베트남(46.7%) 순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사 활동에 불성실하다는 비판은 살림이 미숙한 것이나 입국하자마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 중 일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입국 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일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표 2-9> 부부갈등: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45.1	53.3	1.7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3.8	54.1	2.1	100.0
별거	(86)	48.8	48.8	2.3	100.0
가출	(96)	44.8	55.2	0.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53.2	45.6	1.3	100.0
40-49세	(240)	46.3	51.7	2.1	100.0
50세 이상	(96)	35.4	63.5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7.9	69.8	2.3	100.0
고등학교	(223)	46.6	51.1	2.2	100.0
대학교 이상	(149)	47.7	51.7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3.5	55.8	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48.7	47.1	4.2	100.0
미취업자	(36)	44.4	55.6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4.0	54.7	1.3	100.0
200-299만원	(148)	42.6	54.7	2.7	100.0
300-399만원	(85)	47.1	50.6	2.4	100.0
400만원 이상	(59)	47.5	52.5	0.0	100.0
미취업자 등	(48)	47.9	52.1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6.7	51.8	1.6	100.0
중국	(45)	40.0	57.8	2.2	100.0
필리핀	(34)	32.4	64.7	2.9	100.0
캄보디아	(20)	40.0	55.0	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70.4	29.6	0.0	100.0
기타	(34)	35.3	64.7	0.0	100.0

처음에는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같은 나라 출신 이주여성도 만나게 해 주고 친구를 사귀게 했는데, 밤낮으로 친구만 만나요. 완전히 바깥으로만 도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갈 일이 없으면 집에서 계속 잠만 자고[사례 #A25, 남, 45세, 2013년 결혼, 배우자 국적 캄보디아, 이혼, 춘천거주].

한국에 왔는데 아무 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내가 6개월, 7개월을 살다가 혼인무효를 받았지만,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전화만 붙들고 있어요.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밥도 안 해줘요. 밥도 안 차려줘요. 내가 개 팬티까지 빨아줬어요[사례 #31, 남, 50세, 2013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혼인무효, 고양거주]

집안일을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친구들과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친구들과하

고 놀러가도 상관없다, 네가 한 시간, 두 시간 가서 노는 것은 상관없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가 5시에 오면 최소 3시나 4시에는 와서 청소도 하고, 애들 반찬 준비하고, 근데 제가 일 끝나고 오면 그때 가서 해요, 정신없게. 그러니까 놀러 못 가게 하는 게 아닌데, 5시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5시에 애들이 오니까 한 시간 전에라도 와서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를 하면, 살다보면 고쳐질 텐데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화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짜증이 나요. 그러면 말이 예쁘게 안 나가죠. 이제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 집사람은 왜 화를 내냐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안 하고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사례 #A10, 남, 45세, 2009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남원거주].

<표 2-10> 부부갈등: 자녀양육·교육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비해당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13.7	25.5	59.0	1.7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2.0	25.3	60.9	1.7	100.0
별거	(86)	22.1	29.1	46.5	2.3	100.0
가출	(96)	10.4	22.9	65.6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5.1	24.1	69.6	1.3	100.0
40-49세	(240)	15.4	22.9	59.6	2.1	100.0
50세 이상	(96)	16.7	33.3	49.0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6.3	39.5	41.9	2.3	100.0
고등학교	(223)	15.7	24.2	57.8	2.2	100.0
대학교 이상	(149)	10.1	23.5	65.8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2.3	26.2	59.6	1.9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7.6	21.8	58.8	1.7	100.0
미취업자	(36)	11.1	33.3	55.6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4.0	32.0	41.3	2.7	100.0
200-299만원	(148)	8.8	27.0	62.2	2.0	100.0
300-399만원	(85)	9.4	17.6	71.8	1.2	100.0
400만원 이상	(59)	18.6	20.3	59.3	1.7	100.0
미취업자 등	(48)	14.6	31.3	54.2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5.7	30.6	52.5	1.2	100.0
중국	(45)	15.6	13.3	68.9	2.2	100.0
필리핀	(34)	5.9	20.6	70.6	2.9	100.0
캄보디아	(20)	5.0	30.0	6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2.2	7.4	66.7	3.7	100.0
기타	(34)	2.9	20.6	73.5	2.9	100.0

자녀양육·교육 문제로 부부갈등을 겪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7%가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25.5%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교육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인 상태가 22.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이혼(12.0%), 별거(10.4%)의 순이다.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자녀양육·교육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7.6%)인 경우,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 이하(24.0%)인 경우 높다.

배우자 출신국별로 자녀양육·교육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이 22.2%로 가장 높고, 베트남(15.7%), 중국(15.6%) 등의 순이다.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경우는 대부분 양육에 대한 문제였다. 교육문제로 다툼 정도로 장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기들도 갓난아기일 때, 신생아일 때는 물 같은 것을 끓여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식당에 가서 정수기 물을 해서 줘요. 근데 겨울에는 사람들이 따뜻한 물을 많이 먹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나마. 근데 여름 같은 때는 따뜻한 물을 많이 안 뽑아먹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정수기의 물이 업체에서 청소를 안 하면 그것이 1년 가까이 된 물이에요. 근데 신생아한테 그런 물로 분유를 타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교육시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혼자 화를 내죠[사례 #A10, 남, 45세, 2009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남원거주].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0.6%로 약간 높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가출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60.4%로 가장 높으며, 이혼과 별거인 경우는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은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4.2%로 더 높으며, 40-49세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60.5%로 높고, 고등학교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3.4%로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0.4%로 다소 높으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인 경우 55.6%로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와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300-399만원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2-11> 부부갈등: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50.6	48.7	0.7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9.4	49.8	0.9	100.0
별거	(86)	43.0	57.0	0.0	100.0
가출	(96)	60.4	38.5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51.9	45.6	2.5	100.0
40-49세	(240)	52.1	47.5	0.4	100.0
50세 이상	(96)	45.8	54.2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39.5	60.5	0.0	100.0
고등학교	(223)	53.4	45.7	0.9	100.0
대학교 이상	(149)	49.7	49.7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8.5	50.4	1.2	100.0
비임금근로자	(119)	53.8	46.2	0.0	100.0
미취업자	(36)	55.6	44.4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5.3	53.3	1.3	100.0
200-299만원	(148)	51.4	47.3	1.4	100.0
300-399만원	(85)	56.5	43.5	0.0	100.0
400만원 이상	(59)	45.8	54.2	0.0	100.0
미취업자 등	(48)	52.1	47.9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52.9	46.7	0.4	100.0
중국	(45)	42.2	57.8	0.0	100.0
필리핀	(34)	50.0	44.1	5.9	100.0
캄보디아	(20)	50.0	5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59.3	40.7	0.0	100.0
기타	(34)	38.2	61.8	0.0	100.0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중국 출신인 경우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우즈베키스탄(59.3%)과 베트남(52.9%) 출신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이번 조사에서 무단가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대상자가 혼인중단자에 국한되었기 때문이고, 무단가출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체가정의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무단가출이 가정 해체의 가장 큰 이유이며 또한 애초에 결혼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여성들이 입국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입국한지 1달 만에 무단가출한 다음 사례는 실제 부부간의 갈등이 만들어질 시

간조차 없었던 경우이다.

아내가 1월 13일에 입국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준비도 있고 해서, 부모님 택이 있는 ○○에 임시로 있었어요. 저는 제 직장이 있는 ○○로 출퇴근을 했어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집에 도착하면 10시 되니까 별로 같이 지낸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신혼이어서 주말에는 일을 안 했어요. 2월 초에 한국에서 식을 올리고 일주일 후에 집에 가니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계셨는데 잠깐 사이에 없어졌대요. 혼자 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 데리러 왔던 거 같아요. 길도 모르는 사람이 1달 만에 집을 나갔어요[사례 #A20, 남, 40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입국해서 한 20일은 재미있게 살았어요. 러시아 말도 같이 배우고 근데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해 버리네. 그래서 키르기스스탄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통역을 조금 부탁했어요. 뭐가 문제냐. 갑자기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돈을 보내 달라 그래요. 한 200만원 보냈는데 그것밖에 안 보내줬다고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패물이랑 노트북 사준 거랑 다 들고 나가버렸어요. 한 달 만에. 파출소에 가출 신고 하고 기다리다가 1년인가 1년 반 있다가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사례 #A13, 남, 47세, 2011년 결혼, 배우자 국적 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거주].

입국한 지 20일 만에 가출했어요. 저는 나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소개해 준 매니저가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는 못 나간다, 그거는 모른다, 그러니까 입국하면 무조건 잘해줘라, 그 양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되 송금만큼은 본인의 의지대로 하지 말고 제가 필요한, 이 정도면 조금 보내줘야겠다, 그런 생각, 완전히 안 보내줄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조금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조금씩 보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참 주도면밀하더라고요. 제 명의로 폰을 뽑아줬는데 나중에 통화기록을 빼보니까 전부 다 인터넷통화예요. 그 와 중에 번호 두 개인가 세 개 휴대폰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베트남 사람이 받아요. 몰라, 몰라. 그렇게만 말해요[사례 #A17, 남, 41세, 2013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출 형태 중에는 이미 한국에 입국해 있던 친척이나 본국 친구 집에 다니러 가서 귀가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입국해서 바로 행동이 너무 변해서, 언니한테 설득을 해달라고 보냈어요. 서울에 보내서 제발 애를 설득해 달라, 근데 언니하고 같이 놀러만 다니고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언니가 설득을 한 다음에 돌려보내야겠다는 말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사례 #25, 남, 45세, 2013년 결혼, 배우자 국적 캄보디아, 이혼 재판 중, 춘천 거주].

함께 입국하거나 입국 후 거주지에서 만난 본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동반 가출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같이 입국한 ○○랑, 1주일 뒤에 입국한 ○○랑] 그러니까 단짝친구예요. 같이 한국에 입국한 동기, 그리고 현지에서도 같이 만난 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맞선 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가 딱 오자마자 열흘 만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에서 같이 사니까 단짝으로 지냈는데. 시간을 두고 세 명이 다 가출했어요. 줄줄이. 나중에 페이스 북 찾아보니까 셋이 같이 사진 찍어 올린 게 있는데 호텔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도시락 먹고 사진 찍어 올렸는데 거기 젓가락이 있어요. 젓가락 포장지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해 보니 ○○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나이트클럽도 그 인근에 있고요[사례 #25, 남, 45세, 2013년 결혼, 배우자 국적 캄보디아, 이혼 재판 중, 춘천 거주].

같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의 배우자 모두가 입국 직후 바로 가출한 사례도 있다.

저희가 그 때 세 명 갔어요. 세 명이 갔는데 세 명이 다 가출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왔으니까 처음에 나갔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저보다 한 달 늦게 왔는데 또 세 달 만에 가고, 세 번째에 온 사람은 한 1년 늦게 들어왔어요[입국했어요]. 1년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몇 개월 후에 갔거든요[가출했거든요]. 세 명이 갔으며 한 사람이라도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세 명이 가서 이렇게 될 확률이 있냐고? 제가 봤을 때는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사례 #A24, 남, 48세, 2012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출하여 가정이 해체된 경우 가출의 원인은 크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이유와 다른 남성과의 외도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먼저 경제활동의 경우 입국하자마자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생활에 익숙한 후에 일하러 나가라는 남편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인 남편들은 이들 여성들의 결혼 동기가 한국에 와서 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의심한다.

일부 여성들은 남성 배우자들이 일정 기간 한국 생활에 정착한 후에는 나가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설명해도 일을 하기 위해 가출한 경우도 있다.

야는 언니는 회사 다녀. 한 달에 190만원 받는데. 그러면서 나도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아.. 아직은 안 된다. 아직까지 출고, 한참 추울 때 왔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돈 벌고 싶은데? 그러면 이유를 안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사례 #A20, 남, 40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음주 문제로 부부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표 2-12),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92.5%로 압도적으로 높다.

<표 2-12> 부부갈등: 음주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6.0	92.5	1.4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5.2	93.1	1.7	100.0
별거	(86)	8.1	91.9	0.0	100.0
가출	(96)	6.3	91.7	2.1	100.0
연령					
39세 이하	(79)	6.3	91.1	2.5	100.0
40-49세	(240)	4.6	93.8	1.7	100.0
50세 이상	(96)	9.4	90.6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1.6	88.4	0.0	100.0
고등학교	(223)	4.5	93.7	1.8	100.0
대학교 이상	(149)	6.7	91.9	1.3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5.4	92.3	2.3	100.0
비임금근로자	(119)	5.0	95.0	0.0	100.0
미취업자	(36)	13.9	86.1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6.7	90.7	2.7	100.0
200-299만원	(148)	5.4	93.2	1.4	100.0
300-399만원	(85)	4.7	95.3	0.0	100.0
400만원 이상	(59)	5.1	91.5	3.4	100.0
미취업자 등	(48)	10.4	89.6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5.5	92.9	1.6	100.0
중국	(45)	6.7	93.3	0.0	100.0
필리핀	(34)	0.0	94.1	5.9	100.0
캄보디아	(20)	5.0	9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1.1	88.9	0.0	100.0
기타	(34)	11.8	88.2	0.0	100.0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별거(8.1%)인 경우, 연령별로는 50세 이상(9.4%),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1.6%),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13.9%),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10.4%)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 별로 기타를 제외하고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이 1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국(6.7%), 베트남(5.5%) 순이다.

가족초청이나 송금 등 배우자의 가족 관련 사안으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표 2-13),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66.3%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배우자의 가족

관련 사안으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가출인 경우 39.6%로 가장 높고,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 가장 높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상태인 경우, 월평균 임금별로는 200-299만원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37.0%)과 필리핀(35.3%) 출신이 높다.

<표 2-13> 부부갈등: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32.8	66.3	1.0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0.5	68.2	1.3	100.0
별거	(86)	31.4	68.6	0.0	100.0
가출	(96)	39.6	59.4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8.0	58.2	3.8	100.0
40-49세	(240)	32.1	67.5	0.4	100.0
50세 이상	(96)	30.2	69.8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32.6	67.4	0.0	100.0
고등학교	(223)	30.0	68.6	1.3	100.0
대학교 이상	(149)	36.9	62.4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6.9	61.5	1.5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1.8	78.2	0.0	100.0
미취업자	(36)	38.9	61.1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6.7	70.7	2.7	100.0
200-299만원	(148)	35.8	62.8	1.4	100.0
300-399만원	(85)	30.6	69.4	0.0	100.0
400만원 이상	(59)	33.9	66.1	0.0	100.0
미취업자 등	(48)	35.4	64.6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2.9	66.3	0.8	100.0
중국	(45)	33.3	66.7	0.0	100.0
필리핀	(34)	35.3	58.8	5.9	100.0
캄보디아	(20)	20.0	8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37.0	63.0	0.0	100.0
기타	(34)	32.4	67.6	0.0	100.0

가족 초청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서라도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초청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지는 않았지만 입국하자마자 가족 초청을 요구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례 #A20>은 입국 전부터 자신의 가족을 초청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이미 시집은 친척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가족을 초청한 걸 보고 자기도 가족 초청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고, 아직 [한국에서] 결혼식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꺼낼 상황이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불법이 아니냐? 초청을 [받아 한국에서] 일 하는 것 불법이다 그랬어요 [사례 #A20, 남, 40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내 가족’의 불화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표 2-14),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60.2%로 높았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인 경우 25.6%로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종사상 지위와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배우자의 출신국 별로는 우즈베키스탄(29.6%)이 가장 높고, 필리핀(20.6%), 베트남(20.0%) 순으로 높다.

심층면접에서 가족 간의 불화를 언급한 응답자들의 내용은 대부분 고부갈등이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훈육하는 방법과 내용을 결혼이민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많이 언급되었다.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고, 또 어머니가 좀 일방적으로 갖다 들이붓는 편이었죠. 예를 들면, 음식 문제 같은 거죠, 먹는 것 같은. 애기 엄마가 조금 입이 짧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안 먹어 본 거를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어차피 입에 안 맞는 음식들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거의 매일 샤워를 해요.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매일 옷 갈아입는 것, 이런 것들도 못마땅해 했었고[사례 #A02, 남, 48세, 2004년 결혼, 배우자 국적 필리핀, 이혼, 김제거주].

여성이 가출한 후 이유를 찾고 싶어 부모에게 물어보니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몇 번 나무란 거 밖에 없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다.

[부모님께 물어보니] 나는 애가 낮잠 자고 싶어 하면 낮잠 재워 주고, 아직 한국생활에 적응을 못했으니까 잠 좀 자라고 그랬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면 인사는 해야 하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인사 잘 하라고, 그런 것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해보라고 내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잘 하라고 시켰는데 애가 울더라고 하세요. 아버지 댁에는 인사를 잘 하라고 시킨 것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맞는데 왜 울었을까 싶어요 [사례 #A20, 남, 40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표 2-14> 부부갈등: 배우자와 내 가족의 불화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비해당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18.6	60.2	19.5	1.7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0.6	60.1	18.0	1.3	100.0
별거	(86)	25.6	53.5	18.6	2.3	100.0
가출	(96)	7.3	66.7	24.0	2.1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1.5	55.7	20.3	2.5	100.0
40-49세	(240)	17.9	62.9	17.5	1.7	100.0
50세 이상	(96)	17.7	57.3	24.0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0.9	58.1	18.6	2.3	100.0
고등학교	(223)	16.1	61.4	20.2	2.2	100.0
대학교 이상	(149)	21.5	59.1	18.8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8.5	60.4	19.2	1.9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4.3	62.2	21.8	1.7	100.0
미취업자	(36)	33.3	52.8	13.9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8.7	69.3	9.3	2.7	100.0
200-299만원	(148)	18.9	59.5	19.6	2.0	100.0
300-399만원	(85)	14.1	55.3	30.6	0.0	100.0
400만원 이상	(59)	15.3	61.0	20.3	3.4	100.0
미취업자 등	(48)	29.2	56.3	14.6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0.0	60.4	18.4	1.2	100.0
중국	(45)	11.1	68.9	17.8	2.2	100.0
필리핀	(34)	20.6	50.0	23.5	5.9	100.0
캄보디아	(20)	15.0	65.0	2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9.6	48.1	18.5	3.7	100.0
기타	(34)	8.8	64.7	26.5	0.0	100.0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표 2-15),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73.0%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인 경우 38.4%로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40-49세(27.5%)인 경우 가장 높다. 최종학력은 낮을수록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종사상 지위와 월평균 임금별로는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미취업자인 경우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37.0%)과 베트남(28.6%) 출신인 경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15> 부부갈등: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25.8	73.0	1.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3.2	75.1	1.7	100.0
별거	(86)	38.4	61.6	0.0	100.0
가출	(96)	20.8	78.1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2.8	74.7	2.5	100.0
40-49세	(240)	27.5	71.7	0.8	100.0
50세 이상	(96)	24.0	75.0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30.2	69.8	0.0	100.0
고등학교	(223)	27.4	70.9	1.8	100.0
대학교 이상	(149)	22.1	77.2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6.2	71.9	1.9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3.5	76.5	0.0	100.0
미취업자	(36)	30.6	69.4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6.7	72.0	1.3	100.0
200-299만원	(148)	26.4	72.3	1.4	100.0
300-399만원	(85)	24.7	74.1	1.2	100.0
400만원 이상	(59)	22.0	76.3	1.7	100.0
미취업자 등	(48)	29.2	70.8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8.6	70.2	1.2	100.0
중국	(45)	20.0	80.0	0.0	100.0
필리핀	(34)	11.8	82.4	5.9	100.0
캄보디아	(20)	25.0	7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37.0	63.0	0.0	100.0
기타	(34)	17.6	82.4	0.0	100.0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경우는 가정 살림에서 소비 행태나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소비수준이나 물가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이 본국에서 구입하지 못한 지출을 과도하게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제가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벌었어요. 그걸로 살려면 알뜰하게 살아야하는데, 애기 엄마한테 맡기면 그렇게 생활이 안 돼요, 자기 옷 사 입고 싶은 거 사 입으면. 그렇기 때문에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조금 있었고.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어쨌든, 자꾸 주위 사람들이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돈을, 경제력을 빼앗아 와라, 받아 와라, 그랬는데 [우리가] 150만 원을 가지고 살려면,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모자라거든요[사례 #A15, 남, 54세, 2007년 결혼, 배우자 국적 캄보디아, 이혼, 울산거주].

경제권 문제 역시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실정에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경제권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다. 공과금을 비롯해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만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경제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례 #A01>의 경우는 비교적 초기에 경제권을 요구한 경우이다. 건설노동자인 남편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 아내와 함께 다니며 생활하기 시작했다.

혼자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일 하는 곳은 같이 따라가도 상관없는 데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 같이 다녔는데, 집 사람이 자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옆에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자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니다가 자꾸 이것저것 일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랄까, 돈이 되어 버렸어요, 돈이. 돈 가지고 싸우게 되죠. [본국에] 자기 어머님하고 자기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자기 집을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기에 내가 형편이 되면 도와준다고, 한 달에 40만 원씩은 내가 보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보내줄 게,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어요. 근데 계속 보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젠] 자기한테 경제권을 달라는 거예요, 경제권을. 입국한 지 한 5개월 쯤 되었겠네요. 5개월. [안된다고 하셨어요?] 예,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현장 거기, 창고 같은 데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서 막 발로 차는 거예요, 차기 시작하고[사례 #A01, 남, 49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중국(한족), 이혼, 영암거주].

경제적 갈등은 생활비나 경제권을 둘러싸고 나타나지만 실제 본국 송금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국에 송금하기 위해 경제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표 2-16),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86.0%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19.8%) 상태, 연령은 높을수록, 최종학력은 낮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 상태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고,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인 경우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경우 40.7%로 높다.

<표 2-16> 부부갈등: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12.8	86.0	1.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1.2	87.1	1.7	100.0
별거	(86)	19.8	80.2	0.0	100.0
가출	(96)	10.4	88.5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0.1	87.3	2.5	100.0
40-49세	(240)	11.3	87.9	0.8	100.0
50세 이상	(96)	18.8	80.2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6.3	83.7	0.0	100.0
고등학교	(223)	13.5	84.8	1.8	100.0
대학교 이상	(149)	10.7	88.6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2.3	85.8	1.9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3.4	86.6	0.0	100.0
미취업자	(36)	13.9	86.1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0.7	86.7	2.7	100.0
200-299만원	(148)	11.5	87.2	1.4	100.0
300-399만원	(85)	17.6	81.2	1.2	100.0
400만원 이상	(59)	11.9	88.1	0.0	100.0
미취업자 등	(48)	12.5	87.5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1.4	87.5	1.2	100.0
중국	(45)	11.1	88.9	0.0	100.0
필리핀	(34)	8.8	85.3	5.9	100.0
캄보디아	(20)	5.0	9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0.7	59.3	0.0	100.0
기타	(34)	11.8	88.2	0.0	100.0

심층면접에서 남성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가정폭력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내와의 갈등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지름길임을 잘 안다고 대답했다. 실제 아내가 자해를 시도하는 걸 보고 경찰에 스스로 전화해도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가정폭력범으로 바라본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경우도 있다.

한번 화가 나면 저를 막 치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 정도니까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실제] 112에

신고한 게 여러 번이에요. 시골에서 부모님과 살 때도 거기서도 두 번인가 112에 신고했어요. 이제 집 사람이 시골에서 커피포트를 밖에다 던져 버리더라고요. 던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112에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또 출동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경찰 분들이 와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알고 대해요, 그런데 절대 저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그런 사건이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뒤집어 쓸 일을 절대 안 해요.] 절대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따라 갔어요, 경찰서까지, 따라 가 가지고, 경찰분이 통역을 통해 가지고 집사람한테 물어 본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가 그랬다고 시인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거기서 이제 집에 갈 거냐고 물어 보니까 안 간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 여성가족부 쉼터를 들어갔어요. 쉼터를 들어가 가지고, 거기도 두 번 들어갔거든요. 두 번인가 들어갔을 거예요[사례 #A01, 남, 49세, 2014년 결혼, 배우자 국적 중국(한족), 이혼, 영암거주].

<표 2-17> 부부갈등: 의처증 또는 의부증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5.8	93.0	1.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6.0	92.7	1.3	100.0
별거	(86)	5.8	94.2	0.0	100.0
가출	(96)	5.2	92.7	2.1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5	94.9	2.5	100.0
40-49세	(240)	6.3	92.9	0.8	100.0
50세 이상	(96)	7.3	91.7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7	95.3	0.0	100.0
고등학교	(223)	4.9	93.7	1.3	100.0
대학교 이상	(149)	7.4	91.3	1.3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5.8	92.3	1.9	100.0
비임금근로자	(119)	6.7	93.3	0.0	100.0
미취업자	(36)	2.8	97.2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5.3	93.3	1.3	100.0
200-299만원	(148)	4.7	93.9	1.4	100.0
300-399만원	(85)	8.2	89.4	2.4	100.0
400만원 이상	(59)	8.5	91.5	0.0	100.0
미취업자 등	(48)	2.1	97.9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5.9	93.3	0.8	100.0
중국	(45)	4.4	95.6	0.0	100.0
필리핀	(34)	5.9	88.2	5.9	100.0
캄보디아	(20)	0.0	10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7.4	88.9	3.7	100.0
기타	(34)	8.8	91.2	0.0	100.0

<표 2-17>에서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의처증 또는 의부증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93.0%로 압도적으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이혼(6.0%)인 경우, 연령은 높을수록, 최종학력도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고,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7.4%) 출신이 높다.

<표 2-18>에서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의 취업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79.0%로 높다.

<표 2-18> 부부갈등: 배우자의 취업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20.5	79.0	0.5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2.7	76.8	0.4	100.0
별거	(86)	18.6	81.4	0.0	100.0
가출	(96)	16.7	82.3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7.7	79.7	2.5	100.0
40-49세	(240)	20.4	79.6	0.0	100.0
50세 이상	(96)	22.9	77.1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6.3	83.7	0.0	100.0
고등학교	(223)	18.4	81.2	0.4	100.0
대학교 이상	(149)	24.8	74.5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1.5	77.7	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1.0	79.0	0.0	100.0
미취업자	(36)	11.1	88.9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4.0	74.7	1.3	100.0
200-299만원	(148)	20.9	78.4	0.7	100.0
300-399만원	(85)	18.8	81.2	0.0	100.0
400만원 이상	(59)	23.7	76.3	0.0	100.0
미취업자 등	(48)	12.5	87.5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1.2	78.4	0.4	100.0
중국	(45)	24.4	75.6	0.0	100.0
필리핀	(34)	11.8	85.3	2.9	100.0
캄보디아	(20)	15.0	8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4.8	85.2	0.0	100.0
기타	(34)	26.5	73.5	0.0	100.0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이혼(22.7%)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다소 높고,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인 경우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중국 출신이 24.4%로 가장 높다.

심층면접에서 확인한 바로는 배우자의 취업 문제는 혼인중단 남성들이 결혼 초기에 경험하는 갈등이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한다. 남편이 본국에 정기적으로 송금해 주는 경우는 취업에 대한 의지를 고집하지는 않는 듯 했다.

배우자의 취업 문제로 인한 갈등은 실제 경제적 갈등, 배우자의 본국 친척 지원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부정적 결과는 여성의 가출로 이어진다. <사례 #A03>은 결혼 후 6년 동안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날 ○○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나 돈 벌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결혼하고 한 6년 지나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꾸 ○○이 어디냐고 여기서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더라고요. 몇 시간 걸린다고 알려주며 “왜 물어봐?” 그랬더니, 아니 누가 거기 가면 공단에 직장도 좋은데 있고 외국 사람도 많이 있다고 거기로 한번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가 본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 그러고. 그리고 며칠 나가서 ○○에 가서 자고 오고 외박하는 거예요. 외박하고 와서도 잘못했다는 내색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뻗뻗하게 들어와서 이불 속에서 자고 그 다음날 나 몰라라 하고…… 아마 애 낳고 몇 년 살다, 살다 보니까 자기도 욕심에, 돈을 많이 벌어서, 베트남에 저희 집에는 이제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보내주고 싶고, 거기 있는 식구들, 오빠들, 언니들 돈 좀 보내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가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집에서만 파묻혀 있지 말고 직장도 다녀서 돈 좀 벌어서, 자기도 벌어서, 베트남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뭐 아무리 반대하고 설득해도 안 듣더니 집을 나가서 1년 3개월이나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사례 #A03, 남, 49세, 2006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김제거주].

<사례 #A03>의 경우처럼 결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자녀도 출생했으나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정기적이거나 일정한 송금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실제 이 사례처럼 여성이 돈을 버는 것이 유일한 경우, 취업과 본국가족 지원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실제 이 사례에서는 여성이 직업을 갖지 않으면 본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출과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다.

<표 2-19>에서 부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7가지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와 '나와 당시 배우자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1.4%, 81.2%(한두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당시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64.1%), '당시 배우자는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50.6%), '나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44.8%) 등의 순이다. '나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라는 응답 비율은 16.1%로 가장 낮으며, '당시 배우자는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졌다'(27.0%) 순으로 낮다.

<표 2-19> 갈등 시 행동 방법

(단위: 명, %)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모름· 무응답	계
1. 나와 당시 배우자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18.8	23.9	28.2	29.2	81.2	0.0	100.0
2.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18.6	21.7	33.0	26.7	81.4	0.0	100.0
3. 당시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34.9	21.2	27.7	15.2	64.1	1.0	100.0
4. 나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55.2	23.4	16.9	4.6	44.8	0.0	100.0
5. 당시 배우자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48.9	21.2	18.1	11.3	50.6	0.5	100.0
6. 나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83.9	9.9	4.3	1.9	16.1	0.0	100.0
7. 당시 배우자는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졌다	73.0	12.5	8.4	6.0	27.0	0.0	100.0

이 결과를 종합하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화나 인내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빈도가 분노 등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빈도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갈등에 대처하는 행위의 주체를 응답자와 당시 배우자로 달리하여 질문한 2번부터 7번 항목까지의 응답 결과를 볼 때, 응답자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본인은 평화적인 방향, 당시 배우자는 폭력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표출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2-20>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와 당시 배우자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계
▣ 전체 ▣	(415)	18.8	23.9	28.2	29.2	81.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7.2	24.0	29.6	29.2	82.8	100.0
별거	(86)	20.9	20.9	26.7	31.4	79.1	100.0
가출	(96)	20.8	26.0	26.0	27.1	79.2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0.3	21.5	30.4	27.8	79.7	100.0
40-49세	(240)	16.7	25.4	27.1	30.8	83.3	100.0
50세 이상	(96)	22.9	21.9	29.2	26.0	77.1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6.3	16.3	30.2	37.2	83.7	100.0
고등학교	(223)	20.6	25.6	28.7	25.1	79.4	100.0
대학교 이상	(149)	16.8	23.5	26.8	32.9	83.2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8.1	24.2	29.6	28.1	81.9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6.8	23.5	27.7	31.9	83.2	100.0
미취업자	(36)	30.6	22.2	19.4	27.8	69.4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0.7	20.0	37.3	32.0	89.3	100.0
200-299만원	(148)	21.6	25.7	27.0	25.7	78.4	100.0
300-399만원	(85)	17.6	21.2	27.1	34.1	82.4	100.0
400만원 이상	(59)	18.6	23.7	30.5	27.1	81.4	100.0
미취업자 등	(48)	25.0	29.2	16.7	29.2	75.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8.4	21.2	32.9	27.5	81.6	100.0
중국	(45)	20.0	42.2	15.6	22.2	80.0	100.0
필리핀	(34)	23.5	23.5	29.4	23.5	76.5	100.0
캄보디아	(20)	15.0	20.0	10.0	55.0	8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7.4	33.3	25.9	33.3	92.6	100.0
기타	(34)	26.5	14.7	20.6	38.2	73.5	100.0

<표 2-21>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계
▣ 전체 ▣	(415)	18.6	21.7	33.0	26.7	81.4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0.2	21.5	32.2	26.2	79.8	100.0
별거	(86)	14.0	19.8	29.1	37.2	86.0	100.0
가출	(96)	18.8	24.0	38.5	18.8	81.3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0.3	13.9	32.9	32.9	79.7	100.0
40-49세	(240)	16.3	25.0	35.4	23.3	83.8	100.0
50세 이상	(96)	22.9	19.8	27.1	30.2	77.1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0.9	16.3	34.9	27.9	79.1	100.0
고등학교	(223)	17.0	22.9	32.3	27.8	83.0	100.0
대학교 이상	(149)	20.1	21.5	33.6	24.8	79.9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0.4	25.0	31.9	22.7	79.6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8.5	16.0	37.0	28.6	81.5	100.0
미취업자	(36)	5.6	16.7	27.8	50.0	94.4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6.0	21.3	33.3	29.3	84.0	100.0
200-299만원	(148)	25.0	21.6	32.4	20.9	75.0	100.0
300-399만원	(85)	10.6	25.9	36.5	27.1	89.4	100.0
400만원 이상	(59)	25.4	18.6	32.2	23.7	74.6	100.0
미취업자 등	(48)	8.3	18.8	29.2	43.8	91.7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7.6	20.0	35.3	27.1	82.4	100.0
중국	(45)	13.3	26.7	44.4	15.6	86.7	100.0
필리핀	(34)	8.8	23.5	32.4	35.3	91.2	100.0
캄보디아	(20)	35.0	20.0	25.0	20.0	6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1.1	29.6	22.2	37.0	88.9	100.0
기타	(34)	38.2	20.6	14.7	26.5	61.8	100.0

<표 2-20>에서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경우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81.2%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상태인 경우 82.8%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40-49세(83.3%),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83.7%),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83.2%),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89.3%),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

베키스탄(92.6%)인 경우 당시 배우자와 갈등 시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2-21>에서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경우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81.4%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 상태인 경우 86.0%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40-49세(83.8%), 최종학력별로는 고졸(83.0%), 종사상 지위와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94.4%, 91.7%),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91.2%)인 경우 당시 배우자와 갈등 시 본인 혼자 삭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2-22>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64.1%로 높다. 그러나 ‘한두 번 있었다’ 21.2%, ‘가끔 있었다’ 27.7%, ‘자주 있었다’ 15.2%인 반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34.9%로 높다.

혼인상태별로 당시 배우자가 혼자 삭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이혼 상태인 경우 67.8%로 가장 높으며,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41.7%) 상태인 경우 가장 높다.

연령별로 당시 배우자가 혼자 삭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40-49세가 68.3%로 가장 높으며,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39세 이하(41.8%)가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당시 배우자가 혼자 삭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고졸이 67.3%로 가장 높으며,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대졸 이상(40.3%)이 가장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당시 배우자가 혼자 삭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가 75.0%로 가장 높으며,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비임금 근로자(39.5%)가 가장 높다.

월평균임금별로 당시 배우자가 혼자 삭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가 75.0%로 가장 높으며,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400만원 이상(45.8%)이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당시 배우자가 혼자 삭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중국 출신이 75.6%로 가장 높으며,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우즈베키스탄(48.1%) 출신이 가장 높다.

<표 2-22>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계	계
▣ 전체 ▣	(415)	34.9	21.2	27.7	15.2	64.1	1.0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0.5	21.5	31.8	14.6	67.8	1.7	100.0
별거	(86)	39.5	17.4	20.9	22.1	60.5	0.0	100.0
가출	(96)	41.7	24.0	24.0	10.4	58.3	0.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41.8	12.7	27.8	16.5	57.0	1.3	100.0
40-49세	(240)	30.4	25.0	29.2	14.2	68.3	1.3	100.0
50세 이상	(96)	40.6	18.8	24.0	16.7	59.4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37.2	14.0	30.2	18.6	62.8	0.0	100.0
고등학교	(223)	30.9	22.4	29.1	15.7	67.3	1.8	100.0
대학교 이상	(149)	40.3	21.5	24.8	13.4	59.7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4.2	20.8	31.2	13.1	65.0	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9.5	21.8	21.0	16.0	58.8	1.7	100.0
미취업자	(36)	25.0	22.2	25.0	27.8	75.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8.0	24.0	34.7	9.3	68.0	4.0	100.0
200-299만원	(148)	39.9	23.6	22.3	14.2	60.1	0.0	100.0
300-399만원	(85)	30.6	18.8	30.6	18.8	68.2	1.2	100.0
400만원 이상	(59)	45.8	13.6	28.8	11.9	54.2	0.0	100.0
미취업자 등	(48)	25.0	22.9	27.1	25.0	75.0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3.7	21.6	29.8	13.7	65.1	1.2	100.0
중국	(45)	24.4	33.3	28.9	13.3	75.6	0.0	100.0
필리핀	(34)	32.4	14.7	26.5	26.5	67.6	0.0	100.0
캄보디아	(20)	40.0	10.0	25.0	25.0	6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8.1	14.8	22.2	14.8	51.9	0.0	100.0
기타	(34)	47.1	20.6	17.6	11.8	50.0	2.9	100.0

<표 2-23>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에게 본인이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지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도 없다’는 응답 비율이 55.2%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44.8%)보다 높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본인이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 상태인 경우 65.6%로 가장 높고, 연령은 낮을수록 높다.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경우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 비율이 58.1%로 더 높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한 번도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58.0%)의 경우,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62.7%)인 경우 ‘한 번도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경우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표 2-24>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가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지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50.6%로 높다. 그러나 ‘한두 번 있었다’ 21.2%, ‘가끔 있었다’ 18.1%, ‘자주 있었다’ 11.3%인 반면, ‘한 번도 없었다’라

<표 2-23>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계
▣ 전체 ▣	(415)	55.2	23.4	16.9	4.6	44.8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52.4	25.3	18.5	3.9	47.6	100.0
별거	(86)	51.2	19.8	23.3	5.8	48.8	100.0
가출	(96)	65.6	21.9	7.3	5.2	34.4	100.0
연령							
39세 이하	(79)	65.8	20.3	11.4	2.5	34.2	100.0
40-49세	(240)	54.2	24.6	15.8	5.4	45.8	100.0
50세 이상	(96)	49.0	22.9	24.0	4.2	5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1.9	27.9	18.6	11.6	58.1	100.0
고등학교	(223)	53.4	24.2	19.3	3.1	46.6	100.0
대학교 이상	(149)	61.7	20.8	12.8	4.7	38.3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54.2	26.2	15.4	4.2	45.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58.0	17.6	18.5	5.9	42.0	100.0
미취업자	(36)	52.8	22.2	22.2	2.8	47.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5.3	33.3	18.7	2.7	54.7	100.0
200-299만원	(148)	58.1	23.0	14.9	4.1	41.9	100.0
300-399만원	(85)	52.9	21.2	16.5	9.4	47.1	100.0
400만원 이상	(59)	62.7	16.9	16.9	3.4	37.3	100.0
미취업자 등	(48)	56.3	20.8	20.8	2.1	43.8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54.1	23.9	16.1	5.9	45.9	100.0
중국	(45)	51.1	24.4	22.2	2.2	48.9	100.0
필리핀	(34)	55.9	26.5	14.7	2.9	44.1	100.0
캄보디아	(20)	60.0	20.0	20.0	0.0	4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8.1	22.2	22.2	7.4	51.9	100.0
기타	(34)	70.6	17.6	11.8	0.0	29.4	100.0

는 응답 비율이 48.9%로 높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 상태의 경우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55.4%로 더 높고, 가출 상태인 경우에는 ‘한 번도 없다’는 응답 비율이 60.4%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40-49세인 경우만 ‘한 번도 없다’는 응답 비율이 50.4%로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 비율(49.2%) 보다 약간 높다.

<표 2-24>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계	계
▣ 전체 ▣	(415)	48.9	21.2	18.1	11.3	50.6	0.5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3.8	24.5	20.2	10.7	55.4	0.9	100.0
별거	(86)	50.0	15.1	20.9	14.0	50.0	0.0	100.0
가출	(96)	60.4	18.8	10.4	10.4	39.6	0.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48.1	24.1	15.2	11.4	50.6	1.3	100.0
40-49세	(240)	50.4	20.4	16.7	12.1	49.2	0.4	100.0
50세 이상	(96)	45.8	20.8	24.0	9.4	54.2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4.2	30.2	16.3	9.3	55.8	0.0	100.0
고등학교	(223)	45.3	21.5	20.2	12.1	53.8	0.9	100.0
대학교 이상	(149)	55.7	18.1	15.4	10.7	44.3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7.3	23.5	18.5	10.4	52.3	0.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52.9	16.8	16.0	13.4	46.2	0.8	100.0
미취업자	(36)	47.2	19.4	22.2	11.1	52.8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4.0	26.7	21.3	5.3	53.3	2.7	100.0
200-299만원	(148)	46.6	23.0	16.9	13.5	53.4	0.0	100.0
300-399만원	(85)	49.4	21.2	11.8	17.6	50.6	0.0	100.0
400만원 이상	(59)	57.6	13.6	22.0	6.8	42.4	0.0	100.0
미취업자 등	(48)	52.1	16.7	22.9	8.3	47.9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7.1	21.6	18.8	12.2	52.5	0.4	100.0
중국	(45)	44.4	22.2	20.0	13.3	55.6	0.0	100.0
필리핀	(34)	52.9	32.4	5.9	8.8	47.1	0.0	100.0
캄보디아	(20)	50.0	20.0	20.0	10.0	5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4.4	11.1	25.9	18.5	55.6	0.0	100.0
기타	(34)	67.6	14.7	14.7	0.0	29.4	2.9	100.0

<표 2-25>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계
▣ 전체 ▣	(415)	83.9	9.9	4.3	1.9	16.1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82.4	11.6	4.7	1.3	17.6	100.0
별거	(86)	80.2	11.6	7.0	1.2	19.8	100.0
가출	(96)	90.6	4.2	1.0	4.2	9.4	100.0
연령							
39세 이하	(79)	89.9	7.6	2.5	0.0	10.1	100.0
40-49세	(240)	85.4	7.9	3.8	2.9	14.6	100.0
50세 이상	(96)	75.0	16.7	7.3	1.0	25.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74.4	16.3	7.0	2.3	25.6	100.0
고등학교	(223)	80.7	11.2	5.4	2.7	19.3	100.0
대학교 이상	(149)	91.3	6.0	2.0	0.7	8.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83.5	10.4	4.6	1.5	16.5	100.0
비임금근로자	(119)	84.9	9.2	2.5	3.4	15.1	100.0
미취업자	(36)	83.3	8.3	8.3	0.0	16.7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85.3	8.0	5.3	1.3	14.7	100.0
200-299만원	(148)	83.1	11.5	3.4	2.0	16.9	100.0
300-399만원	(85)	81.2	10.6	4.7	3.5	18.8	100.0
400만원 이상	(59)	86.4	8.5	3.4	1.7	13.6	100.0
미취업자 등	(48)	85.4	8.3	6.3	0.0	14.6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82.4	11.0	4.7	2.0	17.6	100.0
중국	(45)	80.0	8.9	8.9	2.2	20.0	100.0
필리핀	(34)	91.2	5.9	2.9	0.0	8.8	100.0
캄보디아	(20)	80.0	20.0	0.0	0.0	2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88.9	7.4	0.0	3.7	11.1	100.0
기타	(34)	91.2	2.9	2.9	2.9	8.8	100.0

당시 배우자가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지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 비율은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가 가장 높으며,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만원 미만이 높으며,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높다.

<표 2-25>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83.9%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70%이상으로 높으며, 혼인 상태별로는 가출(90.6%),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높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84.9%)의 경우 가장 높고, 월평균 임금은 400만원 이상(86.4%), 배우자의 출신국은 기타를 제외하고 필리핀(91.2%) 출신에서 가장 높다.

<표 2-26>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가 본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73.0%로 높다.

<표 2-26>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계
▣ 전체 ▣	(415)	73.0	12.5	8.4	6.0	27.0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72.5	13.7	7.7	6.0	27.5	100.0
별거	(86)	66.3	15.1	11.6	7.0	33.7	100.0
가출	(96)	80.2	7.3	7.3	5.2	19.8	100.0
연령							
39세 이하	(79)	74.7	8.9	15.2	1.3	25.3	100.0
40-49세	(240)	75.8	10.8	5.8	7.5	24.2	100.0
50세 이상	(96)	64.6	19.8	9.4	6.3	35.4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65.1	23.3	7.0	4.7	34.9	100.0
고등학교	(223)	70.9	12.6	9.4	7.2	29.1	100.0
대학교 이상	(149)	78.5	9.4	7.4	4.7	21.5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73.1	11.9	9.6	5.4	26.9	100.0
비임금근로자	(119)	73.1	11.8	5.9	9.2	26.9	100.0
미취업자	(36)	72.2	19.4	8.3	0.0	27.8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81.3	9.3	4.0	5.3	18.7	100.0
200-299만원	(148)	69.6	11.5	12.2	6.8	30.4	100.0
300-399만원	(85)	69.4	11.8	8.2	10.6	30.6	100.0
400만원 이상	(59)	72.9	16.9	6.8	3.4	27.1	100.0
미취업자 등	(48)	77.1	16.7	6.3	0.0	22.9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72.5	11.4	9.0	7.1	27.5	100.0
중국	(45)	68.9	20.0	6.7	4.4	31.1	100.0
필리핀	(34)	82.4	5.9	8.8	2.9	17.6	100.0
캄보디아	(20)	75.0	20.0	5.0	0.0	2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55.6	18.5	14.8	11.1	44.4	100.0
기타	(34)	85.3	8.8	2.9	2.9	1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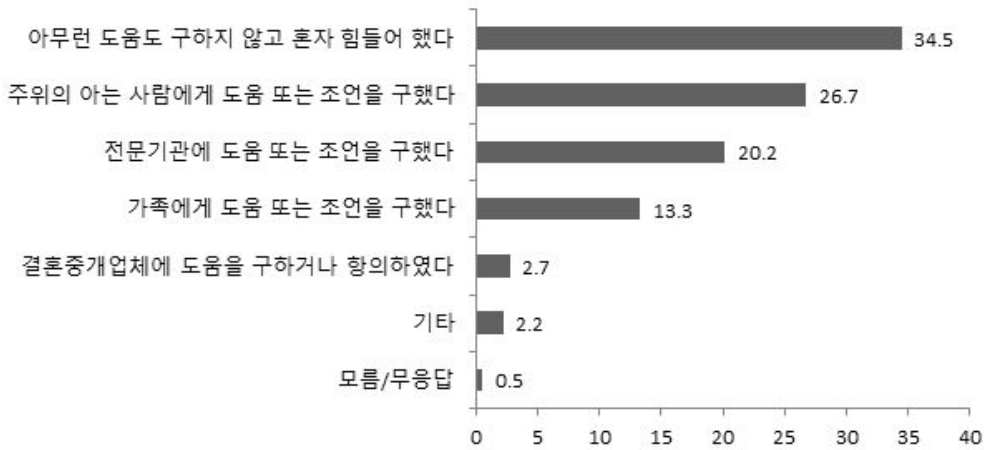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가출(80.2%), 연령별로는 40-49세(75.8%),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높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동일하게 73.1%로 미취업자(72.2%)보다 높고,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 이하(81.3%), 배우자의 출신국은 기타를 제외하고 필리핀(82.4%) 출신에서 가장 높다.

<표 2-27>과 [그림 2-6]에서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조사한 결과,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는 응답 비율이 34.5%로 가장 높고,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이 26.7%로 가장 높고,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이 26.7%로 가장 높고, ‘가족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이 13.3%로 가장 높고, ‘결혼중개 업체에 도움을 구하거나 항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7%로 가장 낮고, ‘기타’는 2.2%, ‘모름·무응답’은 0.5%로 가장 낮다.

<표 2-27> 배우자와 갈등 시 도움 요청

(단위: %)

	(N)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가족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결혼중개 업체에 도움을 구하거나 항의하였다	기타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415)	34.5	26.7	20.2	13.3	2.7	2.2	0.5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6.1	26.6	20.6	10.3	3.4	2.6	0.4	100.0
별거	(86)	32.6	31.4	17.4	14.0	3.5	1.2	0.0	100.0
가출	(96)	32.3	22.9	21.9	19.8	0.0	2.1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9.1	32.9	11.4	21.5	2.5	2.5	0.0	100.0
40-49세	(240)	33.3	26.7	21.7	12.9	2.5	2.5	0.4	100.0
50세 이상	(96)	41.7	21.9	24.0	7.3	3.1	1.0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37.2	30.2	23.3	7.0	2.3	0.0	0.0	100.0
고등학교	(223)	39.9	27.8	15.7	12.1	3.1	1.3	0.0	100.0
대학교 이상	(149)	25.5	24.2	26.2	16.8	2.0	4.0	1.3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1.5	28.1	21.5	13.5	2.7	1.9	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4.5	26.9	20.2	12.6	2.5	3.4	0.0	100.0
미취업자	(36)	55.6	16.7	11.1	13.9	2.8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2.0	29.3	22.7	13.3	1.3	1.3	0.0	100.0
200-299만원	(148)	27.7	27.7	25.7	11.5	4.7	2.0	0.7	100.0
300-399만원	(85)	36.5	25.9	22.4	12.9	1.2	1.2	0.0	100.0
400만원 이상	(59)	39.0	27.1	10.2	15.3	1.7	5.1	1.7	100.0
미취업자 등	(48)	50.0	20.8	8.3	16.7	2.1	2.1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2.5	28.2	19.6	16.1	2.0	1.2	0.4	100.0
중국	(45)	40.0	17.8	22.2	8.9	6.7	4.4	0.0	100.0
필리핀	(34)	44.1	20.6	17.6	11.8	2.9	2.9	0.0	100.0
캄보디아	(20)	25.0	30.0	25.0	15.0	5.0	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9.6	29.6	25.9	7.4	3.7	0.0	3.7	100.0
기타	(34)	41.2	29.4	17.6	2.9	0.0	8.8	0.0	100.0



[그림 2-6] 배우자와 갈등 시 도움 요청

구했다'(26.7%),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20.2%) 순이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36.1%) 상태인 경우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또한 종사상 지위와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가 각각 55.6%, 50.0%로 가장 높고,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44.1%) 출신이 가장 높다.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별거(31.4%) 상태인 경우가 높고, 연령과 최종학력은 낮을수록 높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28.1%로 높고,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미만인 경우가 29.3%로 높다.

'전문기관에 도움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가출(21.9%) 상태인 경우 높고, 연령은 높을수록 높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26.2%),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21.5%), 월평균 임금별로는 200-299만원(25.7%)인 경우 높다.

<표 2-28>에서 혼인중단 남성의 혼인 지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혼인 지속기간은 평균 21.3개월이며, '1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50.6%로 가장 높다. 평균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가출 상태인 경우 평균 15.2개월로 가장 짧고,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혼인 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의 혼인 지속기간이 19.5개월로 가장 짧고,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인 경우 13.0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12.6개월)과 중국(12.9개월) 출신인 경우 혼인 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의 기간

(단위: 명, %)

	(N)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모름·무응답	계	평균 (개월)
▣ 전체 ▣	(415)	50.6	16.1	11.3	12.0	9.9	100.0	21.3
혼인상태								
이혼	(233)	49.4	17.6	9.0	13.3	10.7	100.0	22.3
별거	(86)	43.0	18.6	16.3	14.0	8.1	100.0	25.6
가출	(96)	60.4	10.4	12.5	7.3	9.4	100.0	15.2
연령								
39세 이하	(79)	57.0	8.9	15.2	6.3	12.7	100.0	15.6
40-49세	(240)	49.2	18.3	9.6	11.7	11.3	100.0	20.9
50세 이상	(96)	49.0	16.7	12.5	17.7	4.2	100.0	26.8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1.9	23.3	16.3	16.3	2.3	100.0	28.2
고등학교	(223)	45.7	15.7	10.8	14.8	13.0	100.0	24.3
대학교 이상	(149)	60.4	14.8	10.7	6.7	7.4	100.0	15.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50.4	16.2	12.3	11.9	9.2	100.0	21.7
비임금근로자	(119)	51.3	15.1	9.2	12.6	11.8	100.0	19.5
미취업자	(36)	50.0	19.4	11.1	11.1	8.3	100.0	24.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0.7	21.3	18.7	17.3	12.0	100.0	30.2
200-299만원	(148)	56.8	13.5	10.1	11.5	8.1	100.0	19.6
300-399만원	(85)	62.4	14.1	7.1	5.9	10.6	100.0	13.0
400만원 이상	(59)	47.5	15.3	8.5	15.3	13.6	100.0	22.7
미취업자 등	(48)	45.8	20.8	14.6	12.5	6.3	100.0	25.9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5.9	17.6	13.3	15.3	7.8	100.0	24.8
중국	(45)	57.8	22.2	4.4	6.7	8.9	100.0	12.9
필리핀	(34)	44.1	26.5	5.9	5.9	17.6	100.0	18.5
캄보디아	(20)	60.0	0.0	25.0	10.0	5.0	100.0	21.3
우즈베키스탄	(27)	63.0	7.4	11.1	3.7	14.8	100.0	12.6
기타	(34)	67.6	2.9	2.9	8.8	17.6	100.0	14.8

<표 2-29>에서는 혼인이 중단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1-2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한 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라는 응답 비율이 25.5%로 가장 높고,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25.3%), '문화 차이'(24.3%) 순이다.

앞의 <표 2-5>에서 배우자와 어떤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가장 갈등 경험이 많았던 항목은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50.6%)였으며, 의사소통 문제(47.0%),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45.1%), 부부간 성 문제(34.9%),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32.8%),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25.8%), 외도 문제(24.1%) 등의 순이다. 본 문항과 항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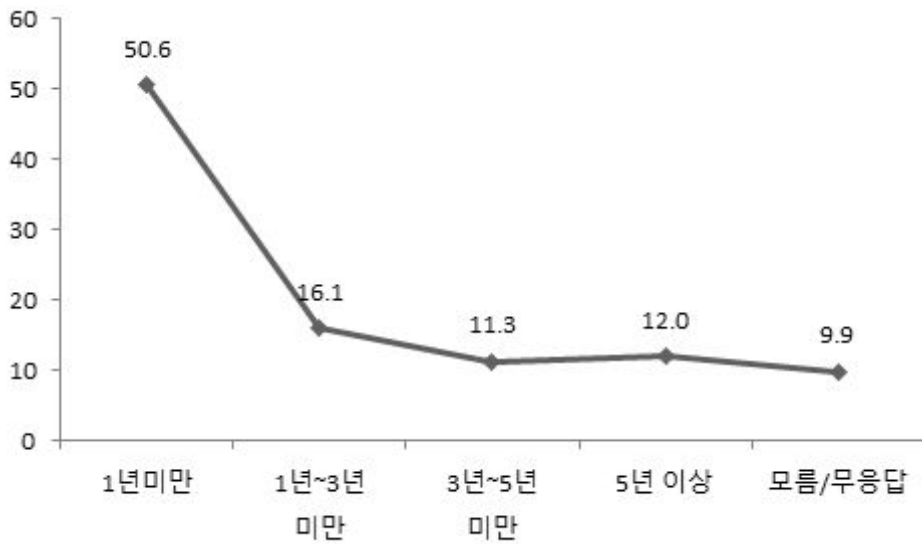


그림 2-7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의 기간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항목을 비교하면 갈등은 많았으나 실제 혼인을 중단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갈등이 곧 혼인중단으로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 등 관련 사안으로 인한 갈등 역시 혼인중단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만, 의사소통과 가사활동 불성실 문제로 인한 갈등은 많이 경험하지만 혼인중단까지의 영향력은 비교적 낮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상태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 비율이 28.3%로 가장 높고, ‘문화 차이’(24.5%),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21.5%) 순이다. 별거 상태의 경우에는 ‘문화 차이’라는 응답 비율이 29.1%로 가장 높고, 가출 상태인 경우는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라는 응답 비율이 34.4%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라는 응답 비율이 36.7%로 가장 높고, 40-49세는 ‘배우자의 외도’(26.7%), 50세 이상은 ‘문화 차이’(34.4%)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인 경우는 ‘문화 차이’(27.9%, 26.2%)가 혼인중단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고졸의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2-29>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N)	배우자 외도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	문화 차이	성격 차이	언어 문제	취업을 목적으로 결혼해서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 가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배우자 가족과 갈등
□ 전체 □	(415)	25.5	25.3	24.3	14.9	10.4	8.7	8.2	7.7	7.0	5.8
혼인상태											
이혼	(233)	28.3	21.5	24.5	16.3	9.0	8.2	8.6	6.4	6.0	5.6
별거	(86)	26.7	25.6	29.1	17.4	9.3	4.7	8.1	7.0	5.8	8.1
가출	(96)	17.7	34.4	19.8	9.4	14.6	13.5	7.3	11.5	10.4	4.2
연령											
39세 이하	(79)	20.3	36.7	22.8	15.2	10.1	15.2	6.3	12.7	2.5	6.3
40-49세	(240)	26.7	24.2	20.8	15.8	11.3	7.1	9.6	6.7	7.9	5.8
50세 이상	(96)	27.1	18.8	34.4	12.5	8.3	7.3	6.3	6.3	8.3	5.2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3.3	25.6	27.9	9.3	11.6	9.3	11.6	0.0	7.0	4.7
고등학교	(223)	26.9	25.6	22.4	15.7	10.3	8.1	9.0	6.7	6.3	8.5
대학교 이상	(149)	24.2	24.8	26.2	15.4	10.1	9.4	6.0	11.4	8.1	2.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6.9	26.9	23.8	12.7	9.2	10.0	8.1	9.2	8.1	6.5
비임금근로자	(119)	21.8	21.0	24.4	21.0	14.3	5.9	7.6	6.7	6.7	5.0
미취업자	(36)	27.8	27.8	27.8	11.1	5.6	8.3	11.1	0.0	0.0	2.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0.0	21.3	28.0	21.3	8.0	6.7	12.0	4.0	6.7	9.3
200-299만원	(148)	26.4	29.1	27.0	11.5	10.1	12.2	8.1	9.5	6.8	4.1
300-399만원	(85)	29.4	20.0	21.2	11.8	9.4	8.2	5.9	7.1	10.6	4.7
400만원 이상	(59)	25.4	27.1	18.6	22.0	15.3	5.1	3.4	11.9	6.8	6.8
미취업자 등	(48)	25.0	27.1	22.9	12.5	10.4	6.3	12.5	4.2	2.1	6.3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8.2	26.3	26.7	14.5	9.0	9.4	8.2	8.2	5.1	5.9
중국	(45)	13.3	24.4	20.0	8.9	13.3	8.9	11.1	2.2	13.3	6.7
필리핀	(34)	26.5	32.4	23.5	17.6	11.8	2.9	8.8	5.9	5.9	14.7
캄보디아	(20)	25.0	15.0	15.0	10.0	10.0	10.0	5.0	20.0	10.0	0.0
우즈베키스탄	(27)	29.6	18.5	37.0	25.9	14.8	0.0	14.8	3.7	11.1	3.7
기타	(34)	17.6	23.5	8.8	17.6	11.8	14.7	0.0	8.8	8.8	0.0

[계속]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와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26.9%로 가장 높으며, 비임금근로자는 ‘문화 차이’(24.4%)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미취업자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

<표 2-29: 계속>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N)	나이 차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해서	결혼 생각이 없이 결혼해서	신상 정보를 속이고 결혼해서	음주 및 도박	본인의 외도	심각한 정신 장애	가사 활동 불성실	성생활 문제	학대와 폭력	기타	모름·무응답
▣ 전체 ▣	(415)	5.8	4.1	3.1	2.4	1.9	1.7	1.4	0.7	0.5	0.2	11.1	0.2
혼인상태													
이혼	(233)	8.2	4.7	4.3	3.4	2.6	1.3	2.1	0.9	0.0	0.4	6.4	0.0
별거	(86)	3.5	4.7	2.3	2.3	2.3	1.2	1.2	1.2	1.2	0.0	16.3	0.0
가출	(96)	2.1	2.1	1.0	0.0	0.0	3.1	0.0	0.0	1.0	0.0	17.7	1.0
연령													
39세 이하	(79)	5.1	2.5	1.3	1.3	2.5	1.3	0.0	0.0	0.0	0.0	11.4	0.0
40-49세	(240)	4.2	4.6	4.6	2.9	2.1	2.5	1.3	0.0	0.8	0.0	10.0	0.4
50세 이상	(96)	10.4	4.2	1.0	2.1	1.0	0.0	3.1	3.1	0.0	1.0	13.5	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4.0	4.7	0.0	0.0	0.0	0.0	2.3	2.3	0.0	2.3	18.6	0.0
고등학교	(223)	5.4	4.5	3.1	2.2	1.8	2.7	1.8	0.9	0.9	0.0	8.1	0.4
대학교 이상	(149)	4.0	3.4	4.0	3.4	2.7	0.7	0.7	0.0	0.0	0.0	13.4	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6	3.5	2.7	3.5	1.5	1.5	1.5	0.4	0.8	0.4	9.2	0.4
비임금근로자	(119)	5.0	6.7	3.4	0.0	2.5	2.5	0.8	0.0	0.0	0.0	16.0	0.0
미취업자	(36)	16.7	0.0	5.6	2.8	2.8	0.0	2.8	5.6	0.0	0.0	8.3	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5.3	8.0	2.7	2.7	0.0	2.7	0.0	0.0	1.3	0.0	8.0	0.0
200-299만원	(148)	4.7	3.4	3.4	2.7	2.7	1.4	2.0	0.7	0.7	0.0	9.5	0.7
300-399만원	(85)	4.7	3.5	2.4	2.4	2.4	3.5	2.4	0.0	0.0	1.2	12.9	0.0
400만원 이상	(59)	3.4	5.1	3.4	1.7	1.7	0.0	0.0	0.0	0.0	0.0	15.3	0.0
미취업자 등	(48)	14.6	0.0	4.2	2.1	2.1	0.0	2.1	4.2	0.0	0.0	12.5	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5.5	3.5	3.1	1.6	1.6	0.8	1.6	0.4	0.8	0.4	11.8	0.4
중국	(45)	4.4	6.7	0.0	6.7	2.2	0.0	2.2	2.2	0.0	0.0	13.3	0.0
필리핀	(34)	5.9	0.0	2.9	2.9	5.9	5.9	2.9	2.9	0.0	0.0	2.9	0.0
캄보디아	(20)	10.0	5.0	5.0	0.0	0.0	5.0	0.0	0.0	0.0	0.0	10.0	0.0
우즈베키스탄	(27)	7.4	3.7	3.7	0.0	3.7	3.7	0.0	0.0	0.0	0.0	7.4	0.0
기타	(34)	5.9	8.8	5.9	5.9	0.0	2.9	0.0	0.0	0.0	0.0	14.7	0.0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 '문화 차이' 모두 동일하게 27.8%로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살펴보면, 199만원 이하는 '문화 차이'라는 응답 비율이 28.0%로 가장 높고, 200-299만원, 400만원 이상, 미취업자는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29.1%, 27.1%, 27.1%), 300-399만원은 '배우자의 외도'(29.4%)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출신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응답 비율이 28.2%로 가장 높고, 중국, 필리핀 출신은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24.4%, 32.4%로 가장 높다.

심층면접에 응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급적 이혼을 피하려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가출한 경우도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살려고 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하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는 아내가 중단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혼인 중단 사유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배우자가 가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외도로 인한 가출이 많기 때문에 혼인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2-30> 자녀양육자(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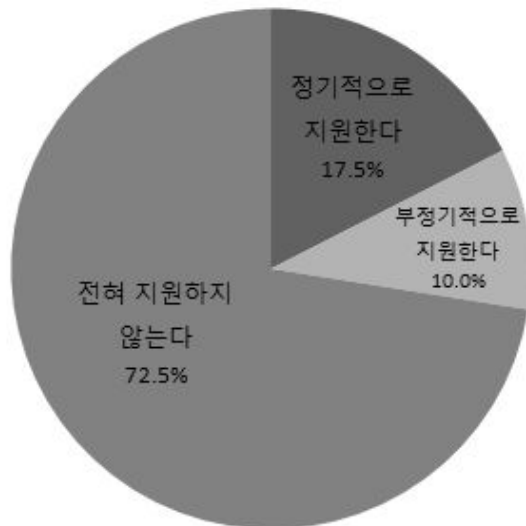
	(N)	나	배우자	기타 가족	미성년 자녀 없음	계
▣ 전체 ▣	(415)	20.5	8.4	1.2	70.1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8.5	7.7	1.7	72.1	100.0
별거	(86)	27.9	10.5	1.2	60.5	100.0
가출	(96)	18.8	8.3	0.0	74.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3.9	3.8	1.3	81.0	100.0
40-49세	(240)	20.4	8.3	0.4	71.3	100.0
50세 이상	(96)	26.0	12.5	3.1	58.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5.6	18.6	7.0	48.8	100.0
고등학교	(223)	22.4	9.0	0.9	68.2	100.0
대학교 이상	(149)	16.1	4.7	0.0	79.2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9.2	8.1	1.9	7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1.0	9.2	0.0	70.6	100.0
미취업자	(36)	27.8	8.3	0.0	63.9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9.3	10.7	4.0	56.0	100.0
200-299만원	(148)	17.6	8.1	0.0	74.3	100.0
300-399만원	(85)	12.9	5.9	0.0	81.2	100.0
400만원 이상	(59)	18.6	8.5	3.4	69.5	100.0
미취업자 등	(48)	31.3	10.4	0.0	60.4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5.5	10.6	1.6	62.7	100.0
중국	(45)	11.1	4.4	0.0	84.4	100.0
필리핀	(34)	17.6	2.9	0.0	79.4	100.0
캄보디아	(20)	15.0	5.0	5.0	7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8.5	7.4	0.0	74.1	100.0
기타	(34)	2.9	5.9	0.0	91.2	100.0

<표 2-30>에서 혼인중단 이후 누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미성년 자녀 없음’을 제외하고 ‘나’라는 응답 비율이 20.5%로 가장 높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별거 상태인 경우 ‘나’라는 응답 비율이 27.9%로 이혼 및 가출(18.5%, 18.8%)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 각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따른 분석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특성별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모든 세부유형별로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양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배우자, 기타 가족 순임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에 응한 남성들은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거친 경우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남성들이 승소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자녀의 조부모나 부계 친척들이 자녀를 함께 양육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자녀와 함께 가출하여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는 남성들이 자녀와 연락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2-31>에서 미성년 자녀를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느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5%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10명 중 7명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원한다’는 17.5%, ‘부정기적으로 지원한다’는 10.0%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원이 다소 높다.



[그림 2-8] 양육비 지원여부

<표 2-31> 양육비 지원여부

(단위: 명, %)

	(N)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부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계
▣ 전체 ▣	(40)	17.5	10.0	72.5	100.0
혼인상태					
이혼	(22)	18.2	9.1	72.7	100.0
별거	(10)	30.0	10.0	60.0	100.0
가출	(8)	0.0	12.5	87.5	100.0
연령					
39세 이하	(4)	25.0	25.0	50.0	100.0
40-49세	(21)	14.3	4.8	81.0	100.0
50세 이상	(15)	20.0	13.3	66.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11)	18.2	9.1	72.7	100.0
고등학교	(22)	18.2	13.6	68.2	100.0
대학교 이상	(7)	14.3	0.0	85.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	11.5	15.4	73.1	100.0
비임금근로자	(11)	18.2	0.0	81.8	100.0
미취업자	(3)	66.7	0.0	33.3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1)	18.2	18.2	63.6	100.0
200-299만원	(12)	16.7	8.3	75.0	100.0
300-399만원	(5)	0.0	0.0	100.0	100.0
400만원 이상	(7)	14.3	14.3	71.4	100.0
미취업자 등	(5)	40.0	0.0	6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31)	12.9	9.7	77.4	100.0
중국	(2)	50.0	0.0	50.0	100.0
캄보디아	(1)	0.0	0.0	100.0	100.0
우즈베키스탄	(2)	0.0	50.0	50.0	100.0
기타	(2)	50.0	0.0	50.0	100.0

<표 2-32>에서는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의 가출,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을 1-2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의 가출,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어려움으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응답 비율이 60.5%로 가장 높으며,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 극복'(57.8%), '경제적 문제'(19.3%), '자녀양육·교육문제'(15.7%) 순이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 및 가출 상태인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8.8%, 68.8%로 가장 높고, 별거 상태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극복'이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55.8%로 가장 높다.

<표 2-32>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명, %)

	(N)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극복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교육문제	사회적 편견	외로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	기타	아무런 어려움 없다
▣ 전체 ▣	(415)	60.5	57.8	19.3	15.7	12.0	11.3	3.9	5.8	2.7
혼인상태										
이혼	(233)	58.8	57.9	15.9	13.3	15.0	13.7	3.9	7.3	3.0
별거	(86)	55.8	55.8	24.4	20.9	4.7	9.3	4.7	4.7	3.5
가출	(96)	68.8	59.4	22.9	16.7	11.5	7.3	3.1	3.1	1.0
연령										
39세 이하	(79)	59.5	68.4	16.5	11.4	10.1	13.9	0.0	7.6	2.5
40-49세	(240)	62.1	56.3	18.3	15.8	11.7	10.4	5.0	5.0	3.8
50세 이상	(96)	57.3	53.1	24.0	18.8	14.6	11.5	4.2	6.3	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4.2	55.8	27.9	20.9	11.6	16.3	9.3	2.3	2.3
고등학교	(223)	66.8	55.2	18.4	17.0	9.0	11.7	4.0	5.8	2.2
대학교 이상	(149)	55.7	62.4	18.1	12.1	16.8	9.4	2.0	6.7	3.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1.5	59.6	20.4	14.6	10.0	10.8	5.0	6.5	1.5
비임금근로자	(119)	60.5	52.9	16.8	16.8	16.0	10.9	2.5	5.9	5.0
미취업자	(36)	52.8	61.1	19.4	19.4	13.9	16.7	0.0	0.0	2.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58.7	56.0	18.7	22.7	10.7	10.7	6.7	6.7	2.7
200-299만원	(148)	63.5	59.5	23.6	11.5	8.8	8.8	3.4	7.4	1.4
300-399만원	(85)	58.8	57.6	18.8	10.6	12.9	12.9	4.7	8.2	3.5
400만원 이상	(59)	61.0	55.9	11.9	18.6	22.0	10.2	3.4	1.7	5.1
미취업자 등	(48)	56.3	58.3	16.7	22.9	10.4	18.8	0.0	0.0	2.1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61.6	57.6	18.0	18.4	10.2	9.0	4.3	5.9	3.1
중국	(45)	55.6	60.0	26.7	4.4	15.6	11.1	4.4	2.2	4.4
필리핀	(34)	64.7	61.8	20.6	14.7	11.8	14.7	0.0	5.9	0.0
캄보디아	(20)	60.0	50.0	35.0	20.0	25.0	0.0	5.0	5.0	0.0
우즈베키스탄	(27)	51.9	66.7	18.5	18.5	7.4	18.5	3.7	7.4	0.0
기타	(34)	61.8	50.0	8.8	5.9	17.6	26.5	2.9	8.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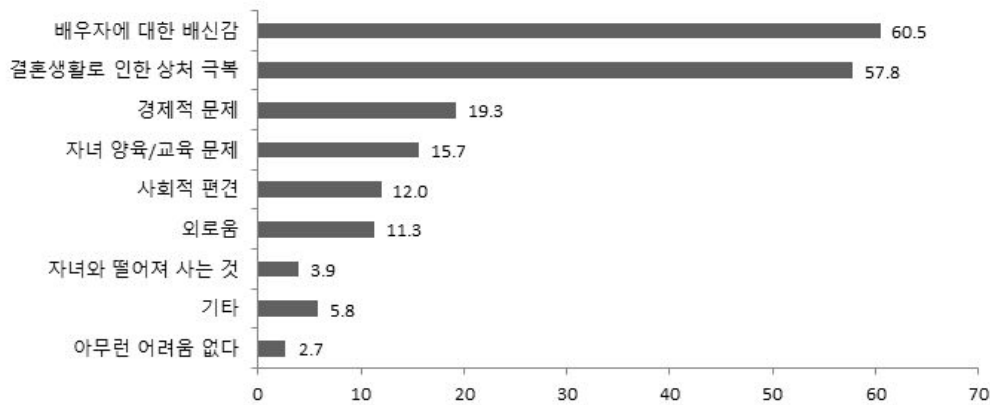
연령별로 39세 이하에서는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극복’(68.4%)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40-49세 및 50세 이상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62.1%, 57.3%로 가장 높다. 항목별로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극복’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 및 대졸 이상에서는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극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5.8%, 62.4%로 가장 높으며, 고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응답 비율이 66.8%로 가장 높다. 항목별로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 비율은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61.5%, 60.5%로 가장 높고, 미취업자는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극복’(61.1%)이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61.6%, 64.7%, 60.0%로 가장 높고,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극복’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60.0%, 66.7%로 가장 높다.



[그림 2-9]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심층면접에 응답한 남성들이 혼인 중단으로 인한 내면적 상처를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있음이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응답자들은 면접 내내 예전 일을 기억하기 힘들어 했다.

<사례 #A18>은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모두 혼인이 중단된 경우이다. 다른 남성과 달리 <사례 #A18>의 배우자는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무리한 중개가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과도한 상실감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함께 맞선 여행을 다녀왔던 당사자의 동생도 배우자의 가출로 혼인이 중단되었는데, 그는 자신보다도 형인 <사례 #A18>의 상태를 걱정했다.

우리 작은 형 같은 사람은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형이 자기 얘기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형이] 결혼[을 추진]할 때는 식품도매업 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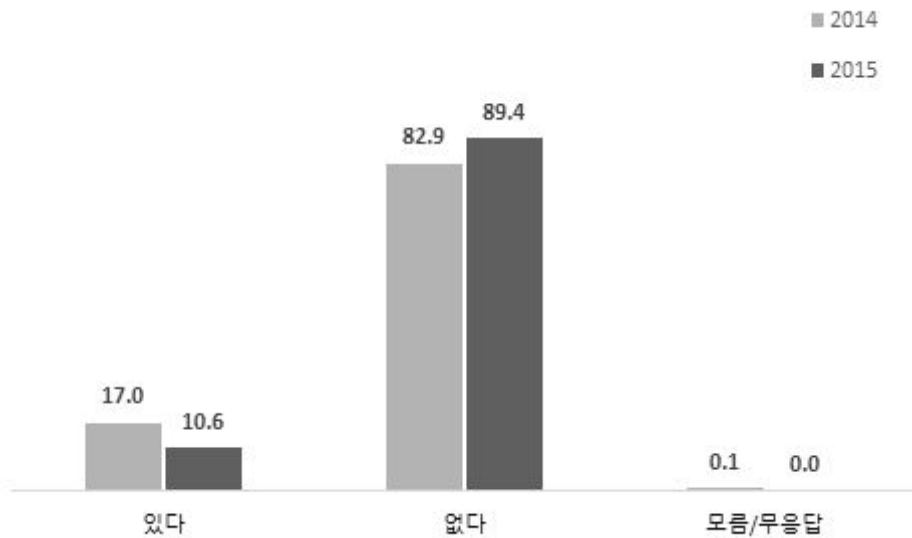
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국제결혼 한다고 출국하느라 쉬고, 서류 만든다고 쉬고, 그 바쁜데,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빠져 나가고 했는데, [베트남에 다녀와서도] 1년 늦도록 [신부가] 입국을 안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입방아도 찧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그게.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은 갔다 오면 3개월 만에 들어오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계속 서류가 잘못됐다, 어찌고저찌고. 예, 그랬나 봐요. 그게 엄청 스트레스가 돼서 형이 직장도 관두고 그냥 요양하게 되었어요[사례 #A17, 남, 41세, 2013년 결혼, 배우자국적 베트남, 울산거주].

<표 2-33>과 [그림 2-10]에서 본인 또는 당시 배우자가 국제결혼 맞선을 주선한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맞선을 주선해서 성사된 경험이 있는 경우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도 2014년 조사와 본 조사 모두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2-33>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2015	(415)	10.6	89.4	0.0	100.0
2014	(800)	17.0	82.9	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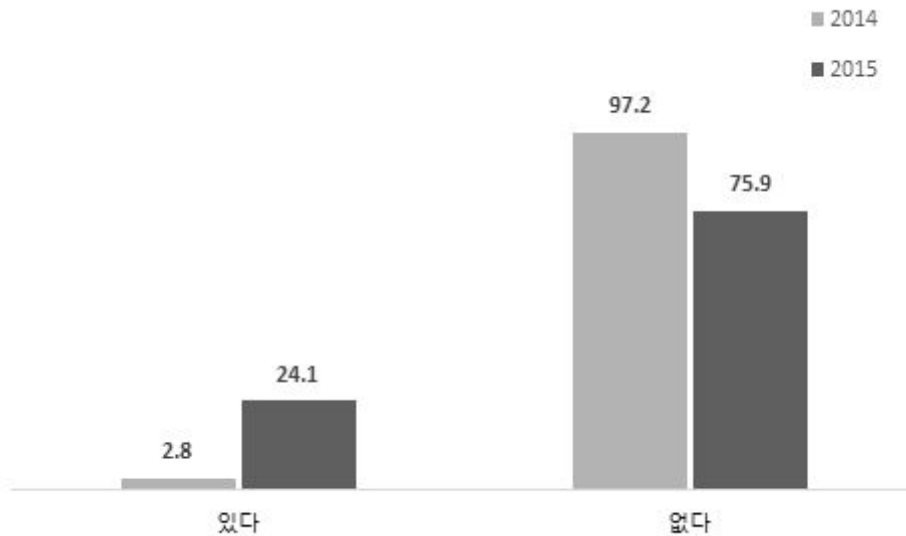


[그림 2-10]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2014-2015년

<표 2-34> 맞선 성사 후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2015	(29)	24.1	75.9	100.0
2014	(56)	2.8	97.2	100.0



[그림 2-11] 맞선 성사 후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 2014-2015년

그러나 <표 2-34>와 [그림 2-11]에서 맞선을 주선해서 성사된 경우,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을 비교해보면, 본 조사에서는 24.1%인데 비해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는 2.8%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2-35>에서 혼인중단 남성 또는 당시 배우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국제결혼 맞선을 주선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와 배우자 둘 다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89.4%로 가장 높고, ‘배우자만 했다’(3.9%), ‘나와 배우자 둘 다 했다’(3.4%), ‘나만 했다’(3.4%) 순이다.

세부특성별로 ‘나와 배우자 둘 다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가출(94.8%)이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40세 이하가 높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91.7%)가 가장 높고, 월평균 임금별로는 200-299만원(92.6%)이 가장 높다. 또한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필리핀(91.2%)과 중국(91.1%) 출신이 높다.

<표 2-35>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단위: 명, %)

	(N)	나와 배우자 들 다 했다	나만 했다	배우자만 했다	나와 배우자 들 다 하지 않았다	계
▣ 전체 ▣	(415)	3.4	3.4	3.9	89.4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0	1.7	4.7	90.6	100.0
별거	(86)	7.0	8.1	4.7	80.2	100.0
가출	(96)	1.0	3.1	1.0	94.8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8	2.5	1.3	92.4	100.0
40-49세	(240)	2.1	2.9	2.5	92.5	100.0
50세 이상	(96)	6.3	5.2	9.4	79.2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7	4.7	9.3	81.4	100.0
고등학교	(223)	4.0	4.0	4.0	87.9	100.0
대학교 이상	(149)	2.0	2.0	2.0	94.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1	2.7	3.1	91.2	100.0
비임금근로자	(119)	4.2	5.0	5.9	84.9	100.0
미취업자	(36)	2.8	2.8	2.8	91.7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3	1.3	8.0	89.3	100.0
200-299만원	(148)	2.7	2.0	2.7	92.6	100.0
300-399만원	(85)	3.5	9.4	0.0	87.1	100.0
400만원 이상	(59)	6.8	0.0	6.8	86.4	100.0
미취업자 등	(48)	4.2	4.2	4.2	87.5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5	3.5	3.9	89.0	100.0
중국	(45)	2.2	2.2	4.4	91.1	100.0
필리핀	(34)	0.0	2.9	5.9	91.2	100.0
캄보디아	(20)	5.0	0.0	5.0	9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1.1	11.1	0.0	77.8	100.0
기타	(34)	0.0	0.0	2.9	97.1	100.0

제 3 장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을 조사한 결과(표 3-1, 표 3-2), ‘2011-2013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49.4%로 가장 높고 ‘2010년 이전’(33.5%), ‘2014-2015년’(16.9%) 순이다. <표 3-1>에서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4년 조사 결과는 ‘2011-2013’년에 집중되어 있다.

혼인중단 남성의 세부특성별로 당시 배우자와 맞선 시점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과 별거 상태의 경우 ‘2011-2013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5.8%, 45.3%로 가장 높고, 가출 상태는 ‘2011-2013년’과 ‘2014-2015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37.5%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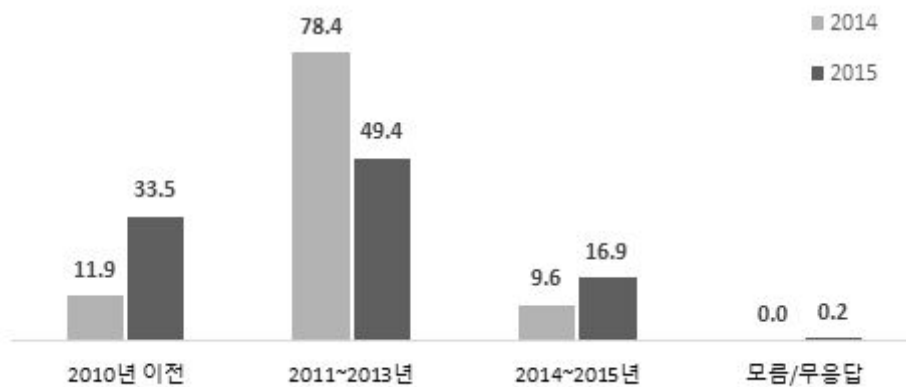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2011-2013년’, ‘2014-2015년’ 순으로 높고, 40-49세는 ‘2011-2013년’, ‘2010년 이전’ 순으로 높은 반면, 50세 이상은 ‘2010년 이전’이 50.0%로 가장 높고 ‘2011-2013년’이 41.7%로 대부분 2013년 이전에 맞선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비교적 최근에 맞선을 본 것으로 당연한 결과다.

최종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임금별, 배우자의 출신국별 차이는 없다.

<표 3-1>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2014-2015년

(단위: 명, %)

	(N)	2010년 이전	2011-2013년	2014-2015년	모름-무응답	계
2015	(415)	33.5	49.4	16.9	0.2	100.0
2014	(800)	11.9	78.4	9.6	0.0	100.0



[그림 3-1]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2014-2015년

<표 3-2>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단위: 명, %)

	(N)	2010년 이전	2011-2013년	2014-2015년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33.5	49.4	16.9	0.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8.2	55.8	5.6	0.4	100.0
별거	(86)	30.2	45.3	24.4	0.0	100.0
가출	(96)	25.0	37.5	37.5	0.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9.0	59.5	21.5	0.0	100.0
40-49세	(240)	31.7	49.2	19.2	0.0	100.0
50세 이상	(96)	50.0	41.7	7.3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6.5	48.8	4.7	0.0	100.0
고등학교	(223)	36.3	47.5	15.7	0.4	100.0
대학교 이상	(149)	25.5	52.3	22.1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2.7	48.1	18.8	0.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5.3	48.7	16.0	0.0	100.0
미취업자	(36)	33.3	61.1	5.6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9.3	38.7	12.0	0.0	100.0
200-299만원	(148)	29.7	50.7	19.6	0.0	100.0
300-399만원	(85)	21.2	51.8	25.9	1.2	100.0
400만원 이상	(59)	33.9	52.5	13.6	0.0	100.0
미취업자 등	(48)	41.7	54.2	4.2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9.6	41.2	18.8	0.4	100.0
중국	(45)	26.7	57.8	15.6	0.0	100.0
필리핀	(34)	17.6	70.6	11.8	0.0	100.0
캄보디아	(20)	30.0	45.0	2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9.6	55.6	14.8	0.0	100.0
기타	(34)	17.6	76.5	5.9	0.0	100.0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한 결과(표 3-3, 그림 3-2),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4.0%로 가장 높고, ‘2-3일’(25.5%), ‘8일 이상’(21.2%), ‘4-7일’(19.3%) 순이다.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이 3일 이내라는 응답 비율이 약 60%였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은 가출에서 47.9%로 가장 높으며, 별거(34.9%), 이혼(27.9%)의 순이다.

연령별로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은 39세 이하 및 40-49세에서 각각 35.4%, 36.7%로 가장 높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2-3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1.3%로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2-3일’이라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표 3-3>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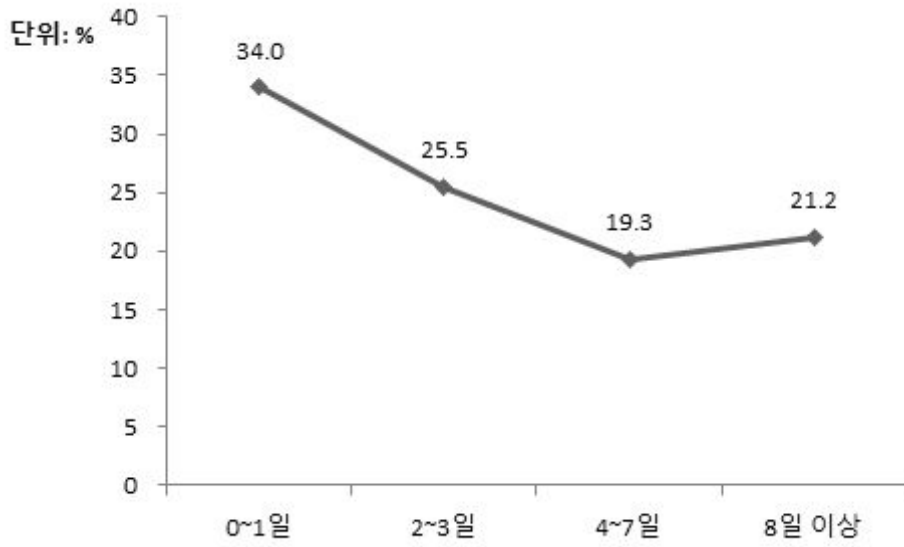
(단위: 명, %)

	(N)	0-1일	2-3일	4-7일	8일 이상	계
■ 전체 ■	(415)	34.0	25.5	19.3	21.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7.9	27.5	24.0	20.6	100.0
별거	(86)	34.9	22.1	15.1	27.9	100.0
가출	(96)	47.9	24.0	11.5	16.7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5.4	27.8	13.9	22.8	100.0
40-49세	(240)	36.7	22.5	17.1	23.8	100.0
50세 이상	(96)	26.0	31.3	29.2	13.5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7.9	32.6	23.3	16.3	100.0
고등학교	(223)	30.5	25.6	23.3	20.6	100.0
대학교 이상	(149)	40.9	23.5	12.1	23.5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6.9	26.2	18.5	18.5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2.8	22.7	16.0	28.6	100.0
미취업자	(36)	16.7	30.6	36.1	16.7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0.7	28.0	17.3	24.0	100.0
200-299만원	(148)	40.5	23.6	20.9	14.9	100.0
300-399만원	(85)	41.2	23.5	11.8	23.5	100.0
400만원 이상	(59)	22.0	30.5	20.3	27.1	100.0
미취업자 등	(48)	20.8	25.0	29.2	25.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1.2	25.9	17.6	15.3	100.0
중국	(45)	20.0	22.2	22.2	35.6	100.0
필리핀	(34)	17.6	29.4	32.4	20.6	100.0
캄보디아	(20)	50.0	25.0	20.0	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7.4	18.5	18.5	55.6	100.0
기타	(34)	26.5	29.4	14.7	29.4	100.0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6.9%, 32.8%로 가장 높고 미취업자의 경우 ‘4-7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6.1%로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300만원 이하는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400만원 이상은 ‘2-3일’, 미취업자는 ‘4-7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은 캄보디아(50.0%)와 베트남(41.2%)이 높고, 필리핀 출신의 경우 ‘4-7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2.4%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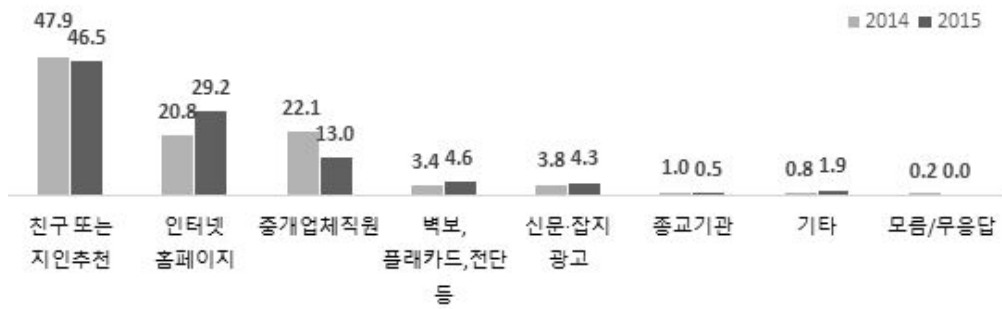


[그림 3-2]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표 3-4> 이용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2014-2015년

(단위: 명, %)

	(N)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	국제결혼 중개업체 직원을 통해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 등	신문·잡지 광고	종교기관	기타	모름·무응답	계
2015	(415)	46.5	29.2	13.0	4.6	4.3	0.5	1.9	0.0	100.0
2014	(800)	47.9	20.8	22.1	3.4	3.8	1.0	0.8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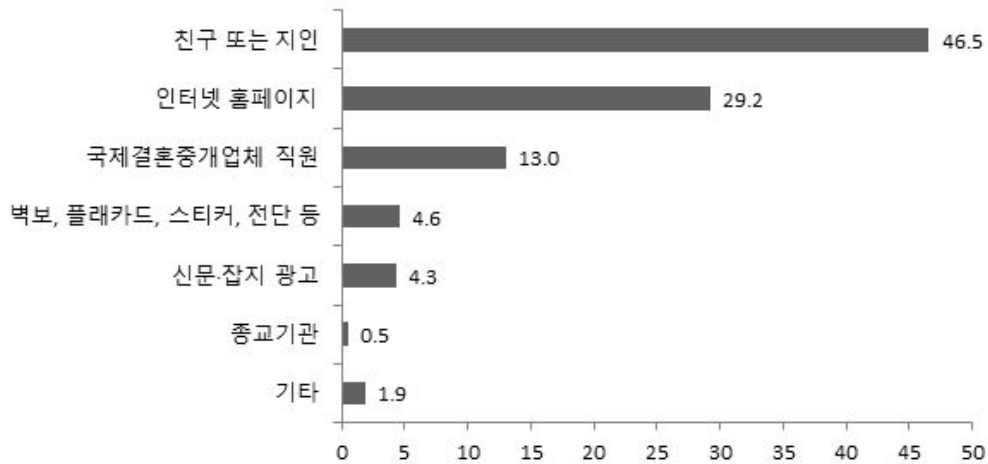
[그림 3-3] 이용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2014-2015년

<표 3-5>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 통로

(단위: 명, %)

	(N)	친구 또는 지인 (기존 국제 결혼 성혼자 포함)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	국제 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 등	신문·잡지 광고	종교 기관	기타	계
■ 전체 ■	(415)	46.5	29.2	13.0	4.6	4.3	0.5	1.9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5.1	29.6	14.2	5.2	4.3	0.0	1.7	100.0
별거	(86)	53.5	31.4	4.7	3.5	4.7	1.2	1.2	100.0
가출	(96)	43.8	26.0	17.7	4.2	4.2	1.0	3.1	100.0
연령									
39세 이하	(79)	53.2	32.9	7.6	2.5	2.5	0.0	1.3	100.0
40-49세	(240)	47.5	29.6	14.6	3.3	2.1	0.4	2.5	100.0
50세 이상	(96)	38.5	25.0	13.5	9.4	11.5	1.0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55.8	14.0	16.3	9.3	2.3	0.0	2.3	100.0
고등학교	(223)	48.9	26.0	13.0	4.5	4.5	0.9	2.2	100.0
대학교 이상	(149)	40.3	38.3	12.1	3.4	4.7	0.0	1.3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7.3	30.8	11.9	3.8	4.2	0.8	1.2	100.0
비임금근로자	(119)	45.4	31.1	10.1	5.0	4.2	0.0	4.2	100.0
미취업자	(36)	44.4	11.1	30.6	8.3	5.6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4.0	25.3	17.3	6.7	1.3	1.3	4.0	100.0
200-299만원	(148)	50.0	27.0	10.8	3.4	6.1	0.7	2.0	100.0
300-399만원	(85)	44.7	42.4	5.9	3.5	3.5	0.0	0.0	100.0
400만원 이상	(59)	40.7	37.3	11.9	3.4	5.1	0.0	1.7	100.0
미취업자 등	(48)	50.0	8.3	27.1	8.3	4.2	0.0	2.1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9.4	27.8	14.9	3.5	2.0	0.4	2.0	100.0
중국	(45)	42.2	26.7	4.4	13.3	11.1	0.0	2.2	100.0
필리핀	(34)	41.2	23.5	20.6	2.9	8.8	2.9	0.0	100.0
캄보디아	(20)	55.0	20.0	15.0	5.0	5.0	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0.7	48.1	3.7	3.7	3.7	0.0	0.0	100.0
기타	(34)	35.3	38.2	8.8	2.9	8.8	0.0	5.9	100.0

혼인중단 남성에게 본인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표 3-4, 표 3-5),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46.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29.2%),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13.0%) 순으로 높다. 반면 '종교기관'이라는 응답 비율은 0.5%로 가장 낮으며, '신문·잡지 광고'(4.3%),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 등'(4.6%)의 순으로 낮다.



[그림 3-4]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 통로

혼인중단 남성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지 통로를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동일하게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 가장 높으며, 2014년 조사 결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22.1%, ‘인터넷 홈페이지’ 20.9%인데 반해, 본 조사 결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13.0%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은 29.0%로 더 높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별거 상태인 경우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53.5%)과 ‘인터넷 홈페이지’(31.4%)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

연령별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통로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과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최종학력별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통로는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종사상의 지위별로 취업자 및 미취업자에서 모두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취업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0.8%, 31.1%인데 비해, 미취업자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라는 응답 비율이 30.6%로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역시 임금을 받고 있는 취업자의 경우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 순으로 높으나, 미취업자의 경우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 순이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기타와 우즈베키스탄 출신만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에는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혼인중단 남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이 40.2%로 가장 높고,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이 39.5%로 높다. 그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에서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던 것과 동일한 결과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선택문항에 차이는 있으나 2014년 조사 결과는 업체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56.2%로 가장 높고 ‘지인이 소개해 주서’라는 응답 비율은 14.9%인데 반해, 본 조사 결과에서는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고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

<표 3-6>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2014-2015년

(단위: 명, %)

	(N)	지인이 소개해줘서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	특정 국가 전문성	신뢰감 사진 속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비·등록비가 더 저렴해서	소개 횟수가 더 많아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
2015	(415)	40.2	39.5	6.7	3.9	2.7	1.4	5.5	0.0	100.0
2014	(800)	14.9	56.2	11.8	-	8.3	5.3	3.2	0.3	100.0



[그림 3-5]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2014-2015년

<표 3-7> 해당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단위: 명, %)

	(N)	지인이 소개해줘서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	특정 국가 전문성	신분감 사진 속 인물이 맘에 들어서	가입비·등록비가 더 저렴해서	소개 횟수가 더 많아서	기타	계
▣ 전체 ▣	(415)	40.2	39.5	6.7	3.9	2.7	1.4	5.5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9.1	37.8	9.4	3.9	3.4	1.7	4.7	100.0
별거	(86)	44.2	34.9	5.8	4.7	2.3	1.2	7.0	100.0
가출	(96)	39.6	47.9	1.0	3.1	1.0	1.0	6.3	100.0
연령									
39세 이하	(79)	43.0	38.0	6.3	3.8	2.5	1.3	5.1	100.0
40-49세	(240)	42.9	38.3	5.4	5.0	1.7	1.3	5.4	100.0
50세 이상	(96)	31.3	43.8	10.4	1.0	5.2	2.1	6.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1.9	37.2	2.3	4.7	7.0	2.3	4.7	100.0
고등학교	(223)	43.5	35.0	7.6	3.1	1.8	1.8	7.2	100.0
대학교 이상	(149)	34.9	47.0	6.7	4.7	2.7	0.7	3.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1.2	41.9	6.2	3.5	2.3	1.2	3.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7.8	38.7	6.7	4.2	3.4	1.7	7.6	100.0
미취업자	(36)	41.7	25.0	11.1	5.6	2.8	2.8	11.1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1.3	44.0	2.7	2.7	4.0	1.3	4.0	100.0
200-299만원	(148)	41.9	39.2	7.4	4.1	2.0	1.4	4.1	100.0
300-399만원	(85)	32.9	47.1	8.2	2.4	3.5	0.0	5.9	100.0
400만원 이상	(59)	40.7	35.6	6.8	6.8	1.7	3.4	5.1	100.0
미취업자 등	(48)	45.8	25.0	8.3	4.2	2.1	2.1	12.5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2.7	41.6	3.1	3.9	2.7	1.2	4.7	100.0
중국	(45)	35.6	28.9	11.1	0.0	6.7	6.7	11.1	100.0
필리핀	(34)	32.4	35.3	17.6	8.8	2.9	0.0	2.9	100.0
캄보디아	(20)	50.0	30.0	10.0	10.0	0.0	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0.7	44.4	3.7	3.7	0.0	0.0	7.4	100.0
기타	(34)	29.4	44.1	17.6	0.0	0.0	0.0	8.8	100.0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주된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혼 및 별거 상태인 경우에는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9.1%, 44.2%로 가장 높고, 가출 상태는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이 47.9%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및 40-49세에서는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43.0%, 42.9%로 가장 높고, 50세 이상에서는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이 43.8%로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인 경우는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

이 각각 41.9%, 43.5%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은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이 47.0%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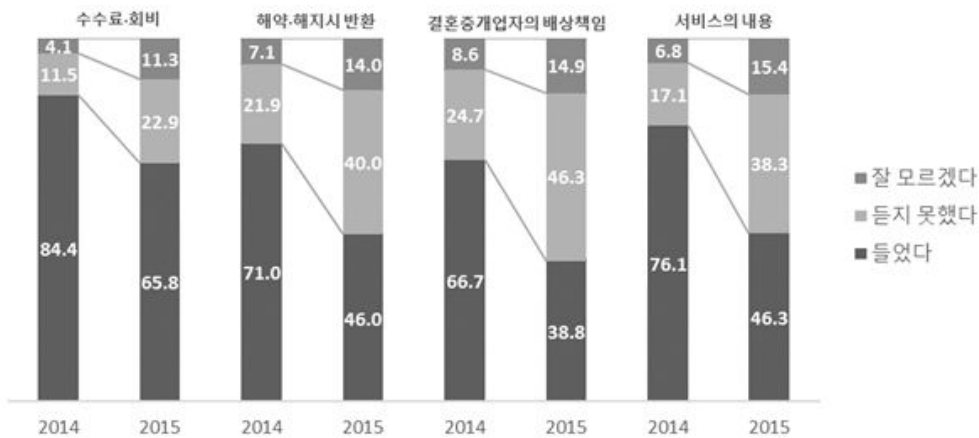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미취업자에서는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이 41.7%로 가장 높고,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는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41.9%, 38.7%로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한 비율이 각각 35.3%, 44.4%로 가장 높으며, 그 외의 출신국은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3-8> 계약 내용 설명 청취, 2014-2015년

(단위: 명, %)

	(N)	들었다	듣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	계
수수료·회비 등					
2015	(415)	65.8	22.9	11.3	100.0
2014	(800)	84.4	11.5	4.1	100.0
해약·해지 시 반환					
2015	(415)	46.0	40.0	14.0	100.0
2014	(800)	71.0	21.9	7.1	100.0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					
2015	(415)	38.8	46.3	14.9	100.0
2014	(800)	66.7	24.7	8.6	100.0
서비스의 내용 등					
2015	(415)	46.3	38.3	15.4	100.0
2014	(800)	76.1	17.1	6.8	100.0



[그림 3-6] 계약 내용 설명 청취, 2014-2015년

<표 3-9> 계약 체결 전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 들었는지 여부: “들었다” 응답 기준

(단위: 명, %)

	(N)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전체 ▣	(415)	65.8	46.0	38.8	46.3
혼인상태					
이혼	(233)	65.2	44.2	36.9	44.2
별거	(86)	68.6	53.5	47.7	52.3
가출	(96)	64.6	43.8	35.4	45.8
연령					
39세 이하	(79)	72.2	46.8	41.8	53.2
40-49세	(240)	65.8	46.3	37.9	45.0
50세 이상	(96)	60.4	44.8	38.5	43.8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62.8	44.2	44.2	46.5
고등학교	(223)	65.9	46.2	37.7	44.8
대학교 이상	(149)	66.4	46.3	38.9	48.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7.3	48.8	41.5	50.8
비임금근로자	(119)	61.3	40.3	32.8	40.3
미취업자	(36)	69.4	44.4	38.9	33.3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64.0	48.0	46.7	49.3
200-299만원	(148)	68.2	48.6	41.2	52.7
300-399만원	(85)	65.9	49.4	35.3	41.2
400만원 이상	(59)	64.4	33.9	28.8	40.7
미취업자 등	(48)	62.5	43.8	37.5	37.5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65.5	45.9	38.8	47.1
중국	(45)	48.9	35.6	26.7	33.3
필리핀	(34)	76.5	52.9	44.1	47.1
캄보디아	(20)	65.0	60.0	55.0	60.0
우즈베키스탄	(27)	70.4	37.0	29.6	37.0
기타	(34)	76.5	52.9	47.1	55.9

<표 3-8>과 <표 3-9>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총 4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65.8%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46.3%), 해약·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46.0%),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38.8%)의

순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계약을 위해 수수료나 회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하고 있지만, 해약·해지 시의 수수료나 회비 등의 반환, 결혼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업체 측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을 본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혼인중단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보다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전 계약과 관련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응답 기준으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표 3-9), 다음과 같다. 세부 특성별로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모든 특성에서 가장 높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 별거, 가출 모두에서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별거상태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전 계약과 관련한 4가지 항목 모두 ‘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4가지 항목 모두 ‘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을 ‘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에서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3가지 항목 모두 계약 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비임금근로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을 ‘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는 응답 비율은 필리핀 출신이 76.5%로 가장 높고 그 외에 3가지 항목을 ‘들었다’는 응답 비율은 캄보디아 출신이 가장 높다.

<표 3-10>에 제시한 것처럼, 혼인중단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총 12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중 나이(70.6%), 가족관계(61.9%), 혼인경력(58.0%), 학력(54.0%), 건강상태(50.6%) 등을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16.9%), 재산(17.1%), 범죄경력(24.8%)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낮다.

이 결과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혼인중단 남성들에게 당시 배우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즉 나이, 학력, 가족관계, 혼인경력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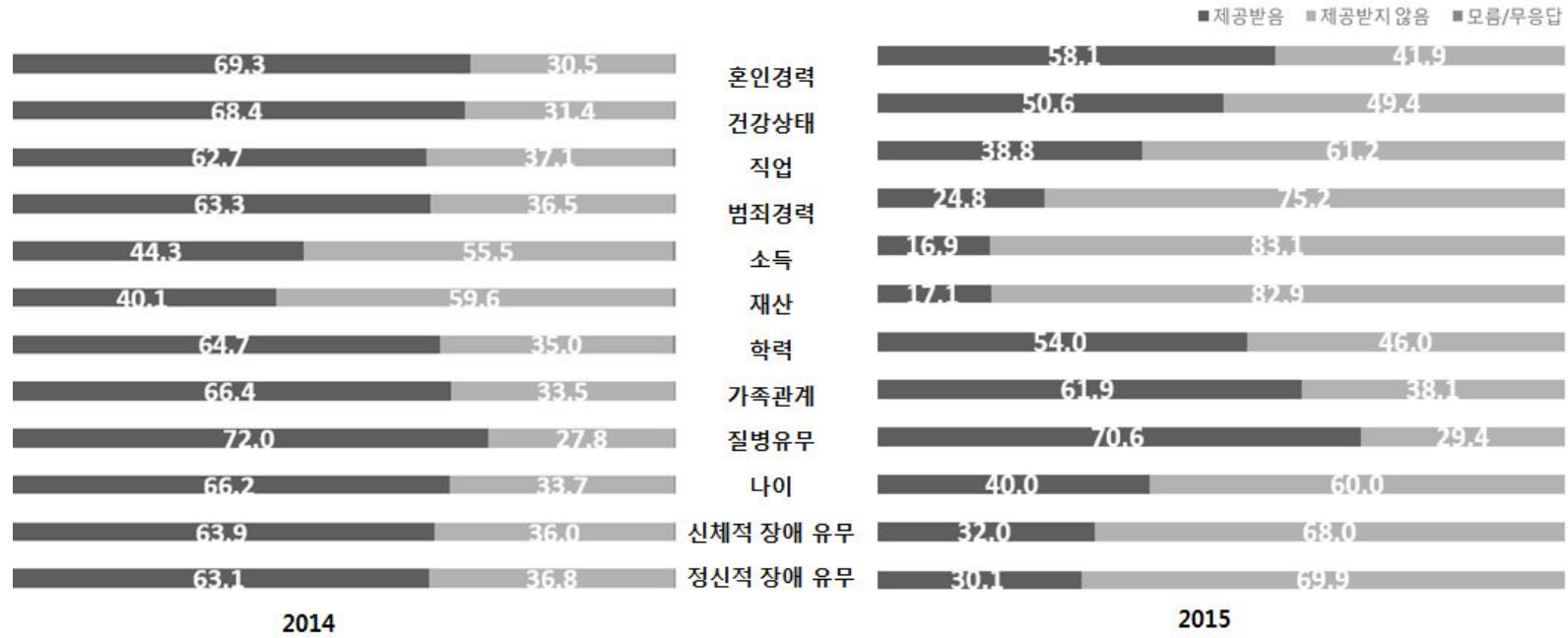
또한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배우자의 신상정보 12가지 항

목 모두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낮으며, ‘제공 받았다’는 순위는 동일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12가지에 대해 ‘제공 받았다’라는 응답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표 3-11), 다음과 같다.

<표 3-10>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단위: 명, %)

	(N)	제공받음	제공받지 않음	모름·무응답	계
혼인경력					
2015	(415)	58.1	41.9	0.0	100.0
2014	(715)	69.3	30.5	0.1	100.0
건강상태					
2015	(415)	50.6	49.4	0.0	100.0
2014	(715)	68.4	31.4	0.1	100.0
직업					
2015	(415)	38.8	61.2	0.0	100.0
2014	(715)	62.7	37.1	0.3	100.0
범죄경력					
2015	(415)	24.8	75.2	0.0	100.0
2014	(715)	63.3	36.5	0.1	100.0
소득					
2015	(415)	16.9	83.1	0.0	100.0
2014	(715)	44.3	55.5	0.3	100.0
재산					
2015	(415)	17.1	82.9	0.0	100.0
2014	(715)	40.1	59.6	0.3	100.0
학력					
2015	(415)	54.0	46.0	0.0	100.0
2014	(715)	64.7	35.0	0.3	100.0
가족관계					
2015	(415)	61.9	38.1	0.0	100.0
2014	(715)	66.4	33.5	0.1	100.0
나이					
2015	(415)	70.6	29.4	0.0	100.0
2014	(715)	72.0	27.8	0.1	100.0
질병 유무					
2015	(415)	40.0	60.0	0.0	100.0
2014	(715)	66.2	33.7	0.1	100.0
신체적 장애 유무					
2015	(415)	32.0	68.0	0.0	100.0
2014	(715)	63.9	36.0	0.1	100.0
정신적 장애 유무					
2015	(415)	30.1	69.9	0.0	100.0
2014	(715)	63.1	36.8	0.1	100.0



[그림 3-7]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표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 여부 제공 받았다 는 응답 기준

< 3-11> : “ ”

(단위: 명, %)

	(N)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소득	재산	학력	가족관계	나이	질병유무	신체적 장애 유무	정신적 장애 유무
☐ 전체 ☐	(415)	58.1	50.6	38.8	24.8	16.9	17.1	54.0	61.9	70.6	40.0	32.0	30.1
혼인상태													
이혼	(233)	55.8	49.8	39.1	27.0	18.5	18.9	51.9	61.8	67.0	39.5	30.5	28.3
별거	(86)	59.3	48.8	38.4	20.9	17.4	17.4	50.0	57.0	70.9	34.9	29.1	26.7
가출	(96)	62.5	54.2	38.5	22.9	12.5	12.5	62.5	66.7	79.2	45.8	38.5	37.5
연령													
39세 이하	(79)	59.5	58.2	43.0	26.6	16.5	19.0	58.2	57.0	70.9	35.4	30.4	29.1
40-49세	(240)	58.3	48.8	36.7	22.5	17.5	16.7	54.2	63.3	71.3	41.7	32.5	29.6
50세 이상	(96)	56.3	49.0	40.6	29.2	15.6	16.7	50.0	62.5	68.8	39.6	32.3	32.3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60.5	41.9	32.6	20.9	18.6	20.9	53.5	72.1	72.1	34.9	34.9	34.9
고등학교	(223)	61.9	52.9	42.2	26.0	16.1	17.5	56.5	64.1	74.4	39.9	30.9	28.7
대학교 이상	(149)	51.7	49.7	35.6	24.2	17.4	15.4	50.3	55.7	64.4	41.6	32.9	30.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0.0	51.9	40.0	24.6	18.5	18.8	53.8	61.9	70.8	41.9	32.7	31.9
비임금근로자	(119)	53.8	50.4	38.7	26.1	14.3	16.0	58.0	63.9	72.3	37.8	31.1	26.9
미취업자	(36)	58.3	41.7	30.6	22.2	13.9	8.3	41.7	55.6	63.9	33.3	30.6	27.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68.0	61.3	33.3	25.3	20.0	24.0	60.0	68.0	78.7	50.7	38.7	36.0
200-299만원	(148)	54.7	51.4	37.8	23.0	15.5	15.5	52.7	60.1	68.2	40.5	31.8	31.1
300-399만원	(85)	55.3	43.5	37.6	21.2	14.1	12.9	49.4	56.5	64.7	34.1	24.7	21.2
400만원 이상	(59)	55.9	49.2	49.2	35.6	22.0	22.0	62.7	66.1	76.3	40.7	35.6	33.9
미취업자 등	(48)	60.4	45.8	39.6	22.9	14.6	12.5	45.8	62.5	68.8	31.3	31.3	29.2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58.4	51.4	38.0	24.3	17.3	17.6	53.7	61.2	71.8	40.0	32.2	28.6
중국	(45)	55.6	42.2	31.1	22.2	17.8	17.8	42.2	62.2	60.0	35.6	35.6	35.6
필리핀	(34)	79.4	64.7	58.8	41.2	20.6	20.6	67.6	76.5	79.4	47.1	41.2	41.2
캄보디아	(20)	40.0	55.0	30.0	30.0	20.0	20.0	45.0	50.0	65.0	45.0	30.0	30.0
우즈베키스탄	(27)	55.6	44.4	44.4	22.2	11.1	11.1	63.0	63.0	70.4	44.4	33.3	33.3
기타	(34)	50.0	44.1	35.3	14.7	11.8	11.8	55.9	58.8	70.6	32.4	17.6	20.6

혼인상태별로 제공받은 신상정보를 살펴보면 이혼과 별거, 가출에서 모두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순으로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가출 상태인 경우 모든 항목에서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만 나이,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순으로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그 외에서는 전체 순위와 동일하다. 또한 혼인 경력, 직업, 학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정신적 장애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최종학력에 따라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의 순위는 차이가 없으며, 전체 순위와 동일하다. 다만, 재산,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으며, 질병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가 당시 배우자의 신상 정보 12가지에 대해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순으로 전체 순위와 동일하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나이, 가족관계 순이고, 미취업자는 나이, 혼인경력, 가족관계 순이다. 또한 항목별로 범죄경력, 학력, 가족관계, 나이에 대한 정보는 비임금근로자가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그 외의 항목은 모두 임금근로자가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살펴보면, 모두 나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199만원 이하는 혼인경력과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68.0%로 높으며, 400만원 이상은 가족관계(66.1%), 학력(62.7%)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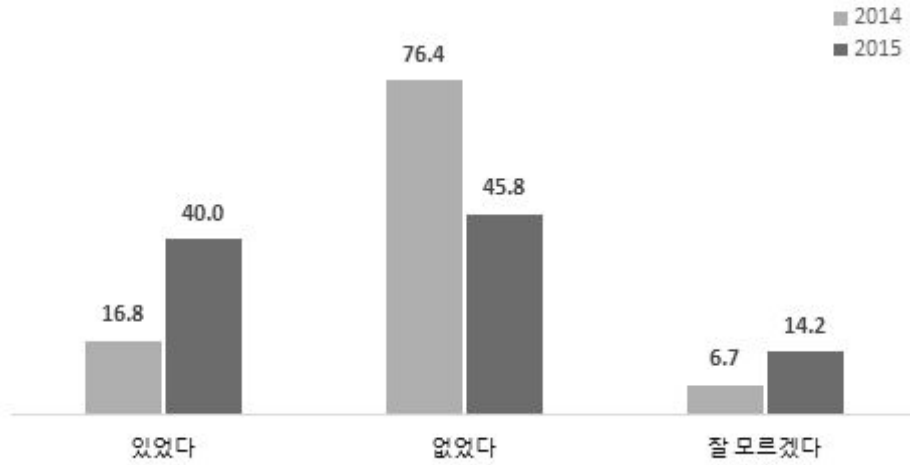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 출신은 혼인경력과 나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79.4%로 가장 높고, 모든 항목별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표 3-12>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받은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불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45.8%로 높지만 '있었다는' 응답 비율 역시 40.0%로 높다. 그러나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76.4%로 압도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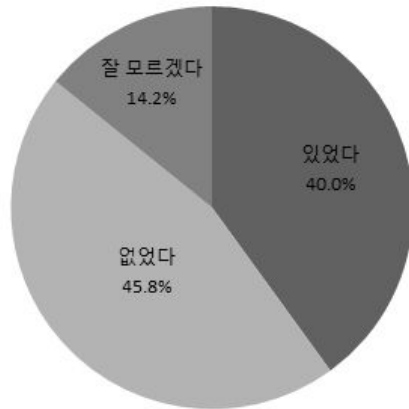
<표 3-12>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	계
2015	(415)	40.0	45.8	14.2	100.0
2014	(800)	16.8	76.4	6.7	100.0



[그림 3-8]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2014-2015년



[그림 3-9]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2015년

<표 3-13>에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신상정보의 불일치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이혼 상태인 경우 42.9%로 가장 높고,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별거 상태인 경우 47.7%로 높다.

연령별로는 연력이 높을수록 신상정보의 불일치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45.6%로 가장 높다.

<표 3-13>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단위: 명, %)

	(N)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415)	40.0	45.8	14.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2.9	44.6	12.4	100.0
별거	(86)	40.7	47.7	11.6	100.0
가출	(96)	32.3	46.9	20.8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9.2	48.1	12.7	100.0
40-49세	(240)	38.8	46.7	14.6	100.0
50세 이상	(96)	43.8	41.7	14.6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4.2	44.2	11.6	100.0
고등학교	(223)	35.4	48.4	16.1	100.0
대학교 이상	(149)	45.6	42.3	12.1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8.8	48.1	13.1	100.0
비임금근로자	(119)	41.2	42.9	16.0	100.0
미취업자	(36)	44.4	38.9	16.7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4.7	50.7	14.7	100.0
200-299만원	(148)	32.4	51.4	16.2	100.0
300-399만원	(85)	45.9	42.4	11.8	100.0
400만원 이상	(59)	57.6	32.2	10.2	100.0
미취업자 등	(48)	39.6	43.8	16.7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2.2	52.5	15.3	100.0
중국	(45)	42.2	35.6	22.2	100.0
필리핀	(34)	52.9	32.4	14.7	100.0
캄보디아	(20)	50.0	40.0	1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66.7	33.3	0.0	100.0
기타	(34)	55.9	35.3	8.8	100.0

종사상 지위별로 신상정보의 불일치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가 44.4%로 가장 높으며, 월평균 임금별로 신상정보의 불일치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400만원 이상(57.6%)이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신상정보의 불일치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66.7%로 가장 높으며, 베트남 출신이 32.3%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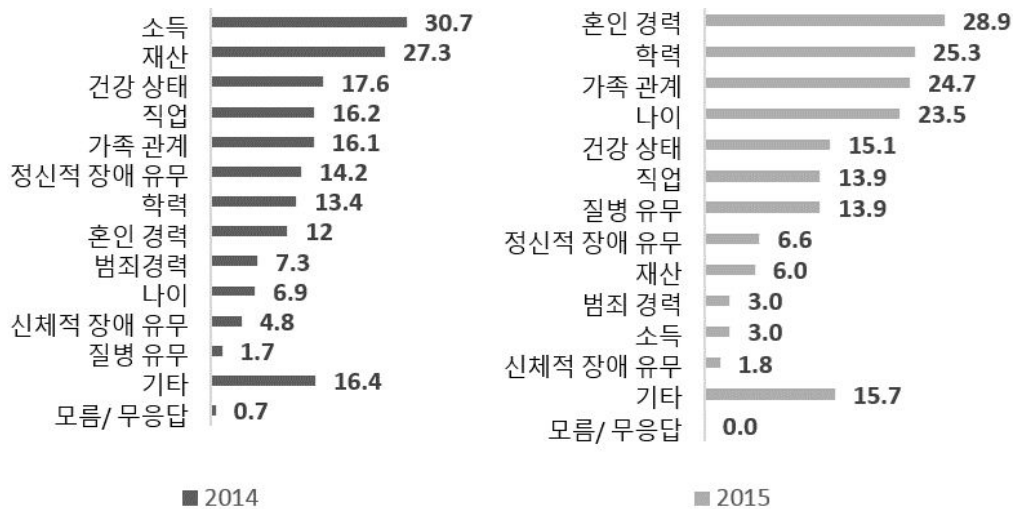
<표 3-14>와 [그림 3-9]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받은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불일치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항목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혼인 경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학력(25.3%), 가족관계(24.7%) 순이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중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순으

로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던 것과 비교했을 때, 나이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는 ‘가족관계’라는 응답 비율이 30.7%로 가장 높고, ‘학력’(27.3%), ‘직업’(17.6%) 순으로 높으며, 혼인경력이 불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4년 국제결혼 실태조사 결과 16.2%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고, 가족관계와 나이가 불일치 하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3-14>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2014-2015년 (단위: 명, %)

	(N)	혼인 경력	학력	가족 관계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질병 유무	정신 장애 유무	재산	범죄 경력	소득	신체 장애 유무	기타	모름/무응답
2015	(166)	28.9	25.3	24.7	23.5	15.1	13.9	13.9	6.6	6.0	3.0	3.0	1.8	15.7	0.0
2014	(135)	16.2	27.3	30.7	14.2	16.1	17.6	13.4	4.8	12.0	1.7	6.9	7.3	16.4	0.7



[그림 3-10]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2014-2015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 상태인 경우 혼인경력(33.0%), 가족관계(26.0%), 학력(23.0%) 순으로 높고, 별거는 나이(28.6%), 혼인경력(25.7%) 순이며, 가출 상태는 학력(35.5%), 나이(29.0%) 순이다. 연령별로 39세 이하에서 학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45.2%로 가장 높으며, 50세 이상 및 40-49세에서는 혼인경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5.7%, 30.1%로 가장 높다. 항목별로 혼인경력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던 반면, 학력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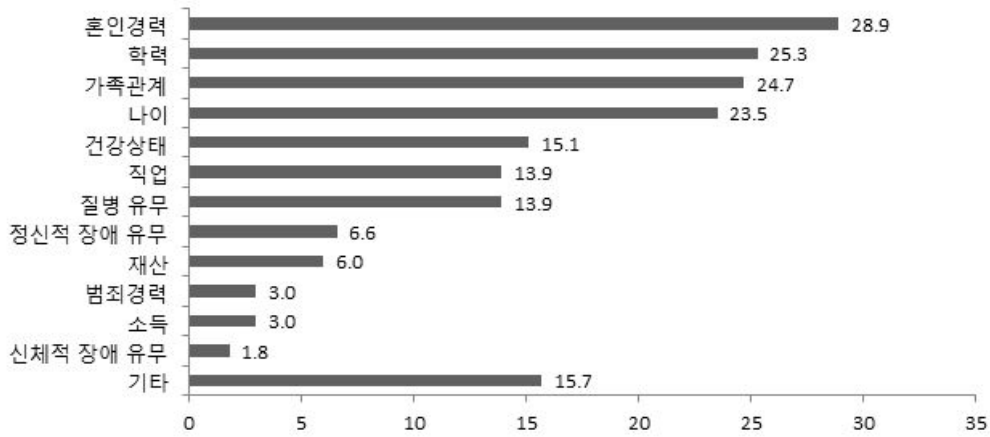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와 고졸은 혼인경력이 불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인 경우는 학력이 불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는 혼인경력이 불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비임금근로자는 학력이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관계가 불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200-299만원은 혼인경력과 학력, 미취업자는 나이, 그 외에는 모두 혼인 경력이 불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을 제외하고 다른 출신은 표본의 수가 적어 비교가 불가능하며, 베트남 출신의 경우 혼인경력과 학력이 불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29.3%로 가장 높으며, 나이(24.4%), 가족관계(23.2%) 순이다.

<표 3-15>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단위: 명, %)

	(N)	혼인 경력	학력	가족 관계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질병 유무	정신적 장애 유무	재산	범죄 경력	소득	신체적 장애 유무	기타
■ 전체 ■	(166)	28.9	25.3	24.7	23.5	15.1	13.9	13.9	6.6	6.0	3.0	3.0	1.8	15.7
혼인상태														
이혼	(100)	33.0	23.0	26.0	20.0	13.0	11.0	11.0	8.0	5.0	5.0	3.0	2.0	16.0
별거	(35)	25.7	22.9	22.9	28.6	17.1	20.0	22.9	5.7	8.6	0.0	2.9	0.0	14.3
가출	(31)	19.4	35.5	22.6	29.0	19.4	16.1	12.9	3.2	6.5	0.0	3.2	3.2	16.1
연령														
39세 이하	(31)	16.1	45.2	32.3	25.8	12.9	22.6	12.9	3.2	9.7	3.2	6.5	3.2	19.4
40-49세	(93)	30.1	22.6	22.6	21.5	17.2	11.8	12.9	6.5	4.3	2.2	2.2	1.1	14.0
50세 이상	(42)	35.7	16.7	23.8	26.2	11.9	11.9	16.7	9.5	7.1	4.8	2.4	2.4	16.7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19)	36.8	15.8	31.6	31.6	5.3	15.8	10.5	5.3	5.3	5.3	0.0	0.0	5.3
고등학교	(79)	25.3	21.5	21.5	17.7	20.3	7.6	15.2	8.9	6.3	3.8	3.8	2.5	19.0
대학교 이상	(68)	30.9	32.4	26.5	27.9	11.8	20.6	13.2	4.4	5.9	1.5	2.9	1.5	14.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01)	30.7	24.8	29.7	20.8	11.9	12.9	10.9	8.9	5.0	4.0	4.0	2.0	15.8
비임금근로자	(49)	24.5	28.6	18.4	24.5	24.5	16.3	20.4	2.0	10.2	0.0	2.0	2.0	16.3
미취업자	(16)	31.3	18.8	12.5	37.5	6.3	12.5	12.5	6.3	0.0	6.3	0.0	0.0	12.5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26)	26.9	19.2	34.6	23.1	15.4	11.5	3.8	3.8	0.0	0.0	0.0	0.0	11.5
200-299만원	(48)	29.2	29.2	25.0	22.9	14.6	10.4	16.7	8.3	10.4	6.3	8.3	4.2	20.8
300-399만원	(39)	30.8	23.1	25.6	20.5	17.9	15.4	15.4	7.7	5.1	2.6	2.6	2.6	7.7
400만원 이상	(34)	29.4	26.5	20.6	23.5	17.6	17.6	17.6	5.9	5.9	0.0	0.0	0.0	23.5
미취업자 등	(19)	26.3	26.3	15.8	31.6	5.3	15.8	10.5	5.3	5.3	5.3	0.0	0.0	10.5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82)	29.3	29.3	23.2	24.4	13.4	13.4	11.0	9.8	2.4	3.7	2.4	1.2	15.9
중국	(19)	36.8	15.8	0.0	26.3	0.0	0.0	10.5	5.3	10.5	5.3	0.0	0.0	10.5
필리핀	(18)	22.2	22.2	33.3	5.6	16.7	11.1	11.1	0.0	5.6	0.0	0.0	0.0	16.7
캄보디아	(10)	10.0	20.0	20.0	60.0	20.0	10.0	10.0	0.0	0.0	0.0	0.0	0.0	10.0
우즈베키스탄	(18)	38.9	22.2	33.3	22.2	22.2	33.3	22.2	0.0	11.1	0.0	5.6	0.0	16.7
기타	(19)	26.3	26.3	42.1	15.8	26.3	15.8	26.3	10.5	15.8	5.3	10.5	10.5	21.1



[그림 3-11]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심층면접에서 중개업체로부터 전해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했다는 진술을 한 사례가 많았다. 남성들은 우선 배우자의 신상 정보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했다. 시기로 보면 결혼중개업법이 제정 또는 강화되기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거나, 등록 업체가 아닌 곳을 이용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A14>는 2006년에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으로 중국(한족) 여성과 결혼했으나 실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구두로만 간략히 들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서 요구하는 신상정보 기준으로 질문해 보니 아예 듣지 못했거나 거짓도 있었다. 예를 들면, 신체적 장애 여부는 전혀 듣지 못했으며, 학력은 거짓이었다고 한다. 또한 건강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입국해 보니 지병이 있었다. 더욱이 자신에 대한 정보도 여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나중에 부인에게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통역이 제대로 안 해준 것 같은 게 뭐냐면, 나더러, 내가, 개는 내가 집이 두 채인가 세 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대요. 아……, 나 집이 있는 것 맞잖아, 분양 받은 집이 있었고, 근데 또 있었다고 들었다는 거야, 아버지 집도 내 집으로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집이 있는데 내가 장남이니까 집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나한테 집이 두 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어찌고저찌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사례 #A14, 남, 57세, 2006년 결혼, 배우자 국적 중국(한족), 울산거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입국 후 확인하니 달랐다고 진술한 사례에서 남

성들이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에 대한 사실이 다른 경우들이다. 학력이나 건강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A13>은 결혼진행 과정에서 고아라고 들었던 가족관계가 허위였음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

결혼진행 과정에서 전해들은 배우자의 가족관계가 허위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소개 받을 때 고아라고 해서, 오히려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 하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오빠가 있어서 송금을 해야 한다고 가족이 자꾸 생겼다고 했다. 실제 이 여성이 가출을 하고 나니, 나는 고아로만 알고 있었기에 본국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연락할 길도 없었다[사례 #A13, 남, 47세, 2011년 결혼, 배우자 국적 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거주].

<사례 #A27>은 캄보디아에 가서 쌍둥이 여성 중 한 명과 결혼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여성의 나이가 바뀌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처음에는 26살이라고 했죠. 맞선 볼 사람이 쌍둥이고 나이는 26살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에 갔는데 갑자기 23살이 된 거예요. 맞선을 보는데 23살이라고 해요. 업체에게 물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통역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가했죠. 결혼식 마치고 여자가 2011년 1월에 들어왔어요. 그 언니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서류를 위조했다. 미성년자다 그러는 거예요. 종이를 주고 생일을 써보라 하니까, 언니는 1993년 2월이라 쓰고, 동생은 1993년 12월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애를 둘 낳은 거예요. 쌍둥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죠[사례 #A27, 남, 46세, 2010년 결혼, 배우자 국적 캄보디아, 이혼, 인천거주].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현지에서 맞선을 볼 여성을 소개하는 과정이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진술도 있었다. 맞선 장소에 모이는 여성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여성의 신상정보가 즉석에서 파악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쪽에서도 정보를 정확하게 받는 게 아닌 듯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대략적으로 이야기 하고 그날 어떤 집합 장소에 온 여자들을 상대로 맞선을 보는 것 같아요. 사전에 여자들의 정보를 받아서 맞선을 보는 게 아니고요. 현지 브로커들이 나름대로 연락하고 모집해서 맞선 장소로 모이고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조건인 듯 했어요. 소개받을 때는 나이랑 학력만 소개받고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학력, 나이, 가족관계,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실제 결혼하고 나서 알아보니 나이도 잘못되었고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어요. 가족관계도 달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평범한 가족이고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시고, 동생이 두 명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아봤더니, 아버지라는 사람은 결혼은 안 하고 동거하는 계부이고, 실제 2살인가 3살

인 아이도 있다고 해요. 사실과 많이 달랐어요[사례 #A08, 남, 45세, 2009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정읍 거주].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받은 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신상정보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하였다(표 3-16). 그 결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이 4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항의했다’(37.3%) 순이다. 기타를 제외하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4.8%)와 ‘관련기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고발했다’(9.6%)는 응답 비율은 현저히 낮다. 혼인중단 남성 10명 중 8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국제결혼 중개업체에만 항의하였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 상태인 경우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항의했다’라는 응답 비율이 42.0%로 가장 높으며, 가출 및 별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1.3%, 48.6%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항의했다’는 응답 비율은 낮다.

최종학력별로 신상정보 불일치 시 취한 조치사항은 학력이 낮을수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항의했다’는 응답 비율은 낮다.

월평균 임금별로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4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47.1%로 가장 높고, 200-299만원인 경우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항의했다’라는 응답비율이 45.8%로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을 제외하고 표본수가 20 미만인 소규모 표본이므로 해석을 하지 않기로 한다. 베트남 출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2.4%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아내의 신상 정보가 다른 것을 알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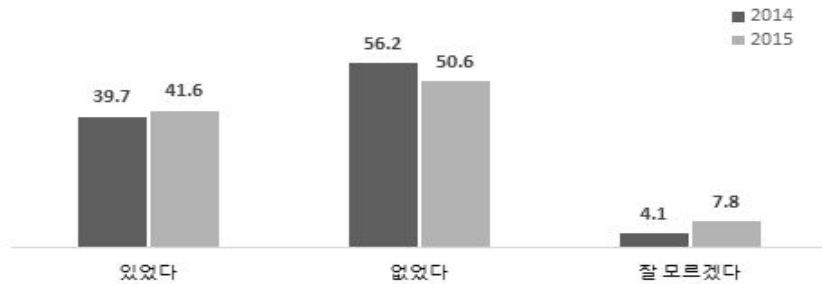
아내의 가족 상황이 제가 들었던 것과는 다른 걸 알았는데, 어찌됐어요. 결혼까지만 마당에 달라질 게 없으니까[사례 #A08, 남, 45세, 2009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정읍 거주].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불일치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로인해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표 3-17), ‘아니오’라는 응답 비율이 50.6%로 높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역시 ‘아니오’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나,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 혼인중단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가 다소 높다.

<표 3-16> 신상정보 불일치 시 취한 조치사항

(단위: 명, %)

	(N)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항의했다	관련기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고발했다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	기타	계
▣ 전체 ▣	(166)	45.2	37.3	9.6	4.8	3.0	100.0
혼인상태							
이혼	(100)	39.0	42.0	11.0	4.0	4.0	100.0
별거	(35)	48.6	34.3	8.6	5.7	2.9	100.0
가출	(31)	61.3	25.8	6.5	6.5	0.0	100.0
연령							
39세 이하	(31)	54.8	32.3	9.7	3.2	0.0	100.0
40-49세	(93)	43.0	37.6	9.7	6.5	3.2	100.0
50세 이상	(42)	42.9	40.5	9.5	2.4	4.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19)	68.4	21.1	5.3	0.0	5.3	100.0
고등학교	(79)	50.6	31.6	11.4	5.1	1.3	100.0
대학교 이상	(68)	32.4	48.5	8.8	5.9	4.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01)	44.6	41.6	7.9	3.0	3.0	100.0
비임금근로자	(49)	46.9	30.6	10.2	8.2	4.1	100.0
미취업자	(16)	43.8	31.3	18.8	6.3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26)	42.3	38.5	7.7	3.8	7.7	100.0
200-299만원	(48)	41.7	45.8	8.3	4.2	0.0	100.0
300-399만원	(39)	46.2	33.3	7.7	10.3	2.6	100.0
400만원 이상	(34)	47.1	35.3	11.8	0.0	5.9	100.0
미취업자 등	(19)	52.6	26.3	15.8	5.3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82)	52.4	30.5	8.5	4.9	3.7	100.0
중국	(19)	21.1	57.9	10.5	5.3	5.3	100.0
필리핀	(18)	38.9	44.4	11.1	5.6	0.0	100.0
캄보디아	(10)	90.0	10.0	0.0	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18)	44.4	33.3	16.7	5.6	0.0	100.0
기타	(19)	21.1	57.9	10.5	5.3	5.3	100.0



[그림 3-12]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2014-2015년

<표 3-17>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2014-2015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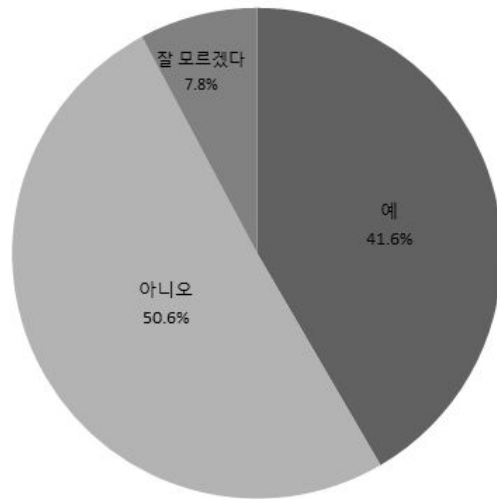
	(N)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계
2015	(166)	41.6	50.6	7.8	100.0
2014	(135)	39.7	56.2	4.1	100.0

<표 3-18>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단위: 명, %)

	(N)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66)	41.6	50.6	7.8	100.0
혼인상태					
이혼	(100)	46.0	46.0	8.0	100.0
별거	(35)	48.6	48.6	2.9	100.0
가출	(31)	19.4	67.7	12.9	100.0
연령					
39세 이하	(31)	32.3	54.8	12.9	100.0
40-49세	(93)	37.6	55.9	6.5	100.0
50세 이상	(42)	57.1	35.7	7.1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19)	42.1	52.6	5.3	100.0
고등학교	(79)	45.6	48.1	6.3	100.0
대학교 이상	(68)	36.8	52.9	10.3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01)	39.6	51.5	8.9	100.0
비임금근로자	(49)	42.9	51.0	6.1	100.0
미취업자	(16)	50.0	43.8	6.3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26)	42.3	46.2	11.5	100.0
200-299만원	(48)	47.9	45.8	6.3	100.0
300-399만원	(39)	28.2	61.5	10.3	100.0
400만원 이상	(34)	44.1	50.0	5.9	100.0
미취업자 등	(19)	47.4	47.4	5.3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82)	39.0	54.9	6.1	100.0
중국	(19)	57.9	31.6	10.5	100.0
필리핀	(18)	55.6	27.8	16.7	100.0
캄보디아	(10)	10.0	80.0	10.0	100.0
우즈베키스탄	(18)	50.0	38.9	11.1	100.0
기타	(19)	31.6	68.4	0.0	100.0

<표 3-18>에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이혼 및 별거에서 각각 46.0%, 48.6%로 가출(19.4%)보다 상당히 높다.



[그림 3-13]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연령별로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최종학력별로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고졸인 경우 45.6%로 가장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비임금근로자가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42.9%로 높고, 월평균 임금별로는 모두 40% 이상인데 300-399만원인 경우만 28.2%로 낮다.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한 갈등 발생에 대해 심층면접에 응한 면접자들은 혼인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다 보니, 애초에 배우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데서 이유를 찾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 한국에 와서 가사를 소홀히 하고, 본국에 송금을 해야 해서 일하러 가출했다는 식의 설명인 것이다.

<표 3-19>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2014-2015년

(단위: 명, %)

	(N)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범죄경력증명	직업증명	소득관련증명서	재산관계증명	병적증명서	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면허증	기타	모름·무응답
2015	(415)	93.3	88.9	88.4	71.6	77.8	77.1	66.5	62.4	47.0	24.6	3.9	1.4
2014	(800)	95.6	94.1	90.4	88.9	88.1	83.0	78.1	56.3	33.2	19.6	2.9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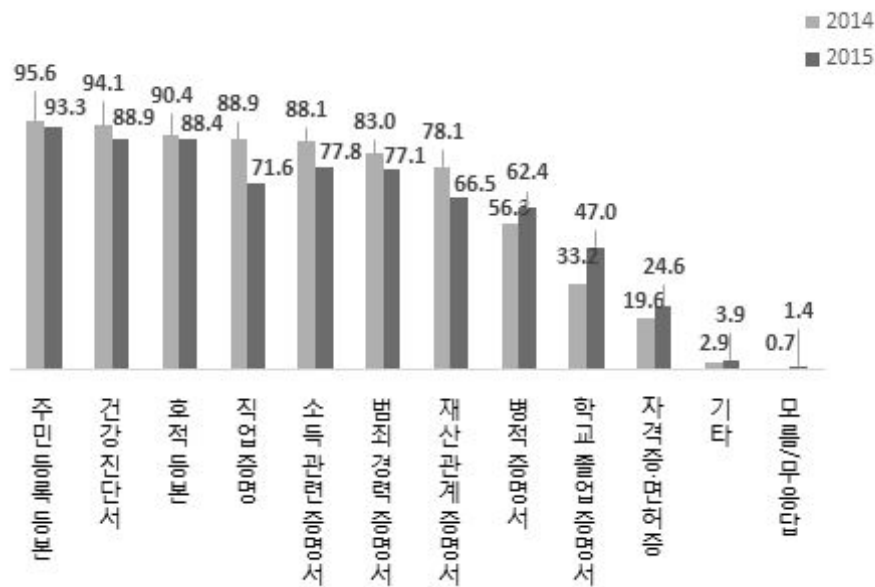


그림 3-14)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2014-2015년

<표 3-19>와 [그림 3-14]에서 혼인중단 남성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회원 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등본’이라는 응답 비율이 93.3%로 가장 높고, ‘건강진단서’(88.9%), ‘호적등본관계’(88.4%), ‘직업증명’(77.8%) ‘소득관련증명서’(77.1%), ‘범죄경력증명서’(71.6%) 등의 순으로 높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기타를 제외하고 ‘병적증명서’와 ‘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면허증’ 항목만 본 조사 결과가 더 높다. 혼인상태, 연령, 최종학력, 종사상 지위 등 세부 특성별 차이는 없으며, 제출서류별로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가출(97.9%) 상태,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95.3%),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94.4%), 월평균 임금은 300-399만원(95.3%)인 경우 높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가출(93.8%) 상태,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93.0%),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91.5%),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91.5%)인 경우 높다.

‘호적등본’, ‘직업증명’, ‘소득관련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호적등본’을 제외하고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표 3-20> 국제결혼 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단위: 명, %)

	(N)	주민 등록 등본	간강 잔서	호적 등본	직업 증명	소득 관련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재산 관계 증명서	병적 증명서	학교 졸업 증명서	자종 면허	기타	모름 무응 답
▣ 전체 ▣	(415)	93.3	88.9	88.4	77.8	77.1	71.6	66.5	62.4	47.0	24.6	3.9	1.4
혼인상태													
이혼	(233)	91.8	87.6	86.3	78.5	76.8	66.5	66.1	60.9	46.4	24.5	4.3	1.3
별거	(86)	91.9	87.2	87.2	76.7	82.6	73.3	68.6	62.8	44.2	27.9	5.8	2.3
가출	(96)	97.9	93.8	94.8	77.1	72.9	82.3	65.6	65.6	51.0	21.9	1.0	1.0
연령													
39세 이하	(79)	96.2	92.4	89.9	89.9	87.3	78.5	74.7	60.8	46.8	24.1	1.3	0.0
40-49세	(240)	92.9	89.6	88.3	76.7	75.0	70.8	63.8	64.6	47.5	25.8	3.8	2.1
50세 이상	(96)	91.7	84.4	87.5	70.8	74.0	67.7	66.7	58.3	45.8	21.9	6.3	1.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95.3	93.0	93.0	69.8	67.4	69.8	65.1	60.5	48.8	23.3	4.7	0.0
고등학교	(223)	91.9	86.5	87.0	76.2	78.0	68.2	65.9	61.0	44.8	27.4	3.1	2.7
대학교 이상	(149)	94.6	91.3	89.3	82.6	78.5	77.2	67.8	65.1	49.7	20.8	4.7	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94.2	91.5	90.4	82.7	80.0	74.6	67.3	63.5	48.5	26.9	3.1	1.2
비임금근로자	(119)	90.8	83.2	84.9	68.1	69.7	66.4	64.7	59.7	42.9	19.3	5.9	1.7
미취업자	(36)	94.4	88.9	86.1	75.0	80.6	66.7	66.7	63.9	50.0	25.0	2.8	2.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89.3	89.3	82.7	73.3	72.0	69.3	57.3	66.7	42.7	24.0	2.7	1.3
200-299만원	(148)	93.9	87.2	87.8	73.0	74.3	73.0	60.1	57.4	48.0	22.3	4.1	1.4
300-399만원	(85)	95.3	90.6	95.3	88.2	87.1	77.6	85.9	67.1	51.8	30.6	3.5	2.4
400만원 이상	(59)	93.2	91.5	88.1	83.1	74.6	66.1	64.4	59.3	45.8	27.1	6.8	0.0
미취업자 등	(48)	93.8	87.5	87.5	75.0	79.2	66.7	68.8	66.7	43.8	18.8	2.1	2.1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94.9	89.8	88.6	78.8	76.5	69.8	67.1	62.4	47.8	24.7	2.7	1.2
중국	(45)	84.4	75.6	80.0	66.7	68.9	62.2	57.8	55.6	53.3	37.8	15.6	2.2
필리핀	(34)	85.3	88.2	82.4	73.5	76.5	85.3	73.5	67.6	29.4	17.6	2.9	5.9
캄보디아	(20)	100.0	90.0	100.0	80.0	90.0	85.0	60.0	55.0	45.0	10.0	5.0	0.0
우즈베키스탄	(27)	96.3	96.3	96.3	81.5	77.8	70.4	66.7	66.7	44.4	33.3	0.0	0.0
기타	(34)	94.1	94.1	91.2	85.3	85.3	76.5	70.6	67.6	52.9	14.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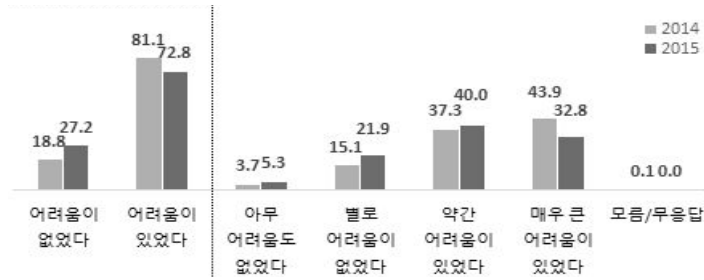
<표 3-21>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①+②	③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④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평균(점)
2015	(415)	5.3	21.9	27.2	40.0	32.8	72.8	0.0	100.0	3.0
2014	(800)	3.7	15.1	18.8	37.3	43.9	81.1	0.1	100.0	4.2

<표 3-21>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

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72.8%로 높다.



[그림 3-15]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2014-2015년

<표 3-22>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N)	①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①+②	③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④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③+④	계	평균 (점)
■ 전체 ■	(415)	5.3	21.9	27.2	40.0	32.8	72.8	100.0	3.0
혼인상태									
이혼	(233)	6.9	22.7	29.6	38.2	32.2	70.4	100.0	3.0
별거	(86)	5.8	24.4	30.2	34.9	34.9	69.8	100.0	3.0
가출	(96)	1.0	17.7	18.8	49.0	32.3	81.3	100.0	3.1
연령									
39세 이하	(79)	3.8	22.8	26.6	35.4	38.0	73.4	100.0	3.1
40-49세	(240)	5.4	22.9	28.3	41.7	30.0	71.7	100.0	3.0
50세 이상	(96)	6.3	18.8	25.0	39.6	35.4	75.0	100.0	3.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7.0	18.6	25.6	39.5	34.9	74.4	100.0	3.0
고등학교	(223)	5.4	19.3	24.7	43.9	31.4	75.3	100.0	3.0
대학교 이상	(149)	4.7	26.8	31.5	34.2	34.2	68.5	100.0	3.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5	23.8	27.3	41.2	31.5	72.7	100.0	3.0
비임금근로자	(119)	8.4	20.2	28.6	35.3	36.1	71.4	100.0	3.0
미취업자	(36)	8.3	13.9	22.2	47.2	30.6	77.8	100.0	3.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6.7	22.7	29.3	41.3	29.3	70.7	100.0	2.9
200-299만원	(148)	4.7	22.3	27.0	45.9	27.0	73.0	100.0	3.0
300-399만원	(85)	3.5	25.9	29.4	32.9	37.6	70.6	100.0	3.0
400만원 이상	(59)	6.8	22.0	28.8	28.8	42.4	71.2	100.0	3.1
미취업자 등	(48)	6.3	12.5	18.8	45.8	35.4	81.3	100.0	3.1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1	22.0	25.1	42.4	32.5	74.9	100.0	3.0
중국	(45)	13.3	24.4	37.8	31.1	31.1	62.2	100.0	2.8
필리핀	(34)	2.9	17.6	20.6	41.2	38.2	79.4	100.0	3.1
캄보디아	(20)	0.0	25.0	25.0	45.0	30.0	75.0	100.0	3.1
우즈베키스탄	(27)	3.7	18.5	22.2	44.4	33.3	77.8	100.0	3.1
기타	(34)	17.6	23.5	41.2	26.5	32.4	58.8	100.0	2.7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4년 조사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매우 어려움)’는 응답 비율이 81.1%였는데, 2015년 조사에서는 72.8%로 약간 낮아 졌다.

<표 3-22>에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 상태인 경우 81.3%로 이혼 및 별거(각각 70.4%, 69.8%)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75.0%로 가장 높고,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및 고졸이 각각 74.4%, 75.3%로 대졸 이상(68.5%)보다 높다.

중사상 지위와 월평균 임금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가 각각 77.8%, 81.3%로 가장 높으며,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 출신이 79.4%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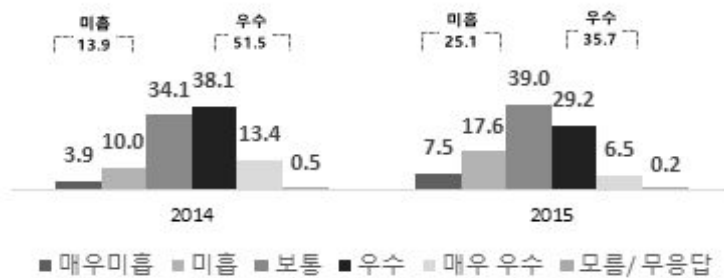
<표 3-23>에서 혼인중단 남성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을 조사한 결과, ‘우수(우수+매우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35.7%로 ‘미흡(매우미흡+미흡)’(25.1%)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우수하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고,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 3-23>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①+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④+⑤	모름· 무응답	계
2015	(415)	7.5	17.6	25.1	39.0	29.2	6.5	35.7	0.2	100.0
2014	(800)	3.9	10.0	13.9	34.1	38.1	13.4	51.5	0.5	100.0



[그림 3-16]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2014-2015년

<표 3-24> 국제결혼 중개업체 통역인 실력

(단위: 명, %)

	(N)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①+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415)	7.5	17.6	25.1	39.0	29.2	6.5	35.7	0.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9.0	17.2	26.2	38.6	27.5	7.7	35.2	0.0	100.0
별거	(86)	3.5	20.9	24.4	45.3	23.3	7.0	30.2	0.0	100.0
가출	(96)	7.3	15.6	22.9	34.4	38.5	3.1	41.7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6.3	24.1	30.4	32.9	31.6	5.1	36.7	0.0	100.0
40-49세	(240)	8.8	15.8	24.6	40.8	28.8	5.4	34.2	0.4	100.0
50세 이상	(96)	5.2	16.7	21.9	39.6	28.1	10.4	38.5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7.0	14.0	20.9	44.2	27.9	7.0	34.9	0.0	100.0
고등학교	(223)	6.7	17.9	24.7	36.8	30.9	7.2	38.1	0.4	100.0
대학교 이상	(149)	8.7	18.1	26.8	40.9	26.8	5.4	32.2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2	20.8	26.9	38.5	29.2	5.0	34.2	0.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0.1	11.8	21.8	37.0	31.1	10.1	41.2	0.0	100.0
미취업자	(36)	8.3	13.9	22.2	50.0	22.2	5.6	27.8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5.3	14.7	20.0	41.3	34.7	4.0	38.7	0.0	100.0
200-299만원	(148)	5.4	23.0	28.4	33.8	31.1	6.1	37.2	0.7	100.0
300-399만원	(85)	10.6	11.8	22.4	44.7	23.5	9.4	32.9	0.0	100.0
400만원 이상	(59)	11.9	20.3	32.2	37.3	23.7	6.8	30.5	0.0	100.0
미취업자 등	(48)	6.3	12.5	18.8	43.8	31.3	6.3	37.5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5.5	18.4	23.9	37.6	32.5	5.5	38.0	0.4	100.0
중국	(45)	13.3	11.1	24.4	37.8	26.7	11.1	37.8	0.0	100.0
필리핀	(34)	11.8	23.5	35.3	47.1	14.7	2.9	17.6	0.0	100.0
캄보디아	(20)	20.0	20.0	40.0	35.0	25.0	0.0	2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0.0	18.5	18.5	48.1	18.5	14.8	33.3	0.0	100.0
기타	(34)	8.8	11.8	20.6	38.2	32.4	8.8	41.2	0.0	100.0

<표 3-24>에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통역인 실력이 우수했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 상태인 경우 41.7%로 이혼 및 별거(각각 35.2%, 30.2%)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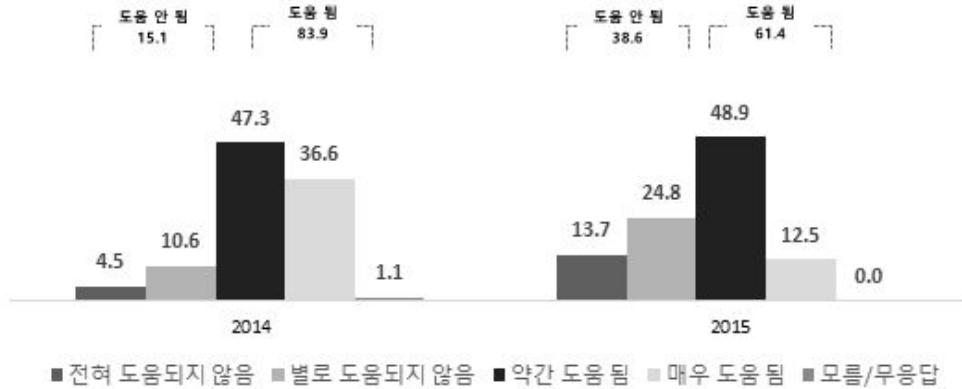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일한 통역인의 실력이 우수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50세 이상(38.5%), 최종학력별로는 고졸(38.1%),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41.2%),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38.7%),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베트남(38.0%)인 경우 가장 높다.

심층면접에서 응답자들은 통역의 실력을 평가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생각해 보니 통역이 잘 안 해준 것 같다고 추정하는 식이다. 중매가 진행되는 한 응답자들은 통역이 실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듯 했다.

<표 3-25>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①+②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2015	(415)	13.7	24.8	38.6	48.9	12.5	61.4	0.0	100.0
2014	(800)	4.5	10.6	15.1	47.3	36.6	83.9	1.1	100.0



[그림 3-17]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2014-2015년

<표 3-25>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되었다+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61.4%로 높다. 그러나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통역인 실력에 대한 응답 결과와 동일한 결과다.

<표 3-26>에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통역·번역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 상태인 경우 63.5%로 가장 높으며, 이혼(61.8%), 별거(58.1%)의 순이다.

연령은 낮을수록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최종학력별로는 고졸이 65.9%로 가장 높으며, 중졸 이하(60.5%), 대졸 이상(55.0%)의 순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가 63.9%로 가장 높고 임금근로자(60.4%)가 가장 낮으며,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월평균 임금이 적을수록 높다.

<표 3-26>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N)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①+②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③+④	계
▣ 전체 ▣	(415)	13.7	24.8	38.6	48.9	12.5	61.4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3.3	24.9	38.2	48.5	13.3	61.8	100.0
별거	(86)	10.5	31.4	41.9	45.3	12.8	58.1	100.0
가출	(96)	17.7	18.8	36.5	53.1	10.4	63.5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6.5	24.1	40.5	43.0	16.5	59.5	100.0
40-49세	(240)	14.6	23.8	38.3	51.7	10.0	61.7	100.0
50세 이상	(96)	9.4	28.1	37.5	46.9	15.6	62.5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6.3	23.3	39.5	46.5	14.0	60.5	100.0
고등학교	(223)	11.7	22.4	34.1	53.4	12.6	65.9	100.0
대학교 이상	(149)	16.1	28.9	45.0	43.0	12.1	55.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1.9	27.7	39.6	51.2	9.2	60.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7.6	19.3	37.0	47.9	15.1	63.0	100.0
미취업자	(36)	13.9	22.2	36.1	36.1	27.8	63.9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0.7	25.3	36.0	53.3	10.7	64.0	100.0
200-299만원	(148)	10.8	26.4	37.2	50.7	12.2	62.8	100.0
300-399만원	(85)	17.6	22.4	40.0	49.4	10.6	60.0	100.0
400만원 이상	(59)	20.3	28.8	49.2	40.7	10.2	50.8	100.0
미취업자 등	(48)	12.5	18.8	31.3	45.8	22.9	68.8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0.6	25.1	35.7	51.0	13.3	64.3	100.0
중국	(45)	15.6	20.0	35.6	51.1	13.3	64.4	100.0
필리핀	(34)	20.6	35.3	55.9	35.3	8.8	44.1	100.0
캄보디아	(20)	15.0	25.0	40.0	55.0	5.0	6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2.2	18.5	40.7	37.0	22.2	59.3	100.0
기타	(34)	20.6	23.5	44.1	50.0	5.9	5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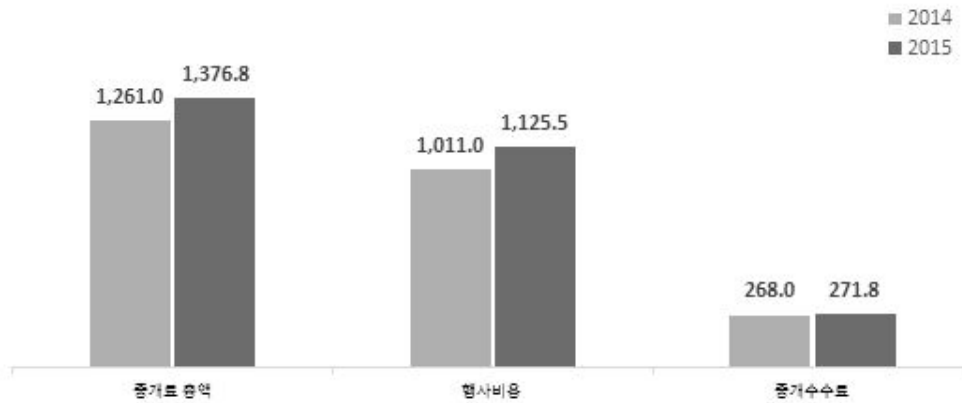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 중국 및 베트남 출신이 각각 64.4%, 64.3%로 가장 높다.

<표 3-27>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 '중개료 총액'은 평균 13,768,000원이고, 이 중 '행사비용'은 평균 11,255,000원, '중개수수료'는 평균 2,718,000원이다. 행사비용 및 수수료에 무응답 한 경우가 있어 2항목의 합이 총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비교하며, 행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모두 혼인중단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출신국 현지 중개인 또는 현지 중개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평균금액, 2014-2015년

(단위: 만원)

	(N)	중개료 총액	행사비용	중개수수료
2015	(415)	1,376.8	1,125.5	271.8
2014	(800)	1,261	1,011	268



[그림 3-18] 출신국 현지 중개인 또는 현지 중개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평균금액, 2014-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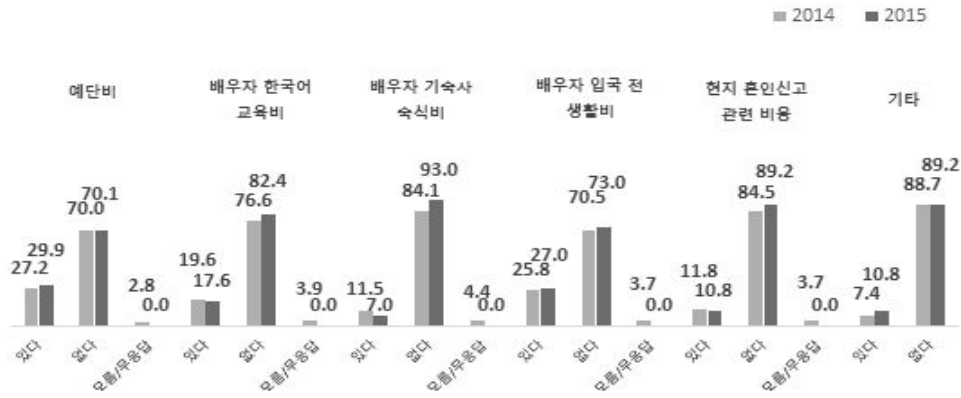
혼인상태별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중개료 총액은 이혼 상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8). 이혼 상태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가장 많이 내기로 했으나 행사비용이 감소한 결과다. 연령별로 중개료 총액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별로 중개료 총액은 학력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별 중개료 총액은 미취업자가 각각 평균 14,310,000원과 14,634,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중개료 총액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18,252,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중국 출신이 11,305,00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다. ‘예단비’를 지불했다는 응답 비율이 29.9%로 가장 높으며, 평균 금액은 80.4만원이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27.0%, 74.4만원),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17.6%, 19.2만원) 등의 순이다.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라는 응답비율은 7.0%로 가장 낮으며, 평균 금액은 6.6만원이었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각 항목별 추가비용 지출이 ‘있다’는 응답 비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기타를 제외하고 ‘예단비’와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 항목에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과 평균 지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28>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단위: 만원)

	(N)	중개료 총액	행사비용	중개수수료
■ 전체 ■ (415)		1376.8	1125.5	271.8
혼인상태				
이혼	(233)	1363.3	1091.7	312.7
별거	(86)	1396.3	1134.5	234.0
가출	(96)	1391.3	1210.9	187.6
연령				
39세 이하	(79)	1458.1	1201.0	260.3
40-49세	(240)	1394.2	1161.5	253.0
50세 이상	(96)	1268.1	989.4	319.7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276.3	912.3	318.9
고등학교	(223)	1367.9	1135.7	284.1
대학교 이상	(149)	1419.1	1175.4	239.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391.6	1167.3	240.0
비임금근로자	(119)	1327.0	1077.7	296.3
미취업자	(36)	1431.0	1005.2	394.6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312.4	950.0	325.6
200-299만원	(148)	1331.2	1107.7	277.5
300-399만원	(85)	1452.0	1356.2	122.5
400만원 이상	(59)	1395.5	1157.0	264.2
미취업자 등	(48)	1463.4	1007.3	416.7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345.8	1110.5	288.6
중국	(45)	1130.5	776.0	272.8
필리핀	(34)	1349.7	1235.7	205.9
캄보디아	(20)	1478.9	1266.7	150.0
우즈베키스탄	(27)	1825.2	1333.3	308.3
기타	(34)	1514.5	1318.2	258.1



[그림 3-19] 추가 비용 지출 여부, 2014-2015년

<표 3-29> 추가 비용 지출 여부,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계	평균(만원)
예단비						
2015	(415)	29.9	70.1	0.0	100.0	80.4
2014	(800)	27.2	70.0	2.8	100.0	35.8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						
2015	(415)	17.6	82.4	0.0	100.0	19.2
2014	(800)	19.6	76.6	3.9	100.0	11.7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2015	(415)	7.0	93.0	0.0	100.0	6.6
2014	(800)	11.5	84.1	4.4	100.0	6.1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						
2015	(415)	27.0	73.0	0.0	100.0	74.7
2014	(800)	25.8	70.5	3.7	100.0	30.9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2015	(415)	10.8	89.2	0.0	100.0	17.2
2014	(800)	11.8	84.5	3.7	100.0	13.3
기타						
2015	(415)	10.8	89.2	0.0	100.0	33.9
2014	(800)	7.4	88.7	3.9	100.0	11.9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9.9%였으며, '없다'는 70.1%로 나타났다(표 3-30). '있다'는 응답자가 지출한 금액은 평균 804,000원이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 상태인 경우 36.5%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은 별거 상태인 경우가 가장 많고, 평균 1,104,000원이다. 연령별로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0-49세가 32.9%로 가장 높고, 39세 이하(29.1%), 50세 이상(22.9%) 순이며, 지출한 금액은 39세 이하가 평균 1,05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별로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도 학력이 높을수록 많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별로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00-399만원인 경우 40.0%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 역시 300-399만원인 경우 평균 1,040,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이 48.1%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 역시 우즈베키스탄이 평균 1,32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3-30> 추가 비용 지출 여부: 예단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415)	29.9	70.1	100.0	80.4
혼인상태					
이혼	(233)	29.2	70.8	100.0	63.7
별거	(86)	24.4	75.6	100.0	110.4
가출	(96)	36.5	63.5	100.0	95.9
연령					
39세 이하	(79)	29.1	70.9	100.0	105.2
40-49세	(240)	32.9	67.1	100.0	91.4
50세 이상	(96)	22.9	77.1	100.0	34.4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7.9	72.1	100.0	41.0
고등학교	(223)	28.7	71.3	100.0	83.5
대학교 이상	(149)	32.2	67.8	100.0	88.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1.2	68.8	100.0	77.0
비임금근로자	(119)	26.9	73.1	100.0	92.2
미취업자	(36)	30.6	69.4	100.0	7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6.7	73.3	100.0	94.9
200-299만원	(148)	27.0	73.0	100.0	59.0
300-399만원	(85)	40.0	60.0	100.0	104.0
400만원 이상	(59)	32.2	67.8	100.0	101.3
미취업자 등	(48)	22.9	77.1	100.0	57.8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0.2	69.8	100.0	67.6
중국	(45)	17.8	82.2	100.0	95.9
필리핀	(34)	35.3	64.7	100.0	111.6
캄보디아	(20)	10.0	90.0	100.0	15.0
우즈베키스탄	(27)	48.1	51.9	100.0	132.7
기타	(34)	35.3	64.7	100.0	127.2

<표 3-31>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7.6%였으며, ‘있다’는 응답자가 지출한 금액은 평균 191,000원이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 상태인 경우 25.0%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 역시 가출 상태가 평균 32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도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임금근로자가 20.8%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도 임금근로자가 평균 22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임금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지출한 금액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베트남 출신이 19.6%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은 필리핀 출신이 평균 27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3-31>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415)	17.6	82.4	100.0	19.2
혼인상태					
이혼	(233)	15.9	84.1	100.0	15.2
별거	(86)	14.0	86.0	100.0	14.6
가출	(96)	25.0	75.0	100.0	32.2
연령					
39세 이하	(79)	19.0	81.0	100.0	28.2
40-49세	(240)	18.3	81.7	100.0	19.7
50세 이상	(96)	14.6	85.4	100.0	11.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7.0	93.0	100.0	10.5
고등학교	(223)	18.4	81.6	100.0	18.4
대학교 이상	(149)	19.5	80.5	100.0	23.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0.8	79.2	100.0	22.2
비임금근로자	(119)	13.4	86.6	100.0	14.8
미취업자	(36)	8.3	91.7	100.0	11.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3.3	86.7	100.0	13.4
200-299만원	(148)	16.2	83.8	100.0	20.1
300-399만원	(85)	24.7	75.3	100.0	21.8
400만원 이상	(59)	25.4	74.6	100.0	28.2
미취업자 등	(48)	6.3	93.8	100.0	9.8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9.6	80.4	100.0	21.6
중국	(45)	13.3	86.7	100.0	15.9
필리핀	(34)	14.7	85.3	100.0	27.4
캄보디아	(20)	10.0	90.0	100.0	8.4
우즈베키스탄	(27)	14.8	85.2	100.0	11.8
기타	(34)	17.6	82.4	100.0	10.7

<표 3-32>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0%로 상당히 낮다. 또한 '있다'는 응답자가 지출한 금액은 평균 66,000원이다.

월평균 임금별로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월평균 임금이 많을수록 높으며, 지출금액은 300-399만원인 경우 평균 11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필리핀 출신이 11.8%로 가장 높으며, 기타 출신을 제외하고 지출한 금액 역시 필리핀 출신이 평균 8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3-32>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415)	7.0	93.0	100.0	6.6
혼인상태					
이혼	(233)	6.4	93.6	100.0	6.4
별거	(86)	5.8	94.2	100.0	4.3
가출	(96)	9.4	90.6	100.0	8.8
연령					
39세 이하	(79)	6.3	93.7	100.0	11.6
40-49세	(240)	7.1	92.9	100.0	5.7
50세 이상	(96)	7.3	92.7	100.0	4.8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0.0	100.0	100.0	0.0
고등학교	(223)	8.1	91.9	100.0	7.4
대학교 이상	(149)	7.4	92.6	100.0	7.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7.7	92.3	100.0	5.8
비임금근로자	(119)	5.0	95.0	100.0	9.5
미취업자	(36)	8.3	91.7	100.0	3.5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0	96.0	100.0	3.0
200-299만원	(148)	6.8	93.2	100.0	5.7
300-399만원	(85)	7.1	92.9	100.0	11.1
400만원 이상	(59)	11.9	88.1	100.0	9.5
미취업자 등	(48)	6.3	93.8	100.0	2.9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7.5	92.5	100.0	6.1
중국	(45)	2.2	97.8	100.0	0.9
필리핀	(34)	11.8	88.2	100.0	8.9
캄보디아	(20)	5.0	95.0	100.0	2.4
우즈베키스탄	(27)	0.0	100.0	100.0	0.0
기타	(34)	11.8	88.2	100.0	23.1

<표 3-33>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

		(단위: 명, %)			
▣ 전체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415)	27.0	73.0	100.0	74.7
혼인상태					
이혼	(233)	29.2	70.8	100.0	70.3
별거	(86)	19.8	80.2	100.0	43.3
가출	(96)	28.1	71.9	100.0	110.4
연령					
39세 이하	(79)	34.2	65.8	100.0	64.5
40-49세	(240)	25.8	74.2	100.0	89.0
50세 이상	(96)	24.0	76.0	100.0	48.3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1.6	88.4	100.0	38.8
고등학교	(223)	28.7	71.3	100.0	78.8
대학교 이상	(149)	28.9	71.1	100.0	80.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1.2	68.8	100.0	64.4
비임금근로자	(119)	21.8	78.2	100.0	107.5
미취업자	(36)	13.9	86.1	100.0	51.5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5.3	74.7	100.0	46.8
200-299만원	(148)	30.4	69.6	100.0	68.8
300-399만원	(85)	32.9	67.1	100.0	108.2
400만원 이상	(59)	25.4	74.6	100.0	101.3
미취업자 등	(48)	10.4	89.6	100.0	42.5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6.3	73.7	100.0	73.6
중국	(45)	20.0	80.0	100.0	47.2
필리핀	(34)	41.2	58.8	100.0	63.3
캄보디아	(20)	30.0	70.0	100.0	36.1
우즈베키스탄	(27)	18.5	81.5	100.0	50.5
기타	(34)	32.4	67.6	100.0	172.4

<표 3-3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7.0%였으며, '없다'는 73.0%로 나타났다. '있다'는 응답자가 지출한 금액의 평균은 747,000원이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이혼 및 가출이 각각 29.2%, 28.1%로 별거(19.8%)보다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은 가출이 1,10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은 40-49세가 890,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3-34> 추가 비용 지출 여부: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N)	있다	없다	계	(단위: 명, %) 평균(만원)
■ 전체 ■		(415)	10.8	89.2	100.0	17.2
혼인상태						
	이혼	(233)	11.6	88.4	100.0	20.8
	별거	(86)	10.5	89.5	100.0	10.7
	가출	(96)	9.4	90.6	100.0	13.8
연령						
	39세 이하	(79)	15.2	84.8	100.0	23.6
	40-49세	(240)	9.6	90.4	100.0	17.0
	50세 이상	(96)	10.4	89.6	100.0	12.7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7.0	93.0	100.0	4.1
	고등학교	(223)	12.6	87.4	100.0	21.0
	대학교 이상	(149)	9.4	90.6	100.0	15.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1.9	88.1	100.0	19.5
	비임금근로자	(119)	9.2	90.8	100.0	12.1
	미취업자	(36)	8.3	91.7	100.0	15.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6.7	93.3	100.0	3.4
	200-299만원	(148)	14.2	85.8	100.0	26.8
	300-399만원	(85)	9.4	90.6	100.0	11.1
	400만원 이상	(59)	13.6	86.4	100.0	22.1
	미취업자 등	(48)	6.3	93.8	100.0	13.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9.8	90.2	100.0	18.1
	중국	(45)	6.7	93.3	100.0	8.2
	필리핀	(34)	20.6	79.4	100.0	28.1
	캄보디아	(20)	10.0	90.0	100.0	7.5
	우즈베키스탄	(27)	11.1	88.9	100.0	2.9
	기타	(34)	14.7	85.3	100.0	28.3

최종학력별로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도 학력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임금근로자가 31.2%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은 비임금근로자가 1,07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임금별로 300-399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2.9%로 가장 높고, 지출한 금액 역시 평균 1,082,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필리핀이 41.2%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은 기타 출신국을 제외하고 베트남 출신이 73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3-35> 추가 비용 지출 여부: 기타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415)	10.8	89.2	100.0	33.9
혼인상태					
이혼	(233)	9.9	90.1	100.0	29.4
별거	(86)	11.6	88.4	100.0	58.5
가출	(96)	12.5	87.5	100.0	25.1
연령					
39세 이하	(79)	13.9	86.1	100.0	48.3
40-49세	(240)	10.4	89.6	100.0	30.8
50세 이상	(96)	9.4	90.6	100.0	30.2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9.3	90.7	100.0	54.8
고등학교	(223)	9.4	90.6	100.0	18.6
대학교 이상	(149)	13.4	86.6	100.0	49.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1.5	88.5	100.0	22.4
비임금근로자	(119)	9.2	90.8	100.0	32.8
미취업자	(36)	11.1	88.9	100.0	115.5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8.0	92.0	100.0	20.7
200-299만원	(148)	14.9	85.1	100.0	40.9
300-399만원	(85)	10.6	89.4	100.0	15.7
400만원 이상	(59)	6.8	93.2	100.0	8.9
미취업자 등	(48)	8.3	91.7	100.0	95.3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2.5	87.5	100.0	30.1
중국	(45)	8.9	91.1	100.0	23.8
필리핀	(34)	8.8	91.2	100.0	78.5
캄보디아	(20)	20.0	80.0	100.0	13.1
우즈베키스탄	(27)	7.4	92.6	100.0	100.0
기타	(34)	0.0	100.0	100.0	0.0

<표 3-34>에 제시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0.8%로 낮다. '있다'는 응답자가 지출한 금액은 평균 172,000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9세 이하가 15.2%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 역시 39세 이하가 평균 23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별로는 고졸인 경우 '있다'는 응답 비율이 12.6%로 가장 높고 지출 금액 역시 평균 210,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11.9%로 가장 높으며, 지출 금액 역시 평균 19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200-299만원인 경우 '있다'

는 응답 비율이 14.2%로 가장 높으며, 지출 금액 역시 평균 26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필리핀이 20.6%로 가장 높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지출한 금액 역시 필리핀이 평균 28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3-35>에 제시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0.8%로 낮으며, '있다'는 응답자가 지출한 금액은 평균 339,000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도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지출한 금액은 중졸 이하가 평균 548,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별로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0-299만원인 경우 14.9%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은 미취업자 등에서 953,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필리핀 출신이 20.0%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 평균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1,000,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3-36>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단위: 명, %)

내가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아니오. 그렇지 않다	예, 그렇다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
1.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28.2	35.7	36.1
2.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37.6	32.3	30.1
3. 한국에 와서 친정에 송금하는 것만 원하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다.	43.1	30.4	26.0
4. 당시 배우자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 필요성, 건강 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41.0	27.0	32.0
5. 당시 배우자의 인성(생활력, 근면성, 배려심, 음주 습관, 폭력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37.1	36.1	26.7
6.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 배우자의 출신국에서 어떤 의미, 수준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지 않았다.	41.9	29.9	28.2

<표 3-36>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서비스의 불만사항에 대해 5가지 항목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항목이 71.8%로 가장 높으며, ‘당시 배우자의 인성(생활력, 근면성, 배려심, 음주 습관, 폭력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62.9%),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62.4%) 등의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서비스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항목이 36.1%로 가장 높으며, ‘당시 배우자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 필요성, 건강 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32.0%) 순이다.

<표 3-37>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 소개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계
■ 전체 ■	(415)	28.2	35.7	36.1	71.8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8.8	32.6	38.6	71.2	100.0
별거	(86)	34.9	27.9	37.2	65.1	100.0
가출	(96)	20.8	50.0	29.2	79.2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6.6	35.4	38.0	73.4	100.0
40-49세	(240)	25.4	37.9	36.7	74.6	100.0
50세 이상	(96)	36.5	30.2	33.3	63.5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4.2	34.9	20.9	55.8	100.0
고등학교	(223)	29.1	32.7	38.1	70.9	100.0
대학교 이상	(149)	22.1	40.3	37.6	77.9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7.7	35.8	36.5	72.3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6.9	35.3	37.8	73.1	100.0
미취업자	(36)	36.1	36.1	27.8	63.9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2.0	34.7	33.3	68.0	100.0
200-299만원	(148)	29.1	41.9	29.1	70.9	100.0
300-399만원	(85)	17.6	29.4	52.9	82.4	100.0
400만원 이상	(59)	28.8	28.8	42.4	71.2	100.0
미취업자 등	(48)	37.5	37.5	25.0	62.5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0.2	39.2	30.6	69.8	100.0
중국	(45)	24.4	33.3	42.2	75.6	100.0
필리핀	(34)	26.5	29.4	44.1	73.5	100.0
캄보디아	(20)	35.0	30.0	35.0	6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8.5	37.0	44.4	81.5	100.0
기타	(34)	23.5	20.6	55.9	76.5	100.0

<표 3-38>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 소개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계
■ 전체 ■	(415)	37.6	32.3	30.1	62.4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9.1	31.3	29.6	60.9	100.0
별거	(86)	45.3	22.1	32.6	54.7	100.0
가출	(96)	27.1	43.8	29.2	72.9	100.0
연령						
39세 이하	(79)	41.8	26.6	31.6	58.2	100.0
40-49세	(240)	35.4	35.4	29.2	64.6	100.0
50세 이상	(96)	39.6	29.2	31.3	60.4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4.2	37.2	18.6	55.8	100.0
고등학교	(223)	37.7	30.0	32.3	62.3	100.0
대학교 이상	(149)	35.6	34.2	30.2	64.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7.7	31.2	31.2	62.3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6.1	32.8	31.1	63.9	100.0
미취업자	(36)	41.7	38.9	19.4	58.3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6.0	36.0	28.0	64.0	100.0
200-299만원	(148)	43.2	33.8	23.0	56.8	100.0
300-399만원	(85)	22.4	29.4	48.2	77.6	100.0
400만원 이상	(59)	40.7	27.1	32.2	59.3	100.0
미취업자 등	(48)	45.8	33.3	20.8	54.2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1.6	34.1	24.3	58.4	100.0
중국	(45)	22.2	42.2	35.6	77.8	100.0
필리핀	(34)	41.2	20.6	38.2	58.8	100.0
캄보디아	(20)	40.0	25.0	35.0	6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9.6	29.6	40.7	70.4	100.0
기타	(34)	29.4	23.5	47.1	70.6	100.0

<표 3-37>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71.8%로 높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 상태가 79.2%로 가장 높으며, 이혼(71.2%), 별거(65.1%)의 순이다. 연령별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40-49세 및 39세 이하에서 각각 74.6%, 73.4%로 50세 이상(63.5%)보다 높다. 최종학력별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임금 및 비임

금근로자에서 각각 72.3%, 73.1%로 미취업자(63.9%)보다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300-399만원이 82.4%로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여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기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이 81.5%로 가장 높으며, 중국(75.6%), 필리핀(73.5%) 순이다.

<표 3-38>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을 소개해 주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62.4%로 높다. 그러나 ‘모르고 그런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32.3%로 ‘알면서 그렇게 했다’(30.1%)는 응답 비율 보다 다소 높다.

<표 3-39> 한국에 와서 친정에 송금하는 것만 원하는 여성 소개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계	계
■ 전체 ■	(415)	43.1	30.4	26.0	56.4	0.5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4.6	28.3	26.2	54.5	0.9	100.0
별거	(86)	40.7	31.4	27.9	59.3	0.0	100.0
가출	(96)	41.7	34.4	24.0	58.3	0.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44.3	29.1	24.1	53.2	2.5	100.0
40-49세	(240)	44.6	30.0	25.4	55.4	0.0	100.0
50세 이상	(96)	38.5	32.3	29.2	61.5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4.2	32.6	23.3	55.8	0.0	100.0
고등학교	(223)	43.9	29.6	26.0	55.6	0.4	100.0
대학교 이상	(149)	41.6	30.9	26.8	57.7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1.5	30.0	27.7	57.7	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48.7	26.9	24.4	51.3	0.0	100.0
미취업자	(36)	36.1	44.4	19.4	63.9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6.7	25.3	26.7	52.0	1.3	100.0
200-299만원	(148)	48.0	30.4	20.9	51.4	0.7	100.0
300-399만원	(85)	35.3	27.1	37.6	64.7	0.0	100.0
400만원 이상	(59)	39.0	32.2	28.8	61.0	0.0	100.0
미취업자 등	(48)	41.7	41.7	16.7	58.3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4.7	32.9	21.6	54.5	0.8	100.0
중국	(45)	35.6	33.3	31.1	64.4	0.0	100.0
필리핀	(34)	50.0	11.8	38.2	50.0	0.0	100.0
캄보디아	(20)	35.0	35.0	30.0	6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33.3	33.3	33.3	66.7	0.0	100.0
기타	(34)	47.1	20.6	32.4	52.9	0.0	100.0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을 소개해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 상태가 72.9%로 가장 높으나, 국제결혼중개업체 역시 모르고 그랬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43.8%로 높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4.6%로 가장 높고,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높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3.9%로 가장 높으며, 월평균 임금은 300-399만원인 경우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을 소개해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중국이 77.8%로 가장 높다.

<표 3-39>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한국에 와서 친정에 송금하는 것만 원하는 여성 소개시켜 주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56.4%로 높으나,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30.4%로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별거 상태인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9.3%로 가장 높고, 연령은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최종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7.7%로 가장 높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의성이 아니라는 응답 비율은 중졸 이하가 가장 높다. 종사상지위별로 한국에 와서 친정에 송금하는 것만 원하는 여성 소개시켜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가 63.9%로 가장 높다. 또한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이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4.7%로 가장 높고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 역시 37.6%로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한국에 와서 친정에 송금하는 것만 원하는 여성 소개시켜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66.7%로 가장 높고 필리핀이 50.0%로 가장 낮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필리핀이 38.2%로 가장 높다.

<표 3-40>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59.0%로 높으며,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32.0%로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27.0%)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혼인상태로는 이혼 상태인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0.9%로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40-49세가 60.4%로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가 62.2%로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00-399만원이 65.9%로 가장 높고,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 출신이 52.9%로 가장 낮다.

<표 3-40>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계
■ 전체 ■	(415)	41.0	27.0	32.0	59.0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9.1	28.8	32.2	60.9	100.0
별거	(86)	44.2	24.4	31.4	55.8	100.0
가출	(96)	42.7	25.0	32.3	57.3	100.0
연령						
39세 이하	(79)	44.3	20.3	35.4	55.7	100.0
40-49세	(240)	39.6	27.9	32.5	60.4	100.0
50세 이상	(96)	41.7	30.2	28.1	58.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6.5	30.2	23.3	53.5	100.0
고등학교	(223)	42.2	25.6	32.3	57.8	100.0
대학교 이상	(149)	37.6	28.2	34.2	62.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1.2	26.5	32.3	58.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7.8	29.4	32.8	62.2	100.0
미취업자	(36)	50.0	22.2	27.8	5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0.0	30.7	29.3	60.0	100.0
200-299만원	(148)	43.2	29.1	27.7	56.8	100.0
300-399만원	(85)	34.1	23.5	42.4	65.9	100.0
400만원 이상	(59)	40.7	23.7	35.6	59.3	100.0
미취업자 등	(48)	47.9	25.0	27.1	52.1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2.7	29.0	28.2	57.3	100.0
중국	(45)	40.0	35.6	24.4	60.0	100.0
필리핀	(34)	47.1	14.7	38.2	52.9	100.0
캄보디아	(20)	35.0	20.0	45.0	6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37.0	22.2	40.7	63.0	100.0
기타	(34)	29.4	20.6	50.0	70.6	100.0

<표 3-41>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62.9%로 높으며,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36.1%로 ‘알면서 그렇게 했다’(26.7%)는 응답 비율 보다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별거 상태인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6.3%로 가장 높으며, 연령은 높을수록 높다. 단, 39세 이하만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응답 비율보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최종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5.1%로 가장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68.9%)가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00-399만원인 경우 71.8%로 가장 높으며,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77.8%)과 중국(687.9%)이 높다.

<표 3-42>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었으나, 그것이 당시 배우자의 출신국에서 어떤 의미, 수준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58.1%로 높다.

<표 3-41>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계
▣ 전체 ▣	(415)	37.1	36.1	26.7	62.9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8.2	34.3	27.5	61.8	100.0
별거	(86)	33.7	37.2	29.1	66.3	100.0
가출	(96)	37.5	39.6	22.9	62.5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9.2	27.8	32.9	60.8	100.0
40-49세	(240)	37.1	37.5	25.4	62.9	100.0
50세 이상	(96)	35.4	39.6	25.0	64.6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37.2	46.5	16.3	62.8	100.0
고등학교	(223)	38.6	31.8	29.6	61.4	100.0
대학교 이상	(149)	34.9	39.6	25.5	65.1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8.8	36.9	24.2	61.2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1.1	36.1	32.8	68.9	100.0
미취업자	(36)	44.4	30.6	25.0	55.6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7.3	34.7	28.0	62.7	100.0
200-299만원	(148)	42.6	37.8	19.6	57.4	100.0
300-399만원	(85)	28.2	35.3	36.5	71.8	100.0
400만원 이상	(59)	30.5	37.3	32.2	69.5	100.0
미취업자 등	(48)	43.8	33.3	22.9	56.3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9.2	37.3	23.5	60.8	100.0
중국	(45)	31.1	40.0	28.9	68.9	100.0
필리핀	(34)	44.1	29.4	26.5	55.9	100.0
캄보디아	(20)	35.0	35.0	30.0	6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2.2	44.4	33.3	77.8	100.0
기타	(34)	35.3	23.5	41.2	64.7	100.0

<표 3-42>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출신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지 않음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계
▣ 전체 ▣	(415)	41.9	29.9	28.2	58.1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3.3	26.6	30.0	56.7	100.0
별거	(86)	43.0	32.6	24.4	57.0	100.0
가출	(96)	37.5	35.4	27.1	62.5	100.0
연령						
39세 이하	(79)	48.1	22.8	29.1	51.9	100.0
40-49세	(240)	40.0	31.3	28.8	60.0	100.0
50세 이상	(96)	41.7	32.3	26.0	58.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1.9	39.5	18.6	58.1	100.0
고등학교	(223)	42.6	26.9	30.5	57.4	100.0
대학교 이상	(149)	40.9	31.5	27.5	59.1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43.5	28.1	28.5	56.5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5.3	34.5	30.3	64.7	100.0
미취업자	(36)	52.8	27.8	19.4	47.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1.3	28.0	30.7	58.7	100.0
200-299만원	(148)	47.3	29.1	23.6	52.7	100.0
300-399만원	(85)	34.1	28.2	37.6	65.9	100.0
400만원 이상	(59)	33.9	35.6	30.5	66.1	100.0
미취업자 등	(48)	50.0	31.3	18.8	5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43.5	31.0	25.5	56.5	100.0
중국	(45)	26.7	40.0	33.3	73.3	100.0
필리핀	(34)	52.9	17.6	29.4	47.1	100.0
캄보디아	(20)	50.0	25.0	25.0	5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5.9	37.0	37.0	74.1	100.0
기타	(34)	47.1	17.6	35.3	52.9	100.0

세부특성별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가출(62.5%)인 상태, 연령별로는 40-49세(60.0%), 최종학력별로는 대졸 이상(59.1%),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64.7%),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66.1%),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74.1%)과 중국(73.3%)이 높다.

2014년 4월 1일부터 한국 정부는 ‘결혼이민의 한국어 구사요건’을 결혼이민(F-6) 비자 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려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

<표 3-43>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평가로 인한 배우자 입국 지원가능
정보 제공 여부

(단위: 명, %)

	(N)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요건과 배우자 입국 지원 모두 설명해 주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요건과 배우자 입국 지원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요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배우자 입국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비해당 (제도 시행 전 국제결혼 증개업체 이용)	계
▣ 전체 ▣	(415)	8.9	2.7	2.4	4.6	81.4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0.9	1.3	1.7	2.6	93.6	100.0
별거	(86)	15.1	5.8	2.3	4.7	72.1	100.0
가출	(96)	22.9	3.1	4.2	9.4	60.4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0.1	3.8	3.8	7.6	74.7	100.0
40-49세	(240)	11.3	2.5	2.5	4.2	79.6	100.0
50세 이상	(96)	2.1	2.1	1.0	3.1	91.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3	0.0	0.0	2.3	95.3	100.0
고등학교	(223)	9.0	2.2	3.1	3.6	82.1	100.0
대학교 이상	(149)	10.7	4.0	2.0	6.7	76.5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0.0	3.5	2.7	5.0	78.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9.2	0.8	1.7	4.2	84.0	100.0
미취업자	(36)	0.0	2.8	2.8	2.8	91.7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5.3	1.3	2.7	5.3	85.3	100.0
200-299만원	(148)	11.5	3.4	2.7	4.7	77.7	100.0
300-399만원	(85)	12.9	3.5	3.5	4.7	75.3	100.0
400만원 이상	(59)	8.5	1.7	0.0	3.4	86.4	100.0
미취업자 등	(48)	0.0	2.1	2.1	4.2	91.7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1.0	2.7	2.4	4.3	79.6	100.0
중국	(45)	0.0	2.2	2.2	11.1	84.4	100.0
필리핀	(34)	8.8	2.9	2.9	2.9	82.4	100.0
캄보디아	(20)	15.0	0.0	5.0	10.0	7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3.7	7.4	3.7	0.0	85.2	100.0
기타	(34)	5.9	0.0	0.0	0.0	94.1	100.0

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 소지자이거나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의 입국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정보를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알려주었는지를 조사하였다(표 4.43).

그 결과 2014년 4월 1일 전에 결혼하여 한국어 구사요건 평가가 해당되지 않는 응답자는 81.4%였으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요건과 배우자 입국 지연 모두 설명해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8.9%,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요건과 배우자 입국 지연 모두 설명해주지 않았다’ 2.7%,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요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배우자 입국 지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2.4%로 나타났다. 세부특성 별로 살펴보면, 순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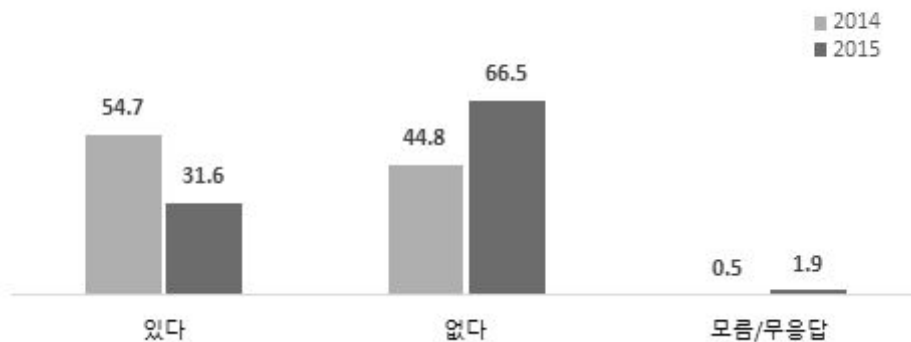
제 4 장 국제결혼 부부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계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4-1),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66.5%로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2배가량 높다. 반면,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는 ‘있다’는 응답 비율이 54.7%로 높다.

<표 4-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2015	(415)	31.6	66.5	1.9	100.0
2014	(800)	54.7	44.8	0.5	100.0



[그림 4-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2014-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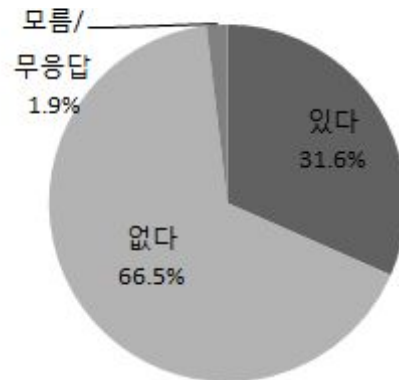
<표 4-2>에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이혼이 72.1%로 가장 높고, 별거(61.6%), 가출(57.3%)의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 39세 이하(69.9%),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69.4%), 비임금근로자(68.1%), 임금근로자(65.4%) 순으로,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78.0%),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73.3%)인 경우 높다.

<표 4-2>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단위: 명, %)

	(N)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31.6	66.5	1.9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5.8	72.1	2.1	100.0
별거	(86)	37.2	61.6	1.2	100.0
가출	(96)	40.6	57.3	2.1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9.1	69.6	1.3	100.0
40-49세	(240)	32.9	65.0	2.1	100.0
50세 이상	(96)	30.2	67.7	2.1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1.9	55.8	2.3	100.0
고등학교	(223)	30.5	66.8	2.7	100.0
대학교 이상	(149)	30.2	69.1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2.7	65.4	1.9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1.1	68.1	0.8	100.0
미취업자	(36)	25.0	69.4	5.6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7.3	58.7	4.0	100.0
200-299만원	(148)	32.4	66.9	0.7	100.0
300-399만원	(85)	34.1	64.7	1.2	100.0
400만원 이상	(59)	20.3	78.0	1.7	100.0
미취업자 등	(48)	29.2	66.7	4.2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9.8	67.1	3.1	100.0
중국	(45)	26.7	73.3	0.0	100.0
필리핀	(34)	32.4	67.6	0.0	100.0
캄보디아	(20)	35.0	6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4.4	55.6	0.0	100.0
기타	(34)	38.2	61.8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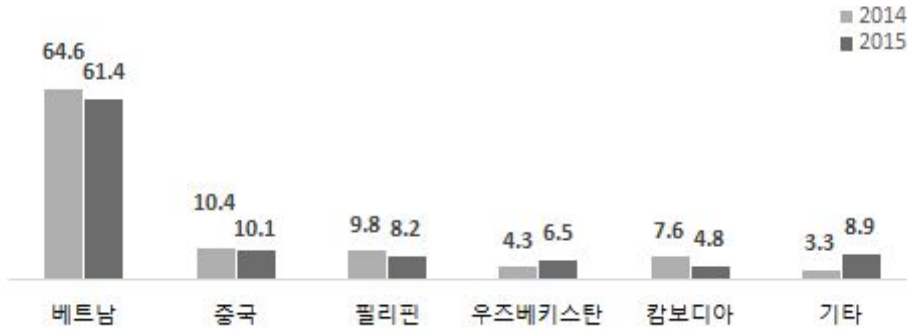


[그림 4-2]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표 4-3>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2014-2015년

(단위: 명, %)

	(N)	베트남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기타	계	방문 횟수 평균 (회)	체류 기간 평균 (일)
2015	(415)	61.4	10.1	8.2	6.5	4.8	8.9	100.0	1.7	10.1
2014	(800)	64.6	10.4	9.8	4.3	7.6	3.3	100.0	1.7	10.8



[그림 4-3]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2014-2015년

배우자와 맞선을 위해 어느 나라를 방문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방문 회수와 방문 시 체류 기간을 질문하였다. <표 4-3>에 따르면, 방문한 나라는 베트남이라는 응답 비율이 61.4%로 가장 높으며, 방문 회수는 평균 1.7회, 방문 시 체류기간은 평균 10.1일로 나타났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 역시 배우자와 맞선을 위해 방문한 나라는 ‘베트남’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평균 방문 회수도 동일하게 1.7회이나 평균 체류기간은 10.8일이었다. 두 조사에서 방문국, 방문 회수, 체류기간은 거의 차이가 없다.

<표 4-4>에서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맞선 여행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모두 동일하게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방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체 평균은 중국이라는 응답 비율이 10.1%로 높으나, 기타를 제외하고 혼인상태별로 가출인 경우는 캄보디아라는 응답 비율이 8.3%로 높고,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인 캄보디아(10.1%)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또한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인 경우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응답 비율이 10.6%로 높다.

혼인상태별로 평균 방문횟수와 평균 체류기간은 별거 상태가 1.9회, 12.0일로 가장 많고, 길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방문회수가 많고, 평균 체류기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평균 방문회수가 가장 많고, 평균 체류기간도 길며,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방문회수가 가장 많고, 평균 체류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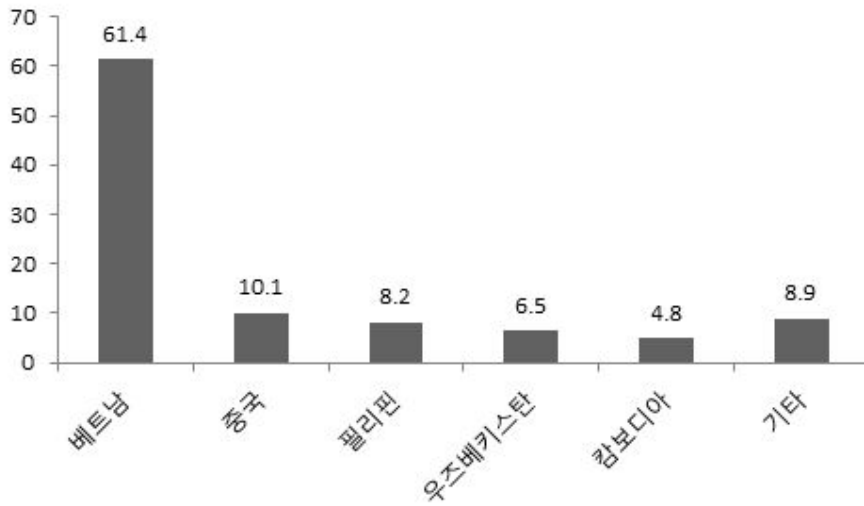
<표 4.4>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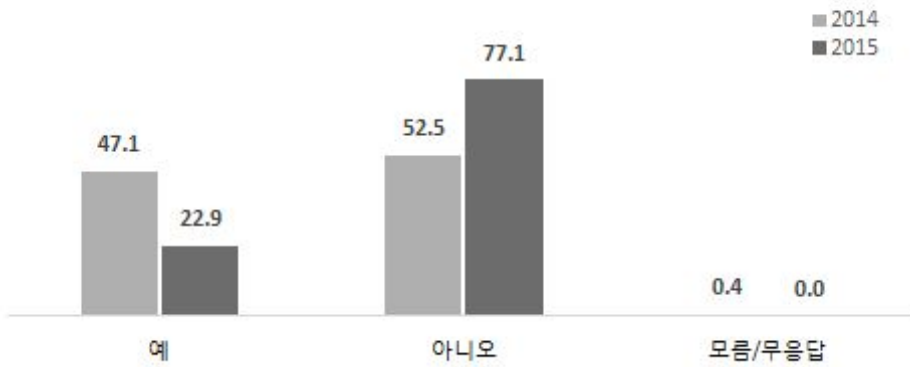
	(N)	베트남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기타	계	방문횟수 평균(회)	체류기간 평균(일)
▣ 전체 ▣	(415)	61.4	10.1	8.2	6.5	4.8	8.9	100.0	1.7	10.1
혼인상태										
이혼	(233)	58.8	11.6	9.9	5.6	3.4	10.7	100.0	1.6	9.6
별거	(86)	55.8	14.0	7.0	11.6	4.7	7.0	100.0	1.9	12.0
가출	(96)	72.9	3.1	5.2	4.2	8.3	6.3	100.0	1.6	9.7
연령										
39세 이하	(79)	62.0	2.5	7.6	7.6	10.1	10.1	100.0	1.6	9.8
40-49세	(240)	62.1	9.2	8.3	6.7	4.2	9.6	100.0	1.7	10.1
50세 이상	(96)	59.4	18.8	8.3	5.2	2.1	6.3	100.0	1.8	10.6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58.1	18.6	7.0	9.3	4.7	2.3	100.0	1.9	11.0
고등학교	(223)	61.4	9.9	9.9	4.5	4.9	9.4	100.0	1.6	9.9
대학교 이상	(149)	62.4	8.1	6.0	8.7	4.7	10.1	100.0	1.7	10.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2.7	7.7	8.1	6.5	5.8	9.2	100.0	1.7	10.0
비임금근로자	(119)	60.5	13.4	6.7	6.7	3.4	9.2	100.0	1.8	10.4
미취업자	(36)	55.6	16.7	13.9	5.6	2.8	5.6	100.0	1.7	10.4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66.7	9.3	9.3	2.7	5.3	6.7	100.0	1.7	9.9
200-299만원	(148)	66.2	8.8	6.8	4.1	6.8	7.4	100.0	1.6	9.4
300-399만원	(85)	61.2	5.9	8.2	10.6	1.2	12.9	100.0	1.7	10.7
400만원 이상	(59)	42.4	16.9	8.5	13.6	6.8	11.9	100.0	1.9	11.5
미취업자 등	(48)	62.5	14.6	10.4	4.2	2.1	6.3	100.0	1.7	10.4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00.0	0.0	0.0	0.0	0.0	0.0	100.0	1.8	10.0
중국	(45)	0.0	93.3	0.0	0.0	0.0	6.7	100.0	1.5	7.8
필리핀	(34)	0.0	0.0	100.0	0.0	0.0	0.0	100.0	1.6	14.7
캄보디아	(20)	0.0	0.0	0.0	0.0	100.0	0.0	100.0	1.4	8.6
우즈베키스탄	(27)	0.0	0.0	0.0	100.0	0.0	0.0	100.0	1.9	11.4
기타	(34)	0.0	0.0	0.0	0.0	0.0	100.0	100.0	1.4	9.9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방문회수는 우즈베키스탄이 평균 1.9회로 가장 많고, 체류기간은 필리핀이 평균 14.7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맞선을 위한 방문횟수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국의 정책에 원인이 있다. 베트남은 국제결혼을 위해 최소 2차례 방문을 하도록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현지에서 중개업체의 활동이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는 위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4-4]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그림 4-5]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표 4-5>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단위: 명, %)

	(N)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2015	(415)	22.9	77.1	0.0	100.0
2014	(800)	47.1	52.5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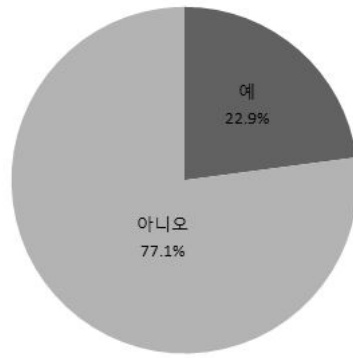
<표 4-6>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받았는지 여부

		(N)	예	아니오	계
▣ 전체 ▣		(415)	22.9	77.1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1.9	78.1	100.0
	별거	(86)	29.1	70.9	100.0
	가출	(96)	19.8	80.2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4.1	75.9	100.0
	40-49세	(240)	19.6	80.4	100.0
	50세 이상	(96)	30.2	69.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5.6	74.4	100.0
	고등학교	(223)	26.0	74.0	100.0
	대학교 이상	(149)	17.4	82.6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2.3	77.7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5.2	74.8	100.0
	미취업자	(36)	19.4	80.6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6.7	73.3	100.0
	200-299만원	(148)	20.9	79.1	100.0
	300-399만원	(85)	22.4	77.6	100.0
	400만원 이상	(59)	22.0	78.0	100.0
	미취업자 등	(48)	25.0	75.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5.1	74.9	100.0
	중국	(45)	11.1	88.9	100.0
	필리핀	(34)	20.6	79.4	100.0
	캄보디아	(20)	20.0	8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8.5	81.5	100.0
	기타	(34)	29.4	7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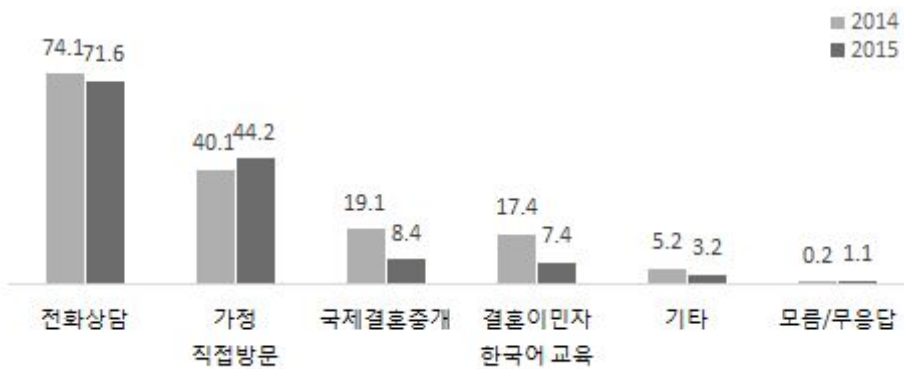
<표 4-5>에서 결혼 후 1년 간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 비율이 77.1%로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5명 중 약 1명으로 사후관리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는 ‘아니오’라는 응답 비율이 52.5%로 상대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결혼 후 1년 간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 상태인 경우 29.1%로 가장 높고, 이혼(21.9%), 가출(19.8%)의 순이다(표 4-6).



[그림 4-6]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받았는지 여부



[그림 4-7]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방법(복수응답), 2014-2015년

<표 4-7>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방법(복수응답), 2014-2015년

(단위: 명, %)

	(N)	전화상담	가정 직접방문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부부를 초청하여 상담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기타	모름·무응답
2015	(95)	71.6	44.2	8.4	7.4	3.2	1.1
2014	(377)	74.1	40.1	19.1	17.4	5.2	0.2

연령별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50세 이상(30.2%)에서 가장 높고, 39세 이하(24.1%), 40-49세(19.6%)의 순이다.

<표 4.8>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N)	전화상담	우리 집 직접방문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리부부를 초청하여 상담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기타	모름·무응답
▣ 전체 ▣	(95)	71.6	44.2	8.4	7.4	3.2	1.1
혼인상태							
이혼	(51)	74.5	45.1	7.8	7.8	2.0	2.0
별거	(25)	72.0	44.0	16.0	12.0	4.0	0.0
가출	(19)	63.2	42.1	0.0	0.0	5.3	0.0
연령							
39세 이하	(19)	68.4	47.4	5.3	10.5	5.3	5.3
40-49세	(47)	68.1	38.3	6.4	6.4	4.3	0.0
50세 이상	(29)	79.3	51.7	13.8	6.9	0.0	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11)	63.6	90.9	27.3	18.2	0.0	0.0
고등학교	(58)	67.2	48.3	6.9	3.4	0.0	1.7
대학교 이상	(26)	84.6	15.4	3.8	11.5	11.5	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8)	70.7	37.9	8.6	8.6	5.2	1.7
비임금근로자	(30)	73.3	53.3	10.0	3.3	0.0	0.0
미취업자	(7)	71.4	57.1	0.0	14.3	0.0	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20)	80.0	45.0	15.0	5.0	0.0	0.0
200-299만원	(31)	67.7	35.5	6.5	9.7	3.2	3.2
300-399만원	(19)	63.2	47.4	10.5	5.3	5.3	0.0
400만원 이상	(13)	76.9	46.2	7.7	0.0	7.7	0.0
미취업자 등	(12)	75.0	58.3	0.0	16.7	0.0	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64)	73.4	45.3	10.9	9.4	4.7	0.0
중국	(5)	60.0	60.0	0.0	20.0	0.0	0.0
필리핀	(7)	85.7	28.6	0.0	0.0	0.0	0.0
캄보디아	(4)	25.0	75.0	0.0	0.0	0.0	0.0
우즈베키스탄	(5)	60.0	20.0	20.0	0.0	0.0	20.0
기타	(10)	80.0	40.0	0.0	0.0	0.0	0.0

최종학력별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고졸이 26.0%로 가장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25.2%),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26.7%),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베트남(25.1%)이 가장 높다.

결혼 후 1년 간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받은 방법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전화상담’이라는 응답 비율이 71.6%로 가장 높고, ‘가정 직접방문’(44.2%) 순이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역시 ‘전화상담’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가정 직접

방문' 순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부부를 초청하여 상담'과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세부특성별로 항목별 순위는 큰 차이가 없으며,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을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이 74.5%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79.3%),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73.3%),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80.0%)인 경우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우리 집 직접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을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45.1%),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1.7%)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과 동일하게 가장 높다.

또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과 반대로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우리 집 직접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표본수가 적은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비임금근로자가 53.3%로 높다.

<표 4-9>와 [그림 4-8]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며 부당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라는 응답 비율이 62.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과장 광고를 했다'(40.7%),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38.8%),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32.0%),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28.7%),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28.4%) 등의 순이다. 이 표에서 '없다'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음을 뜻하고, '해당 사항 없다'는 그러한 경험을 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두 범주가 엄격히 구분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있다'는 범주를 기준으로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혼인중단 남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경험과 회사 파산, 대표 도주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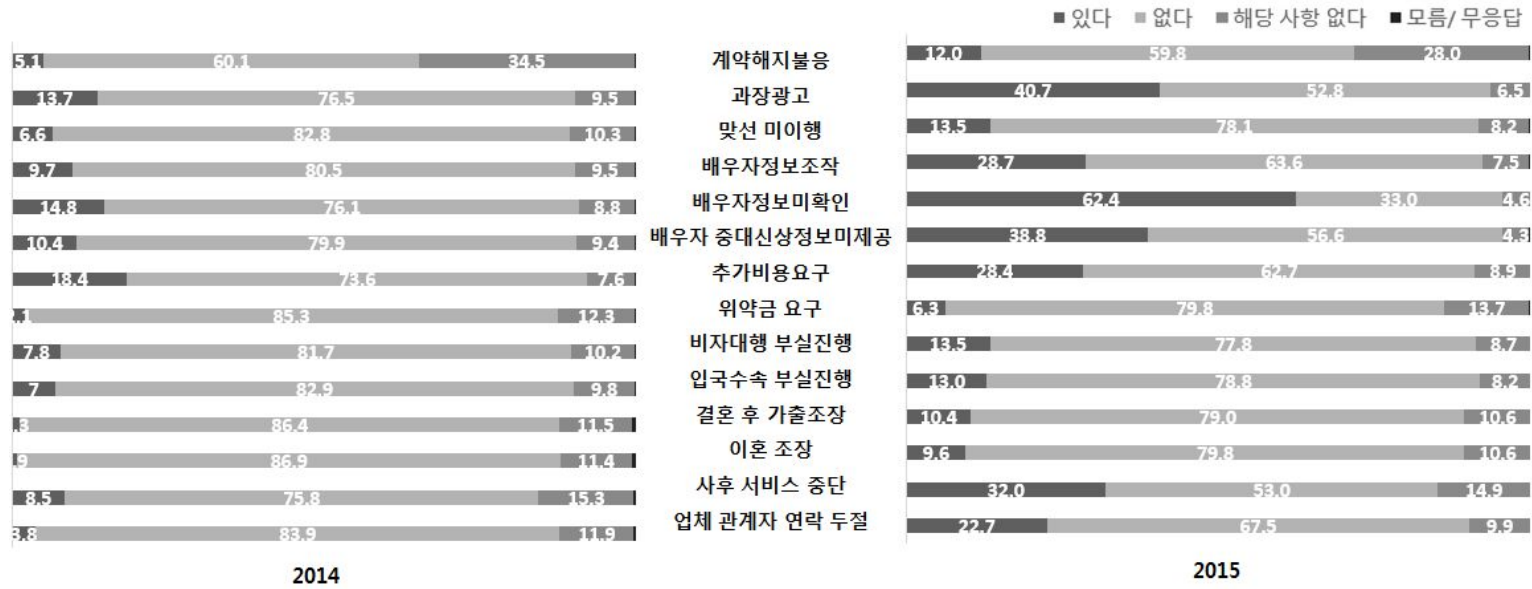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며 부당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는지를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이 모든 사항에서 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는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9>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중 경험한 사항,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계약해지 불응						
2015	(415)	12.0	59.8	28.0	0.2	100.0
2014	(800)	5.1	60.1	34.5	0.3	100.0
과장 광고						
2015	(415)	40.7	52.8	6.5	0.0	100.0
2014	(800)	13.7	76.5	9.5	0.3	100.0
맞선 미이행						
2015	(415)	13.5	78.1	8.2	0.2	100.0
2014	(800)	6.6	82.8	10.3	0.3	100.0
배우자 정보 조작						
2015	(415)	28.7	63.6	7.5	0.2	100.0
2014	(800)	9.7	80.5	9.5	0.3	100.0
배우자 정보 미확인						
2015	(415)	62.4	33.0	4.6	0.0	100.0
2014	(800)	14.8	76.1	8.8	0.3	100.0
배우자의 중대신상정보 미제공						
2015	(415)	38.8	56.6	4.3	0.2	100.0
2014	(800)	10.4	79.9	9.4	0.3	100.0
추가비용 요구						
2015	(415)	28.4	62.7	8.9	0.0	100.0
2014	(800)	18.4	73.6	7.6	0.3	100.0
위약금 요구						
2015	(415)	6.3	79.8	13.7	0.2	100.0
2014	(800)	2.1	85.3	12.3	0.3	100.0
비자대행 부실 진행						
2015	(415)	13.5	77.8	8.7	0.0	100.0
2014	(800)	7.8	81.7	10.2	0.3	100.0
입국수속 부실 진행						
2015	(415)	13.0	78.8	8.2	0.0	100.0
2014	(800)	7.0	82.9	9.8	0.3	100.0
결혼 후 가출 조장						
2015	(415)	10.4	79.0	10.6	0.0	100.0
2014	(800)	1.3	86.4	11.5	0.8	100.0
이혼 조장						
2015	(415)	9.6	79.8	10.6	0.0	100.0
2014	(800)	0.9	86.9	11.4	0.8	100.0
사후 서비스 중단						
2015	(415)	32.0	53.0	14.9	0.0	100.0
2014	(800)	8.5	75.8	15.3	0.4	100.0
업체 관계자 연락 두절						
2015	(415)	22.7	67.5	9.9	0.0	100.0
2014	(800)	3.8	83.9	11.9	0.4	100.0

<표 4-10>에 제시된 것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을 대하여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0%, ‘없다’는 59.8%이다. ‘해당사항 없다’는 28.0%이다. 10명 중 1명 정도가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업체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중 경험한 사항, 2014-2015년

<표 4-10>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12.0	59.8	28.0	0.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2.9	63.1	24.0	0.0	100.0
별거	(86)	12.8	51.2	36.0	0.0	100.0
가출	(96)	9.4	59.4	30.2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5.2	49.4	35.4	0.0	100.0
40-49세	(240)	10.4	63.3	25.8	0.4	100.0
50세 이상	(96)	13.5	59.4	27.1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4.0	62.8	23.3	0.0	100.0
고등학교	(223)	9.9	61.0	28.7	0.4	100.0
대학교 이상	(149)	14.8	57.0	28.2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2.7	61.5	25.4	0.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0.9	54.6	34.5	0.0	100.0
미취업자	(36)	11.1	63.9	25.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5.3	60.0	34.7	0.0	100.0
200-299만원	(148)	12.2	66.9	20.3	0.7	100.0
300-399만원	(85)	18.8	50.6	30.6	0.0	100.0
400만원 이상	(59)	13.6	52.5	33.9	0.0	100.0
미취업자 등	(48)	8.3	62.5	29.2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1.4	60.0	28.2	0.4	100.0
중국	(45)	17.8	62.2	20.0	0.0	100.0
필리핀	(34)	8.8	47.1	44.1	0.0	100.0
캄보디아	(20)	5.0	60.0	3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8.5	66.7	14.8	0.0	100.0
기타	(34)	11.8	61.8	26.5	0.0	100.0

월평균 임금별로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은 300-399만원에서 18.8% 가장 높고, 400만원 이상(13.6%), 200-299만원(12.2%) 등의 순이다. 배우자 출신국별로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은 우즈베키스탄(18.5%) 및 중국(17.8%)이 높다.

<표 4-11>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과장 광고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7%, ‘없다’는 52.8%로 나타났다.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가 44.4%로 가장 높고, 비임금근로자(42.0%), 임금근로자(39.6%)의 순이다.

<표 4-11> 과장 광고를 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전체	(415)	40.7	52.8	6.5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1.6	51.9	6.4	100.0
별거	(86)	41.9	52.3	5.8	100.0
가출	(96)	37.5	55.2	7.3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9.2	55.7	5.1	100.0
40-49세	(240)	40.0	52.9	7.1	100.0
50세 이상	(96)	43.8	50.0	6.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30.2	62.8	7.0	100.0
고등학교	(223)	39.0	53.8	7.2	100.0
대학교 이상	(149)	46.3	48.3	5.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9.6	55.0	5.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42.0	47.1	10.9	100.0
미취업자	(36)	44.4	55.6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8.0	62.7	9.3	100.0
200-299만원	(148)	35.1	58.1	6.8	100.0
300-399만원	(85)	50.6	45.9	3.5	100.0
400만원 이상	(59)	59.3	32.2	8.5	100.0
미취업자 등	(48)	37.5	58.3	4.2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4.9	58.8	6.3	100.0
중국	(45)	46.7	48.9	4.4	100.0
필리핀	(34)	41.2	50.0	8.8	100.0
캄보디아	(20)	35.0	55.0	1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70.4	25.9	3.7	100.0
기타	(34)	55.9	35.3	8.8	100.0

월평균임금별로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월평균 임금이 많을수록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응답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이 70.4%로 가장 높고, 기타를 제외하고 중국(46.7%), 필리핀(41.2%)의 순이다.

<표 4-12>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5%, ‘없다’는 78.1%이다. 혼인상태별로는 별거(16.3%), 연령별로는 40-49세(13.8%), 최종학력별로는 고졸(14.3%),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16.7%)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4-12>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13.5	78.1	8.2	0.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2.9	77.7	9.0	0.4	100.0
별거	(86)	16.3	76.7	7.0	0.0	100.0
가출	(96)	12.5	80.2	7.3	0.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2.7	81.0	6.3	0.0	100.0
40-49세	(240)	13.8	77.9	8.3	0.0	100.0
50세 이상	(96)	13.5	76.0	9.4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9.3	86.0	4.7	0.0	100.0
고등학교	(223)	14.3	76.2	9.0	0.4	100.0
대학교 이상	(149)	13.4	78.5	8.1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4.2	78.5	7.3	0.0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0.9	77.3	11.8	0.0	100.0
미취업자	(36)	16.7	77.8	2.8	2.8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0	81.3	14.7	0.0	100.0
200-299만원	(148)	12.8	79.1	8.1	0.0	100.0
300-399만원	(85)	18.8	77.6	3.5	0.0	100.0
400만원 이상	(59)	18.6	72.9	8.5	0.0	100.0
미취업자 등	(48)	14.6	77.1	6.3	2.1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1.8	79.6	8.6	0.0	100.0
중국	(45)	17.8	71.1	8.9	2.2	100.0
필리핀	(34)	8.8	82.4	8.8	0.0	100.0
캄보디아	(20)	5.0	85.0	1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2.2	77.8	0.0	0.0	100.0
기타	(34)	23.5	67.6	8.8	0.0	100.0

월평균 임금별로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00-399만원 및 400만원 이상에서 각각 18.8%, 18.6%로 가장 높으며, 199만원 이하에서 4.0%로 가장 낮다. 또한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22.2%)과 중국(17.8%)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4-13>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28.7%, '없다'는 응답 비율은 63.6%이다.

<표 4-13>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28.7	63.6	7.5	0.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2.2	59.7	7.7	0.4	100.0
별거	(86)	27.9	65.1	7.0	0.0	100.0
가출	(96)	20.8	71.9	7.3	0.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6.6	62.0	10.1	1.3	100.0
40-49세	(240)	25.8	66.7	7.5	0.0	100.0
50세 이상	(96)	37.5	57.3	5.2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7.9	67.4	4.7	0.0	100.0
고등학교	(223)	26.5	64.6	9.0	0.0	100.0
대학교 이상	(149)	32.2	61.1	6.0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8.5	65.4	5.8	0.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6.9	59.7	13.4	0.0	100.0
미취업자	(36)	36.1	63.9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2.7	64.0	13.3	0.0	100.0
200-299만원	(148)	26.4	67.6	5.4	0.7	100.0
300-399만원	(85)	28.2	65.9	5.9	0.0	100.0
400만원 이상	(59)	40.7	49.2	10.2	0.0	100.0
미취업자 등	(48)	31.3	64.6	4.2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4.7	66.7	8.2	0.4	100.0
중국	(45)	40.0	55.6	4.4	0.0	100.0
필리핀	(34)	20.6	73.5	5.9	0.0	100.0
캄보디아	(20)	25.0	70.0	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4.4	51.9	3.7	0.0	100.0
기타	(34)	41.2	47.1	11.8	0.0	100.0

혼인상태별로는 이혼(32.2%), 연령별로는 50세 이상(32.2%), 최종학력별로는 대졸 이상(32.2%),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36.1%),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임금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44.4%)과 중국(40.0%)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4-14>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62.4%로 '없다'(33.0%)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표 4-14>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415)	62.4	33.0	4.6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62.2	33.0	4.7	100.0
별거	(86)	54.7	40.7	4.7	100.0
가출	(96)	69.8	26.0	4.2	100.0
연령					
39세 이하	(79)	63.3	31.6	5.1	100.0
40-49세	(240)	62.1	33.3	4.6	100.0
50세 이상	(96)	62.5	33.3	4.2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51.2	44.2	4.7	100.0
고등학교	(223)	58.7	35.9	5.4	100.0
대학교 이상	(149)	71.1	25.5	3.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3.5	32.7	3.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60.5	31.9	7.6	100.0
미취업자	(36)	61.1	38.9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62.7	30.7	6.7	100.0
200-299만원	(148)	57.4	39.2	3.4	100.0
300-399만원	(85)	74.1	22.4	3.5	100.0
400만원 이상	(59)	64.4	28.8	6.8	100.0
미취업자 등	(48)	54.2	41.7	4.2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58.8	36.1	5.1	100.0
중국	(45)	71.1	26.7	2.2	100.0
필리핀	(34)	61.8	35.3	2.9	100.0
캄보디아	(20)	55.0	45.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81.5	14.8	3.7	100.0
기타	(34)	67.6	23.5	8.8	100.0

혼인상태별로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은 가출이 69.8%로 가장 높고, 이혼(62.2%), 별거(54.7%)의 순이다.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63.3%로 가장 높고,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63.5%로 가장 높으며,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이 74.1%로 가장 높으며, 400만원 이상(64.4%), 199만원 이하(62.7%) 순이다.

배우자 출신국별로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은 우즈베키스탄(81.5%)과 중국(71.1%)이 높다.

<표 4-15>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38.8	56.6	4.3	0.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41.2	54.5	4.3	0.0	100.0
별거	(86)	37.2	58.1	4.7	0.0	100.0
가출	(96)	34.4	60.4	4.2	1.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8.0	57.0	5.1	0.0	100.0
40-49세	(240)	38.3	56.7	4.6	0.4	100.0
50세 이상	(96)	40.6	56.3	3.1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5.6	69.8	4.7	0.0	100.0
고등학교	(223)	39.0	56.1	4.9	0.0	100.0
대학교 이상	(149)	42.3	53.7	3.4	0.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8.1	58.8	3.1	0.0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8.7	52.1	8.4	0.8	100.0
미취업자	(36)	44.4	55.6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7.3	56.0	6.7	0.0	100.0
200-299만원	(148)	31.8	65.5	2.0	0.7	100.0
300-399만원	(85)	50.6	45.9	3.5	0.0	100.0
400만원 이상	(59)	42.4	49.2	8.5	0.0	100.0
미취업자 등	(48)	37.5	58.3	4.2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5.3	60.0	4.3	0.4	100.0
중국	(45)	46.7	48.9	4.4	0.0	100.0
필리핀	(34)	32.4	64.7	2.9	0.0	100.0
캄보디아	(20)	40.0	60.0	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8.1	48.1	3.7	0.0	100.0
기타	(34)	52.9	38.2	8.8	0.0	100.0

<표 4-15>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과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38.8%, ‘없다’는 응답 비율은 56.6%이다. 혼인상태별로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이혼 상태가 41.2%로 가장 높고, 별거(37.2%), 가출(34.3%)의 순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종사상 지위별

로는 미취업자(44.4%),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50.6%),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48.1%)과 중국(46.7%)이 높다.

<표 4-16>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28.4%, ‘없다’는 62.7%이다. 세부특성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29.6%), 연령별로는 39세 이하(36.7%), 최종학력별로는 고졸(29.1%),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28.6%),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37.6%), 배우자의 출신국 별로는 우즈베키스탄(51.9%)이 가장 높다.

<표 4-16>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415)	28.4	62.7	8.9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9.6	60.9	9.4	100.0
별거	(86)	27.9	64.0	8.1	100.0
가출	(96)	26.0	65.6	8.3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6.7	54.4	8.9	100.0
40-49세	(240)	23.3	67.1	9.6	100.0
50세 이상	(96)	34.4	58.3	7.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7.9	65.1	7.0	100.0
고등학교	(223)	29.1	61.9	9.0	100.0
대학교 이상	(149)	27.5	63.1	9.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8.5	63.1	8.5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8.6	61.3	10.1	100.0
미취업자	(36)	27.8	63.9	8.3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5.3	62.7	12.0	100.0
200-299만원	(148)	25.0	66.2	8.8	100.0
300-399만원	(85)	37.6	56.5	5.9	100.0
400만원 이상	(59)	30.5	61.0	8.5	100.0
미취업자 등	(48)	25.0	64.6	10.4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5.9	64.3	9.8	100.0
중국	(45)	20.0	66.7	13.3	100.0
필리핀	(34)	35.3	58.8	5.9	100.0
캄보디아	(20)	0.0	90.0	1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51.9	48.1	0.0	100.0
기타	(34)	50.0	44.1	5.9	100.0

<표 4-17>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계약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로 현저히 낮다. 세부특성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혼인상태별로는 가출상태인 경우 ‘있다’는 응답 비율이 3.1%로 가장 낮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은 10.4%로 가장 낮은 반면 39세 이하는 3.8%로 상대적으로 낮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14.8%)과 중국(13.3%)이 계약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4-17> 계약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6.3	79.8	13.7	0.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7.3	78.5	13.7	0.4	100.0
별거	(86)	7.0	80.2	12.8	0.0	100.0
가출	(96)	3.1	82.3	14.6	0.0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8	78.5	17.7	0.0	100.0
40-49세	(240)	5.4	80.4	13.8	0.4	100.0
50세 이상	(96)	10.4	79.2	10.4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9.3	83.7	7.0	0.0	100.0
고등학교	(223)	4.9	80.7	13.9	0.4	100.0
대학교 이상	(149)	7.4	77.2	15.4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5.4	81.2	13.1	0.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7.6	77.3	15.1	0.0	100.0
미취업자	(36)	8.3	77.8	13.9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0	80.0	16.0	0.0	100.0
200-299만원	(148)	4.7	82.4	12.2	0.7	100.0
300-399만원	(85)	8.2	82.4	9.4	0.0	100.0
400만원 이상	(59)	8.5	72.9	18.6	0.0	100.0
미취업자 등	(48)	8.3	75.0	16.7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5.1	80.8	14.1	0.0	100.0
중국	(45)	13.3	68.9	15.6	2.2	100.0
필리핀	(34)	2.9	88.2	8.8	0.0	100.0
캄보디아	(20)	5.0	75.0	2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4.8	77.8	7.4	0.0	100.0
기타	(34)	2.9	82.4	14.7	0.0	100.0

<표 4-18>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13.5%, ‘없다’는 77.8%이다.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17.4%), 연령은 높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 고졸(14.8%),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6.0%),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23.5%),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20.6%)이 가장 높다.

<표 4-18>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415)	13.5	77.8	8.7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4.2	76.4	9.4	100.0
별거	(86)	17.4	76.7	5.8	100.0
가출	(96)	8.3	82.3	9.4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1.4	79.7	8.9	100.0
40-49세	(240)	13.8	77.1	9.2	100.0
50세 이상	(96)	14.6	78.1	7.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9.3	83.7	7.0	100.0
고등학교	(223)	14.8	76.7	8.5	100.0
대학교 이상	(149)	12.8	77.9	9.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2.3	80.0	7.7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6.0	72.3	11.8	100.0
미취업자	(36)	13.9	80.6	5.6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6.0	73.3	10.7	100.0
200-299만원	(148)	8.1	83.1	8.8	100.0
300-399만원	(85)	23.5	70.6	5.9	100.0
400만원 이상	(59)	11.9	78.0	10.2	100.0
미취업자 등	(48)	10.4	81.3	8.3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1.8	80.4	7.8	100.0
중국	(45)	17.8	73.3	8.9	100.0
필리핀	(34)	20.6	70.6	8.8	100.0
캄보디아	(20)	5.0	85.0	1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8.5	70.4	11.1	100.0
기타	(34)	14.7	73.5	11.8	100.0

<표 4-19>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13.0%, ‘없다’는 응답 비율은 78.8%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18.6%), 연령별로는 39세 이하(13.9%), 최종학력별로는 고졸(13.9%),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4.3%),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21.2%),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20.6%)이 가장 높다.

<표 4-19>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

		(단위: 명, %)			
▣ 전체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415)	13.0	78.8	8.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3.3	78.5	8.2	100.0
별거	(86)	18.6	74.4	7.0	100.0
가출	(96)	7.3	83.3	9.4	100.0
연령					
39세 이하	(79)	13.9	78.5	7.6	100.0
40-49세	(240)	12.5	78.8	8.8	100.0
50세 이상	(96)	13.5	79.2	7.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11.6	81.4	7.0	100.0
고등학교	(223)	13.9	78.5	7.6	100.0
대학교 이상	(149)	12.1	78.5	9.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3.1	79.6	7.3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4.3	74.8	10.9	100.0
미취업자	(36)	8.3	86.1	5.6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0.7	80.0	9.3	100.0
200-299만원	(148)	10.8	81.8	7.4	100.0
300-399만원	(85)	21.2	71.8	7.1	100.0
400만원 이상	(59)	13.6	76.3	10.2	100.0
미취업자 등	(48)	8.3	83.3	8.3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0.2	82.0	7.8	100.0
중국	(45)	17.8	73.3	8.9	100.0
필리핀	(34)	20.6	67.6	11.8	100.0
캄보디아	(20)	10.0	85.0	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18.5	70.4	11.1	100.0
기타	(34)	17.6	76.5	5.9	100.0

<표 4-20>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결혼 후 가출을 부추긴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4%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79.0%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결혼 후 가출을 부추긴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이혼(12.0%), 연령과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3.4%),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20.0%),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22.2%)이 가장 높다.

<표 4-20> 결혼 후 가출을 부추겼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415)	10.4	79.0	10.6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2.0	78.1	9.9	100.0
별거	(86)	9.3	77.9	12.8	100.0
가출	(96)	7.3	82.3	10.4	100.0
연령					
39세 이하	(79)	7.6	79.7	12.7	100.0
40-49세	(240)	10.8	78.8	10.4	100.0
50세 이상	(96)	11.5	79.2	9.4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3	90.7	7.0	100.0
고등학교	(223)	10.8	78.5	10.8	100.0
대학교 이상	(149)	12.1	76.5	11.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10.0	79.2	1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3.4	74.8	11.8	100.0
미취업자	(36)	2.8	91.7	5.6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0.7	76.0	13.3	100.0
200-299만원	(148)	5.4	82.4	12.2	100.0
300-399만원	(85)	20.0	75.3	4.7	100.0
400만원 이상	(59)	15.3	72.9	11.9	100.0
미취업자 등	(48)	2.1	87.5	10.4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7.8	81.6	10.6	100.0
중국	(45)	13.3	73.3	13.3	100.0
필리핀	(34)	5.9	79.4	14.7	100.0
캄보디아	(20)	10.0	80.0	1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2.2	74.1	3.7	100.0
기타	(34)	20.6	70.6	8.8	100.0

<표 4-21>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이혼을 부추긴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79.8%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이혼을 부추긴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이혼(12.4%), 연령은 높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 고졸(10.3%),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1.8%),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17.6%),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22.2%)이 가장 높다.

<표 4-21> 이혼을 부추겼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415)	9.6	79.8	10.6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12.4	77.7	9.9	100.0
별거	(86)	7.0	80.2	12.8	100.0
가출	(96)	5.2	84.4	10.4	100.0
연령					
39세 이하	(79)	6.3	81.0	12.7	100.0
40-49세	(240)	10.0	79.2	10.8	100.0
50세 이상	(96)	11.5	80.2	8.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4.7	88.4	7.0	100.0
고등학교	(223)	10.3	78.9	10.8	100.0
대학교 이상	(149)	10.1	78.5	11.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9.2	80.0	1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11.8	76.5	11.8	100.0
미취업자	(36)	5.6	88.9	5.6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9.3	76.0	14.7	100.0
200-299만원	(148)	4.7	83.1	12.2	100.0
300-399만원	(85)	17.6	78.8	3.5	100.0
400만원 이상	(59)	13.6	74.6	11.9	100.0
미취업자 등	(48)	6.3	83.3	10.4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7.5	82.0	10.6	100.0
중국	(45)	13.3	73.3	13.3	100.0
필리핀	(34)	2.9	82.4	14.7	100.0
캄보디아	(20)	10.0	80.0	1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22.2	74.1	3.7	100.0
기타	(34)	17.6	73.5	8.8	100.0

<표 4-22>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32.0%, ‘없다’는 53.0%이다. 이 결과를 통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사후관리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가출(39.6%), 연령별로는 39세 이하(36.7%), 최종학력별로는 대졸 이상(33.6%),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38.9%),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 (37.6%),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38.2%)이 가장 높다.

<표 4-22>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415)	32.0	53.0	14.9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8.8	55.8	15.5	100.0
별거	(86)	32.6	53.5	14.0	100.0
가출	(96)	39.6	45.8	14.6	100.0
연령					
39세 이하	(79)	36.7	50.6	12.7	100.0
40-49세	(240)	29.2	55.4	15.4	100.0
50세 이상	(96)	35.4	49.0	15.6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32.6	53.5	14.0	100.0
고등학교	(223)	30.9	54.7	14.3	100.0
대학교 이상	(149)	33.6	50.3	16.1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1.5	53.1	15.4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1.1	51.3	17.6	100.0
미취업자	(36)	38.9	58.3	2.8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9.3	52.0	18.7	100.0
200-299만원	(148)	29.1	56.8	14.2	100.0
300-399만원	(85)	37.6	49.4	12.9	100.0
400만원 이상	(59)	37.3	40.7	22.0	100.0
미취업자 등	(48)	29.2	64.6	6.3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1.0	55.3	13.7	100.0
중국	(45)	35.6	48.9	15.6	100.0
필리핀	(34)	38.2	44.1	17.6	100.0
캄보디아	(20)	25.0	60.0	1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37.0	44.4	18.5	100.0
기타	(34)	29.4	52.9	17.6	100.0

<표 4-23>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22.7%, ‘없다’는 67.5%이다. 세부특성별로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별거(25.6%), 연령별로는 39세 이하(29.1%),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27.9%),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25.0%),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30.6%),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40.7%)이 가장 높다.

<표 4-23>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415)	22.7	67.5	9.9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21.0	68.7	10.3	100.0
별거	(86)	25.6	65.1	9.3	100.0
가출	(96)	24.0	66.7	9.4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9.1	59.5	11.4	100.0
40-49세	(240)	18.3	71.3	10.4	100.0
50세 이상	(96)	28.1	64.6	7.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7.9	65.1	7.0	100.0
고등학교	(223)	20.6	70.0	9.4	100.0
대학교 이상	(149)	24.2	64.4	11.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3.1	67.7	9.2	100.0
비임금근로자	(119)	21.0	65.5	13.4	100.0
미취업자	(36)	25.0	72.2	2.8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5.3	61.3	13.3	100.0
200-299만원	(148)	16.9	71.6	11.5	100.0
300-399만원	(85)	30.6	63.5	5.9	100.0
400만원 이상	(59)	25.4	64.4	10.2	100.0
미취업자 등	(48)	18.8	75.0	6.3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18.0	72.5	9.4	100.0
중국	(45)	31.1	55.6	13.3	100.0
필리핀	(34)	26.5	64.7	8.8	100.0
캄보디아	(20)	15.0	75.0	1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0.7	48.1	11.1	100.0
기타	(34)	32.4	58.8	8.8	100.0

<표 4-24>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단위: 명, %)

	(N)	약관·계약 사항 설명	배우자 신상 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맞선 이후의 서비스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 관리 서비스	숙소 제공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환불·손해 배상	기타	만족 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계
2015	(415)	0.7	3.1	7.7	4.6	2.4	2.9	2.9	-	6.0	3.0	0.0	100.0
2014	(800)	8.6	15.5	18.5	15.5	8.7	7.1	8.0	0.5	5.1	12.0	0.5	100.0



[그림 4-9]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표 4-24>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만족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7.7%로 가장 높고, ‘맞선이후의 서비스’(4.6%),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3.1%), ‘숙소제공’(2.9%)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을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혼인중단 남성이 더 낮으나, ‘기타’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만족했다는 응답 비율 역시 낮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본 조사 모두 국제결혼업체의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을 만족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각 항목별로 만족했다는 응답 비율이 20% 미만으로 만족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에서 혼인상태별로 가장 만족했던 사항을 살펴보면, 이혼 및 별거는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9.0%, 8.1%로 가장 높으며, 가출은 ‘맞선 이후의 서비스’라는 응답 비율이 6.3%로 가장 높다.

<표 4-25>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단위: 명, %)

	(N)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 신고 등)	배우자 신상 정보 제공	숙소 제공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 관리 서비스	약관 계약 사항 설명	기타	만족 사항 없음	계
■ 전체 ■	(415)	7.7	4.6	3.1	2.9	2.9	2.4	0.7	2.2	73.5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9.0	3.9	3.0	3.4	4.3	1.7	0.0	3.0	71.7	100.0
별거	(86)	8.1	4.7	5.8	0.0	1.2	7.0	2.3	1.2	69.8	100.0
가출	(96)	4.2	6.3	1.0	4.2	1.0	0.0	1.0	1.0	81.3	100.0
연령											
39세 이하	(79)	5.1	3.8	5.1	3.8	1.3	3.8	0.0	1.3	75.9	100.0
40-49세	(240)	7.5	4.6	2.5	1.7	2.9	1.3	1.3	2.9	75.4	100.0
50세 이상	(96)	10.4	5.2	3.1	5.2	4.2	4.2	0.0	1.0	66.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7.0	4.7	2.3	2.3	4.7	4.7	0.0	0.0	74.4	100.0
고등학교	(223)	8.1	4.9	4.5	3.1	3.6	1.8	0.4	2.7	70.9	100.0
대학교 이상	(149)	7.4	4.0	1.3	2.7	1.3	2.7	1.3	2.0	77.2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5	5.0	2.7	3.8	1.9	2.7	0.4	1.9	75.0	100.0
비임금근로자	(119)	7.6	5.0	2.5	1.7	3.4	2.5	1.7	2.5	73.1	100.0
미취업자	(36)	16.7	0.0	8.3	0.0	8.3	0.0	0.0	2.8	63.9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2.0	6.7	1.3	2.7	4.0	2.7	0.0	2.7	68.0	100.0
200-299만원	(148)	7.4	5.4	3.4	4.1	2.7	2.7	1.4	1.4	71.6	100.0
300-399만원	(85)	3.5	3.5	1.2	3.5	0.0	2.4	0.0	3.5	82.4	100.0
400만원 이상	(59)	5.1	5.1	1.7	1.7	1.7	1.7	0.0	1.7	81.4	100.0
미취업자 등	(48)	12.5	0.0	10.4	0.0	8.3	2.1	2.1	2.1	62.5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9.4	4.7	2.4	3.5	3.9	3.1	0.8	2.7	69.4	100.0
중국	(45)	2.2	2.2	4.4	0.0	2.2	0.0	0.0	2.2	86.7	100.0
필리핀	(34)	8.8	2.9	11.8	0.0	0.0	2.9	0.0	0.0	73.5	100.0
캄보디아	(20)	10.0	10.0	0.0	5.0	5.0	0.0	0.0	0.0	70.0	100.0
우즈베키스탄	(27)	7.4	3.7	0.0	3.7	0.0	3.7	3.7	0.0	77.8	100.0
기타	(34)	0.0	5.9	2.9	2.9	0.0	0.0	0.0	2.9	85.3	100.0

연령별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과 ‘맞선 이후의 서비스’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최종학력별 차이는 없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미취업자가 16.7%로 가장 높다. 또한 미취업자는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8.3%로 상당히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역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미취업자 등과 199만원 이하가 각각 12.5%, 12.0%로 높다. 특이한 것은 미취업자 등이

<표 4-26>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2014-2015년

(단위: 명, %)

	(N)	배우자 신상 정보 제공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 관리 서비스	환불· 손해 배상	약관· 계약 사항 설명	추가 비용 요구	맞선 이후 서비스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숙소 제공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환불 · 손해 배상	기타	불만 사항 없음	모름· 무응 답	계
2015	(415)	29.4	17.8	9.4	5.3	5.1	4.6	2.7	0.2	0.2	-	5.1	20.2	0.0	100.0
2014	(800)	8.0	7.8	2.3	2.6	9.7	4.4	8.3	2.0	0.4	2.3	4.8	49.0	0.6	100.0



[그림 4-10]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2014-2015년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10.4%로 높으며,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역시 8.3%로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과 필리핀은 ‘배우자 신상 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4.4%, 11.8%로 가장 높고, 기타를 제외한 다른 출신국은 ‘통역·번역 서비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4-26>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29.4%로 가장 높고,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17.8%), ‘환불·손해배상’(9.4%), ‘약관·계약사항 설명’(5.3%) 순이다. ‘불만사항 없음’은 20.2%이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불만사항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중단 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과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환불 손해 배상’ 사항이 불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과 ‘숙소 제공’ 사항이 불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4-27>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단위: 명, %)

	(N)	배우자의 신상 정보 제공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 관리 서비스	환불 손해 배상	약관 계약 사항 설명	추가 비용 요구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 신고 등)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숙소 제공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기타	불만 사항 없음	계
□ 전체 □	(415)	29.4	17.8	9.4	5.3	5.1	4.6	2.7	0.2	0.2	5.1	20.2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31.3	17.2	7.3	3.9	6.4	5.6	3.4	0.0	0.4	4.3	20.2	100.0
별거	(86)	25.6	16.3	5.8	9.3	2.3	4.7	1.2	0.0	0.0	5.8	29.1	100.0
가출	(96)	28.1	20.8	17.7	5.2	4.2	2.1	2.1	1.0	0.0	6.3	12.5	100.0
연령													
39세 이하	(79)	24.1	13.9	8.9	8.9	7.6	5.1	3.8	0.0	0.0	5.1	22.8	100.0
40-49세	(240)	30.4	21.3	10.8	4.2	4.6	3.8	2.1	0.4	0.0	4.2	18.3	100.0
50세 이상	(96)	31.3	12.5	6.3	5.2	4.2	6.3	3.1	0.0	1.0	7.3	22.9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5.6	7.0	14.0	2.3	4.7	7.0	4.7	2.3	0.0	7.0	25.6	100.0
고등학교	(223)	30.0	20.2	6.7	6.7	4.0	5.4	2.7	0.0	0.4	4.0	19.7	100.0
대학교 이상	(149)	29.5	17.4	12.1	4.0	6.7	2.7	2.0	0.0	0.0	6.0	19.5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7.7	18.8	9.6	6.2	3.5	4.6	2.7	0.4	0.4	5.4	20.8	100.0
비임금근로자	(119)	35.3	17.6	8.4	2.5	5.9	3.4	3.4	0.0	0.0	5.0	18.5	100.0
미취업자	(36)	22.2	11.1	11.1	8.3	13.9	8.3	0.0	0.0	0.0	2.8	22.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2.7	17.3	14.7	2.7	5.3	6.7	2.7	0.0	0.0	8.0	20.0	100.0
200-299만원	(148)	25.0	17.6	10.1	6.8	4.1	5.4	3.4	0.7	0.0	4.7	22.3	100.0
300-399만원	(85)	36.5	24.7	5.9	4.7	3.5	2.4	1.2	0.0	1.2	5.9	14.1	100.0
400만원 이상	(59)	44.1	11.9	5.1	5.1	5.1	1.7	3.4	0.0	0.0	3.4	20.3	100.0
미취업자 등	(48)	22.9	14.6	10.4	6.3	10.4	6.3	2.1	0.0	0.0	2.1	25.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6.3	17.6	10.2	4.7	5.1	4.7	3.5	0.4	0.4	4.7	22.4	100.0
중국	(45)	37.8	13.3	11.1	8.9	2.2	2.2	0.0	0.0	0.0	6.7	17.8	100.0
필리핀	(34)	20.6	35.3	5.9	2.9	8.8	8.8	0.0	0.0	0.0	0.0	17.6	100.0
캄보디아	(20)	25.0	20.0	5.0	5.0	0.0	5.0	5.0	0.0	0.0	0.0	3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59.3	14.8	11.1	3.7	7.4	0.0	0.0	0.0	0.0	3.7	0.0	100.0
기타	(34)	29.4	8.8	5.9	8.8	5.9	5.9	2.9	0.0	0.0	14.7	17.6	100.0

혼인상태별로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은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환불·손해배상’ 순이며, 가출상태인 경우 ‘환불·손해배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17.7%로 이혼(7.3%) 및 별거(5.8%)보다 높다(표 4-27). 연령별로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은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환불·손해배상’ 순으로 높으며,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최종학력별로 고졸 및 대졸 이상은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순으로 높으나, 중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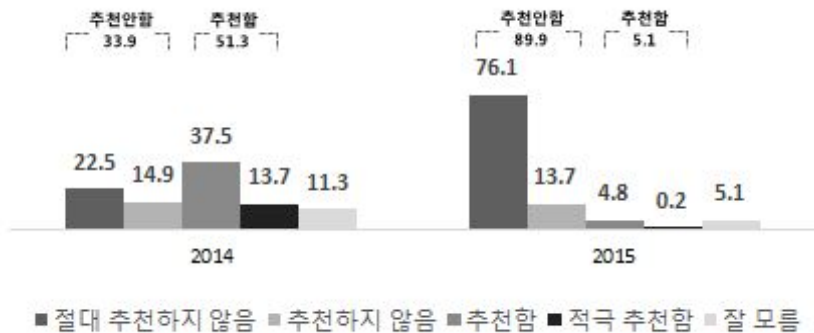
이하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 가장 높고, ‘환불·손해배상’ 및 ‘맞선 이후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7.0%로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순으로 높으나, 미취업자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 가장 높고, ‘추가비용 요구’ 순이다. 월평균 임금별로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순이며,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은 월평균 임금이 많을수록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59.3%), 중국(37.8%)은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필리핀(35.3%)은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가 가장 높다.

<표 4-28>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② 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	①+②	③ 추천할 것 같다	④ 적극 추천할 것이다	③+④	잘 모르겠다	계	평균(점)
2015	(415)	76.1	13.7	89.9	4.8	0.2	5.1	5.1	100.0	1.3
2014	(800)	22.5	14.9	33.9	37.5	13.7	51.3	11.3	100.0	3.2



[그림 4-11]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2014-2015년

<표 4-28>에서 혼인중단 남성에게 지인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겠다고 할 경우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추천할 의향이 없다(절대 추천하

지 않을 것이다+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89.9%로 10명 중 9명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1점, 적극 추천할 것이다 4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도 1.3점으로 매우 낮다.

반면,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는 '추천할 의향이 없다(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33.9%, '추천할 의향이 있다(추천할 것 같다+적극 추천할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51.3%로 더 높다.

<표 4-29>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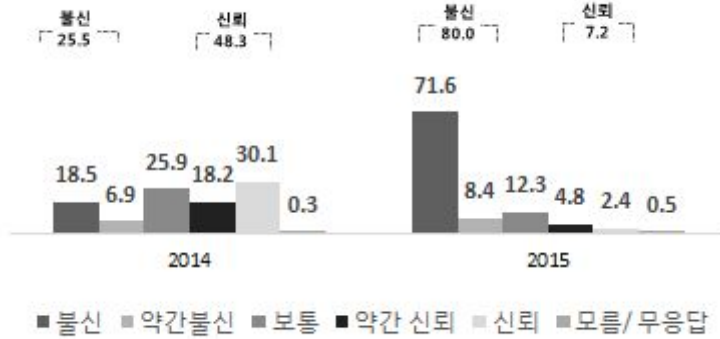
(단위: 명, %)

	(N)	① 절대 추천 하지 않을 것이다	② 추천 하지 않을 것 같다	①+②	③ 추천 할 것 같다	④ 적극 추천할 것이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점)
■ 전체 ■	(415)	76.1	13.7	89.9	4.8	0.2	5.1	5.1	100.0	1.3
혼인상태										
이혼	(233)	74.7	15.9	90.6	4.3	0.0	4.3	5.2	100.0	1.3
별거	(86)	73.3	12.8	86.0	7.0	1.2	8.1	5.8	100.0	1.3
가출	(96)	82.3	9.4	91.7	4.2	0.0	4.2	4.2	100.0	1.2
연령										
39세 이하	(79)	77.2	10.1	87.3	7.6	0.0	7.6	5.1	100.0	1.3
40-49세	(240)	76.3	15.0	91.3	4.2	0.0	4.2	4.6	100.0	1.2
50세 이상	(96)	75.0	13.5	88.5	4.2	1.0	5.2	6.3	100.0	1.3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67.4	23.3	90.7	2.3	2.3	4.7	4.7	100.0	1.4
고등학교	(223)	75.8	12.1	87.9	5.8	0.0	5.8	6.3	100.0	1.3
대학교 이상	(149)	79.2	13.4	92.6	4.0	0.0	4.0	3.4	100.0	1.2
중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73.8	15.4	89.2	4.6	0.0	4.6	6.2	100.0	1.3
비임금근로자	(119)	79.0	12.6	91.6	5.0	0.0	5.0	3.4	100.0	1.2
미취업자	(36)	83.3	5.6	88.9	5.6	2.8	8.3	2.8	100.0	1.3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73.3	20.0	93.3	1.3	0.0	1.3	5.3	100.0	1.2
200-299만원	(148)	75.7	12.8	88.5	6.1	0.0	6.1	5.4	100.0	1.3
300-399만원	(85)	78.8	8.2	87.1	7.1	0.0	7.1	5.9	100.0	1.2
400만원 이상	(59)	74.6	20.3	94.9	0.0	0.0	0.0	5.1	100.0	1.2
미취업자 등	(48)	79.2	8.3	87.5	8.3	2.1	10.4	2.1	100.0	1.3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76.5	12.9	89.4	5.9	0.0	5.9	4.7	100.0	1.3
중국	(45)	75.6	13.3	88.9	8.9	2.2	11.1	0.0	100.0	1.4
필리핀	(34)	61.8	23.5	85.3	2.9	0.0	2.9	11.8	100.0	1.3
캄보디아	(20)	85.0	5.0	90.0	0.0	0.0	0.0	10.0	100.0	1.1
우즈베키스탄	(27)	77.8	18.5	96.3	0.0	0.0	0.0	3.7	100.0	1.2
기타	(34)	82.4	11.8	94.1	0.0	0.0	0.0	5.9	100.0	1.1

<표 4-30>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정도,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불신	② 약간 불신	①+②	③ 보통	④ 약간 신뢰	⑤ 신뢰	④+⑤	모름·무 응답	계	평균 (점)
2015	(415)	71.6	8.4	80.0	12.3	4.8	2.4	7.2	0.5	100.0	1.6
2014	(800)	18.5	6.9	25.5	25.9	18.2	30.1	48.3	0.3	100.0	3.3



[그림 4-12]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정도, 2014-2015년

모든 세부특성별로 ‘추천할 의향이 없다(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80%이상으로 현저히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가솔이 91.7%로 가장 높다(표 4-29). 연령별로는 40-49세(91.3%), 최종학력별로는 대졸 이상(92.6%),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91.6%),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94.9%),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96.3%)이 가장 높다.

<표 4-30>에서 혼인중단 남성에게 본인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한 결과, ‘신뢰(약간 신뢰+신뢰)’라는 응답 비율은 7.2%, ‘불신(불신+약간 불신)’이라는 응답 비율은 80.0%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는 ‘신뢰(약간 신뢰+신뢰)’라는 응답 비율이 48.3%로 불신한다는 응답 비율 25.5%보다 높다.

모든 세부특성별로 ‘불신(불신+약간 불신)’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이 81.1%로 가장 높다(표 4-31). 또한 연령은 높을수록 불신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 대졸 이상(81.9%),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86.1%),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임금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92.6%)이 높다.

<표 4-31> 국제결혼 중개업체 신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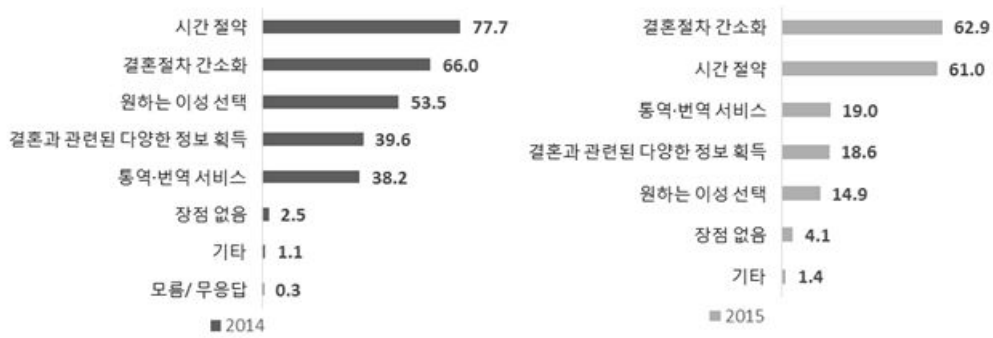
(단위: 명, %)

	(N)	① 불신	② 약간 불신	①+②	③ 보통	④ 약간 신뢰	⑤ 신뢰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415)	71.6	8.4	80.0	12.3	4.8	2.4	7.2	0.5	100.0	1.6
혼인상태											
이혼	(233)	72.5	8.6	81.1	13.3	4.3	1.3	5.6	0.0	100.0	1.5
별거	(86)	66.3	10.5	76.7	11.6	4.7	7.0	11.6	0.0	100.0	1.8
가출	(96)	74.0	6.3	80.2	10.4	6.3	1.0	7.3	2.1	100.0	1.5
연령											
39세 이하	(79)	69.6	8.9	78.5	16.5	1.3	1.3	2.5	2.5	100.0	1.5
40-49세	(240)	70.4	9.6	80.0	12.5	6.3	1.3	7.5	0.0	100.0	1.6
50세 이상	(96)	76.0	5.2	81.3	8.3	4.2	6.3	10.4	0.0	100.0	1.6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67.4	11.6	79.1	11.6	7.0	2.3	9.3	0.0	100.0	1.7
고등학교	(223)	70.9	8.1	78.9	11.7	4.9	3.6	8.5	0.9	100.0	1.6
대학교 이상	(149)	73.8	8.1	81.9	13.4	4.0	0.7	4.7	0.0	100.0	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9.2	8.1	77.3	15.0	4.6	2.3	6.9	0.8	100.0	1.6
비임금근로자	(119)	76.5	7.6	84.0	9.2	4.2	2.5	6.7	0.0	100.0	1.5
미취업자	(36)	72.2	13.9	86.1	2.8	8.3	2.8	11.1	0.0	100.0	1.6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64.0	9.3	73.3	17.3	6.7	0.0	6.7	2.7	100.0	1.7
200-299만원	(148)	70.3	8.1	78.4	12.8	4.7	4.1	8.8	0.0	100.0	1.6
300-399만원	(85)	71.8	9.4	81.2	12.9	3.5	2.4	5.9	0.0	100.0	1.6
400만원 이상	(59)	86.4	1.7	88.1	10.2	0.0	1.7	1.7	0.0	100.0	1.3
미취업자 등	(48)	68.8	14.6	83.3	4.2	10.4	2.1	12.5	0.0	100.0	1.6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68.6	8.6	77.3	13.3	6.3	2.7	9.0	0.4	100.0	1.7
중국	(45)	80.0	8.9	88.9	6.7	2.2	2.2	4.4	0.0	100.0	1.4
필리핀	(34)	58.8	8.8	67.6	23.5	2.9	2.9	5.9	2.9	100.0	1.8
캄보디아	(20)	80.0	10.0	90.0	10.0	0.0	0.0	0.0	0.0	100.0	1.3
우즈베키스탄	(27)	85.2	7.4	92.6	3.7	0.0	3.7	3.7	0.0	100.0	1.3
기타	(34)	79.4	5.9	85.3	8.8	5.9	0.0	5.9	0.0	100.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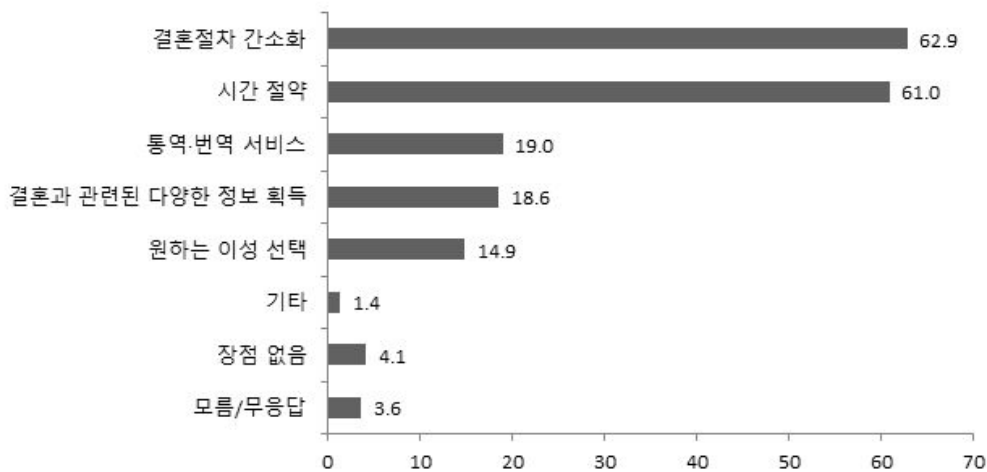
<표 4-32> 국제결혼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014-2015년

(단위: 명, %)

	(N)	시간 절약	결혼절차 간소화	원하는 이성 선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	통역·번역 서비스	기타	장점 없음	모름·무응 답
2015	(415)	61.0	62.9	14.9	18.6	19.0	1.4	4.1	3.6
2014	(800)	77.7	66.0	53.5	39.6	38.2	1.1	2.5	0.3



[그림 4-13] 국제결혼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014-2015년



[그림 4-14]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접촉하여 도움을 받는 것의 장점을 1-2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한 결과(표 4-32),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62.9%로 가장 높고 ‘시간절약’(61.0%), ‘통역·번역 서비스’(19.0%),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18.6%), ‘원하는 이성선택’(14.9%) 순이다. ‘장점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4.1%였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역시 ‘시간 절약’과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단, 혼인증단 남성은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는 ‘시간 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4-33>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

(단위: 명, %)

	(N)	결혼절차 간소화	시간 절약	통역번역 서비스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	원하는 이성 선택	기타	장점 없음	모름·무응답
▣ 전체 ▣	(415)	62.9	61.0	19.0	18.6	14.9	1.4	4.1	3.6
혼인상태									
이혼	(233)	63.1	62.2	18.9	18.5	14.6	2.1	5.2	1.3
별거	(86)	66.3	64.0	18.6	10.5	10.5	0.0	5.8	5.8
가출	(96)	59.4	55.2	19.8	26.0	19.8	1.0	0.0	7.3
연령									
39세 이하	(79)	58.2	60.8	21.5	21.5	17.7	1.3	3.8	3.8
40-49세	(240)	63.8	59.6	20.0	18.8	12.9	2.1	3.3	4.6
50세 이상	(96)	64.6	64.6	14.6	15.6	17.7	0.0	6.3	1.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69.8	58.1	11.6	14.0	18.6	0.0	7.0	4.7
고등학교	(223)	62.8	61.0	21.5	20.6	14.3	0.4	2.2	4.5
대학교 이상	(149)	61.1	61.7	17.4	16.8	14.8	3.4	6.0	2.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2.7	61.2	18.8	18.8	16.2	1.5	4.2	2.3
비임금근로자	(119)	58.0	60.5	21.8	20.2	10.9	1.7	3.4	7.6
미취업자	(36)	80.6	61.1	11.1	11.1	19.4	0.0	5.6	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73.3	61.3	18.7	10.7	16.0	2.7	4.0	1.3
200-299만원	(148)	60.1	68.9	18.2	18.2	15.5	0.7	4.7	1.4
300-399만원	(85)	60.0	52.9	22.4	21.2	12.9	3.5	1.2	8.2
400만원 이상	(59)	54.2	49.2	23.7	28.8	10.2	0.0	6.8	6.8
미취업자 등	(48)	70.8	64.6	10.4	14.6	20.8	0.0	4.2	2.1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62.7	60.0	18.8	21.2	17.6	1.2	3.1	3.1
중국	(45)	55.6	57.8	22.2	8.9	4.4	4.4	13.3	2.2
필리핀	(34)	73.5	58.8	8.8	8.8	20.6	2.9	5.9	5.9
캄보디아	(20)	70.0	65.0	25.0	10.0	5.0	0.0	5.0	5.0
우즈베키스탄	(27)	59.3	66.7	22.2	22.2	14.8	0.0	0.0	7.4
기타	(34)	61.8	67.6	20.6	23.5	8.8	0.0	0.0	2.9

<표 4-33>에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결혼절차 간소화’, ‘시간절약’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으며, 두 항목 모두 별거 상태인 경우 더 높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의 ‘시간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60.8%로 가장 높고, 40-49세는 ‘결혼절차 간소화’가 63.8%로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와 고졸은 ‘결혼절차 간소화’, ‘시간절약’ 순으로 높으며, 대졸 이상은 ‘시간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61.7% 약간 더 높다. 또한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으며, ‘시간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만 ‘시간절

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에는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200-299만원인 경우만 '시간절약', '결혼절차 간소화' 순이며, 그 외에는 '결혼절차 간소화'가 더 높으며,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은 임금이 낮을수록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은 필리핀이 73.5%로 가장 높고, '시간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은 기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66.7%)이 가장 높다.

제 5 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현재 한국 법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맞선 전에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표 5-1>에서 총 7가지 국제결혼 피해예방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그 중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9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통역·번역 서비스(95.9%),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94.7%),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94.0%), 미성년자 소개 금지(93.7%), 휴업·폐업 신고(92.8%) 등의 순이다. 결혼 전 현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63.1%로 가장 낮고 집단맞선 금지(76.9%) 순으로 낮다.

<표 5-1>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명, %)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 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 답	평균 (점)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0.2	0.7	1.0	0.7	16.6	81.7	98.3	0.0	4.8
통역·번역 서비스	0.2	0.7	1.0	3.1	29.4	66.5	95.9	0.0	4.6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0.2	0.5	0.7	4.6	23.1	71.6	94.7	0.0	4.7
집단맞선 금지	2.4	7.2	9.6	13.3	28.9	48.0	76.9	0.2	4.1
휴업·폐업 신고	0.2	1.2	1.4	5.8	28.9	63.9	92.8	0.0	4.5
미성년자 소개 금지	1.0	0.5	1.4	4.8	23.1	70.6	93.7	0.0	4.6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0.2	1.7	1.9	4.1	27.2	66.7	94.0	0.0	4.6
결혼 전 현지 사전 교육	8.4	9.9	18.3	17.6	29.9	33.3	63.1	1.0	3.7

<표 5-2>에서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동일한 항목을 비교한 결과, 결혼 전 현지 사전 교육 항목을 제외하고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라는 응답 비율은 본 조사 결과 약간 더 높으며, 두 조사 결과 모두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과 통역·번역 서비스 항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 5-2>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 필요 정도,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무 응답	계	평균 (점)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2015	(415)	0.2	0.7	1.0	0.7	16.6	81.7	98.3	0.0	100.0	4.8
2014	(800)	0.4	1.5	1.9	3.2	16.4	78.1	94.5	0.4	100.0	4.7
통역·번역 서비스											
2015	(415)	0.2	0.7	1.0	3.1	29.4	66.5	95.9	0.0	100.0	4.6
2014	(800)	0.1	1.1	1.2	2.9	16.6	78.9	95.5	0.4	100.0	4.7
결혼 전 현지 사전 교육											
2015	(415)	8.4	9.9	18.3	17.6	29.9	33.3	63.1	1.0	100.0	3.7
2014	(800)	5.3	8.4	13.7	8.8	30.6	46.5	77.1	0.3	100.0	4.0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8.3%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맞선 전에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을 전혀 불필요에서 매우 필요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여 계산한 평균점수는 4.6점이다.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95% 이상으로 높으며, ‘필요 없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이혼(1.3%), 연령별로는 39세 이하(1.3%), 최종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7%), 종사상 지위와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5.6%, 4.2%),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2.2%)이 상대적으로 높다.

심층면접 응답자들은 대체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제결혼 중개 실태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회의적이다.

업체는 자기들은 신부를 꼼꼼하게 신원체크 했다고 하는데 실제 맞선 보는 날 보 여준 행동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맞선 볼 때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방법이, 현지 브로커들이 여기 저기 데리고 다니는 여성을 데리고 오거든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일에 신부를 데리고 와요. 진짜 한국의 결혼 업체가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를 이쪽에 돌리고 저쪽에 돌리고, 마구잡이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줬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사례 #A24, 남, 48세, 2012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춘천거주].

일부 응답자는 배우자 출신국의 신상정보 확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겠죠, 다 거짓.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80 노인도 처녀라고 하고 올 판인데. 그리고 서류상으로 맞으면 이상이 없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거거든요[사례 #A12, 남, 57세, 2006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대전거주].

<표 5-3>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 정도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415)	0.2	0.7	1.0	0.7	16.6	81.7	98.3	100.0	4.8
혼인상태										
이혼	(233)	0.4	0.9	1.3	0.9	16.7	81.1	97.9	100.0	4.8
별거	(86)	0.0	1.2	1.2	0.0	16.3	82.6	98.8	100.0	4.8
가출	(96)	0.0	0.0	0.0	1.0	16.7	82.3	99.0	100.0	4.8
연령										
39세 이하	(79)	0.0	1.3	1.3	0.0	10.1	88.6	98.7	100.0	4.9
40-49세	(240)	0.4	0.4	0.8	1.3	17.9	80.0	97.9	100.0	4.8
50세 이상	(96)	0.0	1.0	1.0	0.0	18.8	80.2	99.0	100.0	4.8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0.0	4.7	4.7	0.0	23.3	72.1	95.3	100.0	4.6
고등학교	(223)	0.0	0.0	0.0	1.3	15.2	83.4	98.7	100.0	4.8
대학교 이상	(149)	0.7	0.7	1.3	0.0	16.8	81.9	98.7	100.0	4.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0.4	0.4	0.8	0.8	17.3	81.2	98.5	100.0	4.8
비임금근로자	(119)	0.0	0.0	0.0	0.8	17.6	81.5	99.2	100.0	4.8
미취업자	(36)	0.0	5.6	5.6	0.0	8.3	86.1	94.4	100.0	4.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0.0	1.3	1.3	2.7	10.7	85.3	96.0	100.0	4.8
200-299만원	(148)	0.0	0.0	0.0	0.0	26.4	73.6	100.0	100.0	4.7
300-399만원	(85)	1.2	0.0	1.2	1.2	8.2	89.4	97.6	100.0	4.8
400만원 이상	(59)	0.0	0.0	0.0	0.0	15.3	84.7	100.0	100.0	4.8
미취업자 등	(48)	0.0	4.2	4.2	0.0	12.5	83.3	95.8	100.0	4.8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0.4	0.8	1.2	0.8	19.2	78.8	98.0	100.0	4.8
중국	(45)	0.0	2.2	2.2	0.0	11.1	86.7	97.8	100.0	4.8
필리핀	(34)	0.0	0.0	0.0	2.9	17.6	79.4	97.1	100.0	4.8
캄보디아	(20)	0.0	0.0	0.0	0.0	20.0	80.0	100.0	100.0	4.8
우즈베키스탄	(27)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5.0
기타	(34)	0.0	0.0	0.0	0.0	14.7	85.3	100.0	100.0	4.9

<표 5-4>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5.9%로 매우 높고, 평균점수는 4.6점이다.

<표 5-4>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415)	0.2	0.7	1.0	3.1	29.4	66.5	95.9	100.0	4.6
혼인상태										
이혼	(233)	0.4	0.9	1.3	3.9	26.2	68.7	94.8	100.0	4.6
별거	(86)	0.0	1.2	1.2	2.3	32.6	64.0	96.5	100.0	4.6
가출	(96)	0.0	0.0	0.0	2.1	34.4	63.5	97.9	100.0	4.6
연령										
39세 이하	(79)	0.0	0.0	0.0	3.8	26.6	69.6	96.2	100.0	4.7
40-49세	(240)	0.4	0.8	1.3	2.9	32.5	63.3	95.8	100.0	4.6
50세 이상	(96)	0.0	1.0	1.0	3.1	24.0	71.9	95.8	100.0	4.7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0.0	4.7	4.7	4.7	34.9	55.8	90.7	100.0	4.4
고등학교	(223)	0.4	0.4	0.9	2.2	28.3	68.6	96.9	100.0	4.6
대학교 이상	(149)	0.0	0.0	0.0	4.0	29.5	66.4	96.0	100.0	4.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0.0	0.8	0.8	3.5	31.9	63.8	95.8	100.0	4.6
비임금근로자	(119)	0.8	0.8	1.7	2.5	26.1	69.7	95.8	100.0	4.6
미취업자	(36)	0.0	0.0	0.0	2.8	22.2	75.0	97.2	100.0	4.7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0.0	2.7	2.7	4.0	32.0	61.3	93.3	100.0	4.5
200-299만원	(148)	0.0	0.0	0.0	1.4	35.1	63.5	98.6	100.0	4.6
300-399만원	(85)	1.2	0.0	1.2	4.7	20.0	74.1	94.1	100.0	4.7
400만원 이상	(59)	0.0	1.7	1.7	5.1	28.8	64.4	93.2	100.0	4.6
미취업자 등	(48)	0.0	0.0	0.0	2.1	25.0	72.9	97.9	100.0	4.7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0.0	0.4	0.4	1.6	30.6	67.5	98.0	100.0	4.7
중국	(45)	2.2	2.2	4.4	4.4	24.4	66.7	91.1	100.0	4.5
필리핀	(34)	0.0	2.9	2.9	11.8	35.3	50.0	85.3	100.0	4.3
캄보디아	(20)	0.0	0.0	0.0	0.0	30.0	70.0	100.0	100.0	4.7
우즈베키스탄	(27)	0.0	0.0	0.0	3.7	29.6	66.7	96.3	100.0	4.6
기타	(34)	0.0	0.0	0.0	5.9	20.6	73.5	94.1	100.0	4.7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으며, ‘필요 없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이혼(1.3%), 연령별로는 40-49세(1.3%), 최종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7%),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7%),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2.7%),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2.9%)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5-5>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4.7%로 매우 높고, 평균점수는 4.7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으며, ‘필요 없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가출(2.1%), 연령별로는 40-49세(1.3%),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0.9%),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0.8%),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2.1%),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베트남(1.2%)이 상대적으로 높다.

심층면접 응답자들은 현재도 업체가 손해배상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시켜서라도 피해 보상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표 5-5>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 정도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415)	0.2	0.5	0.7	4.6	23.1	71.6	94.7	100.0	4.7
혼인상태										
이혼	(233)	0.4	0.0	0.4	5.2	24.9	69.5	94.4	100.0	4.6
별거	(86)	0.0	0.0	0.0	5.8	19.8	74.4	94.2	100.0	4.7
가출	(96)	0.0	2.1	2.1	2.1	21.9	74.0	95.8	100.0	4.7
연령										
39세 이하	(79)	0.0	0.0	0.0	2.5	25.3	72.2	97.5	100.0	4.7
40-49세	(240)	0.4	0.8	1.3	5.0	21.3	72.5	93.8	100.0	4.6
50세 이상	(96)	0.0	0.0	0.0	5.2	26.0	68.8	94.8	100.0	4.6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0.0	0.0	0.0	11.6	18.6	69.8	88.4	100.0	4.6
고등학교	(223)	0.0	0.9	0.9	4.0	25.1	70.0	95.1	100.0	4.6
대학교 이상	(149)	0.7	0.0	0.7	3.4	21.5	74.5	96.0	100.0	4.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0.4	0.4	0.8	5.4	24.2	69.6	93.8	100.0	4.6
비임금근로자	(119)	0.0	0.8	0.8	3.4	21.8	73.9	95.8	100.0	4.7
미취업자	(36)	0.0	0.0	0.0	2.8	19.4	77.8	97.2	100.0	4.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0.0	0.0	0.0	6.7	20.0	73.3	93.3	100.0	4.7
200-299만원	(148)	0.0	0.7	0.7	2.7	25.0	71.6	96.6	100.0	4.7
300-399만원	(85)	1.2	0.0	1.2	5.9	22.4	70.6	92.9	100.0	4.6
400만원 이상	(59)	0.0	0.0	0.0	5.1	23.7	71.2	94.9	100.0	4.7
미취업자 등	(48)	0.0	2.1	2.1	4.2	22.9	70.8	93.8	100.0	4.6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0.4	0.8	1.2	4.3	22.7	71.8	94.5	100.0	4.6
중국	(45)	0.0	0.0	0.0	4.4	20.0	75.6	95.6	100.0	4.7
필리핀	(34)	0.0	0.0	0.0	5.9	35.3	58.8	94.1	100.0	4.5
캄보디아	(20)	0.0	0.0	0.0	0.0	35.0	65.0	100.0	100.0	4.7
우즈베키스탄	(27)	0.0	0.0	0.0	0.0	11.1	88.9	100.0	100.0	4.9
기타	(34)	0.0	0.0	0.0	11.8	20.6	67.6	88.2	100.0	4.6

저도 이게,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결혼업체의 손해배상 비용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너무 낮다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죠.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결혼업체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도 그런 상황인데[사례 #A24, 남, 489세, 2010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춘천거주].

또한 보험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하더라도 업체가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배상 폭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조금은 책임감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억인가 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최종 판결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신상정보를 누가 속였다고 해서 판결이 난다, 법원에서, 그러면 보증 보험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일부는 업체에서 배상하게 해야죠, 그래야 책임감이 있게 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요. 조금이라도 부담해야죠. 보증보험에서 나가는 거 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다르잖아요[사례 #A13, 남, 47세, 2011년 결혼, 배우자 국적 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거주].

중요한 점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폐업을 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보험에 가입시키더라도 폐업을 해 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표 5-6>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집단맞선 금지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76.9%로 높고, 평균점수는 4.1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으며, ‘필요 없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이혼(10.7%), 연령별로는 40-49세(10.8%), 최종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1.6%),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11.1%),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임금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표본수가 적은 국가를 제외하고 베트남(11.8%)이 상대적으로 높다.

집단 맞선 금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집단 맞선을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경우 여전히 집단 맞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요 없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남성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맞선 금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응답을 했다. 이들은 이 문제가 여성의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인식은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모르겠어요. 글썽 10명까지는 그런가? 한 2-3명씩 보는 건 괜찮지 않아요? 그냥 전 보통이에요. 보통이라고 답할게요. 금지해야 한다. 글썽, 금지 까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이에요. 보통[사례 #14, 남, 57세, 2006년 결혼, 배우자 국적 중국, 이혼, 대전 거주].

<표 5-6> 집단맞선 금지 필요 정도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 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415)	2.4	7.2	9.6	13.3	28.9	48.0	76.9	0.2	100.0	4.1
혼인상태											
이혼	(233)	3.4	7.3	10.7	15.5	27.9	45.5	73.4	0.4	100.0	4.1
별거	(86)	2.3	5.8	8.1	10.5	23.3	58.1	81.4	0.0	100.0	4.3
가출	(96)	0.0	8.3	8.3	10.4	36.5	44.8	81.3	0.0	100.0	4.2
연령											
39세 이하	(79)	2.5	7.6	10.1	11.4	24.1	54.4	78.5	0.0	100.0	4.2
40-49세	(240)	2.9	7.9	10.8	11.7	29.2	47.9	77.1	0.4	100.0	4.1
50세 이상	(96)	1.0	5.2	6.3	18.8	32.3	42.7	75.0	0.0	100.0	4.1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0.0	11.6	11.6	16.3	32.6	39.5	72.1	0.0	100.0	4.0
고등학교	(223)	2.2	7.2	9.4	14.8	24.7	50.7	75.3	0.4	100.0	4.1
대학교 이상	(149)	3.4	6.0	9.4	10.1	34.2	46.3	80.5	0.0	100.0	4.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3	7.7	10.0	14.2	28.1	47.3	75.4	0.4	100.0	4.1
비임금근로자	(119)	3.4	5.0	8.4	12.6	30.3	48.7	79.0	0.0	100.0	4.2
미취업자	(36)	0.0	11.1	11.1	8.3	30.6	50.0	80.6	0.0	100.0	4.2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4.0	8.0	12.0	14.7	29.3	44.0	73.3	0.0	100.0	4.0
200-299만원	(148)	2.7	7.4	10.1	12.2	33.1	43.9	77.0	0.7	100.0	4.1
300-399만원	(85)	3.5	3.5	7.1	14.1	30.6	48.2	78.8	0.0	100.0	4.2
400만원 이상	(59)	0.0	6.8	6.8	15.3	16.9	61.0	78.0	0.0	100.0	4.3
미취업자 등	(48)	0.0	12.5	12.5	10.4	27.1	50.0	77.1	0.0	100.0	4.1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4	9.4	11.8	14.1	28.2	45.5	73.7	0.4	100.0	4.1
중국	(45)	4.4	4.4	8.9	11.1	31.1	48.9	80.0	0.0	100.0	4.2
필리핀	(34)	0.0	2.9	2.9	14.7	35.3	47.1	82.4	0.0	100.0	4.3
캄보디아	(20)	5.0	10.0	15.0	30.0	10.0	45.0	55.0	0.0	100.0	3.8
우즈베키스탄	(27)	0.0	0.0	0.0	3.7	29.6	66.7	96.3	0.0	100.0	4.6
기타	(34)	2.9	2.9	5.9	5.9	35.3	52.9	88.2	0.0	100.0	4.3

<표 5-7>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휴업·폐업 신고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2.8%로 높고, 평균점수는 4.5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으며, ‘필요 없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가출(2.1%), 연령별로는 40-49세(2.1%), 최종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2.3%),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7%),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2.7%),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표본수가 적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2.2%)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5-7>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 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415)	0.2	1.2	1.4	5.8	28.9	63.9	92.8	100.0	4.5
혼인상태										
이혼	(233)	0.4	1.3	1.7	6.4	27.9	63.9	91.8	100.0	4.5
별거	(86)	0.0	0.0	0.0	9.3	18.6	72.1	90.7	100.0	4.6
가출	(96)	0.0	2.1	2.1	1.0	40.6	56.3	96.9	100.0	4.5
연령										
39세 이하	(79)	0.0	0.0	0.0	3.8	27.8	68.4	96.2	100.0	4.6
40-49세	(240)	0.4	1.7	2.1	6.7	26.3	65.0	91.3	100.0	4.5
50세 이상	(96)	0.0	1.0	1.0	5.2	36.5	57.3	93.8	100.0	4.5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0.0	2.3	2.3	11.6	30.2	55.8	86.0	100.0	4.4
고등학교	(223)	0.0	1.8	1.8	6.7	26.9	64.6	91.5	100.0	4.5
대학교 이상	(149)	0.7	0.0	0.7	2.7	31.5	65.1	96.6	100.0	4.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0.4	1.2	1.5	6.5	29.6	62.3	91.9	100.0	4.5
비임금근로자	(119)	0.0	1.7	1.7	4.2	28.6	65.5	94.1	100.0	4.6
미취업자	(36)	0.0	0.0	0.0	5.6	25.0	69.4	94.4	100.0	4.6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0.0	2.7	2.7	6.7	29.3	61.3	90.7	100.0	4.5
200-299만원	(148)	0.7	0.7	1.4	4.7	32.4	61.5	93.9	100.0	4.5
300-399만원	(85)	0.0	1.2	1.2	4.7	27.1	67.1	94.1	100.0	4.6
400만원 이상	(59)	0.0	0.0	0.0	8.5	22.0	69.5	91.5	100.0	4.6
미취업자 등	(48)	0.0	2.1	2.1	6.3	29.2	62.5	91.7	100.0	4.5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0.0	1.6	1.6	6.3	30.2	62.0	92.2	100.0	4.5
중국	(45)	0.0	2.2	2.2	4.4	26.7	66.7	93.3	100.0	4.6
필리핀	(34)	0.0	0.0	0.0	8.8	29.4	61.8	91.2	100.0	4.5
캄보디아	(20)	5.0	0.0	5.0	5.0	40.0	50.0	90.0	100.0	4.3
우즈베키스탄	(27)	0.0	0.0	0.0	0.0	18.5	81.5	100.0	100.0	4.8
기타	(34)	0.0	0.0	0.0	5.9	23.5	70.6	94.1	100.0	4.6

<표 5-8>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소개 금지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3.7%로 매우 높고, 평균 점수는 4.6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85% 이상으로 높으며, ‘필요 없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가출(2.1%), 연령별로는 50세 이상(2.1%),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2.2%),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7%),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4.0%),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2.9%)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5-8>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 정도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415)	1.0	0.5	1.4	4.8	23.1	70.6	93.7	100.0	4.6
혼인상태										
이혼	(233)	1.3	0.0	1.3	5.2	23.2	70.4	93.6	100.0	4.6
별거	(86)	1.2	0.0	1.2	4.7	15.1	79.1	94.2	100.0	4.7
가출	(96)	0.0	2.1	2.1	4.2	30.2	63.5	93.8	100.0	4.6
연령										
39세 이하	(79)	1.3	0.0	1.3	2.5	21.5	74.7	96.2	100.0	4.7
40-49세	(240)	0.8	0.4	1.3	4.2	23.3	71.3	94.6	100.0	4.6
50세 이상	(96)	1.0	1.0	2.1	8.3	24.0	65.6	89.6	100.0	4.5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0.0	0.0	0.0	14.0	16.3	69.8	86.0	100.0	4.6
고등학교	(223)	1.3	0.9	2.2	4.0	24.2	69.5	93.7	100.0	4.6
대학교 이상	(149)	0.7	0.0	0.7	3.4	23.5	72.5	96.0	100.0	4.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0.8	0.8	1.5	5.8	23.8	68.8	92.7	100.0	4.6
비임금근로자	(119)	1.7	0.0	1.7	3.4	21.8	73.1	95.0	100.0	4.6
미취업자	(36)	0.0	0.0	0.0	2.8	22.2	75.0	97.2	100.0	4.7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7	1.3	4.0	9.3	17.3	69.3	86.7	100.0	4.5
200-299만원	(148)	0.0	0.7	0.7	4.1	30.4	64.9	95.3	100.0	4.6
300-399만원	(85)	1.2	0.0	1.2	1.2	20.0	77.6	97.6	100.0	4.7
400만원 이상	(59)	1.7	0.0	1.7	8.5	16.9	72.9	89.8	100.0	4.6
미취업자 등	(48)	0.0	0.0	0.0	2.1	22.9	75.0	97.9	100.0	4.7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0.8	0.4	1.2	4.3	26.3	68.2	94.5	100.0	4.6
중국	(45)	2.2	0.0	2.2	6.7	20.0	71.1	91.1	100.0	4.6
필리핀	(34)	0.0	2.9	2.9	2.9	29.4	64.7	94.1	100.0	4.6
캄보디아	(20)	0.0	0.0	0.0	20.0	15.0	65.0	80.0	100.0	4.5
우즈베키스탄	(27)	0.0	0.0	0.0	3.7	7.4	88.9	96.3	100.0	4.9
기타	(34)	2.9	0.0	2.9	0.0	14.7	82.4	97.1	100.0	4.7

<표 5-9>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 등 서류를 5년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4.0%로 매우 높고, 평균점수는 4.6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으며, ‘필요 없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4.7%), 연령별로는 40-49세와 50세 이상(2.1%),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2.7%),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3.4%),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5.1%),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2.9%)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5-9>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415)	0.2	1.7	1.9	4.1	27.2	66.7	94.0	100.0	4.6
혼인상태										
이혼	(233)	0.4	0.0	0.4	3.9	26.6	69.1	95.7	100.0	4.6
별거	(86)	0.0	4.7	4.7	4.7	20.9	69.8	90.7	100.0	4.6
가출	(96)	0.0	3.1	3.1	4.2	34.4	58.3	92.7	100.0	4.5
연령										
39세 이하	(79)	0.0	1.3	1.3	0.0	26.6	72.2	98.7	100.0	4.7
40-49세	(240)	0.4	1.7	2.1	5.0	26.7	66.3	92.9	100.0	4.6
50세 이상	(96)	0.0	2.1	2.1	5.2	29.2	63.5	92.7	100.0	4.5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0.0	2.3	2.3	9.3	25.6	62.8	88.4	100.0	4.5
고등학교	(223)	0.4	2.2	2.7	4.5	26.9	65.9	92.8	100.0	4.6
대학교 이상	(149)	0.0	0.7	0.7	2.0	28.2	69.1	97.3	100.0	4.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0.4	1.2	1.5	4.6	27.3	66.5	93.8	100.0	4.6
비임금근로자	(119)	0.0	3.4	3.4	4.2	27.7	64.7	92.4	100.0	4.5
미취업자	(36)	0.0	0.0	0.0	0.0	25.0	75.0	100.0	100.0	4.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1.3	1.3	2.7	8.0	22.7	66.7	89.3	100.0	4.5
200-299만원	(148)	0.0	0.7	0.7	2.0	31.8	65.5	97.3	100.0	4.6
300-399만원	(85)	0.0	1.2	1.2	5.9	23.5	69.4	92.9	100.0	4.6
400만원 이상	(59)	0.0	5.1	5.1	3.4	23.7	67.8	91.5	100.0	4.5
미취업자 등	(48)	0.0	2.1	2.1	2.1	31.3	64.6	95.8	100.0	4.6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0.4	2.0	2.4	3.5	29.4	64.7	94.1	100.0	4.6
중국	(45)	0.0	2.2	2.2	2.2	20.0	75.6	95.6	100.0	4.7
필리핀	(34)	0.0	2.9	2.9	5.9	35.3	55.9	91.2	100.0	4.4
캄보디아	(20)	0.0	0.0	0.0	5.0	30.0	65.0	95.0	100.0	4.6
우즈베키스탄	(27)	0.0	0.0	0.0	3.7	14.8	81.5	96.3	100.0	4.8
기타	(34)	0.0	0.0	0.0	8.8	20.6	70.6	91.2	100.0	4.6

<표 5-10>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결혼 전 현지 사전교육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63.1%로 높고, 평균점수는 3.7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으며, ‘필요 없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가출(22.9%),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22.8%),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20.0%),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25.9%),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표본수가 적은 국가를 제외하고 베트남(20.0%)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5-10>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 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415)	8.4	9.9	18.3	17.6	29.9	33.3	63.1	1.0	100.0	3.7
혼인상태											
이혼	(233)	8.6	8.2	16.7	15.9	34.3	31.8	66.1	1.3	100.0	3.7
별거	(86)	8.1	9.3	17.4	18.6	26.7	37.2	64.0	0.0	100.0	3.8
가출	(96)	8.3	14.6	22.9	20.8	21.9	33.3	55.2	1.0	100.0	3.6
연령											
39세 이하	(79)	7.6	12.7	20.3	17.7	24.1	38.0	62.0	0.0	100.0	3.7
40-49세	(240)	10.0	8.3	18.3	17.9	30.4	32.1	62.5	1.3	100.0	3.7
50세 이상	(96)	5.2	11.5	16.7	16.7	33.3	32.3	65.6	1.0	100.0	3.8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9.3	11.6	20.9	20.9	30.2	25.6	55.8	2.3	100.0	3.5
고등학교	(223)	5.8	9.0	14.8	15.7	32.7	36.3	69.1	0.4	100.0	3.9
대학교 이상	(149)	12.1	10.7	22.8	19.5	25.5	30.9	56.4	1.3	100.0	3.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8.8	11.2	20.0	18.1	30.8	30.0	60.8	1.2	100.0	3.6
비임금근로자	(119)	8.4	8.4	16.8	13.4	30.3	38.7	68.9	0.8	100.0	3.8
미취업자	(36)	5.6	5.6	11.1	27.8	22.2	38.9	61.1	0.0	100.0	3.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8.0	4.0	12.0	21.3	38.7	26.7	65.3	1.3	100.0	3.7
200-299만원	(148)	12.2	10.8	23.0	18.2	26.4	32.4	58.8	0.0	100.0	3.6
300-399만원	(85)	4.7	21.2	25.9	11.8	27.1	32.9	60.0	2.4	100.0	3.6
400만원 이상	(59)	8.5	3.4	11.9	13.6	37.3	35.6	72.9	1.7	100.0	3.9
미취업자 등	(48)	4.2	4.2	8.3	25.0	22.9	43.8	66.7	0.0	100.0	4.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9.0	11.0	20.0	18.4	31.4	29.4	60.8	0.8	100.0	3.6
중국	(45)	11.1	4.4	15.6	20.0	37.8	24.4	62.2	2.2	100.0	3.6
필리핀	(34)	8.8	2.9	11.8	29.4	20.6	38.2	58.8	0.0	100.0	3.8
캄보디아	(20)	15.0	15.0	30.0	15.0	20.0	30.0	50.0	5.0	100.0	3.4
우즈베키스탄	(27)	3.7	14.8	18.5	11.1	22.2	48.1	70.4	0.0	100.0	4.0
기타	(34)	0.0	8.8	8.8	2.9	29.4	58.8	88.2	0.0	100.0	4.4

정부의 국제결혼중개 정책에 대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일정기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결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표 5-11>에서는 혼인중단 남성은 정부의 국제결혼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규제 강화 찬성(강화 매우 찬성+강화 대체로 찬성)’라는 응답 비율이 68.0%로 ‘규제 완화 찬성(완화 대체로 찬성+완화 매우 찬성)’(20.7%)보다 약 3배 이상 높다.

<표 5-11> 국제결혼 규제 강화·완화 여부

(단위: 명, %)

	(N)	① 강화 매우 찬성	② 강화 대체로 찬성	①+②	③ 현행 제도가 적당하다	④ 완화 대체로 찬성	⑤ 완화 매우 찬성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415)	36.9	31.1	68.0	11.3	11.8	8.9	20.7	100.0	2.2
혼인상태										
이혼	(233)	36.1	29.2	65.2	11.2	14.6	9.0	23.6	100.0	2.3
별거	(86)	39.5	32.6	72.1	11.6	7.0	9.3	16.3	100.0	2.1
가출	(96)	36.5	34.4	70.8	11.5	9.4	8.3	17.7	100.0	2.2
연령										
39세 이하	(79)	44.3	31.6	75.9	5.1	13.9	5.1	19.0	100.0	2.0
40-49세	(240)	35.8	31.7	67.5	11.7	10.0	10.8	20.8	100.0	2.3
50세 이상	(96)	33.3	29.2	62.5	15.6	14.6	7.3	21.9	100.0	2.3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30.2	27.9	58.1	27.9	9.3	4.7	14.0	100.0	2.3
고등학교	(223)	39.9	30.9	70.9	9.4	11.7	8.1	19.7	100.0	2.2
대학교 이상	(149)	34.2	32.2	66.4	9.4	12.8	11.4	24.2	100.0	2.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6.2	31.2	67.3	12.7	11.9	8.1	20.0	100.0	2.2
비임금근로자	(119)	42.9	31.9	74.8	7.6	6.7	10.9	17.6	100.0	2.1
미취업자	(36)	22.2	27.8	50.0	13.9	27.8	8.3	36.1	100.0	2.7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8.7	33.3	72.0	9.3	12.0	6.7	18.7	100.0	2.1
200-299만원	(148)	34.5	31.1	65.5	11.5	14.2	8.8	23.0	100.0	2.3
300-399만원	(85)	40.0	30.6	70.6	7.1	9.4	12.9	22.4	100.0	2.2
400만원 이상	(59)	42.4	32.2	74.6	16.9	0.0	8.5	8.5	100.0	2.0
미취업자 등	(48)	29.2	27.1	56.3	14.6	22.9	6.3	29.2	100.0	2.5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2.9	31.8	64.7	11.4	13.7	10.2	23.9	100.0	2.4
중국	(45)	44.4	31.1	75.6	13.3	6.7	4.4	11.1	100.0	2.0
필리핀	(34)	26.5	44.1	70.6	8.8	14.7	5.9	20.6	100.0	2.3
캄보디아	(20)	10.0	35.0	45.0	20.0	20.0	15.0	35.0	100.0	3.0
우즈베키스탄	(27)	59.3	22.2	81.5	3.7	7.4	7.4	14.8	100.0	1.8
기타	(34)	64.7	17.6	82.4	11.8	0.0	5.9	5.9	100.0	1.6

모든 세부특성별로 ‘규제 강화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가출(70.8%),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 고졸(70.9%),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74.8%),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74.6%),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81.5%)과 중국(75.6%)이 높다.

정부의 국제결혼중개 정책에 대해 “결혼이민자가 입국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익히도록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한국문화를 익히는 것이 좋으므로 현행 제도를 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표 5-12>에서는 혼인중단 남성은 현행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 찬성(강화 매우 찬성+강화 대체로 찬성)’라는 응답 비율이 49.6%로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완화 찬성(완화 대체로 찬성+완화 매우 찬성)’(36.1%)보다 약간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별거는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1.5%, 53.5%로 더 높고, 가출은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완화 찬성’이라

<표 5-12>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완화 여부

(단위: 명, %)

	(N)	① 강화 매우 찬성	② 강화 대체로 찬성	①+②	③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	④ 완화 대체로 찬성	⑤ 완화 매우 찬성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415)	28.9	20.7	49.6	14.2	18.6	17.6	36.1	100.0	2.8
혼인상태										
이혼	(233)	31.3	20.2	51.5	15.0	18.9	14.6	33.5	100.0	2.7
별거	(86)	26.7	26.7	53.5	14.0	12.8	19.8	32.6	100.0	2.7
가출	(96)	25.0	16.7	41.7	12.5	22.9	22.9	45.8	100.0	3.0
연령										
39세 이하	(79)	27.8	26.6	54.4	10.1	21.5	13.9	35.4	100.0	2.7
40-49세	(240)	29.6	17.1	46.7	15.8	15.8	21.7	37.5	100.0	2.8
50세 이상	(96)	28.1	25.0	53.1	13.5	22.9	10.4	33.3	100.0	2.6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0.9	14.0	34.9	23.3	30.2	11.6	41.9	100.0	3.0
고등학교	(223)	33.6	22.0	55.6	12.6	15.2	16.6	31.8	100.0	2.6
대학교 이상	(149)	24.2	20.8	45.0	14.1	20.1	20.8	40.9	100.0	2.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28.1	17.7	45.8	14.6	21.5	18.1	39.6	100.0	2.8
비임금근로자	(119)	30.3	26.1	56.3	13.4	12.6	17.6	30.3	100.0	2.6
미취업자	(36)	30.6	25.0	55.6	13.9	16.7	13.9	30.6	100.0	2.6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33.3	14.7	48.0	14.7	20.0	17.3	37.3	100.0	2.7
200-299만원	(148)	25.7	19.6	45.3	14.2	25.0	15.5	40.5	100.0	2.9
300-399만원	(85)	28.2	23.5	51.8	8.2	15.3	24.7	40.0	100.0	2.8
400만원 이상	(59)	30.5	22.0	52.5	22.0	6.8	18.6	25.4	100.0	2.6
미취업자 등	(48)	31.3	27.1	58.3	14.6	16.7	10.4	27.1	100.0	2.5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25.9	19.6	45.5	16.1	19.2	19.2	38.4	100.0	2.9
중국	(45)	28.9	24.4	53.3	13.3	15.6	17.8	33.3	100.0	2.7
필리핀	(34)	23.5	26.5	50.0	14.7	20.6	14.7	35.3	100.0	2.8
캄보디아	(20)	10.0	10.0	20.0	25.0	35.0	20.0	55.0	100.0	3.5
우즈베키스탄	(27)	44.4	25.9	70.4	0.0	14.8	14.8	29.6	100.0	2.3
기타	(34)	55.9	20.6	76.5	5.9	8.8	8.8	17.6	100.0	1.9

는 응답 비율이 45.8%로 더 높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그 중 39세 이하(54.4%)가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를 제외하고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고, 고졸인 경우 55.6%로 가장 높다. 종사상 지위와 월평균 임금별 로도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고, 미취업자가 각각 55.6%, 58.3%로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표본수가 적은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람들은 혼인 중단의 원인이 여성이 국제결혼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한 경우가 많았다. 즉 한국어 구사나 문화적 적응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격증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은 없이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수하고, 어느 정도, 70점 맞아야 하고, 80점 맞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온다는 것은 [한국 남자들더러] 돈을 내라는 거예요. [실제 한국어 배우는 학원비, 생활비 다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내가 원한다면 [학원비, 생활비] 돈을 부쳐야 되고, 거기서 이수를 해야 하고, 그거를 갖다 이수를 해라, 자격증을 이수해라, 이러는 것은, 이것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다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사례 #A30, 남, 52세, 2005년 결혼, 배우자 국적 베트남, 이혼, 인천거주].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중개업체 직원들 중에는 한국어 학습으로 인해 입국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어 학습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학습 기간 동안 생각을 바꿔 결혼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후인데 한국어 때문에 입국이 늦어지면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한다.

<표 5-13>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1-2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후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37.6%)과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36.6%)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2.5%),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3.9%), ‘단기 속성의 결혼문화 개선’(21.0%) 등의 순으로 높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 상태는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42.5%로 가장 높으며, 가출 및 별거는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가 각각 39.6%, 34.9%로 가장 높다.

<표 5-13>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에서 개선 필요 사항(복수응답)

(단위: 명, %)

	(N)	결혼 중개업자 자질 향상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 육 강화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	단기 속성의 결혼문화 개선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등 계약사항 준수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신고 등)	무등록 중개업자의 적발 강화	추가비용 요구 없앰	기타	개선사항 없음
■ 전체 ■	(415)	37.6	36.6	32.5	23.9	21.0	12.0	10.4	8.7	5.5	2.4	2.9
혼인상태												
이혼	(233)	42.5	36.1	31.3	21.5	21.0	12.0	9.0	8.6	4.3	1.7	3.9
별거	(86)	31.4	34.9	33.7	22.1	20.9	11.6	10.5	8.1	10.5	5.8	2.3
가출	(96)	31.3	39.6	34.4	31.3	20.8	12.5	13.5	9.4	4.2	1.0	1.0
연령												
39세 이하	(79)	38.0	38.0	30.4	24.1	21.5	13.9	8.9	8.9	7.6	1.3	2.5
40-49세	(240)	35.4	33.8	30.8	26.3	23.8	12.1	11.3	9.2	4.2	2.9	3.3
50세 이상	(96)	42.7	42.7	38.5	17.7	13.5	10.4	9.4	7.3	7.3	2.1	2.1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27.9	32.6	46.5	25.6	14.0	9.3	7.0	7.0	4.7	2.3	9.3
고등학교	(223)	35.0	37.7	35.9	22.0	21.5	11.7	10.8	10.8	5.8	1.3	2.7
대학교 이상	(149)	44.3	36.2	23.5	26.2	22.1	13.4	10.7	6.0	5.4	4.0	1.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36.9	36.5	30.4	23.8	22.3	11.2	11.9	9.2	6.9	2.3	2.7
비임금근로자	(119)	37.0	39.5	33.6	21.8	19.3	10.9	10.1	8.4	4.2	3.4	4.2
미취업자	(36)	44.4	27.8	44.4	30.6	16.7	22.2	0.0	5.6	0.0	0.0	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28.0	38.7	37.3	20.0	14.7	9.3	16.0	10.7	8.0	2.7	4.0
200-299만원	(148)	41.2	33.8	30.4	24.3	25.7	8.8	8.1	11.5	5.4	3.4	2.7
300-399만원	(85)	42.4	34.1	28.2	25.9	23.5	15.3	11.8	3.5	5.9	3.5	2.4
400만원 이상	(59)	35.6	47.5	32.2	22.0	15.3	8.5	11.9	8.5	3.4	0.0	5.1
미취업자 등	(48)	35.4	33.3	39.6	27.1	18.8	25.0	4.2	6.3	4.2	0.0	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36.1	31.4	31.0	26.3	24.3	11.0	12.9	8.6	6.7	2.7	2.4
중국	(45)	37.8	51.1	37.8	13.3	13.3	13.3	4.4	8.9	4.4	4.4	4.4
필리핀	(34)	38.2	38.2	41.2	17.6	20.6	17.6	11.8	2.9	2.9	0.0	2.9
캄보디아	(20)	50.0	60.0	25.0	15.0	15.0	10.0	0.0	5.0	0.0	0.0	10.0
우즈베키스탄	(27)	37.0	48.1	40.7	33.3	11.1	7.4	3.7	14.8	0.0	3.7	0.0
기타	(34)	41.2	32.4	26.5	23.5	17.6	17.6	8.8	11.8	8.8	0.0	2.9

연령별로 39세 이하와 50세 이상은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 및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각각 38.0% 42.7%로 가장 높으며, 40-49세는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이 35.4%로 가장 높고,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33.8%) 순이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의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46.5%로 가장 높고,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32.6%) 순이며, 고졸은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37.7%로 가장 높고,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5.9%) 순이다. 대졸 이상은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44.3%로 가장 높고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36.2%) 순이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는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36.9%로 가장 높고, 비임금근로자는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39.5%로 가장 높다. 미취업자에서는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 및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44.4%로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199만원 이하와 400만원 이상은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8.7%, 47.5%로 가장 높고, 200-299만원과 300-399만원은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41.2%, 42.4%로 가장 높다. 또한 미취업자 등은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39.6%로 가장 높다.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와 표본수가 적은 국가를 제외하고 베트남은 ‘결혼중개업자 자질향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36.1%로 높고, 중국은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51.1%로 높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많아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5-14). 그 결과, ‘행정기관의 지도’라는 응답 비율이 59.0%로 가장 높으며, ‘현지법령 준수’(18.6%), ‘한국인 고객수요에 대응’(15.7%)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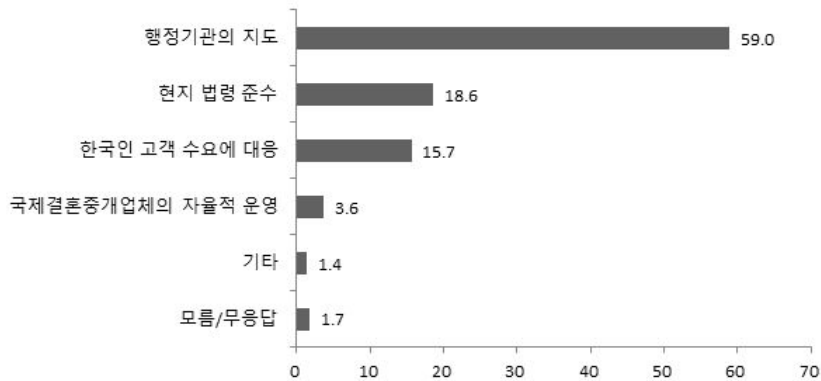
표본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모든 세부특성별로 그 순위는 동일하다. 세부특성별로 ‘행정기관의 지도’라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가출(69.8%), 연령은 높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60.5%),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61.2%), 월평균 임금별로는 200-299만원(63.5%) 출신국별로는 표본수가 적은 국가를 제외하고 베트남(60.8%)이 가장 높다.

또한 ‘현지 법령 준수’라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20.9%),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취업자(22.2%),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25.4%) 출신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29.6%)과 필리핀(23.5%)이 높다.

<표 5-14>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단위: 명, %)

	(N)	행정기관의 지도	현지 법령 준수	한국인 고객 수요에 대응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자율적 운영	기타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415)	59.0	18.6	15.7	3.6	1.4	1.7	100.0
혼인상태								
이혼	(233)	57.1	18.9	15.9	5.2	1.3	1.7	100.0
별거	(86)	52.3	20.9	19.8	3.5	3.5	0.0	100.0
가출	(96)	69.8	15.6	11.5	0.0	0.0	3.1	100.0
연령								
39세 이하	(79)	53.2	25.3	15.2	3.8	1.3	1.3	100.0
40-49세	(240)	60.0	20.0	13.3	3.3	1.3	2.1	100.0
50세 이상	(96)	61.5	9.4	21.9	4.2	2.1	1.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3)	60.5	16.3	23.3	0.0	0.0	0.0	100.0
고등학교	(223)	60.1	17.9	15.2	4.0	1.3	1.3	100.0
대학교 이상	(149)	57.0	20.1	14.1	4.0	2.0	2.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0)	61.2	18.1	15.0	3.5	0.8	1.5	100.0
비임금근로자	(119)	54.6	18.5	16.0	5.0	3.4	2.5	100.0
미취업자	(36)	58.3	22.2	19.4	0.0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75)	56.0	16.0	20.0	6.7	1.3	0.0	100.0
200-299만원	(148)	63.5	18.9	10.8	3.4	1.4	2.0	100.0
300-399만원	(85)	58.8	14.1	20.0	1.2	2.4	3.5	100.0
400만원 이상	(59)	54.2	25.4	10.2	6.8	1.7	1.7	100.0
미취업자 등	(48)	56.3	20.8	22.9	0.0	0.0	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255)	60.8	17.3	15.3	3.9	1.6	1.2	100.0
중국	(45)	53.3	20.0	11.1	6.7	4.4	4.4	100.0
필리핀	(34)	52.9	23.5	17.6	5.9	0.0	0.0	100.0
캄보디아	(20)	85.0	0.0	10.0	0.0	0.0	5.0	100.0
우즈베키스탄	(27)	48.1	29.6	18.5	0.0	0.0	3.7	100.0
기타	(34)	52.9	23.5	23.5	0.0	0.0	0.0	100.0



[그림 5-1]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제3부

혼인중단 이민여성 조사 결과

제 6 장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혼인중단 여성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표 6-1),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65.3%로 가장 높으며, ‘나만 이용했다’(13.9%), ‘배우자만 이용했다’(1.4%) 순이다. 응답자의 19.4%는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들 역시 국제결혼중개 수수료를 누군가에게 납부한 경험이 있다.¹⁾ 혼인중단 남성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만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고,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였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 이하(80.4%),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73.2%),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84.2%), 출신국별로는 기타 출신국보다는 베트남(85.3%)이 높다.

<표 6-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

(단위: 명, %)

	(N)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	나만 이용했다	배우자만 이용했다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	계
▣ 전체 ▣	(72)	65.3	13.9	1.4	19.4	100.0
혼인상태						
이혼	(53)	64.2	15.1	1.9	18.9	100.0
별거·가출	(19)	68.4	10.5	0.0	21.1	100.0
연령						
34세 이하	(46)	80.4	10.9	0.0	8.7	100.0
35세 이상	(26)	38.5	19.2	3.8	38.5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73.2	9.8	0.0	17.1	100.0
고등학교 이상	(31)	54.8	19.4	3.2	22.6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67.3	12.7	1.8	18.2	100.0
미취업자	(17)	58.8	17.6	0.0	23.5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84.2	0.0	0.0	15.8	100.0
100-400만원	(33)	57.6	21.2	3.0	18.2	100.0
미취업자 등	(20)	60.0	15.0	0.0	2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85.3	8.8	0.0	5.9	100.0
기타	(38)	47.4	18.4	2.6	31.6	100.0

주: “나와 배우자 둘 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 중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쪽에서라도 누군가에게 국제결혼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사례’만 이 분석에 포함하였다.

1) 국제결혼중개 수수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은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표 6-2> 혼인신고 시점

(단위: 명, %)

	(N)	2005년 이전	2006-2010년	2011-2015년	계
▣ 전체 ▣	(72)	36.1	48.6	15.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43.4	49.1	7.5	100.0
별거·가출	(19)	15.8	47.4	36.8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7.4	63.0	19.6	100.0
35세 이상	(26)	69.2	23.1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6.8	56.1	17.1	100.0
고등학교 이상	(31)	48.4	38.7	12.9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32.7	52.7	14.5	100.0
미취업자	(17)	47.1	35.3	17.6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31.6	52.6	15.8	100.0
100-400만원	(33)	36.4	51.5	12.1	100.0
미취업자 등	(20)	40.0	40.0	2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6.5	52.9	20.6	100.0
기타	(38)	44.7	44.7	10.5	100.0

<표 6-3> 최초 한국 입국 시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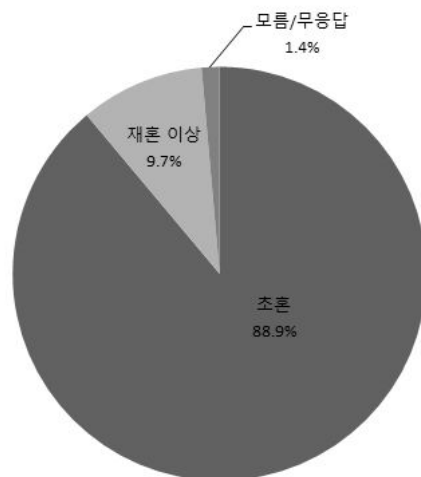
	(N)	2005년 이전	2006-2010년	2011-2015년	계
▣ 전체 ▣	(72)	31.9	52.8	15.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37.7	54.7	7.5	100.0
별거·가출	(19)	15.8	47.4	36.8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3.0	67.4	19.6	100.0
35세 이상	(26)	65.4	26.9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2.0	61.0	17.1	100.0
고등학교 이상	(31)	45.2	41.9	12.9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7.3	58.2	14.5	100.0
미취업자	(17)	47.1	35.3	17.6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6.3	57.9	15.8	100.0
100-400만원	(33)	30.3	57.6	12.1	100.0
미취업자 등	(20)	40.0	40.0	2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0.6	58.8	20.6	100.0
기타	(38)	42.1	47.4	10.5	100.0

<표 6-2>에서는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언제 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06-2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48.6%로 가장 높고, '2005년 이전'(36.1%), '2011-2015년'(15.3%) 순이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별거 또는 가출 상태인 응답자의 혼인신고 시기가 이혼 상태인 응답자의 혼인신고 시기보다 비교적 최근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인 경우 혼인신고 시기가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63.0%로 가장 높고, 5세 이상인 경우에는 '2005년 이전'이라는 응답 비율이 69.2%로 높다.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는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56.1%로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은 '2005년 이전'이라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높다. 출신국별로는 기타 출신국에 비해 베트남 출신이 '2006-2010년'(52.9%)과 '2011-2015년'(20.6%)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6-3>에서 혼인중단 여성이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시기가 언제인지 조사한 결과,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52.8%로 가장 높고, '2005년 이전'(31.9%), '2011-2015년'(15.3%) 순이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 보다는 별거 또는 가출 상태인 경우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시기가 '2011-2015년'(36.8%)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혼인신고 시기가 이혼 보다는 별거 또는 가출 상태인 경우 비교적 최근인 것과 동일한 결과다. 연령별로 34세 이하는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67.4%로 가장 높고, 35세 이상은 '2005년 이전'이라는 응답 비율이 65.4%가 가장 높다. 이 역시 혼인신고 시기와 동일한 결과다.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61.0%로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인 경우 '2005년 이전'(45.2%)과 '2006-2010년'(41.9%)이라는 응답 비율이 고루 높다. 출신국별로는 기타 출신국에 비해 베트남이 '2005년 이전'(20.6%)이라는 응답 비율은 낮고, '2006-2010년'(58.8%)과 '2011-2015년'(20.6%)이라는 응답 비율은 다소 높다.



[그림 6-1] 초혼, 재혼 여부

<표 6-4> 초혼, 재혼 여부

		(단위: 명, %)			
	(N)	초혼	재혼 이상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88.9	9.7	1.4	100.0
혼인상태					
이혼	(53)	86.8	11.3	1.9	100.0
별거·가출	(19)	94.7	5.3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95.7	2.2	2.2	100.0
35세 이상	(26)	76.9	23.1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90.2	7.3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87.1	12.9	0.0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89.1	9.1	1.8	100.0
미취업자	(17)	88.2	11.8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94.7	5.3	0.0	100.0
100-400만원	(33)	84.8	12.1	3.0	100.0
미취업자 등	(20)	90.0	1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94.1	5.9	0.0	100.0
기타	(38)	84.2	13.2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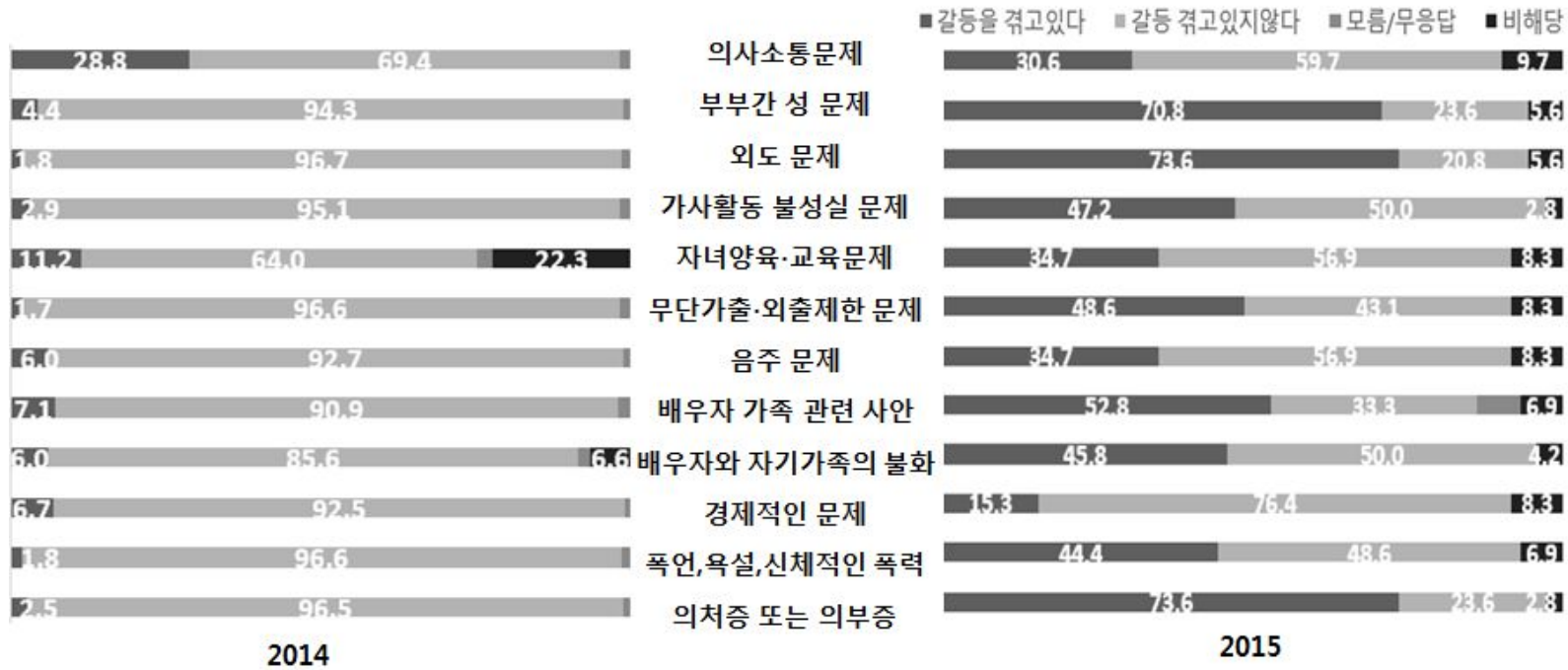
<표 6-4>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의 결혼이 본인에게 초혼 또는 재혼 이상인지 조사한 결과,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88.9%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보다는 별거나 가출 상태인 경우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94.7%로 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 이하(95.7%),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90.2%), 출신국별로는 기타 출신국에 비해 베트남(94.1%)이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재혼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혼인중단 여성의 9.7%인데 반해, 35세 이상의 연령에서 23.1%로 다소 높다.

<표 6-5>에서는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는지를 13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문제'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73.6%로 가장 높고,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70.8%), '자녀양육·교육 문제'(52.8%), '음주 문제'(48.6%), '나와 배우자 가족의 불화'(47.2%),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45.8%), '부부간 성 생활 문제'(44.4%) 순이다. 반면, '외도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15.3%로 가장 낮으며, '의치증 또는 의부증'(30.6%), '나의 가족 관련 사안' 및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각각 34.7%) 순으로 낮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28.8%로 가장 높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보다 낮으며,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6.7%), '폭력, 욕설, 신체적인 폭력'(1.8%)이라는 응답 비율이 현저히 낮다.

<표 6-5>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여부, 2014-2015년

(단위: 명, %)

	(N)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모름·무응답	비해당	계
의사소통 문제						
2014	(402)	28.8	69.4	1.8	0.0	100.0
2015	(72)	73.6	23.6	2.8	0.0	100.0
부부간 성문제						
2014	(402)	4.4	94.3	1.3	0.0	100.0
2015	(72)	44.4	48.6	6.9	0.0	100.0
외도 문제						
2014	(402)	1.8	96.7	1.5	0.0	100.0
2015	(72)	15.3	76.4	8.3	0.0	100.0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						
2014	(402)	2.9	95.1	1.9	0.0	100.0
2015	(72)	45.8	50.0	4.2	0.0	100.0
자녀양육·교육 문제						
2014	(402)	11.2	64.0	2.6	22.3	100.0
2015	(72)	52.8	33.3	6.9	6.9	100.0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						
2014	(402)	1.7	96.6	1.8	0.0	100.0
2015	(72)	34.7	56.9	8.3	0.0	100.0
음주 문제						
2014	(402)	6.0	92.7	1.3	0.0	100.0
2015	(72)	48.6	43.1	8.3	0.0	100.0
내 가족 관련 사안						
2014	(402)	7.1	90.9	2.0	0.0	100.0
2015	(72)	34.7	56.9	8.3	0.0	100.0
나와 '배우자 가족'의 불화						
2014	(402)	6.0	85.6	1.9	6.6	100.0
2015	(72)	47.2	50.0	2.8	0.0	100.0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2014	(402)	6.7	92.5	0.8	0.0	100.0
2015	(72)	73.6	20.8	5.6	0.0	100.0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2014	(402)	1.8	96.6	1.6	0.0	100.0
2015	(72)	70.8	23.6	5.6	0.0	100.0
의처증 또는 의부증						
2014	(402)	2.5	96.5	1.1	0.0	100.0
2015	(72)	30.6	59.7	9.7	0.0	100.0



[그림 6-2]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여부, 2014-2015년

<표 6-6> 부부갈등: 의사소통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73.6	23.6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75.5	20.8	3.8	100.0
별거·가출	(19)	68.4	31.6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67.4	28.3	4.3	100.0
35세 이상	(26)	84.6	15.4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70.7	26.8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77.4	19.4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70.9	25.5	3.6	100.0
미취업자	(17)	82.4	17.6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68.4	26.3	5.3	100.0
100-400만원	(33)	75.8	21.2	3.0	100.0
미취업자 등	(20)	75.0	2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76.5	23.5	0.0	100.0
기타	(38)	71.1	23.7	5.3	100.0

<표 6-6>에서 13가지 부부갈등 항목 중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살펴보면, 당시 배우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73.6%로 ‘갈등을 겪지 않았다’(23.6%)는 응답 비율 보다 3배 정도 높다. 의사소통 문제가 부부갈등의 큰 원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보다는 별거나 가출 상태가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31.6%로 높다. 연령별로는 35세 이상(84.6%)이 ‘갈등을 겪었다’ 응답 비율이 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보다는 고졸 이상(77.4%)이 높고,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82.4%), 출신국별로 기타 출신국보다는 베트남(76.5%)이 상대적으로 높다.

언어장벽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족 부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심층면접에 응한 혼인중단 이주여성의 대부분이 남편과의 갈등이나 힘들었던 점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저,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서로를 보자마자 이해도 안하고, 말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서로 답답해요[사례 #B19, 여, 46세, 2005년 결혼, 국적 몽골, 이혼, 김제거주].

의사소통 문제 너무.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사례 #B16,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기도 했는데, 지속적인 의사소통 장벽이 배우자의 폭언으로,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 없어 가사활동의 불성실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제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화가 나서 막 욕 많이 하고.

[사례 #B12, 여, 32세, 2005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익산거주].

<표 6-7>에서 당시 배우자와 부부간 성 생활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44.4%,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48.6%로 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은 ‘갈등을 겪지 않았다’(50.9%)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고, 별거 또는 가출은 ‘갈등을 겪었다’(52.6%)는 응답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35세 이상이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46.2%로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47.1%), 출신국별로는 기타 출신국에 비해 베트남(50.0%)이 높다.

<표 6-7> 부부갈등: 부부간 성 생활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44.4	48.6	6.9	100.0
혼인상태					
이혼	(53)	41.5	50.9	7.5	100.0
별거·가출	(19)	52.6	42.1	5.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43.5	45.7	10.9	100.0
35세 이상	(26)	46.2	53.8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43.9	46.3	9.8	100.0
고등학교 이상	(31)	45.2	51.6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43.6	49.1	7.3	100.0
미취업자	(17)	47.1	47.1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52.6	36.8	10.5	100.0
100-400만원	(33)	39.4	54.5	6.1	100.0
미취업자 등	(20)	45.0	50.0	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50.0	41.2	8.8	100.0
기타	(38)	39.5	55.3	5.3	100.0

실제로 얼굴을 대하는 심층면접의 성격상, 특히 부부간의 성생활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성생활 문제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중개업체가 결혼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남자를 소개해준 것 같다는 <사례 #B07>의 얘기를 통해 성생활 문제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은 외국인과 결혼 하면 마음이나 생각을 조금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는 나이가 있어서, 여기 한국에서 결혼을 못해서, 아무튼 아이가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생각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와서 잡자리만 하고, 아기는 빨리 낳으면 좋겠다,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사례 #B7,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전주거주].

<표 6-8>에서 당시 배우자와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76.4%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21.1%), 연령별로는 35세 이상(19.2%),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9.5%),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23.5%), 출신국별로는 기타(21.1%)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6-8> 부부갈등: 외도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15.3	76.4	8.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13.2	79.2	7.5	100.0
별거·가출	(19)	21.1	68.4	10.5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3.0	76.1	10.9	100.0
35세 이상	(26)	19.2	76.9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19.5	68.3	12.2	100.0
고등학교 이상	(31)	9.7	87.1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12.7	78.2	9.1	100.0
미취업자	(17)	23.5	70.6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10.5	73.7	15.8	100.0
100-400만원	(33)	15.2	78.8	6.1	100.0
미취업자 등	(20)	20.0	75.0	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8.8	76.5	14.7	100.0
기타	(38)	21.1	76.3	2.6	100.0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 <사례 #B04>, <사례 #B08>에 의하면 ‘남편이 만날 때리고 술 먹고 바람피우는’ 것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술과 폭력과 위도가 혼합되어 심각한 갈등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9>에서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45.8%,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50.0%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은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0.9%로 높고, 별거 또는 가출 상태는 ‘갈등을 겪었다’(52.6%)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는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0.0%로 ‘갈등을 겪지 않았다’(45.7%)보다 다소 높으며, 35세 이상은 반대로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7.7%로 더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갈등을 겪었다’(53.7%)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고졸 이상은 ‘갈등을 겪지 않았다’(64.5%)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취업여부별로 취업자는 ‘갈등을 겪지 않았다’(52.7%)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미취업자는 ‘갈등을 겪었다’(58.8%)는 응답 비율이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은 ‘갈등을 겪었다’(57.9%)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100-400만원은 ‘갈등을 겪지 않았다’(60.6%)는 응답 비율이 높다. 출신국별로는 기타 출신국에 비해 베트남이 ‘갈등을 겪었다’(41.2%)는 응답 비율이 낮다.

<표 6-9> 부부갈등: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45.8	50.0	4.2	100.0
혼인상태					
이혼	(53)	43.4	50.9	5.7	100.0
별거·가출	(19)	52.6	47.4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50.0	45.7	4.3	100.0
35세 이상	(26)	38.5	57.7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53.7	39.0	7.3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5.5	64.5	0.0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41.8	52.7	5.5	100.0
미취업자	(17)	58.8	41.2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57.9	31.6	10.5	100.0
100-400만원	(33)	36.4	60.6	3.0	100.0
미취업자 등	(20)	50.0	5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41.2	50.0	8.8	100.0
기타	(38)	50.0	50.0	0.0	100.0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서도 ‘가사활동의 불성실문제’를 어려움으로 토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인데 아무 것도 못하고, 음식도, 반찬도, 양념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요리하는데 남편도 입에 안 맞고 아들도 입 안 맞으니까[사례 #B19, 여, 46세, 2005년 결혼, 국적 몽골, 이혼, 김제거주].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여기를 모르니까, 알려줘야 하잖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하래. 요리도 잘 못하잖아요. 한국 요리는 모르니까. 모르면 천천히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화를 내고. 맨날 그렇게 힘들어[사례 #B12, 여, 32세, 2005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익산거주].

<표 6-10>에서 자녀양육·교육 문제로 부부갈등을 겪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갈등을 겪지 않았다’(33.3%)보다 높다.

모든 세부특성별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는 34세 이하(54.3%), 최종학력 별로는 중졸 이하(53.7%),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원 미만(73.7%)이 자녀양육·교육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6-10> 부부갈등: 자녀양육·교육 문제

(단위: 명, %)

	(N)	비해당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6.9	52.8	33.3	6.9	100.0
혼인상태						
이혼	(53)	7.5	52.8	34.0	5.7	100.0
별거·가출	(19)	5.3	52.6	31.6	10.5	100.0
연령						
34세 이하	(46)	6.5	54.3	32.6	6.5	100.0
35세 이상	(26)	7.7	50.0	34.6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7.3	53.7	31.7	7.3	100.0
고등학교 이상	(31)	6.5	51.6	35.5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7.3	52.7	34.5	5.5	100.0
미취업자	(17)	5.9	52.9	29.4	11.8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5.3	73.7	15.8	5.3	100.0
100-400만원	(33)	9.1	45.5	39.4	6.1	100.0
미취업자 등	(20)	5.0	45.0	40.0	1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8.8	50.0	32.4	8.8	100.0
기타	(38)	5.3	55.3	34.2	5.3	100.0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 의하면, 임신과 육아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다른 갈등문제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자녀교육의 문제 보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초기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 오고 얼마 안돼서 임신도 되고, 그리고 애기를 낳아서 양육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사례 #B12, 여, 32세, 2005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익산거주].

뿐만 아니라 임신하면서 입덧으로 일을 못하게 된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 사례도 있었다.

애기 생길 때부터..... 임신할 때 입덧도, 일을 못했거든요. 어머니, 말은 안하지만, 행동으로 표정으로..... [사례 #B01, 여, 26세, 2010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가출, 전주거주].

저는 아기를 보는 입장이라서 밤에 한숨도 못자고, 애기는 울고, 새벽에 눈 잠깐 붙이려는데 시어머니가 막 올라와서 문 두들기고..... 시어머니 때문에 잠도 못자고, 쉬지도 못하고[사례 #B7,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전주거주].

<표 6-11> 부부갈등: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34.7	56.9	8.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35.8	56.6	7.5	100.0
별거·가출	(19)	31.6	57.9	10.5	100.0
연령					
34세 이하	(46)	28.3	58.7	13.0	100.0
35세 이상	(26)	46.2	53.8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34.1	53.7	12.2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5.5	61.3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34.5	56.4	9.1	100.0
미취업자	(17)	35.3	58.8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47.4	42.1	10.5	100.0
100-400만원	(33)	30.3	60.6	9.1	100.0
미취업자 등	(20)	30.0	65.0	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2.4	55.9	11.8	100.0
기타	(38)	36.8	57.9	5.3	100.0

<표 6-11>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6.9%로 높다. 세부특성별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이혼(35.8%), 연령별로는 35세 이상(46.2%),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47.4%)이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서도 응답자들은 ‘외출제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실제로 ‘외출제한’의 어려움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감추거나 시어머니가 갖고 있으면서 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여권을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어요[사례 #B16,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김제거주].

4개월 정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중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게 신분증이 (발급)됐어요. 근데 저한테 안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숨겨줬어요[사례 #B11, 여, 43세, 2009년 결혼, 국적 중국, 이혼, 완주거주].

<표 6-12>에서 음주 문제로 당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48.6%로, ‘갈등을 겪지 않았다’(43.1%)는 응답 비율보다 약간 높다. 세부특성별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 34세 이하(52.2%),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53.7%),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50.9%)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6-12> 부부갈등: 음주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48.6	43.1	8.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49.1	45.3	5.7	100.0
별거·가출	(19)	47.4	36.8	15.8	100.0
연령					
34세 이하	(46)	52.2	37.0	10.9	100.0
35세 이상	(26)	42.3	53.8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53.7	36.6	9.8	100.0
고등학교 이상	(31)	41.9	51.6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50.9	40.0	9.1	100.0
미취업자	(17)	41.2	52.9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47.4	36.8	15.8	100.0
100-400만원	(33)	48.5	45.5	6.1	100.0
미취업자 등	(20)	50.0	45.0	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47.1	41.2	11.8	100.0
기타	(38)	50.0	44.7	5.3	100.0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남편의 음주’를 심각한 갈등으로 호소하였다.

제일 힘들 때, 술 마시면서, 술 마셔요. 매일매일 술 먹어요[사례 #B10, 여, 52세, 2003년 결혼, 국적 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또한 ‘남편의 음주’는 대부분 폭력,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과 맞물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결혼 한 달 후 임신했을 때부터 술 먹고, 막 때리고, 잠자리도 안주고……[사례 #B02, 여, 32세, 2009년 결혼, 국적 네팔, 가출, 전주거주].

처음에 왔을 때는 새벽 4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 여기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악착스럽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술 먹고 다니는 것이 습관인 걸 모르고……. 술 먹고 때리고 말 안 듣고[사례 #B08, 여, 50세, 1999년 결혼, 국적 중국 조선족, 이혼, 전주거주].

술 먹고 말 많아요. 화도 내요[사례 #B09, 여, 37세, 2007년 결혼, 국적 필리핀, 가출, 전주거주].

제일 힘들 때, 술 마시면서, 술 마셔요. 매일매일 술 먹어요[사례 #B10, 여, 52세, 2003년 결혼, 국적 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여기 와서 3개월 후부터 신랑이 일을 안 하고 계속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일을 안했어요. 후에 신랑 가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셨는데 집에서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사례 #B11, 여, 43세, 2009년 결혼, 국적 중국, 이혼, 완주거주].

<표 6-13>에서 혼인중단 여성의 가족초청이나 송금 등 본인의 가족 관련 사안으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6.9%로 ‘갈등을 겪었다’(34.7%)보다 높다.

모든 세부특성별로 동일하게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36.8%), 연령별로는 35세 이상(46.2%),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400만원(39.4%), 출신국별로는 기타(36.8%)가 상대적으로 높다.

심층면접에서 확인된 이주여성의 가족 관련 사안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유였다.

저 왔을 때, 신랑이 말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딸한테 생활비 보내준다고요. 그런데 3개월 이후에는 안 보내줬어요[사례 #B11, 여, 43세, 2009년 결혼, 국적 중국, 이혼, 완주거주].

<표 6-13> 부부갈등: 나의 가족 관련 사안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34.7	56.9	8.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34.0	58.5	7.5	100.0
별거·가출	(19)	36.8	52.6	10.5	100.0
연령					
34세 이하	(46)	28.3	60.9	10.9	100.0
35세 이상	(26)	46.2	50.0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34.1	58.5	7.3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5.5	54.8	9.7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34.5	56.4	9.1	100.0
미취업자	(17)	35.3	58.8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31.6	63.2	5.3	100.0
100-400만원	(33)	39.4	51.5	9.1	100.0
미취업자 등	(20)	30.0	60.0	1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2.4	58.8	8.8	100.0
기타	(38)	36.8	55.3	7.9	100.0

<표 6-14> 부부갈등: 나와 배우자 가족의 불화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47.2	50.0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50.9	45.3	3.8	100.0
별거·가출	(19)	36.8	63.2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50.0	45.7	4.3	100.0
35세 이상	(26)	42.3	57.7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41.5	56.1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54.8	41.9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49.1	47.3	3.6	100.0
미취업자	(17)	41.2	58.8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63.2	31.6	5.3	100.0
100-400만원	(33)	45.5	51.5	3.0	100.0
미취업자 등	(20)	35.0	6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50.0	50.0	0.0	100.0
기타	(38)	44.7	50.0	5.3	100.0

<표 6-14>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로 부부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0.0%로 ‘갈등을 겪었다’(47.2%)보다 다소 높다.

혼인상태별로 이혼은 ‘갈등을 겪었다’응답 비율이 50.9%로 ‘갈등을 겪지 않았다’(45.3%)보다 높으며, 별거 또는 가출 상태는 ‘갈등을 겪지 않았다’(63.2%)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로 34세 이하는 ‘갈등을 겪었다’(50.0%)는 응답 비율이 ‘갈등을 겪지 않았다’(45.7%)는 응답 비율 보다 다소 높은 반면, 35세 이상은 ‘갈등을 겪지 않았다’(57.7%)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갈등을 겪지 않았다’(56.1%)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고졸 이상은 ‘갈등을 겪었다’(54.8%)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갈등을 겪었다’(63.2%)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의 심층면접 결과, <사례 #B01>, <사례 #B07>, <사례 #B13>, <사례 #B15>, <사례 #B16>에서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를 토로하였는데, 그 양상은 다양하다. 먼저, <사례 #B13>은 남편하고는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없었으나, 부모님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 경우이다.

갈등이 된 것은 남편하고의 갈등이 아니라 부모님들하고 갈등[사례 #B13, 여, 27세, 2012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특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남편과 둘이서만 산다고 했는데, 실제 한국에 와보니 달랐고, 이것이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조금 당황한 것은, 결혼 정보회사에서 한국에 오면 남편이랑만 같이 산다고 했는데, 오니까 시어머니하고 시동생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거기는 조금 불편하고, 불만도 생기고[사례 #B07,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전주거주].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와 다 달랐어요. 둘이 같이 산다고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시동생 다 살고, 조카도 다 살고[사례 #B15, 여, 27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같이 안산다고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예요[사례 #B16, 여, 283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표 6-15>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73.6%로 높다. 모든 세부특성별로도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77.4%), 연령별로는 35세 이상(84.6%),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80.6%),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84.2%),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외 기타(76.3%)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6-15> 부부갈등: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73.6	20.8	5.6	100.0
혼인상태					
이혼	(53)	77.4	17.0	5.7	100.0
별거·가출	(19)	63.2	31.6	5.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67.4	23.9	8.7	100.0
35세 이상	(26)	84.6	15.4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68.3	24.4	7.3	100.0
고등학교 이상	(31)	80.6	16.1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74.5	21.8	3.6	100.0
미취업자	(17)	70.6	17.6	11.8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84.2	10.5	5.3	100.0
100-400만원	(33)	75.8	21.2	3.0	100.0
미취업자 등	(20)	60.0	30.0	1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70.6	23.5	5.9	100.0
기타	(38)	76.3	18.4	5.3	100.0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우선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즉 남편이 일을 안 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여기 와서 3개월 후부터 신랑이 일을 안 하고 계속 놀고 있잖아요. 일을 안 해요 [사례 #B11, 여, 43세, 2009년 결혼, 국적 중국, 이혼, 완주거주].

돈도 안 벌고, 돈만 쓰고 이렇게..... 약간 장애인이잖아요. 많이 못 벌어요. 일주일 만에 남편이 용돈을 다 쓰고 계속 돈 줘라, 계속..... 이렇게 돈이 문제예요 [사례 #B18, 여, 32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김제거주].

일부의 사례에 의하면, 남편이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본인이 아무것도 구매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돈을 안줘서 아무것도 산 적이 없어요 [사례 #B06, 여, 46세, 2012년 결혼, 국적 중국 한족, 이혼, 전주거주].

<사례 #B03>의 경우 과일 공판장에서 부인은 과일 포장을, 남편은 포장된 과일 배달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각자 돈을 벌었는데, 부인의 경제적 자율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였다.

공판장에서 저는 과일 포장, 남편은 무거운 거 운반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루 일당 5만원을 벌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제가 돈이 있으니까 안 줘요. 생활비는, 엄마, 아빠가 돈 필요하다고 너 있으면 좀 보내줘라,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돈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줄 수 없어, 못 보내줘. 그래서 싸웠어요. 제가 일하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남편이 너 그러면 돈 어떻게 하느냐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쉬려면 왜 쉬냐고, 계속 일해야지[사례 #B03, 여, 24세, 2012년 결혼, 국적 베트남, 가출, 전주거주]

<표 6-16>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으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70.8%로 ‘갈등을 겪지 않았다’(23.6%)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78.9%), 연령별로는 35세 이상(80.8%),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73.2%),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82.4%)가 상대적으로 높다. 폭언, 욕설, 신체적 폭력은 다양한 갈등요인, 즉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부터 출발하여 폭언으로 증폭되거나 음주와 함께 나타나며, 생활비, 경제적 무능력 등 경제적 갈등과 함께 경험하는 양상을 보인다.

심층면접 대상자 중 몇 사람은 매우 심각한 폭력의 경험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표 6-16> 부부갈등: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70.8	23.6	5.6	100.0
혼인상태					
이혼	(53)	67.9	28.3	3.8	100.0
별거·가출	(19)	78.9	10.5	10.5	100.0
연령					
34세 이하	(46)	65.2	26.1	8.7	100.0
35세 이상	(26)	80.8	19.2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73.2	17.1	9.8	100.0
고등학교 이상	(31)	67.7	32.3	0.0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67.3	27.3	5.5	100.0
미취업자	(17)	82.4	11.8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84.2	15.8	0.0	100.0
100-400만원	(33)	57.6	33.3	9.1	100.0
미취업자 등	(20)	80.0	15.0	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70.6	20.6	8.8	100.0
기타	(38)	71.1	26.3	2.6	100.0

신랑 무서워요. 폭력이 너무 심했어요. 술 먹고 옷 찢고, 너무 무섭다고[사례 #B11, 여, 43세, 2009년 결혼, 국적 중국, 이혼, 완주거주].

저 잠 잘 때 목을 졸랐어요. 두 번이나[사례 #B15, 여, 27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표 6-17>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의 의처증 또는 의부증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9.7%로 ‘갈등을 겪었다’(30.6%)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47.4%), 연령별로는 35세 이상(69.2%),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64.5%),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60.0%),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400만원(66.7%), 출신국별로는 베트남(67.6%)이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 <사례 #B19>는 갈등 때문에 집을 나오거나 이혼을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의처증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요. 돈에 너무 집착했고요. 그리고 의처증이 있었어요[사례 #B19, 여, 46세, 2005년 결혼, 국적 몽골, 이혼, 김제거주].

<표 6-17> 부부갈등: 의처증 또는 의부증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30.6	59.7	9.7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6.4	64.2	9.4	100.0
별거·가출	(19)	42.1	47.4	10.5	100.0
연령					
34세 이하	(46)	32.6	54.3	13.0	100.0
35세 이상	(26)	26.9	69.2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31.7	56.1	12.2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9.0	64.5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9.1	60.0	10.9	100.0
미취업자	(17)	35.3	58.8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36.8	52.6	10.5	100.0
100-400만원	(33)	21.2	66.7	12.1	100.0
미취업자 등	(20)	40.0	55.0	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0.6	67.6	11.8	100.0
기타	(38)	39.5	52.6	7.9	100.0

<표 6-18> 부부갈등: 나의 취업 문제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47.2	44.4	8.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45.3	45.3	9.4	100.0
별거·가출	(19)	52.6	42.1	5.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43.5	45.7	10.9	100.0
35세 이상	(26)	53.8	42.3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46.3	43.9	9.8	100.0
고등학교 이상	(31)	48.4	45.2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47.3	43.6	9.1	100.0
미취업자	(17)	47.1	47.1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52.6	36.8	10.5	100.0
100-400만원	(33)	45.5	45.5	9.1	100.0
미취업자 등	(20)	45.0	50.0	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5.3	55.9	8.8	100.0
기타	(38)	57.9	34.2	7.9	100.0

<표 6-18>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본인의 취업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47.2%로 ‘갈등을 겪지 않았다’(44.4%)는 응답 비율보다 약간 높다. 세부특성별로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 별거·가출(52.6%), 연령별로 35세 이상(53.8%),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52.6%),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을 제외한 기타(57.9%)가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 의하면 <사례 #B15>의 경우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달리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본인이 돈을 벌어야만 해서 힘들었던 사례, 그리고 <사례 #B03>은 일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남편이 그만두지 못하게 하여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혼인중단 남성의 진술과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6-19>에서 부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7가지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와 ‘당시 배우자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83.3%(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당시 배우자는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70.8%), ‘나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68.1%), ‘당시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65.3%), ‘나와 당시 배우자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61.1%)의 순이

다. ‘나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라는 응답 비율은 36.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당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의 행동 방법

(단위: 명, %)

항목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1. 나와 당시 배우자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31.9	27.8	23.6	9.7	61.1
2.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12.5	11.1	31.9	40.3	83.3
3. 당시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25.0	27.8	25.0	12.5	65.3
4. 나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23.6	12.5	48.6	6.9	68.1
5. 당시 배우자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13.9	13.9	25.0	44.4	83.3
6. 나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59.7	15.3	15.3	5.6	36.1
7. 당시 배우자는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25.0	22.2	22.2	26.4	70.8

<표 6-20>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와 당시 배우자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31.9	27.8	23.6	9.7	61.1	6.9	100.0
혼인상태								
이혼	(53)	30.2	32.1	20.8	9.4	62.3	7.5	100.0
별거·가출	(19)	36.8	15.8	31.6	10.5	57.9	5.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30.4	23.9	26.1	10.9	60.9	8.7	100.0
35세 이상	(26)	34.6	34.6	19.2	7.7	61.5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34.1	26.8	24.4	9.8	61.0	4.9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9.0	29.0	22.6	9.7	61.3	9.7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9.1	27.3	25.5	9.1	61.8	9.1	100.0
미취업자	(17)	41.2	29.4	17.6	11.8	58.8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6.3	31.6	21.1	10.5	63.2	10.5	100.0
100-400만원	(33)	33.3	24.2	27.3	9.1	60.6	6.1	100.0
미취업자 등	(20)	35.0	30.0	20.0	10.0	60.0	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2.4	23.5	29.4	8.8	61.8	5.9	100.0
기타	(38)	31.6	31.6	18.4	10.5	60.5	7.9	100.0

이 결과를 종합하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은 인내하고 당시 배우자는 분노 등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갈등에 대처하는 행위의 주체를 응답자와 당시 배우자로 달리하여 질문한 2번부터 7번 항목까지의 응답 결과를 볼 때, 응답자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본인은 평화적인 방향, 당시 배우자는 폭력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표출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6-20>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 비율이 55%이상으로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상태인 경우 62.3%로 별거나 가출(57.9%)보다 높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61.8%)가 미취업자(58.8%)보다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63.2%)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6-21>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12.5	11.1	31.9	40.3	83.3	4.2	100.0
혼인상태								
이혼	(53)	13.2	13.2	30.2	37.7	81.1	5.7	100.0
별거·가출	(19)	10.5	5.3	36.8	47.4	89.5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8.7	13.0	26.1	47.8	87.0	4.3	100.0
35세 이상	(26)	19.2	7.7	42.3	26.9	76.9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9.8	14.6	26.8	46.3	87.8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16.1	6.5	38.7	32.3	77.4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10.9	12.7	34.5	36.4	83.6	5.5	100.0
미취업자	(17)	17.6	5.9	23.5	52.9	82.4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15.8	36.8	36.8	89.5	10.5	100.0
100-400만원	(33)	15.2	12.1	30.3	39.4	81.8	3.0	100.0
미취업자 등	(20)	20.0	5.0	30.0	45.0	8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14.7	14.7	32.4	38.2	85.3	0.0	100.0
기타	(38)	10.5	7.9	31.6	42.1	81.6	7.9	100.0

<표 6-21>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경우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83.3%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 상태인 경우 89.5%로 이혼(81.1%)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87.0%),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87.8%),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83.6%),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89.5%)인 경우 당시 배우자와 갈등 시 본인 혼자 삭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심각한 갈등 시 이야기 하지 않고 속으로 삭힌 경우가 남편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등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어린 애기 때문에 참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기 네 살 때부터 계속 때렸어요. 애기가, 애기 때문에 계속 이혼을 못했어요[사례 #B08, 여, 50세, 1999년 결혼, 국적 중국, 이혼, 전주거주].

그때는 무슨 욕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사례 #B10, 여, 52세, 2003년 결혼, 국적 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표 6-22>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25.0	27.8	25.0	12.5	65.3	9.7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2.6	30.2	24.5	11.3	66.0	11.3	100.0
별거·가출	(19)	31.6	21.1	26.3	15.8	63.2	5.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23.9	26.1	21.7	17.4	65.2	10.9	100.0
35세 이상	(26)	26.9	30.8	30.8	3.8	65.4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4.4	31.7	24.4	9.8	65.9	9.8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5.8	22.6	25.8	16.1	64.5	9.7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7.3	23.6	23.6	12.7	60.0	12.7	100.0
미취업자	(17)	17.6	41.2	29.4	11.8	82.4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6.3	21.1	26.3	10.5	57.9	15.8	100.0
100-400만원	(33)	27.3	21.2	24.2	15.2	60.6	12.1	100.0
미취업자 등	(20)	20.0	45.0	25.0	10.0	8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6.5	26.5	23.5	17.6	67.6	5.9	100.0
기타	(38)	23.7	28.9	26.3	7.9	63.2	13.2	100.0

<표 6-22>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65.3%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상태인 경우 66.0%로 별거·가출(63.2%)보다 높다. 취업여부와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82.4%, 80.0%), 출신국별로는 베트남(67.6%)인 경우 당시 배우자와 갈등 시 본인 혼자 삭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가 말을 하지 않아 갈등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을 하나도 안 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같이 방에 들어가서. 저는 화난 걸 몰랐어요[사례 #B13, 여, 27세, 2012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저한테 뭐라고 한 것도 없고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사례 #B14, 여, 36세, 2005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표 6-23>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23.6	12.5	48.6	6.9	68.1	8.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4.5	7.5	49.1	9.4	66.0	9.4	100.0
별거·가출	(19)	21.1	26.3	47.4	0.0	73.7	5.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21.7	19.6	43.5	4.3	67.4	10.9	100.0
35세 이상	(26)	26.9	0.0	57.7	11.5	69.2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4.4	17.1	41.5	9.8	68.3	7.3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2.6	6.5	58.1	3.2	67.7	9.7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5.5	9.1	47.3	7.3	63.6	10.9	100.0
미취업자	(17)	17.6	23.5	52.9	5.9	82.4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6.3	10.5	42.1	10.5	63.2	10.5	100.0
100-400만원	(33)	24.2	9.1	51.5	6.1	66.7	9.1	100.0
미취업자 등	(20)	20.0	20.0	50.0	5.0	75.0	5.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34)	23.5	20.6	44.1	2.9	67.6	8.8	100.0
기타	(38)	23.7	5.3	52.6	10.5	68.4	7.9	100.0

<표 6-23>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에게 본인이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 지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68.1%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에게 본인이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 지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73.7%)이 이혼(66.0%)보다 높으며, 취업여부와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82.4%, 75.0%)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는 사례는 특별히 없었지만, <사례 #B07>의 사례에서 이주여성과 배우자 모두 서로에게 신체적 폭력을 쓴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상황에서 격렬한 언쟁을 동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6-24>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가 본인에게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 지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83.3%로 높다.

<표 6-24>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13.9	13.9	25.0	44.4	83.3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15.1	17.0	24.5	39.6	81.1	3.8	100.0
별거·가출	(19)	10.5	5.3	26.3	57.9	89.5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8.7	17.4	28.3	41.3	87.0	4.3	100.0
35세 이상	(26)	23.1	7.7	19.2	50.0	76.9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14.6	9.8	26.8	46.3	82.9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12.9	19.4	22.6	41.9	83.9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10.9	14.5	25.5	45.5	85.5	3.6	100.0
미취업자	(17)	23.5	11.8	23.5	41.2	76.5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5.3	5.3	36.8	47.4	89.5	5.3	100.0
100-400만원	(33)	15.2	18.2	21.2	42.4	81.8	3.0	100.0
미취업자 등	(20)	20.0	15.0	20.0	45.0	8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14.7	20.6	26.5	35.3	82.4	2.9	100.0
기타	(38)	13.2	7.9	23.7	52.6	84.2	2.6	100.0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가 본인에게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 지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89.5%)이 이혼(81.1%)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 이하(87.0%),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83.9%),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85.5%),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89.5%),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을 제외한 기타(84.2%)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 배우자가 욕하거나 소리를 지른 경우가 있었으며, 폭언으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리 지르고, 그냥 욕 많이[사례 #B10, 여, 52세, 2003년 결혼, 국적 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남편은 화날 때마다 무조건 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는 폭력을 썼다[사례 #B10, 여, 52세, 2003년 결혼, 국적 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표 6-25>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에게 본인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도 없다’는 응답 비율이 59.7%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에게 본인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

<표 6-25>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나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59.7	15.3	15.3	5.6	36.1	4.2	100.0
혼인상태								
이혼	(53)	62.3	13.2	13.2	5.7	32.1	5.7	100.0
별거·가출	(19)	52.6	21.1	21.1	5.3	47.4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63.0	15.2	10.9	6.5	32.6	4.3	100.0
35세 이상	(26)	53.8	15.4	23.1	3.8	42.3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58.5	17.1	12.2	7.3	36.6	4.9	100.0
고등학교 이상	(31)	61.3	12.9	19.4	3.2	35.5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56.4	18.2	14.5	5.5	38.2	5.5	100.0
미취업자	(17)	70.6	5.9	17.6	5.9	29.4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47.4	31.6	5.3	10.5	47.4	5.3	100.0
100-400만원	(33)	63.6	12.1	15.2	3.0	30.3	6.1	100.0
미취업자 등	(20)	65.0	5.0	25.0	5.0	3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58.8	17.6	14.7	5.9	38.2	2.9	100.0
기타	(38)	60.5	13.2	15.8	5.3	34.2	5.3	100.0

상태별로는 이혼(62.3%)이 별거·가출(52.6%)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 이하(63.0%),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61.3%),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70.6%)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 <사례 #B07>의 경우 남편과 싸우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도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사 끝나고 남편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화가 나서 저를 때렸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다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엄청 아프게 물어서, 그래서 놀라서 때리는 것을 멈췄어요[사례 #B07,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전주거주].

<표 6-26>에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당시 배우자가 본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한두 번 있었다+가끔 있었다+자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70.8%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 번이라도 당시 배우자가 본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

<표 6-26>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시 행동: 당시 배우자는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단위: 명, %)

	(N)	① 한 번도 없었다	② 한두 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25.0	22.2	22.2	26.4	70.8	4.2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6.4	20.8	20.8	28.3	69.8	3.8	100.0
별거·가출	(19)	21.1	26.3	26.3	21.1	73.7	5.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26.1	19.6	19.6	28.3	67.4	6.5	100.0
35세 이상	(26)	23.1	26.9	26.9	23.1	76.9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6.8	14.6	24.4	29.3	68.3	4.9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2.6	32.3	19.4	22.6	74.2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1.8	23.6	23.6	25.5	72.7	5.5	100.0
미취업자	(17)	35.3	17.6	17.6	29.4	64.7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1.1	21.1	21.1	36.8	78.9	0.0	100.0
100-400만원	(33)	24.2	24.2	24.2	21.2	69.7	6.1	100.0
미취업자 등	(20)	30.0	20.0	20.0	25.0	65.0	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2.4	26.5	14.7	20.6	61.8	5.9	100.0
기타	(38)	18.4	18.4	28.9	31.6	78.9	2.6	100.0

가출(73.7%)이 이혼(69.8%)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35세 이상(76.9%),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74.2%),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72.7%),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78.9%),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을 제외한 기타(78.9%)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 의하면, <사례 #B06>, <사례 #B07>, <사례 #B08>, <사례 #B15>의 경우 배우자가 이주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사례 #B16>의 경우에는 물건을 집어던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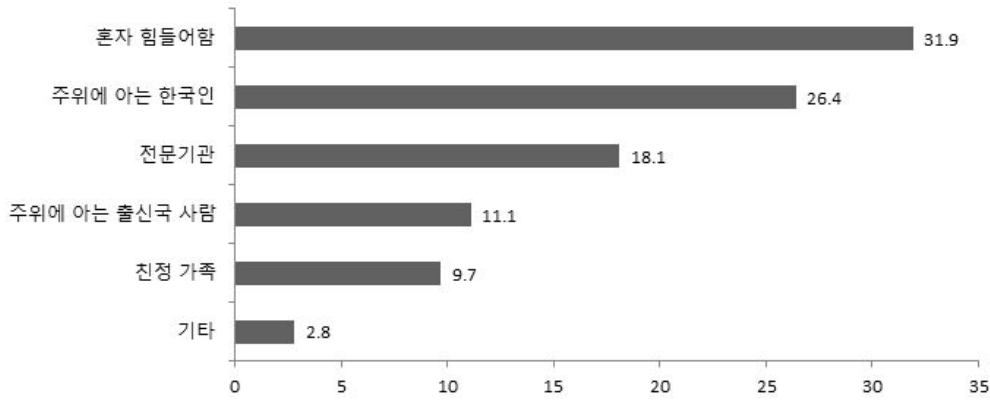
남편이 나가라고, 캄보디아로 가라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사례 #B16,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표 6-27>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조사한 결과,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는 응답 비율이 31.9%로 가장 높고, ‘주위의 아는 한국인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26.4%),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18.1%) 순이다. ‘친정 가족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은 9.7%로 가장 낮고, ‘주위에 아는 출신국 사람들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11.1%) 순으로 낮다.

<표 6-27>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의 도움 요청

(단위: 명, %)

	(N)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	주위에 아는 한국인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주위에 아는 출신국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친정 가족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기타	계
■ 전체 ■	(72)	31.9	26.4	18.1	11.1	9.7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34.0	26.4	17.0	11.3	9.4	1.9	100.0
별거·가출	(19)	26.3	26.3	21.1	10.5	10.5	5.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30.4	26.1	23.9	6.5	10.9	2.2	100.0
35세 이상	(26)	34.6	26.9	7.7	19.2	7.7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6.8	22.0	26.8	14.6	7.3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8.7	32.3	6.5	6.5	12.9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30.9	23.6	20.0	12.7	9.1	3.6	100.0
미취업자	(17)	35.3	35.3	11.8	5.9	11.8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1.1	21.1	31.6	15.8	10.5	0.0	100.0
100-400만원	(33)	36.4	27.3	12.1	12.1	6.1	6.1	100.0
미취업자 등	(20)	35.0	30.0	15.0	5.0	1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2.4	20.6	20.6	8.8	11.8	5.9	100.0
기타	(38)	31.6	31.6	15.8	13.2	7.9	0.0	100.0



[그림 6-3]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의 도움 요청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심리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가족이나 같은 출신국 사람보다는 갈등 해결을 위해 도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인 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구하는 빈도가 높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과 별거 또는 가출 모두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 ‘주위에 아는 한국인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다. 그 중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는 응답 비율은 이혼(34.0%)이 더 높으며, 또한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은 별거 또는 가출이 21.1%로 이혼(17.0%) 상태 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역시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 ‘주위에 아는 한국인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으며, 두 항목 모두 35세 이상(34.6%, 26.9%)에서 높다. 34세 이하는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이 23.9%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35세 이상은 ‘주위에 아는 출신국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이 19.2%로 상대적으로 높다.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와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26.8%로 가장 높으며, ‘주위에 아는 출신국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이 14.6%로 상대적으로 높다. 고졸 이상의 경우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38.7%)와 ‘주위에 아는 한국인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32.3%)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인 경우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와 ‘주위에 아는 한국인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35.3%로 높고, 취업자인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20.0%)와 ‘주위에 아는 출신국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12.7%)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라는 응답 비율이 31.6%로 가장 높고,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는 응답 비율은 100-400만원인 경우 36.4%로 높다.

출신국별로 베트남은 그 외에 기타 출신국에 비해 ‘주위에 아는 한국인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20.6%)는 응답 비율이 낮고,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20.6%)는 응답 비율은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앞서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B12>, <사례 #B15>의 경우 ‘속으로 참았다’고 했으며, <사례 #B10>은 임신 때문에 참았던 사례였다. 특히 <사례 #B07>의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혼자 힘들어한 경우도 있었다.

저는 처음에는 자살, 애기 임신하고 3개월 정도, 제가 너무 힘들어도 남편은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저는 너무 외롭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살하려 했어요[사례 #B07,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전주거주].

또한 주위 아는 사람의 도움이나 전문기관,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선생님, 나 이렇게 힘들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연결해 주고, 1366에도 연결해 주고, 긴급지원센터 거기를 통해서 컴퓨터 입소하게 된 거고 [사례 #B16,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남편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아간 경우도 있었고,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었다.

남편이 너무 심하게 때려서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남편이 자주 때렸고, 기분이 잠깐 좋으면 또 화를 내고 정시병자처럼 행동을 했어요[사례 #B06, 여, 46세, 2012년 결혼, 국적 중국 한족, 이혼, 전주거주].

돈 때문에 싸웠고, 농사 너무 힘들어서 싸웠어요. 엄청 힘들고. 남편이 막 때리고……. 올해는 두 번 경찰도 불렀거든요[사례 #B04, 여, 30세, 2010년 결혼, 국적 베트남, 가출, 전주거주].

<표 6-28>에서 혼인중단 여성의 혼인 지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혼인 지속기간은 평균 48.0개월이며, ‘5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31.9%로 가장 높고, ‘3-5년 미만’(25.0%), ‘1-3년 미만’(20.8%) 순이다.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은 평균 51.0개월로 별거 또는 가출(39.5개월)보다 길고, 연령별로는 35세 이상(59.5개월),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50.6개월),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

<표 6-28>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 걸린 기간

(단위: 명, %)

	(N)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 (개월)
□ 전체 □	(72)	18.1	20.8	25.0	31.9	4.2	100.0	48.0
혼인상태								
이혼	(53)	17.0	18.9	26.4	34.0	3.8	100.0	51.0
별거·가출	(19)	21.1	26.3	21.1	26.3	5.3	100.0	39.5
연령								
34세 이하	(46)	19.6	21.7	28.3	30.4	0.0	100.0	42.3
35세 이상	(26)	15.4	19.2	19.2	34.6	11.5	100.0	59.5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2.0	14.6	26.8	34.1	2.4	100.0	46.2
고등학교 이상	(31)	12.9	29.0	22.6	29.0	6.5	100.0	50.6
취업여부								
취업자	(55)	21.8	16.4	25.5	34.5	1.8	100.0	47.7
미취업자	(17)	5.9	35.3	23.5	23.5	11.8	100.0	49.2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6.3	10.5	15.8	47.4	0.0	100.0	51.4
100-400만원	(33)	18.2	21.2	30.3	27.3	3.0	100.0	46.4
미취업자 등	(20)	10.0	30.0	25.0	25.0	10.0	100.0	47.3
출신국								
베트남	(34)	29.4	20.6	26.5	23.5	0.0	100.0	35.0
기타	(38)	7.9	21.1	23.7	39.5	7.9	100.0	60.7

(49.2개월),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51.4개월),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을 제외한 기타 출신국(60.7개월)인 경우 혼인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심층면접에 응한 혼인중단 이주여성들은 5-7개월쯤에 집을 나온 경우<사례 #B06, 13>도 있었지만, 집을 나왔다가 남편의 약속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나 결국 다시 집을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임신했는데 막 때리고, 머리채 당기고. 쉼터에 두 달 살다가 다시 남편이 잘하고 싶다, 잘하겠다, 이제 술 안 마신다고 그렇게 이제 계약서에 적어서. 이제 저랑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한 달만 안 먹고 또 술을 마셨어요. 아이 출산 후에 아이를 위해서 살자고 계속 해도 안 되고, 술을 마시면 2주 동안 일도 안 나가고, 아이한테도 던지고, 저도 막 때리고. 계속 고쳐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설득을 했으나 안 돼가지고 제가 나왔어요[사례 #B02, 여, 32세, 2009년 결혼, 국적 네팔, 가출, 전주거주].

처음 그 때는 경찰을 통해서 들어왔고, 쉼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남편도 약속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저는 다시 들어갔어요. 남편도 별로 안 지키고 계속, 집 가족도 너는 외국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편이 공부하러 가는 데도 못 가게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집 나가라고, 그래서 저도 다시 쉼터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걸었어요[사례 #B16,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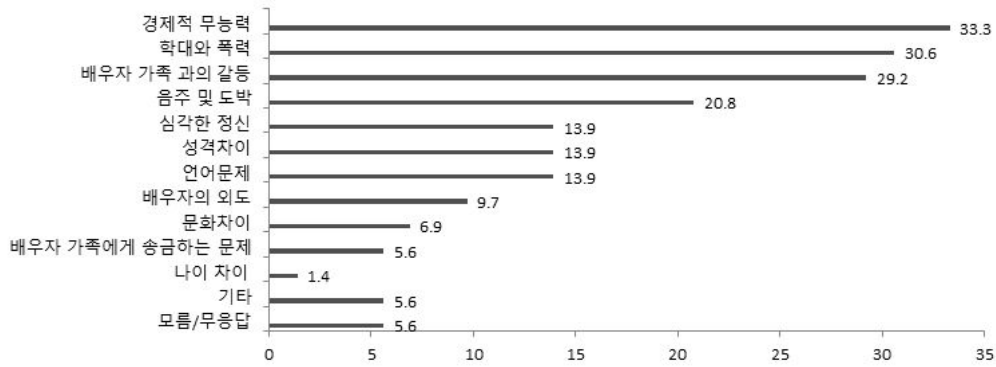
<표 6-29> 혼인중단(가출, 별거, 이혼)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N)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배우자 가족 과의 갈등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 장애	성격 차이	언어 문제	배우 자의 외도	문화 차이	배우자 에게 송금 하는 문제	나이 차이	기타	모름· 무응답
□ 전체 □	(72)	33.3	30.6	29.2	20.8	13.9	13.9	13.9	9.7	6.9	5.6	1.4	5.6	5.6
혼인상태														
이혼	(53)	35.8	26.4	30.2	24.5	11.3	15.1	11.3	7.5	7.5	7.5	0.0	5.7	5.7
별거·가출	(19)	26.3	42.1	26.3	10.5	21.1	10.5	21.1	15.8	5.3	0.0	5.3	5.3	5.3
연령														
34세 이하	(46)	30.4	26.1	28.3	15.2	17.4	17.4	15.2	8.7	6.5	4.3	2.2	8.7	8.7
35세 이상	(26)	38.5	38.5	30.8	30.8	7.7	7.7	11.5	11.5	7.7	7.7	0.0	0.0	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31.7	39.0	26.8	19.5	17.1	12.2	14.6	7.3	7.3	2.4	2.4	7.3	4.9
고등학교 이상	(31)	35.5	19.4	32.3	22.6	9.7	16.1	12.9	12.9	6.5	9.7	0.0	3.2	6.5
취업여부														
취업자	(55)	32.7	27.3	29.1	21.8	14.5	18.2	14.5	7.3	7.3	5.5	1.8	5.5	5.5
미취업자	(17)	35.3	41.2	29.4	17.6	11.8	0.0	11.8	17.6	5.9	5.9	0.0	5.9	5.9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6.3	36.8	52.6	10.5	26.3	10.5	0.0	0.0	5.3	0.0	5.3	5.3	10.5
100-400만원	(33)	39.4	24.2	15.2	27.3	9.1	18.2	21.2	9.1	9.1	9.1	0.0	6.1	3.0
미취업자 등	(20)	30.0	35.0	30.0	20.0	10.0	10.0	15.0	20.0	5.0	5.0	0.0	5.0	5.0
출신국														
베트남	(34)	23.5	32.4	32.4	14.7	14.7	17.6	17.6	8.8	8.8	8.8	2.9	5.9	5.9
기타	(38)	42.1	28.9	26.3	26.3	13.2	10.5	10.5	10.5	5.3	2.6	0.0	5.3	5.3

<표 6-29>에서는 혼인이 중단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1-2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한 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33.3%로 가장 높고, '학대와 폭력'(30.6%),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29.2%) 순이다. '나이 차이'라는 응답 비율은 1.4%로 가장 낮고, 기타를 제외하고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5.6%), '문화차이'(6.9%), 배우자의 외도(9.7%) 순으로 낮다.

앞에서 배우자와 어떤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가장 갈등 경험이 많았던 항목은 '의사소통 문제'(73.6%)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73.6%)였으며,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73.6%), '자녀양육·교육 문제'(52.8%), '음주 문제'(48.6%), '나와 배우자 가족의 불화'(47.2%) 등의 순이다. 이와 비교하면, 의사소통 문제는 혼인을 지속하며 끊임없이 갈등의 요지는 되지만 혼인을 중단에 영향은 작으며, 경제적인 문제, 학대와 폭력,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은 갈등을 넘어 혼인중단까지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4] 혼인중단(가출, 별거, 이혼) 이유(복수응답)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혼인중단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혼은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35.8%로 가장 높고, 별거·가출은 ‘학대와 폭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42.1%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는 ‘경제적 무능력’(30.4%),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28.3%) 순으로 높으며, 35세 이상은 ‘경제적 무능력’과 ‘학대와 폭력’이 동일하게 38.5%로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학대와 폭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39.0%로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은 ‘경제적 무능력’(35.3%)이 가장 높다. 취업여부별로 취업자는 ‘경제적 무능력’(32.7%)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미취업자는 ‘학대와 폭력’(41.2%)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라는 응답 비율이 52.6%로 가장 높고 100-400만원은 ‘경제적 무능력’(39.4%), 미취업자 등은 ‘학대와 폭력’(35.0%)이 가장 높다. 출신국별로 베트남은 ‘학대와 폭력’과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32.4%로 가장 높고, 그 외에 기타 출신국은 ‘경제적 무능력’(42.1%)이 가장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앞서 갈등의 사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혼인중단의 주요 사유로 애기되었으며, 이러한 사유가 동시에 작용하여 갈등상황을 증폭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0>에서 혼인중단 이후 누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나’라는 응답 비율이 65.3%로 가장 높고, ‘배우자’(15.3%), ‘기타 가족’(6.9%)의 순이다. ‘미성년 자녀 없다’는 응답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 각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따른 분석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특성별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모든 특성별로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양육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배우자 기타 가족 순이다.

<표 6-30> 자녀양육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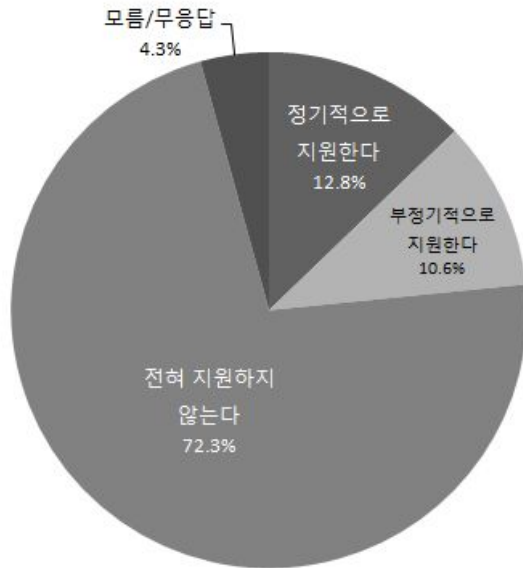
(단위: 명, %)

	(N)	나	배우자	기타 가족	미성년 자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65.3	15.3	6.9	11.1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71.7	15.1	3.8	9.4	0.0	100.0
별거·가출	(19)	47.4	15.8	15.8	15.8	10.5	100.0
연령							
34세 이하	(26)	73.1	11.5	0.0	15.4	0.0	100.0
35세 이상	(46)	60.9	17.4	10.9	8.7	4.3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63.4	19.5	7.3	7.3	4.9	100.0
고등학교 이상	(31)	67.7	9.7	6.5	16.1	0.0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65.5	12.7	9.1	12.7	1.8	100.0
미취업자	(17)	64.7	23.5	0.0	5.9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84.2	10.5	0.0	5.3	0.0	100.0
100-400만원	(33)	57.6	15.2	12.1	18.2	0.0	100.0
미취업자 등	(20)	60.0	20.0	5.0	5.0	1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52.9	23.5	11.8	8.8	5.9	100.0
기타	(38)	76.3	7.9	2.6	13.2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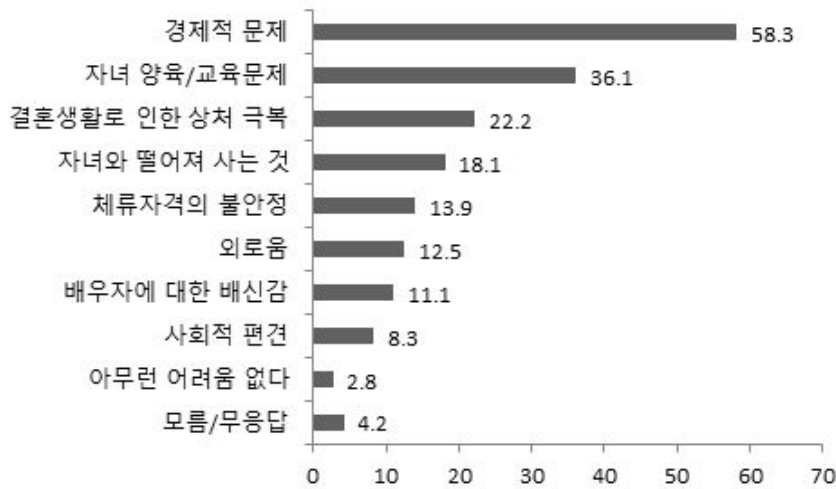
<표 6-31> 양육비 지원받는지 여부

(단위: 명, %)

	(N)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다	부정기적으로 지원 받는다	전혀 지원받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47)	12.8	10.6	72.3	4.3	100.0
혼인상태						
이혼	(38)	15.8	13.2	68.4	2.6	100.0
별거·가출	(9)	0.0	0.0	88.9	11.1	100.0
연령						
34세 이하	(19)	10.5	15.8	73.7	0.0	100.0
35세 이상	(28)	14.3	7.1	71.4	7.1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26)	11.5	7.7	73.1	7.7	100.0
고등학교 이상	(21)	14.3	14.3	71.4	0.0	100.0
취업여부						
취업자	(36)	8.3	11.1	77.8	2.8	100.0
미취업자	(11)	27.3	9.1	54.5	9.1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6)	0.0	12.5	81.3	6.3	100.0
100-400만원	(19)	10.5	10.5	78.9	0.0	100.0
미취업자 등	(12)	33.3	8.3	50.0	8.3	100.0
출신국						
베트남	(18)	5.6	11.1	72.2	11.1	100.0
기타	(29)	17.2	10.3	72.4	0.0	100.0



[그림 6-5] 양육비 지원받는지 여부



[그림 6-6] 혼인중단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표 6-31>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고 혼인중단 이후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받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지원받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72.3%로 가장 높고,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다’(12.8%), ‘부정기적으로 지원 받는다’(10.6%) 순이다.

<표 6-32> 혼인중단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명, %)

	(N)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교육 문제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 극복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	체류 자격의 불안정	외로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사회적 편견	아무런 어려움 없다	모름·무응답
□ 전체 □	(72)	58.3	36.1	22.2	18.1	13.9	12.5	11.1	8.3	2.8	4.2
혼인상태											
이혼	(53)	60.4	39.6	17.0	17.0	11.3	11.3	9.4	9.4	3.8	5.7
별거·가출	(19)	52.6	26.3	36.8	21.1	21.1	15.8	15.8	5.3	0.0	0.0
연령											
34세 이하	(46)	60.9	41.3	23.9	21.7	15.2	6.5	10.9	8.7	0.0	2.2
35세 이상	(26)	53.8	26.9	19.2	11.5	11.5	23.1	11.5	7.7	7.7	7.7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51.2	41.5	26.8	19.5	14.6	7.3	12.2	7.3	2.4	4.9
고등학교 이상	(31)	67.7	29.0	16.1	16.1	12.9	19.4	9.7	9.7	3.2	3.2
취업여부											
취업자	(55)	58.2	34.5	20.0	20.0	10.9	14.5	10.9	9.1	3.6	3.6
미취업자	(17)	58.8	41.2	29.4	11.8	23.5	5.9	11.8	5.9	0.0	5.9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68.4	42.1	15.8	5.3	5.3	10.5	26.3	5.3	0.0	5.3
100-400만원	(33)	51.5	30.3	21.2	27.3	15.2	18.2	3.0	9.1	6.1	3.0
미취업자 등	(20)	60.0	40.0	30.0	15.0	20.0	5.0	10.0	10.0	0.0	5.0
출신국											
베트남	(34)	61.8	38.2	20.6	23.5	5.9	8.8	14.7	8.8	2.9	2.9
기타	(38)	55.3	34.2	23.7	13.2	21.1	15.8	7.9	7.9	2.6	5.3

세부특성별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전혀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88.9%), 연령별로는 34세 이하(73.7%),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73.1%), 취업여부별로 취업자(77.8%),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81.3%), 출신국별로 기타(72.4%)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지만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각 세부특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표 6-32>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본인의 가출 또는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을 1-2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인의 가출 또는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 비율이 58.3%로 가장 높으며, ‘자녀양육·교육 문제’(36.1%),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 극복’(22.2%),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18.1%)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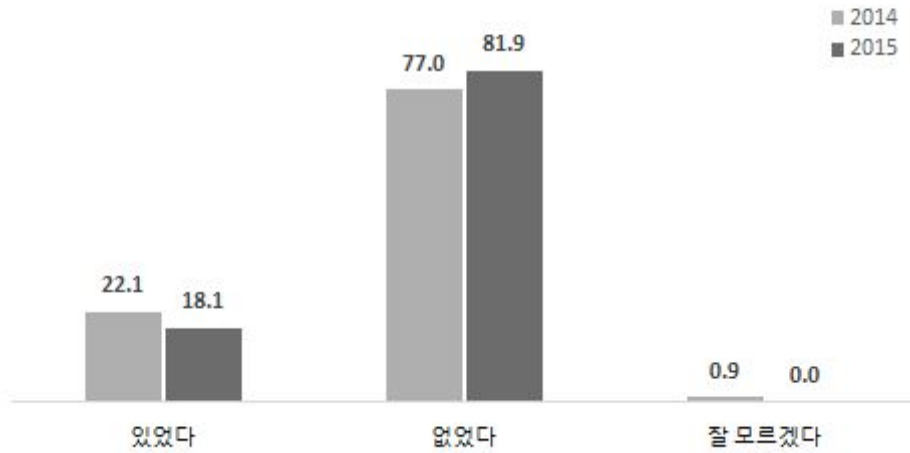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 비율은 이혼(60.4%)이 별거·가출(52.6%)보다 높으며, 이혼인 경우 ‘자녀양육·교육문제’(39.6%)가 높고, 별거·가출은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 극복’(36.8%)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교육문제’,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 극복’, ‘자녀와

<표 6-33>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했던 경험,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2014	(402)	22.1	77.0	0.9	100.0
2015	(72)	18.1	81.9	0.0	100.0

주: 본인 또는 배우자 각각이 주선했던 경우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주선했던 경우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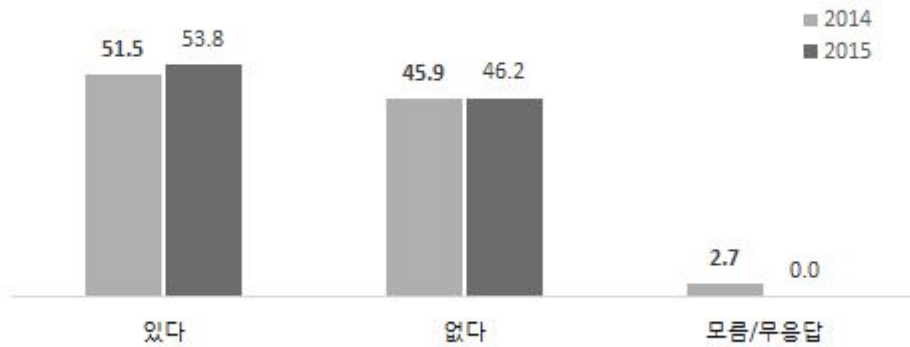
[그림 6-7]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했던 경험, 2014-2015년

<표 6-34> 주선했던 맞선이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2014	(89)	51.5	45.9	2.7	100.0
2015	(13)	53.8	46.2	0.0	100.0

주: 국제결혼 맞선 주선 유경험자의 응답 결과



[그림 6-8] 주선했던 맞선이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 2014-2015년

떨어져 사는 것' 등의 응답 비율은 34세 이하가 더 높으며, 35세 이상은 '외로움'이라는 응답 비율이 23.1%로 높다. 최종학력별로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 비율은 고졸 이상이 66.7%로 높고, '자녀양육·교육 문제'와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 극복'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41.5%, 26.8%로 중졸 이하가 높다. 출신국별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교육 문제'라는 응답 비율은 베트남 출신이 각각 61.8%, 38.2%로 높고, '체류자격의 불안정'이라는 응답 비율은 베트남을 제외한 기타 출신국이 21.1%로 높다.

심층면접에 응한 혼인중단 이주여성들은 정신적으로도 너무 무서워 잠을 못자고 약을 자주 먹어야 하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표 6-33>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본인 또는 배우가 국제결혼을 위해 맞선을 주선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81.9%로 높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 역시 동일하게 '없다'는 응답 비율이 77.0%로 높으나, 혼인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보다 다소 높다. <표 6-34>에서 맞선을 주선한 경험이 있을 경우 성사 여부는,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본 조사 모두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약간 높다. 혼인중단 여성이 본인 또는 당시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위해 맞선을 주선한 경험이 있는 경우, '나와 배우자 둘 다 했다'는 응답 비율이 9.7%로 높고, '배우자만 했다'(5.6%), '나만 했다'(2.8%) 순이다.

<표 6-35>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단위: 명, %)

	(N)	나와 배우자 둘 다 했다	나만 했다	배우자만 했다	나와 배우자 둘 다 하지 않았다	계
□ 전체 □	(72)	9.7	2.8	5.6	81.9	100.0
혼인상태						
이혼	(53)	13.2	1.9	5.7	79.2	100.0
별거·가출	(19)	0.0	5.3	5.3	89.5	100.0
연령						
34세 이하	(46)	4.3	0.0	4.3	91.3	100.0
35세 이상	(26)	19.2	7.7	7.7	65.4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4.9	2.4	4.9	87.8	100.0
고등학교 이상	(31)	16.1	3.2	6.5	74.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9.1	1.8	5.5	83.6	100.0
미취업자	(17)	11.8	5.9	5.9	76.5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5.3	5.3	5.3	84.2	100.0
100-400만원	(33)	12.1	0.0	6.1	81.8	100.0
미취업자 등	(20)	10.0	5.0	5.0	80.0	100.0
배우자 출신국						
베트남	(34)	0.0	2.9	2.9	94.1	100.0
기타	(38)	18.4	2.6	7.9	71.1	100.0

세부특성별로 ‘나와 배우자 둘 다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 별거·가출(89.5%), 연령별로 34세 이하(91.3%), 최종학력별로 중학교 이하(87.8%), 출신국별로 베트남(94.1%)이 상대적으로 높다.

제 7 장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에 대한 정보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을 조사한 결과(표 7-1),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48.6%로 가장 높고, '2005년 이전'(36.1%), '2011-2015년'(15.3%)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신고 시기와 거의 유사하며, 세부특성별로도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혼인상태별로 이혼인 경우는 '2006-2010년'(49.1%)과 '2005년 이전'(43.4%)에 90% 이상 분포하며, 별거·가출의 경우는 '2006-2010년'(47.4%), '2011-2015년'(36.8%)에 80% 이상 분포하고 있다.

연령별로 34세 이하는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63.0%로 가장 높고, 35세 이상은 '2005년 이전'이라는 응답 비율이 69.2%로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2006-2010년'(56.1%)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고졸 이상은 '2005년 이전'(48.4%)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출신국별로 베트남과 기타 모두 '2006-2010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2005년 이전'이라는 응답 비율은 기타 출신국(44.7%), '2011-2015년'이라는 응답 비율은 베트남(20.6%)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7-1> 당시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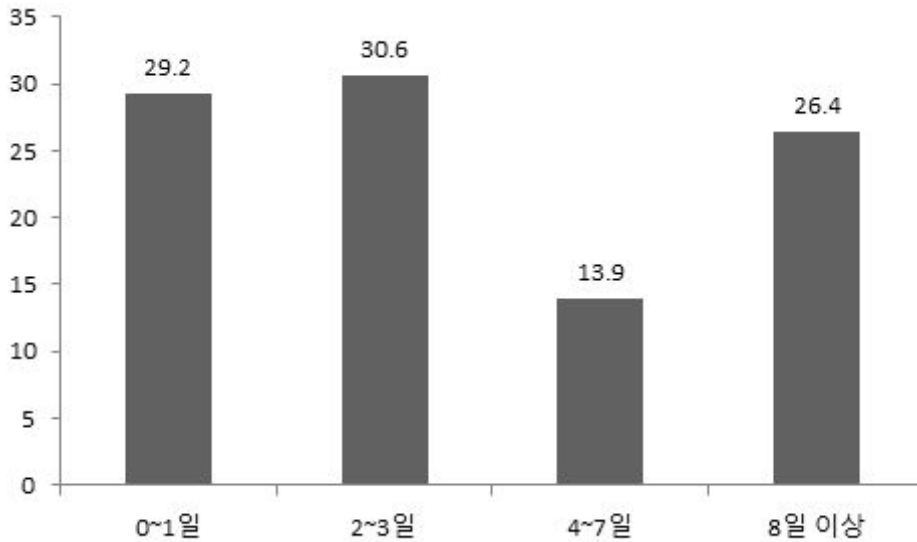
(단위: 명, %)

	(N)	2005년 이전	2006-2010년	2011-2015년	계
▣ 전체 ▣	(72)	36.1	48.6	15.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43.4	49.1	7.5	100.0
별거·가출	(19)	15.8	47.4	36.8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7.4	63.0	19.6	100.0
35세 이상	(26)	69.2	23.1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6.8	56.1	17.1	100.0
고등학교 이상	(31)	48.4	38.7	12.9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32.7	52.7	14.5	100.0
미취업자	(17)	47.1	35.3	17.6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31.6	52.6	15.8	100.0
100-400만원	(33)	36.4	51.5	12.1	100.0
미취업자 등	(20)	40.0	40.0	2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6.5	52.9	20.6	100.0
기타	(38)	44.7	44.7	10.5	100.0

<표 7-2>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단위: 명, %)

	(N)	0-1일	2-3일	4-7일	8일 이상	계
▣ 전체 ▣	(72)	29.2	30.6	13.9	26.4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8.3	28.3	13.2	30.2	100.0
별거·가출	(19)	31.6	36.8	15.8	15.8	100.0
연령						
34세 이하	(46)	37.0	37.0	10.9	15.2	100.0
35세 이상	(26)	15.4	19.2	19.2	46.2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9.3	31.7	14.6	24.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9.0	29.0	12.9	29.0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30.9	30.9	16.4	21.8	100.0
미취업자	(17)	23.5	29.4	5.9	41.2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31.6	36.8	21.1	10.5	100.0
100-400만원	(33)	33.3	24.2	15.2	27.3	100.0
미취업자 등	(20)	20.0	35.0	5.0	4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5.3	32.4	14.7	17.6	100.0
기타	(38)	23.7	28.9	13.2	34.2	100.0



[그림 7-1]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표 7-2>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한 결과, ‘2-3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0.6%로 가장 높고, ‘0-1일(29.2%)’, ‘8

일 이상'(26.4%) 순이다.

혼인상태별로 이혼은 '8일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30.2%로 가장 높고, 별거·가출은 '2-3일'(36.8%)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연령별로 34세 이하는 '0-1일'과 '2-3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37.0%로 가장 높고, 35세 이상은 '8일 이상'(46.2%)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34세 이하는 비교적 최근에 맞선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절차가 최근에 더욱 간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2-3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1.7%로 가장 높고, 출신국별로 베트남 출신은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5.3%로 가장 높고, 그 외에 기타 출신국은 '8일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34.2%로 가장 높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첫날 만나고,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1-2일 정도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맞선과 결혼관행은 면접대상자 중 가장 최근에 결혼한 2012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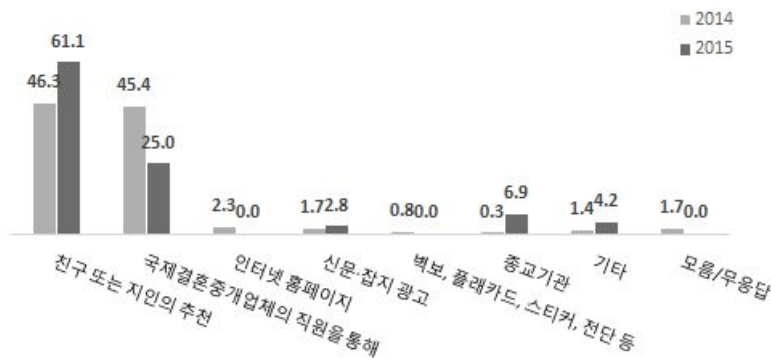
첫날 만나고, 다음날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식하고[사례 #B18, 여, 32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김제거주].

12시 반에 만나서 한 시간 반 후에 바로 결혼, 남편하고는 베트남에서 3일 정도 있었어요[사례 #B13, 여, 27세, 2012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표 7-3>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알게 된 통로, 2014-2015년

(단위: 명, %)

	(N)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 등	종교기관	기타	모름·무응답	계
2014	(402)	46.3	45.4	2.3	1.7	0.8	0.3	1.4	1.7	100.0
2015	(72)	61.1	25.0	0.0	2.8	0.0	6.9	4.2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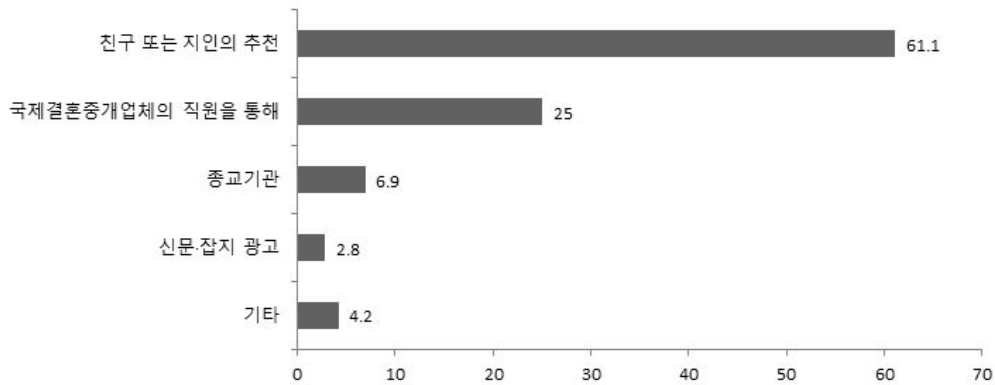


[그림 7-2]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알게 된 통로, 2014-2015년

<표 7-4>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단위: 명, %)

	(N)	친구 또는 지인 (기존 국제결혼 성혼자 포함)의 추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	종교 기관	신문·잡지 광고	기타	계
□ 전체 □	(72)	61.1	25.0	6.9	2.8	4.2	100.0
혼인상태							
이혼	(53)	60.4	26.4	5.7	3.8	3.8	100.0
별거·가출	(19)	63.2	21.1	10.5	0.0	5.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60.9	32.6	0.0	2.2	4.3	100.0
35세 이상	(26)	61.5	11.5	19.2	3.8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56.1	36.6	0.0	2.4	4.9	100.0
고등학교 이상	(31)	67.7	9.7	16.1	3.2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61.8	23.6	5.5	3.6	5.5	100.0
미취업자	(17)	58.8	29.4	11.8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57.9	31.6	5.3	0.0	5.3	100.0
100-400만원	(33)	63.6	18.2	6.1	6.1	6.1	100.0
미취업자 등	(20)	60.0	30.0	10.0	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61.8	35.3	0.0	0.0	2.9	100.0
기타	(38)	60.5	15.8	13.2	5.3	5.3	100.0



[그림 7-3]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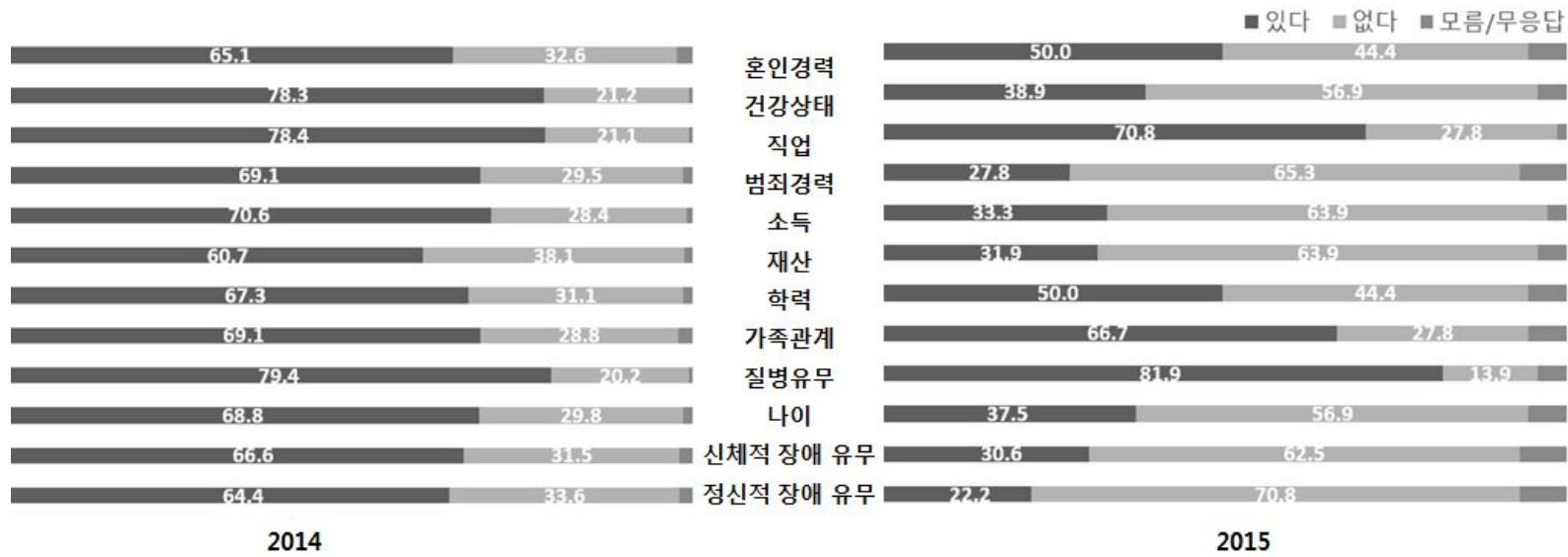
<표 7-3>과 <표 7-4>에서 혼인중단 여성에게 본인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61.1%로 가장 높으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25.0%), ‘종교기관’(6.9%), ‘신문·잡지 광고’(2.8%) 순이다.

혼인중단 여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알게 된 통로를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조사 모두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라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세부특성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표 7-4),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은 고졸 이상인 경우 67.7%로 가장 높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서’라는 응답 비율은 중졸 이하(36.6%)와 베트남 출신(35.3%)이 높으며, 고졸 이상이 9.7%로 현저히 낮다. ‘종교기관’이라는 응답 비율은 35세 이상(19.2%)과 고졸 이상(16.1%)이 높다.

<표 7-5>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혼인경력					
2014	(347)	65.1	32.6	2.3	100.0
2015	(72)	50.0	44.4	5.6	100.0
건강상태					
2014	(347)	78.3	21.2	0.5	100.0
2015	(72)	38.9	56.9	4.2	100.0
직업					
2014	(347)	78.4	21.1	0.5	100.0
2015	(72)	70.8	27.8	1.4	100.0
범죄경력					
2014	(347)	69.1	29.5	1.4	100.0
2015	(72)	27.8	65.3	6.9	100.0
소득					
2014	(347)	70.6	28.4	1.0	100.0
2015	(72)	33.3	63.9	2.8	100.0
재산					
2014	(347)	60.7	38.1	1.2	100.0
2015	(72)	31.9	63.9	4.2	100.0
학력					
2014	(347)	67.3	31.1	1.5	100.0
2015	(72)	50.0	44.4	5.6	100.0
가족관계					
2014	(347)	69.1	28.8	2.2	100.0
2015	(72)	66.7	27.8	5.6	100.0
나이					
2014	(347)	79.4	20.2	0.5	100.0
2015	(72)	81.9	13.9	4.2	100.0
질병유무					
2014	(347)	68.8	29.8	1.4	100.0
2015	(72)	37.5	56.9	5.6	100.0
신체적 장애유무					
2014	(347)	66.6	31.5	1.9	100.0
2015	(72)	30.6	62.5	6.9	100.0
정신적 장애유무					
2014	(347)	64.4	33.6	1.9	100.0
2015	(72)	22.2	70.8	6.9	100.0



[그림 7-4]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2014-2015년

<표 7-5>에서는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총 12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81.9%로 가장 높으며, '직업'(70.8%), '가족관계'(66.7%), '혼인경력'(50.0%), '학력'(50.0%) 순으로 높다. 반면 '정신적 장애 유무' 관련 신상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22.2%로 가장 낮으며, '범죄경력'(27.8%), '신체적 장애 유무'(30.6%), '재산'(31.9%), '소득'(33.3%), '질병 유무'(37.5%), '건강상태'(38.9%) 순으로 낮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나이, 직업, 가족관계, 학력 등과 같은 기본 정보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은 잘 이루어지지만,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장애 유무, 건강상태, 재산, 소득 등과 같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중단 여성에게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으로부터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나이'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혼인중단 여성이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낮다. 특히 '건강상태', '범죄경력', '소득', '재산', '질병유무', '신체적 장애유무', '정신적 장애유무'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높은 차이로 낮다.

<표 7-6>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에게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12가지에 대해 '제공 받았다'라는 응답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다. 세부특성별로 순위의 차이는 크지 않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이혼 보다는 별거·가출 상태인 경우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건강상태', '신체적 장애 유무', '정신적 장애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정신적 장애 유무'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34세 이하가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최종학력별로는 '건강상태', '소득', '범죄경력'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고졸 이상이 높다.

출신국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기타 출신국에 비해 베트남 출신이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47.1%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서도 대상자의 대부분이 최소한 나이, 가족관계,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사례 #B11>, <사례 #B15>, <사례 #B16>의 경우에는 혼인경력, 범죄경력, 건강상태, 소득, 재산, 학력, 질병유무, 신체적 장애 유무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에게 제공 받은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 받았다는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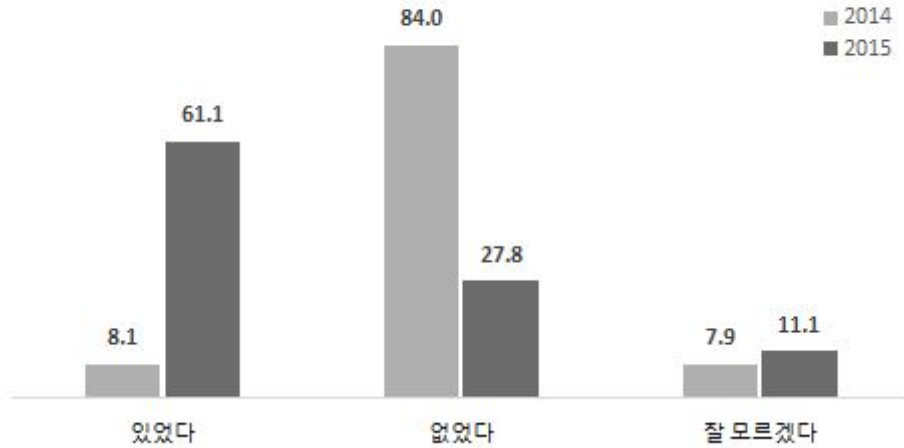
(단위: 명, %)

	(N)	나이	직업	가족 관계	혼인 경력	학력	건강 상태	질병 유무	소득	재산	신체적 장애 유무	범죄 경력	정신적 장애 유무
▣ 전체 ▣	(72)	81.9	70.8	66.7	50.0	50.0	38.9	37.5	33.3	31.9	30.6	27.8	22.2
혼인상태													
이혼	(53)	79.2	64.2	64.2	43.4	43.4	32.1	34.0	30.2	30.2	24.5	24.5	15.1
별거·가출	(19)	89.5	89.5	73.7	68.4	68.4	57.9	47.4	42.1	36.8	47.4	36.8	42.1
연령													
34세 이하	(46)	82.6	76.1	63.0	50.0	50.0	43.5	34.8	34.8	34.8	28.3	28.3	19.6
35세 이상	(26)	80.8	61.5	73.1	50.0	50.0	30.8	42.3	30.8	26.9	34.6	26.9	26.9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78.0	70.7	63.4	48.8	43.9	41.5	34.1	34.1	29.3	26.8	29.3	22.0
고등학교 이상	(31)	87.1	71.0	71.0	51.6	58.1	35.5	41.9	32.3	35.5	35.5	25.8	22.6
취업여부													
취업자	(55)	81.8	70.9	67.3	52.7	50.9	40.0	40.0	32.7	32.7	34.5	29.1	25.5
미취업자	(17)	82.4	70.6	64.7	41.2	47.1	35.3	29.4	35.3	29.4	17.6	23.5	11.8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73.7	78.9	73.7	57.9	42.1	42.1	42.1	36.8	26.3	26.3	21.1	21.1
100-400만원	(33)	84.8	66.7	66.7	51.5	54.5	39.4	39.4	33.3	39.4	36.4	36.4	27.3
미취업자 등	(20)	85.0	70.0	60.0	40.0	50.0	35.0	30.0	30.0	25.0	25.0	20.0	15.0
출신국													
베트남	(34)	79.4	73.5	64.7	50.0	50.0	47.1	41.2	32.4	32.4	29.4	26.5	29.4
기타	(38)	84.2	68.4	68.4	50.0	50.0	31.6	34.2	34.2	31.6	31.6	28.9	15.8

<표 7-7> 결혼이민자가 예비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	계
2014	(402)	8.1	84.0	7.9	100.0
2015	(72)	61.1	27.8	1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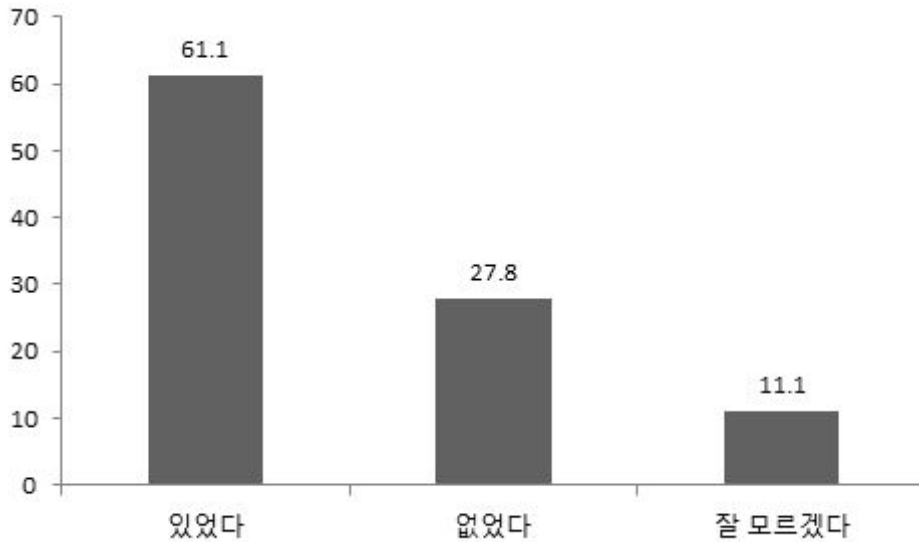


[그림 7-5] 결혼이민자가 예비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 2014-2015년

<표 7-8>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단위: 명, %)

	(N)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72)	61.1	27.8	11.1	100.0
혼인상태					
이혼	(53)	60.4	28.3	11.3	100.0
별거·가출	(19)	63.2	26.3	10.5	100.0
연령					
34세 이하	(46)	56.5	26.1	17.4	100.0
35세 이상	(26)	69.2	30.8	0.0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51.2	31.7	17.1	100.0
고등학교 이상	(31)	74.2	22.6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67.3	21.8	10.9	100.0
미취업자	(17)	41.2	47.1	11.8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68.4	21.1	10.5	100.0
100-400만원	(33)	69.7	18.2	12.1	100.0
미취업자 등	(20)	40.0	50.0	1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58.8	26.5	14.7	100.0
기타	(38)	63.2	28.9	7.9	100.0



[그림 7-6]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표 7-7>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에게 제공 받는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불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61.1%로 높다. 반면,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는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84.0%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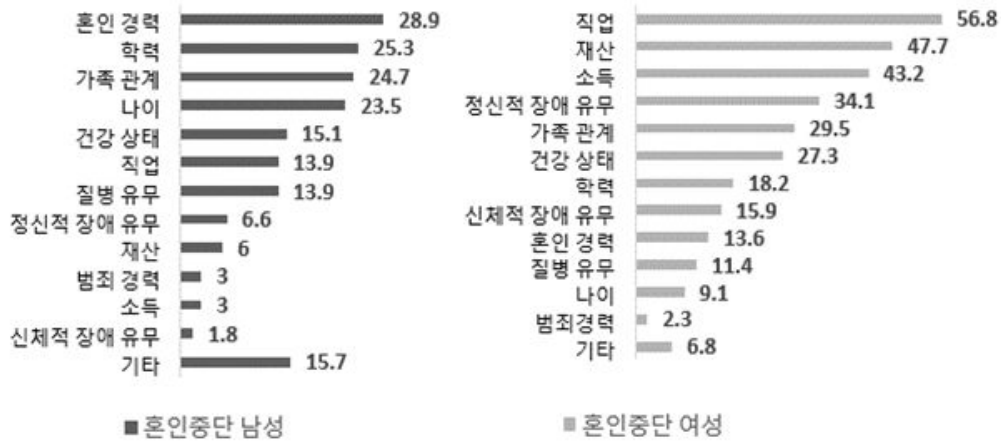
<표 7-8>에서 세부특성별로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신상정보가 불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 이혼과 별거나 가출 모두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별거·가출 상태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최종학력별로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에게 제공받은 신상정보가 불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이 고졸 이상(74.2%)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7-9>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달랐던 정보(복수응답)

(단위: 명, %)

	(N)	직업	소득	나이	학력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마성년 자녀, 부모 부양	재산	혼인 경력	범죄 경력	정신적 장애 유무	기타	모름·무응답
2014	(33)	38.4	28.9	23.7	22.7	20.0	15.4	15.4	11.7	11.0	5.1	5.9	8.6
2015	(44)	56.8	43.2	9.1	18.2	27.3	29.5	47.7	13.6	2.3	34.1	6.8	0.0

주: 결혼 전과 후의 정보가 다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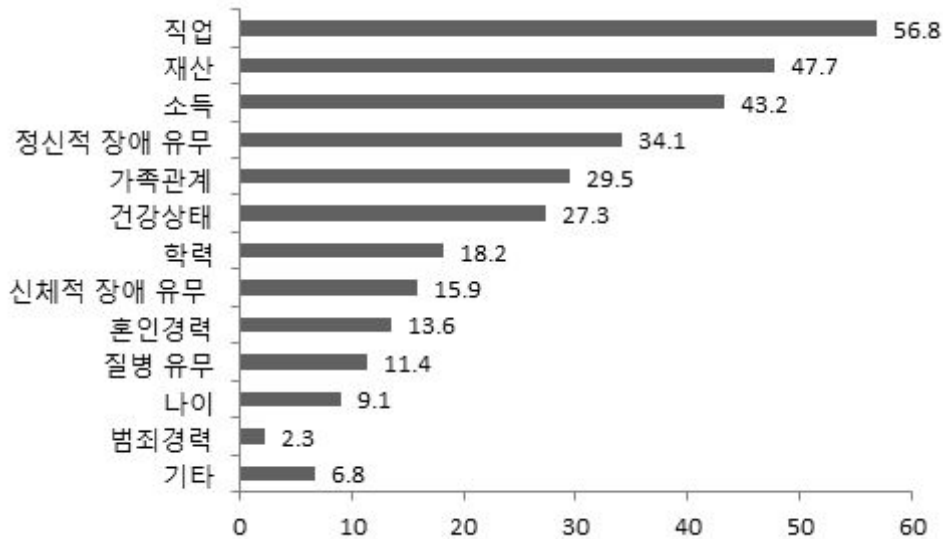
[그림 7-7]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달랐던 정보(복수응답)

<표 7-10>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단위: 명, %)

	(N)	직업	재산	소득	정신적 장애 유무	가족관계	건강상태	학력	신체적 장애 유무	혼인경력	질병유무	나이	범죄경력	기타	계
■ 전체 □ (44)		56.8	47.7	43.2	34.1	29.5	27.3	18.2	15.9	13.6	11.4	9.1	2.3	6.8	100.0
혼인상태															
이혼 (32)		62.5	53.1	43.8	34.4	21.9	28.1	21.9	15.6	15.6	6.3	6.3	0.0	3.1	100.0
별거·가출 (12)		41.7	33.3	41.7	33.3	50.0	25.0	8.3	16.7	8.3	25.0	16.7	8.3	16.7	100.0
연령															
34세 이하 (26)		61.5	42.3	38.5	34.6	42.3	26.9	11.5	11.5	15.4	11.5	7.7	0.0	7.7	100.0
35세 이상 (18)		50.0	55.6	50.0	33.3	11.1	27.8	27.8	22.2	11.1	11.1	11.1	5.6	5.6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21)		57.1	47.6	47.6	42.9	38.1	19.0	14.3	19.0	19.0	4.8	4.8	0.0	9.5	100.0
고등학교 이상 (23)		56.5	47.8	39.1	26.1	21.7	34.8	21.7	13.0	8.7	17.4	13.0	4.3	4.3	100.0
취업여부															
취업자 (37)		59.5	45.9	37.8	29.7	27.0	24.3	18.9	13.5	16.2	5.4	10.8	0.0	5.4	100.0
미취업자 (7)		42.9	57.1	71.4	57.1	42.9	42.9	14.3	28.6	0.0	42.9	0.0	14.3	14.3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3)		69.2	69.2	53.8	46.2	53.8	23.1	23.1	23.1	15.4	7.7	23.1	0.0	7.7	100.0
100-400만원 (23)		56.5	34.8	30.4	21.7	13.0	26.1	17.4	8.7	17.4	4.3	4.3	0.0	0.0	100.0
미취업자 등 (8)		37.5	50.0	62.5	50.0	37.5	37.5	12.5	25.0	0.0	37.5	0.0	12.5	25.0	100.0
출신국															
베트남 (20)		65.0	40.0	35.0	30.0	35.0	15.0	15.0	15.0	20.0	10.0	5.0	0.0	10.0	100.0
기타 (24)		50.0	54.2	50.0	37.5	25.0	37.5	20.8	16.7	8.3	12.5	12.5	4.2	4.2	100.0

<표 7-9>에서는 혼인중단 여성이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들었던 정보와 결혼 후에 알게 된 정보가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무엇이 달랐는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직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56.8%로 가장 높고, ‘재산’(47.7%), ‘소득’(43.2%), ‘정신적 장애 유무’(34.1%), ‘가족관계’(29.5%), ‘건강상태’(27.3%) 순이다.



[그림 7-8]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그림 7-7]에서 혼인중단 남성과 혼인중단 여성의 결혼 전후 정보가 달라진 것을 찾아보면, 남성은 혼인경력(28.9%), 학력(25.3%), 가족관계(24.7%), 나이(23.5%)를 주로 지적하고, 여성은 직업(56.8%), 재산(47.7%), 소득(43.2%), 정신적 장애 유무(34.1%), 가족관계(29.5%), 건강상태(27.3%)를 주로 언급한다.

‘나이’와 ‘학력’이라는 선택을 한 응답자 비율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으며(표 7-9), 두 조사 모두 ‘직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응답 항목 중 ‘재산’과 ‘정신적 장애 유무’는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며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서도 정보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받은 정보가 모두 허위였던 사례도 있었다.

소득하고 직업, 재산, 가족관계요. 소득은, 남편은 회사원이고 소득은 한 달에 150 정도이고, 가족은 둘이서 살고, 재산은 밭 있고, 가게 있고, 집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회사원은 아니고, 농사, 농업인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농사만 지었어요. 집은 자기 집도 아니고 어머니 집이었어요. 가족은 어머니 안산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어머니랑 같이.....[사례 #B16,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다 다른. 건강상태.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직업. 과수원을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잠자요. 직업 없어요. 과수원은 시동생 과수원. 나이는 저 처음 봤을 때 나이 42, 한국에 오니까 51,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산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같이 살고,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조카 다[사례 #B15, 여, 27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또한 건강상태의 경우 지각장애나 정신과 치료 경력을 몰랐다고 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남편은 약간 지각장애는 있어요. 근데 업체는 그런 것 이야기 안 해 줘요[사례 #B18, 여, 32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김제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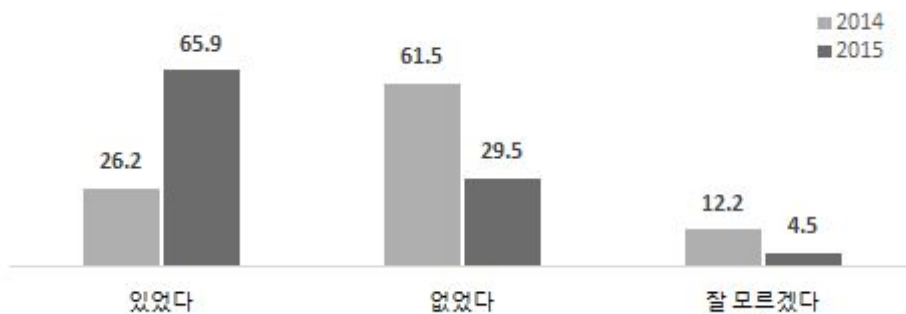
<표 7-10>에서 세부집단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 이혼인 경우 ‘직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62.5%로 가장 높으며, 별거나 가출 상태인 경우 ‘가족관계’라는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는 ‘직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61.5%로 가장 높으나, 35세 이상은 ‘재산’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출신국별로 베트남 출신은 ‘직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65.0%로 가장 높으나, 기타 출신국은 ‘재산’이라는 응답 비율이 54.2%로 가장 높다.

<표 7-11>에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의 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르므로 인해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65.9%로 높으나,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갈등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61.5%로 높다. 이것은 ‘혼인중단 여성’과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이라는 두 집단이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으로 판단된다.

<표 7-11>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유무, 2014-2015년 (단위: 명, %)

	(N)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	계
2014	(33)	26.2	61.5	12.2	100.0
2015	(44)	65.9	29.5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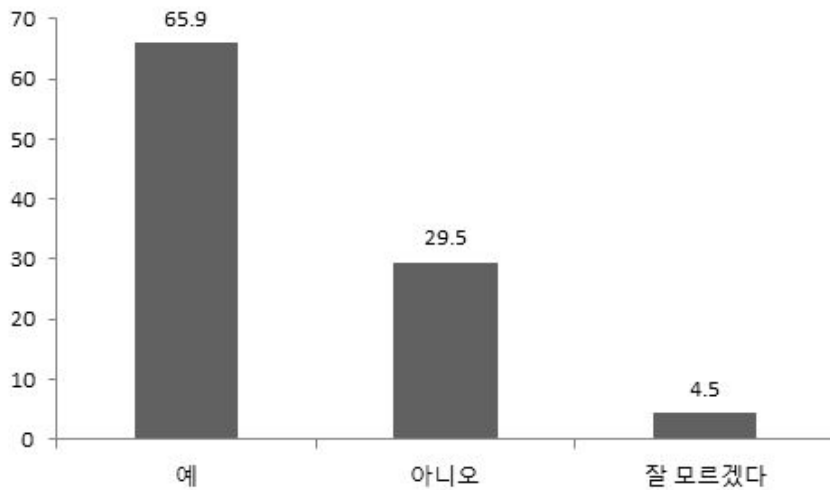
주: 결혼 전과 후의 정보가 다른 경우



[그림 7-9]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유무, 2014-2015년

<표 7-12>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한 갈등발생 여부

		(단위: 명, %)			
□ 전체 □	(N)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계
	(44)	65.9	29.5	4.5	100.0
혼인상태					
이혼	(32)	59.4	37.5	3.1	100.0
별거·가출	(12)	83.3	8.3	8.3	100.0
연령					
34세 이하	(26)	65.4	30.8	3.8	100.0
35세 이상	(18)	66.7	27.8	5.6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21)	71.4	23.8	4.8	100.0
고등학교 이상	(23)	60.9	34.8	4.3	100.0
취업여부					
취업자	(37)	67.6	29.7	2.7	100.0
미취업자	(7)	57.1	28.6	14.3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3)	84.6	15.4	0.0	100.0
100-400만원	(23)	56.5	39.1	4.3	100.0
미취업자 등	(8)	62.5	25.0	12.5	100.0
출신국					
베트남	(20)	60.0	35.0	5.0	100.0
기타	(24)	70.8	25.0	4.2	100.0



[그림 7-10]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한 갈등발생 여부

<표 7-12>에서 보듯이,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로 인한 갈등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나 가출 상태가 이혼에 비해 큰 차이로 ‘예’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71.4%)인 경우 고졸 이상(60.9%)보다 갈등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월평균 임

금별로 100만원 미만(84.6%), 출신국별로 기타(70.8%)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 의하면, 정보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지 않아서 갈등이 없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체념상태, 또는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냥 어찌겠어, 한국에 이미 왔는데 따져봐야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끝났어요[사례 #B16,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너무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사례 #B14, 여, 36세, 2005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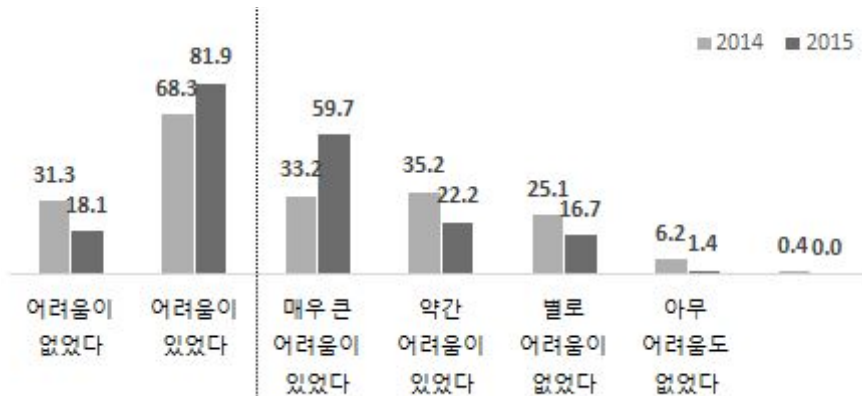
그냥 남편한테만 따졌어요. 남편도 자기가 그 소리(직업 관련)를 안했다, 거기 업체에서 속인다고[사례 #B12, 여, 32세, 2005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익산거주].

또한 이주여성들은 정보의 불일치를 알았을 때, <사례 #B16>의 경우 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갔으나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체념으로 끝났고, <사례 #B11>, <사례 #13>, <사례 #14>의 경우에는 결혼업체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소개 받을 때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②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①+②	③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④ 전혀 어렵지 않았다	③+④	모름·무 응답	계	평균 (점)
2014	(402)	33.2	35.2	68.3	25.1	6.2	31.3	0.4	100.0	3.0
2015	(72)	59.7	22.2	81.9	16.7	1.4	18.1	0.0	100.0	3.4



[그림 7-11]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소개 받을 때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2014-2015년

<표 7-14>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N)	①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①+②	③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④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③+④	계	평균 (점)
■ 전체 ■	(72)	1.4	16.7	18.1	22.2	59.7	81.9	100.0	3.4
혼인상태									
이혼	(53)	1.9	17.0	18.9	22.6	58.5	81.1	100.0	3.4
별거·가출	(19)	0.0	15.8	15.8	21.1	63.2	84.2	100.0	3.5
연령									
34세 이하	(46)	0.0	19.6	19.6	19.6	60.9	80.4	100.0	3.4
35세 이상	(26)	3.8	11.5	15.4	26.9	57.7	84.6	100.0	3.4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0.0	9.8	9.8	22.0	68.3	90.2	100.0	3.6
고등학교 이상	(31)	3.2	25.8	29.0	22.6	48.4	71.0	100.0	3.2
취업여부									
취업자	(55)	1.8	18.2	20.0	23.6	56.4	80.0	100.0	3.3
미취업자	(17)	0.0	11.8	11.8	17.6	70.6	88.2	100.0	3.6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15.8	15.8	26.3	57.9	84.2	100.0	3.4
100-400만원	(33)	3.0	15.2	18.2	21.2	60.6	81.8	100.0	3.4
미취업자 등	(20)	0.0	20.0	20.0	20.0	60.0	80.0	100.0	3.4
출신국									
베트남	(34)	2.9	11.8	14.7	8.8	76.5	85.3	100.0	3.6
기타	(38)	0.0	21.1	21.1	34.2	44.7	78.9	100.0	3.2

<표 7-13>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을 통해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81.9%로 상당히 높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 역시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본 조사에서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다.

<표 7-14>에서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84.2%), 연령별로는 35세 이상(84.6%),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90.2%),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88.2%),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84.2%), 출신국별로는 베트남(85.3%)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7-15>에서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의 언어 실력을 조사한 결과, ‘우수(우수+매우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22.2%로 ‘미흡(매우미흡+미흡)’(20.8%)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우수(우수+매우 우수)’하다는 응답 비율이 57.7%로 혼인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표 7-15> 국제결혼중개업체 통역인의 실력 평가,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①+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④+⑤	모름·무 응답	계	평균 (점)
2014	(402)	2.6	3.7	6.3	35.9	49.0	8.8	57.7	0.0	100.0	3.6
2015	(72)	6.9	13.9	20.8	52.8	18.1	4.2	22.2	4.2	100.0	3.0



[그림 7-12] 국제결혼중개업체 통역인의 실력 평가, 2014-2015년

<표 7-16>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단위: 명, %)

	(N)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①+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④+⑤	모름·무 응답	계
전체	(72)	6.9	13.9	20.8	52.8	18.1	4.2	22.2	4.2	100.0
혼인상태										
이혼	(53)	3.8	13.2	17.0	56.6	15.1	5.7	20.8	5.7	100.0
별거·가출	(19)	15.8	15.8	31.6	42.1	26.3	0.0	26.3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0.9	13.0	23.9	52.2	17.4	4.3	21.7	2.2	100.0
35세 이상	(26)	0.0	15.4	15.4	53.8	19.2	3.8	23.1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9.8	14.6	24.4	48.8	17.1	4.9	22.0	4.9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2	12.9	16.1	58.1	19.4	3.2	22.6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5.5	16.4	21.8	56.4	16.4	3.6	20.0	1.8	100.0
미취업자	(17)	11.8	5.9	17.6	41.2	23.5	5.9	29.4	11.8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10.5	5.3	15.8	63.2	10.5	5.3	15.8	5.3	100.0
100-400만원	(33)	3.0	24.2	27.3	54.5	15.2	3.0	18.2	0.0	100.0
미취업자 등	(20)	10.0	5.0	15.0	40.0	30.0	5.0	35.0	1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11.8	14.7	26.5	52.9	14.7	2.9	17.6	2.9	100.0
기타	(38)	2.6	13.2	15.8	52.6	21.1	5.3	26.3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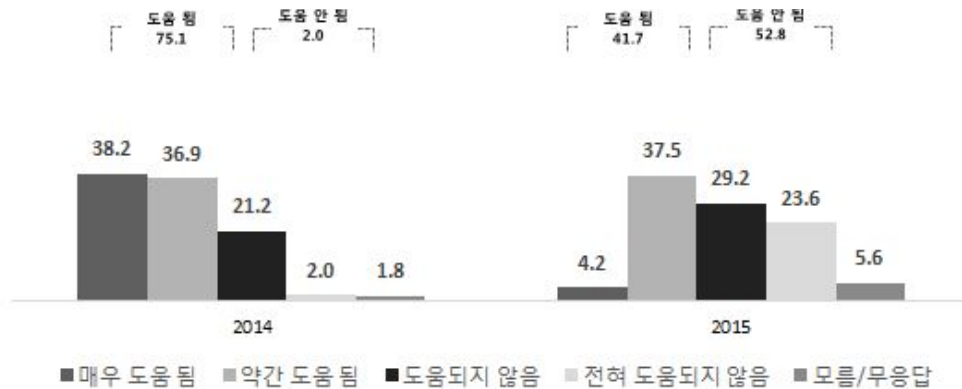
<표 7-16>에서 혼인상태별로 이혼 상태는 ‘우수(우수+매우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20.8%로 ‘미흡(매우미흡+미흡)’(17.0%)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으나, 별거·가출 상태는 ‘미흡(매우미흡+미흡)’(31.6%)이라는 응답 비율이 ‘우수(우수+매우 우수)’(26.3%)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는 ‘미흡’(23.9%)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35세 이상은 ‘우수’(23.1%)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미흡’(24.4%)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고졸 이상은 ‘우수’(22.6%)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취업여부별로 취업자는 ‘미흡’(21.8%)이라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고, 미취업자는 ‘우수’(29.4%)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100-400만원은 ‘미흡’(27.3%)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미취업자 등은 ‘우수’(35.0%)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출신국별로 베트남은 ‘미흡’(26.5%)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기타 출신국은 ‘우수’(26.3%)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7-17>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높다. 반면,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75.1%로 높다.

<표 7-17>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 도움 정도,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④	모름·무 응답	계	평균 (점)
2014	(402)	38.2	36.9	75.1	21.2	2.0	2.0	1.8	100.0	4.1
2015	(72)	4.2	37.5	41.7	29.2	23.6	52.8	5.6	100.0	2.2



[그림 7-1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 도움 정도, 2014-2015년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다”는 사례들(사례 #B11, 사례 #B12, 사례 #B13, 사례 #B14)도 있었으나,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요. 통역이 우리가 말 할 기회를 거의 안주는 것 같아요. 통역은 그냥 전달, 우리에게 전달만 하고. 그냥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도 안 물어봤죠[사례 #B16,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통역사는 그냥 좋은 대로 이야기를 하고, 궁금했던 것 다 물어봤고, 통역사는 다 좋다고. 그냥 짧게, 신랑은 다 좋고, 짧게. 성격이 좋다, 좋아, 착해. 저도 많이 물어봤고, 직업이 뭐지도 물어봤어요. 그 대답도 한국 사람은 길데 이야기했는데. 통역은 아주 조금. 그냥 한국말은 조금 길게. 우리나라 말은 조금 짧은. 바꾸면 짧은 가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사례 #B15, 여, 27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표 7-18), 혼인상태별로 별거·가출(63.2%), 연령별로 35세 이상(57.7%), 최종학력별로 고졸 이상(58.1%), 월평균 임금별로 미취업자 등(55.0%), 출신국별로 베트남(52.9%)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7-18>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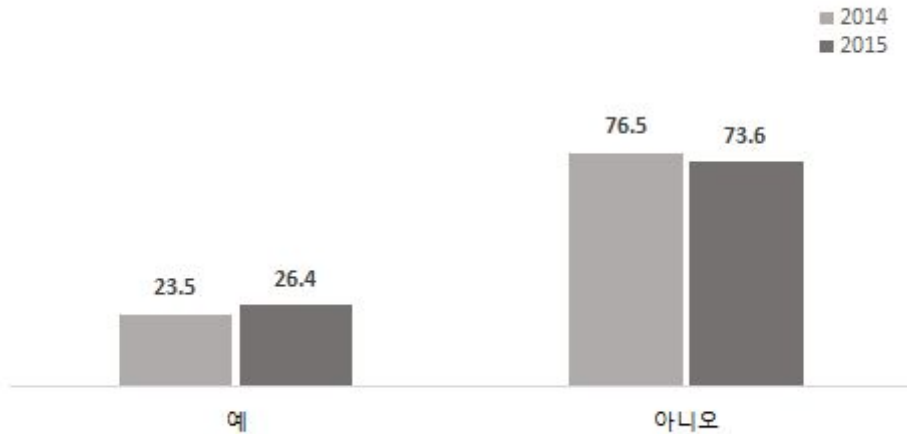
(단위: 명, %)

	(N)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①+②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③+④	모름·무 응답	계
▣ 전체 ▣	(72)	23.6	29.2	52.8	37.5	4.2	41.7	5.6	100.0
혼인상태									
이혼	(53)	30.2	18.9	49.1	39.6	3.8	43.4	7.5	100.0
별거·가출	(19)	5.3	57.9	63.2	31.6	5.3	36.8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9.6	30.4	50.0	43.5	2.2	45.7	4.3	100.0
35세 이상	(26)	30.8	26.9	57.7	26.9	7.7	34.6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2.0	26.8	48.8	39.0	4.9	43.9	7.3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5.8	32.3	58.1	35.5	3.2	38.7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1.8	29.1	50.9	41.8	3.6	45.5	3.6	100.0
미취업자	(17)	29.4	29.4	58.8	23.5	5.9	29.4	11.8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1.1	26.3	47.4	36.8	10.5	47.4	5.3	100.0
100-400만원	(33)	21.2	33.3	54.5	42.4	0.0	42.4	3.0	100.0
미취업자 등	(20)	30.0	25.0	55.0	30.0	5.0	35.0	1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3.5	29.4	52.9	41.2	2.9	44.1	2.9	100.0
기타	(38)	23.7	28.9	52.6	34.2	5.3	39.5	7.9	100.0

<표 7-19>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약속 여부, 2014-2015년

(단위: 명, %)

	(N)	예	아니오	계
2014	(402)	23.5	76.5	100.0
2015	(72)	26.4	7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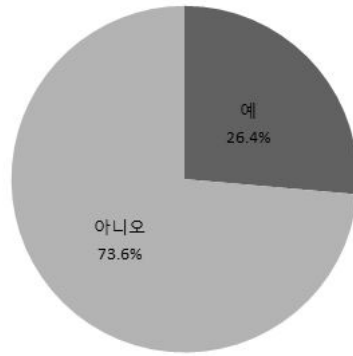


[그림 7-14]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약속 여부, 2014-2015년

<표 7-20> 성혼 시 출신국의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약속 여부

(단위: 명, %)

	(N)	예	아니오	계
전체	(72)	26.4	73.6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6.4	73.6	100.0
별거·가출	(19)	26.3	73.7	100.0
연령				
34세 이하	(46)	30.4	69.6	100.0
35세 이상	(26)	19.2	80.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4.4	75.6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9.0	71.0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9.1	70.9	100.0
미취업자	(17)	17.6	82.4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31.6	68.4	100.0
100-400만원	(33)	24.2	75.8	100.0
미취업자 등	(20)	25.0	7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2.4	67.6	100.0
기타	(38)	21.1	78.9	100.0



[그림 7-15] 성혼 시 출신국의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약속 여부

<표 7-19>에서 성혼이 되면 출신국의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는지 조사한 결과, 성혼 시 일정 금액을 현지 중개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했다는 응답 비율은 26.4%, 약속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73.6%이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 역시 ‘아니오’라는 응답 비율이 76.5%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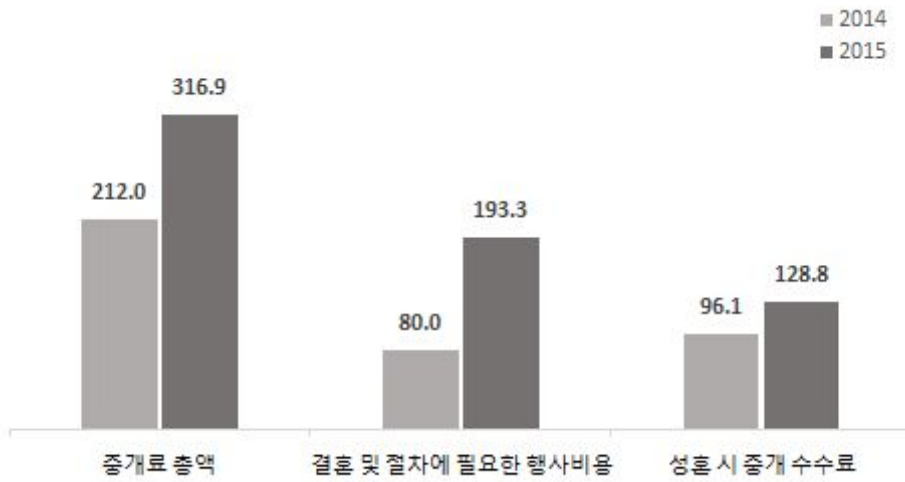
<표 7-20>에서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는 34세 이하(30.4%),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29.0%),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29.1%),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31.6%), 출신국별로는 베트남(32.4%)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표 7-21>에서는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응답한 경우, 얼마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결혼 및 절차에 필요한 행사비용은 평균 1,933,000원, 성혼 시 중개 수수료는 평균 1,288,000원으로 중개료 총액은 평균 3,169,000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중개료 총액은 약 100만원 정도 높고, 결혼 및 절차에 필요한 행사비용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 결혼이민자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평균), 2014-2015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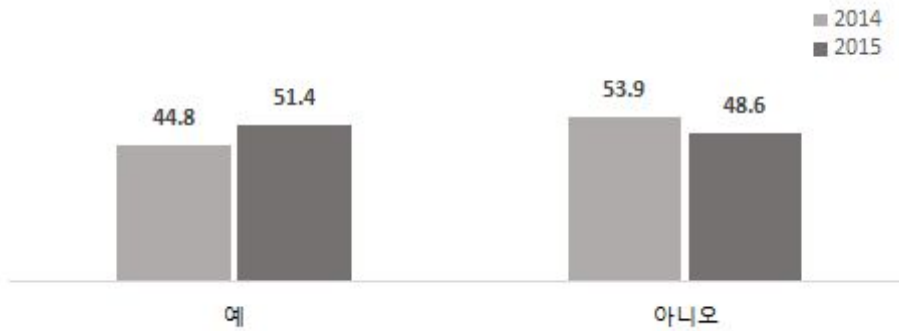
	(N)	중개료 총액	결혼 및 절차에 필요한 행사비용	성혼 시 중개 수수료
2014	(94)	212.0	80.0	96.1
2015	(19)	316.9	193.3	128.8



[그림 7-16] 결혼이민자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평균), 2014-2015년

<표 7-22> 예단비를 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N)				계	(단위: 명, %) 평균 예단비 (만원)
		받았다	받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2014	(402)	44.8	53.9	1.3	100.0	83.2
2015	(72)	51.4	48.6	0.0	100.0	62.0



[그림 7-17] 예단비를 받았는지 여부, 2014-2015년

<표 7-22>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예단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단비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51.4%로 약간 높다. 또한 예단비를 받은 경우, 얼마나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6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배우자로부터 예단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 전체 □	(N)	받지 않았다	받았다	계	평균(만원)
	(72)	48.6	51.4	100.0	62.0
혼인상태					
이혼	(53)	54.7	45.3	100.0	54.9
별거·가출	(19)	31.6	68.4	100.0	76.4
연령					
34세 이하	(46)	30.4	69.6	100.0	55.0
35세 이상	(26)	80.8	19.2	100.0	97.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36.6	63.4	100.0	69.1
고등학교 이상	(31)	64.5	35.5	100.0	42.5
취업여부					
취업자	(55)	50.9	49.1	100.0	55.4
미취업자	(17)	41.2	58.8	100.0	80.3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42.1	57.9	100.0	38.2
100-400만원	(33)	60.6	39.4	100.0	59.5
미취업자 등	(20)	35.0	65.0	100.0	86.2
출신국					
베트남	(34)	38.2	61.8	100.0	74.5
기타	(38)	57.9	42.1	100.0	43.3

반면,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는 ‘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3.9%로 높으나, 예단비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본 조사 결과보다 20만원 가량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에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 상태는 예단비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4.7%로 높고, 별거나 가출 상태는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68.4%로 높다. 또한 예단비를 받은 경우 예단비는 별거나 가출 상태인 경우 평균 20만원 이상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4세 이하는 예단비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69.6%로 더 높고, 35세 이상은 ‘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80.8%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예단비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35세 이상이 평균 40만원 이상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63.4%로 높고, 고졸 이상은 ‘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64.5%로 더 높다. 또한 예단비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중졸 이하가 평균 25만원 이상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 취업자는 ‘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0.9%로 약간 더 높으며, 미취업자는 ‘받았다’(58.8%)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예단비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미취업자가 평균 25만원 가량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별로 100-400만원인 경우만 ‘받지 않았다’(60.6%)는 응답 비율이 더 높으며, 예단비를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은 미취업자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베트남은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61.8%로 높고, 기타 출신국은 ‘받지 않았다’(57.9%)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예단비를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은 베트남 출신이 평균 30만원 가량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4>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서비스의 불만사항에 대해 5가지 항목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당시 배우자의 인성(생활력, 근면성, 배려심, 음주 습관, 폭력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와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 수준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해주지 않았다.’는 항목이 동일하게 72.3%로 가장 높고, ‘당시 배우자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 필요성,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70.8%),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남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69.4%),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비를 벌어들 것을 기대하는 남성을 소개시켜 주었다.’(43.0%)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서비스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당시 배우자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 필요성,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항목이 37.5%로 가장 높으며,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 수준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지 않았다.’(29.2%) 순이다.

<표 7-24>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한 서비스 불만사항

(단위: 명, %)

나 또는 당시 배우자가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아니오. 그렇지 않다	예, 그렇다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
1.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남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25.0	50.0	19.4
2.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비를 벌어들 것을 기대하는 남성을 소개시켜 주었다.	51.4	31.9	11.1
3. 당시 배우자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 필요성, 건강 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23.6	33.3	37.5
4. 당시 배우자의 인성(생활력, 근면성, 배려심, 음주 습관, 폭력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22.2	55.6	16.7
5.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 수준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지 않았다.	23.6	43.1	29.2

<표 7-25>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남성을 소개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25.0	50.0	19.4	69.4	5.6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0.8	52.8	18.9	71.7	7.5	100.0
별거·가출	(19)	36.8	42.1	21.1	63.2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30.4	43.5	21.7	65.2	4.3	100.0
35세 이상	(26)	15.4	61.5	15.4	76.9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31.7	46.3	19.5	65.9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16.1	54.8	19.4	74.2	9.7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3.6	52.7	16.4	69.1	7.3	100.0
미취업자	(17)	29.4	41.2	29.4	70.6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15.8	47.4	26.3	73.7	10.5	100.0
100-400만원	(33)	24.2	57.6	12.1	69.7	6.1	100.0
미취업자 등	(20)	35.0	40.0	25.0	6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8.2	32.4	29.4	61.8	0.0	100.0
기타	(38)	13.2	65.8	10.5	76.3	10.5	100.0

<표 7-25>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남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69.4%로 높다. 그러나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50.0%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의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71.7%), 연령별로는 35세 이상(76.9%),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74.2%), 출신국별로는 기타 출신국(76.3%)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서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남성을 나에게 소개시켜 준 것 같다고 하였는데, 한국 남성이 본인의 입장과 필요에 의해 결혼을 생각하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면 마음이나 생각을 조금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는 나이가 있어서, 여기 한국에서 결혼을 못해서, 아무튼 아이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생각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와서 잠자리만 하고, 아기는 빨리 낳으면 좋겠다,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 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게 많아요[사례 #B07,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전주거주].

<표 7-26>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아내가 가사노동 및 생활비까지 벌어들 것을 기대하는 남성을 소개시켜 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51.4%로 높다. 혼인상태별로 이혼 상태는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47.2%로 ‘그렇지 않다’(45.3%)는 응답 비율보다 약간 높으나,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34.0%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의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별거나 가출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68.4%로 높다. 연령별로 34세 이하는 ‘그렇지 않다’(60.9%)는 응답 비율이 높고, 35세 이상은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57.7%)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그렇지 않다’(61.0%)는 응답 비율이 높고, 고졸 이상은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51.6%)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취업여부별로 취업자는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47.3%)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고, 미취업자는 ‘그렇지 않다’(70.6%)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표 7-26> 아내가 가사노동 및 생활비까지 벌어들 것을 기대하는 남성 소개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51.4	31.9	11.1	43.1	5.6	100.0
혼인상태							
이혼	(53)	45.3	34.0	13.2	47.2	7.5	100.0
별거·가출	(19)	68.4	26.3	5.3	31.6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60.9	26.1	8.7	34.8	4.3	100.0
35세 이상	(26)	34.6	42.3	15.4	57.7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61.0	29.3	7.3	36.6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8.7	35.5	16.1	51.6	9.7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45.5	36.4	10.9	47.3	7.3	100.0
미취업자	(17)	70.6	17.6	11.8	29.4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47.4	31.6	10.5	42.1	10.5	100.0
100-400만원	(33)	48.5	36.4	9.1	45.5	6.1	100.0
미취업자 등	(20)	60.0	25.0	15.0	4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58.8	23.5	17.6	41.2	0.0	100.0
기타	(38)	44.7	39.5	5.3	44.7	10.5	100.0

심층조사에서는 생활비까지 벌어들일 것을 기대하는 남성을 소개해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남편의 무능력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 함을 토로한 <사례 #B15>가 있었다.

결혼하면 행복해서 친정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하고[사례 #B15, 여, 27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 중, 익산거주].

<표 7-27>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당시 배우자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 필요성,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70.8%로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78.9%), 연령별로는 34세 이하(71.7%),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78.0%),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76.5%),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78.9%), 출신국별로는 베트남(76.5%)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7-27>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23.6	33.3	37.5	70.8	5.6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4.5	34.0	34.0	67.9	7.5	100.0
별거·가출	(19)	21.1	31.6	47.4	78.9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23.9	30.4	41.3	71.7	4.3	100.0
35세 이상	(26)	23.1	38.5	30.8	69.2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19.5	36.6	41.5	78.0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9.0	29.0	32.3	61.3	9.7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3.6	30.9	38.2	69.1	7.3	100.0
미취업자	(17)	23.5	41.2	35.3	76.5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10.5	21.1	57.9	78.9	10.5	100.0
100-400만원	(33)	27.3	36.4	30.3	66.7	6.1	100.0
미취업자 등	(20)	30.0	40.0	30.0	7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3.5	29.4	47.1	76.5	0.0	100.0
기타	(38)	23.7	36.8	28.9	65.8	10.5	100.0

심층조사에 의하면, 혼인중단 이주여성들은 중개업체가 신상정보를 알면서도 제대로 안 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빨리 결혼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중개업체의 속성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당시에 학력, 직업, 소득수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안 해줬어요. 그냥 말을 안 해주는, 알면서도 말을 안 해줘요[사례 #B16,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그냥 빨리 결혼을 하려고, 빨리 보내려고, 왜냐면 신랑한테 돈을 받으니까. 빨리 결혼을 성사시켜야만 결혼 정보업체가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안 좋다고 설명을 하면 저도 안 되니까. 빨리 결혼을 결정하게 하려고[사례 #B15, 여, 27세, 2007년 결혼, 국적 캄보디아,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그 업체는, 아마 자기는 알고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근데 원래 업체는 한명, 이렇게 결혼을 하면 돈을 얼마 받잖아요. 그래서 알아도 알려주지 않아요[사례 #B07,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전주거주].

<표 7-28>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당시 배우자의 인성(생활력, 근면성, 배려심, 음주 습관, 폭력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

<표 7-28>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22.2	55.6	16.7	72.2	5.6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2.6	56.6	13.2	69.8	7.5	100.0
별거·가출	(19)	21.1	52.6	26.3	78.9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9.6	54.3	21.7	76.1	4.3	100.0
35세 이상	(26)	26.9	57.7	7.7	65.4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17.1	63.4	17.1	80.5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29.0	45.2	16.1	61.3	9.7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18.2	60.0	14.5	74.5	7.3	100.0
미취업자	(17)	35.3	41.2	23.5	64.7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5.3	63.2	21.1	84.2	10.5	100.0
100-400만원	(33)	21.2	60.6	12.1	72.7	6.1	100.0
미취업자 등	(20)	40.0	40.0	20.0	6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6.5	52.9	20.6	73.5	0.0	100.0
기타	(38)	18.4	57.9	13.2	71.1	10.5	100.0

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72.2%로 높다. 그러나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55.6%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의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78.9%), 연령별로는 34세 이하(76.1%),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80.5%),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74.5%),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84.2%), 출신국별로는 베트남(73.5%)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심층조사에서도 배우자의 인성에 관해서는 중개업체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만나면 그 성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안 알려줬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건 아마 몰라서 안 알려줬을 것이다[사례 #B14, 여, 36세, 2005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익산거주].

남편이, 아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폭력적인 게 가장 불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중개업체도 몰랐을 것 같아요[사례 #B06, 여, 46세, 2012년 결혼, 국적 중국, 이혼, 전주거주].

<표 7-29>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지 않음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72)	23.6	43.1	29.2	72.2	4.2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6.4	41.5	26.4	67.9	5.7	100.0
별거·가출	(19)	15.8	47.4	36.8	84.2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9.6	39.1	39.1	78.3	2.2	100.0
35세 이상	(26)	30.8	50.0	11.5	61.5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17.1	48.8	31.7	80.5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2.3	35.5	25.8	61.3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0.0	45.5	29.1	74.5	5.5	100.0
미취업자	(17)	35.3	35.3	29.4	64.7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10.5	52.6	31.6	84.2	5.3	100.0
100-400만원	(33)	24.2	39.4	30.3	69.7	6.1	100.0
미취업자 등	(20)	35.0	40.0	25.0	6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17.6	50.0	32.4	82.4	0.0	100.0
기타	(38)	28.9	36.8	26.3	63.2	7.9	100.0

<표 7-29>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었으나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 수준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지 않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72.2%로 높다. 그러나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43.1%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의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그렇다(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84.2%), 연령별로는 34세 이하(78.3%),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80.5%),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74.5%),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84.2%), 출신국별로는 베트남(82.4%)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심층조사 결과, <사례 #B13>의 경우 한국 배우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줬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직업인지, 어느 정도 사는 것인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토로하였다.

제 8 장 국제결혼 부부와 출신국 현지 중개인의 관계

현지 중개인과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63.9%로 높다(표 8-1). 이 결과를 통해 서면으로 된 계약서 없이 국제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혼인중단 이민여성은 10명 중 6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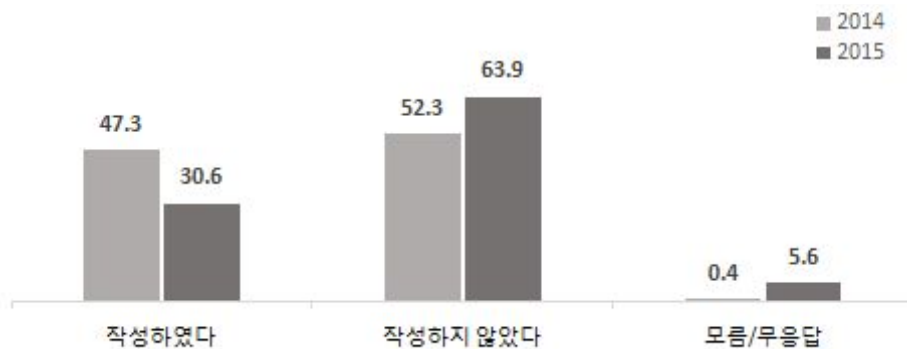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본 조사 결과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2.3% 높으나, 혼인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한 ‘작성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표 8-2),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47.4%), 연령별로는 34세 이하(34.8%), 최종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39.0%),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36.8%)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8-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현지 중개인과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2014-2015년

(단위: 명, %)

	(N)	작성하였다	작성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2014	(402)	47.3	52.3	0.4	100.0
2015	(72)	30.6	63.9	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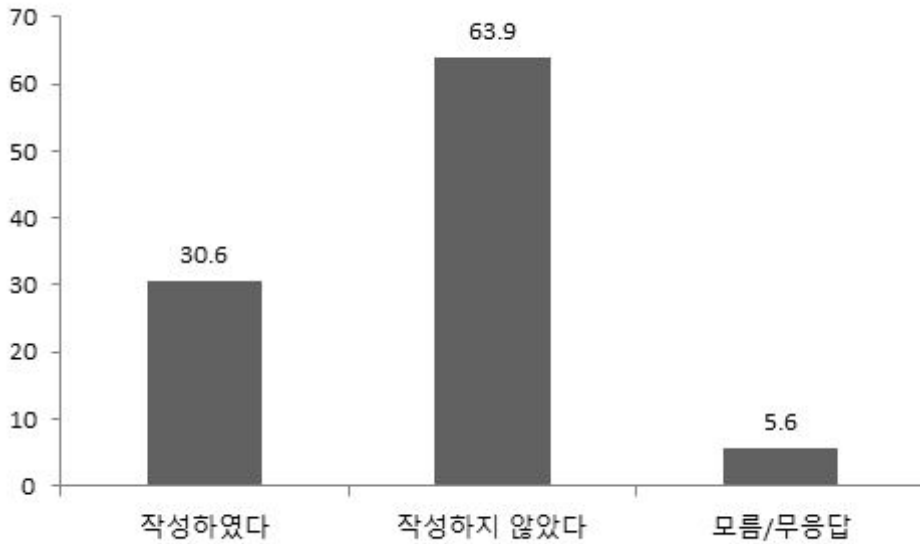


[그림 8-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현지 중개인과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2014-2015년

<표 8-2> 현지 중개인과 서면으로 된 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N)	작성하였다	작성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72)	30.6	63.9	5.6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4.5	67.9	7.5	100.0
별거·가출	(19)	47.4	52.6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34.8	63.0	2.2	100.0
35세 이상	(26)	23.1	65.4	11.5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39.0	61.0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19.4	67.7	12.9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9.1	63.6	7.3	100.0
미취업자	(17)	35.3	64.7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36.8	52.6	10.5	100.0
100-400만원	(33)	27.3	66.7	6.1	100.0
미취업자 등	(20)	30.0	7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35.3	64.7	0.0	100.0
기타	(38)	26.3	63.2	10.5	100.0



[그림 8-2] 현지 중개인과 서면으로 된 계약서 작성 여부

<표 8-3>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 결혼이민자 조사, 2014-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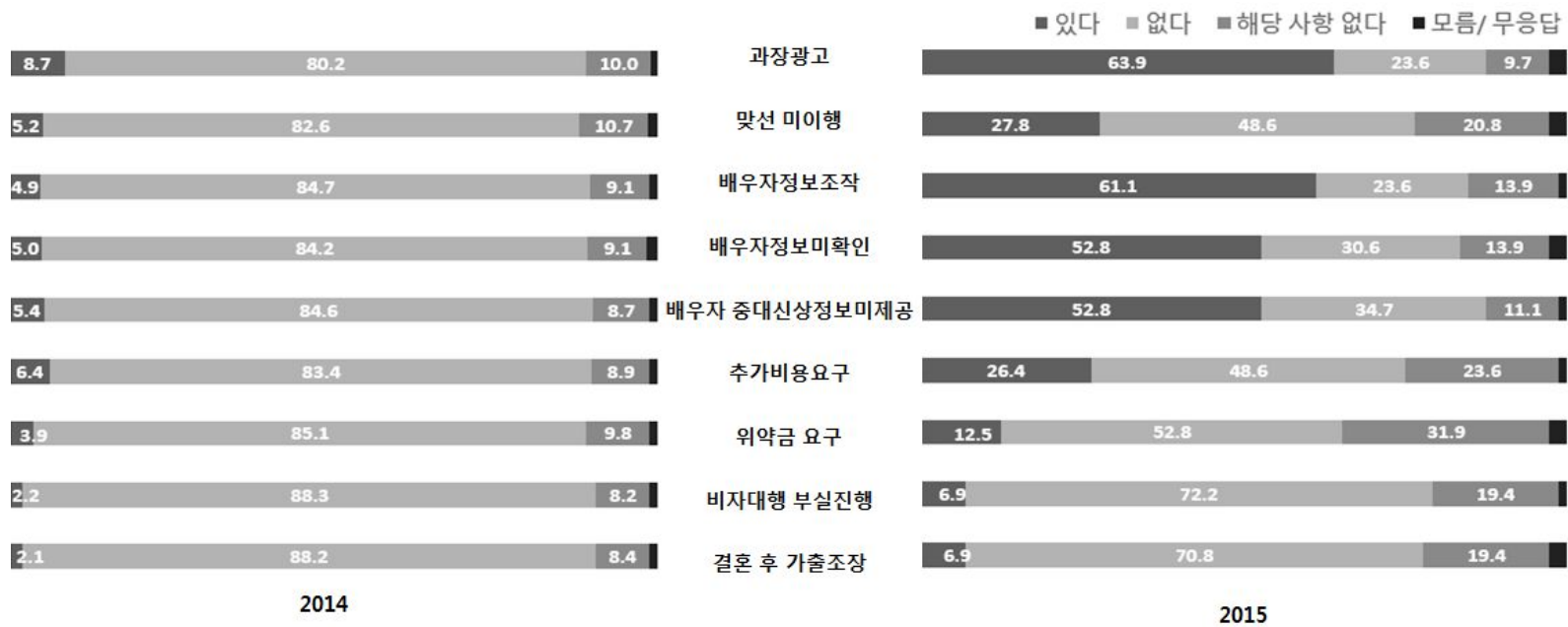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과장 광고를 했다”	2014 (402)	8.7	80.2	10.0	1.1	100.0
		2015 (72)	63.9	23.6	9.7	2.8	100.0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4 (402)	5.2	82.6	10.7	1.5	100.0
		2015 (72)	27.8	48.6	20.8	2.8	100.0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2014 (402)	4.9	84.7	9.1	1.3	100.0
		2015 (72)	61.1	23.6	13.9	1.4	100.0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	2014 (402)	5.0	84.2	9.1	1.7	100.0
		2015 (72)	52.8	30.6	13.9	2.8	100.0
2.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당초 약속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2014 (402)	6.4	83.4	8.9	1.3	100.0
		2015 (72)	26.4	48.6	23.6	1.4	100.0
	“약속을 어겼다며 과도한 손해배상금(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2014 (402)	3.9	85.1	9.8	1.3	100.0
		2015 (72)	12.5	52.8	31.9	2.8	100.0
3. 가출, 이혼 등 국제결혼 부부의 불화를 부추기는 행위	“결혼 후 가출을 부추겼다”	2014 (402)	2.2	88.3	8.2	1.3	100.0
		2015 (72)	6.9	72.2	19.4	1.4	100.0
	“이혼을 부추겼다”	2014 (402)	2.1	88.2	8.4	1.3	100.0
		2015 (72)	6.9	70.8	19.4	2.8	100.0

<표 8-3>에서 혼인중단 여성이 출신국 현지 중개인을 대하면서 겪은 피해 경험에 대해 3가지 유형,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응답 비율이 63.9%로 가장 높고,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61.1%),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52.8%),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52.8%) 순이다.

또한 ‘결혼 후 가출을 부추겼다’와 ‘이혼을 부추겼다’는 응답 비율은 동일하게 6.9%로 가장 낮으며, ‘약속을 어겼다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12.5%) 순으로 낮다. 이 결과를 통해 결혼 후 가출을 부추기거나 이혼을 부추기는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혼인중단 여성의 피해 경험이 높으며, 특히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8-3]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 결혼이민자 조사, 2014-2015년

<표 8-4> 과장 광고를 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63.9	23.6	9.7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58.5	28.3	9.4	3.8	100.0
별거·가출	(19)	78.9	10.5	10.5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71.7	19.6	8.7	0.0	100.0
35세 이상	(26)	50.0	30.8	11.5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63.4	24.4	9.8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64.5	22.6	9.7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60.0	23.6	12.7	3.6	100.0
미취업자	(17)	76.5	23.5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84.2	10.5	0.0	5.3	100.0
100-400만원	(33)	45.5	33.3	18.2	3.0	100.0
미취업자 등	(20)	75.0	20.0	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76.5	17.6	5.9	0.0	100.0
기타	(38)	52.6	28.9	13.2	5.3	100.0

<표 8-5>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27.8	48.6	20.8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8.3	43.4	24.5	3.8	100.0
별거·가출	(19)	26.3	63.2	10.5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28.3	50.0	19.6	2.2	100.0
35세 이상	(26)	26.9	46.2	23.1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2.0	53.7	24.4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5.5	41.9	16.1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30.9	43.6	21.8	3.6	100.0
미취업자	(17)	17.6	64.7	17.6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47.4	36.8	10.5	5.3	100.0
100-400만원	(33)	24.2	45.5	27.3	3.0	100.0
미취업자 등	(20)	15.0	65.0	2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6.5	55.9	14.7	2.9	100.0
기타	(38)	28.9	42.1	26.3	2.6	100.0

<표 8-4>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과장 광고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63.9%로 '없다'(23.6%)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과장 광고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78.9%), 연령별로는 34세 이하(71.7%),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64.5%),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76.5%),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84.2%), 출신국별로는 베트남(76.5%)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8-5>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48.6%로 '있다'(27.8%)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 월평균 임금을 제외한 모든 특성별로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63.2%), 연령별로는 34세 이하(50.0%),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53.7%),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64.7%), 출신국별로는 베트남(55.9%)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은 '있다'(47.4%)는 응답 비율이 더 높고, 그 외에는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8-6>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61.1%로 '없다'(23.6%)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62.3%), 연령별로는 34세 이하(69.6%),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68.4%), 출신국별로는 베트남(67.6%)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8-6>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61.1	23.6	13.9	1.4	100.0
혼인상태						
이혼	(53)	62.3	22.6	13.2	1.9	100.0
별거·가출	(19)	57.9	26.3	15.8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69.6	19.6	10.9	0.0	100.0
35세 이상	(26)	46.2	30.8	19.2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61.0	22.0	17.1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61.3	25.8	9.7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60.0	20.0	18.2	1.8	100.0
미취업자	(17)	64.7	35.3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68.4	15.8	10.5	5.3	100.0
100-400만원	(33)	57.6	21.2	21.2	0.0	100.0
미취업자 등	(20)	60.0	35.0	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67.6	20.6	11.8	0.0	100.0
기타	(38)	55.3	26.3	15.8	2.6	100.0

<표 8-7>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52.8	30.6	13.9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50.9	32.1	13.2	3.8	100.0
별거·가출	(19)	57.9	26.3	15.8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58.7	26.1	13.0	2.2	100.0
35세 이상	(26)	42.3	38.5	15.4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58.5	26.8	14.6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45.2	35.5	12.9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47.3	32.7	16.4	3.6	100.0
미취업자	(17)	70.6	23.5	5.9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68.4	21.1	5.3	5.3	100.0
100-400만원	(33)	33.3	42.4	21.2	3.0	100.0
미취업자 등	(20)	70.0	20.0	1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58.8	26.5	11.8	2.9	100.0
기타	(38)	47.4	34.2	15.8	2.6	100.0

<표 8-8>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52.8	34.7	11.1	1.4	100.0
혼인상태						
이혼	(53)	52.8	35.8	9.4	1.9	100.0
별거·가출	(19)	52.6	31.6	15.8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60.9	28.3	10.9	0.0	100.0
35세 이상	(26)	38.5	46.2	11.5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56.1	29.3	14.6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48.4	41.9	6.5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50.9	32.7	14.5	1.8	100.0
미취업자	(17)	58.8	41.2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78.9	10.5	5.3	5.3	100.0
100-400만원	(33)	36.4	45.5	18.2	0.0	100.0
미취업자 등	(20)	55.0	40.0	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61.8	32.4	5.9	0.0	100.0
기타	(38)	44.7	36.8	15.8	2.6	100.0

<표 8-7>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없다'(30.6%)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57.9%), 연령별로는 34세 이하(58.7%),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58.5%),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70.6%),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70.0%), 출신국별로는 베트남(58.8%)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8-8>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없다'(34.7%)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 이하(60.9%),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56.1%),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78.9%), 출신국별로는 베트남(61.8%)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8-9>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당초 약속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48.6%로 '있다'(26.4%)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 월평균 임금을 제외한 모든 특성별로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31.6%), 연령별로는 34세 이하(32.6%), 출신국별로는 베트남(29.4%)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은 당초 약속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2.1%로 '없다'(31.6%)보다 높으며, 그 외에는 '없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표 8-9> 당초 약속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26.4	48.6	23.6	1.4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4.5	52.8	20.8	1.9	100.0
별거·가출	(19)	31.6	36.8	31.6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32.6	43.5	23.9	0.0	100.0
35세 이상	(26)	15.4	57.7	23.1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2.0	46.3	31.7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2.3	51.6	12.9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5.5	47.3	25.5	1.8	100.0
미취업자	(17)	29.4	52.9	17.6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42.1	31.6	21.1	5.3	100.0
100-400만원	(33)	15.2	60.6	24.2	0.0	100.0
미취업자 등	(20)	30.0	45.0	2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9.4	41.2	29.4	0.0	100.0
기타	(38)	23.7	55.3	18.4	2.6	100.0

<표 8-10> 약속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12.5	52.8	31.9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15.1	50.9	30.2	3.8	100.0
별거·가출	(19)	5.3	57.9	36.8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7.4	45.7	34.8	2.2	100.0
35세 이상	(26)	3.8	65.4	26.9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12.2	46.3	41.5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12.9	61.3	19.4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12.7	49.1	34.5	3.6	100.0
미취업자	(17)	11.8	64.7	23.5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6.3	31.6	36.8	5.3	100.0
100-400만원	(33)	3.0	63.6	30.3	3.0	100.0
미취업자 등	(20)	15.0	55.0	3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0.6	44.1	32.4	2.9	100.0
기타	(38)	5.3	60.5	31.6	2.6	100.0

<표 8-11> 결혼 후 가출을 부추겼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6.9	72.2	19.4	1.4	100.0
혼인상태						
이혼	(53)	9.4	69.8	18.9	1.9	100.0
별거·가출	(19)	0.0	78.9	21.1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8.7	69.6	21.7	0.0	100.0
35세 이상	(26)	3.8	76.9	15.4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7.3	70.7	22.0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6.5	74.2	16.1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5.5	69.1	23.6	1.8	100.0
미취업자	(17)	11.8	82.4	5.9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15.8	57.9	21.1	5.3	100.0
100-400만원	(33)	0.0	75.8	24.2	0.0	100.0
미취업자 등	(20)	10.0	80.0	1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8.8	76.5	14.7	0.0	100.0
기타	(38)	5.3	68.4	23.7	2.6	100.0

<표 8-12> 이혼을 부추겼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6.9	70.8	19.4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9.4	67.9	18.9	3.8	100.0
별거·가출	(19)	0.0	78.9	21.1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8.7	67.4	21.7	2.2	100.0
35세 이상	(26)	3.8	76.9	15.4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7.3	70.7	22.0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6.5	71.0	16.1	6.5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5.5	67.3	23.6	3.6	100.0
미취업자	(17)	11.8	82.4	5.9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15.8	52.6	21.1	10.5	100.0
100-400만원	(33)	0.0	75.8	24.2	0.0	100.0
미취업자 등	(20)	10.0	80.0	10.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8.8	76.5	14.7	0.0	100.0
기타	(38)	5.3	65.8	23.7	5.3	100.0

<표 8-10>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약속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있다’(12.5%)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약속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 이혼(15.1%), 연령별로 34세 이하(17.4%),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26.3%), 출신국별로 베트남(20.6%)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8-11>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결혼 후 가출을 부추긴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72.2%로 ‘있다’(6.9%)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결혼 후 가출을 부추긴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 이혼(9.4%), 연령별로 34세 이하(8.7%),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7.3%),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15.8%)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8-12>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결혼 후 이혼을 부추긴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70.8%로 ‘있다’(6.9%)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결혼 후 가출을 부추긴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 이혼(9.4%), 연령별로 34세 이하(8.7%),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7.3%),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15.8%)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8-13> 결혼은 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득했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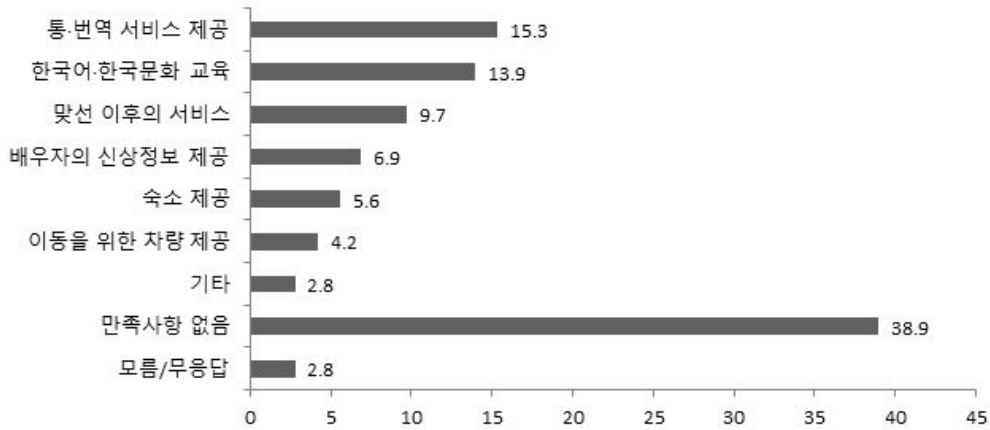
	(N)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19.4	54.2	18.1	8.3	100.0
혼인상태						
이혼	(53)	18.9	56.6	17.0	7.5	100.0
별거·가출	(19)	21.1	47.4	21.1	10.5	100.0
연령						
34세 이하	(46)	26.1	45.7	17.4	10.9	100.0
35세 이상	(26)	7.7	69.2	19.2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4.4	46.3	22.0	7.3	100.0
고등학교 이상	(31)	12.9	64.5	12.9	9.7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18.2	50.9	21.8	9.1	100.0
미취업자	(17)	23.5	64.7	5.9	5.9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31.6	47.4	10.5	10.5	100.0
100-400만원	(33)	9.1	57.6	27.3	6.1	100.0
미취업자 등	(20)	25.0	55.0	10.0	1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9.4	50.0	8.8	11.8	100.0
기타	(38)	10.5	57.9	26.3	5.3	100.0

<표 8-14>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단위: 명, %)

	(N)	배우자의 신상 정보 제공	통·번역 서비스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 신고 등)	숙소 제공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기타	만족 사항 없음	모름·무 응답	계
2014	(402)	48.4	16.2	12.0	10.5	4.1	1.8	2.0	0.6	4.4	100.0
2015	(72)	6.9	15.3	13.9	9.7	5.6	4.2	2.8	38.9	2.8	100.0

<표 8-13>에서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결혼은 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득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54.2%로 ‘있다’(19.4%)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출신국 현지 중개인이 결혼은 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득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 후 가출이나 이혼을 부추긴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결혼은 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득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 별거·가출(21.1%), 연령별로 34세 이하(26.1%),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24.4%),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31.6%), 출신국별로는 베트남(29.4%)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8-4]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표 8-14>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과 접촉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을 조사한 결과,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38.9%로 가장 높다. 그 외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15.3%), ‘한국어·한국문화 교육’(13.9%), ‘맞선 이후의 서비스’(9.7%),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6.9%), ‘숙소제공’(5.6%),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4.2%) 순이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는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0.6%로 현저히 낮으며, ‘통·번역 서비스 제공’(16.2%), ‘한국어·한국문화 교육’(12.0%), ‘맞선 이후의 서비스’(10.5%) 순이다. 혼인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큰 차이로 높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만족했던 사항이 없다는 사례들(사례 #B07, 사례 #B14, 사례 #B15, 사례 #B17, 사례 #B18)이 다수였다. 그렇지만 일부나마 만족한 측면으로 숙소(사례 #B12, 사례 #B13), 한국어 공부 제공(사례 #B16), 통역(사례 #B11), 결혼 절차 안내(사례 #B06) 등을 꼽았다.

<표 8-15>에서 혼인상태별로 가장 만족했던 사항을 살펴보면,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별거나 가출 상태(42.1%)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혼 상태인 경우 ‘통·번역 서비스 제공’(18.9%)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17.0%)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별거나 가출 상태는 ‘맞선 이후의 서비스’(15.8%)와 ‘숙소 제공’(10.5%)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34세 이하(39.1%)가 다소 높으며, 34세 이하는 ‘통·번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19.6%로 높고, 35세 이상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23.1%)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최종학력별로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고졸 이상(45.2%)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졸 이하는 ‘통·번역 서비스 제공’(17.1%)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고졸 이상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16.1%로 높다.

<표 8-15>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과 접촉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단위: %, 명)

	(N)	통·번역 서비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신고 등)	배우자의 신상 정보 제공	숙소 제공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기타	만족 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15.3	13.9	9.7	6.9	5.6	4.2	2.8	38.9	2.8	100.0
혼인상태											
이혼	(53)	18.9	17.0	7.5	7.5	3.8	3.8	0.0	37.7	3.8	100.0
별거·가출	(19)	5.3	5.3	15.8	5.3	10.5	5.3	10.5	42.1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19.6	8.7	8.7	4.3	8.7	6.5	4.3	39.1	0.0	100.0
35세 이상	(26)	7.7	23.1	11.5	11.5	0.0	0.0	0.0	38.5	7.7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17.1	12.2	14.6	0.0	7.3	7.3	4.9	34.1	2.4	100.0
고등학교 이상	(31)	12.9	16.1	3.2	16.1	3.2	0.0	0.0	45.2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16.4	10.9	7.3	9.1	7.3	5.5	3.6	36.4	3.6	100.0
미취업자	(17)	11.8	23.5	17.6	0.0	0.0	0.0	0.0	47.1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10.5	10.5	0.0	5.3	10.5	15.8	0.0	36.8	10.5	100.0
100-400만원	(33)	21.2	12.1	12.1	9.1	6.1	0.0	3.0	36.4	0.0	100.0
미취업자 등	(20)	10.0	20.0	15.0	5.0	0.0	0.0	5.0	4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8.8	8.8	5.9	2.9	8.8	8.8	5.9	47.1	2.9	100.0
기타	(38)	21.1	18.4	13.2	10.5	2.6	0.0	0.0	31.6	2.6	100.0



[그림 8-5]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표 8-16>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 2014-2015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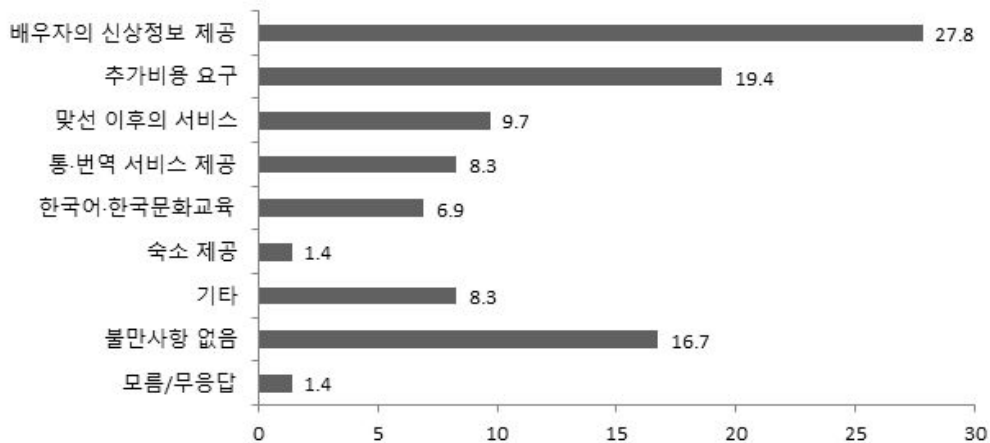
	(N)	불만 사항 없음	추가 비용 요구	통번역 서비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배우자 신상 정보 제공	숙소 제공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 신고 등)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기타	모름·무응답	계
2014	(402)	57.4	8.8	7.1	6.8	6.4	4.0	2.3	1.6	3.2	2.3	100.0
2015	(72)	16.7	19.4	8.3	6.9	27.8	1.4	9.7	0.0	8.3	1.4	100.0

<표 8-17>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과 접촉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단위: 명, %)

	(N)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추가 비용 요구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신고 등)	통·번역 서비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숙소 제공	기타	불만 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2)	27.8	19.4	9.7	8.3	6.9	1.4	8.3	16.7	1.4	100.0
혼인상태											
이혼	(53)	28.3	17.0	13.2	5.7	7.5	0.0	9.4	17.0	1.9	100.0
별거·가출	(19)	26.3	26.3	0.0	15.8	5.3	5.3	5.3	15.8	0.0	100.0
연령											
34세 이하	(46)	30.4	26.1	8.7	4.3	6.5	2.2	13.0	8.7	0.0	100.0
35세 이상	(26)	23.1	7.7	11.5	15.4	7.7	0.0	0.0	30.8	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2.0	24.4	12.2	2.4	9.8	2.4	14.6	12.2	0.0	100.0
고등학교 이상	(31)	35.5	12.9	6.5	16.1	3.2	0.0	0.0	22.6	3.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21.8	21.8	12.7	9.1	9.1	0.0	7.3	16.4	1.8	100.0
미취업자	(17)	47.1	11.8	0.0	5.9	0.0	5.9	11.8	17.6	0.0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10.5	42.1	10.5	5.3	5.3	0.0	5.3	15.8	5.3	100.0
100-400만원	(33)	30.3	9.1	15.2	9.1	12.1	0.0	6.1	18.2	0.0	100.0
미취업자 등	(20)	40.0	15.0	0.0	10.0	0.0	5.0	15.0	15.0	0.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6.5	26.5	11.8	5.9	2.9	2.9	11.8	11.8	0.0	100.0
기타	(38)	28.9	13.2	7.9	10.5	10.5	0.0	5.3	21.1	2.6	100.0

취업여부별로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47.1%)가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자의 경우 ‘통·번역 서비스 제공’(16.4%)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미취업자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23.5%)과 ‘맞선 이후의 서비스’(17.6%)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 등(45.0%)이 상대적으로 높고, 100만원 미만은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15.8%)이라는 응답



[그림 8-6]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비율이 높고, 100-400만원은 ‘통·번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21.2%로 높다. 또한 미취업자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이라는 응답 비율이 20.0%로 높다. 출신국별로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베트남(47.1%)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8-16>과 <표 8-17>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과 접촉하면서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27.8%로 가장 높다. 이는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 국제결혼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며 가장 만족했던 사항에서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또한 ‘불만사항 없음’의 응답 비율은 16.7%인데 반해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는 ‘불만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57.4%로 가장 높으며, 불만사항 중 ‘숙소 제공’과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혼인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응답 비율이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앞서의 결혼중개업체 서비스의 불만사항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사례에서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 실제와 달랐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불만을 느낀 점을 질문했을 때, 추가비용 요구, 통역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였다.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냈으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가르쳐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따로 받아요. 근데 거기는 아마 한 달 정도, 한 세 번에, 그것을 기본으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려면 돈을 내고 공부를 했어요. 거기는 숙소도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비행기 표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아직 부족해서 저에게 더 달라고 했어요. 이제 생각하면 돈만 받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서류신고나 준비는[사례 #B07,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전주거주].

<표 8-17>에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 상태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28.3%)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별거나 가출 상태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과 ‘추가비용 요구’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26.3%로 높다. 연령별로 34세 이하에서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30.4%)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35세 이상은 ‘불만사항 없음’(30.8%)이 가장 높고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23.1%) 순이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추가비용 요구’라는 응답 비율이 24.4%로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은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35.5%)이 가장 높다. 취업여부별로 취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과 접촉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으로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과 ‘추가비용 요구’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21.8%로 가장 높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47.1%)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은 ‘추가비용 요구’라는 응답 비율이 42.1%로 가장 높고, 그 외에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출신국별로 베트남은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과 ‘추가비용 요구’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26.5%로 가장 높으며, 그 외에 기타 출신국은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28.9%)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8-18>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여 도움을 받는 것의 장점을 1-2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한 후, 순위와 상관없이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시간 절약’(41.7%), ‘통역·번역 서비스’(34.7%),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25.0%), ‘원하는 이성 선택’(15.3%) 순이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본 조사 모두 ‘결혼절차 간소화’와 ‘시간 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기타’를 제외하고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이 5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50% 미만으로 낮다.

<표 8-19>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해서 도움을 받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상태는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47.2%로 가장 높고, 별거나 가출 상태는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47.4%)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연령별로 34세 이하는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결혼절차 간소화’(43.9%)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은 ‘시간 절약’(51.6%), 35세 이상은 ‘시간 절약’(57.7%)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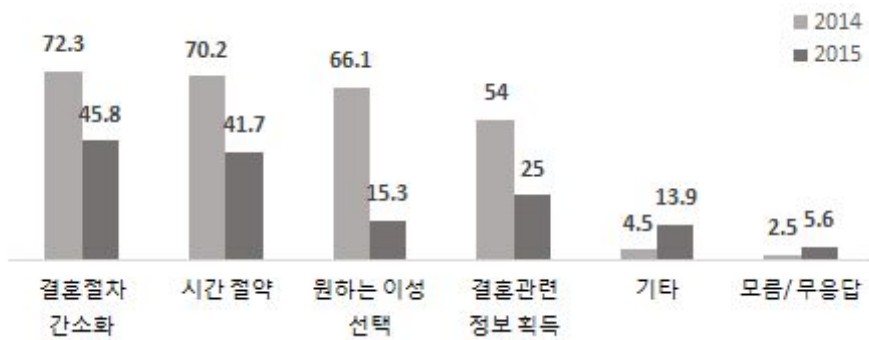
<표 8-18>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014-2015년

(단위: 명, %)

	(N)	결혼절차 간소화	시간 절약	원하는 이성 선택	결혼 관련 정보 획득	기타	모름·무응답
2014	(402)	72.3	70.2	66.1	54.0	4.5	2.5
2015	(72)	45.8	41.7	15.3	25.0	13.9	5.6

주: 2014년은 1+2+3순위 복수응답, 2015년은 1+2순위 복수응답이므로,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시간 절약(51.6%)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취업여부별로 취업자는 ‘시간 절약(45.5%), 미취업자는 ‘결혼절차 간소화’(58.8%)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월평균 임금별로 100만원 미만은 ‘시간 절약(52.6%), 그 외에는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출신국별로 베트남은 ‘시간 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고, 베트남 외 기타 출신국은 ‘결혼절차 간소화’(47.4%)라고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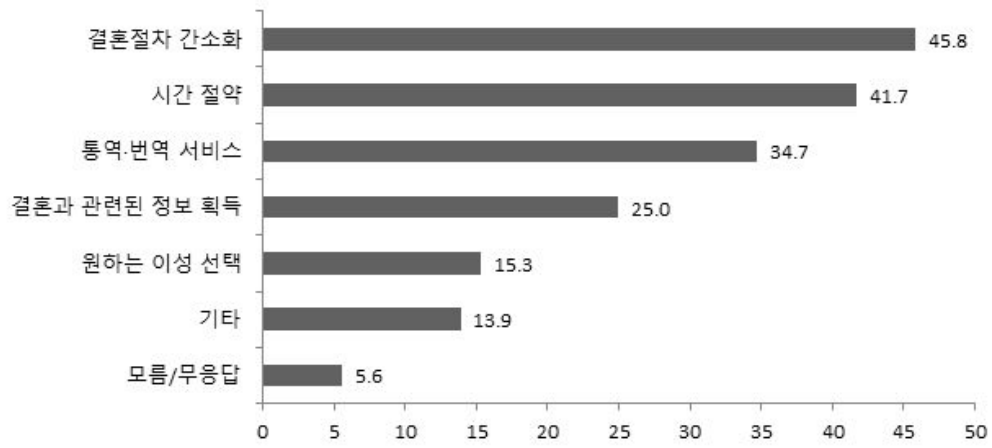


[그림 8-7]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2014-2015년

<표 8-19>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단위: %, 명)

	(N)	결혼절차 간소화	시간 절약	통역·번역 서비스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	원하는 이성 선택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72)	45.8	41.7	34.7	25.0	15.3	13.9	5.6
혼인상태								
이혼	(53)	47.2	45.3	39.6	17.0	13.2	13.2	7.5
별거·가출	(19)	42.1	31.6	21.1	47.4	21.1	15.8	0.0
연령								
34세 이하	(46)	43.5	32.6	39.1	23.9	15.2	19.6	6.5
35세 이상	(26)	50.0	57.7	26.9	26.9	15.4	3.8	3.8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43.9	34.1	34.1	24.4	14.6	19.5	4.9
고등학교 이상	(31)	48.4	51.6	35.5	25.8	16.1	6.5	6.5
취업여부								
취업자	(55)	41.8	45.5	38.2	23.6	18.2	12.7	5.5
미취업자	(17)	58.8	29.4	23.5	29.4	5.9	17.6	5.9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1.1	52.6	31.6	15.8	21.1	21.1	10.5
100-400만원	(33)	51.5	39.4	42.4	27.3	18.2	9.1	3.0
미취업자 등	(20)	60.0	35.0	25.0	30.0	5.0	15.0	5.0
출신국								
베트남	(34)	44.1	50.0	29.4	23.5	11.8	26.5	2.9
기타	(38)	47.4	34.2	39.5	26.3	18.4	2.6	7.9



[그림 8-8]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제 9 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현재 한국 법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맞선 전에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총 8가지 국제결혼 피해예방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9-1), 모든 항목이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그 중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97.2%로 가장 높고, ‘맞선 전 신상 정보 제공’(93.1%),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90.3%), ‘미성년자 소개 금지’(90.3%) 순으로 높다. 반면, ‘휴업·폐업 신고’와 ‘집단맞선 금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동일하게 69.4%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전혀 불필요’부터 ‘매우 필요’까지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한 후 계산한 평균 점수가 4.0-4.8점 사이로 높게 나타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9-1>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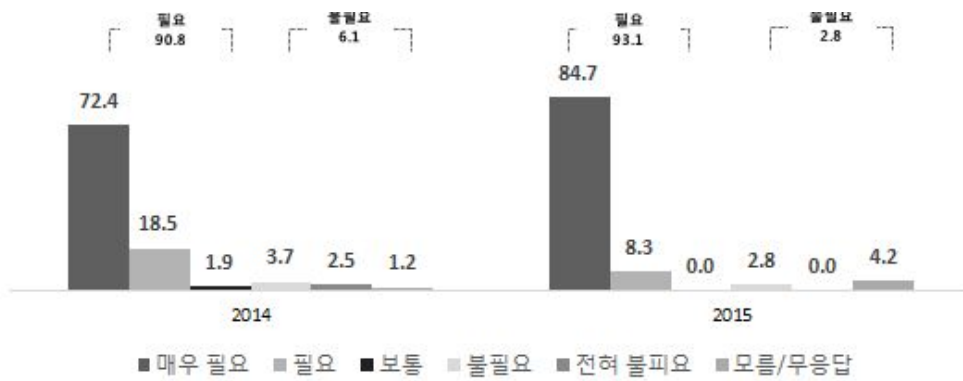
(단위: 명, %)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맞선 전 신상 정보 제공	0.0	2.8	2.8	0.0	8.3	84.7	93.1	4.2	4.8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0.0	0.0	0.0	4.2	18.1	72.2	90.3	5.6	4.7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0.0	1.4	1.4	8.3	25.0	61.1	86.1	4.2	4.5
집단맞선 금지	9.7	8.3	18.1	8.3	11.1	58.3	69.4	4.2	4.0
휴업·폐업 신고	1.4	8.3	9.7	16.7	22.2	47.2	69.4	4.2	4.1
미성년자 소개 금지	2.8	0.0	2.8	2.8	11.1	79.2	90.3	4.2	4.7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4.2	2.8	6.9	8.3	16.7	63.9	80.6	4.2	4.4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	0.0	1.4	1.4	1.4	12.5	84.7	97.2	0.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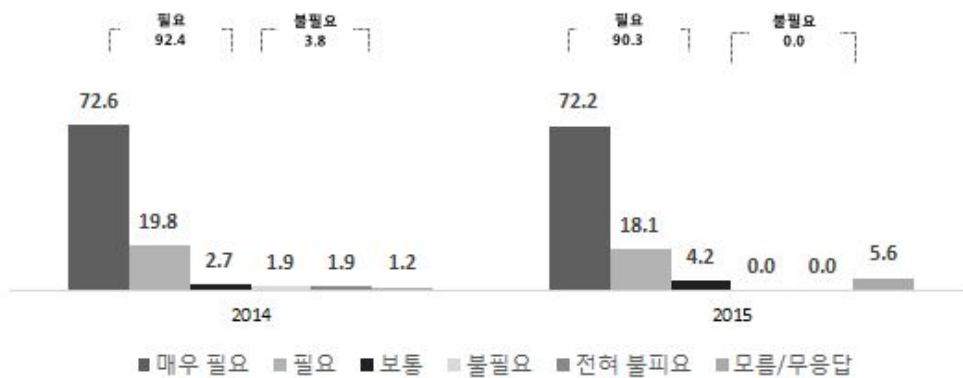
<표 9-2>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제공 및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①+②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④+⑤	모름·무 응답	계	평균 (점)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2014	(402)	72.4	18.5	90.8	1.9	3.7	2.5	6.1	1.2	100.0	4.6
2015	(72)	84.7	8.3	93.1	0.0	2.8	0.0	2.8	4.2	100.0	4.8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2014	(402)	72.6	19.8	92.4	2.7	1.9	1.9	3.8	1.2	100.0	4.6
2015	(72)	72.2	18.1	90.3	4.2	0.0	0.0	0.0	5.6	100.0	4.7



[그림 9-1]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 2014-2015년



[그림 9-2]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 2014-2015년

<표 9-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해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성은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본 조사 모두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라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단,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은 혼인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가 더 높고,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또한 ‘불필요하다(불필요+전혀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두 항목 모두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가 더 높다. 이는 혼인중단 여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이 제공하는 배우자의 신상정보와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표 9-3>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72)	0.0	2.8	2.8	0.0	8.3	84.7	93.1	4.2	100.0	4.8
혼인상태											
이혼	(53)	0.0	3.8	3.8	0.0	5.7	84.9	90.6	5.7	100.0	4.8
별거·가출	(19)	0.0	0.0	0.0	0.0	15.8	84.2	100.0	0.0	100.0	4.8
연령											
34세 이하	(46)	0.0	0.0	0.0	0.0	8.7	89.1	97.8	2.2	100.0	4.9
35세 이상	(26)	0.0	7.7	7.7	0.0	7.7	76.9	84.6	7.7	100.0	4.7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0.0	2.4	2.4	0.0	4.9	90.2	95.1	2.4	100.0	4.9
고등학교 이상	(31)	0.0	3.2	3.2	0.0	12.9	77.4	90.3	6.5	100.0	4.8
취업여부											
취업자	(55)	0.0	3.6	3.6	0.0	5.5	85.5	90.9	5.5	100.0	4.8
미취업자	(17)	0.0	0.0	0.0	0.0	17.6	82.4	100.0	0.0	100.0	4.8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0.0	0.0	0.0	5.3	89.5	94.7	5.3	100.0	4.9
100-400만원	(33)	0.0	6.1	6.1	0.0	6.1	81.8	87.9	6.1	100.0	4.7
미취업자 등	(20)	0.0	0.0	0.0	0.0	15.0	85.0	100.0	0.0	100.0	4.9
출신국											
베트남	(34)	0.0	2.9	2.9	0.0	5.9	91.2	97.1	0.0	100.0	4.9
기타	(38)	0.0	2.6	2.6	0.0	10.5	78.9	89.5	7.9	100.0	4.8

<표 9-4>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72)	0.0	0.0	0.0	4.2	18.1	72.2	90.3	5.6	100.0	4.7
혼인상태											
이혼	(53)	0.0	0.0	0.0	5.7	13.2	75.5	88.7	5.7	100.0	4.7
별거·가출	(19)	0.0	0.0	0.0	0.0	31.6	63.2	94.7	5.3	100.0	4.7
연령											
34세 이하	(46)	0.0	0.0	0.0	2.2	21.7	71.7	93.5	4.3	100.0	4.7
35세 이상	(26)	0.0	0.0	0.0	7.7	11.5	73.1	84.6	7.7	100.0	4.7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0.0	0.0	0.0	2.4	22.0	70.7	92.7	4.9	100.0	4.7
고등학교 이상	(31)	0.0	0.0	0.0	6.5	12.9	74.2	87.1	6.5	100.0	4.7
취업여부											
취업자	(55)	0.0	0.0	0.0	3.6	16.4	72.7	89.1	7.3	100.0	4.7
미취업자	(17)	0.0	0.0	0.0	5.9	23.5	70.6	94.1	0.0	100.0	4.6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0.0	0.0	5.3	26.3	57.9	84.2	10.5	100.0	4.6
100-400만원	(33)	0.0	0.0	0.0	3.0	9.1	81.8	90.9	6.1	100.0	4.8
미취업자 등	(20)	0.0	0.0	0.0	5.0	25.0	70.0	95.0	0.0	100.0	4.7
출신국											
베트남	(34)	0.0	0.0	0.0	2.9	23.5	70.6	94.1	2.9	100.0	4.7
기타	(38)	0.0	0.0	0.0	5.3	13.2	73.7	86.8	7.9	100.0	4.7

<표 9-3>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3.1%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맞선 전에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을 전혀 불필요에서 매우 필요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여 계산한 평균점수는 4.8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100%), 연령별로는 34세 이하(97.8%), 최종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95.1%),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100%),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100%), 출신국별로는 베트남(97.1%)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9-4>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0.3%로 매우 높고, 평균 점수는 4.7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94.7%), 연령별로는 34세 이하(93.5%), 최종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92.7%),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94.1%),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95.0%), 출신국별로는 베트남(94.1%)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9-5>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86.1%로 높고, 평균 점수는 4.5점이다.

<표 9-5>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72)	0.0	1.4	1.4	8.3	25.0	61.1	86.1	4.2	100.0	4.5
혼인상태											
이혼	(53)	0.0	1.9	1.9	11.3	26.4	54.7	81.1	5.7	100.0	4.4
별거·가출	(19)	0.0	0.0	0.0	0.0	21.1	78.9	100.0	0.0	100.0	4.8
연령											
34세 이하	(46)	0.0	2.2	2.2	2.2	30.4	63.0	93.5	2.2	100.0	4.6
35세 이상	(26)	0.0	0.0	0.0	19.2	15.4	57.7	73.1	7.7	100.0	4.4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0.0	0.0	0.0	7.3	29.3	61.0	90.2	2.4	100.0	4.6
고등학교 이상	(31)	0.0	3.2	3.2	9.7	19.4	61.3	80.6	6.5	100.0	4.5
취업여부											
취업자	(55)	0.0	1.8	1.8	7.3	23.6	61.8	85.5	5.5	100.0	4.5
미취업자	(17)	0.0	0.0	0.0	11.8	29.4	58.8	88.2	0.0	100.0	4.5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5.3	5.3	5.3	26.3	57.9	84.2	5.3	100.0	4.4
100-400만원	(33)	0.0	0.0	0.0	9.1	24.2	60.6	84.8	6.1	100.0	4.5
미취업자 등	(20)	0.0	0.0	0.0	10.0	25.0	65.0	90.0	0.0	100.0	4.6
출신국											
베트남	(34)	0.0	0.0	0.0	2.9	35.3	61.8	97.1	0.0	100.0	4.6
기타	(38)	0.0	2.6	2.6	13.2	15.8	60.5	76.3	7.9	100.0	4.5

<표 9-6> 집단맞선 금지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72)	9.7	8.3	18.1	8.3	11.1	58.3	69.4	4.2	100.0	4.0
혼인상태											
이혼	(53)	11.3	11.3	22.6	9.4	9.4	52.8	62.3	5.7	100.0	3.9
별거·가출	(19)	5.3	0.0	5.3	5.3	15.8	73.7	89.5	0.0	100.0	4.5
연령											
34세 이하	(46)	8.7	8.7	17.4	10.9	8.7	60.9	69.6	2.2	100.0	4.1
35세 이상	(26)	11.5	7.7	19.2	3.8	15.4	53.8	69.2	7.7	100.0	4.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14.6	4.9	19.5	7.3	12.2	58.5	70.7	2.4	100.0	4.0
고등학교 이상	(31)	3.2	12.9	16.1	9.7	9.7	58.1	67.7	6.5	100.0	4.1
취업여부											
취업자	(55)	10.9	9.1	20.0	5.5	10.9	58.2	69.1	5.5	100.0	4.0
미취업자	(17)	5.9	5.9	11.8	17.6	11.8	58.8	70.6	0.0	100.0	4.1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21.1	5.3	26.3	0.0	0.0	68.4	68.4	5.3	100.0	3.9
100-400만원	(33)	6.1	12.1	18.2	9.1	12.1	54.5	66.7	6.1	100.0	4.0
미취업자 등	(20)	5.0	5.0	10.0	15.0	20.0	55.0	75.0	0.0	100.0	4.2
출신국											
베트남	(34)	11.8	11.8	23.5	5.9	11.8	58.8	70.6	0.0	100.0	3.9
기타	(38)	7.9	5.3	13.2	10.5	10.5	57.9	68.4	7.9	100.0	4.1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100%), 연령별로는 34세 이하(93.5%), 최종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90.2%),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88.2%),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90.0%), 출신국별로는 베트남(97.1%)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9-6>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집단맞선 금지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69.4%로 높고, 평균 점수는 4.2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89.5%), 연령별로는 34세 이하(69.6%), 최종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70.7%),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70.6%),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75.0%), 출신국별로는 베트남(70.6%)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9-7>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휴업·폐업 신고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69.4%로 높고, 평균 점수는 4.1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73.7%), 연령별로는 35세 이상(73.1%),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74.2%),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70.6%),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400만원(72.7%), 출신국별로는 기타(76.3%)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9-7>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72)	1.4	8.3	9.7	16.7	22.2	47.2	69.4	4.2	100.0	4.1
혼인상태											
이혼	(53)	1.9	7.5	9.4	17.0	22.6	45.3	67.9	5.7	100.0	4.1
별거·가출	(19)	0.0	10.5	10.5	15.8	21.1	52.6	73.7	0.0	100.0	4.2
연령											
34세 이하	(46)	0.0	13.0	13.0	17.4	21.7	45.7	67.4	2.2	100.0	4.0
35세 이상	(26)	3.8	0.0	3.8	15.4	23.1	50.0	73.1	7.7	100.0	4.3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2.4	9.8	12.2	19.5	14.6	51.2	65.9	2.4	100.0	4.1
고등학교 이상	(31)	0.0	6.5	6.5	12.9	32.3	41.9	74.2	6.5	100.0	4.2
취업여부											
취업자	(55)	0.0	7.3	7.3	18.2	21.8	47.3	69.1	5.5	100.0	4.2
미취업자	(17)	5.9	11.8	17.6	11.8	23.5	47.1	70.6	0.0	100.0	3.9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0.0	0.0	31.6	10.5	52.6	63.2	5.3	100.0	4.2
100-400만원	(33)	0.0	9.1	9.1	12.1	24.2	48.5	72.7	6.1	100.0	4.2
미취업자 등	(20)	5.0	15.0	20.0	10.0	30.0	40.0	70.0	0.0	100.0	3.9
출신국											
베트남	(34)	0.0	17.6	17.6	20.6	17.6	44.1	61.8	0.0	100.0	3.9
기타	(38)	2.6	0.0	2.6	13.2	26.3	50.0	76.3	7.9	100.0	4.3

<표 9-8>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72)	2.8	0.0	2.8	2.8	11.1	79.2	90.3	4.2	100.0	4.7
혼인상태											
이혼	(53)	0.0	0.0	0.0	1.9	13.2	79.2	92.5	5.7	100.0	4.8
별거·가출	(19)	10.5	0.0	10.5	5.3	5.3	78.9	84.2	0.0	100.0	4.4
연령											
34세 이하	(46)	4.3	0.0	4.3	4.3	10.9	78.3	89.1	2.2	100.0	4.6
35세 이상	(26)	0.0	0.0	0.0	0.0	11.5	80.8	92.3	7.7	100.0	4.9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4.9	0.0	4.9	2.4	4.9	85.4	90.2	2.4	100.0	4.7
고등학교 이상	(31)	0.0	0.0	0.0	3.2	19.4	71.0	90.3	6.5	100.0	4.7
취업여부											
취업자	(55)	1.8	0.0	1.8	1.8	12.7	78.2	90.9	5.5	100.0	4.8
미취업자	(17)	5.9	0.0	5.9	5.9	5.9	82.4	88.2	0.0	100.0	4.6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0.0	0.0	0.0	5.3	89.5	94.7	5.3	100.0	4.9
100-400만원	(33)	0.0	0.0	0.0	3.0	15.2	75.8	90.9	6.1	100.0	4.8
미취업자 등	(20)	10.0	0.0	10.0	5.0	10.0	75.0	85.0	0.0	100.0	4.4
출신국											
베트남	(34)	5.9	0.0	5.9	2.9	14.7	76.5	91.2	0.0	100.0	4.6
기타	(38)	0.0	0.0	0.0	2.6	7.9	81.6	89.5	7.9	100.0	4.9

<표 9-9>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72)	4.2	2.8	6.9	8.3	16.7	63.9	80.6	4.2	1000	4.4
혼인상태											
이혼	(53)	1.9	1.9	3.8	7.5	18.9	64.2	83.0	5.7	1000	4.5
별거·가출	(19)	10.5	5.3	15.8	10.5	10.5	63.2	73.7	0.0	1000	4.1
연령											
34세 이하	(46)	6.5	2.2	8.7	10.9	21.7	56.5	78.3	2.2	1000	4.2
35세 이상	(26)	0.0	3.8	3.8	3.8	7.7	76.9	84.6	7.7	1000	4.7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4.9	2.4	7.3	9.8	17.1	63.4	80.5	2.4	1000	4.4
고등학교 이상	(31)	3.2	3.2	6.5	6.5	16.1	64.5	80.6	6.5	1000	4.4
취업여부											
취업자	(55)	3.6	3.6	7.3	9.1	14.5	63.6	78.2	5.5	1000	4.4
미취업자	(17)	5.9	0.0	5.9	5.9	23.5	64.7	88.2	0.0	1000	4.4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0.0	0.0	15.8	10.5	68.4	78.9	5.3	1000	4.6
100-400만원	(33)	3.0	3.0	6.1	6.1	15.2	66.7	81.8	6.1	1000	4.5
미취업자 등	(20)	10.0	5.0	15.0	5.0	25.0	55.0	80.0	0.0	1000	4.1
출신국											
베트남	(34)	8.8	2.9	11.8	8.8	20.6	58.8	79.4	0.0	1000	4.2
기타	(38)	0.0	2.6	2.6	7.9	13.2	68.4	81.6	7.9	1000	4.6

<표 9-8>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소개 금지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0.3%로 높고, 평균 점수는 4.7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92.5%), 연령별로는 35세 이상(92.3%),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90.9%),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94.7%), 출신국별로는 베트남(91.2%)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9-9>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 등 서류를 5년간 보존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80.6%로 높고, 평균 점수는 4.4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83.0%), 연령별로는 35세 이상(84.6%),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88.2%),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400만원(81.8%), 출신국별로는 기타(81.6%)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9-10>에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은 97.2%로 매우 높고, 평균 점수는 4.8점이다. 응답자 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100%), 연령별로는 34세 이하(97.8%), 최종학력별로 고졸 이상(100%),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98.2%),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100%), 출신국별로는 기타(97.4%)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9-10>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 필요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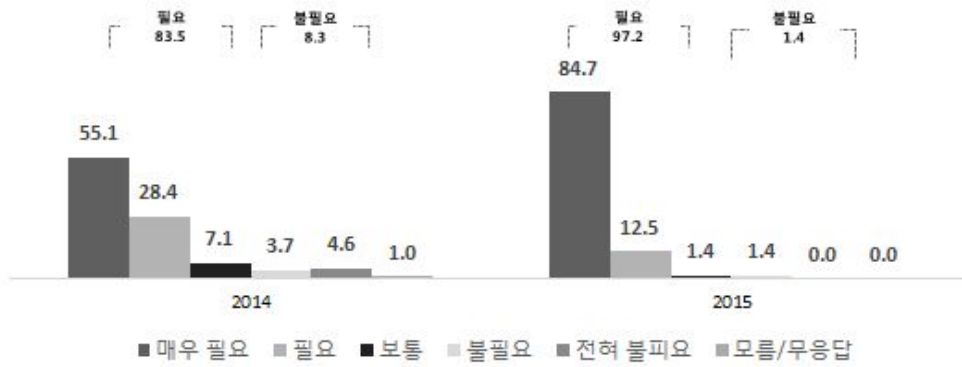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72)	0.0	1.4	1.4	1.4	12.5	84.7	97.2	100.0	4.8
혼인상태										
이혼	(53)	0.0	1.9	1.9	1.9	13.2	83.0	96.2	100.0	4.8
별거·가출	(19)	0.0	0.0	0.0	0.0	10.5	89.5	100.0	100.0	4.9
연령										
34세 이하	(46)	0.0	0.0	0.0	2.2	13.0	84.8	97.8	100.0	4.8
35세 이상	(26)	0.0	3.8	3.8	0.0	11.5	84.6	96.2	100.0	4.8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0.0	2.4	2.4	2.4	9.8	85.4	95.1	100.0	4.8
고등학교 이상	(31)	0.0	0.0	0.0	0.0	16.1	83.9	100.0	100.0	4.8
취업여부										
취업자	(55)	0.0	1.8	1.8	0.0	7.3	90.9	98.2	100.0	4.9
미취업자	(17)	0.0	0.0	0.0	5.9	29.4	64.7	94.1	100.0	4.6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5.0
100-400만원	(33)	0.0	3.0	3.0	0.0	12.1	84.8	97.0	100.0	4.8
미취업자 등	(20)	0.0	0.0	0.0	5.0	25.0	70.0	95.0	100.0	4.7
출신국										
베트남	(34)	0.0	0.0	0.0	2.9	8.8	88.2	97.1	100.0	4.9
기타	(38)	0.0	2.6	2.6	0.0	15.8	81.6	97.4	100.0	4.8

<표 9-11> 결혼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 2014-2015년

(단위: 명, %)

	(N)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①+②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2014	(402)	55.1	28.4	83.5	7.1	3.7	4.6	8.3	1.0	100.0	4.3
2015	(72)	84.7	12.5	97.2	1.4	1.4	0.0	1.4	0.0	100.0	4.8

<표 9-11>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입국이 늦어지더라도 결혼이민자가 일정 수준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에 대해 현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본 조사 모두 ‘필요(매우 필요+필요)’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혼인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2015년 혼인중단자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응답자의 97.2%로, 2014년 조사의 반응 비율 83.5%보다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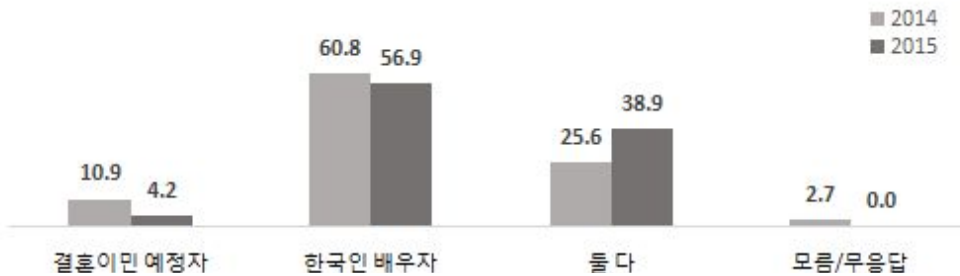


[그림 9-3] 결혼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 2014-2015년

<표 9-12>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결혼이민 예정자의 현지 사전교육 비용 부담자, 2014-2015년

(단위: 명, %)

	(N)	결혼이민 예정자	한국인 배우자	둘 다	모름·무응답	계
2014	(402)	10.9	60.8	25.6	2.7	100.0
2015	(72)	4.2	56.9	38.9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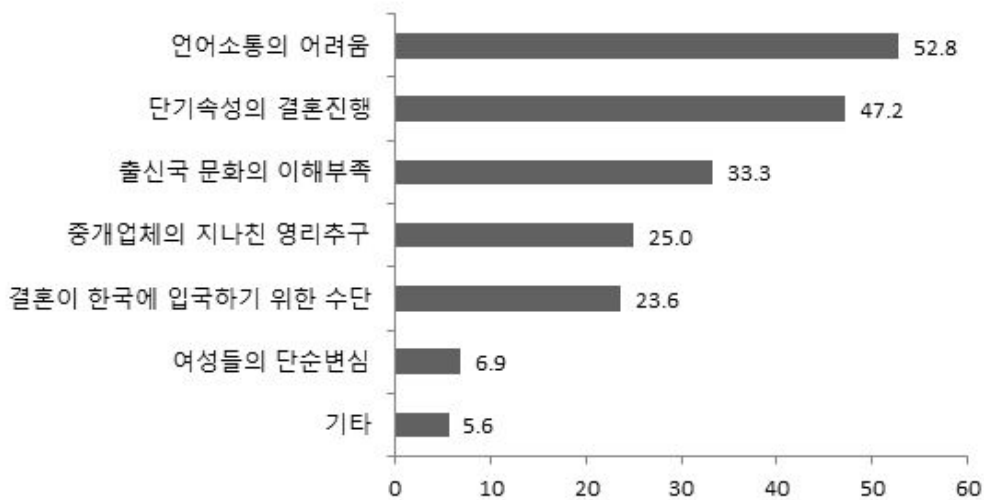
[그림 9-4]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결혼이민 예정자의 현지 사전교육 비용 부담자, 2014-2015년

<표 9-12>와 <표 9-13>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결혼 전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한국인 배우자’라는 응답 비율이 56.9%로 가장 높고, ‘둘 다’(38.9%) 순이며, ‘결혼이민 예정자’라는 응답 비율은 4.2%로 낮다.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와 본 조사 모두 ‘한국인 배우자’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단, ‘결혼이민 예정자’라는 응답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고, ‘둘 다’라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9-13> 결혼이민 예정자의 현지 사전교육 비용 부담자

(단위: 명, %)

	(N)	결혼이민 예정자	한국인 배우자	둘 다	계
▣ 전체 ▣	(72)	4.2	56.9	38.9	100.0
혼인상태					
이혼	(53)	5.7	50.9	43.4	100.0
별거·가출	(19)	0.0	73.7	26.3	100.0
연령					
34세 이하	(46)	4.3	65.2	30.4	100.0
35세 이상	(26)	3.8	42.3	53.8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7.3	61.0	31.7	100.0
고등학교 이상	(31)	0.0	51.6	48.4	100.0
취업여부					
취업자	(55)	1.8	52.7	45.5	100.0
미취업자	(17)	11.8	70.6	17.6	10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0.0	57.9	42.1	100.0
100-400만원	(33)	3.0	51.5	45.5	100.0
미취업자 등	(20)	10.0	65.0	25.0	100.0
출신국					
베트남	(34)	2.9	61.8	35.3	100.0
기타	(38)	5.3	52.6	42.1	100.0



[그림 9-5] 결혼이민자 미입국, 입국 후 행방불명의 원인(복수응답)

<표 9-13>에서 알 수 있듯이, 세부특성별로도 모두 ‘한국인 배우자’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혼인상태별로 별거·가출(73.7%), 연령별로는 34세 이하(65.2%),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61.0%),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70.6%),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65.0%), 출신국별로는 베트남(61.8%)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둘 다’ 부담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혼인상태별로 이혼(43.4%), 연령별로는 35세 이상(53.8%), 최종학력별로 고졸 이상(48.4%),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45.5%),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400만원(45.5%), 출신국별로는 기타(42.1%)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표 9-14>에서는 결혼이민자 미입국, 또는 입국 후 행방불명으로 인해 한국인 배우자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1-2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후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 비율이 52.8%로 가장 높고, ‘단기 속성의 결혼진행’(47.2%), ‘배우자 상대방의 출신국 문화의 이해’(33.3%),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지나친 영리추구’(25.0%),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결혼을 하기 때문’(23.6%), ‘여성들의 단순 변심’(6.9%)의 순이다.

결혼이민자 미입국, 또는 입국 후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 이혼 상태는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 비율이 50.9%로 가장 높고, 별거·가출 상태는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단기 속성의 결혼 진행’이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57.9%로 가장 높다.

<표 9-14> 결혼이민자 미입국 또는 입국 후 행방불명의 원인(복수응답)

(단위: 명, %)

	(N)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	단기 속성의 결혼 진행	배우자 상대방의 출신국 문화의 이해부족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지나친 영리추구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결혼을 하기 때문	여성들의 단순 변심	기타
▣ 전체 ▣	(72)	52.8	47.2	33.3	25.0	23.6	6.9	5.6
혼인상태								
이혼	(53)	50.9	43.4	34.0	24.5	24.5	7.5	7.5
별거·가출	(19)	57.9	57.9	31.6	26.3	21.1	5.3	0.0
연령								
34세 이하	(46)	47.8	47.8	37.0	23.9	21.7	8.7	6.5
35세 이상	(26)	61.5	46.2	26.9	26.9	26.9	3.8	3.8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48.8	46.3	39.0	22.0	26.8	7.3	4.9
고등학교 이상	(31)	58.1	48.4	25.8	29.0	19.4	6.5	6.5
취업여부								
취업자	(55)	47.3	43.6	27.3	30.9	29.1	7.3	7.3
미취업자	(17)	70.6	58.8	52.9	5.9	5.9	5.9	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42.1	47.4	31.6	31.6	36.8	5.3	0.0
100-400만원	(33)	48.5	39.4	27.3	30.3	24.2	9.1	12.1
미취업자 등	(20)	70.0	60.0	45.0	10.0	10.0	5.0	0.0
출신국								
베트남	(34)	44.1	55.9	29.4	23.5	29.4	14.7	0.0
기타	(38)	60.5	39.5	36.8	26.3	18.4	0.0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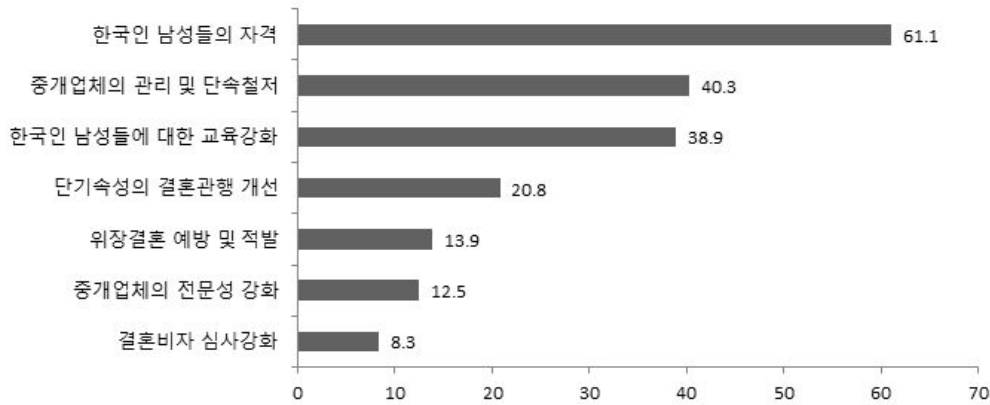
연령별로 34세 이하는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단기 속성의 결혼 진행’이라는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47.8%로 가장 높고, 35세 이상은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61.5%)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모두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고졸 이상이 58.1%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취업여부별로 역시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미취업자의 응답 비율이 70.6%로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배우자 상대방의 출신국 문화의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52.9%로 높다. 출신국별로 베트남은 ‘단기 속성의 결혼 진행’이라는 응답 비율이 55.9%로 가장 높으며, 기타 출신국은 ‘당사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60.5%)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9-15>에서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1-2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후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이라는 응답 비율이 61.1%로 가장 높으며,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단속철폐’(40.3%),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 강화(38.9%) 순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 반면, ‘결혼비자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8.3%로 가장 낮으며, ‘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강화’(12.5%), ‘위장결혼 예방 및 적발’(13.9%), ‘단기 속성의 결혼관행 개선’(20.8%) 순으로 낮다.

<표 9-15>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단위: 명, %)

	(N)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	결혼중개 업체의 관리 및 단속철폐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강화	단기 속성의 결혼관행 개선	위장결혼 예방 및 적발	결혼 중개업체 의 전문성 (역량) 강화	결혼비자 심사강화
■ 전체 ■	(72)	61.1	40.3	38.9	20.8	13.9	12.5	8.3
혼인상태								
이혼	(53)	56.6	39.6	39.6	22.6	13.2	15.1	9.4
별거·가출	(19)	73.7	42.1	36.8	15.8	15.8	5.3	5.3
연령								
34세 이하	(46)	69.6	39.1	32.6	19.6	15.2	10.9	8.7
35세 이상	(26)	46.2	42.3	50.0	23.1	11.5	15.4	7.7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41)	65.9	36.6	39.0	19.5	17.1	9.8	9.8
고등학교 이상	(31)	54.8	45.2	38.7	22.6	9.7	16.1	6.5
취업여부								
취업자	(55)	58.2	41.8	34.5	20.0	16.4	12.7	10.9
미취업자	(17)	70.6	35.3	52.9	23.5	5.9	11.8	0.0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9)	42.1	42.1	26.3	26.3	21.1	15.8	15.8
100-400만원	(33)	63.6	39.4	39.4	18.2	15.2	12.1	9.1
미취업자 등	(20)	75.0	40.0	50.0	20.0	5.0	10.0	0.0
출신국								
베트남	(34)	67.6	38.2	29.4	26.5	17.6	8.8	11.8
기타	(38)	55.3	42.1	47.4	15.8	10.5	15.8	5.3



[그림 9-6]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혼인상태별로 순위에 차이는 없으며,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이라는 응답 비율은 별거·가출이 73.7%로 이혼(56.6%)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에서는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이라는 응답 비율이 69.6%로 가장 높은 반면, 35세 이상은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65.9%),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 강화’(39.0%),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단속철저’(36.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으며, 고졸 이상은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54.8%),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단속철저’(45.2%),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 강화’(38.7%) 순으로 높다.

취업여부별로 취업자에서는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58.2%),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단속철저’(41.8%),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 강화’(34.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으며, 미취업자에서는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70.6%),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 강화’(52.9%),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단속철저’(35.3%) 순이다.

출신국별로 베트남은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67.6%),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단속철저’(38.2%),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 강화’(29.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으며, 기타 출신국은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55.3%),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 강화’(47.4%),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단속철저’(42.1%) 순이다.

각 항목별로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의 자격 심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73.7%), 연령별로는 34세 이하(69.6%), 최종학

력별로는 중졸 이하(65.9%),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70.6%),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75.0%), 출신국별로는 베트남(67.6%)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단속 철저'라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 별거·가출(42.1%), 연령별로는 35세 이상(42.3%),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상(45.2%),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41.8%),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만원 미만(42.1%), 출신국별로는 기타(42.1%)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중단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본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개선해야할 문제를 질문한 결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사례 #B08>는 응답에서부터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를 위한 정확한 통역서비스, 1-2일 만에 이루어지는 결혼관행 개선, 추가비용 요구 관행개선, 미성년자 소개금지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개선 요구 이외 한국남성의 결혼에 대한 준비 부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꼭 필요한 것은, 남편이 되는 사람, 여자도 아내 되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것은, 남편은 앉아서 시키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은 못했고……[사례 #B07, 여, 28세, 2007년 결혼, 국적 베트남, 이혼 소송중, 전주거주].

이와 함께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본국의 중개업체 개선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었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결혼 성사 이후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해 사례의 대다수가 좋은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혼인중단 이주여성들이 그 동안 겪어왔던 어려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사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고, 소통이 되면 갈등이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배우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오기 전에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빨리 결혼하지 않는 것 등을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에 관한 정확한 신상정보 제공을 위해 남성들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거나 위장결혼을 적발해야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의 결혼중개업체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하였다.

제4부

미성혼 남성 조사 결과

제 10 장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및 중단 과정

미성혼 남성 응답자들에게 어느 나라 사람과 결혼하려 시도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10-1), ‘베트남’이라는 응답 비율이 48.5%로 가장 높고, ‘필리핀’(19.7%), ‘중국’(14.4%), ‘우즈베키스탄’(3.8%), ‘캄보디아’(1.5%)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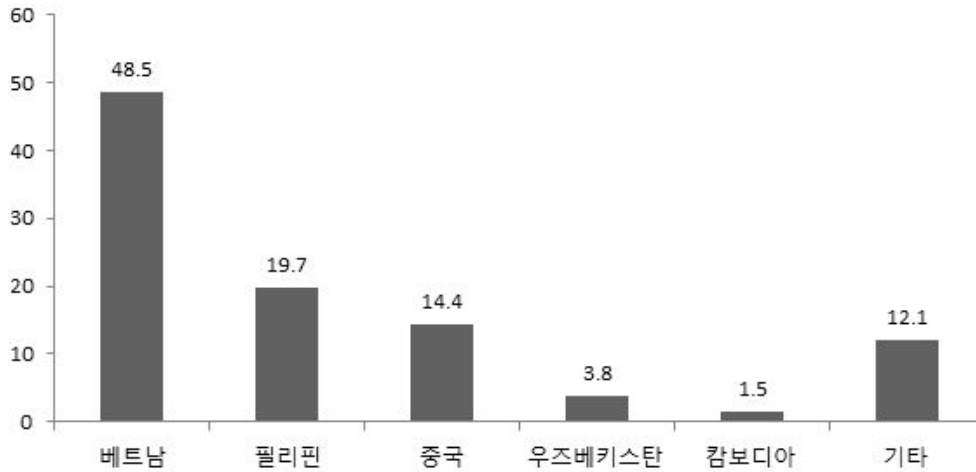
세부특성별로도 ‘베트남’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결혼식 또는 그 이후(54.0%),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53.3%),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58.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필리핀’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29.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10-2>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언제 계약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2013-2014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47.7%로 가장 높고, ‘2012년 이전’(31.8%), ‘2015년’(20.5%) 순이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맞선 또는 그 이전에서는 ‘2012년 이전’(35.6%)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2015년’(33.3%), ‘2013-2014년’(31.1%)의 순이다. 반면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는 ‘2013-2014년’(56.3%)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

<표 10-1> 결혼하려 시도했던 사람의 국적

(단위: %, 명)

	(N)	베트남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기타	계
▣ 전체 ▣	(132)	48.5	19.7	14.4	3.8	1.5	12.1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37.8	20.0	15.6	6.7	2.2	17.8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54.0	19.5	13.8	2.3	1.1	9.2	100.0
연령								
39세 이하	(25)	48.0	12.0	0.0	12.0	0.0	28.0	100.0
40-49세	(79)	49.4	20.3	17.7	2.5	0.0	10.1	100.0
50세 이상	(28)	46.4	25.0	17.9	0.0	7.1	3.6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50.0	18.9	14.9	5.4	0.0	10.8	100.0
대학교 이상	(58)	46.6	20.7	13.8	1.7	3.4	13.8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48.7	15.8	13.2	3.9	2.6	15.8	100.0
비임금근로자	(45)	53.3	24.4	11.1	2.2	0.0	8.9	100.0
미취업자	(11)	27.3	27.3	36.4	9.1	0.0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58.8	29.4	5.9	0.0	0.0	5.9	100.0
200-299만원	(41)	48.8	12.2	12.2	7.3	2.4	17.1	100.0
300-399만원	(29)	51.7	24.1	6.9	3.4	3.4	10.3	100.0
400만원 이상	(32)	46.9	18.8	21.9	0.0	0.0	12.5	100.0
미취업자 등	(13)	30.8	23.1	30.8	7.7	0.0	7.7	100.0



[그림 10-1] 결혼하려 시도했던 사람의 국적

<표 10-2> 국제결혼 중개업체 계약 시점

(단위: %, 명)

	(N)	2012년 이전	2013-2014년	2015년	계
전체	(132)	31.8	47.7	20.5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35.6	31.1	33.3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29.9	56.3	13.8	100.0
연령					
39세 이하	(25)	24.0	52.0	24.0	100.0
40-49세	(79)	35.4	43.0	21.5	100.0
50세 이상	(28)	28.6	57.1	14.3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40.5	44.6	14.9	100.0
대학교 이상	(58)	20.7	51.7	27.6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4.2	48.7	17.1	100.0
비임금근로자	(45)	31.1	42.2	26.7	100.0
미취업자	(11)	18.2	63.6	18.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41.2	52.9	5.9	100.0
200-299만원	(41)	19.5	53.7	26.8	100.0
300-399만원	(29)	34.5	48.3	17.2	100.0
400만원 이상	(32)	46.9	31.3	21.9	100.0
미취업자 등	(13)	15.4	61.5	23.1	100.0

장 높고, 그 다음은 '2012년 이전'(29.9%), '2015년'(13.8%)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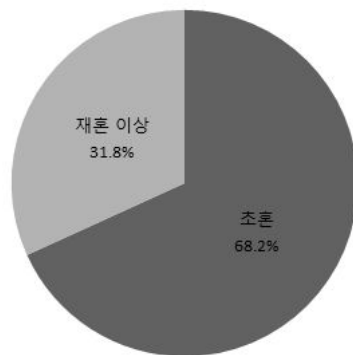
연령별, 최종학력별, 종사상 지위별로는 모두 '2013-2014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에서만 ‘2012년 이전’이라는 응답 비율이 46.9%로 가장 높으며, 다른 임금 대에서는 ‘2013-2014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10-3>에서 당시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초혼이었는지, 재혼이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68.2%로 ‘재혼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 31.8%보다 높다. 세부특성별로도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최종학력 별로는 대학교 이상(72.4%),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78.9%),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8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10-3> 초혼, 재혼 여부

		(단위: %, 명)		
	(N)	초혼	재혼 이상	계
▣ 전체 ▣	(132)	68.2	31.8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68.9	31.1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67.8	32.2	100.0
연령				
39세 이하	(25)	84.0	16.0	100.0
40-49세	(79)	72.2	27.8	100.0
50세 이상	(28)	42.9	57.1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64.9	35.1	100.0
대학교 이상	(58)	72.4	27.6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78.9	21.1	100.0
비임금근로자	(45)	53.3	46.7	100.0
미취업자	(11)	54.5	45.5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82.4	17.6	100.0
200-299만원	(41)	75.6	24.4	100.0
300-399만원	(29)	69.0	31.0	100.0
400만원 이상	(32)	53.1	46.9	100.0
미취업자 등	(13)	61.5	3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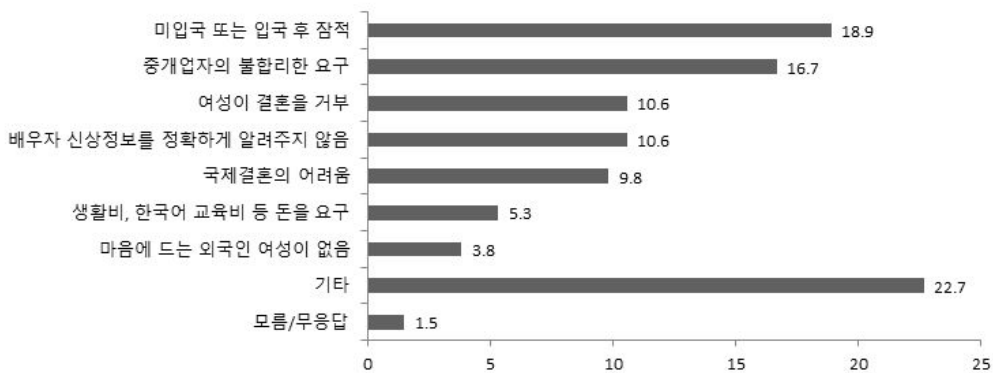
[그림 10-2] 초혼, 재혼 여부

[그림 10-3]과 <표 10-4>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추진하다 중단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결혼추진 중 중단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한국 미입국 또는 입국 후 잠적’(18.9%)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개업체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16.7%), ‘현지 맞선 여행에서 마음에 들었던 여성이 결혼을 거부했기 때문에’(10.6%), ‘배우자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10.6%),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서’(9.8%), ‘생활비, 한국어 교육비 등 돈을 요구해서’(5.3%), ‘마음에 드는 외국인 여성이 없어서’(3.8%) 순이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중단한 이유의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맞선 또는 그 이전에서는 ‘중개업자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24.4%)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15.6%),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서’(13.3%) 등의 순이다. 하지만 결혼식 또는 그 이후 중단에서는 ‘한국 미입국 또는 그 이후 잠적’(24.1%)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개업자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12.6%), ‘현지 맞선 여행에서 마음에 들었던 여성이 결혼을 거부했기 때문에’(11.5%)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도 중단한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39세 이하에서는 ‘한국 미입국 또는 입국 후 잠적’, ‘현지 맞선 여행에서 마음에 들었던 여성이 결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서’, ‘생활비, 한국어 교육비 등 돈을 요구해서’(각각 12.0%)가 가장 높으나, 40-49세에서는 ‘한국 미입국 또는 입국 후 잠적’(21.5%)이 가장 높고, 50세 이상에서는 ‘중개업자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21.4%)가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한국 미입국 또는 그 이후 잠적’(23.0%)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대학교 이상에서는 ‘한국 미입국 또는 그 이후 잠적’ 및 ‘중개업자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각각 13.8%)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림 10-3] 결혼추진 중 중단한 이유

<표 10-4> 결혼추진 중 중단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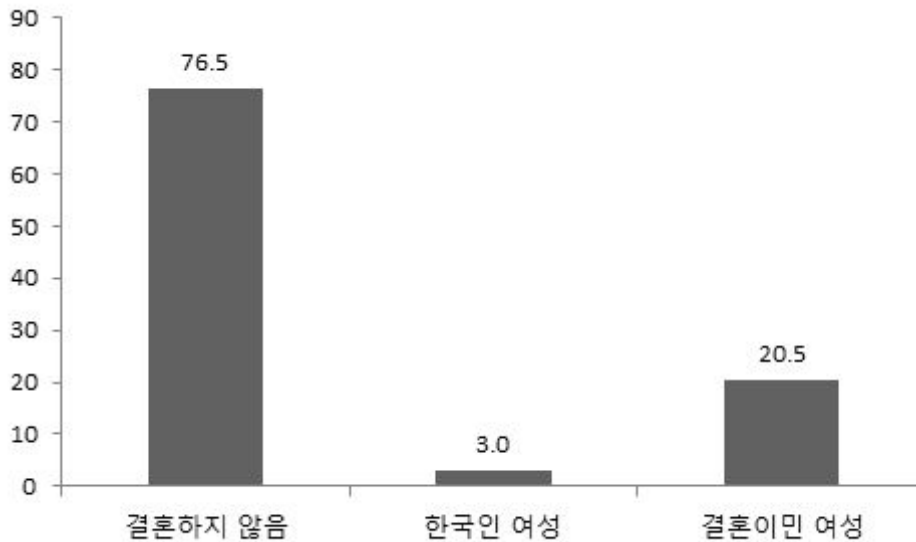
(단위: %, 명)

	(N)	한국 미입국 또는 입국 후 잠적	중개업자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	현지 맞선 여행에서 마음에 들었던 여성이 결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배우자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서	생활비, 한국어 교육비 등 돈을 요구해서	마음에 드는 외국인 여성이 없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132)	18.9	16.7	10.6	10.6	9.8	5.3	3.8	22.7	1.5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8.9	24.4	8.9	15.6	13.3	2.2	6.7	20.0	0.0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24.1	12.6	11.5	8.0	8.0	6.9	2.3	24.1	2.3	100.0
연령											
39세 이하	(25)	12.0	8.0	12.0	8.0	12.0	12.0	4.0	32.0	0.0	100.0
40-49세	(79)	21.5	17.7	7.6	12.7	10.1	5.1	2.5	22.8	0.0	100.0
50세 이상	(28)	17.9	21.4	17.9	7.1	7.1	0.0	7.1	14.3	7.1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23.0	18.9	9.5	10.8	9.5	5.4	4.1	17.6	1.4	100.0
대학교 이상	(58)	13.8	13.8	12.1	10.3	10.3	5.2	3.4	29.3	1.7	100.0
중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7.1	17.1	7.9	11.8	10.5	7.9	3.9	22.4	1.3	100.0
비임금근로자	(45)	22.2	17.8	11.1	11.1	6.7	2.2	4.4	22.2	2.2	100.0
미취업자	(11)	18.2	9.1	27.3	0.0	18.2	0.0	0.0	27.3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23.5	17.6	0.0	17.6	5.9	5.9	5.9	23.5	0.0	100.0
200-299만원	(41)	12.2	22.0	7.3	14.6	7.3	4.9	7.3	22.0	2.4	100.0
300-399만원	(29)	10.3	13.8	20.7	3.4	10.3	10.3	0.0	27.6	3.4	100.0
400만원 이상	(32)	34.4	12.5	6.3	12.5	12.5	3.1	3.1	15.6	0.0	100.0
미취업자 등	(13)	15.4	15.4	23.1	0.0	15.4	0.0	0.0	30.8	0.0	100.0

<표 10-5> 국제결혼 진행 중단 이후 결혼 여부 및 배우자 국적

(단위: %, 명)

	(N)	결혼하지 않음	한국인 여성	결혼이민 여성	계
▣ 전체 ▣	(132)	76.5	3.0	20.5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86.7	2.2	11.1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71.3	3.4	25.3	100.0
연령					
39세 이하	(25)	80.0	8.0	12.0	100.0
40-49세	(79)	78.5	1.3	20.3	100.0
50세 이상	(28)	67.9	3.6	28.6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68.9	4.1	27.0	100.0
대학교 이상	(58)	86.2	1.7	12.1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76.3	3.9	19.7	100.0
비임금근로자	(45)	73.3	2.2	24.4	100.0
미취업자	(11)	90.9	0.0	9.1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76.5	5.9	17.6	100.0
200-299만원	(41)	85.4	2.4	12.2	100.0
300-399만원	(29)	62.1	3.4	34.5	100.0
400만원 이상	(32)	71.9	3.1	25.0	100.0
미취업자 등	(13)	92.3	0.0	7.7	100.0



[그림 10-4] 국제결혼 진행 중단 이후 결혼 여부 및 배우자 국적

<표 10-5>에서 국제결혼 진행 중단 이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는지, 결혼했다면 배우자 국적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76.5%로 ‘결혼했다’(한국인 여성+결혼이민 여성) 보다 높다. 결혼했다는 응답자 중 20.5%가 ‘결혼이민 여성’과 결혼했다고 응답했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는 응답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 연령별, 최종학력별 등의 세부특성별로 모두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맞선 또는 그 이전(86.7%),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 이상(86.2%), 월평균 임금별로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200-299만원(8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이민 여성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결혼식 또는 그 이후(25.3%)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27.0%),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24.4%),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34.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10-6>에서 결혼했다는 응답자들에게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6%가 ‘혼인이 중단된 상태다’라고 응답했고, 48.4%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부특성별로는 사례 수가 적어, 특성별 비교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세부특성별 해석은 하지 않기로 한다.

<표 10-6> 현 결혼생활 유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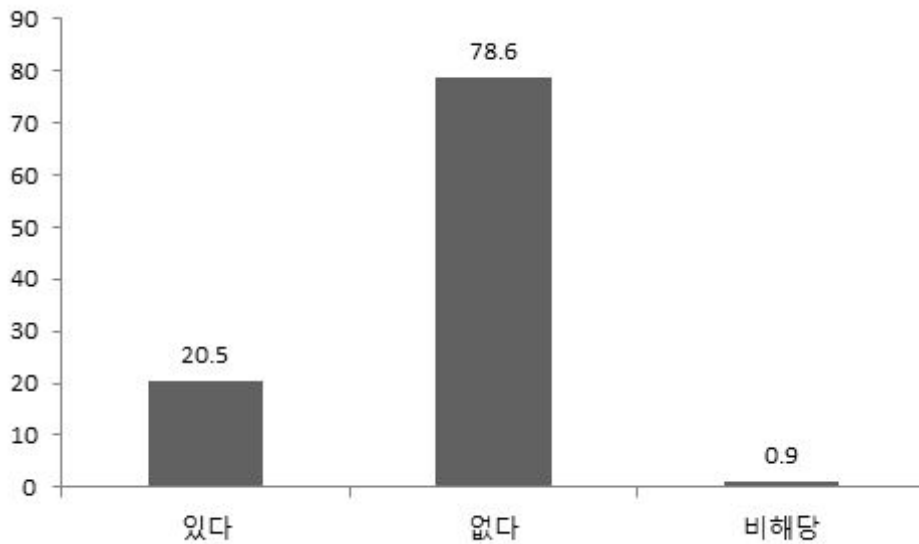
(단위: 명, %)

	(N)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혼인이 중단된 상태다	계
▣ 전체 ▣	(31)	48.4	51.6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6)	33.3	66.7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25)	52.0	48.0	100.0
연령				
39세 이하	(5)	60.0	40.0	100.0
40-49세	(17)	41.2	58.8	100.0
50세 이상	(9)	55.6	44.4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23)	52.2	47.8	100.0
대학교 이상	(8)	37.5	62.5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8)	50.0	50.0	100.0
비임금근로자	(12)	50.0	50.0	100.0
미취업자	(1)	0.0	10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4)	75.0	25.0	100.0
200-299만원	(6)	50.0	50.0	100.0
300-399만원	(11)	36.4	63.6	100.0
400만원 이상	(9)	55.6	44.4	100.0
미취업자 등	(1)	0.0	100.0	100.0

<표 10-7> 국제결혼을 재추진할 계획 유무

(단위: %, 명)

	(N)	있다	없다	비해당	계
▣ 전체 ▣	(117)	20.5	78.6	0.9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3)	14.0	86.0	0.0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74)	24.3	74.3	1.4	100.0
연령					
39세 이하	(22)	27.3	72.7	0.0	100.0
40-49세	(72)	19.4	79.2	1.4	100.0
50세 이상	(23)	17.4	82.6	0.0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62)	19.4	80.6	0.0	100.0
대학교 이상	(55)	21.8	76.4	1.8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67)	23.9	74.6	1.5	100.0
비임금근로자	(39)	15.4	84.6	0.0	100.0
미취업자	(11)	18.2	81.8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4)	21.4	78.6	0.0	100.0
200-299만원	(38)	26.3	73.7	0.0	100.0
300-399만원	(25)	16.0	80.0	4.0	100.0
400만원 이상	(27)	18.5	81.5	0.0	100.0
미취업자 등	(13)	15.4	84.6	0.0	100.0



[그림 10-5] 국제결혼을 재추진할 계획 유무

<표 10-7>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으나 혼인이 중단된 응답자들에게 국제결혼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5%가 국제결혼을 재추진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해, '없다'는 응답 비율 78.6%보다 낮다. 재추진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을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결혼식 또는 그 이후(24.3%),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23.9%), 월평균 임금별로는 200-299만원(26.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제 11 장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표 11-1>에는 미성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된 통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미성혼 남성 응답자들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인지한 통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이 4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30.3%), ‘신문·잡지 광고’(9.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5.3%),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 등’(3.8%), ‘종교기관’(0.8%)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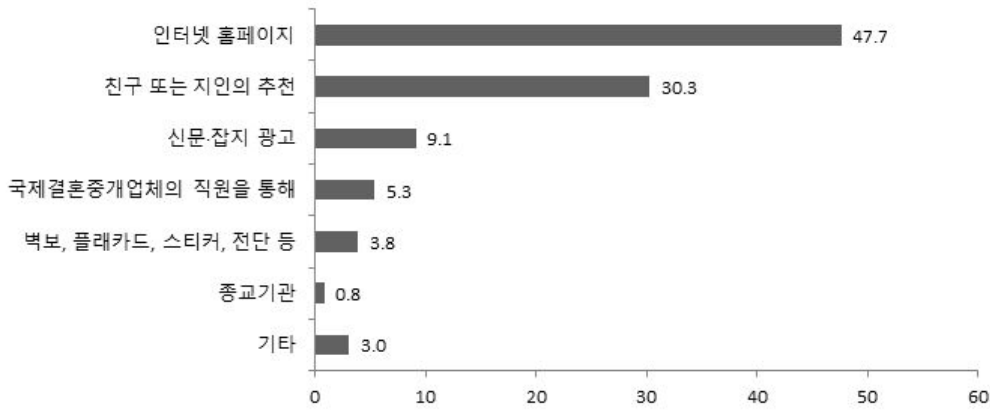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맞선 또는 그 이전과 결혼식 또는 그 이후 모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신문·잡지 광고’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 통로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39세

<표 11-1>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 통로

(단위: %, 명)

	(N)	인터넷 홈페이지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신문· 잡지 광고	국제결혼 중개 업체의 직원을 통해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 등	종교 기관	기타	계
■ 전체 ■	(132)	47.7	30.3	9.1	5.3	3.8	0.8	3.0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46.7	31.1	13.3	6.7	0.0	2.2	0.0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48.3	29.9	6.9	4.6	5.7	0.0	4.6	100.0
연령									
39세 이하	(25)	72.0	12.0	4.0	8.0	4.0	0.0	0.0	100.0
40-49세	(79)	44.3	32.9	8.9	6.3	3.8	1.3	2.5	100.0
50세 이상	(28)	35.7	39.3	14.3	0.0	3.6	0.0	7.1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36.5	41.9	8.1	4.1	5.4	0.0	4.1	100.0
대학교 이상	(58)	62.1	15.5	10.3	6.9	1.7	1.7	1.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47.4	28.9	11.8	5.3	5.3	0.0	1.3	100.0
비임금근로자	(45)	51.1	33.3	2.2	4.4	2.2	2.2	4.4	100.0
미취업자	(11)	36.4	27.3	18.2	9.1	0.0	0.0	9.1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58.8	41.2	0.0	0.0	0.0	0.0	0.0	100.0
200-299만원	(41)	36.6	36.6	12.2	7.3	4.9	2.4	0.0	100.0
300-399만원	(29)	58.6	27.6	6.9	0.0	3.4	0.0	3.4	100.0
400만원 이상	(32)	50.0	18.8	9.4	9.4	6.3	0.0	6.3	100.0
미취업자 등	(13)	38.5	30.8	15.4	7.7	0.0	0.0	7.7	100.0



[그림 11-1]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지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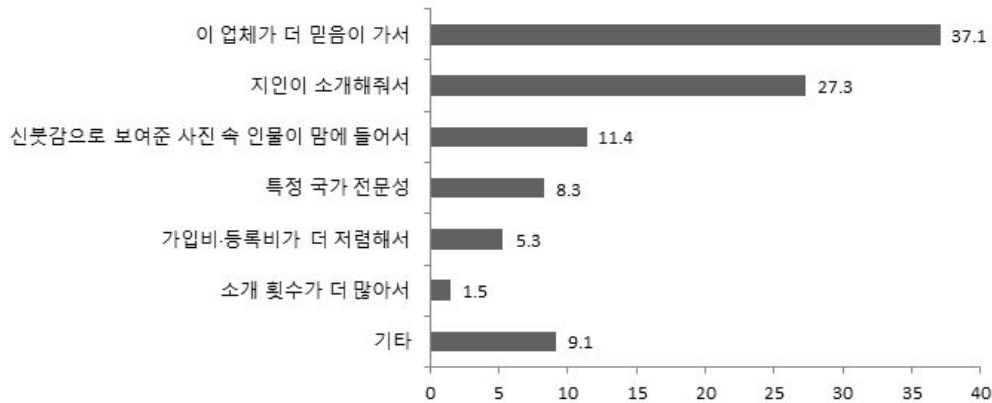
이하와 40-49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각각 72.0%, 44.3%)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50세 이상에서는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39.3%)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도 인지 통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41.9%)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대학교 이상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62.1%)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11-2>는 해당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37.1%가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고 응답했고, ‘지인이 소개해줘서’(27.3%), ‘신분감으로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11.4%), ‘특정국가 전문성’(8.3%), ‘가입비·등록비가 더 저렴해서’(5.3%), ‘소개횟수가 더 많아서’(1.5%) 순이다. 연령별로 주된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39세 이하와 40-49세에서는 ‘이 업체가 가장 믿음이 가서’(각각 40.0%, 39.2%)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50세 이상에서는 ‘지인이 소개해줘서’(42.9%)가 가장 높다. 최종학력별로도 주된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친구 또는 지인이 소개해줘서’(37.8%)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대학교 이상에서는 ‘이 업체가 가장 믿음이 가서’(46.6%)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에서 모두 ‘이 업체가 가장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2.9%, 48.9%로 가장 높고, ‘친구 또는 지인이 소개해줘서’(각각 25.0%, 28.9%) 등의 순이다. 월평균 임금별로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에서 모두 ‘이 업체가 가장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9.0%, 37.9%, 40.6%로 가장 높으나, 199만원 이하에서는 ‘친구 또는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이 41.2%로 가장 높다.

<표 11-2> 해당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N)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	지인이 소개해 줘서	신뢰감 으로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 맘에 들어서	특정 국가 전문성	가입비 등록비가 더 저렴해서	소개 횟수가 더 많아서	기타	계
▣ 전체 ▣	(132)	37.1	27.3	11.4	8.3	5.3	1.5	9.1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35.6	33.3	11.1	4.4	8.9	2.2	4.4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37.9	24.1	11.5	10.3	3.4	1.1	11.5	100.0
연령									
39세 이하	(25)	40.0	8.0	16.0	16.0	12.0	0.0	8.0	100.0
40-49세	(79)	39.2	27.8	12.7	5.1	3.8	1.3	10.1	100.0
50세 이상	(28)	28.6	42.9	3.6	10.7	3.6	3.6	7.1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29.7	37.8	8.1	8.1	5.4	2.7	8.1	100.0
대학교 이상	(58)	46.6	13.8	15.5	8.6	5.2	0.0	10.3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2.9	25.0	14.5	11.8	5.3	1.3	9.2	100.0
비임금근로자	(45)	48.9	28.9	6.7	2.2	2.2	2.2	8.9	100.0
미취업자	(11)	18.2	36.4	9.1	9.1	18.2	0.0	9.1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35.3	41.2	5.9	17.6	0.0	0.0	0.0	100.0
200-299만원	(41)	39.0	22.0	9.8	12.2	9.8	0.0	7.3	100.0
300-399만원	(29)	37.9	27.6	17.2	3.4	0.0	6.9	6.9	100.0
400만원 이상	(32)	40.6	21.9	12.5	3.1	3.1	0.0	18.8	100.0
미취업자 등	(13)	23.1	38.5	7.7	7.7	15.4	0.0	7.7	100.0



[그림 11-2] 해당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표 11-3> 계약 체결 전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 들었는지 여부: 종합

(단위: 명, %)

구분	들었다	듣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65.9	27.3	6.8
2. 해약·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9.4	52.3	8.3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31.8	58.3	9.8
4.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0.9	50.0	9.1

<표 11-4> 계약 체결 전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 청취 여부: 세부특성별

(단위: 명, %)

	(N)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전체 ▣	(132)	65.9	39.4	31.8	40.9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64.4	42.2	31.1	33.3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66.7	37.9	32.2	44.8
연령					
39세 이하	(25)	68.0	48.0	36.0	52.0
40-49세	(79)	69.6	43.0	34.2	41.8
50세 이상	(28)	53.6	21.4	21.4	28.6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62.2	35.1	27.0	41.9
대학교 이상	(58)	70.7	44.8	37.9	39.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68.4	42.1	34.2	46.1
비임금근로자	(45)	71.1	40.0	33.3	40.0
미취업자	(11)	27.3	18.2	9.1	9.1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76.5	35.3	23.5	41.2
200-299만원	(41)	70.7	34.1	29.3	36.6
300-399만원	(29)	51.7	24.1	24.1	31.0
400만원 이상	(32)	81.3	68.8	53.1	65.6
미취업자 등	(13)	30.8	23.1	15.4	15.4

<표 11-3>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총 4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65.9%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40.9%), 해약·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39.4%),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31.8%) 순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입장에서 보면 계약의 성사를 위해 초기에 납부하는 수수료나 회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불가피하지만, 해약·해지 시의 수수료나 회비 등의 반환, 결혼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업체 측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을 본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4>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응답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다. 세부특성별로도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모든 특성에서 가장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모두 가장 높으며, 해약·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다.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에서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62.2%),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44.8%)의 순이나, 대학교 이상에서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은 맞선 또는 그 이전에서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70.7%), 해약·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44.8%)의 순으로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에서 4가지 사항 모두 ‘들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1-5>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다. 미성혼 남성 응답자들이 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주민등록등본’(85.6%)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호적등본’(79.5%), ‘건강진단서’(76.5%), ‘직업증명서’(68.2%), ‘범죄경력증명서’(65.2%), ‘소득관련증명서’(65.2%) 등의 순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최종학력, 종사상 지위 등 세부 특성별로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가 맞선 또는 그 이전, 월평균 임금이 300-399만원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가장 많이 제출한 서류가 ‘건강진단서’(각각 75.6%, 82.8%)로 ‘호적등본’(각각 73.3%, 79.3%)보다 높게 나타나 여타의 특성별 응답 비율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출서류별로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87.4%), 40-49세(87.3%), 고등학교 이하(87.8%), 미취업자(90.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호적등본’을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82.8%), 40-49세(81.0%), 고등학교 이하(81.1%), 미취업자(90.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건강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은 50세 이상(78.6%), 고등학교 이하(78.4%), 미취업자(81.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11-5> 국제결혼 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단위: 명, %)

	(N)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 진단서	직업 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	소득관련 증명서	재산관계 증명서	병적 증명서	학교졸업 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기타
▣ 전체 ▣	(132)	85.6	79.5	76.5	68.2	65.2	65.2	53.0	47.0	30.3	15.2	12.9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82.2	73.3	75.6	62.2	60.0	57.8	46.7	42.2	31.1	15.6	17.8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87.4	82.8	77.0	71.3	67.8	69.0	56.3	49.4	29.9	14.9	10.3
연령												
39세 이하	(25)	80.0	76.0	76.0	64.0	52.0	64.0	44.0	44.0	24.0	12.0	20.0
40-49세	(79)	87.3	81.0	75.9	72.2	70.9	65.8	55.7	49.4	29.1	17.7	10.1
50세 이상	(28)	85.7	78.6	78.6	60.7	60.7	64.3	53.6	42.9	39.3	10.7	14.3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87.8	81.1	78.4	66.2	62.2	59.5	50.0	50.0	27.0	18.9	12.2
대학교 이상	(58)	82.8	77.6	74.1	70.7	69.0	72.4	56.9	43.1	34.5	10.3	13.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84.2	76.3	75.0	68.4	61.8	61.8	47.4	47.4	28.9	15.8	11.8
비임금근로자	(45)	86.7	82.2	77.8	64.4	71.1	73.3	64.4	53.3	35.6	17.8	11.1
미취업자	(11)	90.9	90.9	81.8	81.8	63.6	54.5	45.5	18.2	18.2	0.0	27.3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82.4	76.5	64.7	58.8	47.1	47.1	29.4	47.1	23.5	29.4	17.6
200-299만원	(41)	82.9	80.5	80.5	65.9	73.2	61.0	48.8	43.9	26.8	17.1	9.8
300-399만원	(29)	82.8	79.3	82.8	72.4	72.4	75.9	69.0	65.5	34.5	6.9	17.2
400만원 이상	(32)	90.6	75.0	68.8	65.6	56.3	71.9	56.3	40.6	37.5	15.6	6.3
미취업자 등	(13)	92.3	92.3	84.6	84.6	69.2	61.5	53.8	30.8	23.1	7.7	23.1

<표 11-6>은 국제결혼 계약만 체결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맞선 이후의 단계를 거친 응답자를 대상으로 예비 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총 1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나이’(55.8%), ‘가족관계’(43.4%), ‘혼인경력’(38.1%), ‘학력’(37.2%) 등 예비 배우자의 일반적인 신상정보는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적 장애 유무’ 및 ‘신체적 장애 유무’(각각 13.3%, 16.8%), ‘질병 유무’(17.7%) 등 혼인에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질환 및 장애 관련 정보는 제공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소득’(12.4%)이나 ‘재산’(15.0%)과 같은 경제적 상황과 ‘범죄경력’(15.9%) 관련 신상정보의 제공 비율도 낮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7>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제공받은 신상정보를 살펴보면, 맞선 또는 그 이전에서는 ‘나이’(46.2%), ‘가족관계 및 학력’(34.6%) 등의 순으로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는 ‘나이’(58.6%), ‘가족관계’(46.0%), ‘혼인경력’(43.7%) 등의 순으로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직업’ 등에서 모두 연령

<표 11-6> 예비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 여부

(단위: 명, %)

신상정보 내용	예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제공받음	제공받지 않음	모름·무응답
1. 혼인경력	38.1	61.9	0.0
2. 건강상태	31.9	68.1	0.0
3. 직업	28.3	71.7	0.0
4. 범죄경력	15.9	84.1	0.0
5. 소득	12.4	87.6	0.0
6. 재산	15.0	85.0	0.0
7. 학력	37.2	62.8	0.0
8. 가족관계	43.4	56.6	0.0
9. 나이	55.8	44.2	0.0
10. 질병 유무	17.7	82.3	0.0
11. 신체적 장애 유무	16.8	82.3	0.9
12. 정신적 장애 유무	13.3	85.8	0.9

<표 11-7> 예비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 여부: 제공 받았다는 응답 기준

(단위: 명, %)

	(N)	나이	가족 관계	혼인 경력	학력	건강 상태	직업	질병 유무	신체적 장애 유무	범죄 경력	재산	정신적 장애 유무	소득
▣ 전체 ▣	(113)	55.8	43.4	38.1	37.2	31.9	28.3	17.7	16.8	15.9	15.0	13.3	12.4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26)	46.2	34.6	19.2	34.6	11.5	7.7	7.7	7.7	3.8	11.5	7.7	3.8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58.6	46.0	43.7	37.9	37.9	34.5	20.7	19.5	19.5	16.1	14.9	14.9
연령													
39세 이하	(20)	80.0	55.0	55.0	65.0	45.0	45.0	30.0	25.0	30.0	15.0	20.0	15.0
40-49세	(68)	55.9	48.5	39.7	36.8	32.4	29.4	16.2	17.6	16.2	17.6	14.7	16.2
50세 이상	(25)	36.0	20.0	20.0	16.0	20.0	12.0	12.0	8.0	4.0	8.0	4.0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63)	60.3	47.6	41.3	39.7	34.9	33.3	20.6	19.0	20.6	15.9	12.7	12.7
대학교 이상	(50)	50.0	38.0	34.0	34.0	28.0	22.0	14.0	14.0	10.0	14.0	14.0	12.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66)	63.6	51.5	40.9	42.4	34.8	33.3	21.2	19.7	21.2	19.7	16.7	16.7
비임금근로자	(39)	46.2	33.3	33.3	28.2	25.6	17.9	10.3	12.8	7.7	7.7	7.7	5.1
미취업자	(8)	37.5	25.0	37.5	37.5	37.5	37.5	25.0	12.5	12.5	12.5	12.5	12.5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6)	56.3	50.0	37.5	31.3	37.5	31.3	25.0	18.8	25.0	18.8	12.5	12.5
200-299만원	(34)	52.9	44.1	32.4	35.3	29.4	23.5	11.8	20.6	8.8	11.8	14.7	8.8
300-399만원	(25)	48.0	36.0	36.0	32.0	24.0	28.0	16.0	16.0	16.0	16.0	12.0	16.0
400만원 이상	(28)	71.4	50.0	46.4	46.4	39.3	32.1	21.4	14.3	21.4	17.9	14.3	14.3
미취업자 등	(10)	40.0	30.0	40.0	40.0	30.0	30.0	20.0	10.0	10.0	10.0	10.0	10.0

<표 11-8> 예비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N)	①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①+②	③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④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113)	1.8	16.8	18.6	35.4	45.1	80.5	0.9	100.0	3.3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26)	0.0	11.5	11.5	50.0	34.6	84.6	3.8	100.0	3.2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2.3	18.4	20.7	31.0	48.3	79.3	0.0	100.0	3.3
연령										
39세 이하	(20)	5.0	5.0	10.0	40.0	50.0	90.0	0.0	100.0	3.4
40-49세	(68)	1.5	17.6	19.1	35.3	44.1	79.4	1.5	100.0	3.2
50세 이상	(25)	0.0	24.0	24.0	32.0	44.0	76.0	0.0	100.0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63)	0.0	14.3	14.3	38.1	46.0	84.1	1.6	100.0	3.3
대학교 이상	(50)	4.0	20.0	24.0	32.0	44.0	76.0	0.0	100.0	3.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66)	1.5	18.2	19.7	33.3	45.5	78.8	1.5	100.0	3.2
비임금근로자	(39)	0.0	17.9	17.9	35.9	46.2	82.1	0.0	100.0	3.3
미취업자	(8)	12.5	0.0	12.5	50.0	37.5	87.5	0.0	100.0	3.1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6)	0.0	6.3	6.3	25.0	62.5	87.5	6.3	100.0	3.6
200-299만원	(34)	2.9	5.9	8.8	41.2	50.0	91.2	0.0	100.0	3.4
300-399만원	(25)	0.0	20.0	20.0	28.0	52.0	80.0	0.0	100.0	3.3
400만원 이상	(28)	0.0	39.3	39.3	32.1	28.6	60.7	0.0	100.0	2.9
미취업자 등	(10)	10.0	0.0	10.0	60.0	30.0	90.0	0.0	100.0	3.1

이 낮을수록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에서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예비배우자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대학교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에서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예비배우자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비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400만원 이상에서 ‘나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71.4%로 가장 높으며, 199만원 이하 및 400만원 이상(각각 50.0%)에서는 ‘가족관계’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1-8>은 예비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예비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응답 비율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와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를 합하여 80.5%로 어려움이 없었다(‘아무 어려움도 없었다’+‘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 비율 18.6%로 보다 매우 높다. 1점부터 4점까지로 계산한 평균점수도 3.3점으로 높다.

<표 11-9>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통역인 실력

(단위: 명, %)

	(N)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①+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113)	10.6	28.3	38.9	37.2	18.6	5.3	23.9	100.0	2.8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26)	3.8	42.3	46.2	34.6	15.4	3.8	19.2	100.0	2.7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12.6	24.1	36.8	37.9	19.5	5.7	25.3	100.0	2.8
연령										
39세 이하	(20)	15.0	30.0	45.0	30.0	25.0	0.0	25.0	100.0	2.7
40-49세	(68)	10.3	25.0	35.3	36.8	19.1	8.8	27.9	100.0	2.9
50세 이상	(25)	8.0	36.0	44.0	44.0	12.0	0.0	12.0	100.0	2.6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63)	12.7	25.4	38.1	36.5	19.0	6.3	25.4	100.0	2.8
대학교 이상	(50)	8.0	32.0	40.0	38.0	18.0	4.0	22.0	100.0	2.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66)	9.1	25.8	34.8	37.9	22.7	4.5	27.3	100.0	2.9
비임금근로자	(39)	10.3	33.3	43.6	38.5	12.8	5.1	17.9	100.0	2.7
미취업자	(8)	25.0	25.0	50.0	25.0	12.5	12.5	25.0	100.0	2.6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6)	12.5	18.8	31.3	31.3	18.8	18.8	37.5	100.0	3.1
200-299만원	(34)	8.8	38.2	47.1	29.4	20.6	2.9	23.5	100.0	2.7
300-399만원	(25)	16.0	32.0	48.0	28.0	24.0	0.0	24.0	100.0	2.6
400만원 이상	(28)	3.6	17.9	21.4	60.7	14.3	3.6	17.9	100.0	3.0
미취업자 등	(10)	20.0	30.0	50.0	30.0	10.0	10.0	20.0	100.0	2.6

연령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200-299만원 및 199만원 이하에서 각각 91.2%, 87.5%로 높다.

<표 11-9>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일한 통역인의 실력에 대한 조사 결과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통역인 실력이 우수했다(‘매우 우수’+‘우수’)는 응답 비율은 23.9%로 나타났고, ‘보통’은 37.2%, 미흡했다(‘매우 미흡’+‘미흡’)는 38.9%로 나타났다. 1점부터 5점까지로 계산한 평균점수는 2.8점이었다.

세부특성별로 통역인의 실력이 우수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40-49세(27.9%),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27.3%),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3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11-10>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가 도움이 되

었다는 응답 비율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와 ‘약간 도움이 되었다’를 합하여 48.7%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 50.4%로 나타났다. 1점부터 4점까지로 계산한 평균점수는 2.4점이었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통역·번역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40-49세(52.9%),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 이상(54.0%),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71.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11-10>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N)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①+②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113)	16.8	33.6	50.4	41.6	7.1	48.7	0.9	100.0	2.4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26)	19.2	34.6	53.8	38.5	3.8	42.3	3.8	100.0	2.3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16.1	33.3	49.4	42.5	8.0	50.6	0.0	100.0	2.4
연령										
39세 이하	(20)	30.0	20.0	50.0	45.0	5.0	50.0	0.0	100.0	2.3
40-49세	(68)	14.7	30.9	45.6	42.6	10.3	52.9	1.5	100.0	2.5
50세 이상	(25)	12.0	52.0	64.0	36.0	0.0	36.0	0.0	100.0	2.2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63)	15.9	38.1	54.0	34.9	9.5	44.4	1.6	100.0	2.4
대학교 이상	(50)	18.0	28.0	46.0	50.0	4.0	54.0	0.0	100.0	2.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66)	16.7	33.3	50.0	40.9	7.6	48.5	1.5	100.0	2.4
비임금근로자	(39)	12.8	35.9	48.7	46.2	5.1	51.3	0.0	100.0	2.4
미취업자	(8)	37.5	25.0	62.5	25.0	12.5	37.5	0.0	100.0	2.1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6)	6.3	43.8	50.0	18.8	25.0	43.8	6.3	100.0	2.7
200-299만원	(34)	32.4	35.3	67.6	29.4	2.9	32.4	0.0	100.0	2.0
300-399만원	(25)	12.0	36.0	48.0	52.0	0.0	52.0	0.0	100.0	2.4
400만원 이상	(28)	3.6	25.0	28.6	64.3	7.1	71.4	0.0	100.0	2.8
미취업자 등	(10)	30.0	30.0	60.0	30.0	10.0	40.0	0.0	100.0	2.2

심층면접에서 통역의 수준이나 실질적 도움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도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인 남성들은 통역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를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을 통역을 통해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통역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꼭 알고 싶은 이야기는, 통역이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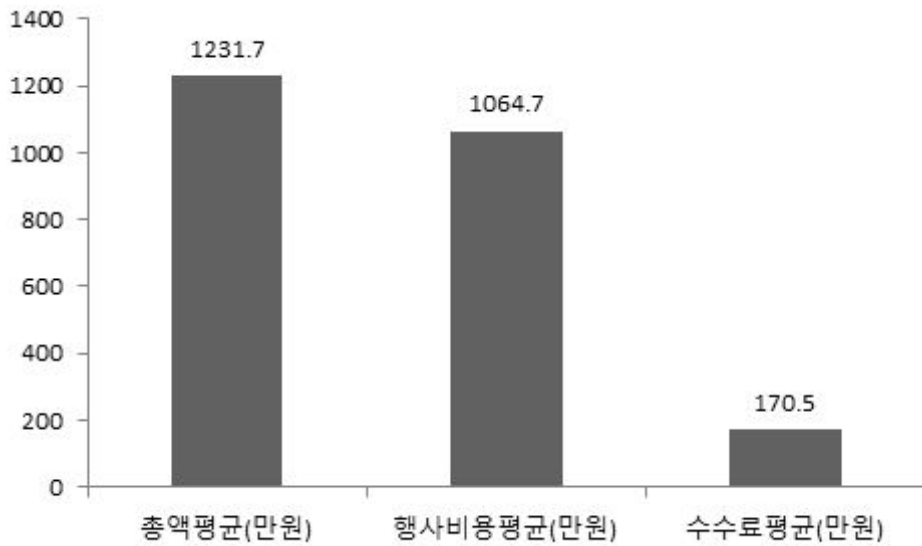
그러면 저는 이게 뭘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통역이 나에게 무슨 얘기인지 말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래 내가 무슨 얘기냐고 물으면 통역이 신랑한테 좋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만 해, 신랑한테 좋은 이야기,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설명안하고, 신랑한테 좋은 이야기라고만 말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무슨 가족 이야기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 통역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죠,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통역이 대답하길 신랑한테 좋은 이야기예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게 통역이었어요[사례 #C01, 남, 43세, 추진 시 배우자 국적 키르기스스탄, 서울거주].

<표 11-11>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료 총액’은 평균 12,317,000원이고, 이 중 ‘행사비용’은 평균 10,647,000원, ‘중개수수료’는 평균 1,705,000원이다. 행사비용 및 수수료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2항목의 합이 총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중개료 총액 평균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12,657,000원으로 맞선 또는 그 이후(11,643,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중개료 총액 평균은 39세 이하에서

<표 11-11>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단위: 명, %)

	(N)	총액평균(만원)	행사비용평균(만원)	수수료평균(만원)
▣ 전체 ▣	(132)	1,231.7	1,064.7	170.5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1,164.3	980.2	150.2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1,265.7	1,104.9	180.0
연령				
39세 이하	(25)	1,307.2	1,327.5	53.1
40-49세	(79)	1,208.7	1,041.8	162.4
50세 이상	(28)	1,228.2	932.8	274.3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1,224.0	1,009.9	191.9
대학교 이상	(58)	1,241.4	1,155.0	134.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184.1	1,038.8	114.0
비임금근로자	(45)	1,336.9	1,108.8	295.3
미취업자	(11)	1,125.5	1,050.6	10.6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993.5	764.6	161.5
200-299만원	(41)	1,343.3	1,139.7	164.0
300-399만원	(29)	1,275.5	1,190.7	173.1
400만원 이상	(32)	1,192.5	1,018.7	245.7
미취업자 등	(13)	1,198.5	1,156.1	9.4



[그림 11-3]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표 11-12> 추가 비용 지출 여부: 종합

(단위: 명, %)

구분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1. 예단비	(132)	39.4	60.6	100.0	206.2
2. 배우자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비	(132)	24.2	75.8	100.0	129.0
3.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132)	8.3	91.7	100.0	140.0
4.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	(132)	32.6	67.4	100.0	200.1
5.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132)	12.9	87.1	100.0	291.8
6. 기타	(132)	13.6	86.4	100.0	257.2

13,072,000원으로 40-49세 및 50세 이상(각각 12,087,000원, 12,282,000원)보다 많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중개료 총액 평균은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비임금근로자에서 13,369,000원으로 임금근로자(11,841,000원)보다 많았으며, 월 평균 임금별로는 200-299만원에서 13,43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11-12>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다.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39.4%로 6가지 항목 중 가장 높으며, ‘있

다'는 응답자가 지출한 금액은 평균 2,062,000원이었다. 다음으로 '입국 전 생활비'(32.6%, 2,001,000원),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24.2%, 1,290,000원) 등의 순이다.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라는 응답 비율은 8.3%로 가장 낮으며, 평균 금액은 1,400,000원이었다.

<표 11-13>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9.4%였으며, '없다'는 60.6%로 나타났다. '있다'는 응답자가 예단비로 지출한 금액의 평균은 2,062,000원이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47.1%로 맞선 또는 그 이전(24.4%)보다 높다. 지출한 금액도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2,271,000원으로 맞선 또는 그 이전(1,283,000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으며, 지출한 금액은 50세 이상에서 3,700,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별로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대학교 이상에서 43.1%로 고등학교 이하(36.5%)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지출한 금액은 고등학교 이하

<표 11-13> 추가 비용 지출 여부: 예단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132)	39.4	60.6	100.0	206.2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24.4	75.6	100.0	128.3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47.1	52.9	100.0	227.1
연령					
39세 이하	(25)	44.0	56.0	100.0	199.1
40-49세	(79)	40.5	59.5	100.0	162.5
50세 이상	(28)	32.1	67.9	100.0	37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36.5	63.5	100.0	217.8
대학교 이상	(58)	43.1	56.9	100.0	193.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4.2	65.8	100.0	260.8
비임금근로자	(45)	44.4	55.6	100.0	166.1
미취업자	(11)	54.5	45.5	100.0	103.3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41.2	58.8	100.0	182.9
200-299만원	(41)	31.7	68.3	100.0	263.1
300-399만원	(29)	41.4	58.6	100.0	190.9
400만원 이상	(32)	40.6	59.4	100.0	234.6
미취업자 등	(13)	53.8	46.2	100.0	97.1

<표 11-14>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132)	24.2	75.8	100.0	129.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17.8	82.2	100.0	94.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27.6	72.4	100.0	140.7
연령					
39세 이하	(25)	28.0	72.0	100.0	121.4
40-49세	(79)	25.3	74.7	100.0	153.2
50세 이상	(28)	17.9	82.1	100.0	43.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23.0	77.0	100.0	169.9
대학교 이상	(58)	25.9	74.1	100.0	82.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23.7	76.3	100.0	162.9
비임금근로자	(45)	24.4	75.6	100.0	91.5
미취업자	(11)	27.3	72.7	100.0	63.3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17.6	82.4	100.0	59.0
200-299만원	(41)	31.7	68.3	100.0	200.6
300-399만원	(29)	27.6	72.4	100.0	72.4
400만원 이상	(32)	12.5	87.5	100.0	93.8
미취업자 등	(13)	30.8	69.2	100.0	97.5

에서 2,178,000원으로 대학교 이상(1,936,000원)보다 많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예단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비임금근로자에서 44.4%로 임금근로자(34.2%)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지출한 금액은 임금근로자에서 2,608,000원으로 비임금근로자(1,661,000원)보다 많았다.

<표 11-14>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24.2%가 추가 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응답 비율은 75.8%였다. '있다'는 응답자가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평균은 1,290,000원이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27.6%로 맞선 또는 그 이전(17.8%)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지출한 금액도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1,407,000원으로 맞선 또는 그 이전(940,000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

<표 11-15>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132)	8.3	91.7	100.0	14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4.4	95.6	100.0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10.3	89.7	100.0	148.9
연령					
39세 이하	(25)	16.0	84.0	100.0	92.5
40-49세	(79)	7.6	92.4	100.0	185.0
50세 이상	(28)	3.6	96.4	100.0	6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6.8	93.2	100.0	212.0
대학교 이상	(58)	10.3	89.7	100.0	8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0.5	89.5	100.0	160.0
비임금근로자	(45)	6.7	93.3	100.0	86.7
미취업자	(11)	0.0	100.0	100.0	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5.9	94.1	100.0	70.0
200-299만원	(41)	9.8	90.2	100.0	195.0
300-399만원	(29)	17.2	82.8	100.0	102.0
400만원 이상	(32)	3.1	96.9	100.0	180.0
미취업자 등	(13)	0.0	100.0	100.0	0.0

록 높으며, 지출한 금액은 40-49세에서 1,53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임금별로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0-299만원에서 31.7%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도 200-299만원에서 2,00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11-15>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를 추가로 지출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8.3%가 추가 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응답 비율은 91.7%이다. '있다'는 응답자가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로 지출한 금액의 평균은 140.0만원이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으며,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17.2%) 등에서 높다.

<표 11-16>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2.6%였으며, '있다'는 응답자가 지출한 금액의 평균은 2,001,000원이다.

<표 11-16>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132)	32.6	67.4	100.0	200.1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17.8	82.2	100.0	123.8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40.2	59.8	100.0	217.5
연령					
39세 이하	(25)	32.0	68.0	100.0	232.4
40-49세	(79)	31.6	68.4	100.0	191.0
50세 이상	(28)	35.7	64.3	100.0	197.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32.4	67.6	100.0	220.6
대학교 이상	(58)	32.8	67.2	100.0	174.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4.2	65.8	100.0	194.2
비임금근로자	(45)	31.1	68.9	100.0	229.6
미취업자	(11)	27.3	72.7	100.0	113.3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47.1	52.9	100.0	230.0
200-299만원	(41)	34.1	65.9	100.0	198.5
300-399만원	(29)	34.5	65.5	100.0	104.0
400만원 이상	(32)	25.0	75.0	100.0	325.6
미취업자 등	(13)	23.1	76.9	100.0	113.3

<표 11-17> 추가 비용 지출 여부: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132)	12.9	87.1	100.0	291.8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13.3	86.7	100.0	143.3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12.6	87.4	100.0	372.7
연령					
39세 이하	(25)	8.0	92.0	100.0	540.0
40-49세	(79)	15.2	84.8	100.0	302.5
50세 이상	(28)	10.7	89.3	100.0	83.3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9.5	90.5	100.0	482.9
대학교 이상	(58)	17.2	82.8	100.0	158.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1.8	88.2	100.0	435.6
비임금근로자	(45)	17.8	82.2	100.0	130.0
미취업자	(11)	0.0	100.0	100.0	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11.8	88.2	100.0	270.0
200-299만원	(41)	14.6	85.4	100.0	376.7
300-399만원	(29)	17.2	82.8	100.0	348.0
400만원 이상	(32)	12.5	87.5	100.0	105.0
미취업자 등	(13)	0.0	100.0	100.0	0.0

<표 11-18> 추가 비용 지출 여부: 기타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 전체 ▣	(132)	13.6	86.4	100.0	257.2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8.9	91.1	100.0	142.5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16.1	83.9	100.0	290.0
연령					
39세 이하	(25)	24.0	76.0	100.0	345.0
40-49세	(79)	13.9	86.1	100.0	214.5
50세 이상	(28)	3.6	96.4	100.0	2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9.5	90.5	100.0	271.4
대학교 이상	(58)	19.0	81.0	100.0	248.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4.5	85.5	100.0	218.2
비임금근로자	(45)	13.3	86.7	100.0	288.3
미취업자	(11)	9.1	90.9	100.0	5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11.8	88.2	100.0	45.0
200-299만원	(41)	12.2	87.8	100.0	440.0
300-399만원	(29)	24.1	75.9	100.0	191.4
400만원 이상	(32)	9.4	90.6	100.0	166.7
미취업자 등	(13)	7.7	92.3	100.0	5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40.2%로 맞선 또는 그 이전(17.8%)보다 높으며, 지출한 금액도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2,175,000원으로 맞선 또는 그 이전(1,238,000원)보다 많았다. 월평균 임금별로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99만원 이하에서 47.1%로 가장 높으며, 지출한 금액은 400만원 이상에서 3,25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11-17>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12.9%가 추가 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응답 비율은 87.1%이다. 추가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평균은 2,918,000원이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40-49세(15.2%),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 이상(17.2%),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7.8%),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17.2%) 등에서 높다.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자들 중 일부는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급행료'를 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비용은 대부분 현지

에서 서류를 진행할 때,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표 11-18>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 이외의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6%가 추가 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응답 비율은 86.4%이다. 추가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기타 비용으로 추가 지출한 금액의 평균은 2,572,000원이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결혼식 또는 그 이후(16.1%),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 이상(19.0%),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24.1%) 등에서 높다.

제 12 장 외국 현지 맞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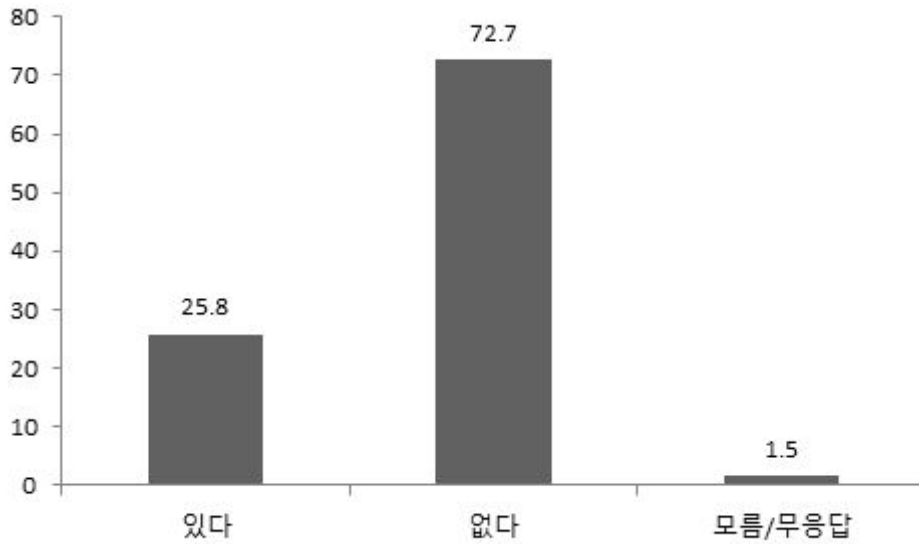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표 12-1), 응답자의 25.8%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들은 적이 '없다'는 72.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00-399만원에서 31.0%로 상대적으로 높다.

<표 12-2>은 맞선여행을 위하여 방문한 나라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51.2%가 '베트남'이라고 응답했고, '필리핀'이 19.0%, '중국'이 12.4% 등의 순이며, 방문횟수는 평균 1.7회이고, 체류일수는 평균 11.3일이다. 세부특성별로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를 살펴보면,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 연령별, 최종학력별 특성 등과 무관하게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표 12-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단위: 명, %)

	(N)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132)	25.8	72.7	1.5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24.4	73.3	2.2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26.4	72.4	1.1	100.0
연령					
39세 이하	(25)	32.0	68.0	0.0	100.0
40-49세	(79)	27.8	70.9	1.3	100.0
50세 이상	(28)	14.3	82.1	3.6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25.7	71.6	2.7	100.0
대학교 이상	(58)	25.9	74.1	0.0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26.3	73.7	0.0	100.0
비임금근로자	(45)	28.9	66.7	4.4	100.0
미취업자	(11)	9.1	90.9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29.4	70.6	0.0	100.0
200-299만원	(41)	19.5	75.6	4.9	100.0
300-399만원	(29)	31.0	69.0	0.0	100.0
400만원 이상	(32)	28.1	71.9	0.0	100.0
미취업자 등	(13)	23.1	76.9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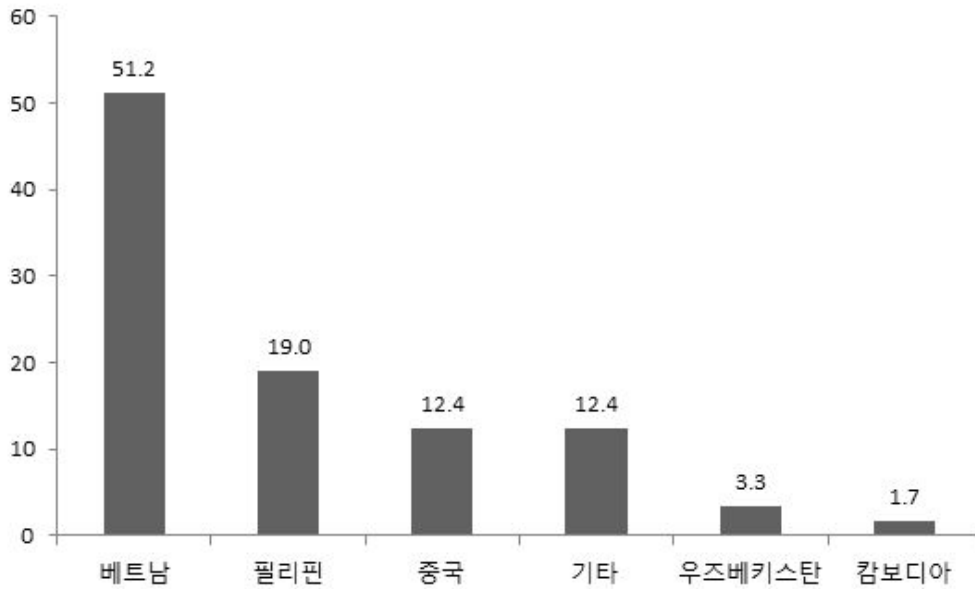


[그림 12-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표 12-2>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단위: 명, %)

	(N)	베트남	필리핀	중국	우즈 베키 스탄	캄보 디아	기타	계	방문 횟수 평균 (회)	체류 일수 평균 (일)
■ 전체 ■	(121)	51.2	19.0	12.4	3.3	1.7	12.4	100.0	1.7	11.3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34)	44.1	17.6	11.8	5.9	2.9	17.6	100.0	1.4	9.1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54.0	19.5	12.6	2.3	1.1	10.3	100.0	1.8	12.2
연령										
39세 이하	(22)	50.0	9.1	0.0	13.6	0.0	27.3	100.0	2.0	12.7
40-49세	(73)	52.1	19.2	17.8	1.4	0.0	9.6	100.0	1.6	11.7
50세 이상	(26)	50.0	26.9	7.7	0.0	7.7	7.7	100.0	1.6	9.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68)	54.4	17.6	11.8	4.4	0.0	11.8	100.0	1.7	11.2
대학교 이상	(53)	47.2	20.8	13.2	1.9	3.8	13.2	100.0	1.7	11.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0)	51.4	12.9	11.4	4.3	2.9	17.1	100.0	1.6	10.9
비임금근로자	(41)	56.1	26.8	9.8	0.0	0.0	7.3	100.0	1.8	12.1
미취업자	(10)	30.0	30.0	30.0	10.0	0.0	0.0	100.0	2.0	10.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6)	56.3	31.3	6.3	0.0	0.0	6.3	100.0	1.6	13.1
200-299만원	(38)	52.6	13.2	10.5	5.3	2.6	15.8	100.0	1.4	8.4
300-399만원	(26)	57.7	15.4	7.7	3.8	3.8	11.5	100.0	1.9	13.3
400만원 이상	(29)	48.3	20.7	17.2	0.0	0.0	13.8	100.0	1.8	12.3
미취업자 등	(12)	33.3	25.0	25.0	8.3	0.0	8.3	100.0	2.0	11.5



[그림 12-2]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국가로는 대다수가 필리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응답 비율이 13.6%로 필리핀(9.1%)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평균 방문횟수와 평균 체류기간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가 1.8회, 12.2일로 맞선 또는 그 이전(1.4회, 9.1일)보다 많고 길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에서 평균 방문회수가 2.0회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체류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300-399만원에서 평균 방문횟수와 체류기간이 1.9회, 13.3일로 가장 많고 길다.

<표 12-3>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겪은 피해 경험을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인한 피해 경험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라는 응답 비율이 70.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64.4%), ‘상대방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52.3%), ‘상대방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50.8%) 등의 순으로 높다.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18.2%)와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22.7%)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 두 항목의 경우 ‘해당사항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5.6%, 36.4%로 높다는 것에 주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표 12-3>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물 접촉 관련 피해 경험 여부: 종합

(단위: 명, %)

구분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1. 회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1)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132)	40.2	46.2	13.6	100.0
	2) 과장 광고를 했다	(132)	64.4	29.5	6.1	100.0
2.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3)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132)	35.6	59.1	5.3	100.0
	4) 상대방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132)	50.8	39.4	9.8	100.0
	5)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	(132)	70.5	20.5	9.1	100.0
	6) 상대방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132)	52.3	39.4	8.3	100.0
3.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7)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132)	47.7	42.4	9.8	100.0
	8) 계약을 어겼다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132)	24.2	62.1	13.6	100.0
4. 비자 신청 및 출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	9)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	(132)	22.7	40.9	36.4	100.0
	10)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	(132)	18.2	46.2	35.6	100.0

이 표에서 ‘없다’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음을 뜻하고, ‘해당 사항 없다’는 그러한 경험을 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두 범주가 엄격히 구분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표에서는 ‘있다’는 범주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분야별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관련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의 피해 경험 비율이 50%를 넘어 가장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표 12-4>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40.2	46.2	13.6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44.4	40.0	15.6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37.9	49.4	12.6	100.0
연령					
39세 이하	(25)	44.0	48.0	8.0	100.0
40-49세	(79)	39.2	44.3	16.5	100.0
50세 이상	(28)	39.3	50.0	10.7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40.5	48.6	10.8	100.0
대학교 이상	(58)	39.7	43.1	17.2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5.5	51.3	13.2	100.0
비임금근로자	(45)	37.8	48.9	13.3	100.0
미취업자	(11)	81.8	0.0	18.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35.3	52.9	11.8	100.0
200-299만원	(41)	31.7	56.1	12.2	100.0
300-399만원	(29)	37.9	44.8	17.2	100.0
400만원 이상	(32)	37.5	50.0	12.5	100.0
미취업자 등	(13)	84.6	0.0	15.4	100.0

<표 12-4>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40.2%가 이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46.2%, ‘해당사항 없다’는 13.6%로 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에서는 맞선 또는 그 이전(44.4%), 연령별로는 39세 이하(44.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심층면접에 응한 응답자 중에는 맞선 여행을 가서 진행이 여의치 않아 맞선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을 때 업체에서 맞선을 추가로 볼 것을 권유하며 회유함으로써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가 처음 맞선 본 아가씨랑 3박4일 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끝났잖아요. 일주일 일정으로 온 건데, 결혼하기로 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자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충격을 먹었죠. 아, 여기 여자는 눈도 높고 그렇구나. 그러면 난 결혼을 안 하련다, 그래서 저는 안 본다고 했어요. 근데 중개업자가 굳이 아가씨를 데

리고 온다고 해 가지고, 아……, 저는 안 본다고 했어요. 그냥 저 돈을 다 날려도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중개업자가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보자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 그래 가지고 한 번 더 본 거죠[사례 #C01, 남, 43세, 추진 시 배우자 국적 키르기스스탄, 서울 거주].

<표 12-5>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과장 광고를 했다’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4%가 이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29.5%, ‘해당사항 없다’는 6.1%이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응답 비율은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에서는 맞선 또는 그 이전(68.9%), 연령별로는 39세 이하(68.0%)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과장 광고와 관련해서 한 응답자는 교묘한 탈법 행위를 경험했다고 했다.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 여성들을 실제 소개해 준다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는 최하 10명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 #C01>은 홈페이지에서 맘에 드는 여성 10명을 선정하고 이 여성들과 실제 맞선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업체는 맞선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례 #C01>은 맞선 여행을 가서 그 실체를 깨달았다.

<표 12-5> 과장 광고를 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64.4	29.5	6.1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68.9	26.7	4.4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62.1	31.0	6.9	100.0
연령					
39세 이하	(25)	68.0	24.0	8.0	100.0
40-49세	(79)	63.3	29.1	7.6	100.0
50세 이상	(28)	64.3	35.7	0.0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62.2	36.5	1.4	100.0
대학교 이상	(58)	67.2	20.7	12.1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61.8	32.9	5.3	100.0
비임금근로자	(45)	64.4	28.9	6.7	100.0
미취업자	(11)	81.8	9.1	9.1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64.7	35.3	0.0	100.0
200-299만원	(41)	61.0	36.6	2.4	100.0
300-399만원	(29)	62.1	27.6	10.3	100.0
400만원 이상	(32)	65.6	25.0	9.4	100.0
미취업자 등	(13)	76.9	15.4	7.7	100.0

맞선 여행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재는 저 방, 나는 이 방. 딱 숙소에 있다가 그날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저희는 양복을 입고 딱 있죠. 그러면 덩동, 와요. 아가씨들이 와. 오면 한 명씩 봐, 처음에 나 한 번 보고 그리고 결정이 안 나면 옆방에 있는 다른 한국인 방으로 가요. 딱 보면 방 안에 여기 통역, 업체 사장이 나와서 나에 대한 프로필을 여자에게 알려주고, 이 여자의 프로필을 제게 알려줘요. 나도 맘에 들면 맘에 든다고 하고, 여자도 자기 생각을 말해요. 이 여자가 에스하면 에스고 노하면 논데, 근데 처음에 1번에서 9번, 10번까지는 홈페이지에 있는 아가씨잖아요. 한국에서 홈페이지에서 보고 소개해 달라고 한 그 아가씨들이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들이 다 노라 그러는 거야. 10번까지 다 노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퇴짜 맞을 수밖에 없었죠, 나 퇴짜 맞고 옆방에 다른 한국에도 퇴짜 맞고. 계속 퇴짜만 맞아, 이 홈페이지에서 본 아가씨들한테[사례 #C01, 남, 43세, 추진 시 배우자 국적 키르기스스탄, 서울 거주].

<사례 #C01>은 나중에 다른 통역으로부터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 여성들은 아르바이트로 맞선에 나와 일당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자신이 맘에 들어 골랐던 여성들 전원에게 거부당한 후, 조급한 마음에 다른 여성들을 만나 결혼을 결정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사례 #C01>은 이러한 형식의 영입이야말로 진짜 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표 12-6>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35.6	59.1	5.3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42.2	51.1	6.7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32.2	63.2	4.6	100.0
연령					
39세 이하	(25)	32.0	56.0	12.0	100.0
40-49세	(79)	38.0	57.0	5.1	100.0
50세 이상	(28)	32.1	67.9	0.0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33.8	64.9	1.4	100.0
대학교 이상	(58)	37.9	51.7	10.3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2.9	63.2	3.9	100.0
비임금근로자	(45)	33.3	62.2	4.4	100.0
미취업자	(11)	63.6	18.2	18.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23.5	76.5	0.0	100.0
200-299만원	(41)	41.5	56.1	2.4	100.0
300-399만원	(29)	34.5	62.1	3.4	100.0
400만원 이상	(32)	28.1	62.5	9.4	100.0
미취업자 등	(13)	53.8	30.8	15.4	100.0

<표 12-7>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50.8	39.4	9.8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51.1	37.8	11.1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50.6	40.2	9.2	100.0
연령					
39세 이하	(25)	36.0	48.0	16.0	100.0
40-49세	(79)	50.6	39.2	10.1	100.0
50세 이상	(28)	64.3	32.1	3.6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51.4	43.2	5.4	100.0
대학교 이상	(58)	50.0	34.5	15.5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47.4	44.7	7.9	100.0
비임금근로자	(45)	51.1	35.6	13.3	100.0
미취업자	(11)	72.7	18.2	9.1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52.9	47.1	0.0	100.0
200-299만원	(41)	48.8	43.9	7.3	100.0
300-399만원	(29)	41.4	41.4	17.2	100.0
400만원 이상	(32)	56.3	31.3	12.5	100.0
미취업자 등	(13)	61.5	30.8	7.7	100.0

<표 12-6>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35.6%가 이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59.1%, ‘해당사항 없다’는 5.3%이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맞선 또는 그 이전에서 42.2%로 결혼식 또는 그 이후(32.2%)보다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0-299만원에서 41.5%로 가장 높다.

<표 12-7>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50.8%가 이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없다’는 응답 비율 39.4%보다 높다. ‘해당사항 없다’는 응답 비율은 9.8%이다. 세부특성별로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월평균 임금별로 400만원 이상(56.3%)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표 12-8>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70.5	20.5	9.1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62.2	22.2	15.6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74.7	19.5	5.7	100.0
연령					
39세 이하	(25)	52.0	32.0	16.0	100.0
40-49세	(79)	72.2	20.3	7.6	100.0
50세 이상	(28)	82.1	10.7	7.1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71.6	21.6	6.8	100.0
대학교 이상	(58)	69.0	19.0	12.1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65.8	26.3	7.9	100.0
비임금근로자	(45)	75.6	15.6	8.9	100.0
미취업자	(11)	81.8	0.0	18.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64.7	35.3	0.0	100.0
200-299만원	(41)	73.2	19.5	7.3	100.0
300-399만원	(29)	62.1	27.6	10.3	100.0
400만원 이상	(32)	75.0	12.5	12.5	100.0
미취업자 등	(13)	76.9	7.7	15.4	100.0

<표 12-8>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에 대한 조사 결과,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70.5%로 ‘없다’는 응답 비율 20.5%보다 매우 높다. ‘해당사항 없다’는 응답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74.7%로 맞선 또는 그 이전(62.2%)보다 높다. 연령별로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은 비임금근로자에서 75.6%로 임금근로자(65.8%)보다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은 400만원 이상 및 200-299만원에서 각각 75.0%, 73.2%로 높다.

<표 12-9>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에 대한 조

<표 12-9>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52.3	39.4	8.3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53.3	33.3	13.3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51.7	42.5	5.7	100.0
연령					
39세 이하	(25)	40.0	48.0	12.0	100.0
40-49세	(79)	51.9	39.2	8.9	100.0
50세 이상	(28)	64.3	32.1	3.6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54.1	40.5	5.4	100.0
대학교 이상	(58)	50.0	37.9	12.1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46.1	48.7	5.3	100.0
비임금근로자	(45)	57.8	31.1	11.1	100.0
미취업자	(11)	72.7	9.1	18.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47.1	52.9	0.0	100.0
200-299만원	(41)	56.1	36.6	7.3	100.0
300-399만원	(29)	37.9	51.7	10.3	100.0
400만원 이상	(32)	59.4	31.3	9.4	100.0
미취업자 등	(13)	61.5	23.1	15.4	100.0

사 결과,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52.3%로 ‘없다’는 응답 비율 39.4%보다 높다. ‘해당 사항 없다’는 응답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비임금근로자에서 57.8%로 임금근로자(46.1%)보다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400만원 이상 및 200-299만원에서 각각 59.4%, 56.1%로 높다.

심층면접에 응한 미성혼자들은 중개업체가 맞선 상대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 신상정보만 받았더니, 이름하고 나이하고. 그러니까 결혼 유무 그런 건 모르고 제가 받은 것은 뭐, 그냥 나 있는 데서 병원을 갔다 오대요. 병원에서는 눈, 키, 에이즈 검사. 근데 저는 국내에서 범죄경력도 떼고, 뭐도 떼고, 되게 많이 떼

갔는데 그런 정보는 안 받았습니다[사례 #C01, 남, 진행시 배우자 국적 키르기스스탄, 서울거주]

이 사례의 당사자는 맞선 보는 장소에서 구두로 여성의 나이와 학력 등을 빠르게 소개하고 지나가서 일일이 확인하거나 기억할 수 없었다고 했다.

<표 12-10>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47.7%가 이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42.4%, ‘해당사항 없다’는 9.8%이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55.2%로 맞선 또는 그 이전(33.3%)보다 높다. 연령별로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응답 비율은 50세 이상에서 60.7%로 가장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응답 비율은 비임금근로자에서 55.6%로 임금근로자(39.5%)보다 높다.

<표 12-10>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47.7	42.4	9.8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33.3	46.7	20.0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55.2	40.2	4.6	100.0
연령					
39세 이하	(25)	44.0	48.0	8.0	100.0
40-49세	(79)	44.3	45.6	10.1	100.0
50세 이상	(28)	60.7	28.6	10.7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47.3	44.6	8.1	100.0
대학교 이상	(58)	48.3	39.7	12.1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9.5	50.0	10.5	100.0
비임금근로자	(45)	55.6	37.8	6.7	100.0
미취업자	(11)	72.7	9.1	18.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47.1	47.1	5.9	100.0
200-299만원	(41)	36.6	53.7	9.8	100.0
300-399만원	(29)	48.3	41.4	10.3	100.0
400만원 이상	(32)	50.0	40.6	9.4	100.0
미취업자 등	(13)	76.9	7.7	15.4	100.0

심층면접에 응한 미성혼자 중 한 명은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싸게 해 줄 테니 이번에는 직접 현지에 같이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고 유인당한 경험을 진술했다. <사례 #C03>은 중개업체의 약속대로 베트남에 가서 맘에 들면 결혼하고 귀국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줄 알고 중개업자와 베트남으로 갔다. 항공료는 본인이 개인 부담하고 중개업자에게는 50만원 만 지불했다. <사례 #C03> 현지에서 중개업자의 권유에 따라 실제 한 명과 맞선을 보았고 맘에 들어 결혼에 동의했다고 한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제 귀국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개업체 사장은 현지에서 바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결혼을 진행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와 갈등이 생겼고 귀국 후 중개업체의 고소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미성혼 사례를 보면 현지에 맞선을 보러 가서 중개업체와 갈등이 생기거나 계약금 추가 지출 문제로 갈등이 생겨 국제결혼 중개가 중단된 것이 많았다.

<표 12-11>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계약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2%가 이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62.1%, ‘해당사항 없다’는 13.6%이다.

<표 12-11> 계약을 어겼다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24.2	62.1	13.6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20.0	60.0	20.0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26.4	63.2	10.3	100.0
연령					
39세 이하	(25)	24.0	64.0	12.0	100.0
40-49세	(79)	21.5	64.6	13.9	100.0
50세 이상	(28)	32.1	53.6	14.3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25.7	63.5	10.8	100.0
대학교 이상	(58)	22.4	60.3	17.2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21.1	68.4	10.5	100.0
비임금근로자	(45)	17.8	66.7	15.6	100.0
미취업자	(11)	72.7	0.0	27.3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23.5	70.6	5.9	100.0
200-299만원	(41)	9.8	80.5	9.8	100.0
300-399만원	(29)	24.1	62.1	13.8	100.0
400만원 이상	(32)	21.9	59.4	18.8	100.0
미취업자 등	(13)	76.9	0.0	23.1	100.0

<표 12-12>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22.7	40.9	36.4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15.6	28.9	55.6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26.4	47.1	26.4	100.0
연령					
39세 이하	(25)	24.0	44.0	32.0	100.0
40-49세	(79)	25.3	41.8	32.9	100.0
50세 이상	(28)	14.3	35.7	50.0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25.7	41.9	32.4	100.0
대학교 이상	(58)	19.0	39.7	41.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9.7	47.4	32.9	100.0
비임금근로자	(45)	24.4	37.8	37.8	100.0
미취업자	(11)	36.4	9.1	54.5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11.8	58.8	29.4	100.0
200-299만원	(41)	17.1	51.2	31.7	100.0
300-399만원	(29)	31.0	31.0	37.9	100.0
400만원 이상	(32)	21.9	37.5	40.6	100.0
미취업자 등	(13)	38.5	15.4	46.2	100.0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계약을 어겼다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는 응답 비율은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결혼식 또는 그 이후(26.4%), 연령별로는 50세 이상(32.1%)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표 12-12>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2.7%가 이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40.9%, '해당사항 없다'는 36.4%이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 26.4%로 맞선 또는 그 이전(15.6%)보다 높다. 연령별로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최종학력별로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고등학교 이하에서 25.7%로 대학교 이상(19.0%)보다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미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는 응답 비율은 300-399만원에서 31.0%로 높다.

<표 12-13>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계
▣ 전체 ▣	(132)	18.2	46.2	35.6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17.8	35.6	46.7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18.4	51.7	29.9	100.0
연령					
39세 이하	(25)	20.0	52.0	28.0	100.0
40-49세	(79)	19.0	45.6	35.4	100.0
50세 이상	(28)	14.3	42.9	42.9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20.3	51.4	28.4	100.0
대학교 이상	(58)	15.5	39.7	44.8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5.8	51.3	32.9	100.0
비임금근로자	(45)	15.6	46.7	37.8	100.0
미취업자	(11)	45.5	9.1	45.5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5.9	58.8	35.3	100.0
200-299만원	(41)	9.8	58.5	31.7	100.0
300-399만원	(29)	24.1	41.4	34.5	100.0
400만원 이상	(32)	21.9	37.5	40.6	100.0
미취업자 등	(13)	38.5	23.1	38.5	100.0

<표 12-13>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 경험 중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18.2%가 이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46.2%, ‘해당사항 없다’는 35.6%이다. 세부특성별로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20.3%),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24.1%)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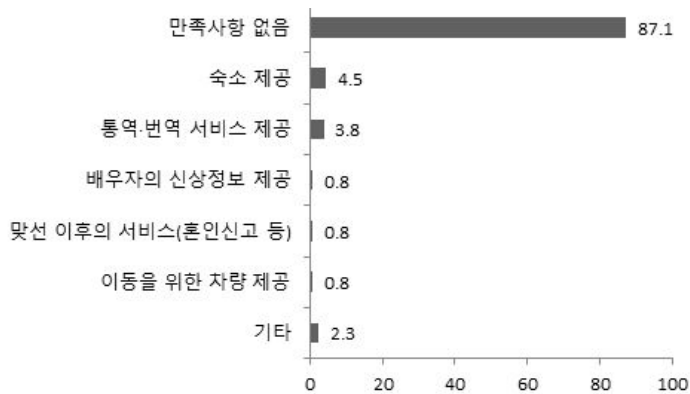
<표 12-14>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숙소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4.5%였으며, 다음으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3.8%),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및 ‘맞선이후의 서비스’, ‘이동을 위한 차량제공’(각각 0.8%)의 순이다.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87.1%로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 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만족했던 사항에 대한 응답 비율이 너무 낮아 만족사항 없음을 기준으로 세부특성별로 살펴보겠다. ‘만족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맞선 또는 그 이전(93.3%),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9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표 12-14>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단위: 명, %)

	(N)	숙소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신고 등)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기타	만족 사항 없음	계
▣ 전체 ▣	(132)	4.5	3.8	0.8	0.8	0.8	2.3	87.1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2.2	4.4	0.0	0.0	0.0	0.0	93.3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5.7	3.4	1.1	1.1	1.1	3.4	83.9	100.0
연령									
39세 이하	(25)	8.0	0.0	4.0	0.0	0.0	4.0	84.0	100.0
40-49세	(79)	3.8	6.3	0.0	1.3	1.3	2.5	84.8	100.0
50세 이상	(28)	3.6	0.0	0.0	0.0	0.0	0.0	96.4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5.4	4.1	0.0	1.4	1.4	1.4	86.5	100.0
대학교 이상	(58)	3.4	3.4	1.7	0.0	0.0	3.4	87.9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6.6	5.3	1.3	0.0	1.3	3.9	81.6	100.0
비임금근로자	(45)	2.2	2.2	0.0	2.2	0.0	0.0	93.3	100.0
미취업자	(1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5.9	11.8	0.0	0.0	0.0	5.9	76.5	100.0
200-299만원	(41)	4.9	2.4	2.4	0.0	0.0	2.4	87.8	100.0
300-399만원	(29)	10.3	3.4	0.0	0.0	3.4	0.0	82.8	100.0
400만원 이상	(32)	0.0	3.1	0.0	3.1	0.0	3.1	90.6	100.0
미취업자 등	(13)	0.0	0.0	0.0	0.0	0.0	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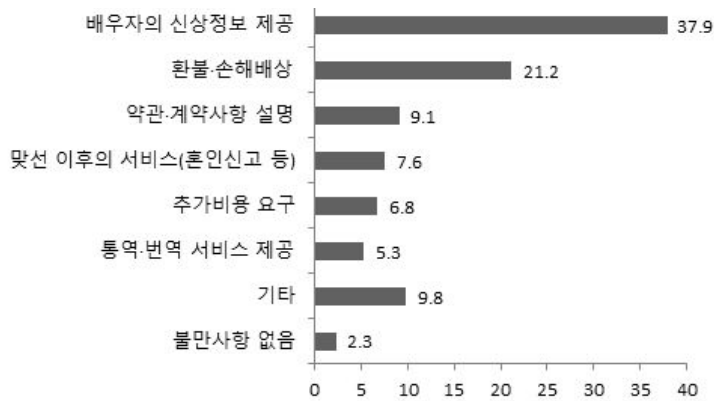


[그림 12-3]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표 12-15>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단위: 명, %)

	(N)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환불· 손해 배상	약관· 계약 사항 설명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 신고 등)	추가 비용 요구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기타	불만 사항 없음	계
▣ 전체 ▣	(132)	37.9	21.2	9.1	7.6	6.8	5.3	9.8	2.3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44.4	26.7	11.1	6.7	4.4	2.2	4.4	0.0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34.5	18.4	8.0	8.0	8.0	6.9	12.6	3.4	100.0
연령										
39세 이하	(25)	32.0	36.0	0.0	4.0	12.0	8.0	4.0	4.0	100.0
40-49세	(79)	36.7	19.0	11.4	10.1	5.1	3.8	12.7	1.3	100.0
50세 이상	(28)	46.4	14.3	10.7	3.6	7.1	7.1	7.1	3.6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33.8	21.6	10.8	9.5	5.4	6.8	10.8	1.4	100.0
대학교 이상	(58)	43.1	20.7	6.9	5.2	8.6	3.4	8.6	3.4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9.5	23.7	6.6	5.3	7.9	5.3	9.2	2.6	100.0
비임금근로자	(45)	31.1	20.0	11.1	13.3	6.7	4.4	11.1	2.2	100.0
미취업자	(11)	54.5	9.1	18.2	0.0	0.0	9.1	9.1	0.0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41.2	23.5	17.6	0.0	5.9	5.9	5.9	0.0	100.0
200-299만원	(41)	39.0	22.0	4.9	14.6	7.3	4.9	4.9	2.4	100.0
300-399만원	(29)	17.2	27.6	13.8	0.0	13.8	3.4	17.2	6.9	100.0
400만원 이상	(32)	46.9	15.6	3.1	12.5	3.1	6.3	12.5	0.0	100.0
미취업자 등	(13)	53.8	15.4	15.4	0.0	0.0	7.7	7.7	0.0	100.0



[그림 12-4]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표 12-15>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에 대해 조사

한 결과,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37.9%로 가장 높고, ‘환불·손해배상’(21.2%), ‘약관·계약사항 설명’(9.1%), ‘맞선 이후의 서비스’(7.6%), ‘추가비용 요구’(6.8%),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5.3%) 순이다. ‘불만사항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2.3%이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에 대해 맞선 또는 그 이전에서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환불·손해배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44.4%, 26.7%로 결혼식 또는 그 이후(각각 34.5%, 18.4%)보다 높다. 연령별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50세 이상에서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46.4%로 가장 높으며, 39세 이하에서는 ‘환불·손해배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36.0%로 가장 높다. 또한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환불·손해배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최종학력별로 대학교 이상에서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43.1%로 고등학교 이하(33.8%)보다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300-399만원에서만 ‘환불·손해배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27.6%로 가장 높고, 그 외 임금 변수들에서는 모두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12-16>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단위: 명, %)

	(N)	① 절대 추천 하지 않을 것이다	② 추천 하지 않을 것 같다	①+②	③ 추천할 것 같다	④ 적극 추천할 것 같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점)
■ 전체 ■	(132)	79.5	10.6	90.2	4.5	0.0	4.5	5.3	100.0	1.2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88.9	6.7	95.6	2.2	0.0	2.2	2.2	100.0	1.1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74.7	12.6	87.4	5.7	0.0	5.7	6.9	100.0	1.3
연령										
39세 이하	(25)	68.0	8.0	76.0	16.0	0.0	16.0	8.0	100.0	1.4
40-49세	(79)	79.7	13.9	93.7	1.3	0.0	1.3	5.1	100.0	1.2
50세 이상	(28)	89.3	3.6	92.9	3.6	0.0	3.6	3.6	100.0	1.1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81.1	8.1	89.2	5.4	0.0	5.4	5.4	100.0	1.2
대학교 이상	(58)	77.6	13.8	91.4	3.4	0.0	3.4	5.2	100.0	1.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78.9	7.9	86.8	5.3	0.0	5.3	7.9	100.0	1.2
비임금근로자	(45)	75.6	17.8	93.3	4.4	0.0	4.4	2.2	100.0	1.3
미취업자	(1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82.4	5.9	88.2	5.9	0.0	5.9	5.9	100.0	1.2
200-299만원	(41)	82.9	12.2	95.1	4.9	0.0	4.9	0.0	100.0	1.2
300-399만원	(29)	62.1	20.7	82.8	6.9	0.0	6.9	10.3	100.0	1.4
400만원 이상	(32)	81.3	6.3	87.5	3.1	0.0	3.1	9.4	100.0	1.1
미취업자 등	(13)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

<표 12-16>은 지인에게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적극 추천할 것이다’와 ‘추천할 것 같다’를 합하여 4.5%로 매우 낮고, 추천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와 ‘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를 합해 90.2%로 10명 중 9명이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5.3%로 나타났다. 1점부터 4점까지로 계산한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매우 낮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 39세 이하에서 16.0%로 상대적으로 높다.

<표 12-17>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신뢰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신뢰’와 ‘약간 신뢰’를 합하여 2.3%로 매우 낮고, ‘보통’은 3.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불신’과 ‘약간 불신’을 합해 93.9%로 매우 높다. 1점부터 4점까지로 계산한 평균 점수도 1.2점으로 매우 낮다. 이 결과를 통해 미성혼 남성 응답자들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신뢰하지 않고, 추천할 의향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맞선 또는 그 이전(100.0%),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 이상(96.6%),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97.8%) 등에서 높다.

<표 12-17> 국제결혼 중개업체 신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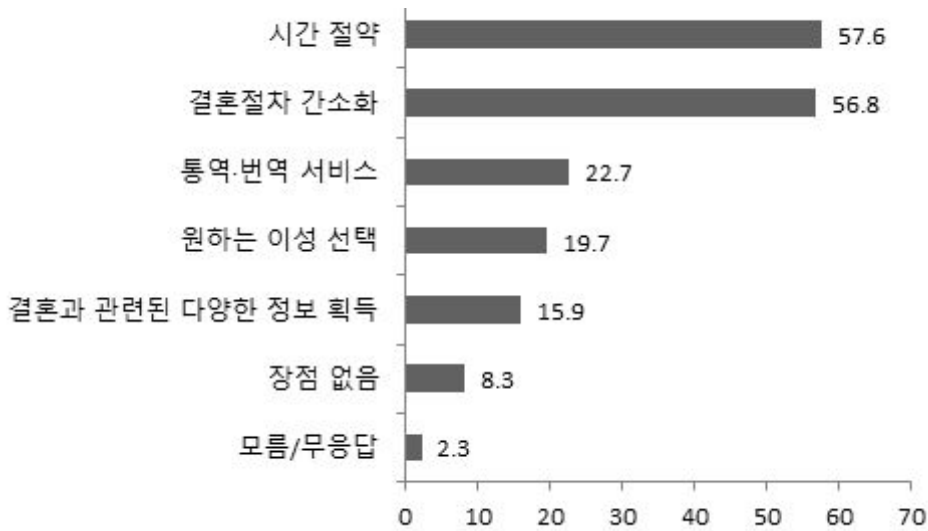
(단위: 명, %)

	(N)	① 불신	② 약간 불신	①+②	③ 보통	④ 약간 신뢰	⑤ 신뢰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132)	89.4	4.5	93.9	3.8	1.5	0.8	2.3	100.0	1.2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93.3	6.7	100.0	0.0	0.0	0.0	0.0	100.0	1.1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87.4	3.4	90.8	5.7	2.3	1.1	3.4	100.0	1.3
연령										
39세 이하	(25)	84.0	4.0	88.0	4.0	8.0	0.0	8.0	100.0	1.4
40-49세	(79)	87.3	6.3	93.7	5.1	0.0	1.3	1.3	100.0	1.2
50세 이상	(28)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87.8	4.1	91.9	6.8	0.0	1.4	1.4	100.0	1.2
대학교 이상	(58)	91.4	5.2	96.6	0.0	3.4	0.0	3.4	100.0	1.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88.2	3.9	92.1	5.3	2.6	0.0	2.6	100.0	1.2
비임금근로자	(45)	91.1	6.7	97.8	0.0	0.0	2.2	2.2	100.0	1.2
미취업자	(11)	90.9	0.0	90.9	9.1	0.0	0.0	0.0	100.0	1.2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94.1	0.0	94.1	5.9	0.0	0.0	0.0	100.0	1.1
200-299만원	(41)	85.4	9.8	95.1	2.4	2.4	0.0	2.4	100.0	1.2
300-399만원	(29)	86.2	6.9	93.1	3.4	3.4	0.0	3.4	100.0	1.2
400만원 이상	(32)	93.8	0.0	93.8	3.1	0.0	3.1	3.1	100.0	1.2
미취업자 등	(13)	92.3	0.0	92.3	7.7	0.0	0.0	0.0	100.0	1.2

<표 12-18>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단위: 명, %)

	(N)	시간 절약	결혼 절차 간소화	통역·번역 서비스	원하는 이성 선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	장점 없음	모름·무응답
▣ 전체 ▣	(132)	57.6	56.8	22.7	19.7	15.9	8.3	2.3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64.4	60.0	17.8	17.8	8.9	13.3	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54.0	55.2	25.3	20.7	19.5	5.7	3.4
연령								
39세 이하	(25)	56.0	64.0	16.0	24.0	12.0	12.0	0.0
40-49세	(79)	57.0	55.7	22.8	20.3	19.0	6.3	2.5
50세 이상	(28)	60.7	53.6	28.6	14.3	10.7	10.7	3.6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47.3	55.4	24.3	21.6	20.3	10.8	1.4
대학교 이상	(58)	70.7	58.6	20.7	17.2	10.3	5.2	3.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59.2	56.6	23.7	18.4	14.5	7.9	1.3
비임금근로자	(45)	55.6	60.0	22.2	22.2	17.8	8.9	2.2
미취업자	(11)	54.5	45.5	18.2	18.2	18.2	9.1	9.1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70.6	70.6	11.8	11.8	23.5	0.0	0.0
200-299만원	(41)	53.7	48.8	22.0	24.4	17.1	14.6	0.0
300-399만원	(29)	58.6	62.1	31.0	20.7	6.9	3.4	3.4
400만원 이상	(32)	53.1	59.4	25.0	18.8	15.6	9.4	3.1
미취업자 등	(13)	61.5	46.2	15.4	15.4	23.1	7.7	7.7



[그림 12-5] 국제결혼 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표 12-18>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접촉해 도움을 받는 것의 장점을 2가지로 응답하게 한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으로 ‘시간절약’ 및 ‘결혼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7.6%, 56.8%로 가장 높고, ‘통역·번역 서비스’(22.7%), ‘원하는 이성선택’(19.7%),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15.9%) 순이다. ‘장점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8.3%였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도움 받는 것의 장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맞선 또는 그 이전에서는 ‘시간 절약’(64.4%), ‘결혼절차 간소화’(60.0%), ‘통역·번역 서비스’(17.8%) 등의 순이나, 결혼식 또는 그 이후에서는 ‘결혼 절차 간소화’(55.2%), ‘시간 절약’(54.0%), ‘통역·번역 서비스’(25.3%)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도 장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39세 이하에서는 ‘결혼 절차 간소화’(64.0%)가 가장 높으나, 40-49세 및 50세 이상에서는 ‘시간 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7.0%, 60.7%로 가장 높다. 최종학력에서도 장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결혼 절차 간소화’(55.4%)가 가장 높으나, 대학교 이상에서는 ‘시간 절약’(70.7%)이 가장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도 장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임금근로자에서는 ‘시간 절약’(59.2%)이 가장 높으나, 비임금근로자에서 ‘결혼 절차 간소화’(60.0%)가 가장 높다.

제 13 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표 13-1>은 현행 결혼중개업법에서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무로 부여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98.5%로 가장 높고,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성’(96.2%),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성’(95.5%),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성’ 및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각각 93.2%),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필요성’(92.4%) 등의 순이다. 7가지 사항 중 ‘집단맞선 금지 필요성’의 응답 비율만 75.0%로 나타났고, 다른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성혼 남성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3-1>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	0.0	0.8	0.8	0.8	14.4	84.1	98.5	0.0	4.8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성	0.0	1.5	1.5	1.5	23.5	72.7	96.2	0.8	4.7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성	0.0	0.0	0.0	6.1	12.9	80.3	93.2	0.8	4.7
집단맞선 금지 필요성	2.3	6.8	9.1	15.9	25.8	49.2	75.0	0.0	4.1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	0.0	0.0	0.0	6.1	18.9	74.2	93.2	0.8	4.7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성	0.0	0.8	0.8	3.0	21.2	74.2	95.5	0.8	4.7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필요성	0.8	2.3	3.0	3.8	19.7	72.7	92.4	0.8	4.6

<표 13-2>에서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 비율이 98.5%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맞선 전에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0.8%, ‘필요하지 않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0.8%에 불과하였다.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도 4.8점으로 매우 높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맞선 또는 그 이전, 연령별로는 40-49세,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 및 미취업자 등에서 각각 100.0%로 매우 높다.

<표 13-3>에서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 비율이 96.2%로 매우 높고, ‘보통’ 1.5%, ‘필요하지 않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도 4.7점으로 매우 높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통역·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맞선 또는 그 이전(97.8%), 연령별로는 40-49세(97.5%),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98.6%)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에 제외하였다.

<표 13-2>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132)	0.0	0.8	0.8	0.8	14.4	84.1	98.5	100.0	4.8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0.0	0.0	0.0	0.0	15.6	84.4	100.0	100.0	4.8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0.0	1.1	1.1	1.1	13.8	83.9	97.7	100.0	4.8
연령										
39세 이하	(25)	0.0	0.0	0.0	4.0	8.0	88.0	96.0	100.0	4.8
40-49세	(79)	0.0	0.0	0.0	0.0	16.5	83.5	100.0	100.0	4.8
50세 이상	(28)	0.0	3.6	3.6	0.0	14.3	82.1	96.4	100.0	4.8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0.0	0.0	0.0	0.0	16.2	83.8	100.0	100.0	4.8
대학교 이상	(58)	0.0	1.7	1.7	1.7	12.1	84.5	96.6	100.0	4.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0.0	1.3	1.3	1.3	13.2	84.2	97.4	100.0	4.8
비임금근로자	(45)	0.0	0.0	0.0	0.0	17.8	82.2	100.0	100.0	4.8
미취업자	(11)	0.0	0.0	0.0	0.0	9.1	90.9	100.0	100.0	4.9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0.0	0.0	0.0	0.0	17.6	82.4	100.0	100.0	4.8
200-299만원	(41)	0.0	2.4	2.4	2.4	17.1	78.0	95.1	100.0	4.7
300-399만원	(29)	0.0	0.0	0.0	0.0	3.4	96.6	100.0	100.0	5.0
400만원 이상	(32)	0.0	0.0	0.0	0.0	21.9	78.1	100.0	100.0	4.8
미취업자 등	(13)	0.0	0.0	0.0	0.0	7.7	92.3	100.0	100.0	4.9

<표 13-3> 통역·번역 서비스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132)	0.0	1.5	1.5	1.5	23.5	72.7	96.2	0.8	100.0	4.7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0.0	0.0	0.0	2.2	31.1	66.7	97.8	0.0	100.0	4.6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0.0	2.3	2.3	1.1	19.5	75.9	95.4	1.1	100.0	4.7
연령											
39세 이하	(25)	0.0	0.0	0.0	8.0	28.0	64.0	92.0	0.0	100.0	4.6
40-49세	(79)	0.0	1.3	1.3	0.0	24.1	73.4	97.5	1.3	100.0	4.7
50세 이상	(28)	0.0	3.6	3.6	0.0	17.9	78.6	96.4	0.0	100.0	4.7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0.0	0.0	0.0	0.0	23.0	75.7	98.6	1.4	100.0	4.8
대학교 이상	(58)	0.0	3.4	3.4	3.4	24.1	69.0	93.1	0.0	100.0	4.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0.0	1.3	1.3	1.3	25.0	71.1	96.1	1.3	100.0	4.7
비임금근로자	(45)	0.0	2.2	2.2	2.2	22.2	73.3	95.6	0.0	100.0	4.7
미취업자	(11)	0.0	0.0	0.0	0.0	18.2	81.8	100.0	0.0	100.0	4.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0.0	0.0	0.0	0.0	23.5	76.5	100.0	0.0	100.0	4.8
200-299만원	(41)	0.0	2.4	2.4	2.4	26.8	65.9	92.7	2.4	100.0	4.6
300-399만원	(29)	0.0	3.4	3.4	0.0	17.2	79.3	96.6	0.0	100.0	4.7
400만원 이상	(32)	0.0	0.0	0.0	3.1	28.1	68.8	96.9	0.0	100.0	4.7
미취업자 등	(13)	0.0	0.0	0.0	0.0	15.4	84.6	100.0	0.0	100.0	4.8

<표 13-4>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132)	0.0	0.0	0.0	6.1	12.9	80.3	93.2	0.8	100.0	4.7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0.0	0.0	0.0	8.9	8.9	82.2	91.1	0.0	100.0	4.7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0.0	0.0	0.0	4.6	14.9	79.3	94.3	1.1	100.0	4.8
연령											
39세 이하	(25)	0.0	0.0	0.0	8.0	8.0	84.0	92.0	0.0	100.0	4.8
40-49세	(79)	0.0	0.0	0.0	5.1	13.9	79.7	93.7	1.3	100.0	4.8
50세 이상	(28)	0.0	0.0	0.0	7.1	14.3	78.6	92.9	0.0	100.0	4.7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0.0	0.0	0.0	2.7	12.2	83.8	95.9	1.4	100.0	4.8
대학교 이상	(58)	0.0	0.0	0.0	10.3	13.8	75.9	89.7	0.0	100.0	4.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0.0	0.0	0.0	6.6	11.8	80.3	92.1	1.3	100.0	4.7
비임금근로자	(45)	0.0	0.0	0.0	6.7	13.3	80.0	93.3	0.0	100.0	4.7
미취업자	(11)	0.0	0.0	0.0	0.0	18.2	81.8	100.0	0.0	100.0	4.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0.0	0.0	0.0	0.0	11.8	88.2	100.0	0.0	100.0	4.9
200-299만원	(41)	0.0	0.0	0.0	7.3	12.2	78.0	90.2	2.4	100.0	4.7
300-399만원	(29)	0.0	0.0	0.0	10.3	6.9	82.8	89.7	0.0	100.0	4.7
400만원 이상	(32)	0.0	0.0	0.0	6.3	18.8	75.0	93.8	0.0	100.0	4.7
미취업자 등	(13)	0.0	0.0	0.0	0.0	15.4	84.6	100.0	0.0	100.0	4.8

<표 13-5> 집단맞선 금지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132)	2.3	6.8	9.1	15.9	25.8	49.2	75.0	100.0	4.1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2.2	6.7	8.9	13.3	26.7	51.1	77.8	100.0	4.2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2.3	6.9	9.2	17.2	25.3	48.3	73.6	100.0	4.1
연령										
39세 이하	(25)	0.0	4.0	4.0	16.0	36.0	44.0	80.0	100.0	4.2
40-49세	(79)	2.5	7.6	10.1	16.5	22.8	50.6	73.4	100.0	4.1
50세 이상	(28)	3.6	7.1	10.7	14.3	25.0	50.0	75.0	100.0	4.1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2.7	5.4	8.1	14.9	27.0	50.0	77.0	100.0	4.2
대학교 이상	(58)	1.7	8.6	10.3	17.2	24.1	48.3	72.4	100.0	4.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3	6.6	7.9	17.1	27.6	47.4	75.0	100.0	4.1
비임금근로자	(45)	4.4	8.9	13.3	15.6	22.2	48.9	71.1	100.0	4.0
미취업자	(11)	0.0	0.0	0.0	9.1	27.3	63.6	90.9	100.0	4.5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0.0	5.9	5.9	17.6	23.5	52.9	76.5	100.0	4.2
200-299만원	(41)	2.4	4.9	7.3	12.2	31.7	48.8	80.5	100.0	4.2
300-399만원	(29)	0.0	10.3	10.3	17.2	24.1	48.3	72.4	100.0	4.1
400만원 이상	(32)	3.1	9.4	12.5	21.9	21.9	43.8	65.6	100.0	3.9
미취업자 등	(13)	7.7	0.0	7.7	7.7	23.1	61.5	84.6	100.0	4.3

<표 13-4>는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다.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 비율은 93.2%로 매우 높고, ‘보통’은 6.1%, 필요하지 않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0.0%로 응답자가 없었다.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도 4.7점으로 매우 높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결혼식 또는 그 이후(94.3%),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95.9%),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100.0%)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시에 제외하였다.

<표 13-5>에서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집단맞선 금지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집단맞선 금지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 비율이 75.0%로 높고, ‘보통’은 15.9%, ‘필요하지 않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집단맞선 금지 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는 4.1점이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집단맞선 금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39세 이하

(80.0%), 월평균 임금 200-299만원(80.5%)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표 13-6>은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휴업·폐업 신고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 비율이 93.2%로 매우 높고, ‘보통’은 6.1%, 필요하지 않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0.0%로 응답자가 없었다.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는 4.7점이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휴업·폐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고등학교 이하(94.6%), 월평균 임금 300-399만원(96.6%)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표 13-7>은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소개 금지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 비율이 95.5%로 매우 높으며, ‘보통’은 3.0%, ‘필요하지 않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0.8%로 매우 낮다.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도 4.7점으로 매우 높다.

<표 13-6> 휴업·폐업 신고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132)	0.0	0.0	0.0	6.1	18.9	74.2	93.2	0.8	100.0	4.7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0.0	0.0	0.0	6.7	22.2	71.1	93.3	0.0	100.0	4.6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0.0	0.0	0.0	5.7	17.2	75.9	93.1	1.1	100.0	4.7
연령											
39세 이하	(25)	0.0	0.0	0.0	8.0	24.0	68.0	92.0	0.0	100.0	4.6
40-49세	(79)	0.0	0.0	0.0	5.1	15.2	78.5	93.7	1.3	100.0	4.7
50세 이상	(28)	0.0	0.0	0.0	7.1	25.0	67.9	92.9	0.0	100.0	4.6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0.0	0.0	0.0	4.1	20.3	74.3	94.6	1.4	100.0	4.7
대학교 이상	(58)	0.0	0.0	0.0	8.6	17.2	74.1	91.4	0.0	100.0	4.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0.0	0.0	0.0	6.6	22.4	69.7	92.1	1.3	100.0	4.6
비임금근로자	(45)	0.0	0.0	0.0	6.7	13.3	80.0	93.3	0.0	100.0	4.7
미취업자	(11)	0.0	0.0	0.0	0.0	18.2	81.8	100.0	0.0	100.0	4.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0.0	0.0	0.0	5.9	11.8	82.4	94.1	0.0	100.0	4.8
200-299만원	(41)	0.0	0.0	0.0	9.8	19.5	68.3	87.8	2.4	100.0	4.6
300-399만원	(29)	0.0	0.0	0.0	3.4	24.1	72.4	96.6	0.0	100.0	4.7
400만원 이상	(32)	0.0	0.0	0.0	6.3	18.8	75.0	93.8	0.0	100.0	4.7
미취업자 등	(13)	0.0	0.0	0.0	0.0	15.4	84.6	100.0	0.0	100.0	4.8

<표 13-7> 미성년자 소개 금지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132)	0.0	0.8	0.8	3.0	21.2	74.2	95.5	0.8	100.0	4.7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0.0	0.0	0.0	6.7	22.2	71.1	93.3	0.0	100.0	4.6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0.0	1.1	1.1	1.1	20.7	75.9	96.6	1.1	100.0	4.7
연령											
39세 이하	(25)	0.0	0.0	0.0	0.0	28.0	72.0	100.0	0.0	100.0	4.7
40-49세	(79)	0.0	1.3	1.3	3.8	17.7	75.9	93.7	1.3	100.0	4.7
50세 이상	(28)	0.0	0.0	0.0	3.6	25.0	71.4	96.4	0.0	100.0	4.7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0.0	1.4	1.4	1.4	21.6	74.3	95.9	1.4	100.0	4.7
대학교 이상	(58)	0.0	0.0	0.0	5.2	20.7	74.1	94.8	0.0	100.0	4.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0.0	1.3	1.3	3.9	22.4	71.1	93.4	1.3	100.0	4.7
비임금근로자	(45)	0.0	0.0	0.0	2.2	20.0	77.8	97.8	0.0	100.0	4.8
미취업자	(11)	0.0	0.0	0.0	0.0	18.2	81.8	100.0	0.0	100.0	4.8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0.0	0.0	0.0	0.0	17.6	82.4	100.0	0.0	100.0	4.8
200-299만원	(41)	0.0	2.4	2.4	7.3	26.8	61.0	87.8	2.4	100.0	4.5
300-399만원	(29)	0.0	0.0	0.0	0.0	17.2	82.8	100.0	0.0	100.0	4.8
400만원 이상	(32)	0.0	0.0	0.0	3.1	21.9	75.0	96.9	0.0	100.0	4.7
미취업자 등	(13)	0.0	0.0	0.0	0.0	15.4	84.6	100.0	0.0	100.0	4.8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자 소개 금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 및 300-399만원에서 각각 100.0%로 가장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표 13-8>은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다.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 비율이 92.4%로 매우 높고, ‘보통’은 3.8%, ‘필요하지 않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3.0%로 매우 낮다.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 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도 4.6점으로 매우 높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계약서 등 서류 5년간 보존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결혼식 또는 그 이후(95.4%), 월평균 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100.0%)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표 13-8> 계약서 등 5년간 보존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132)	0.8	23	3.0	3.8	19.7	72.7	92.4	0.8	100.0	4.6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2.2	4.4	6.7	6.7	20.0	66.7	86.7	0.0	100.0	4.4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0.0	1.1	1.1	2.3	19.5	75.9	95.4	1.1	100.0	4.7
연령											
39세 이하	(25)	4.0	4.0	8.0	4.0	24.0	64.0	88.0	0.0	100.0	4.4
40-49세	(79)	0.0	1.3	1.3	5.1	20.3	72.2	92.4	1.3	100.0	4.7
50세 이상	(28)	0.0	3.6	3.6	0.0	14.3	82.1	96.4	0.0	100.0	4.8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0.0	1.4	1.4	4.1	16.2	77.0	93.2	1.4	100.0	4.7
대학교 이상	(58)	1.7	3.4	5.2	3.4	24.1	67.2	91.4	0.0	100.0	4.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3	3.9	5.3	5.3	21.1	67.1	88.2	1.3	100.0	4.5
비임금근로자	(45)	0.0	0.0	0.0	2.2	20.0	77.8	97.8	0.0	100.0	4.8
미취업자	(11)	0.0	0.0	0.0	0.0	9.1	90.9	100.0	0.0	100.0	4.9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0.0	0.0	0.0	0.0	17.6	82.4	100.0	0.0	100.0	4.8
200-299만원	(41)	2.4	2.4	4.9	2.4	22.0	68.3	90.2	2.4	100.0	4.6
300-399만원	(29)	0.0	3.4	3.4	3.4	20.7	72.4	93.1	0.0	100.0	4.6
400만원 이상	(32)	0.0	3.1	3.1	9.4	18.8	68.8	87.5	0.0	100.0	4.5
미취업자 등	(13)	0.0	0.0	0.0	0.0	15.4	84.6	100.0	0.0	100.0	4.8

<표 13-9>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 필요성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계	평균 (점)
▣ 전체 ▣	(132)	13.6	18.2	31.8	16.7	31.8	19.7	51.5	100.0	3.3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11.1	8.9	20.0	24.4	37.8	17.8	55.6	100.0	3.4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14.9	23.0	37.9	12.6	28.7	20.7	49.4	100.0	3.2
연령										
39세 이하	(25)	16.0	12.0	28.0	24.0	36.0	12.0	48.0	100.0	3.2
40-49세	(79)	11.4	20.3	31.6	16.5	27.8	24.1	51.9	100.0	3.3
50세 이상	(28)	17.9	17.9	35.7	10.7	39.3	14.3	53.6	100.0	3.1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13.5	16.2	29.7	12.2	33.8	24.3	58.1	100.0	3.4
대학교 이상	(58)	13.8	20.7	34.5	22.4	29.3	13.8	43.1	100.0	3.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11.8	19.7	31.6	19.7	26.3	22.4	48.7	100.0	3.3
비임금근로자	(45)	20.0	20.0	40.0	6.7	35.6	17.8	53.3	100.0	3.1
미취업자	(11)	0.0	0.0	0.0	36.4	54.5	9.1	63.6	100.0	3.7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11.8	23.5	35.3	17.6	17.6	29.4	47.1	100.0	3.3
200-299만원	(41)	9.8	24.4	34.1	17.1	29.3	19.5	48.8	100.0	3.2
300-399만원	(29)	27.6	17.2	44.8	13.8	24.1	17.2	41.4	100.0	2.9
400만원 이상	(32)	9.4	15.6	25.0	12.5	40.6	21.9	62.5	100.0	3.5
미취업자 등	(13)	7.7	0.0	7.7	30.8	53.8	7.7	61.5	100.0	3.5

<표 13-10> 국제결혼 규제 강화·완화 여부

(단위: 명, %)

	(N)	① 갑 의견 매우 찬성	② 갑 의견 대체로 찬성	③ ①+②	③ 현행 제도가 적정 하다	④ 을 의견 대체로 찬성	⑤ 을 의견 매우 찬성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132)	31.8	30.3	62.1	6.8	16.7	12.9	29.5	1.5	100.0	2.5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28.9	35.6	64.4	6.7	15.6	11.1	26.7	2.2	100.0	2.4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33.3	27.6	60.9	6.9	17.2	13.8	31.0	1.1	100.0	2.5
연령											
39세 이하	(25)	24.0	24.0	48.0	16.0	24.0	12.0	36.0	0.0	100.0	2.8
40-49세	(79)	34.2	34.2	68.4	2.5	15.2	11.4	26.6	2.5	100.0	2.3
50세 이상	(28)	32.1	25.0	57.1	10.7	14.3	17.9	32.1	0.0	100.0	2.6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32.4	31.1	63.5	6.8	17.6	10.8	28.4	1.4	100.0	2.4
대학교 이상	(58)	31.0	29.3	60.3	6.9	15.5	15.5	31.0	1.7	100.0	2.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1.6	31.6	63.2	6.6	14.5	13.2	27.6	2.6	100.0	2.4
비임금근로자	(45)	33.3	31.1	64.4	8.9	15.6	11.1	26.7	0.0	100.0	2.4
미취업자	(11)	27.3	18.2	45.5	0.0	36.4	18.2	54.5	0.0	100.0	3.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23.5	29.4	52.9	5.9	23.5	17.6	41.2	0.0	100.0	2.8
200-299만원	(41)	34.1	43.9	78.0	4.9	7.3	4.9	12.2	4.9	100.0	2.0
300-399만원	(29)	27.6	20.7	48.3	6.9	24.1	20.7	44.8	0.0	100.0	2.9
400만원 이상	(32)	37.5	25.0	62.5	12.5	12.5	12.5	25.0	0.0	100.0	2.4
미취업자 등	(13)	30.8	23.1	53.8	0.0	30.8	15.4	46.2	0.0	100.0	2.8

<표 13-9>에서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 비율이 51.5%로 나타났고, ‘보통’은 16.7%, ‘필요하지 않다’(전혀 불필요+불필요)는 응답 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 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는 3.3점이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현지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맞선 또는 그 이전(55.6%), 고등학교 이하(58.1%), 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상(62.5%) 등에서 높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 시 제외하였다.

<표 13-10>은 국제결혼 규제 강화·완화 여부에 대한 갑과 을의 의견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갑의 의견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일정기간 교제 이후에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이며, 을의 의견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결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이다. 갑의 의견에 ‘찬성한다’(갑 의견 매우 찬성+갑 의견 대체로 찬성)는 응답

비율은 62.1%로 을의 의견에 ‘찬성한다’(을 의견 매우 찬성+을 의견 대체로 찬성)는 응답 비율 29.5%보다 높다. ‘현행 제도가 적당하다’는 응답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갑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40-49세(68.4%), 월평균 임금별로는 200-299만원(78.0%) 등에서 높다.

<표 13-11>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완화 여부에 대한 갑과 을의 의견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갑의 의견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익히도록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이며, 을의 의견은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는 것이 좋으므로 현행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이다. 갑의 의견에 ‘찬성한다’(갑 의견 매우 찬성+갑 의견 대체로 찬성)는 응답 비율은 44.7%, 을의 의견에 ‘찬성한다’(을 의견 매우 찬성+을 의견 대체로 찬성)는 응답 비율은 45.5%로 갑과 을

<표 13-11>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완화 여부

(단위: 명, %)

	(N)	① 갑 의견 매우 찬성	② 갑 의견 대체로 찬성	①+②	③ 현행 제도가 적당 하다	④ 을 의견 대체로 찬성	⑤ 을 의견 매우 찬성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 전체 □	(132)	23.5	21.2	44.7	8.3	23.5	22.0	45.5	1.5	100.0	3.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26.7	22.2	48.9	2.2	28.9	17.8	46.7	2.2	100.0	2.9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21.8	20.7	42.5	11.5	20.7	24.1	44.8	1.1	100.0	3.0
연령											
39세 이하	(25)	20.0	16.0	36.0	12.0	24.0	28.0	52.0	0.0	100.0	3.2
40-49세	(79)	24.1	21.5	45.6	8.9	22.8	20.3	43.0	2.5	100.0	2.9
50세 이상	(28)	25.0	25.0	50.0	3.6	25.0	21.4	46.4	0.0	100.0	2.9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24.3	23.0	47.3	5.4	20.3	25.7	45.9	1.4	100.0	3.0
대학교 이상	(58)	22.4	19.0	41.4	12.1	27.6	17.2	44.8	1.7	100.0	3.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23.7	21.1	44.7	9.2	22.4	21.1	43.4	2.6	100.0	3.0
비임금근로자	(45)	24.4	22.2	46.7	4.4	22.2	26.7	48.9	0.0	100.0	3.0
미취업자	(11)	18.2	18.2	36.4	18.2	36.4	9.1	45.5	0.0	100.0	3.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23.5	11.8	35.3	11.8	29.4	23.5	52.9	0.0	100.0	3.2
200-299만원	(41)	29.3	14.6	43.9	2.4	31.7	17.1	48.8	4.9	100.0	2.9
300-399만원	(29)	17.2	24.1	41.4	6.9	10.3	41.4	51.7	0.0	100.0	3.3
400만원 이상	(32)	25.0	31.3	56.3	12.5	18.8	12.5	31.3	0.0	100.0	2.6
미취업자 등	(13)	15.4	23.1	38.5	15.4	30.8	15.4	46.2	0.0	100.0	3.1

의 의견에 대한 응답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현행 제도가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갑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을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39세 이하에서 52.0%로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별로 갑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00만원 이상에서 56.3%로 가장 높으며, 을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199만원 이하 및 300-399만원에서 각각 52.9%, 51.7%로 높다.

일부 심층면접 응답자는 두 의견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건 동의하지만 현지 교육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고, 결국 남자들의 비용 지출만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국에 입국해서 살면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저는 둘 다 반대해요. 저도 신부를 교육시킨다고 하느라 30만 원을 썼거든요. 통역한테 물어봐도, 오빠, 그런 것 시키지 마요, 신부 한 번도 안 왔어요. 저는 뭣 모르고 30만 원씩 교육비를 썼어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고, 물론 교육기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뭐 시험을 봐야 되면 모르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고. 여기에 와서도,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어느 한 쪽에 손 들기는 애매해요.

둘 다 완화하기도 뭐하고, 거기서 교육시킨다는 자체도 신랑한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비용대비 효과가 저는, 통역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서 복불복이라고, 되게 열심히, 여기에 오려고, 그런 아가씨도 있지만 그냥 흐지부지되고, 근데 또 결혼한 친구를 보면, 그때 교육할 때는 말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1년 반 지났죠, 거의 2년 지났잖아요. 지금 말해요. 살면서 말을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아요, 살면서. 들어올 마음이 있다면 굳이 거기서 교육을 안 시켜도, 자기가 살려면 여기서 말을 해야 되니까[사례 #C01, 남, 43세, 추진 시 배우자 국적 키르기스스탄, 서울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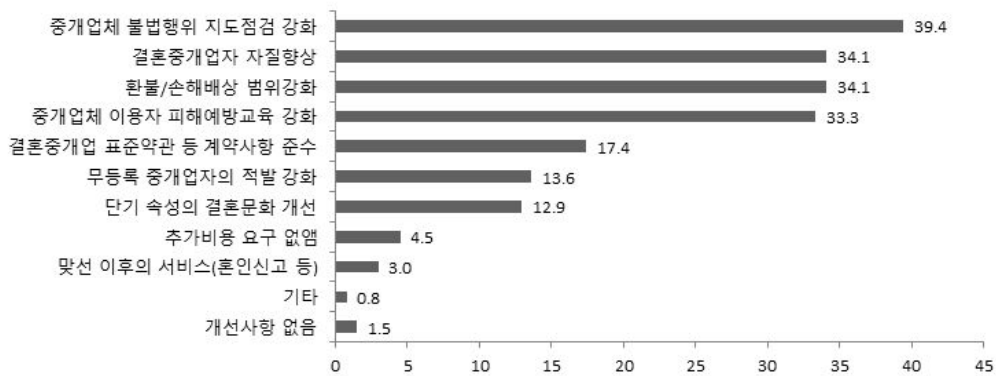
<표 13-12>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가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39.4%)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 및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각각 34.1%),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3.3%) 등의 순이다.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맞선 또는 그 이전에서는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40.0%)이 가장 높으나, 결혼식 또는 그 이후 중단에서는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40.2%)가 가장 높다. 연령별로도 개선 필요 사항의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39세 이하에서는 ‘한국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44.0%),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 및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각각 36.0%) 등의 순이나, 40-49세 및 50세 이상에서는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각각 41.8%, 42.9%)가

<표 13-12>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복수응답)

(단위: 명, %)

	(N)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	결혼 중개업자 자질 향상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강화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등 계약사항 준수	무등록 중개업자의 적발 강화	단기 속성의 결혼문화 개선	추가비용 요구 없앰	맞선 이후의 서비스 (혼인신고 등)	기타	개선사항 없음
▣ 전체 ▣	(132)	39.4	34.1	34.1	33.3	17.4	13.6	12.9	4.5	3.0	0.8	1.5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37.8	40.0	24.4	37.8	17.8	15.6	8.9	4.4	2.2	2.2	2.2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40.2	31.0	39.1	31.0	17.2	12.6	14.9	4.6	3.4	0.0	1.1
연령												
39세 이하	(25)	28.0	36.0	36.0	44.0	16.0	8.0	8.0	0.0	4.0	4.0	4.0
40-49세	(79)	41.8	31.6	32.9	34.2	20.3	10.1	15.2	6.3	3.8	0.0	0.0
50세 이상	(28)	42.9	39.3	35.7	21.4	10.7	28.6	10.7	3.6	0.0	0.0	3.6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35.1	35.1	32.4	35.1	17.6	18.9	10.8	4.1	2.7	0.0	1.4
대학교 이상	(58)	44.8	32.8	36.2	31.0	17.2	6.9	15.5	5.2	3.4	1.7	1.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36.8	31.6	34.2	38.2	15.8	10.5	13.2	3.9	3.9	1.3	2.6
비임금근로자	(45)	42.2	37.8	33.3	28.9	24.4	15.6	11.1	6.7	0.0	0.0	0.0
미취업자	(11)	45.5	36.4	36.4	18.2	0.0	27.3	18.2	0.0	9.1	0.0	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23.5	35.3	41.2	41.2	11.8	29.4	17.6	0.0	0.0	0.0	0.0
200-299만원	(41)	34.1	31.7	34.1	34.1	19.5	4.9	9.8	9.8	4.9	0.0	4.9
300-399만원	(29)	51.7	34.5	31.0	31.0	20.7	10.3	17.2	0.0	0.0	3.4	0.0
400만원 이상	(32)	43.8	34.4	31.3	34.4	18.8	15.6	9.4	6.3	3.1	0.0	0.0
미취업자 등	(13)	38.5	38.5	38.5	23.1	7.7	23.1	15.4	0.0	7.7	0.0	0.0



[그림 13-1]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복수응답)

가장 높다.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각각 35.1%)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대학교 이상에서는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44.8%),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36.2%),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32.8%) 등의 순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 근로자에서는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8.2%),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36.8%) 등의 순이나, 비임금근로자에서는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42.2%),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37.8%)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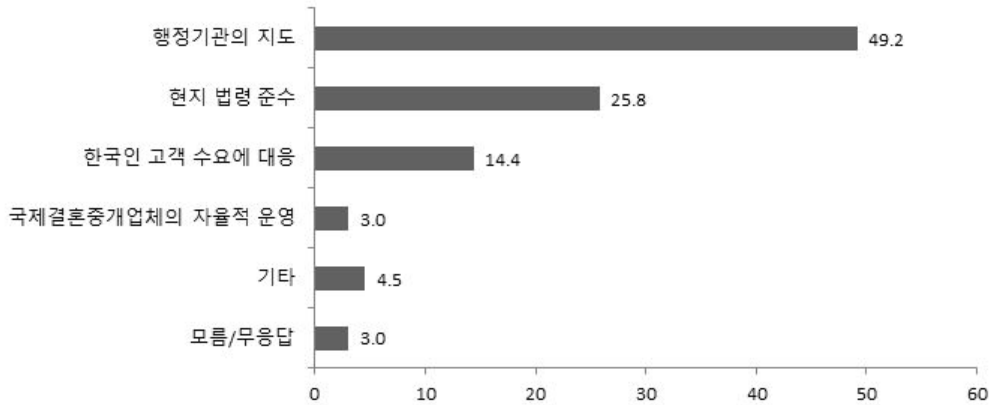
현재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많아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표 13-13>은 그럴 경우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행정기관의 지도’라는 응답 비율이 4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현지법령 준수’(25.8%), ‘한국인 고객수요에 대응’(14.4%)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최종학력, 종사상 지위 등 세부 특성별로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50세 이상과 비임금근로자에서는 ‘행정기관의 지도’ 외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이 ‘한국인 고객 수요에 대응’(각각 25.0%, 17.8%)으로 ‘현지법령 준수’(각각 10.7%, 15.6%)보다 높다. ‘행정기관의 지도’라는 응답 비율은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별로는 결혼식 또는 그 이후(52.9%), 연령별로는 39세 이하(56.0%),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57.8%),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

(59.4%) 등에서 높다. '현지 법령 준수'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임금별로는 월평균 임금이 적을수록 높다.

<표 13-13>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단위: 명, %)

	(N)	행정기관의 지도	현지 법령 준수	한국인 고객 수요에 대응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자율적 운영	기타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132)	49.2	25.8	14.4	3.0	4.5	3.0	100.0
국제결혼진행 중단 단계								
맞선 또는 그 이전	(45)	42.2	28.9	13.3	4.4	4.4	6.7	100.0
결혼식 또는 그 이후	(87)	52.9	24.1	14.9	2.3	4.6	1.1	100.0
연령								
39세 이하	(25)	56.0	32.0	8.0	4.0	0.0	0.0	100.0
40-49세	(79)	45.6	29.1	12.7	3.8	6.3	2.5	100.0
50세 이상	(28)	53.6	10.7	25.0	0.0	3.6	7.1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48.6	24.3	14.9	2.7	5.4	4.1	100.0
대학교 이상	(58)	50.0	27.6	13.8	3.4	3.4	1.7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6)	46.1	32.9	11.8	3.9	5.3	0.0	100.0
비임금근로자	(45)	57.8	15.6	17.8	2.2	2.2	4.4	100.0
미취업자	(11)	36.4	18.2	18.2	0.0	9.1	18.2	100.0
월평균 임금								
199만원 이하	(17)	35.3	47.1	11.8	0.0	5.9	0.0	100.0
200-299만원	(41)	51.2	26.8	14.6	2.4	2.4	2.4	100.0
300-399만원	(29)	44.8	24.1	17.2	3.4	6.9	3.4	100.0
400만원 이상	(32)	59.4	18.8	12.5	6.3	3.1	0.0	100.0
미취업자 등	(13)	46.2	15.4	15.4	0.0	7.7	15.4	100.0



[그림 13-2]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제5부

혼인중단 남성 및 이민여성,
미성혼 남성 비교 분석

제 14 장 결혼과 혼인중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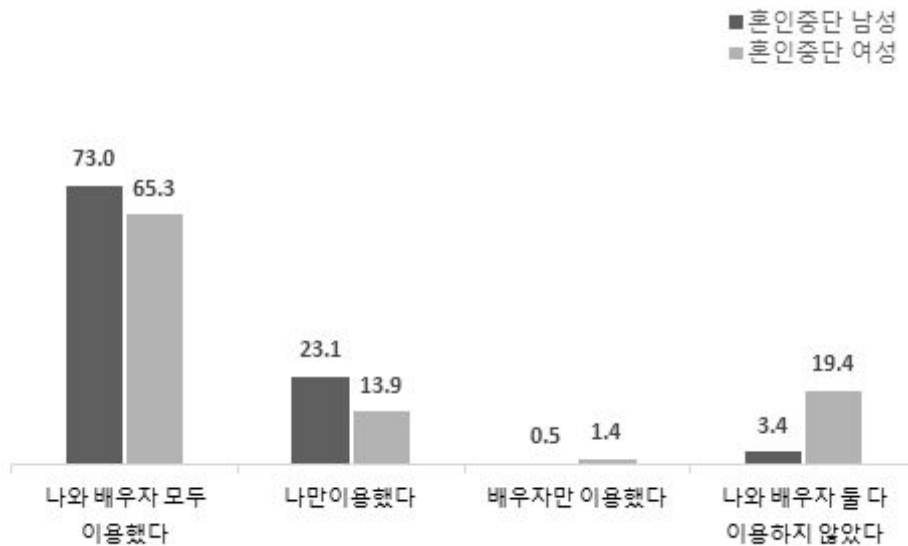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를 비교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73.0%, 65.3%로 가장 높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나만 이용했다'가 23.1%로 높으나, 여성은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가 19.4%로 높다.

<표 14-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

(단위: 명, %)

	(N)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했다	나만 이용했다	배우자만 이용했다	나와 배우자 둘 다 이용하지 않았다	계
혼인중단 남성	(415)	73.0	23.1	0.5	3.4	100.0
혼인중단 여성	(72)	65.3	13.9	1.4	19.4	100.0

주: "나와 배우자 둘 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 중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쪽에서라도 누군가에게 국제결혼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사례'만 이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 <표 2-1>, <표 6-1>.



주: "나와 배우자 둘 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 중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쪽에서라도 누군가에게 국제결혼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사례'만 이 분석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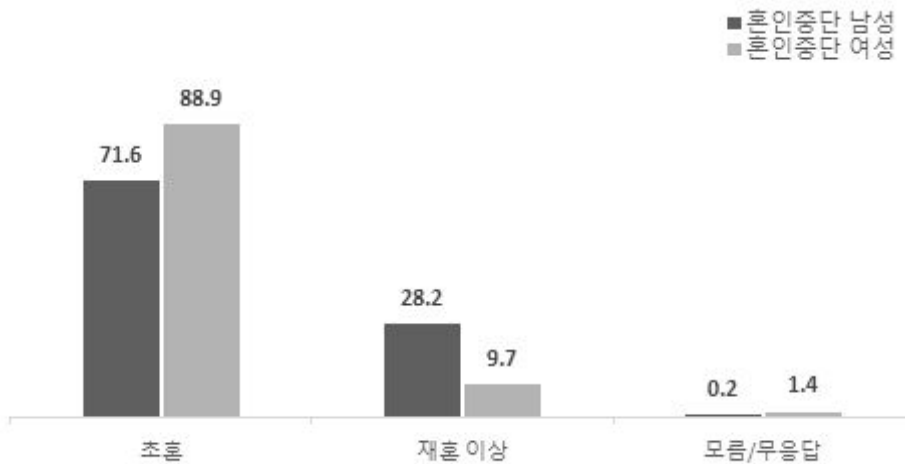
[그림 14-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

<표 14-2>에서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의 초혼, 재혼 여부를 비교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71.6%, 88.9%로 가장 높다. 또한 ‘재혼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남성이 28.2%, 여성이 9.7%로 남성이 약 2.9배 높다.

<표 14-2> 초혼, 재혼 여부

(단위: 명, %)					
	(N)	초혼	재혼 이상	모름·무응답	계
혼인중단 남성	(415)	71.6	28.2	0.2	100.0
혼인중단 여성	(72)	88.9	9.7	1.4	100.0

자료: <표 2-4>, <표 6-4>.



[그림 14-2] 초혼, 재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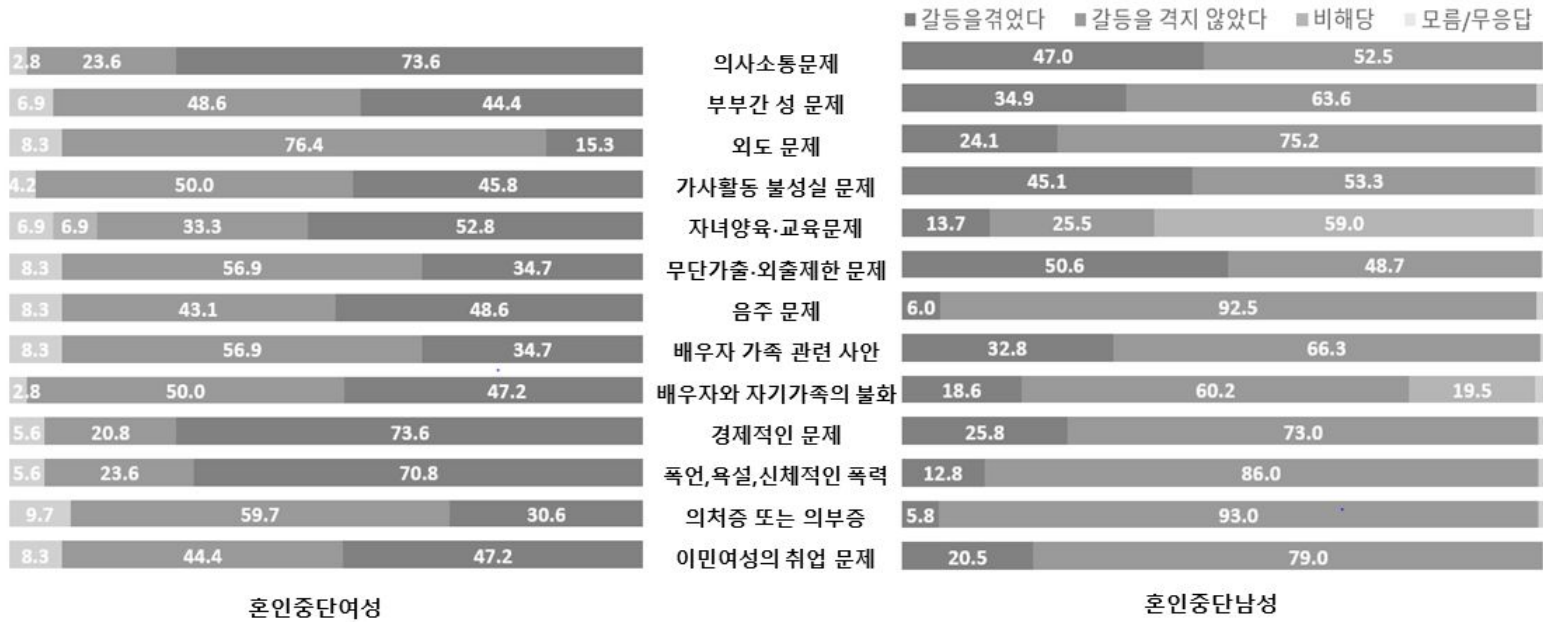
<표 14-3>에서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이 결혼 유지 기간 동안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 혼인중단 여성이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의사소통 문제’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73.6%로 가장 높으며,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으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70.8%로 높다.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0.6%로 가장 높으며, ‘의사소통 문제’와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7.0%, 45.1%로 높다.

<표 14-3> 배우자와의 갈등

(단위: 명, %)

	(N)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지 않았다	비해당	모름·무응답	계
의사소통 문제						
혼인중단 남성	(415)	47.0	52.5	0.0	0.5	100.0
혼인중단 여성	(72)	73.6	23.6	0.0	2.8	100.0
부부간 성 문제						
혼인중단 남성	(415)	34.9	63.6	0.0	1.4	100.0
혼인중단 여성	(72)	44.4	48.6	0.0	6.9	100.0
외도 문제						
혼인중단 남성	(415)	24.1	75.2	0.0	0.7	100.0
혼인중단 여성	(72)	15.3	76.4	0.0	8.3	100.0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						
혼인중단 남성	(415)	45.1	53.3	1.0	0.7	100.0
혼인중단 여성	(72)	45.8	50.0	0.0	4.2	100.0
자녀양육·교육문제						
혼인중단 남성	(415)	13.7	25.5	59.0	1.7	100.0
혼인중단 여성	(72)	52.8	33.3	6.9	6.9	100.0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						
혼인중단 남성	(415)	50.6	48.7	0.0	0.7	100.0
혼인중단 여성	(72)	34.7	56.9	0.0	8.3	100.0
음주 문제						
혼인중단 남성	(415)	6.0	92.5	0.0	1.4	100.0
혼인중단 여성	(72)	48.6	43.1	0.0	8.3	100.0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						
혼인중단 남성	(415)	32.8	66.3	0.0	1.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34.7	56.9	0.0	8.3	100.0
배우자와 자기가족의 불화						
혼인중단 남성	(415)	18.6	60.2	19.5	1.7	100.0
혼인중단 여성	(72)	47.2	50.0	0.0	2.8	100.0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혼인중단 남성	(415)	25.8	73.0	0.2	1.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73.6	20.8	0.0	5.6	100.0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혼인중단 남성	(415)	12.8	86.0	0.2	1.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70.8	23.6	0.0	5.6	100.0
의처증 또는 의부증						
혼인중단 남성	(415)	5.8	93.0	0.2	1.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30.6	59.7	0.0	9.7	100.0
이민여성의 취업 문제						
혼인중단 남성	(415)	20.5	79.0	0.0	0.5	100.0
혼인중단 여성	(72)	47.2	44.4	0.0	8.3	100.0

자료: <표 2-6>, <표 2-7>, <표 2-8>, <표 2-9>, <표 2-10>, <표 2-11>, <표 2-12>, <표 2-13>, <표 2-14>, <표 2-15>, <표 2-16>, <표 2-17>, <표 2-18>, <표 5-6>, <표 5-7>, <표 5-8>, <표 5-9>, <표 5-10>, <표 5-11>, <표 5-12>, <표 5-13>, <표 5-14>, <표 5-15>, <표 5-16>, <표 5-17>, <표 5-18>.



[그림 14-3] 배우자와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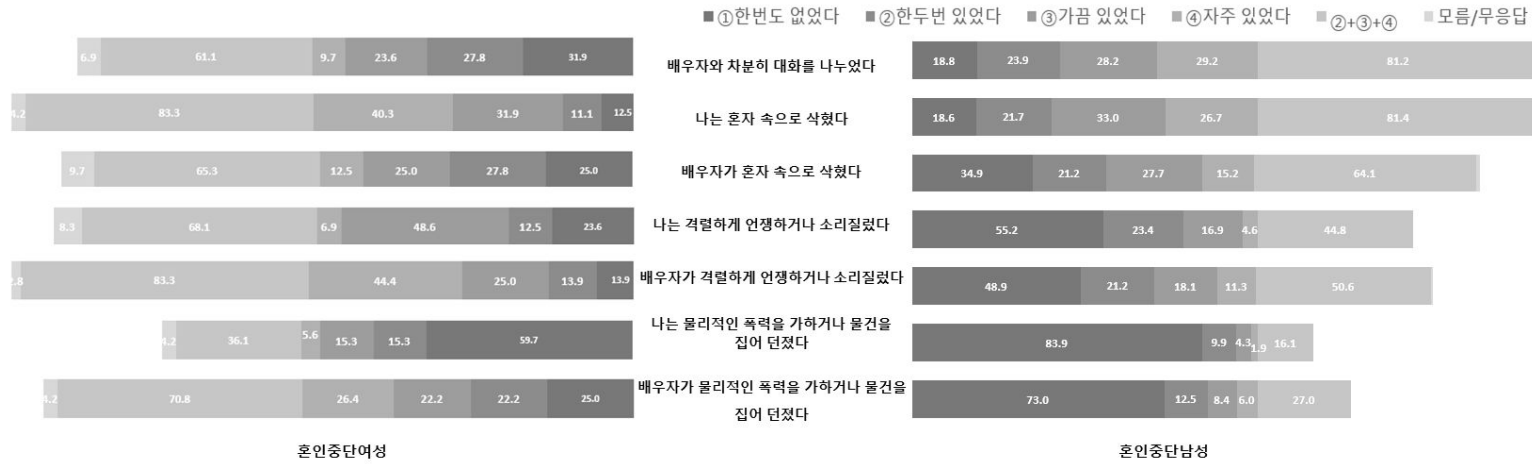
<표 14-4>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은 ‘나는 혼자 속으로 삭혔다’와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81.4%, 81.2%로 높다. 혼인중단 여성은 ‘나는 혼자 속으로 삭혔다’와 ‘배우자가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 질렀다’는 응답 비율이 83.3%로 가장 높으며, ‘배우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라는 응답이 70.8% 순으로 높다.

<표 14-4> 배우자와의 갈등 시 행동방법

(단위: 명, %)

	(N)	① 한번도 없었다	② 한두번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②+③ +④	모름· 무응답	계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혼인중단 남성	(415)	18.8	23.9	28.2	29.2	81.2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31.9	27.8	23.6	9.7	61.1	6.9	100.0
나는 혼자 속으로 삭혔다								
혼인중단 남성	(415)	18.6	21.7	33.0	26.7	81.4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12.5	11.1	31.9	40.3	83.3	4.2	100.0
배우자가 혼자 속으로 삭혔다								
혼인중단 남성	(415)	34.9	21.2	27.7	15.2	64.1	1.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25.0	27.8	25.0	12.5	65.3	9.7	100.0
나는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 질렀다								
혼인중단 남성	(415)	55.2	23.4	16.9	4.6	44.8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23.6	12.5	48.6	6.9	68.1	8.3	100.0
배우자가 격렬하게 언쟁하거나 소리 질렀다								
혼인중단 남성	(415)	48.9	21.2	18.1	11.3	50.6	0.5	100.0
혼인중단 여성	(72)	13.9	13.9	25.0	44.4	83.3	2.8	100.0
나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혼인중단 남성	(415)	83.9	9.9	4.3	1.9	16.1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59.7	15.3	15.3	5.6	36.1	4.2	100.0
배우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혼인중단 남성	(415)	73.0	12.5	8.4	6.0	27.0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25.0	22.2	22.2	26.4	70.8	4.2	100.0

자료: <표 2-19>, <표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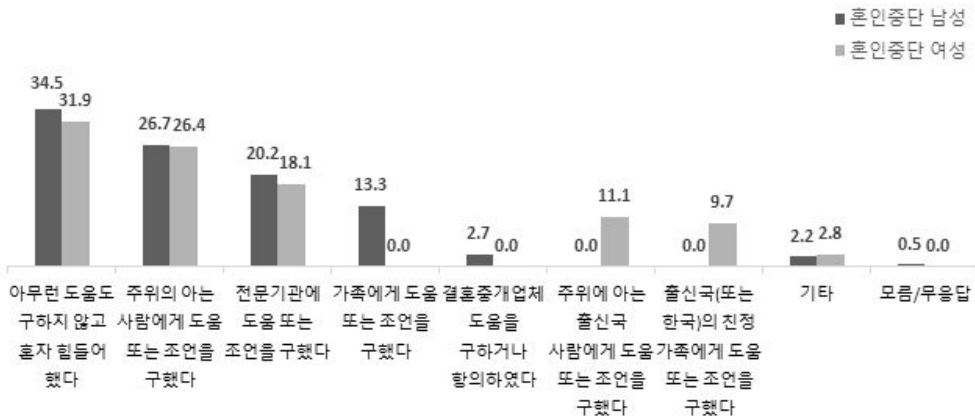
[그림 14-4] 배우자와의 갈등 시 행동방법

<표 14-5> 배우자와 갈등 시 도움요청

(단위: 명, %)

	(N)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가족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결혼 중개업체 도움이 구하거나 항의하였다	주위에 아는 출신국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출신국(또는 한국)의 친정 가족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기타	모름·무응답	계
혼인중단 남성	(415)	34.5	26.7	20.2	13.3	2.7	-	-	2.2	0.5	100.0
혼인중단 여성	(72)	31.9	26.4	18.1	-	-	11.1	9.7	2.8	0.0	100.0

자료: <표 2-27>, <표 6-27>.



[그림 14-5] 배우자와 갈등 시 도움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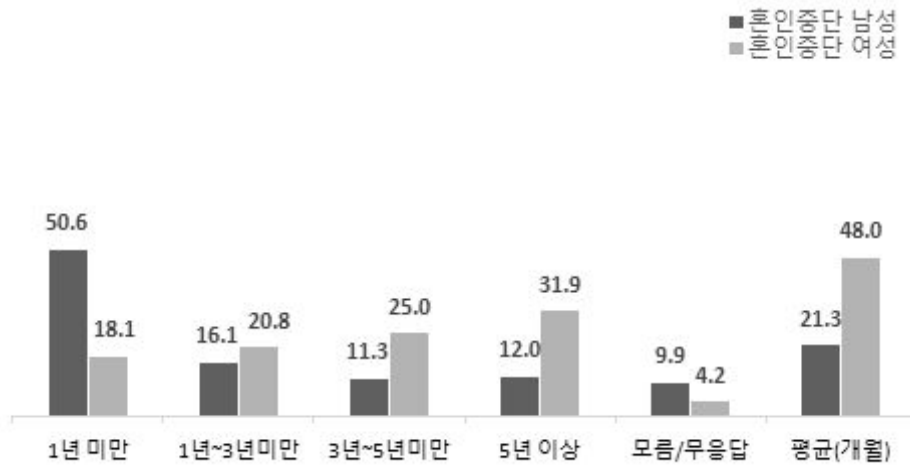
<표 14-5>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모두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 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4.5%, 31.9%로 가장 높으며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전문기관에 도움 또는 조언을 구했다’ 순으로 높다.

<표 14-6>에서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 기간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1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50.6%로 가장 높으며, ‘1-3년 미만’(16.1%) 순이다. 혼인중단 여성의 경우는 ‘5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31.9%로 가장 높으며, ‘3-5년 미만’(25.0%) 순이며, 평균 혼인유지 기간은 남성이 21.3개월, 여성이 48개월로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6>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의 기간

		(N)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모름·무응답	계	평균 (개월)
혼인중단	남성	(415)	50.6	16.1	11.3	12.0	9.9	100.0	21.3
혼인중단	여성	(72)	18.1	20.8	25.0	31.9	4.2	100.0	48.0

자료: <표 2-28>, <표 6-28>.



[그림 14-6]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까지의 기간

<표 14-7>에서는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에게 혼인이 중단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1-2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한 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라는 응답 비율이 25.5%로 가장 높으며,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 25.3%, ‘문화차이’ 24.3% 순이다. 반면, 혼인중단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33.3%로 가장 높으며, ‘학대와 폭력’ 30.6%,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29.2%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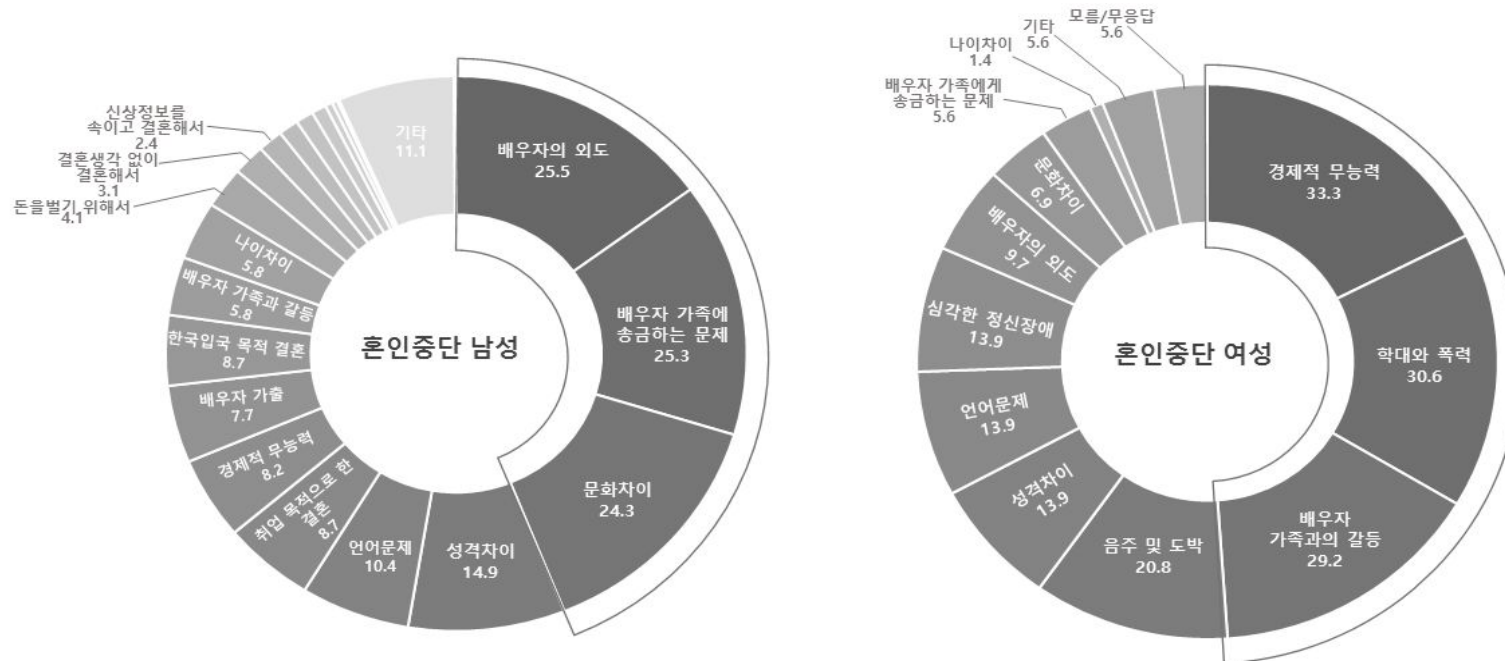
<표 14-8>에서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으로 인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1-2순위까지 선택한 것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응답이 60.5%로 가장 높으며,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 극복’이 57.8% 순이다. 혼인중단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으며, ‘자녀 양육·교육 문제’가 36.14% 순이다. 혼인중단 남성은 비교적 심리적 어려움이 컸던 반면, 혼인중단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7> 혼인중단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N)	배우자 외도	배우자 가족 송금 문제	문화 차이	성격 차이	언어 문제	취업 목적 결혼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 가출	한국입국 목적 결혼	배우자 가족과 갈등	나이 차이	돈을 벌기 위해 결혼을 해서	결혼 생각이 없이 결혼을 해서	신상 정보를 속이고 결혼을 해서	음주 및 도박	본인의 외도	심각한 정신 장애	가사 활동 불성실	성생활 문제	학대와 폭력	기타	모름·무응답
혼인중단 남성	(415)	25.5	25.3	24.3	14.9	10.4	8.7	8.2	7.7	7.0	5.8	5.8	4.1	3.1	2.4	1.9	1.7	1.4	0.7	0.5	0.2	11.1	0.2
혼인중단 여성	(72)	9.7	5.6	6.9	13.9	13.9	-	33.3	-	-	29.2	1.4	-	-	-	20.8	-	13.9	-	-	30.6	5.6	5.6

자료: <표 2-30>, <표 6-29>.



[그림 14-7] 혼인중단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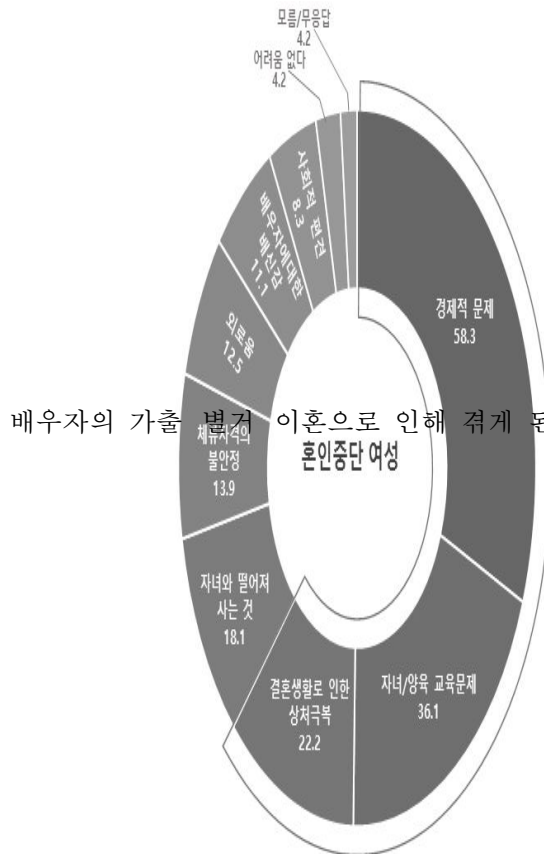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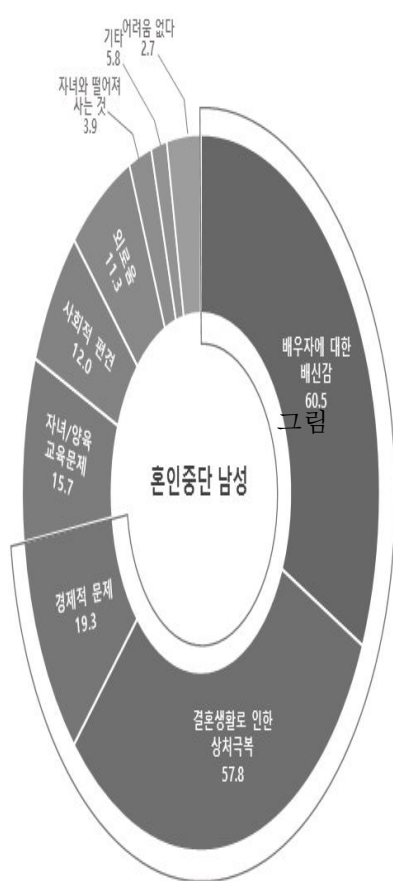
표 배우자의 가출 별거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 복수응

< 148> , , ()

(단위: 명, %)

	(N)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 극복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교육 문제	사회적 편견	외로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	기타	아무런 어려움 없다	체류자적 불안정	모름·무응답
혼인중단 남성	(415)	60.5	57.8	19.3	15.7	12.0	11.3	3.9	5.8	2.7	-	0.0
혼인중단 여성	(72)	11.1	22.2	58.3	36.1	8.3	12.5	18.1	0.0	2.8	13.9	4.2

자료: <표 2-33>, <표 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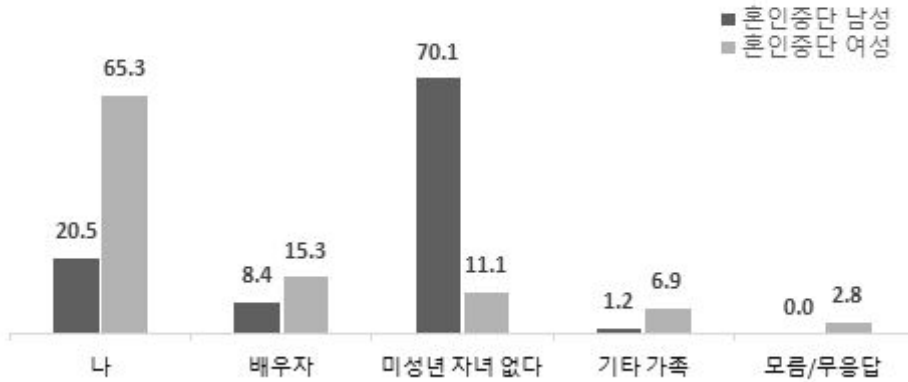
[148] , , ()

<표 14-9> 자녀 양육자

(단위: 명, %)

	(N)	나	배우자	기타 가족	미성년 자녀 없다	모름·무응답	계
혼인중단 남성	(415)	20.5	8.4	1.2	70.1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65.3	15.3	6.9	11.1	2.8	100.0

자료: <표 2-31>, <표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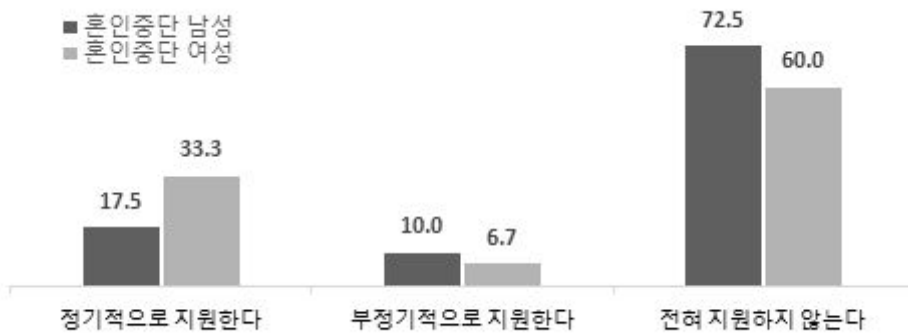
[그림 14-9] 자녀 양육자

<표 14-10> 양육비 지원여부

(단위: 명, %)

	(N)	정기적으로 지원 한다/지원 받는다	부정기적으로 지원한다/지원 받는다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지원받지 않는다	계
혼인중단 남성	(40)	17.5	10.0	72.5	100.0
혼인중단 여성	(15)	33.3	6.7	60.0	100.0

자료: <표 2-32>, <표 6-31>.



[그림 14-10] 양육비 지원여부

<표 14-9>에서 혼인중단 후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 기간이 짧았던 남성의 경우 ‘미성년 자녀 없다’는 응답 비율이 70.1%로 가장 높으며, 본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20.5% 순이다. 여성의 경우 본인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응답 비율이 65.3%로 가장 높으며, ‘배우자’라는 응답이 15.3%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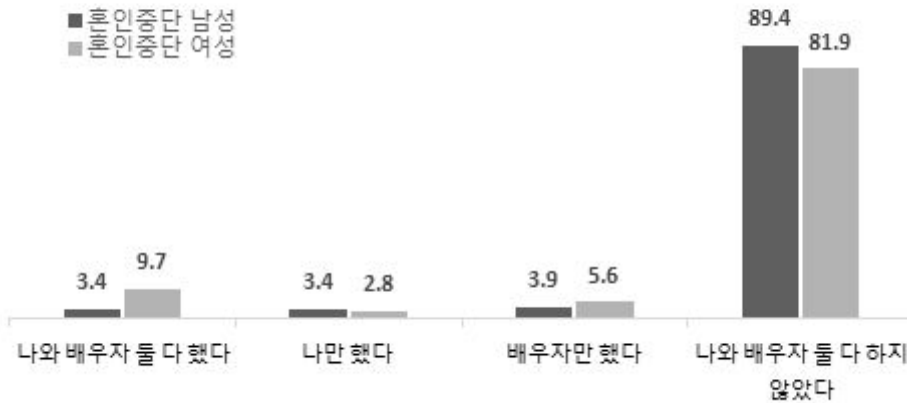
<표 14-10>은 ‘혼인중단 남성이 미성년 자녀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양육한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느 여부’와 혼인중단 여성이 미성년 자녀를 본인이 양육한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비를 지원받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혼인중단 남성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72.5%로 가장 높으며, 이와 동일하게 혼인중단 여성은 ‘전혀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0.0%로 가장 높다.

<표 14-11>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단위: 명, %)

	(N)	나와 배우자들 다 했다	나만 했다	배우자만 했다	나와 배우자들 다 하지 않았다	계
혼인중단 남성	(415)	3.4	3.4	3.9	89.4	100.0
혼인중단 여성	(72)	9.7	2.8	5.6	81.9	100.0

자료: <표 2-36>, <표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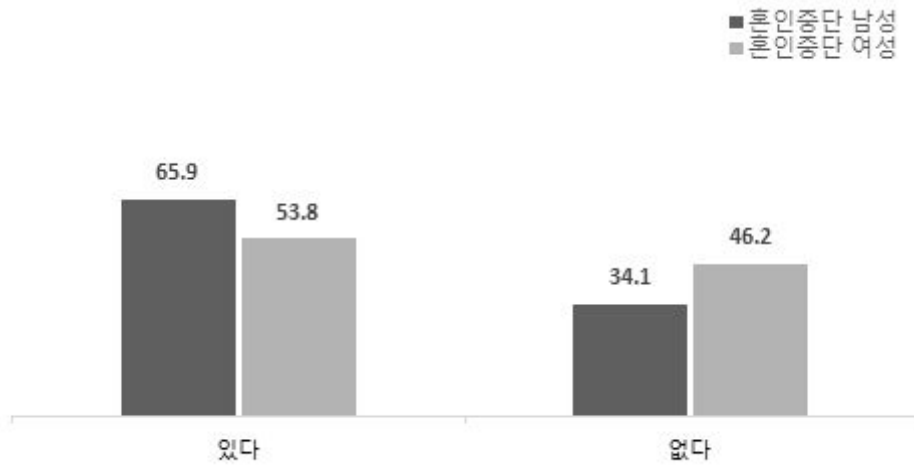
[그림 14-11]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표 14-12> 맞선 주선 후 실제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혼인중단 남성	(44)	65.9	34.1	100.0
혼인중단 여성	(13)	53.8	46.2	100.0

자료: <표 2-34>, <표 6-34>.



[그림 14-12] match 주선 후 실제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

<표 14-11>에서 본인 또는 당시 배우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국제결혼 match를 주선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모두 ‘나와 배우자 둘 다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89.4%, 81.9%로 가장 높다.

<표 14-12>에서 본인 또는 당시 배우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국제결혼 match를 주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실제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은 남성의 65.9%, 여성의 53.8%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제 15 장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여 맞선을 본 후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조사한 결과(표 15-1), 혼인중단 남성은 ‘0-1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4.0%로 가장 높고 ‘2-3일’ 25.5%, ‘8일 이상’ 21.2% 순이다. 또한 혼인중단 여성은 ‘2-3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0.6%로 가장 높고 ‘0-1일’ 29.2%, ‘8일 이상’ 26.4%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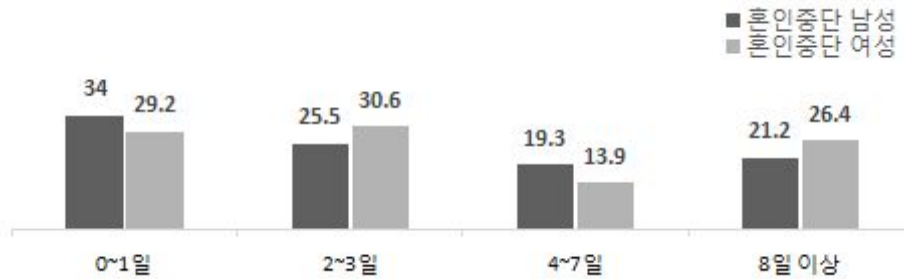
<표 15-2>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은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46.5%, 61.1%로 가장 높으며, 남성은 ‘인터넷 홈페이지’ 29.2%, 여성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 25.0% 순이다. 미성혼 남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 비율이 47.7%로 가장 높으며,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30.3% 순이다.

<표 15-1>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단위: 명, %)

	(N)	0-1일	2-3일	4-7일	8일 이상	계
혼인중단 남성	(415)	34.0	25.5	19.3	21.2	100.0
혼인중단 여성	(72)	29.2	30.6	13.9	26.4	100.0

자료: <표 3-3>, <표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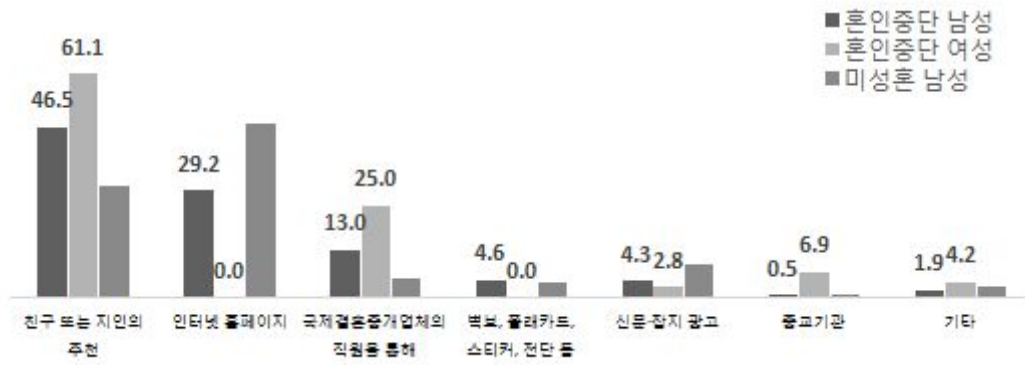
[그림 15-1]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

<표 15-2>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단위: 명, %)

	(N)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 등	신문·잡지 광고	종교기관	기타	계
혼인중단 남성	(415)	46.5	29.2	13.0	4.6	4.3	0.5	1.9	100.0
혼인중단 여성	(72)	61.1	0.0	25.0	0.0	2.8	6.9	4.2	100.0
미성혼 남성	(132)	30.3	47.7	5.3	3.8	9.1	0.8	3.0	100.0

자료: <표 3-4>, <표 7-4>, <표 11-1>.



[그림 15-2]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표 15-3>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단위: 명, %)

	(N)	지인이 소개해줘서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	특정 국가 전문성	신분감으로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비·등록비가 더 저렴해서	소개 횟수가 더 많아서	기타	계
혼인중단 남성	(415)	40.2	39.5	6.7	3.9	2.7	1.4	5.5	100.0
미성혼 남성	(132)	27.3	37.1	8.3	11.4	5.3	1.5	9.1	100.0

자료: <표 3-7>, <표 11-2>.



[그림 15-3]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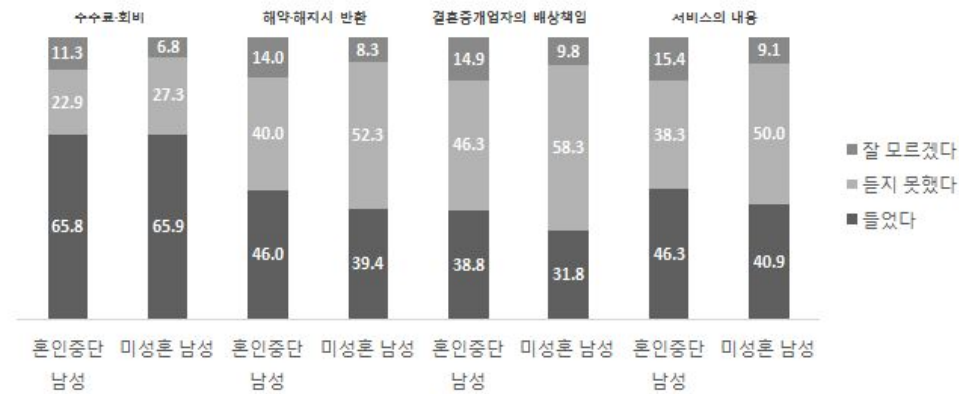
<표 15-3>에서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에게 본인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은 ‘지인이 소개해줘서’라는 응답 비율이 40.2%로 가장 높고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39.5%) 순이다. 미성혼 남성의 경우는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라는 응답 비율이 37.1%로 가장 높고, ‘지인이 소개해줘서’(27.3%), ‘신분감으로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11.4%) 순이다.

<표 15-4> 계약 내용 설명 청취

(단위: 명, %)

	(N)	들었다	듣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	계
수수료·회비 등					
혼인중단 남성	(415)	65.8	22.9	11.3	100.0
미성혼 남성	(132)	65.9	27.3	6.8	100.0
해약해지 시 반환					
혼인중단 남성	(415)	46.0	40.0	14.0	100.0
미성혼 남성	(132)	39.4	52.3	8.3	100.0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					
혼인중단 남성	(415)	38.8	46.3	14.9	100.0
미성혼 남성	(132)	31.8	58.3	9.8	100.0
서비스의 내용 등					
혼인중단 남성	(415)	46.3	38.3	15.4	100.0
미성혼 남성	(132)	40.9	50.0	9.1	100.0

자료: <표 3-9>, <표 11-4>.



[그림 15-4] 계약 내용 설명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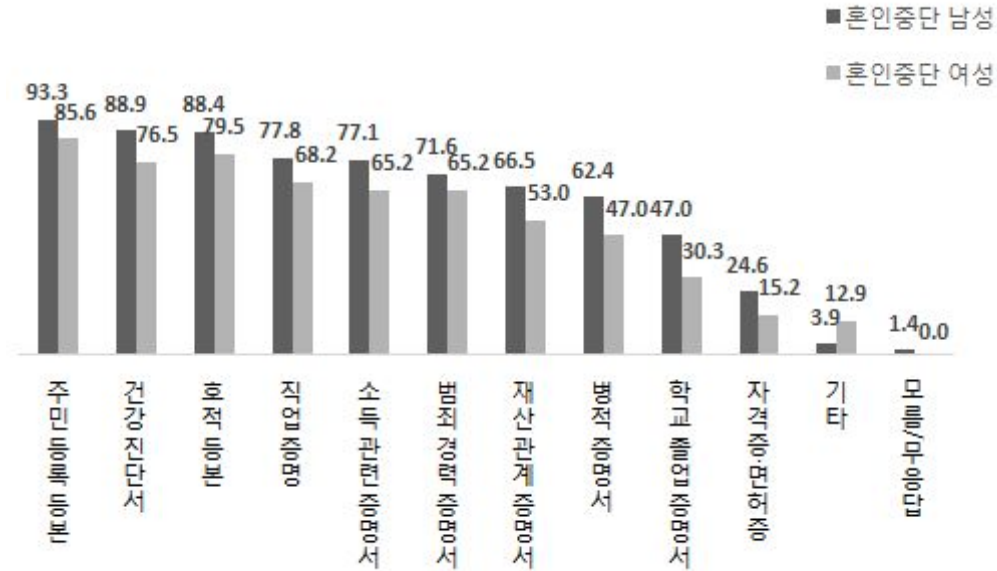
<표 15-4>에서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에게 본인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수료 및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대체로 ‘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듣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수수료 및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들었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그 외의 경우 혼인중단 남성이 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미성혼 남성 보다 높다.

<표 15-5>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단위: 명, %)

	(N)	주민등록 등본	건강진단서	호적 등본	직업 증명	소득 관련 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	재산 관계 증명서	병적 증명서	학교 졸업 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기타	모름·무응답
혼인중단 남성	(415)	93.3	88.9	88.4	77.8	77.1	71.6	66.5	62.4	47.0	24.6	3.9	1.4
미성혼 남성	(132)	85.6	76.5	79.5	68.2	65.2	65.2	53.0	47.0	30.3	15.2	12.9	0.0

자료: <표 3-20>, <표 11-5>.



[그림 15-5]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표 15-5>에서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에게 본인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혼인중단 남성이 미성혼 남성보다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93.3%로 가장 높으며, ‘건강진단서’(88.9%), ‘호적등본’(88.4%) 순으로 높다. 미성혼 남성 역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85.6%로 가장 높으며, ‘호적등본’(79.5%), ‘건강진단서’(76.5%) 순이다.

<표 15-6>에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미성혼 남성 모두 배우자의 ‘나이’와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15-6> 당시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N)	제공받음	제공받지 않음	모름·무응답	계
혼인경력					
혼인중	(415)	58.1	41.9	0.0	100.0
이혼	(72)	50.0	44.4	5.6	100.0
미혼	(113)	38.1	61.9	0.0	100.0
건강상태					
혼인중	(415)	50.6	49.4	0.0	100.0
이혼	(72)	38.9	56.9	4.2	100.0
미혼	(113)	31.9	68.1	0.0	100.0
직업					
혼인중	(415)	38.8	61.2	0.0	100.0
이혼	(72)	70.8	27.8	1.4	100.0
미혼	(113)	28.3	71.7	0.0	100.0
범죄경력					
혼인중	(415)	24.8	75.2	0.0	100.0
이혼	(72)	27.8	65.3	6.9	100.0
미혼	(113)	15.9	84.1	0.0	100.0
소득					
혼인중	(415)	16.9	83.1	0.0	100.0
이혼	(72)	33.3	63.9	2.8	100.0
미혼	(113)	12.4	87.6	0.0	100.0
재산					
혼인중	(415)	17.1	82.9	0.0	100.0
이혼	(72)	31.9	63.9	4.2	100.0
미혼	(113)	15.0	85.0	0.0	100.0
학력					
혼인중	(415)	54.0	46.0	0.0	100.0
이혼	(72)	50.0	44.4	5.6	100.0
미혼	(113)	37.2	62.8	0.0	100.0
가족관계(미성년자녀·부모 부양)					
혼인중	(415)	61.9	38.1	0.0	100.0
이혼	(72)	66.7	27.8	5.6	100.0
미혼	(113)	43.4	56.6	0.0	100.0
나이					
혼인중	(415)	70.6	29.4	0.0	100.0
이혼	(72)	81.9	13.9	4.2	100.0
미혼	(113)	55.8	44.2	0.0	100.0
질병 유무					
혼인중	(415)	40.0	60.0	0.0	100.0
이혼	(72)	37.5	56.9	5.6	100.0
미혼	(113)	17.7	82.3	0.0	100.0
신체적 장애 유무					
혼인중	(415)	32.0	68.0	0.0	100.0
이혼	(72)	30.6	62.5	6.9	100.0
미혼	(113)	16.8	82.3	0.9	100.0
정신적 장애 유무					
혼인중	(415)	30.1	69.9	0.0	100.0
이혼	(72)	22.2	70.8	6.9	100.0
미혼	(113)	13.3	85.8	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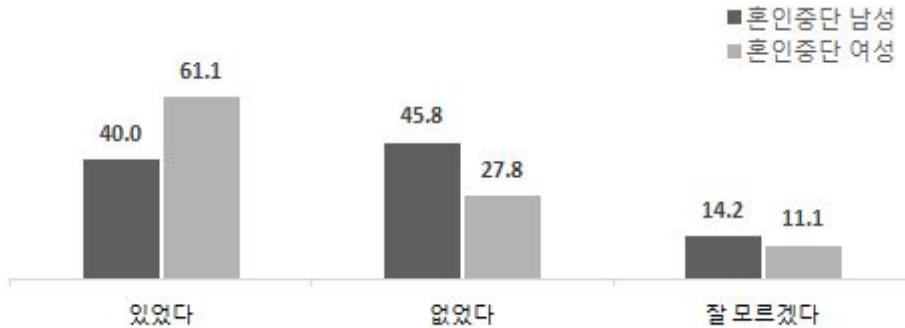
자료: <표 3-10>, <표 7-5>, <표 11-6>.

<표 15-7>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단위: 명, %)

	(N)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	계
혼인중단 남성	(415)	40.0	45.8	14.2	100.0
혼인중단 여성	(72)	61.1	27.8	11.1	100.0

자료: <표 3-13>, <표 7-8>.



[그림 15-6]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

<표 15-7>에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45.8%로 높고, 혼인중단 여성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61.1%로 높다.

<표 15-8>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배우자의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어떤 항목인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은 '혼인경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학력'(25.3%), '가족관계'(24.7%), '나이'(23.5%) 순이며, 혼인중단 여성은 '직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56.8%로 가장 높고, '재산'(47.7%), '소득'(43.2%), '정신적 장애 유무'(34.1%)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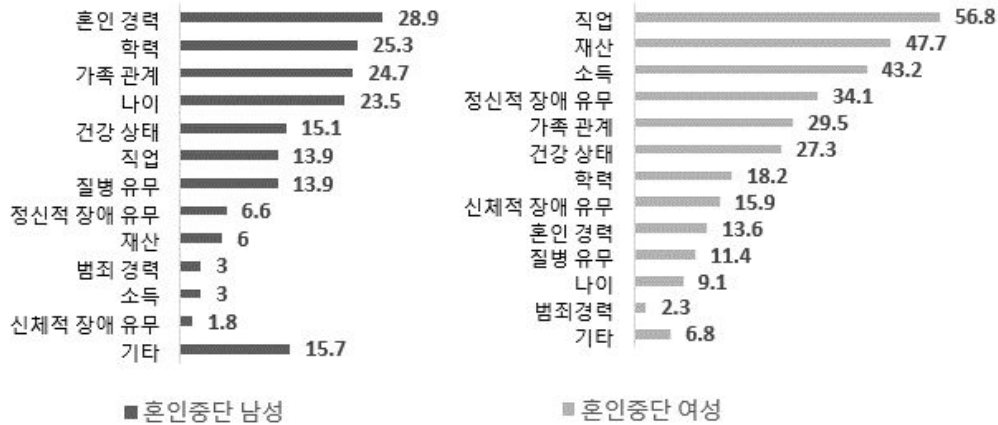
<표 15-9>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배우자의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그로 인해 당시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50.6%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으나, 혼인중단 여성의 65.9%는 갈등이 발생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5-8>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단위: 명, %)

	(N)	혼인 경력	학력	가족 관계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질병 유무	정신적 장애 유무	재산	범죄 경력	소득	신체적 장애 유무	기타
혼인중단 남성	(166)	28.9	25.3	24.7	23.5	15.1	13.9	13.9	6.6	6.0	3.0	3.0	1.8	15.7
혼인중단 여성	(44)	13.6	18.2	29.5	9.1	27.3	56.8	11.4	34.1	47.7	2.3	43.2	15.9	6.8

자료: <표 3-15>, <표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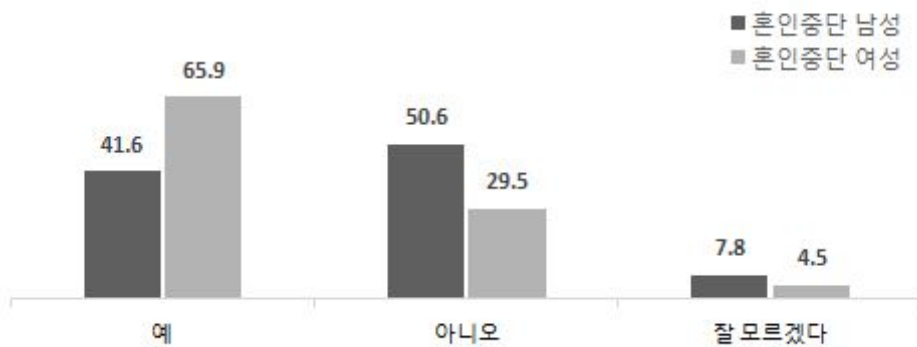
[그림 15-7]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항목(복수응답)

<표 15-9>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단위: 명, %)

	(N)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계
혼인중단 남성	(166)	41.6	50.6	7.8	100.0
혼인중단 여성	(44)	65.9	29.5	4.5	100.0

자료: <표 3-18>, <표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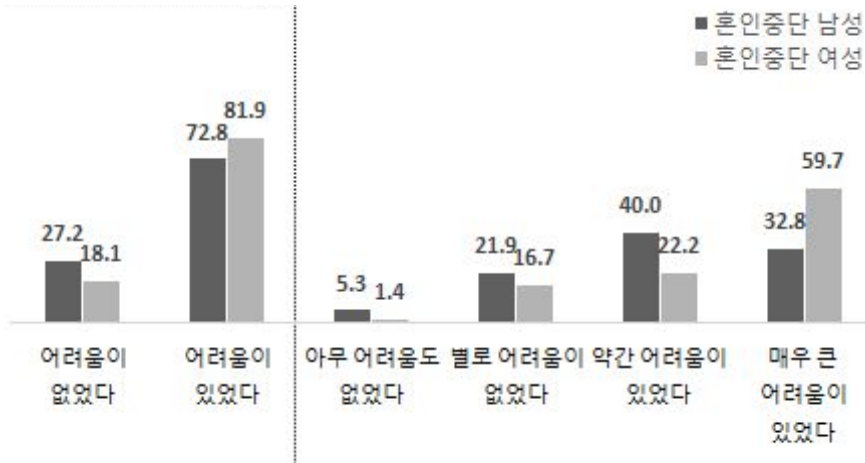
[그림 15-8]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 불일치에 따른 갈등발생 유무

<표 15-10>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N)	①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①+②	③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④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③+④	계	평균(점)
혼인중단 남성	(415)	5.3	21.9	27.2	40.0	32.8	72.8	100.0	3.0
혼인중단 여성	(72)	1.4	16.7	18.1	22.2	59.7	81.9	100.0	3.4

자료: <표 3-22>, <표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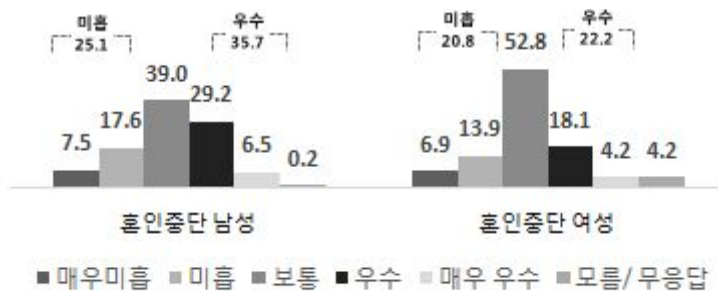
[그림 15-9] 당시 배우자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표 15-11>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단위: 명, %)

	(N)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①+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④+⑤	모름·무응답	계	평균(점)
혼인중단 남성	(415)	7.5	17.6	25.1	39.0	29.2	6.5	35.7	0.2	100.0	3.1
혼인중단 여성	(72)	6.9	13.9	20.8	52.8	18.1	4.2	22.2	4.2	100.0	3.0

자료: <표 3-24>, <표 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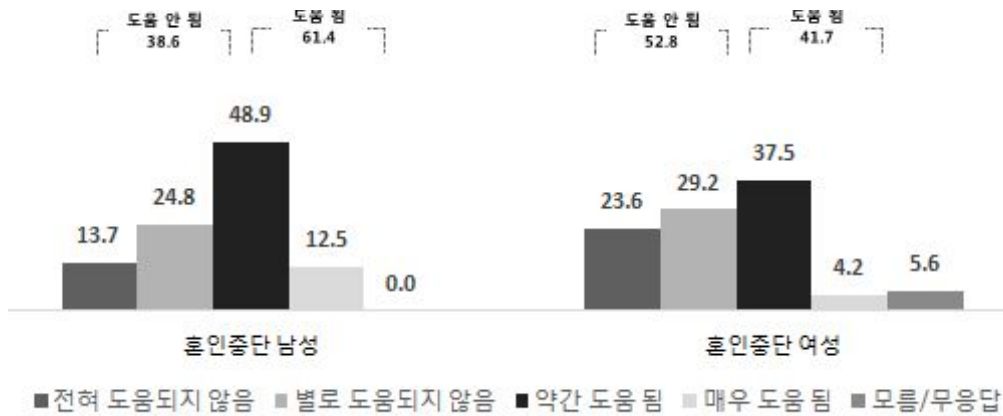
[그림 15-10] 결혼 과정에서 일한 통역인 실력

<표 15-12>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N)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①+②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평균 (점)
혼인중단 남성	(415)	13.7	24.8	38.6	48.9	12.5	61.4	0.0	100.0	2.6
혼인중단 여성	(72)	23.6	29.2	52.8	37.5	4.2	41.7	5.6	100.0	2.2

자료: <표 3-26>, <표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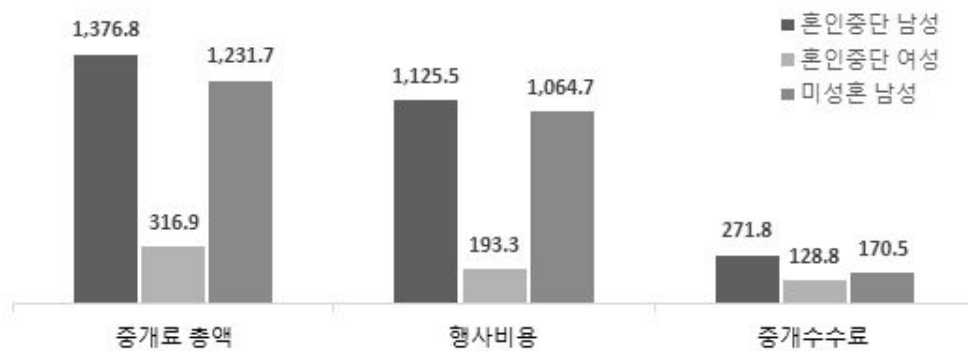
[그림 15-11]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

<표 15-13> 출신국 현지 중개인 또는 현지 중개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평균금액

(단위: 만원)

	(N)	중개료 총액	행사비용	중개수수료
혼인중단 남성	(415)	1,376.8	1,125.5	271.8
혼인중단 여성	(19)	316.9	193.3	128.8
미성혼 남성	(132)	1,231.7	1,064.7	170.5

자료: <표 3-28>, <표 7-21>, <표 11-11>.



[그림 15-12] 출신국 현지 중개인 또는 현지 중개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평균금액

<표 15-10>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당시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72.8%, 81.9%로 높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15-11>에서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일한 통역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모두 ‘미흡(매우 미흡+미흡)’이라는 응답 비율 보다는 ‘우수(우수+매우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혼인중단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우수+매우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표 15-12>에서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은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되었다+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61.4%로 높으나, 혼인중단 여성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높다.

<표 15-13>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옵션사항을 제외하고 납부하기로 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하였다. 중개료 총액은 혼인중단 남성이 가장 많고 미성혼 남성, 혼인중단 여성 순이다.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은 평균 1,451,000원 차이이며, 혼인중단 여성에 비하면 각각 약4.3배와 3.9배이다.

<표 15-14>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당시 옵션사항을 제외하고 납부하기로 한 금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그 중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항목을 추가로 지출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예단비’ 항목은 추가로 지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추가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각 항목별 얼마를 지출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혼인중단 남성에 비해 미성혼 남성의 지출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미성혼 남성은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항목에서 추가 지출액 평균이 2,918,000원으로 가장 많고, 혼인중단 남성은 ‘예단비’ 항목이 804,00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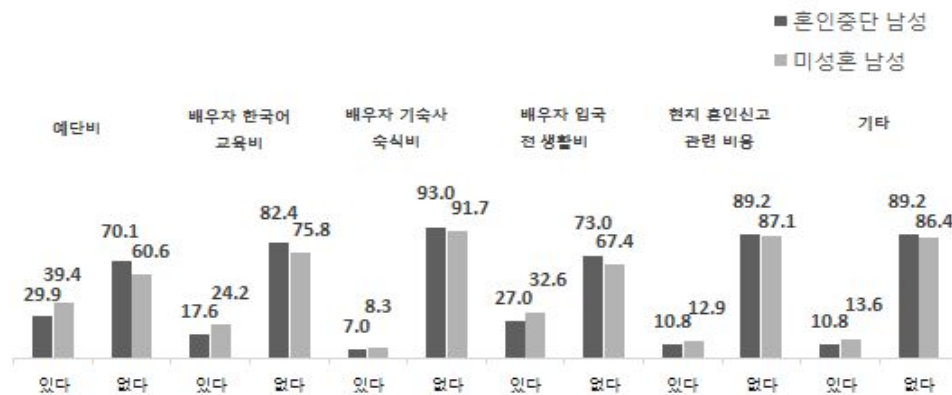
<표 15-15>에서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경우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는 응답 비율이 71.8%로 가장 높으며,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62.9%),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다’(62.4%) 순이다. 또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을 소개해 준 것과 배우자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의라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다. 미성혼 남성은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와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출신국에서 어

<표 15-14>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평균(만원)
예단비					
혼인중단 남성	(415)	29.9	70.1	100.0	80.4
미성혼 남성	(132)	39.4	60.6	100.0	206.2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					
혼인중단 남성	(415)	17.6	82.4	100.0	19.2
미성혼 남성	(132)	24.2	75.8	100.0	129.0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혼인중단 남성	(415)	7.0	93.0	100.0	6.6
미성혼 남성	(132)	8.3	91.7	100.0	140.0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					
혼인중단 남성	(415)	27.0	73.0	100.0	74.7
미성혼 남성	(132)	32.6	67.4	100.0	200.1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혼인중단 남성	(415)	10.8	89.2	100.0	17.2
미성혼 남성	(132)	12.9	87.1	100.0	291.8
기타					
혼인중단 남성	(415)	10.8	89.2	100.0	33.9
미성혼 남성	(132)	13.6	86.4	100.0	257.2

자료: <표 3-30>,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 <표 11-12>.



[그림 15-13] 추가 비용 지출 여부

편 의미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72.2%로 가장 높으며,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70.8%),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69.4%) 순이다. 또한 당시 배우자의 신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의라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다.

<표 15-15> 국제결혼중개업체 서비스 불만 사항

(단위: 명, %)

	(N)	① 아니오 그렇지 않다	②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③ 알면서 그렇게 했다	②+③	모름· 무응답	계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 소개							
혼인중단 남성	(415)	28.2	35.7	36.1	71.8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25.0	50.0	19.4	69.4	5.6	100.0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 소개							
혼인중단 남성	(415)	37.6	32.3	30.1	62.4	0.0	100.0
혼인중단 여성	-	-	-	-	-	-	-
한국에 와서 친정에 송금하는 것만 원하는 여성 소개							
혼인중단 남성	(415)	43.1	30.4	26.0	56.4	0.5	100.0
혼인중단 여성	-	-	-	-	-	-	-
아내가 가사노동 및 생활비 벌어들 것까지 기대하는 남성 소개							
혼인중단 남성	-	-	-	-	-	-	-
혼인중단 여성	(72)	51.4	31.9	11.1	43.1	5.6	100.0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혼인중단 남성	(415)	41.0	27.0	32.0	59.0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23.6	33.3	37.5	70.8	5.6	100.0
당시 배우자의 인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혼인중단 남성	(415)	37.1	36.1	26.7	62.9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22.2	55.6	16.7	72.2	5.6	100.0
당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출신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지 않음							
혼인중단 남성	(415)	41.9	29.9	28.2	58.1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23.6	43.1	29.2	72.2	4.2	100.0

자료: <표 3-37>, <표 3-38>, <표 3-39>, <표 3-40>, <표 3-41>, <표 3-42>, <표 7-25>, <표 7-26>, <표 7-27>, <표 7-28>, <표 7-29>.

제 16 장 국제결혼 부부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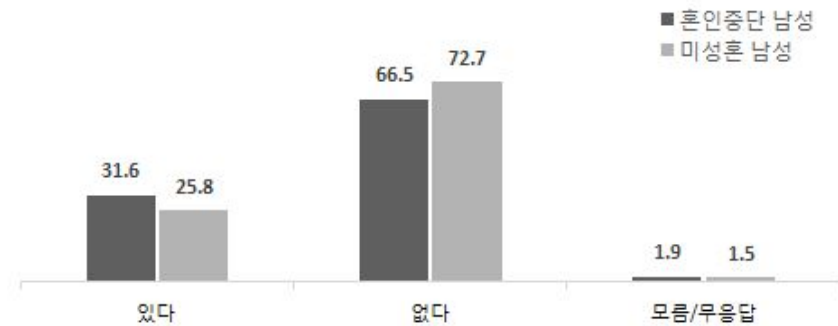
<표 16-1>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인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6.5%, 72.7%로 높다.

<표 16-2>에서는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에게 당시 배우자와 맞선을 위해 어느 나라를 몇 회 방문하였으며, 총 체류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베트남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1.4%, 51.2%로 가장 높고, 혼인중단 남성은 기타 나라를 제외하고 중국(10.1%), 필리핀(8.2%) 순이며, 미성혼 남성은 필리핀(19.0%), 중국(12.4%) 순이다. 방문 횟수는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평균 1.7회이며, 체류기간은 혼인중단 남성이 평균 15.8일로 미성혼 남성(11.3일)보다 약간 길다.

<표 16-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단위: 명, %)					
	(N)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혼인중단 남성	(415)	31.6	66.5	1.9	100.0
미성혼 남성	(132)	25.8	72.7	1.5	100.0

자료: <표 4-2>, <표 12-1>



[그림 16-1] 계약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표 16-2>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단위: 명, %)										
	(N)	베트남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기타	계	방문 횟수 평균 (회)	체류 일수 평균 (일)
혼인중단 남성	(415)	61.4	10.1	8.2	6.5	4.8	8.9	100.0	1.7	15.8
미성혼 남성	(121)	51.2	12.4	19.0	3.3	1.7	12.4	100.0	1.7	11.3

자료: <표 4-4>, <표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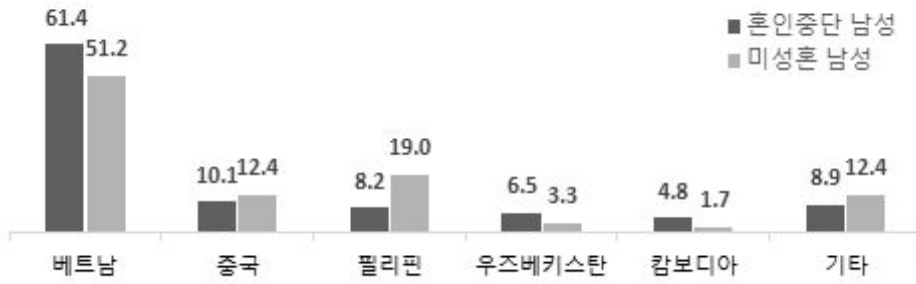


그림 16-2 당시 배우자와 맞선여행을 위해 방문한 나라

<표 16-3> 결혼중개업체 이용 중 경험한 사항

(단위: 명, %)

	(N)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모름· 무응답	계
계약해지 불응						
혼인중단 남성	(415)	12.0	59.8	28.0	0.2	100.0
미성혼 남성	(132)	40.2	46.2	13.6	0.0	100.0
과장 광고						
혼인중단 남성	(415)	40.7	52.8	6.5	0.0	100.0
미성혼 남성	(72)	63.9	23.6	9.7	2.8	100.0
미성혼 남성	(132)	64.4	29.5	6.1	0.0	100.0
맞선 미이행						
혼인중단 남성	(415)	13.5	78.1	8.2	0.2	100.0
미성혼 남성	(72)	27.8	48.6	20.8	2.8	100.0
미성혼 남성	(132)	35.6	59.1	5.3	0.0	100.0
배우자 정보 조작						
혼인중단 남성	(415)	28.7	63.6	7.5	0.2	100.0
미성혼 남성	(72)	61.1	23.6	13.9	1.4	100.0
미성혼 남성	(132)	50.8	39.4	9.8	0.0	100.0
배우자 정보 미확인						
혼인중단 남성	(415)	62.4	33.0	4.6	0.0	100.0
미성혼 남성	(72)	52.8	30.6	13.9	2.8	100.0
미성혼 남성	(132)	70.5	20.5	9.1	0.0	100.0
배우자의 중대 신상정보 미제공						
혼인중단 남성	(415)	38.8	56.6	4.3	0.2	100.0
미성혼 남성	(72)	52.8	34.7	11.1	1.4	100.0
미성혼 남성	(132)	52.3	39.4	8.3	0.0	100.0
추가비용 요구						
혼인중단 남성	(415)	28.4	62.7	8.9	0.0	100.0
미성혼 남성	(72)	26.4	48.6	23.6	1.4	100.0
미성혼 남성	(132)	47.7	42.4	9.8	0.0	100.0
위약금 요구						
혼인중단 남성	(415)	6.3	79.8	13.7	0.2	100.0
미성혼 남성	(72)	12.5	52.8	31.9	2.8	100.0
미성혼 남성	(132)	24.2	62.1	13.6	0.0	100.0
비자대행 부실 진행						
혼인중단 남성	(415)	13.5	77.8	8.7	0.0	100.0
미성혼 남성	(132)	22.7	40.9	36.4	0.0	100.0
입국수속 부실 진행						
혼인중단 남성	(415)	13.0	78.8	8.2	0.0	100.0
미성혼 남성	(132)	18.2	46.2	35.6	0.0	100.0
결혼 후 가솔 조작						
혼인중단 남성	(415)	10.4	79.0	10.6	0.0	100.0
미성혼 남성	(72)	6.9	72.2	19.4	1.4	100.0
이혼 조작						
혼인중단 남성	(415)	9.6	79.8	10.6	0.0	100.0
미성혼 남성	(72)	6.9	70.8	19.4	2.8	100.0

자료: <표 4-10>, <표 4-11>, <표 4-12>, <표 4-13>, <표 4-14>, <표 4-15>, <표 4-16>, <표 4-17>, <표 4-18>, <표 4-19>, <표 4-20>, <표 4-21>, <표 8-4>, <표 8-5>, <표 8-6>, <표 8-7>, <표 8-8>, <표 8-9>, <표 8-10>, <표 8-11>, <표 8-12>, <표 12-4>, <표 12-5>, <표 12-6>, <표 12-7>, <표 12-8>, <표 12-9>, <표 12-10>, <표 12-11>, <표 12-12>, <표 12-13>

<표 16-3>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을 대하면서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은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이 62.4%로 가장 높고, 혼인중단 여성은 ‘과장 광고를 했다’(63.9%),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61.1%),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52.8%),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52.8%) 등이 높다. 또한 미성혼 남성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응답 비율이 70.5%로 가장 높으며, ‘과장 광고를 했다’(64.4%),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52.3%),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50.8%) 순이다.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및 미성혼 남성 모두 그 순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대체로 높다.

<표 16-4>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

(단위: 명, %)

	(N)	약관·계약 사항 설명	배우자 신상 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맞선 이후의 서비스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 관리 서비스	숙소 제공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기타	만족 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계
혼인중단 남성	(415)	0.7	3.1	7.7	4.6	2.4	2.9	2.9	-	2.2	73.5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	6.9	15.3	9.7	-	5.6	4.2	13.9	2.8	38.9	2.8	100.0
미성혼 남성	(132)	-	0.8	3.8	0.8	-	4.5	0.8	-	2.3	87.1	0.0	100.0

자료: <표 4-25>, <표 8-15>, <표 12-14>

<표 16-5>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

(단위: 명, %)

	(N)	배우자 신상 정보 제공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 관리 서비스	환불·손해 배상	약관·계약 사항 설명	추가 비용 요구	맞선 이후 서비스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숙소 제공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기타	불만 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계
혼인중단 남성	(415)	29.4	17.8	9.4	5.3	5.1	4.6	2.7	0.2	0.2	-	5.1	20.2	0.0	100.0
혼인중단 여성	(72)	27.8	-	-	-	19.4	9.7	8.3	1.4	0.0	6.9	8.3	16.7	1.4	100.0
미성혼 남성	(132)	37.9	-	21.2	9.1	6.8	7.6	5.3	0.0	0.0	-	9.8	2.3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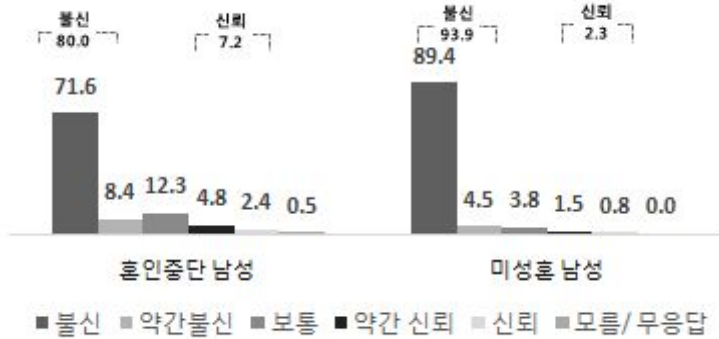
자료: <표 4-27>, <표 8-17>, <표 12-15>

<표 16-6>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정도

(단위: 명, %)

	(N)	① 불신	② 약간 불신	①+②	③ 보통	④ 약간 신뢰	⑤ 신뢰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점)
혼인중단 남성	(415)	71.6	8.4	80.0	12.3	4.8	2.4	7.2	0.5	100.0	1.6
미성혼 남성	(132)	89.4	4.5	93.9	3.8	1.5	0.8	2.3	0.0	100.0	1.2

자료: <표 4-31>, <표 12-17>



[그림 16-3]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정도

<표 16-4>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여성과 미성혼 남성은 ‘만족사항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8.9%, 87.1% 가장 높다. 만족사항이 있는 경우,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은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7.7%, 15.3%로 가장 높고, 미성혼 남성은 ‘숙소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4.5%로 가장 높다. 또한 <표 16-5>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및 미성혼 남성 모두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29.4%, 27.8%, 37.9%로 가장 높다. 그 외에 혼인중단 남성은 ‘불만사항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20.2%로 높고, 혼인중단 여성은 ‘추가비용 요구’(19.4%), 미성혼 남성은 ‘환불·손해배상’(21.2%) 항목에 불만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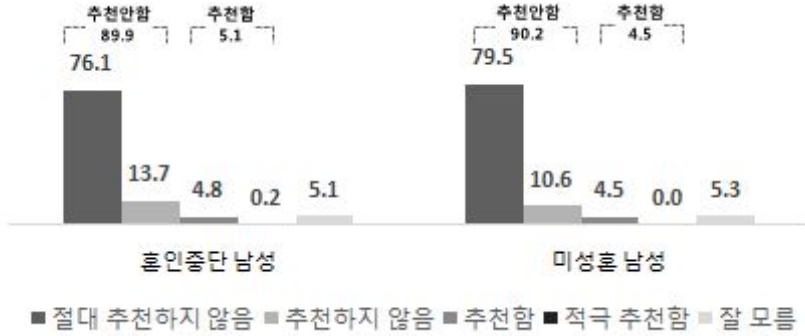
<표 16-6>에서는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에게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불신+약간불신)’는 응답 비율이 각각 80.0%, 93.9%로 압도적으로 높다.

<표 16-7>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단위: 명, %)

	(N)	①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② 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	①+②	③ 추천할 것 같다	④ 적극 추천할 것이다	③+④	잘 모르겠다	계	평균(점)
혼인중단 남성	(415)	76.1	13.7	89.9	4.8	0.2	5.1	5.1	100.0	1.3
미성혼 남성	(132)	79.5	10.6	90.2	4.5	0.0	4.5	5.3	100.0	1.2

자료: <표 4-29>, <표 12-16>



[그림 16-4]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의향

<표 16-8> 국제결혼중개업체 접촉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복수응답)

(단위: 명, %)

	(N)	시간 절약	결혼절차 간소화	원하는 이성 선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	통역·번역 서비스	기타	장점 없음	모름· 무응답
혼인중단 남성	(415)	61.0	62.9	14.9	18.6	19.0	1.4	4.1	3.6
혼인중단 여성	(72)	41.7	45.8	15.3	25.0	34.7	13.9	0.0	5.6
미성혼 남성	(132)	57.6	56.8	19.7	15.9	22.7	0.0	8.3	2.3

자료: <표 4-33>, <표 8-19>, <표 12-18>

<표 16-7>에서는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에게 아는 사람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겠다고 하면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추천하지 않는다(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89.9%, 90.2%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국

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8>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의 장점을 1-2순위까지 선택한 것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은 ‘결혼 절차 간소화’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시간 절약’ 순이며, 미성혼 남성은 ‘시간 절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결혼절차 간소화’ 순이다.

제 17 장 국제결혼 정책 개선 과제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해 맞선 전에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표 17-1>에서 이러한 법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앞장의 결과에서 보듯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며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이 높고, 따라서 불만과 불신의 비율 역시 높다.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불만이 많았던 배우자의 신상 정보 제공에 대한 피해 예방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혼인중단 여성의 경우 현지 사전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표 17-1> 피해의무예방서비스

(단위: 명, %)

	(N)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④+⑤	모름·무 응답	계	평균 (점)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혼인중단여성	(415)	0.2	0.7	1.0	0.7	16.6	81.7	98.3	0.0	100.0	4.8
혼인중단남성	(72)	0.0	2.8	2.8	0.0	8.3	84.7	93.1	4.2	100.0	4.8
미성혼남성	(132)	0.0	0.8	0.8	0.8	14.4	84.1	98.5	0.0	100.0	4.8
통역·번역 서비스											
혼인중단여성	(415)	0.2	0.7	1.0	3.1	29.4	66.5	95.9	0.0	100.0	4.6
혼인중단남성	(72)	0.0	0.0	0.0	4.2	18.1	72.2	90.3	5.6	100.0	4.7
미성혼남성	(132)	0.0	1.5	1.5	1.5	23.5	72.7	96.2	0.8	100.0	4.7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혼인중단여성	(415)	0.2	0.5	0.7	4.6	23.1	71.6	94.7	0.0	100.0	4.7
혼인중단남성	(72)	0.0	1.4	1.4	8.3	25.0	61.1	86.1	4.2	100.0	4.5
미성혼남성	(132)	0.0	0.0	0.0	6.1	12.9	80.3	93.2	0.8	100.0	4.7
집단합선 금지											
혼인중단여성	(415)	2.4	7.2	9.6	13.3	28.9	48.0	76.9	0.2	100.0	4.1
혼인중단남성	(72)	9.7	8.3	18.1	8.3	11.1	58.3	69.4	4.2	100.0	4.0
미성혼남성	(132)	2.3	6.8	9.1	15.9	25.8	49.2	75.0	0.0	100.0	4.1
휴업·폐업 신고											
혼인중단여성	(415)	0.2	1.2	1.4	5.8	28.9	63.9	92.8	0.0	100.0	4.5
혼인중단남성	(72)	1.4	8.3	9.7	16.7	22.2	47.2	69.4	4.2	100.0	4.1
미성혼남성	(132)	0.0	0.0	0.0	6.1	18.9	74.2	93.2	0.8	100.0	4.7
미성년자소개금지											
혼인중단여성	(415)	1.0	0.5	1.4	4.8	23.1	70.6	93.7	0.0	100.0	4.6
혼인중단남성	(72)	2.8	0.0	2.8	2.8	11.1	79.2	90.3	4.2	100.0	4.7
미성혼남성	(132)	0.0	0.8	0.8	3.0	21.2	74.2	95.5	0.8	100.0	4.7
계약서 등 5년간 보존											
혼인중단여성	(415)	0.2	1.7	1.9	4.1	27.2	66.7	94.0	0.0	100.0	4.6
혼인중단남성	(72)	4.2	2.8	6.9	8.3	16.7	63.9	80.6	4.2	100.0	4.4
미성혼남성	(132)	0.8	2.3	3.0	3.8	19.7	72.7	92.4	0.8	100.0	4.6
현지사전교육											
혼인중단여성	(415)	8.4	9.9	18.3	17.6	29.9	33.3	63.1	1.0	100.0	3.7
혼인중단남성	(72)	0.0	1.4	1.4	1.4	12.5	84.7	97.2	0.0	100.0	4.8
미성혼남성	(132)	13.6	18.2	31.8	16.7	31.8	19.7	51.5	0.0	100.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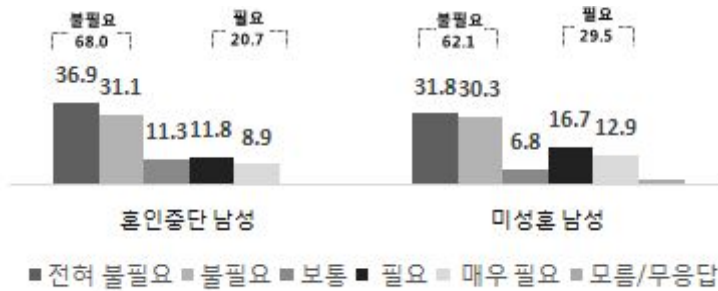
자료: <표 5-1>, <표 9-1>, <표 13-1>

<표 17-2> 국제결혼중개 정책 제도 강화·완화 여부

(단위: 명, %)

	(N)	① 강화 매우 찬성	② 강화 대체로 찬성	①+②	③ 현행 제도가 적정 하다	④ 완화 대체로 찬성	⑤ 완화 매우 찬성	④+⑤	모름· 무응답	계
국제결혼규제 강화·완화										
혼인중단 남성	(415)	36.9	31.1	68.0	11.3	11.8	8.9	20.7	0.0	100.0
미성혼 남성	(132)	31.8	30.3	62.1	6.8	16.7	12.9	29.5	1.5	100.0
결혼이민자 한국어구사요건 제도 강화·완화										
혼인중단 남성	(415)	28.9	20.7	49.6	14.2	18.6	17.6	36.1	0.0	100.0
미성혼 남성	(132)	23.5	21.2	44.7	8.3	23.5	22.0	45.5	1.5	100.0

자료: <표 5-11>, <표 5-12> ; <표 13-10> <표 13-11>



[그림 17-1] 국제결혼중개 정책 제도 강화·완화 여부

정부의 국제결혼중개 정책에 대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일정기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결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표 17-2>에서는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이 정부의 국제결혼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국제결혼 규제 강화(강화 매우 찬성+강화 대체로 찬성)’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68.0%, 62.1% 높으며, 혼인중단 남성이 다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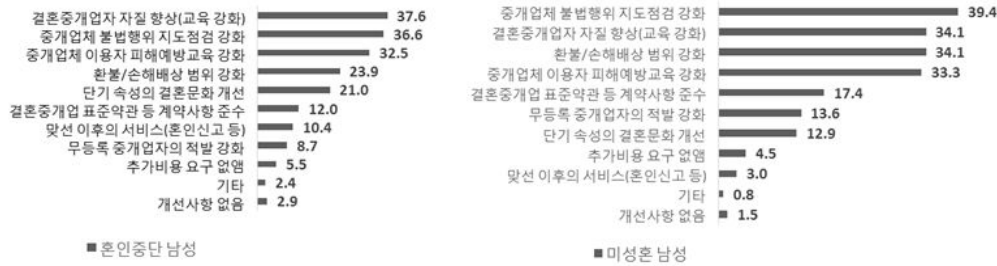
정부의 국제결혼중개 정책에 대해 “결혼이민자가 입국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익히도록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한국문화를 익히는 것이 좋으므로 현행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표 17-2>에서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이 현행

<표 17-3>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개선사항(복수응답)

(단위: 명, %)

	(N)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교육 강화)	중개업체 불법 행위 지도 점검 강화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강화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	단기 속성의 결혼문화 개선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등 계약사항 준수	맞선 이후의 서비스(혼인신고 등)	무등록 중개업자의 적발 강화	추가비용 요구 없음	기타	개선사항 없음
혼인중단 남성	(415)	37.6	36.6	32.5	23.9	21.0	12.0	10.4	8.7	5.5	2.4	2.9
미성혼 남성	(132)	34.1	39.4	33.3	34.1	12.9	17.4	3.0	13.6	4.5	0.8	1.5

자료: <표 5-13>, <표 13-12>



[그림 17-2]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개선사항(복수응답)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강화(강화 매우 찬성, 강화 대체로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49.6%로 높으며, 미성혼 남성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제도 완화(완화 대체로 찬성+완화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45.5%로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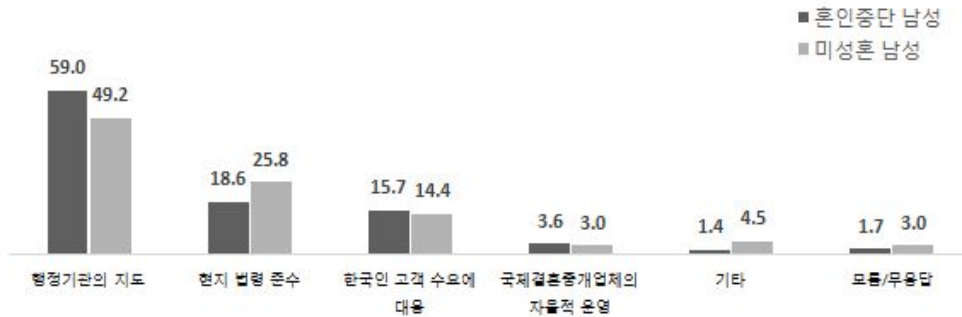
<표 17-3>에서는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에게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1-2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혼인중단 남성은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교육 강화)’이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고, ‘중개업체 불법 행위 지도점검 강화’(36.6%), ‘중개업체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2.5%) 순이다. 미성혼 남성은 ‘중개업체 불법 행위 지도점검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39.4%로 가장 높고,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교육 강화)’(34.1%),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34.1%), ‘중개업체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33.3%) 순이다.

<표 17-4>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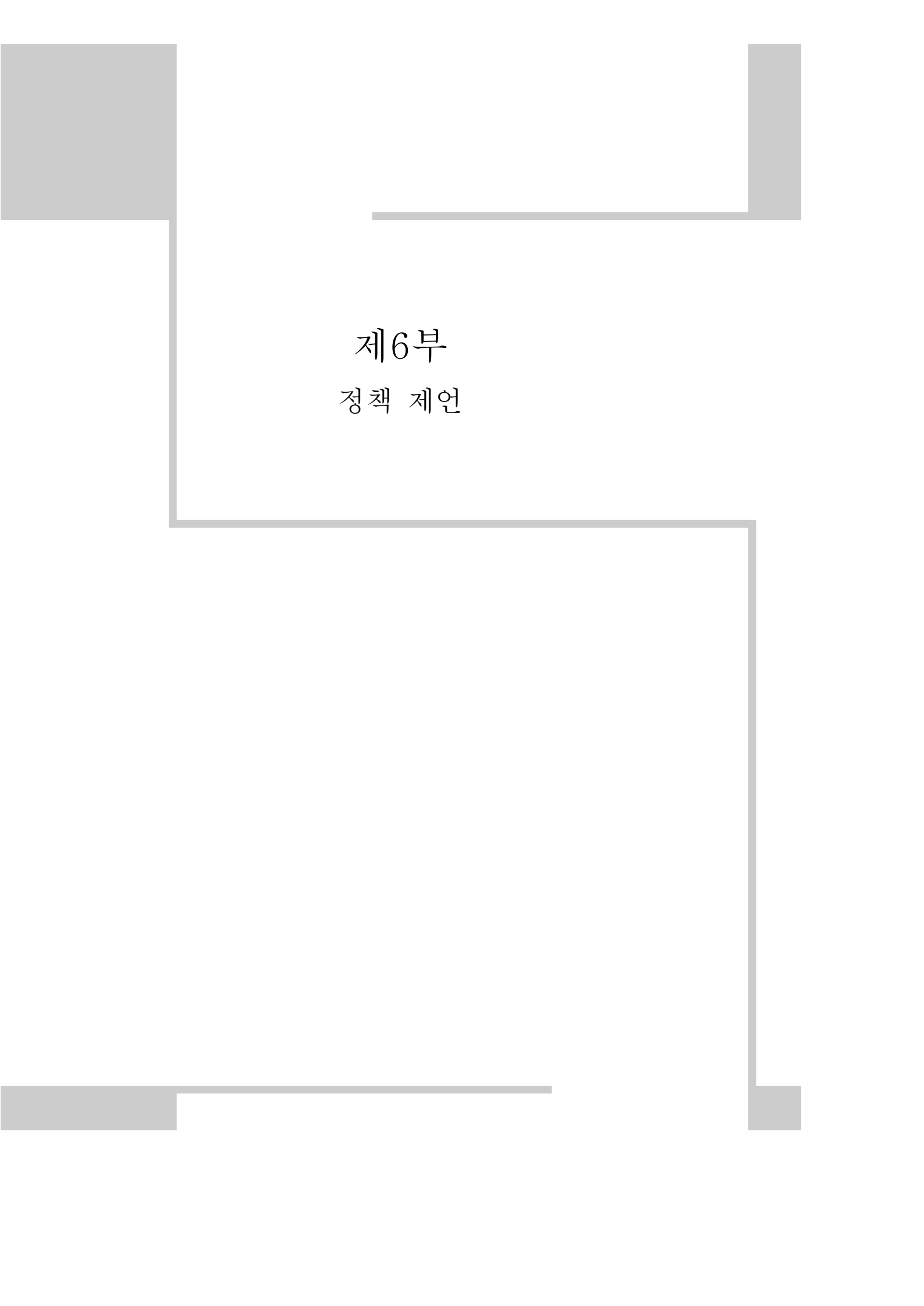
	(N)	행정기관의 지도	현지 법령 준수	한국인 고객 수요에 대응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자율적 운영	기타	모름·무응답	계
혼인중단 남성	(415)	59.0	18.6	15.7	3.6	1.4	1.7	100.0
미성혼 남성	(132)	49.2	25.8	14.4	3.0	4.5	3.0	100.0

자료: <표 5-14>, <표 13-13>



[그림 17-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현재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내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많아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표 17-4>에서는, 그러한 경우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어떤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혼인중단 남성과 미성혼 남성 모두 ‘행정기관의 지도’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9.0%, 49.2%로 가장 높으며, ‘현지 법령 준수’(18.6%, 25.8%), ‘한국인 고객 수요에 대응’(15.7%, 14.4%) 순이다.



제6부
정책 제언

제 18 장 국제결혼 중개업 정책 개선 과제

2015년 12월 7일 서울 구로구 한 다리 밑에서 50대 남성이 베트남 출신 전부인과 친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부인과 수년전 이혼한 그는 6개월간 무직으로 지내는 등 어려움을 겪다, 그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딸 육아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전처가 자신과 위장 결혼했다며, 이혼한 뒤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전부인은 딸을 키우고 양육비는 그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한 후 베트남인과 재혼해 경남 진주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최근 면접교섭권을 통해 딸을 만났다. 이 사건은 위장결혼과 그로 인한 가족 해체가 초래한 비극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 12월 14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 법에 근거하여 2014년에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조사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 명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실제 조사 결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이혼·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이 중단된 사람’(혼인중단자)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였지만 혼인이 성사되지 못한 사람’(미성혼자)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의 조사연구를 보완하는 의미로,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그들의 특성과 태도를 파악하였다.

2014년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이번에 수행한 특별조사 결과는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 모두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 현지 중개인)에 대한 불만과 피해가 큼을 보여준다. 결혼에 성공하였지만 이혼·별거·가출 등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체된 사람이나,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그의 결혼을 중개한 업체(또는 중개인)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시도하였거나 성혼한 자 중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 현지 중개인)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혼인중단에 이르게 된 사유에는 본인, 배우자, 쌍방의 가족 등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례조사에서 혼인지속자, 혼인중단자, 미성혼자, 그리고 피해자의 구성 비율이 모집단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수행하면 표본조사에서 발생하는 구성 비율 할당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응답률이 현저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의 응답

거부율이 혼인지속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번 혼인중단자·미성혼자·피해자 특별조사의 발견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의 국제결혼 정책 개선 전략을 체계화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게 필수적이다. 현행 제도의 몇몇 요소는 국제결혼피해자협회를 비롯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피해자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여성 결혼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와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1.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관제탑(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결성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표방하는 협회들이 여럿 있으나,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할 뿐, 공공의 복리를 추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한 점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담당해야 할 기능은 다양한데, 우선 업체 피해 회원을 위한 보상 규정 마련과 위반 시 제재조치 시행 등이다. 2014년 실태조사(설동훈·한건수·김석호·박순영·심재웅·박종선·심경섭·조은옥, 20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중개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과 관련되어 있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는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과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도한 중개수수료나 위약금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과 관련해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고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정현미·장명선·박귀천·한지영, 2014 참조).

아울러, 정부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에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름만 바꾸어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2014년 실태조사 보고서(설동훈 외, 201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에 폐업한 것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영업을 계

속하는 위장폐업 업체가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국제결혼중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시·도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미등록 브로커의 영업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국제결혼 희망자가 폐업된 업체의 위장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2014년 조사는 물론이고,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들이 단순 소개의 차원을 넘어서서 결혼중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련 운영정보—위장영업 여부, 사실 확인을 통한 피해신고 사례 여부, 우수업체 소개 등—를 총괄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경우, 불량업체를 제거하고 우수업체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역시 총괄 관리 기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내용 및 운영 강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현재 결혼중개업체 건전화 위한 자본금 1억 원의 제한 요건은 영세·부실업체를 탈락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결혼중개업을 양성화하여 불량업체를 늘리려고 한 결혼중개업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자본금 규모만을 통제하기보다는 총괄 관리 기구를 통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체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실질적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결혼중개과정 상의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는 영리를 추구하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결혼중개가 이루어지는 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영리기관(단체)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중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사단법인에 의한 결혼중개제도를 도입한 대만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부정확한 신상정보 제공, 단기 속성 국제결혼 문제 개선

2014년도 실태조사에 이어, 본 조사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심층면접에서도 그 실태가 잘 드러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결혼 성사를 목적으로 결혼 쌍방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 정보를 건네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관행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결혼 여부를 결정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탓에, 결혼 상대방의 필수 신상 정보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신상정보 부실 또는 허위 제공은 부부간 갈등으로, 더 나아가 혼인파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또한 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통역해주지 않거나 본인이 궁금한 사항 역

시 충분히 통역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통역·번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신상정보 전체를 번역하여 결혼중개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문맹인 경우 서면 교부 후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구두 설명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등 부정확한 신상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는 반드시 상대방의 언어로 번역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인에 의한 통역·번역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으므로 의사소통에 장애나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혼 당사자는 쌍방의 정보를 숙독 또는 구두 설명을 청취한 후,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중개업체와 이용자 및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실관계 인식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규정, 즉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결혼이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중개업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더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신상정보 미제공’과 ‘부정확한 신상정보제공’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를 좀 더 확충하는 게 필수적이다.

3. 현실에 부합하는 결혼중개업정책 마련

첫째,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과 관련하여 현지에서의 불법 중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영리 목적의 결혼중개업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 있다. 이 나라들은 상업적 결혼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국제결혼중개를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지법령준수’와 관련된 부분은 수용국과 송출국간 법제도적 협력 없이는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고,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법적 규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의 불법중개를 최대한 방지하고, 국내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중개업법 제11조와 제14조의2 제1항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제휴

업체 계약 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사항에 현행법 제12조의2의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에 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인권침해적인 중개과정이 현지 업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여야 한다(정현미·장명선·박귀천·한지영, 2014).

셋째,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적 규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는 맞선 전에 제출하는 신상 정보 중 하나로 ‘미혼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의 경우 ‘미혼증명서’는 혼인신고 때 필요한 서류로,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주민등록지 행정기관에 함께 출석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혼 전에는 발급받기가 불가능한 서류를 맞선을 보기 전에 교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제결혼중개업체와 현지 중개인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F-6) 비자 요건 중 하나로, 한국어능력시험 통과 또는 현지 지정문화원에서 한국어·한국사회이해 강의를 수강하도록 요구한 것도 결혼이민자의 입국 시기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중개업체는 한국어 시험 통과를 위해 지체되는 기간에 여성의 변심, 일탈행위 등이 발생한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 학습을 위한 세종학당 등록과 통학에 어려움이 많으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정책적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당초의 정책 의도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제결혼 중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정책 개발

국제결혼 중개 피해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둘 다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련 정책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이 개발되고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긴급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다누리콜센터’가 7개가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위한 ‘이주여성쉼터’가 25개소가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물론이고, 이 기관들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남성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즉 상담을 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은 전혀 없다. 배우자 미입국 또는 입국 직후 바로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 한국인 남성은 혼인무효소송 또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즉, 국제결혼중개 피해를 입은 한국인 남성들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설

립하거나, 아니면 기존 기관에서 그 기능-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기가족사례관리사업을 강화하여 혼인중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기개입과 피해구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부당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에 실패한 남성의 경우 5년 내에 재 결혼이 금지되는 규정은 국제결혼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결혼이민자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5.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결혼당사자 대상 교육·홍보

국제결혼에 대하여 환상을 갖고 있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민 여성이 적지 않다. 그들의 경우, 결혼하자마자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 결과 엄청난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그 원인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실한 정보 제공이나 기타 서비스의 미비에서 찾는다. 그것뿐 아니라 본인이 가졌던 허황된 기대가 문제의 원인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 환상을 깨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다. 국제결혼 실태조사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국제결혼당사자 대상 교육과 홍보의 기본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강의, 책자뿐 아니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결혼당사자 대상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대상자별 교육내용 구성·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업체 직원 교육 강화: 결혼중개는 인권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내실화하는 한편,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 결혼중개업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회원의 권리, 국내외 관련 법률, 국제결혼중개 피해사례 및 성공사례 소개, 그리고 경영상의 노하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깊고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2) 한국인 국제결혼 희망자를 위한 사전교육 개선: 국내의 국제결혼 희망자 대상 사전교육에서 국제결혼의 결혼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한국인과 혼인하여 이주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의 동기가 본국의 가족을 지원하려는 경제적 목적,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

조해야 하며, 중개업체나 정부 누구도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국제결혼 피해자 중에는 자신이 원했던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결혼이민자를 보면서 그 원인을 중개업체의 잘못으로 인식하거나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를 국가가 방관한다며 화살을 정부와 국제결혼 관리 주체에 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혼인중단 이주여성 심층면접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배우자인 남성의 욕구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등, 여성을 본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서, 배우자를 동반자로 존중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결혼에 대한 준비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 교육 내용과 실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 사전교육 개선: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 자격 취득 후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그것은 성공적인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어 능력 향상이 필요해서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나라별로 세종학당의 위치가 수도나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6개월 이상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비와 체류비 등이 필요하고, 이는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에 입학할 수 없어서 수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신부의 빠른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신부는 입국이 불가능해지고, 학습 기간도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이미 혼인신고를 한 여성이 현지의 남성들과 교체하는 경우도 많고 그 과정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취지는 옳으나, 현지에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주요 송출국에서 민간기관이 결혼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 내 생활과 이민자 인권 등에 관한 사항을 하루에 교육 받도록 하는 현지 사전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과 유리되어 있는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도 이민자의 권리와 한국 생활 등을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교육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이는 게 필수다.

(4) 일반국민 대상 국제결혼 이미지 개선 홍보: 국제결혼의 급증과 더불어 국제결혼의 다양한 피해사례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반감 형성 등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 역시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자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배우자가 누구인가, 어느 나라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결혼중

개 피해예방, 올바른 결혼 절차 이행 등을 위해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 스스로도 국제결혼중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6. '2017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방향 설정

조사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명부 확보와 응답률 제고:** 조사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그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그 이용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기획하고 수행하였지만, 명부가 부실할 뿐 아니라, 업체와 이용자의 응답 거부가 잇따라 결국에는 표본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후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가 조사대상 업체와 이용자 명부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결혼중개업법에 의거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17개 시·도에 '등록'하고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중개업법규를 개정하여, 표준화된 등록과 운영상황 보고 서식을 만들어 각 시·도에 제공하는 한편, 그 서식에 의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 시스템이 완성되면,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기본적 정보는 실시간으로(월간, 연간) 집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각 시·도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실태조사의 명부가 한층 더 정확해질 것이다.

둘째,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는 혼인중단자와 미성혼자, 그리고 국제결혼중개 피해자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여 최근 3년 사이에 결혼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 그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혼·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이 중단된 사람들을 찾아내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확률표본을 구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수다. (가칭)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자 지원 기구'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명부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게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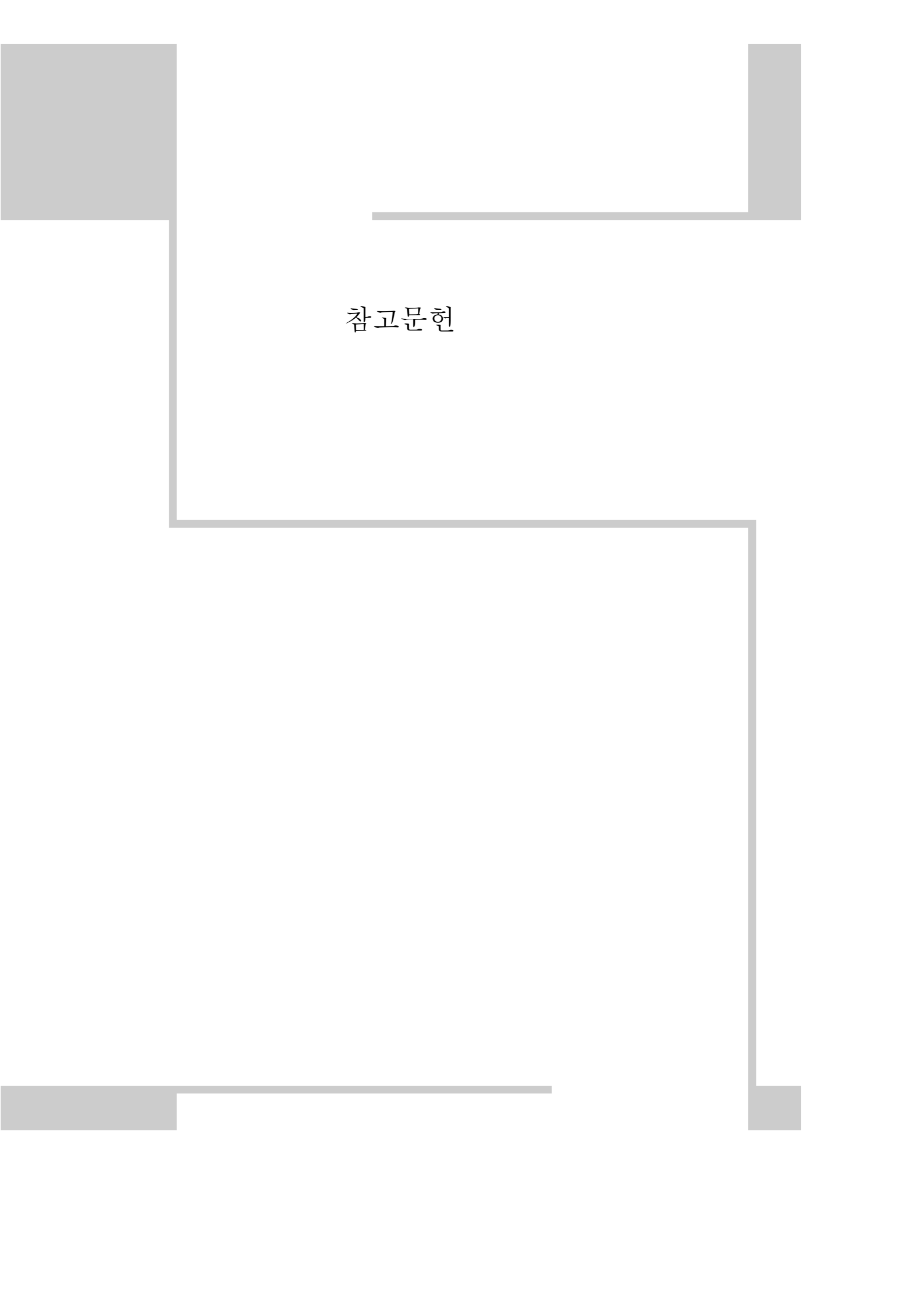
혼중개업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더욱이, 본인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였지만 혼인이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¹⁾ 그래서 2015년 조사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를 질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질문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였다(부록 1, 부록 2, 부록 3 참조). 이와 같은 형태로, 문항을 개선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존 실태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문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술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기존 조사 결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항과의 관계 설정도 필수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는 조사 시행 목적이 뚜렷이 구분되지만, 조사 대상이 일부 중첩된다. 그러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는 이상,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규모로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조사대상이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라는 점은 동일하므로,²⁾ 공통 문항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공통 문항은 ‘다문화가족 전체’와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내어 문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1) ‘조사지침’을 이용하여,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린 경우는 조사대상 사례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2014년과 올해 조사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이민자의 미입국 등의 사유로 혼인무효가 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들은 미성혼자로 간주된다.

2) 그러나 그 두 조사는 조사의 표적집단(target group)이 다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이민자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는 한국인 이용자에 초점을 둔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현웅·김현미·소라미·김정선·김재원. 2005.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베트남·필리핀 현지 실태 조사』.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 김두년·신용목·이정환. 2010.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여성가족부.
- 김윤태·설동훈. 2005.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중소연구》 29(3): 143-187.
- 르티퀴(Lc Thi Quy). 2014.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의 관점에서 본 현재 베트남여성의 결혼이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여성가족부·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편, 『2014 한-베 국제결혼·다문화정책 토론회』.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pp. 15-18.
- 문미경·오은진·배호중. 201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소비자원. 2010. 『국제결혼중개업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가족부.
- 설동훈. 2010. “결혼중개업.” 입법지식DB 현안보고서. 국회도서관.
- 설동훈. 2012. “결혼중개업.” 입법지식DB 현안보고서. 국회도서관.
- 설동훈. 2014. “국제결혼과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전망.” 여성가족부·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 편, 『2014 한-베 국제결혼·다문화정책 토론회』.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pp. 10-14.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김현미·한건수. 2005.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중개업자: 심층면접 노트』.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임경택. 2005. 『일본의 국제결혼중개회사 관리체계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연구』.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설동훈·임경택. 2006. “일본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체계.” 《지역사회학》 8(1): 179-212.
- 설동훈·한건수·김석호·박순영·심재웅·박종선·심경섭·조은옥. 2014. 『2014년 국제결혼 중개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신용목·최영호·고광엽·최난주·이선동. 2007. 『결혼중개업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201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편. 2014. 『2014 한-베 국제결혼·다문화정책 토론회』.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2014·11·19)

이주여성인권포럼. 2010. 『문제는 다시 국제결혼 중개업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주여성인권포럼.

이현옥. 2010. 『미국의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과 논쟁』. IOM이민정책연구원.

정현미·장명선·박귀천·한지영. 2014. 『결혼중개업 법·제도에 대한 사회통합적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조영희·임동반·요코 요시다·슈친 그레이스 쿠오·도 띠 메이 한·폴다 미라 로마·텔 핀루. 2013.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한국·대만·일본·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IOM이민정책연구원.

최은실·손성락·신국범·김혜진. 2009.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실태 연구』. 한국소비자원.

최현태. 2011.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과 정책연구>> 11(1): 91-114.

한건수·설동훈. 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2013.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위한 소비자분쟁 예방가이드』. 한국소비자원.

Seol, Dong-Hoon. 2006. “Marriage, Migration, Market, and State: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ies in Korea and Their Regulation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itle of *Global Householding: A Comparison among High-Income Economies of East Asia*, co-organized by the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Project, Hokkaido University, and the Globalizat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okkaido University Conference Hall, Sapporo, Japan, February 7-8, 2006.

Seol, Dong-Hoon. 2014. “Tình hình hiện nay và triển vọng trong tương lai của kết hôn quốc tế và gia đình đa văn hóa.” Pp. 13-20 in *Hội thảo Chính sách kết hôn quốc tế Hàn-Việt và đa văn hóa*, organiz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ietnam. Ngày 19 Tháng 11 Năm 2014, Khách sạn Hà Nội Daewoo.

부록

- 부록 1. 혼인중단 남성용 질문지
- 부록 2. 혼인중단 이민여성용 질문지
- 부록 3. 미성혼 남성용 질문지
- 부록 4. 혼인중단 남성용 심층면접조사표
- 부록 5. 혼인중단 이민여성용 심층면접조사표
- 부록 6. 미성혼 남성용 심층면접조사표

English Abstract

Survey of Customers and Victims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in Korea 2015

Principal Investigator: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vestigators: Geon-Soo H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ung-Mi Lee (Woosuk University)
Kyoungsub Shim (Hankook Research)

Through surveying Korean male users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gency and female marriage-immigrants, this research aims at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It provides comprehensive ground materials for policy makers that can be used to prevent victims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generate appropriate international marriage environments. It is a special report on the terminated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spouses, mainly caused by divorce, separation and runaway, to serve as an addendum to the *Survey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Korea 2014*.

The research examines three groups of subjects: Korean male users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gencies with terminated marriages (415 people), females who marriage-immigrated to Korea through brokerage agencies with terminated marriages (72 people), and Korean male users of brokerage agencies who were unsuccessful in marrying (132 people). The report provides an overall survey of the subjects, followed by in-depth interviews of selected individuals. Th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between October 16 and December 10, 2015.

The result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ed. For the Korean male respondents, their marriage terminations are caused by “divorce” (56.1%), “separation” (20.7%), and “runaway” (23.1%). The subjects are mostly aged between 40-49 (57.8%), with their highest education being “high school” at 53.7%, and “university or higher” at 35.9%. Their employments are mainly “wage working” (62.7%), with their average monthly payment being 2,000,000-2,990,000 won at 35.7%, and below 1,990,000 won at 18.1%. Users replied that they were informed of a contract before signing it, but only 65.8% recipients stated that there was

information about compensation. On their conflicts with former marriage immigrant wives, they replied the most critical is “running away from home/prohibition of leaving home, e.g., hiding passport” (50.6%), with “communication problems” (47.0%), “negligence in household chores” (45.1%), “sexual problems” (34.9%), and “affairs related to parents and relatives of wife, e.g., parent’s invitation, sending money to her home country” (32.8%) following respectively.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their international family break-up are “the spouse’s extramarital affair” (25.5%), “sending money to the wife’s family” (25.3%), and “cultural differences” (24.3%).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international family break-up are mostly aged over 35 (63.9%), below junior high school graduates (56.9%), and employed (76.4%). They are mostly either divorced (73.6%), or separated/ran away (26.4%). Regarding conflicts with former husbands, the most critical ones are “communication problems” (73.6%) and “economic problems and living expenses” (73.6%), followed by “verbal abuse, profanity, physical violence” (70.8%), and “child rearing and educational problems” (52.8%).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their international family break-ups are “the spouse’s extramarital affair” (25.5%), “sending money to family” (25.3%), and “cultural differences” (24.3%).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international family break-ups are “husband’s economic incompetence” (33.3%), “abuse and violence” (30.6%), and “conflicts with husband’s parents, sisters, and brothers” (29.2%).

The Korean male users with unsuccessful international marriages were mostly denied “at the time of the wedding ceremony or later” (65.9%) and “at the time of the arranged meeting or prior” (34.1%). They are mainly aged 40-49 (59.8%), and either “high school graduates” (56.1%) or “university graduates or higher” (43.9%). Their employments are mostly wage working (57.6%), with their average monthly payment being 2,000,000-2,990,000 won at 31.1%, and under 1,990,000 won at 12.9%.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their failed attempt at marriage are “non-entry to Korea, or ran away right after entry” (18.9%), “irrational request by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gencies” (16.7%), “denial of marriage by the patterner” (10.6%), and “incorrect information on the patterner” (10.6%).

저자 약력

설동훈(薛東勳, Dong-Hoon Seol):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메일: dhseol@chonbuk.ac.kr

인터넷 홈페이지: <http://dhseol.com.ne.kr/index.html>

경력: 고용이민연구센터 이사장, 한국조사연구학회 부회장, 한국이민학회 부회장.

연구: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2015), “Dynamics of Ethnic Nationalism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Nation and Its Otherness since the Late 1980s” (2014),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On the Focus of Immigration Requirement and Incorporation to Korean Society” (2014), 『2014년도 국제결혼 중개 실태조사』(2014),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2014), “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2012), “Foreign Women’s Life and Work in the Entertainment Sector of Korea from the Human Trafficking Perspective” (2011),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2011), *Korean Migrant Women in Entertainment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2009), 『해외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 실태 연구보고서』(2008),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006)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in Women in Korea: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measures” (2004), “South Korea: Importing Undocumented Workers” (2004),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2003), 『외국인 여성 엔터테이너의 일과 삶』(2003) 등.

한건수(韓健洙, Geon-Soo Han):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메일: yoruba@kangwon.ac.kr

경력: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한국이민학회 부회장.

연구: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2015), 『2014년도 국제결혼 중개 실태조사』(2014), “Foreign Women’s Life and Work in the Entertainment Sector of Korea from the Human Trafficking Perspective” (2011), *Korean Migrant Women in Entertainment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2009), 『해외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 실태 연구보고서』(2008), 『이주자가 본 한국의 이주정책』(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2007), “Multicultural Korea: Celebration or Challenge of Multiethnic Shift in Contemporary Korea?”(2007),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 적응연구』(2005),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2003), 『외국인 여성 엔터테이너의 일과 삶』(2003) 등.

이승미(李昇美, Seung-Mi Lee):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메일: smlee21@hanmail.net

경력: 여성가족부 지원 ‘다문화가족포럼’ 가족지원분과위원장(2011-201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 민간위원(2012-13년).

연구: “육아휴직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2014), “자녀양육기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상호작용 유형과 유형별 특성”(2013), “외국계기업사례분석을 통한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연구”(2012), “가족정책 성과평가 및 가족정책 과제개발”(2012), “100세사회 가족생활 재설계 및 가족돌봄 지원방안 연구”(2012), “이용자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2011) 등.

심경섭(沈暲燮, Kyoungsub Shim):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3부 차장.

이-메일: ksshim@hrc.co.kr

경력: 고용이민연구센터 이사.

연구: 『2014년도 국제결혼 중개 실태조사』(2014), 『근로자 이동 실태조사』(2013-2014), 『부동산시장 패널조사』(2014), 『자살실태조사: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3),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2010-2012), 『서울시 복지패널조사』(2008-2011),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2010),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2005-2009),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2003) 등.

연구보고 2015-52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인 쇄: 2015년 12월 23일

발 행: 2015년 12월 23일

지 은 이: 설동훈·한건수·이승미·심경섭

발 행 인: 김희정

발 행 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03171
전화: (02) 2100-6374

인 쇄 처: 도서출판 프린트킹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672-01
ISBN: 979-11-86929-18-6